

기호학이론으로서의

의미론서집

On Meaning—Selected
Writing in Semiotic Theory

Algirdas Julien Greimas

주근옥 역

주 근육

충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졸업(문학석사)

대전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졸업(문학박사)

충북대학교 전 시간강사

대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 겸임교수

저서: 「한국시 변동과정의 모더니티에 관한 연구」(시문학사), 「석송 김형원 연구」(도서출판 월인)

시집: 「산노을 등에 지고」(시문학사), 「감을 우리며」(시문학사), 「번개와 장미꽃」(새미), 「바퀴 위에서」(시문학사), 「갈대 속의 비비새」(현대시)

번역: 2014 구조의미론(Structural Semantics), A. J. 그레마스(PDF 전자책), 국회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 업로드

2014 (기호학 이론으로서의) 의미론선집(On Meaning-Selected Writings in Semiotic Theory), A. J. 그레마스(PDF 전자책), 국회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 업로드

2014 정념의 기호학(The Semiotics of Passions), A. J. 그레마스, 자크 폰타니유(Jacques Fontanille) (PDF 전자책), 국회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 업로드

2014 구조언어학과 시학의 관계, A. J. 그레마스(PDF 전자책), 국회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 업로드

2014 미니멀리즘(Minimalism), C. W. 할렛(Cynthia Whitney Hallett), 워런 모트(Warren Motte) (PDF 전자책), 국회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 업로드

2014 민주주의의 전망, 월트 휘트먼(Walt Whitman) (PDF 전자책), 국회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 업로드

2014 오늘날의 신화,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 (PDF 전자책), 국회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 업로드

2014 형식주의 문학논쟁, 우스이 요시미(白井吉見: うすい よしみ) (PDF 전자책), 국회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 업로드

이 책은 리투아니아 출생의 프랑스 기호학자 알지라스 쥘리엔 그레마스 (Algirdas Julien Greimas)의 「Du Sens I (1970)」; 「Du Sens II (1983)」; 「Semiotique et Sciences Sociales(1976)」을 폴 J. 페롱(Paul J. Perron), 프랑크 H. 콜린스(Frank H. Collins)가 영어로 번역한 「On Meaning-Selected Writings in Semiotic Theory(1987)」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차례

차례

서문—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	9
영역자의 서문—폴 J. 페롱(Paul J. Perron)	41
제1장 비교신화학	77
제2장 자연세계의 기호학에 대하여	111
제3장 기호학적 강제의 상호작용	169
제4장 화술문법의 원소(elements)	195
제5장 화술적인 기호학의 문제: 가치의 대상	229
제6장 행위주, 연기자, 그리고 격상(figure)	269
제7장 양태성의 이론에 대하여	289
제8장 존재(내관, being)의 양태화에 대하여	323
제9장 분노에 대하여: 어휘의 의미론적 연구	335
제10장 지식(knowing)과 신앙(believing); 진기한 인식의 우주	363
제11장 기호학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	395
제12장 사회언어학에서의 이론적인 모델에 대하여	415
제13장 사건기록의(eventential) 역사에 대하여	435
제14장 에스노-기호학(ethnosemiotic)의 대상에 관한 반성 역자 후기	453 467

서문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¹⁾

그레마스(A. J. Greimas)는 영어로 번역된 그리고 미국인에게 제공된 프랑스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의 최후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이론가이며, 가장 어려운 그리고 과학성으로 충만이 되어있으면서도 접근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러한 텍스트가 존재함으로써, 모든 관점에서 수학, 상징기호의 논리, 또는 음악이론의 금지된 그러면서도 단언된 영역에서 좌절된 것 같은 것을 교차시키고 있는 경계를 그리고 있는 항상 “휴머니스트”로 보이는 형식화(균등화, 도식, 가변성의 그리고 상수의 비언의지연적인 상징기호)의 그래픽(graphic)으로 아마 돌출할지도 모른다. 그레마스의 관심과 실제적인 연구의 전체적인 범위를 풍부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떠맡고 있는 이 책은 이론의 우수한 가치가 이미 그 안에 그리고 그 텀 상에 있었던 것으로 타고났다. 그레마스의 활동의 장(場)이 우리에게 속한 것임을 분명하게 만들고 있는 그 가치는, 어떤 자연과학 분야와 먼 것이 아닌, 어느 신뢰할 수 있는 문학의 또는 문화비평의 특권이 부여된 영역으로부터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또는 표상 그 자체의 지극히 새로운 그래서 문제가 많은 불확실성으로 우리에게 유도된 현대의(contemporary) 사회과학과 철학의 이러한 영역으로부터도 별개의 것이 아닌, 화술적인, 의미 있는, 담화적인, 관념적인 언외지의(내포, connotation)의 전체적인 영역(terrain)을 점령한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해서 호기심을 갖게 된 국외자가 이러한 개념성을 어떻게 조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따금 배치럼 물으로 끌어올려 놓고 어떻게 그 안의 덕과 시뮬레이션(simulation)²⁾으로 과장하여 행동하는가, 도입의 다양

1) Fredric Jameson(1934~); 미국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출생. 헤이버포드(Haverford) 대학 졸업. 문학비평가, 마르크스주의 이론가. 그는 현대의 문화적인 경향의 분석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조직적인 자본주의의 압박 하의 문화의 파행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을 기술했다. 잘 알려진 그의 저서는 「포스트모더니즘: 근대자본주의의 문화적 논리(Postmodernism: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정치적 무의식(The Political Unconscious)」, 「마르크시즘과 형식(Marxism and Form)」을 포함한다. (역주)

2) simulation: 라틴어 Simulacrum(환영, 위조품, 복수형: -cra)이 기원. "likeness, similarity"를 의미하는데, 다른 사물의, 이를테면 조상(彫像) 또는 회화의, 특히 신의 표상을 위해 사용되어, 16세기 후반 영어에서 최초로 기록되었다. 19세기 후반에, 그것은 실제 또는 기원의 특성이

한 종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내 자신이 그의 정설에 관해 당치도 않을 정도로 냉정하면서도, 뿐만 아니라 중단 없는 진전과 이렇게 새로운 “분야”의 그 약동성에 말려들게 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레마스의 기호학의 동조자임을 고백하며, 어쨌든 신선한 문제를 생산하고 있는 그의 능력과 그때의 절박하고 자극적인 문제는 시발점의 보다 심층의 진실이라고 해서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의 정확(rightness)의 최소 또는 하찮은 것이 아닌 기호로 존재한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기호학(물론 거기에는 많은 또 다른 종류가 존재한다) 진전의 역설적인 순간에 도착했으며, 그 안에서, 20년 후에 비역사적인 것으로 그리고 분석적·과학적 양식을 어떤 부르주아 계급에서 보편화하고 있는 것으로 매도된, 때때로 일종의 탐색의 대통령취임 텍스트는, 이제 그 자신의 역사상에 단지 반영만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침윤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포화상태의 관점에서 그리고 수확체감의 순간에 수정된, 게다가 그것이 일부였던 것의 확장(enlargement)과 전체적인 개념 영역의 적응의(適從, sub-sequent) 수정을 요구하는 것을 입증하는, 진전의 그리고 논리적인 개념인 약동성의 바로 그 내재논리의 보다 심층의 역사성을 발견한다. 그레마스 기호학이 담고 있는 영향력은, 열정적인 그리고 독창적인 어떤 방식으로, 개념이 데이터를 낳고, 그들의 바로 그 영적인 실재(실체, essence)로서의 역사적인 것으로—아니, 저런, 달력의 가공하지 않은 그러면서도 복잡한 연표로 존재하지만, 기호학적인 문제의 영역 그 자체의 전개된 것으로서의 내재성의 달력으로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은 철학자의 사고(어떤 젊은이, 즉 헤겔 또는 마르크스의, 또는 전향 전후의 하이데거의 사상)의 이전 “피리어드(period: 악보의 “articulation→phrase→period”의 상위의 그룹핑을 상상하라. -역주)”와 매우 다른 어떤 것으로 존재한다. 내재의 데이터도 아니고 내재의 연대기적인 유표(chronological mark)³⁾도 아

없는 이미지로서의 패러다임의 아강(亞綱)처럼 두 번째 결합으로 부풀어 커졌다.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은 예술의 시뮬레이크럼으로서의 포토리얼리즘(사진처럼 사실적인 회화·조각의 스타일)을 제공하는데, 회화는 실재의 복사 그 자체로 존재하는 그 사진을 복사하는 것으로 창조된다. 다른 예술은 “트롱프뢰유(trompe-l'oeil; 캔버스에 얇게 간 모래에 정밀하게 묘사하는 기법),” 팝 아트, 이탈리아의 네오리얼리즘, 그리고 프렌치 뉴 웨이브(French New Wave)와 함께 활동하는 것을 형성한다. (역주)

3) 유표(有標: marked)·무표(無標, unmarked)의 개념은 1930년대 프라하학과 트루베츠크이(Nikolai Sergeevich Trubetskoï, 1890~1938), 야콥슨(Roman Jakobson, 1896~1982) 등이 사용한 것으로 최근에는 유표화이론(有標化理論: markedness theory)으로 발전하였다. 대답하는 두 언어요소는 한쪽은 중성적이고 다른 한쪽은 적극적이다. 전자를 표시되지 않은 것, 즉 무표라 하고 후자를 표시된 것, 즉 유표라 한다. 예를 들면 영어는 boys-boy, birds-bird 등의 복사·

년 이것은 그저 어떤 막연히 잠정적인 것의 텀으로, 다시, 초기에 가인의 위치(place)를 획득하고 있는 보다 “엄밀한” 형식화로 생각될 뿐이다. 그레마스의 저서에서, 모든 형식화(초기와 후기)는 그들 스스로 “타당한(valid)” 어떤 의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상의 그들의 명료성이 각각의 “순간”의, 전체로서의 불확실성의 그 순간의, 형상(shape)의, 예리한 자각 없이 불완전하게 존재하며, 그리고 전문적인(기술적인·기교적인; technical) 텀이 빛나는 삶과 함께 맥동(脈動)하는 것 안에서 은하계를 폭파하고 있는 이렇게 특이한 삶의 사이클을 지시한다.

나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레마스의 “특성(genius, 그의 이지의 특권이 부여된 형식)”이 항상 문제영역 그 자체의 이러한 편향적인 진전의 바로 그 의외의 의미 안에, 그리고 그가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사물을 어떻게 수정하는가를 보여주는 특히 “실행되는 미래의 소행” 안의, 지금 실행되는 미래의 소행—불확실성 그 자체의 이러한 의외의 영속적인 현시점에서의 언외지시를 지시하는, 이것을 또는 그 응고를 또는 편협한 분석을 정위하는 것 안의 고압적인 “교훈(lesson)” 안에, 놓인 것으로 보았다고 언급하는 것으로서의 다양한 언어로 표현할 것이다. 대단한 이론도 아니고 대단한 철학도 분명히 아닌 이것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며(크리스티앙 메스가 영화이론에서 유사한 정향을 점령할 수 있었기는 하지만, 그리고 어떤 의외의 생산적인 순간에 유사한 어떤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⁴⁾ 그것은 예언의 문제도 아니고, 숙명론적인 그리고 극한의 매우 명석한 의미(“결국 우리는 다시 본성의, 또는 ‘자각’으로 호칭되어 사용된 것의 기초 또는 상부구조”의 문제와 직면하게 될 것이다)도 아니다. 또한 그것은, 내 견해로는, 탐색의 복합영역의 이 “대가”의 감독 하에, 게다가 탐색의 복합 텀포와 감독 밑

단수의 대립을 보이는데, -s로 복수를 표시한 것을 유표라 하고 단수를 무표라 한다. 이것을 추상적으로 적용하면 dog와 bitch의 대립의 경우, 후자는 특히 암캐를 나타내므로 유표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표의 형태가 훨씬 더 일반적인 의미를 지니며, 유표화한 형태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역주)

4) Christian Metz(1931~1993): 프랑스의 영화평론가. 소쉬르의 기호학이론을 영화에 적용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영화비평의 논문은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심리학과 라캉(Jacques Lacan)의 거울이론을 영화에 적용한 것이다. 그것은 영화이론이 실재성의 자동이화(雌雄異花, imperfect)의, 즉 미완성의 반성이 될 능력이 있는 예술형식으로, 그리고 무의식의 몽상상태로 정사(精査, delve)하는 방법으로, 대중화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저서로는 「영화언어: 영화 기호학(Film Language: A Semiotics of the Cinema)」, 「허수의 시니피앙: 정신분석과 영화(The Imaginary Signifier: Psychoanalysis and the Cinema)」, 「언어와 영화(Language and Cinema)」가 있다. (역주)

의 변화가 많은 실험의 사소한 점에 관한 그의 끈기 하에, 작동하여, 권위와 권위주의를 간파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것은 새로운 테제의 일반원칙을 분배하고 있는 그래서 창의력이 풍부한 발명의 물질로 정확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제자의 원기 같이 고집이 센 그리고 독단적인 채널링(channeling)⁵⁾이 몽상가의 마음과 밀접한(그리고 그의 투기를 최소한으로 위협하는) 그래서 샛길로 빠진 것과 같다. 여기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기껏해야, 헤겔이 “사상(事象) 그 자체(die sache selbst)”로 그리고 그것의 객관적인 약동성과 경향(tendencies)으로 호칭했던 것일 뿐이다. 그레마스의 감독자의 지위(superintendence)는 이러한 것들 앞의 자신을 소멸시키는 것이며, 그들이 성숙하는, 그리고 아종(亞種)적인 것으로 분열하는, 한결같지 않은, “반자동적인(semiautonomous)” 관자놀이-시간적인 것(temporality)이 되는 순간에, 주의 깊은 끈기로 가르쳐 길들이고 변경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기호학적인 설명의 이 화술적인 독해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안에서 가장 자극적인 방식으로 명백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초심자를 위하여 그것은 최초의 것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보다 더 접근하기 쉬운 다른 방도를 제안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우리가 그레마스에게서 과학과 과학적인 교묘함의 전체 문제를 괄호로 묶고, 우리가 그 이전의 “구조주의”를 또는 “후기구조주의”를 어떤 부호로, 개인 언어로, 당대의 공공영역의 사유공간을 통해서 동조(同調, resonating)하고 있는 수많은 타자들 가운데 사색적이고 개인적인 언어로, 대항함으로써, 그렇게 추종하는 텍스트의 동체(胴體)로 생각한다고 제안할 것이다. 따라서 그레마스적인 기호학의 “개념”을 차라리 분류법상의 아종적인 명명법(nomenclature)으로, 새로운 것으로, 특이한 것으로, 독단적인 것으로, 폭력적인 것으로, 종종 전체공간을 추하게 개명하고 있는 것으로, 다른 명목으로, 이미 친숙해진 대상의 퇴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가설(installation)과 투시도법, 다시 말해서 행위주, 화술적인 계약·응축, 화술프로그램, 동류체, 양태화, 역행대용(cataphora), 그리고 결국 시각적인 즉 눈에 보이는 아티클레이션보다, 새로운 상형문자(hieroglyph, 그때 여러 개로 분절된 기관 같은, 즉 직시, 복합 팀, 중립 팀 등의 그 자체 안에 그것의 용어법을 떠맡고 있는)보다 명목이 적은, 명명(nomination)의 기묘한 행위(기호사각형)로, 그렇게 최초로

5) channeling: 물리학 실험에서, 가속시킨 이온 빔을 단결정(單結晶)에 입사(入射)시킬 때, 그 입사 방향이 결정축에 평행일 경우 입사 이온의 투과율이 현저하게 증대되는 현상. (역주)

생각하기로 하자. 나는 기호와 전체투기의 순간으로서의 이 모든 텀 사이의 개념적인 연결로 포착하지 않고, 또한 우리의 국외자와 투입자(분야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리고 “기호학자가 되는,” 즉 그레마스의 전체부호를 치환하는, 그리고 사이비 종교와 사이비 신, 그만큼의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가 이 모든 것을 브리콜라주(손이 닿는 아무 것이나 이용하여 만드는 일)하는 것을 자유롭게 느끼게 하지 않으면 안 되며, 즉 보다 명백한 언어 안에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또는 매력적인, 그리고 우리의 지적인 동굴로 전리품의 파편들을 빼앗아오는, 다시 말해서 그 조각들을 단순하게 절취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암시의 불성실(현재의 형벌 부호 안에서 그것은 명목 “절충주의”를 낳는다)은, 처음에 보았던 만큼 그렇게 기본적인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이며, 때가 되면, 개념적인 여분의 일부를 합성하는 그리고 도구와 기계장치를 분실한 중앙실험실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 모두의 기초적인 개념, 즉 대통령취임식 연설 같은·용어법적인 복소어(複素語, complex), 명명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 기호 바로 그대로의 언어, 다시 말해서 “의미소(eme)”와 함께 시작하고 있는, 부채꼴의 “어의소(sememe)”와 “어휘소(lexemes)”로 펼쳐지는, “구조의미론”의 최초의 프로그램을 에워싸고 있는 어떤 중심공간을 기술하는 것 같은, 음절의 어리둥절케 할 만큼의 분야변식, 그 어느 쪽이나 해당하는 것을, 열쇠가 되는 나의 텀 또는 좋아하는 신조어(neologism)의 리스트로부터, 나는 빼버렸다. 그러나 이러한 타이틀을 동체(胴體)에 지니고 있는 초기의 저서는 그레마스가 그것의 천착을 시작하고 있는 뒷면의 장소에 절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꼭 나는 믿고 있으며, 또한 나는 의미소 그 자체를 흥분시키고 있는 현학자적인 문제(비록 그레마스적인 기호학의 절대적인 전제와 그 자신의 절차상의 반영이 지고지선의 자기정화로 구성된다고 할지라도)가 최선으로 유예되고 공중부양이 된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이것은 철학적인 복잡성(또 다른 현대 언어이론과의 논쟁적인 그리고 내재결합분야적인 관계)으로 고찰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아중적인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발점[starting point]의 문제에 관해 말한다면, 보다 더 좋게 실제적인 것은 최초의 텍스트 또는 프로프의 민담형태론과 레비스트로스에 의해 권위 있는 비평으로 추종되고 있는 그레마스의 “기호학적인 환원”의 변화 과정이 그것에 종속된, 이러한 기호학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반면에 이러한 기호학의 이탈(departure)의 철학적인 관점과 기호 그 자체의 문제는 최근의 우수한 저서에서 장 프티토-코코르다(Jean Pettitot-Cocorda)에 의해 멋지게 형식화된 어떤 것으로서의 바로 그 자연그대로의 모습 안에서 역설적으로 존재한다. 그레마스의 인식론은 그것의 대상이 의미의 형식인 그 사실의 직접적인 귀결로 존재하며, 바로 그 현존재 안의 의미는 객관화할 수 있는 정의로 존재한다. 의미는 감각이 가능한 현상이 아니다. 의미로서의 그것은 감지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진정한 “기본적인·논리적인 아포리아(aporia)⁶⁾”는 메타언어학적인 그리고 구성적인,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것으로 기초가 만들어진, 그래서 개념적인·기술적인 이론의 이해를 요구한다는데 있다(p. 273).⁷⁾ 이것은 “기호학적인 환원(semiotic reduction)”이 언외지언(verbal) 또는 언어학적인 텍스트를 의미의 보다 더 좋은·기본적인 메커니즘으로 고쳐 쓰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환원되는 “양태화(modalizations)”의 분석에서(단어 “I”는 여기서 강력하게 그리고 조정적인 것으로 사용되기를 원한다), 그것은 그때 요망(wanting), 지식(knowing), 또는 실행(doing; vouloir, savoir, pouvoir)⁸⁾의 보다 더 근원적인 “모드(modes)”로 환원된다. 그러나 그러한 환원이 달성되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른 단어와 다른 의미로, 다른 텍스트로 존재하며, 비록 언뜻 보기에 근원적인 일상의 파톨로, 그리고 궁극적인 언외지언의 몸짓으로 암시될지라도, 그 텅의 세트는 모든 정향변화(定向變化, drift)와 철학과 심리학의, 다시 말해서, 텍스트의 그리고 언어학적이고 개념적인 작용이기는 커녕 그것에 의해서 “환원된” 본래의 언외지언적인 대상보다 정말 더 좋게 복합적인 것의 강력한 영역을 향해 열려 있다. 숙명적인 상호텍스트와 교차하는 그 메타언어가 역행하는 이 무한공간은 매우 잘 알려져 있으며, “우리가 중단에 동의하는 설명(L. 비트겐슈타인)”⁹⁾ 안에 체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

6) 아포리아(aporia)는 철학적인 것 또는 표면상으로는 질문에서 흔히 그럴 듯한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변덕스러운)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전제의 결과가 발생하는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난국으로 존재한다. 또한 그것은 짙짙매어 수수께끼 또는 막다른 골목에서 혼란된 존재의 상태의 외연을 표시한다. 다시 말해서 아포리아의 상태는 자신이 이미 알고 또 믿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회의를 갖게 되어, 갑자기 모든 것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를 접하게 되는 것이다. 위기감, 불안감뿐만 아니라 불쾌감, 위축감마저 느낄 수 있다. 이 아포리아의 변덕은 대개 그리스 철학에서 발견되지만, 또한 데리다(Derrida)와 이리가라이(Irigaray)의 글과 같은 탈구조주의 안에서의 역할의 연기로도 발견된다. (역주)

7) Jean Pettitot-Cocorda, *Morphogenèse du sese*(Paris: PUF, 1985), p. 273. 이 개념은 엘름 슬레우로부터 그레마스가 차용한 것이다.

8) vouloir; wanting(요망), savoir; knowing(지식), pouvoir; being-able(능력). (역주)

는 단어의 구상화(reification)에 의해, 다시 말해서, 어떤 새로운 그리고 특권이 부여된 또는 사색적인 부호 또는 체계의 창조에 의해 정상적으로 “해결된다.” 즉 포착된다. 비록 그것이 그 방법으로 확실하게 고찰될 수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레마스의 기호학이 어떤 종류의 보다 더 좋은 “체계”로 매우 쉽게 오독될 수 있거나, 오해될 수 있을지라도, 정확히 말해서 이것은 그레마스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사람이 풍제(pongé, 누에실로 짠 명주)에 대해 부연 설명하는 것을 “피하는 단어의 증명사(中名辭, 또는 매개념)”가 아니다. 다른 한편, 만약 그것이 도움을 준다면, 우리는 “주제적인 것(thematic; 또는 어간형성모음적인)”의 이완음처럼 느슨함(slack)이 일으키는 전통적인 변덕의 텀 안에서 “의미소”와 “어의소”를, 개념상의 복소어 안에서 심층 주제(theme)의 한 음으로 발음하는 둘이상의 연속자음 같은 한 덩어리(cluster)를, 공식적인 “사고”로 작동하여 하위개념의 원소보다도 작은 입자 같이 더 좋게 분열하는 논리를, 분명히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그때 그 자체는, 철학적인 보고서지만, 요리책 또는 단편소설, 또는 과학 텍스트북 등과

9) Ludwig (Josef Johann) Wittgenstein(1889~1951); 오스트리아 태생 영국의 철학자. 1925~50년 영국 철학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 한 사람이었으며, 논리학 이론과 언어철학에 관한 독창적이며 중요한 철학적 사유체계를 제시했다. 비트겐슈타인은 오스트리아의 뛰어난 제철업자의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이들은 모두 부모에게서 풍부한 예술적·지적 재능을 물려받았다. 부모는 음악적 재능을 지닌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가정에서 음악은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14세 때까지 집에서 교육을 받은 뒤 수학과 자연과학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오스트리아의 한 학교에서 3년간 공부했다. 그 후 베를린에서 2년 동안 기계공학을 공부했다. 1908년에 영국에 있는 항공학연구소에 들어가 대기권 상층부에서 연의 비행을 실험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곧 비행기 엔진을 개발하는 데 쏠리게 되었다. 맨체스터대학교 공학실험소의 연구생으로 등록하여 일하면서 프로펠러의 각 날개 끝에 역추진 제트를 달아보려고 생각했다. 또 그는 실험용 엔진을 고안하여 그 제작을 지휘했으며 시험비행에도 성공했다. 프로펠러의 고안과 관련된 문제들 때문에 그는 수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곧이어 수학의 기초를 이해하려는 욕구에 사로잡혔다. 버트런드 러셀의 저서 「수학원리 The Principles of Mathematics(1903)」는 그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1911년 비트겐슈타인은 맨체스터에서 공학연구를 포기하고 케임브리지로 가서 러셀과 함께 연구했다. 그는 수리논리학 분야의 지식을 매우 빠르게 터득해갔다. 러셀에 따르면 “비트겐슈타인은 내가 가르쳐야 할 모든 것을 금방 알아버렸다”고 했으며, 비트겐슈타인을 알게 된 것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적 모험 가운데 하나”였을 뿐 아니라 “그는 아주 비상한 정열과 통찰력과 지적 순수성을 지닌 인물”이라고 술회했다. 비트겐슈타인은 1913년 내내 케임브리지에 머물면서 논리학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러셀과 기나긴 토론을 하며 지냈다. 그 뒤 노르웨이의 스텔텐으로 가서 논리학에 관한 연구에 전념한 채 은거생활을 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오스트리아 군대에 입대해 처음에는 도하(度河) 부대에 있다가 나중에 포병부대에서 근무했다. 1916년에 러시아 전선에 배치된 곡사포 연대에서 포대관측병으로 복무하면서 용명을 떨쳐 여러 가지 훈장을 타기도 했다. 그 뒤 장교훈련을 받고 포병장교가 되어 1918년 이탈리아 전선의 한 야산포대로 전속되기까지 동부전선에서 근무했다. (역주)

꼭 같은 페이지가 될지도 모르는, 언외지언적인 종류의 어떤 착란적인 실재물 안에서 화신(化身, embodiment, 또는 표출)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체적인 것의 변덕은 만족스럽지 못한데(잠정적으로 실제적인 것일지라도), 그 이유는 그것이 언어학적인 용어법으로부터 의식과 관념의 용어법으로 역행하기 때문이며, 또한 그때 비언어학적인 또는 선언어학적인 의식의 신화학이 대상으로부터 분리된 주체로, 그들의 지시대상으로부터 분리된 “주제(themes)”로, 따라서 그 텍스트로, 그리고 선택적이고 주체적인 문화텍스트의 구체적인 사상(事象)으로, 말하자면 어떤 하나의 “세계(world)”로 불가피하게 정위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은 포크너(William Faulkner)¹⁰⁾의 “주제(themes)”의 검토(discussion)에 의해, 즉 안락하게 다시 담긴 그리고 그들의 “의미”가 탄 그릇에 옮겨진(다시 말해서 불확실한 말!), 매우 사적인 망상(obsession)처럼 그들을 그의 머릿속 가까이 모두 되돌려놓은, 단지 심리학적인 투기로 변형된 발언권-말에 의해 산출된 간악함의 구제(relief)라는 것을 안다. 따라서 그것은 이러한 기호학을 여러 가지 종류의 주체적인 비평의, 즉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것과

10) William Cuthbert Faulkner(1897~1962); 미국의 소설가. 1897년 9월 2일 미시시피주(州)의 뉴올버니에서 출생하였다. 1949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자이며, 두 차례 풀리처상을 받았다. 남부(南部)의 명문가에서 태어나 어릴 적에 근처인 옥스퍼드로 옮겨 그의 생애의 태반을 이곳에서 보냈다. 어려서부터 글을 좋아하여 고교 시절 시집(詩集)을 탐독하고 스스로 시작(詩作)을 시도하였으나 고교를 중퇴하였다. 1920년 대학도 중퇴하고 곧 고향으로 돌아와, 1924년 친구의 도움으로 처녀시집 「대리석의 목신상(牧神像, The Marble Faun)」을 출판하였다. 그 후 소설을 쓰기 시작하여, 1926년 전쟁으로 폐인이 된 한 공군장교를 주인공으로 한 첫 작품 「병사의 보수(Soldier's Pay)」를 발표하고, 1927년 풍자소설 「모기(Mosquitoes)」, 1929년 남부귀족 사토리스 일가(一家)의 이야기를 쓴 「사토리스(Sartoris)」를 발표하였다. 이어 1929년 또 다른 남부귀족 출신인 콤포스 일가의 몰락하는 모습을 그린 문제작 「음향과 분노(The Sound and the Fury)」를 발표하여 일부 평론가의 주목을 끌었다. 다시 1930년 가난한 백인 농부 아내의 죽음을 다룬 「임종의 자리에 누워서(As I Lay Dying)」, 1931년 한 여대생이 성불구자에게 능욕당하는 사건을 둘러싸고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작품 「성역(聖域, Sanctuary, 1931)」을 발표하여 일반 독자에게도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 후 「8월의 햇빛」(Light in August, 1932), 「압살롬, 압살롬(Absalom, Absalom!, 1936)」 「야성의 종려(棕櫚, The Wild Palms, 1939)」 「마을」 「부딪의 침입자(Intruder in the Dust, 1948)」, 「우화(寓話, A Fable, 1954 풀리처상 수상)」, 「읍내(邑內, The Town, 1957)」, 「저택(邸宅, The Mansion, 1959)」, 그리고 유머를 특색으로 하는 「자동차 도둑(1962, 풀리처상 수상)」 등 장편소설을 계속해서 발표하였다. 이 밖에도 중편과 단편도 상당히 써서 「곰(The Bear)」을 비롯한 몇 권의 단편집도 펴냈다. 이상의 여러 작품을 통해서 포크너는 미국 남부사회의 변천해온 모습을 연대기적으로 묘사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요크나파토파군(Yoknapatawpha郡)”이라는 가공적인 지역을 설정하고 그 곳을 무대로 해서 19세기 초부터 20세기의 1940년대에 걸친 시대적 변천과 남부사회를 형성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대표적인 인물들을 등장시켜 한결같이 배덕적(背德的)이며 부도덕한 남부 상류사회의 사회상(社會相)을 고발하였다. 이것은 결국 인간에 대한 신뢰와 휴머니즘의 역설적 표현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을 규명하려는 그의 의지의 발현(發現)이라 할 수 있다. (역주)

함께 그것이 오히려 그러한 심리학적인 방법을 위해 강력한 치환과 양자택일로 고찰되는 것 안에서의 지각(遲刻) 단계에 마침내 도착하는 것으로 준비된 비평의, 보다 익숙한 변덕의 텀으로 포착되기 시작할 수 있다. 그 의미소는 사실 그들로부터 독자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세계 그 자체를 능동적으로 활발하게 조직한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이러한 방식은 우리 자신을 우리가 괄호로 묶기를, 회피를, 또는 유예를 시도함으로써 시작되는 철학적인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혼란으로 되돌아가 발견하는 것이다. 내가 인용했던 장 프티토-코코르다의 검토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그레마스 자신이 그 자신의 단호한 벗어남(*swerve*)¹¹⁾을 성취하여 즉각 실행하고 기술하는 것 안에서 피신타의 교차점적인 계약·응축(*fiduciary contract*)과 같은 십자형의 변천(*crucial passage*)을 지시하는 바로 그것에 의해 다양한 언외지시로 이동한다. “의미의 생산은 기왕에 주어진 의미의 변형 단지 그것만으로 의미심장하다. 따라서 의미의 생산은 변형으로 호칭될지도 모르는 어떤 내용의 평범한 형식(*Mise en forme*)과 함께 의미작용의 기본재산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의미 형성의 느낌으로서의 의미는 의미 변형의 가능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Du sens*, p. 15).” 이제 이러한 견해는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될 수 있다. 즉, 우리는 의미의 안정적인 또는 철학적인 문제와 우리가 어떤 언외지언의 복소어의 의미를 고립시키려고 시도할 때마다 생산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이제 그 위치 안의 또 다른 텍스트를 발견하는 그것만으로 유래되는 것 같은 메타언어의 무한한 역행(*regress*)과 병존하는 그 관계를 목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목살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텍스트가 신기루 또는 시각적 환영 안에서 의미의 명백한 현존재의 안정적인 그 순간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의미는 느낌으로의 거기에 결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의 변형의 변화과정 안에서 “언제나-이미-주어진(*always-already-given*, 여러 가지 메타언어를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존재한다. 이제 그것은 기호학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그리고 오로지 가능한 대상(사물화[*réification*])된 것으로 입증된 것 자체로의 의미 또는 어떤 종류의 사람을 현혹시키는 잔상(*afterimage*)으로만 존재하는 변형의 변화과정(의미 생산의)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step*)는 기호학의 매우 불확실한 것의 확고한 재형식

11) 라틴어 “*clinamen*(벗어남, 기울어짐, 빗나감)”의 의미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역주)

화와 기왕에 만들어진 기호를 함께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성된 새로운 문제, 그리고 전체로서의 새로운 영역과 화술과 화술적인 이론의 영역보다 다를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탄생하는 개념성과 병존한다. 그러나 첫 단계에서, “화술”은 단지 변화현상(변형, 생산, 수정)을 기록할 뿐이며, 사고와 분석의 안정적인 모드에 의해 기록된 대상의 습관을 버리는 그것은 여기서 사건의, 관자놀이-시간적인(temporal) 독창성의 스캔들로 동정된다. 또는 비록 르네 톰(René Thom)¹²⁾의 “파국(catastrophe)”이 될지라도.

그때 그레마스의 기호학은 화술성이 교황의 지상권(至上權)과 같은 어떤 무엇을 주장하는 현대(contemporary) 이론의 탁월한 유파가 될 것이다. 화술성은

12) 1. René Thom(1923~2002); 프랑스의 수학자. 그는 기묘한 이론으로 호칭될지도 모르는 것의 견지로 나아가고 있는 위상학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는 이러한 후자의 중요성에 관한 견지로, 즉 파국이론(catastrophe theory)의 창시자로서 그의 저서로 세상에 알려졌다. 그는 “수학에 있어서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즈상(Fields Medal, 1958)을 수상했다. 2. catastrophe theory: 한 체계를 조정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변수들이 연속하여 변할 때 그 체계가 갑자기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분류하는 일련의 수학적 방법. 파국이론은 변수와 결과인 양상이 곡선이나 곡면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기하학의 한 분야로 간주한다. 이 이론을 형식적으로 발달시킨 사람은 프랑스의 위상수학자 르네 톰이다. 파국이론의 간단한 예로서 점점 많은 무게가 실릴 때 아치형 다리의 변화하는 모습을 들 수 있다. 무게가 임계값(critical value)에 이를 때까지 다리는 비교적 일정하게 변하다가 이 값에 이르면 다리는 갑자기 변한다(즉 붕괴). 카타스트로프(파국, 대변동)라는 용어가 이런 극적인 사건만을 제시하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은 불연속 변화의 카타스트로프도 많이 있다. 움직이는 물에 의한 반사와 움직이는 물을 통과하는 빛의 굴절은 파국이론의 방법에 의해 잘 연구되며 다른 많은 광학현상도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사회과학자들은 파국이론의 개념을 흥분한 군중 돌발과 같은 여러 상황에 적용해왔다. 집을 지을 때를 예로 들어보자. 집의 형태는 건축가가 머릿속에서 구상한 아이디어들이 다이어그램화된 도면의 형태로 우선 존재하고 이후에 특정한 재료들로 구성된 구조체로 노동력을 통해 형상화된다. 하지만 집의 형태는 그 어느 부분에 대한 물리적, 화학적 분석을 통해서도 알아낼 수가 없다. 건축가의 두뇌 속에도, 도면 속에도, 혹은 각 부재들 속에도 집의 형태를 완전히 설명할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동일한 재료들과 노동력으로 전혀 다른 형태의 집을 지을 수도 있다는 점과 우리가 주로 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이들 질량과 에너지인 점을 감안하면 문제는 더욱 어렵게 된다. 형태는 이처럼 한편으로는 구성 물질들 이상의 무엇인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이들 물질과 에너지를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는 그 무엇이다. 이처럼 정적인 형태들조차 수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해석이 쉽지 않다면 시간 속에서의 변형을 포함하는 생명체들은 훨씬 더 복잡한 문제를 제기한다. 르네 톰이 제시한 “파국이론(catastrophe theory)”은 이러한 형태의 변화에 대한 보편적인 타입의 종류들을 수학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변형 과정의 최종적인 목표가 “흡인(끌어당김, attractor)”에 의해서 재현된 최종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수학적 모델로 만들면서 이를 발생에 적용하였다. 그는 모든 대상이나 생명체들이 그러한 ‘attractor’들에 의한 재현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발생의 과정은 초기의 ‘attractor’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태가 사라져가면서 최종적인 ‘attractor’에 의해서 재현된 형태에 의해서 교체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생명체들에 대한 위상학적인 해석은 끊임없는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면서 특정한 공식에 도달하게 된다. 이 과정이 새로운 발생의 형태를 예측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가는 아직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역주)

여기서 연구의 새로운 대상, 즉 막연히 어떻게 특권이 부여된, 또는 고유명
 목처럼 확고하게 특권이 부여된, 연구의 대상보다 더 유연한 어떤 무엇으로
 존재한다. 이것은 철학적인 또는 형이상학적인 명제의 문제이며, 그 연좌는
 사고의 모드로서의 화술 그 교황의 지상권(至上權)과 같은 것의 문제가, 인식
 적인 또는 특별하게 분화된 추상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사고의 심원한 화술
 로서의 주장의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 신화의 구조와 야성적인 사고(*pensée
 sauvage*, 또는 전개념적인, 지각적인 “과학”)의 성질을 레비스트로스의 개척적인 저서
 에서 그들의 영감을 발견하는 그러한 명제는 지배력과 화술적인 기호학의
 독창성의 성격을 만드는데 적합한 형식이 아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철학
 적인 단언을 기호학과 동화시켰으며, 그것은 그들이 오로지 초기 그레마스만
 을 간직하고 있는 경우로 편하게 고찰해도 좋을 것이며, 최근에 이러한 기호
 학은 “양태화”의 언외지시로서의 화술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경향을 가지
 고 있다(매우 명백하게 그리고 프로그램적인 것으로). 즉, 분명히 보다 인식적인 또는
 문법적인, 하여간 우리가 기호학의 “화술학적인” 단계로 호칭할지도 모르
 는 것을 통해 얻게 된 사건의, 연기자의, 교체의, 그리고 전승의, 전체적이며
 불확실한 것의 양태화보다 더 추상적인 초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화술적인 것과 인식적인 것 사이의 이러한 작용 안의 보다
 더 복합적인 파생언어를 배경음악처럼 보다 더 좋게 강조한다. 요컨대, 이러
 한 결말이 연구된 텍스트의 성질의 가치에 의해서든지 또는 어떤 딸림음처
 럼 지배적인(*dominant*) 방법론의 추진력이나 경향의 가치에 의해서든지, 하여
 간 딸림음처럼 지배적인 것으로 존재할 때, 각각은 교황의 지상권 같은 것
 또는 타자의 선형성을 음험한 수단으로 훼손한다. 따라서 화술의 선형성으로
 막연히 호칭되었던 것은, 화술적인 분석의 예배의식 안에서, 레비스트로스의
 저서 안에서, 프로프와 그레마스의 다산적인 것과 프로프의 대통령 취임연설
 과 같이 고쳐 쓰기, 그리고 나중에 내포적인 그래서 위대한 모파상의 소설¹³⁾
 안에서 절정에 이르고 있는 작은 연구의 성병(聖餅, 성체 성사·미사의 빵) 안에
 서, 처음에 역설적으로 인식적인 특성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철저하게 화술
 적인 표층(신화, 동화, 단편소설)의 환원(*reduction*)으로 각색되었다. 그것에 의해서
 화술은 사고의 형식이 되어 의기양양하게 증명되지만, 과중한 대가로, 즉 그

13) 영어로의 접근. Paul Perron에 의해 이루어진 John Benjamin의 서문과 번역.

것의 고쳐 쓰기, 환원, 또는 변형은 추상적인 사고로 그리고 그것의 상징(token) 또는 반대로 되돌아간다. 과연, 기호학적인 분석의 이러한 형식 안에서, 인식적인 특성과 상호작용(interplay)과 함축은 훨씬 더 세밀하게 열거되고, 우리가 전통적인 문학비평 안에서, 즉 인식적인 것의 지위가 기껏해야 작가의 견해를, 세대의 편견(독자층을 포함하고 있는)을, 막대한 그리고 막연한 세계관(Weltanschauungen)을, “관념의 역사”의 막연한 개념을, 또는 이것의 중재와 기발한 “개념(매우 빈번하게 과학의 역사로부터 가져온, 예를 들어 “엔트로피”)¹⁴⁾을 포함시키도록 허락된 곳 안에서 지금까지 소유했던 어떤 것보다 더 복잡적이다. 표층을 정교하게 해독한 그래서 은유와 같이 매우 화려한 문체의 수사학적인 비평(Kenneth Burke)¹⁵⁾은 텍스트로 이동하지만, 심층구조 개념의 의외의

14) entropy: 1. 물체의 열역학적 상태를 나타내는 양(물리학). 어떤 물리계 내에서 일하는 데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 일은 질서로부터 얻어지기 때문에 엔트로피의 양은 그 계의 무질서나 무작위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일정한 온도 T를 가진 계에 dQ라는 열의 형태로 에너지를 더해줄 때, 엔트로피의 변화 dS는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dS=(dU+pdV)/T \geq dQ/T$$

여기서 dU는 에너지의 변화, p는 압력, dV는 부피의 변화를 나타낸다. 가역적(可逆的)인 과정에서는 $dS=dQ/T$ 이며, S는 계의 현재 상태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현재 상태에 이르기 위해 어떤 경로를 택하느냐에 상관없이) 가변적인 상태이다. 모든 자연과정은 비가역적(非可逆的)이며, 반드시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어 있다. 즉, $dS>dQ/T$. 엔트로피는 매우 넓은 범위를 가진 성질이다. 다시 말해서, 그 크기는 어떤 계 내에서 0에서 전체 에너지까지 변할 수 있다. 엔트로피라는 개념은 1850년에 독일의 물리학자인 루돌프 클라우지우스에 의해서 처음 제안되었는데 때때로 열역학 제2법칙의 형태로 표현된다. 이 법칙에 따르면 고온과 저온의 기체가 저질로 혼합될 때나 기체가 진공내로 확산하여 갈 때 또는 연료가 연소할 때와 같은 비가역 과정에서는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엔트로피의 통계적인 해석방법에서는 열역학적인 평형상태에 있는 매우 거대한 계에서 엔트로피 S는 S에 해당하는 거시적 상태를 실현하는 미시적 방법의 최대 개수 W의 자연로그에 비례한다. 즉 $S=k \ln W$ 이다. 여기서 k는 볼츠만 상수이다. 모든 자발적인 반응은 비가역적이다. 따라서 우주의 엔트로피는 증가하고 있다. 즉 역학적인 일로 변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우주가 “쇠퇴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2. 정보 전달의 효율을 나타내는 양(정보이론). (역주)

15) Kenneth (Duva) Burke(1897~1993); 미국의 문학평론가. 지식의 본질에 관한 심리 분석과 “상징 행위”로서의 문학관으로 유명하다. 20세기 후반의 미국 비평계를 이끌었다. 1916~1917년 오하이오주립대학교, 1917~1918년 컬럼비아대학교를 다녔으나 학위를 받지 못했다. 시 「시전집, 1915~1967 Collected Poems, 1915~1967, 1968」, 소설 「더 나은 삶을 향해(Towards a Better Life: A Series of Epistles or Declarations, 1932)」, 단편집 「흰 소: 단편집(The Complete White Oxen: Collected Shorter Fiction, 1966)」 등을 썼고, 토마스 만, 아르투르 슈니츨러, 오토 슈팽글러, 휴고 폰 호프만슈탈, 에밀 루트비히 같은 독일 작가들의 작품을 번역했다. 1927~1929년 「다이얼(Dial)」 지, 1934~1936년 「네이션(The Nation)」지의 음악평론가로 일했으며, 1928년 「다이얼(Dial)」지에서 주는 문학상을 받았다. 음악평론에서 문학평론으로 바뀌어 1938, 1949~1950년 시카고대학교에서 이 과목을 강의했다. 1943~1961년 베닝턴대학에서 가르쳤으며, 미국 전역과 유럽의 많은 학교에서 객원교수로 강연했다. 문학비평가로서 그의 주된 목표는 인간의 모든 지식을 하나의 틀로 통합하는 것이었다. 그의 저서로는 「반대진술

(extraordinary) 직관을 통합하는데 실패한 그래서 비-화술적인 양식이다. 가늠자로서의 버크(Kenneth Burke)의 “연극주의(dramatism)”는 그레마스의 “행위주적인(actantial)” 그리고 “정향적인(positional)” 분석과 매우 흡사하다. 동시에(meanwhile), 비록 프라이(Northrop Frye)의 “원형적인(archetypal)” 비평이 역사적으로 화술 그 자체인 중심성(centrality)의 재주장으로서의 신기원을 이루는(epoch-making)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인식적인 내용 그 자체가 이러한 접근을 위한 중심문제로 드러났다고 언급할 수 없다. 결국 노련한 마르크시스트의 비평은 정치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정향(진보적인/보수적인, 계급 이데올로기)을 포함하는 “관념(ideas)”의 의외적인 것이면서 좁은 문학개념을 확대하려고 노력해서, 마르크스 그 자신이 의외의 화술 그 자체를 자각했음에도 불구하고(in The Eighteen Brumaire of Louis Bonaparte),¹⁶⁾ 마르크스를 초월하여 그것은 화

(Counter-Statement)」(1931) · 「문학 형식의 철학(The Philosophy of Literary Form, 1941)」 · 「영원과 변화(Permanence and Change : An Anatomy of Purpose, 1935)」 · 「역사에 대한 자세(Attitudes Toward History, 2권, 1937)」 · 「동기의 문법(A Grammar of Motives, 1945)」 · 「종교의 수사학(The Rhetoric of Religion : Studies in Logology, 1961)」 · 「상징행위로서의 언어(Language as Symbolic Action, 1966)」 등이 있다. 버크는 견해가 바뀌면 꾸준히 그 이전의 작품들을 수정했다. 책 이외에도 계속 학술 원고를 썼기 때문에 전체 작품량은 19세기 전반의 새뮤얼 테일러 콜리지 이래 가장 방대하다. 특히 언어에 대한 특유의 관점으로 시인이나 소설가뿐 아니라 많은 비평가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역주)

16) 1. 브뤼메르 쿠데타(Coup of 18~19 Brumaire); 프랑스에서 총재정부 체제를 뒤엎어 통령 정부로 대체한 쿠데타(1799. 11. 9~10).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전체정치의 서막을 열었으며, 흔히 프랑스 혁명의 실질적 종말로 간주된다. 총재정부의 말기에 아베 시에에스와 탈레랑은 보나파르트 장군의 도움을 얻어 쿠데타를 계획했다. 당시 보나파르트 장군은 불운했던 이집트 원정을 마치고 돌아왔음에도 개선헌군으로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혁명력 8년 브뤼메르 18일(1799. 11. 9) 파리에서 시에에스가 이끄는 원로원은 원로원과 하원인 500인회를 다음날 생클루 궁전에서 동시에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결의로는 파리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자코뱅당의 음모”로부터 양원(兩院)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목적이었지만 실제로는 파리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보나파르트 부대의 위협 아래 양원 회의를 개최하려는 것이었다. 다음날인 브뤼메르 19일 생클루에서 양원이 소집되었을 때 보나파르트는 원로원에서 연설하는 도중 실수를 범했으며 다음에는 500인회의 회의장에서 의원들로부터 빗발치는 야유와 비난을 받았다. 의원들은 소문을 들은 데다 주변에 배치된 군대를 보고 실질적인 음모가 진행중임을 직감했던 것이다. 보나파르트는 회의장에서 빠져나왔으나 시에에스와 루시앵 보나파르트, 조아생 뒤라 등이 마침내 근위대 병사들을 투입해 상황을 반전시켜 500인회를 해산하고 원로원으로 하여금 총재정부와 의회 자신의 종말을 선언하게 하는 한편 제1통령 나폴레옹을 수반으로 통령 시에에스와 로제 뒤클로 등이 보좌하는 통령 정부의 출범을 선포하게 했다. 11월 14일 보나파르트는 퍽상부르 궁전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2. 보나파르트(Louis Bonaparte, 1778~1846); 프랑스의 군인이며 나폴레옹 1세의 셋째 동생. 네덜란드 왕(1806~1810)을 지내면서 자기 백성들의 복지를 지켰으며, 대륙봉쇄체제에 협조하기를 꺼려 나폴레옹 황제와 갈등을 일으켰다. 살롱에서 군사학교를 다닌 뒤 1796~1797년의 이탈리아 원정 때 나폴레옹을 수행했고, 1798~1799년 이집트에서는 전속부관으로 활약했다. 1802년 제1통령이 된 나폴레옹은 그를 조제핀의 딸 오르탕스 드 보아르네와 결혼시켰다. 그러나 그는

술 특유의 약동성과 구조의 친진난만한 관점을 대상으로 삼았던 이러한 연구(즉 Lucien Goldman의 연구)의 최고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전체적이고 노련한 전통의 그것은 간헐적인·철학적인·날카롭게 빛나는 그래서 “결핍된 테크닉(단지 민중의 언어만을 사용하고 있는)”의 그 모든 것을 위해 언급하고자 하며, 그리고 그레마스의 기호학이 마침내 의기양양하게 정체를 드러내고 쓸모 있게 만들어진 그래서 이렇게 분석적인 테크닉임이 분명한 것으로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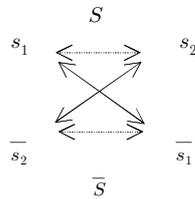
지금까지 내가 제안했던 것처럼, 의미소와 어의소의 뒤엎힌 초미활동에 관한 화술의 환원(추상적인 주제, 즉 행동근거의 인식적인 언어로 남아있는 것으로 변죽을 울렸던; 화술성의 어떤 보편적인 형이상학의 대성공을 고착시키는 것과 거리가 먼)은 반대로 실행된다고, 그리고 인식적인 것으로 되돌아간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축소될 수 없는 화술적인 담화의 마지막 자투리를 열광적으로 탐닉하여 흡수한다고 흔히 언급될는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순수한” 또는 “근본적인” 화술의 언뜻 보기에 2개의 최후의 원자단위(“등장인물” 또는 “연기자”로 존재하는 것의, 그리고 시제, 변화, 사건, 행위, 파국으로 존재하는 추상적으로 터무니없는 “질료의 사실”로 존재하는 것의, 완강하게 신인동형동성적인 자투리), 즉 이러한 최후의 화술적인 요소로서의 그레마스의 기호학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마치 갱내의 물을 배수하기 위해 만든 구덩이(seige)처럼 설치된다. 그리고 내포적으로 기호학적인 기담(奇談) 그 관계의 절정의 순간은 드디어 이러한 주체와 언외지언을, 화술문법의 이러한 최후의 작은 부분을, 근본적으로 다양한, 인식적인 종목의 극미기호학의 “결과(effect)”로 “환원시킨” 이렇게 특별한 양의연동(兩儀連動, engagement)으로 존재한다(마치 행위주와 교환과 같은 개념의 방식으로). 간단히 말해서, “기호사각형”은 이렇게 고쳐 쓴 절차가 통합된 영역이론으로 나타난다.

부인을 격렬하게 질시했고 나폴레옹이 이혼을 허락해주지 않자 원망이 점점 커지면서 강요받은 이 결혼은 불행했다. 1804년 루이는 장군 계급으로 승진했으며 다음해에 파리 지사가 되었다. 1806년 7월 5일 나폴레옹은 그를 네덜란드 왕으로 선포했다. 처음부터 황제는 신민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루이를 견책했다. 1809년 무렵 나폴레옹은 네덜란드인들이 비밀리에 영국과 무역하는 것을 중지시키기 위해 네덜란드를 합병할 생각이었다. 영국과 루이와의 협상이 모두 실패하자 1810년 나폴레옹은 프랑스군을 파견해 네덜란드의 수도를 공격했다. 루이는 왕위에서 물러나 외국으로 달아났으며 나폴레옹은 7월 9일 네덜란드를 프랑스에 합병했다. 루이는 스스로 백작이라고 칭하며 한동안 보헤미아·오스트리아·스위스 등지에서 살았다. 말년에는 이탈리아에서 주로 문필활동에 몰두하며 지냈다. 그의 저서로는 「네덜란드 통치에 관한 역사적 기록과 반성(Documents historiques et réflexions sur le gouvernement de la Hollande)」(3권, 1820)과 편파적인 내용의 「마리(Marie, ou les peines de l'amour)」(2권, 1812)·「귀환 Le Retour」(1846)이 있다. (역주)

그러나 그것은 2가지 방식의 수단으로 존재한다. 만약 화술이 인식적인 약동성을 늘 간접적으로 비유한다면, 명백히 인식적인 텍스트(철학, 과학과 같은 것)는 이제 보다 더 정당하게 화술적인 분석으로 폭로되고 상처받기 쉬운 것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것은 그레마스의 기호학의 파생언어의 또 다른 격변(진자의 흔들림, pendulum swing)으로 존재하며, 이제 그것은 언뜻 보기에 추상적인 것을 다양한 분야의 담화로, 화술프로그램과 모든 종류의 도식의 치환 작용으로 해독하고 가면을 벗겨 정체를 폭로할 것이며, 그래서 엄격한 철학의 독립변수(논법, argument)를 벗어나 추상 또는 개념의 진전은 개념적인 대항자에 의해 추진된(menanced), 프로프의 농부설화의 신화와 같은 “마술적인 보조자”에 의해 선동된, 복합 시련과 위협을 통해서 “등장인물”의 성령의 발현(發現, procession)처럼 읽히고 보일 수 있게 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칸트(Immanuel Kant)는 최초의 위대한 현대소설가(modern novelist)가 된다. 비록 중심이 벗겨져 정체가 드러난 그래서 변변치 않은 요리책일지라도, 그것은 단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변용의 연금술사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화술의 그 개념은 텍스트 그 자체의 전체적인 우주와 함께 하여튼 인식적인 것의 아종적인 특이성을 음험한 수단으로 훼손시키는 일 없이 그 경계가 완전히 겹쳐 팽창된다. 왜냐하면 그 작용은 비신비화(demystification)의 소행으로 인하여 혼동되지 않기 때문이며(때로는 필연적이다), 반면에 거죽만의 추상의 세트는 신화 또는 불합리한 격아강화(figuration)가 되어 나타난다(부당한 느낌으로). 철학적인 사고의 화술성을 증명하는 것은 그것의 개념적인 또는 지적인 요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단지 그렇기만 하기 때문에, 그때 바로 그 심층화술구조는 게다가 그 스스로 극미사고의 또는 인식적인 미시물리학(microphysics)의 새로운 형식으로 고쳐 쓰이게 될 수 있다. 화술적인 것과 인식적인 것 사이의 어떤 최후의 형이상학적인 선택이 아닌, 오히려 상수(constant)의 변화과정 안에서 어떻게 그것이 끊임없이 타자에 의해 드러나는, 마지막까지 그 위의 딸림음처럼 지배적인 것(dominant)이 되는, 기호학적인 정향의 으뜸음 같이 본질적인 것(essential)으로 전개된다. 이것은 화술성으로부터 양태화이론으로 즉시 격변하는 것(swing)이 그레마스의 저서 안에서 화술적인 것을 넘어 인식적인 것의 최후의 승리처럼 어떤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우리 자신의 환원으로 고찰된다.

그러나 이러한 파생언어는 우리가 시작하는 것—즉, 마지막 메타언어 문제의, 그리고 동정된 다시 말해서 언뜻 보기에 인식적인 언어와 명목 “의미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기호학의 작용적인 “삶의 사실(fact of life)”의 서스펜션과 함께 최후의 철학적인 문제의 브래킷을 주의 깊게 마음속에 간직하는 경우에만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인식적인 것도 화술적인 것도 아니며, 단지 장 프티토-코코르다의 언어 안에서의 “정의되지 않은 것” 처럼, 최선의 것으로 기술될 뿐이다. 그러나 파생언어적인 언어는 중재의 개념 안에서 이러한 철학적 곤경 없이 또 다른 실제적인 방식을 나에게 제공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내가 기술했던 그 변화과정의 딸림음처럼 지배적인 것이 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는 것 또는 형이상학적인 선택성을 떠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닌, 언어의 두 유형 사이의 부단한·상호적인 중재에 의해 가장 적합하게 성격이 만들어지기 때문인 것 같다. 이것은 또한 관념론의 전통적인 개념의 확장된 버전(그레마스의 텍스트 안에서 가장 한정된 그리고 기계적인 역할로만 연기하고 있는)이 이러한 기호학적인 분석과 작용의 성질을 아종적인 것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의 방식으로, 그리고 그들을 평가하는 것과 그들의 광대한 암시를 제안하고 있는 것을 위한 근거로 지금 잘 어필될지도 모른다. 사실 이것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내포적인 의미에서, 이원성(twofold) 또는 이중인격(amphibious)의 실재성, 즉 2개의 명백하고 진기한 그리고 언뜻 보기에 마음 내키는 대로 상반적인 형식을 떠맡고 있는 것의 감수성으로 포착된, 그 관념론을 제안했으며, 그것은 화술적인 것 또는 인식적인 것으로서 죽마고우와 같이 정확하게 존재한다. 좁은 의미에서의 “관념론”은 의견, 개념, 의사개념, “세계관,” “가치” 등과 같이 보편적으로 수용된 것의 덩어리로 존재한다. 또한 이렇게 막연하게 아종적인 것으로 분류된 개념의 실재물은 화술적인 화신(化身, embodiment)의 줄지음을 항상 가지고 있으며, 사실 어떤 방식의 또는 또 다른 은의화술의 모든 것으로 존재하는 그들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또한 관념론의 개념 바로 그 매우 닳아빠진 개념차원보다 매우 광범위한 천착의 범위로 열려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제안이 그들이 필연적으로 양자택일을 주장했던 정의의 방식에 의해 오히려 대등하게 되었던 그 화술에 의해 인식적인 것으로 반제(replace)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때 바로 그 구조 안에서 무엇으로든지 존재하는 관념의 형태는 인식적인 그리고 화술적인 형식을 선택적으로 떠맡고 있는 것의 감수성으로 존재한다.

그레마스의 저서를 위한 이러한 제안의 적절성은 의미작용의 소위 기본구조, 다시 말해서 그레마스적인 기호학의 최상의 성취를 위해 그 유명한 “기호사각형”의 전체적인 사태로 갑자기 나타난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어쨌든 인식으로 또는 그 역으로 “치환된” 화술을 통해서 “블랙박스(black box)”로 보이게 될을 발견한다. 결국 우리는 방정식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앞에서 “명백한(visible)” 것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신비하게 정위된 것에 불과한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전승의 변화과정을 증언할 수 있다(나는 소건의 귀결에 임하여 나타난 명백한 것의 그리고 공간의 이러한 사태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고, 이미 “사각형”의 설명적인 능력 안에서 또 다른 단순실천을 어떻게 명백히 요구하는지, 그것의 정전적인 형식은 이러한 의문과 함께 재현된다.



사각형의 이점의 매거(枚擧)는 이원대당의 낡은 구조의 개념상에서 확고한 확대로 존재하는 관측과 함께 즉각 시작될 수 있다. “ s_1 vs s_2 ”는 이원대당으로, 또는 철학적인 논리의 언어 “반대”로, 즉 강력한 대당(백색 vs 흑색, 남성 vs 여성)으로 매우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이제 사각형은 2개의 유효한 정향보다 훨씬 좋게 에워싸인 것이라는 것을 폭로한다. 예를 들어 그것은 2개의 딸림음처럼 지배적인 팀의 단순부정으로서의 s_1 과 s_2 의 논리학이 “모순”이라고 호칭하는 것의 보충적인 2개의 슬롯(slot)을 포함하지만, 그 중의 어느 한 쪽보다 훨씬 좋게 포함한다. 따라서 “비-백색”은 “흑색”보다 더 좋게, “비-남성”은 “여성”보다 더 좋게 포함한다. 동시에 “백색”과 “흑색”의 대당이 초월(예를 들어, 혼혈아)¹⁷⁾되는지도 모르는 그 곳의 복합적인 또는 유토피아적인 팀

17) mestizo: 혼혈아(특히 스페인 사람과 북아메리카 원주민의). (역주)

으로 지속되고 있는, S 와 \bar{S} 의 합성 또는 “통합적인” 정향은 더 한층 많은 개념의 확장을 제공한다. 반면에 \bar{S} 는 결집된 결성(缺性, privation)과 부정(negation)의 모든 것 안에서의 중립적인 텀으로 지속된다(예를 들어, “무색”). 결국 그 횡단 축은 제1의 주동적인 또는 이원대당적인 것과 다른 긴장 그 위치(place)의 지도를 만들고, 반면에 사각형의 두 측면을 결합하는 것(“백색”+“비-흑색”)으로 가정하여 제안된 그 통합(synthesis)은 양자택일의 개념적인 결합을 지시한다. 그때 전체적인 메커니즘은 기본적인 이원대당 밖의 어쨌든 10개의 있을 법한 정향을 생성할 수 있다(예를 들어, 그것은 원래 단순 텀 “백색”보다 더 좋지 않은 것으로 존재할지도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은익극단으로 조장하여 분절하는 은익대당에 의해 내면적으로 정의되는 것을 증명한다). 그들이 개념적인 폐포,¹⁸⁾ 또는 보다 더 좋게 정지한, 관념 그 자체의 폐포의 내포적인 지도로, 즉 메커니즘으로 구성된 가언을 받아들기만 한다면, 반면에 가능한 개념과 정향의 풍부한 다양성을 생성하고 있는 것 같은 그것이 사실 그 자신의 의미에 의해 내부에서 변형될 수 없는 어떤 최초의 아포리아(aporia) 또는 이중묵음으로 짜 맞추어져 자물쇠가 걸린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남아있게 된다고 하면, 나는 또 다른 전통이 이러한 도식의 중추지배력(interesting)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은 이러한 메커니즘의 복합사용과 중추지배력에 관한 국외자로서의 관측과 함께 이러한 끼워 넣기로 끝마감함으로써 적합하게 될지도 모른다. 어두의 약간의 소견은 그것의 “독특한 사용,” 즉 그것이 실행할 수 있거나 실행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어떤 조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사각형은 제언을 실행하지만, “발견된 소인(素因, 또는 제1원리, discovery principle)”의, 단지 특별한 유형의 천연의 산물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성 또는 직관으로 반제되는 것으로 보증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사실 그것이 사고 그리고 또 다른(언뜻 보기에 테크닉이 없는) 양식으로 나타난 해석의 지도를 단순하게 그리는 것으로 종종 호칭될 수 있는 한, 그것은 처음부터 최초의 교육학적인 함수를 강조하는데 적합하다. 다시

18) 폐포(閉包, closure): 1. 불완전한 모양, 사고, 상황 등이 완전한 적(積으)로 지각되는 것. 2. 위상수학에서, 어떤 위상공간 X 의 부분집합 S 의 폐포(閉包, closure)는 S 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닫힌 부분집합이다. 이것은 X 안에 있는, S 의 모든 포함집합(superset)의 교집합으로 구성된다. (역주)

말해서 우리는 보다 더 혼동적인, 게다가 비경제적·비유기적인, 설명적인 단조로움을 시사하는, 그리고 그 망상의 최소의 지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기호사각형의 이렇게 변변치 않은 교육학적인 능력을 시사하는, 관계의 세트르 지도를 그리고 아티클레이션처럼 분절하는 이 시각적인 장치(device)를 매우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 발견학습적인 가치로서의 경험은 어떤 방식으로라도 당신이 그 권리(권세)를 얻기 전에 많은 페이지를 암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다수의 열쇠역할을 하고 있는 결정이 변화과정 안에서 증재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우리는 조정되고 통합된 실재물의 다양성을 목록으로 만든다. 그것은 종국으로 고찰되거나, 미리 처리된 실재물의 성질과 명명법이 되어서는 안 되는 목록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언뜻 보기에 변태적이거나 난외적인, 중요치 않은, 매거된 괴짜의 실재물이라는 것에 매력이 있다(내 관점으로는 더 한층 필연적인). 왜냐하면 그것은 사물의 도식 안에서, 그리고 그들의 바로 그 현 존재 안에서, 그들의 장소로 존재하기 때문이며, 해결될 수 있는 사각형 문제의 최선의 망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작용적인 결정이나 작용적인 순간을 위해, 나는 피신탕의 교차점적인 십자형 같은 3가지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첫째, 대통령의 취임식 연설 같은 그 결정은 사각형 안에서 전체(whole)로 단지 팽창되고 아티클레이션처럼 또는 오렌지처럼 낭중분절 된 이원대당의 텀으로만 존재할 뿐만 아니라, 결국 이러한 텀 안에서의 바로 그 목류(目類, order)는 조정(調停)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기본적인 편차, 즉 “백색 vs 흑색”으로든지 또는 “흑색 vs 백색”으로든지 하여간 어떻게든지 지시된 그래서 구조되고 있는 이원성(binary)을 만든다. 사각형은 결코 좌우대칭성이 아니라 “관자놀이-시간적인(temporal)” 또는 “정향적인(positional),”¹⁹⁾ 그리고 수학의 방정식(또는 좌우 두뇌와 같은, 좌우 손과 같은)과 같은 텀의 그 배치(placement, 이러한 최초의 형식화는 분명히 “탈림음처럼 지배적인/종속적인,” “중심/변두리,” “대자/타자”와 같은 어떤 무엇을 지금 곧 포함한다)로 존재하며,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깜짝 놀라게 하는 방식(우리가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확

19) 'positional'은 종교·건축·언어학의 'orientation'을 의식하며, "orienting reflex" 대신에 "positional reflex"의 어구로 사용한 것 같은데, 심리학의 정향반사(定向反射)로 번역 될 수 있는 것으로서, 동물의 이상 자세, 이상 위치로부터 정상자세, 정상위치로 복귀하는 반사를 의미한다. 이것의 중추는 중뇌에 있다. 특히 고양이에게 잘 발달 되어 있다. (역주)

습하고 있는 우리자신을 발견하는 그 예기치 못했던 역할을 극적으로 연기하고 있는 바로 그 깜짝 놀람)으로 활발하게 결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중요한 장점은 4개의 근본적인 팀($s_1, s_2, \bar{s}_1, \bar{s}_2$)이 유의어 그 자체의, 그리고 유의어의 그 유의어의 줄지음(그들이 서로 정밀하게 접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방식이면서도 비교적 새롭고 광대한 영역 또는 어쨌든 뒤틀린 개념성이 그것에 의해 기록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화이트의 “환유” 개념, 즉 2개의 비교적 명확한 “의미소”는 무엇인가로 에워싸인다),²⁰ 즉 환원(과학 또는 기계적인 설명, 결정)의 줄지음 그리고 분리의 줄지음 안으로 운반되고 있는 각각의 것을 다의성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팀은 파생언어적인 미끄러짐으로서의 열매가 많이 맺힌 것 같은 영역을 포함하며, 그 “환원적인(reductive)” 양상은 “은유(metaphor)”의 몽상적인 그리고 표상적인 포만과의 대당으로 지속하는 것을 허락하는지도 모른다. 그때 그것의 또 다른 다시 말해서 순전한 선언(disjunction)과 분리(separation)와 같은 “동정(同定, identity)”²¹은 분리된 것의 재통합과 새로운 전체 구성으로서의 “제유”와 함께(또는 반대로) 동등하게 그리고 예기치 못하게 통합되는 것을 허락한다. 팀 안에서 미끄러짐으로 둘러싸일 여기의 이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손끝의 숙련과 같은 또는 물려받은 지혜와 같은, 실제적인 장점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원자 내에서 생기는 우주의 현기증나는 투시도법을, 다시 말해서 매우 특이한 기호학자, 즉 피어스(Charles Sanders Peirce)²²를 추종하고 있는 에코(Umberto Eco)²³가 기호학성질의 무한한 가분성(可分性, divisibility)으로 응축된 그 자체의 4중 체계를 통하여 입을 크게 벌린 사각형의 으르렁거림의 4개의 근본적인 각각의 팀 안의 “무한한 기호현상(infinite semiosis)”으로 호칭하고 있는 것의 조망으로, 열어놓고 있다.

최후의 조짐(warning)은 4번째의 특별한 성질, 즉 부정의 부정 \bar{s}_2 로 직시되

20) 「헤이든 화이트의 메타역사(Hayden White Metahistory: The Historical Imagination in Nineteenth-Century Europe)」(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3). 관심이 있는 독자는 재음미된 조목 “역사편찬의 시학”으로 인하여 이러한 고전적인 저서에 관한 내 자신의 위치에서의 어떤 수정에 주목할 것이다. (「The Ideologies of Theory」, I 권에서 인용되었다).

21) identity: 동정(同定; 동일률 또는 정체성, 또는 항등식; $3x=x+2x$ 는 x 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항상 참이 되는, 이와 같은 등식. (역주)

22) Charles Sanders Peirce(1839~1914); 미국의 철학자·수학자·물리학자. 확률론 및 철학의 과학적 방법론을 연구함. 제임스와 달리 프래그머티즘을 창시하였으며, 그 밖의 기호학, 기호논리학 방면에도 큰 업적을 남겼음. 저서에 「논리학 연구」 등이 있음. (역주)

23) Umberto Eco(1932~); 이탈리아의 기호학자. 철학·미학에서 동물행동학을 통하여 문화의 총체를 파악하려 함. 국제기호학회장을 지냄. 1891년 소설 “장미의 이름”을 발표. 후에 영화화로 화제가 됨. 주저 「기호학」 등이 있음. (역주)

지 않으면 안 된다(must be directed). 이것은 신기함의 위치와 역설적인 위급사태의 위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작용이 성공적일 때). 그것은 언제나 가장 임계상태적인(critical)²⁴⁾ 정향과 가장 오랫동안 열려있거나 비어있는 정향으로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그 동정화가 변화과정을 완전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며, 그리고 어느 의미에서는 구성의 가장 창조적인 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그것은 먼저 3개의 팀이 상대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존재는, 그리고 지적작용의 심오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 그러나 4번째의 팀은 성대한 홀레의 장소, 심오한 연역의 장소, 천정으로부터 또는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직관의 장소로 존재한다. 그러나 여기서 이것은 상대적으로 보편적인 양식으로서의 4중 체계가 4번째의 순간에 예기치 않은 것으로 서구 패러다임으로부터 갈라져 나오는, 마야족의 종교에 의해 예언된 세상종말의 체계처럼, 신화적으로 운반될 수 있는 어떤 무엇으로만 존재한다. 우리의 방식대로 말한다면, 3비극과 1풍자극으로 이루어진 고대그리스의 4부극(tetralogy), 그리고 세계의 종말(end-of-the-world), 즉 발라드(J. G. Ballard)²⁵⁾의 초기소설의 물에 의해(혼돈의 세계), 불에 의해(연소의 세계), 바람 또는 허리케인에 의해(무명[無名]으로부터의 바람), 그리고 …수정으로 변하는 것에 의해(수정의 세계) 자주 마음속에

24) critical: 1. 임계값(critical value, 臨界값); 하나의 변수 x 가 어느 값이 되었을 때 특이한 상태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임계 상태에 있을 때의 x 값. 예를 들어, 디지털 통신에서의 증폭기 내에는 펄스의 유무를 판정하는 식별 회로가 들어 있는데, 여기서 펄스 유무를 판정하는 기준치를 임계값이라 한다. 2. 임계상태(臨界狀態, critical state); 일반적으로 기체는 일정한 온도에서 압축하면 밀도가 커져서 액화하기 시작하는데, 온도가 어느 한도를 넘으면 아무리 압축해도 액화하지 않는다. 이 한계가 되는 온도를 기체의 임계온도라 하고, 임계온도에서 액화시키는데 필요한 압력을 임계압력이라고 한다. 또 임계온도임계압력 상태의 기체를 임계상태에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액체상과 기체상이 공존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상태를 말하며, 이 상태에서는 기체와 액체의 밀도가 같아져서 물질은 기체상이나 액체상 어느 쪽에 속한다고 할 수 없게 된다. 암모니아처럼 상온에서 쉽게 액화할 수 있는 물질은 임계온도임계압력이 모두 높지만(135.4℃, 21.5atm), 헬륨(임계온도 -267℃)이나 산소수소는 임계온도가 매우 낮다. 이 때문에 한때 이들 기체를 액화상태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져서 영구기체라고 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체는 그 임계온도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 있으면 이상기체로서의 성질에 가까워져 보일-샤를의 법칙 $pV=RT$ 를 만족하게 된다. (역주)

25) 발라드(James Graham Ballard, 1930~); 1. 영국의 작가. 그는 과학소설에서의 뉴웨이브(néw wáve; 예술 사조·정치 운동 등의 새 물결의 지도자들)의 저명한 멤버였다. 그의 잘 알려진 책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충돌(Crash)」, 그리고 자전소설 「태양의 제국(Empire of the sun)」이며, 둘 다 영화화되었다. 형용사적인 “Ballardian”은 그의 장편과 단편, 특히 암흑향(暗黑郷, dystopia)의 모니터링, 황폐한 인공조망에서 기술된 조건의 비유와 암시로 정의되며, 전문적인, 사회적인, 또는 환경진화의 심리학적인 효과는 “Collins English Dictionary”에 수록되었다. 2. 그의 초기소설; The Window From Nowhere(1961), The Drowned World(1962), The Burning World(1964), The Crystal World(1966). (역주)

떠오르는 그 방식대로 말한다면, 마야족들에게 있어서의 세계는 불로 끝날 것이다. 두 번째로 세계는 물로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세 번째의 세계는 바람(허리케인)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는 또한 네 번째로 ...계규어(원래 하늘의 별인 그것은 그들의 새로운 육식류의 형식으로 선택되며, 인류를 게걸스럽게 먹여 치우기 위하여 지구로 떨어졌다)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기호사각형은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약동적인 것이다. 그 안에서 그 나름대로의 목록으로만 존재하는 그 안의 정향적인 그 성격의 의미 그것의 중요성(significance)은 개념적인 봉쇄 또는 마비상태를 기록함으로써 쉽게 관자놀이-시간적인 변화과정의 지도를 그리는 것처럼 꼭 그렇게 고찰될 수 있다. 사실 후자는 전자, 즉 개념적인 또는 관념적인 폐포의 이탈로, 낡은 것과 기왕에 주어진 것(자물쇠가 채워진 것처럼 닫힌 것)으로부터의 이탈로, 발견된 그 사각형을 회전시킴으로써 그리고 암시적인 정향을 생성시킴으로써, 어쨌든 사건의 또는 돌파구의 또는 새로운 것(Novum)의 신기함을 필사적으로 생성시킴으로써, 그 기도를 유발하는 바로 그 시추에이션으로 아주 흔하게 포착될 수 있다. 그러나 폐포 그 자체의 바로 그 이미지로서의 사각형으로 고찰하는 것은 헤겔적인 것보다 얼마간 다른 방식 그것으로부터의 탈출가능성에 대해 어떤 비판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모순을 결코 해결하지 못한다. 프락시스에 의해 오히려 우리는 이제 생명이 없고 부적절한 원래의 모순이 해명 없이 과거 속으로 사라지고, 그 장소가 신선하고 예기치 못했던 모순으로 포획된다(그것은 보다 노후한 아포리아들[aporias]로 또는 관념적인 구속으로의 어떤 진척이 될지도 모르거나 진척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상황을 변경한다.

그러나 사각형의 바로 그 계슈탈트적인 특성(평등하게 안정적이거나 약동적인 것이 되는 그 능력)은 강력한 중재능력으로 고찰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한순간의 화술적인 것을 일련의 “인식적인” 또는 관념적인, 결합적인 정향으로 “환원”할 수 있다. 또는 새로운 정향 안에서 인식적인 텍스트를 필사적인·화술적인 순간으로 고쳐 쓸 수 있는 그것은 이것의 또는 관념적인 통합의 시동을 성취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융합하는 것에 의해, 생성되고 포기되며, 그들의 양립하지 않는 그리고 적대자적인, 구조-파편적인 성질로부터 석방된다.

나는 사각형의 가능한 “적용”의 예증을 어딘가에서 화술분석의 문제로 제안했다.²⁶⁾ 2개의 화술측면(“개성적인,” 보다 더 좋은, 개성의 체계, 그리고 인식적인 복

쇼어 또는 모순) 안에서의 방식을 암시하는데 기여할지도 모르는 이렇게 이 단적인 효과는 통합될 수 있고, 다른 어떤 것으로 변화된 부호로 만들어질 수 있다. 여기서 나는 이러한 텍스트가 범주의 4중 세트, 즉 은유, 환유, 제유, 그리고 아이러니의 4개의 수사로 기왕에 둘러싸여 조직된 그 자체인 한, “인식적인” 또는 이론적인 텍스트, 즉 사전에 조제된 것으로 믿어지는 “화이트의 메타역사” 분석의 샘플로 간략하게 묘사할 것이다. 그때 범주의 이러한 최초의 체계는 3가지, 즉 스티븐 페퍼(Stephen Pepper: 형식주의, 기계주의, 유기체설, 콘텍스트이론)²⁶⁾로부터 묘사된 세계관의 유형학, 프라이(Herman Northrop Frye)²⁸⁾의 “플롯구성(emplotment, 로맨틱한, 비극적인, 희극적인, 그리고 풍자적인),” 그리

26) 1. Fredric Jameson의 「정치적 무의식(The Political Unconscious,)」(Ithaca, N. 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1), pp. 165ff. 그리고 253ff. 또는 「아마겟돈 후에」: 「본능적 욕구의 블루드머니」에서의 성격체계, 과학소설연구 2(1975. 3); 31~42. 2. Armageddon: 세계 종말의 날의 선과 악의 결전장; 요한계시록 XVI: 16; 일반적으로 최후의 대결전, 국제적인 대결전장. 3. blood money: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인을 고발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 청부 살인자에게 주는 살인 사례금. 피살자의 근친에게 주는 위자료. 공군속이로서 적기 격추 상금. 미국속이로서 피땀 흘려 번 돈. (역주)

27) Stephen C. Pepper(1891~1972); 그는 주로 프라그마티즘의 전통에 대해 연구하고 저술했다. 반면에 그의 이념은 현대 사상의 몇 가지 유력한 결과(예를 들어, 지식·마음·논리학·윤리학·가치의 사회적인 원천)를 결합시켰으며, 그의 주요한 연구는 미학에 있었고, 대개는 「가언의 세계(World Hypotheses: a study in evidence, U. of California Press, 1942)」라고 하는 저서로 잘 알려져 있다. 「가언의 세계」에서, 그는 “은유체계의 근원(root metaphor method)”을 진척시켰으며, 기본적으로 적합한 가언의 세계(전망체계 또는 개념체계의 세계, 즉 형식주의, 기계주의, 콘텍스트이론, 유기체설(formism, mechanism, contextualism, and organicism)을 고찰하는 것의 윤곽을 그린다. 그는 그들을 종합하는 효과의 역설적인 그리고 때때로 신비화하는 효과와 마찬가지로 가언의 세계 각각의 강력함과 허약함을 동정(同定)한다. 후기 저서에서, 그는 제5의 가언의 세계, 다시 말해서 은유의 공통의미 안에서의 동정을 포함하는 그의 방법, 또는 레이코프(Lakoff)와 존슨(Johnson)이 경험으로 대중 분류한 것을, 그리고 그때 은유의 특성이 어떻게 범주의 자의식체계와 실재성을 포획하려고 시도하는 사건의 원리로 정면되는지를 지시하는, 그래서 “하위범주화(subcategorization)”로 호칭되는, 그의 방법, 즉 “선택주의(selectivism)”로 고찰된 것을 형식화했다. 그 개념적인 명료함은 은유체계의 근원에 의해 생취되고, 가언의 세계의 분석은 마음의 성질, 과학의 역사, 공통의미 사이의 계층적인 그리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 그리고 공통의미와 형식논리학과 수학과 같은 사고의 형식적인·자기지시적인 모드 사이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체계적인·경험적인 분야를 포함하는 몇 가지 중요한 관계가 그에 의해 적용되었다. 스티븐 페퍼 철학의 핵심은 가치에서의 지배력에 있었다. 투시도법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윤리학과 미학에서의 문제로의 진기하고 상상적인 접근을 제공한다. (역주)

28) Herman Northrop Frye(1912~1991); 캐나다의 교육자·문학비평가. 유명한 비평이론서를 저술했다. 프라이는 토론토대학교, 토론토에 있는 에메뉴얼대학, 그리고 옥스퍼드대학교 머턴 칼리지에서 공부했다. 1939년부터 빅토리아대학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하여 1952년에 영문학과 학과장이 되었고 이후 학장(1959~1967)과 명예총장(1978~)으로 재직했다. 미국 여러 대학교에서 객원교수로도 있었다. 1947년에 「놀라운 대칭: 윌리엄 블레이크 연구(Fearful Symmetry: A Study of William Blake)」를 출판했는데, 이 책은 블레이크의 환상적 상징주의에 대한 개괄적이며 해박한 연구서였다. 「비평의 해부(Anatomy of Criticism), 1957」에서 다양한 문학비평 양

고 마지막으로 관념론의 기계주의적인 범주(아나키스트, 급진적인, 보수적인, 자유주의적인)로 더 증가된다. 실제로 그것은 이러한 말하자면 수직단층의 세트가 사실 통합된 특징의 두 어군으로 융합되는 경향이 있다. 그 수사과 스티븐 페퍼의 “가언의 세계”는 동일특성을 위한 언어의 교체로 함수 작용을 하고, 반면에 그 “플롯구성”과 관념론적인 암시는 유의어적으로 함수 작용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두 어군(소정의 역사구조로 대충 상응하는 것과 별도의 형이상학적인 언외지의 또는 수용)의 각각의 안에서, 우리는 그것이 내가 이러한 레벨 안의 변동의 방식(환유에 관한 초기의 예는 이러한 “탐”의 성서비유적인 해석으로부터 그 개념적인 또는 가언세계적인 의미로의 변동을 예증한다)에 의해 어느 한 탐에서 다른 탐으로 양도될 가능성으로 언급했던 창조적인 미끄러짐이라는 것을 지금 곧 발견한다. 공개된 문제로 남아있는 것은 범주의 두 어군이 언제나 일치하여 함수를 필요로 하든지, 또는 우리가 불일치, 즉 성서비유적인 해석의(tropological) 메커니즘, 그리고 플롯구성적인 것 또는 관념론적인 메시지 간의 모순을 상상하지 못하든지, 하여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렇게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은 화이트(Hayden White)²⁹⁾가 가능성으로부터 어느 명백한 귀결을 끌어내는 것 없이 예견하는 것 같은 어떤 무엇으로 존재한다.³⁰⁾

어쨌든 화이트의 저서는 두 가지 사태의 실행을 탐구한다. 첫째, 역사가 그 자체에 의해 보다 더 낮은 그리고 보다 더 아마추어적인 지위로 배속된

식을 분석했고, 문학에서 전형적인 상징들의 반복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중의 저서들에서는 엘리엇(1963), 밀턴의 서사시(1965), 셰익스피어의 희극(1965) 및 비극(1967), 영국 낭만주의(1968)를 연구했다. 1970년에 「엄격한 구조: 비평과 사회에 관한 에세이(The Stubborn Structure: Essays on Criticism and Society)」, 1982년 성서에 나타난 신화와 구조를 연구한 「위대한 법전: 성서와 문학(The Great Code: The Bible and Literature)」을 출간했다. 다른 비평물들은 문학에서의 집합적 신화의 존재, 문학적 상징, 장르, 비평의 체계적 분류를 균형 있게 강조하고 있다. (역주)

29) Hayden White(1928~); 화이트는 미시간(Michigan) 대학에서 중세 및 르네상스사를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웨슬리언(Wesleyan) 대학을 거쳐 산타 쿠르즈 소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교수직을 역임하는 동안 “의식과 사상의 역사(History of Consciousness and Ideas)”를 담당하였다. 본인은 자신의 전공을 “문화의 역사(History of Culture)”로 소개하기도 한다. (역주)

30) 따라서 예를 들면: “물론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은… 환원을 스테판 페퍼에 의해 제공된 원형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렇기는커녕, 그들의 사상은 둘 또는 스테판 페퍼가 윤곽을 그리고 있는 교조주의적인 위치의 종류보다 더 많은 것 사이의 중재를 묘사한다.”(p. 13, n. 7); 또는 “모든 대역사가의 저서의 성격을 만들고 있는 파생언어적인 긴장은 독립 변수(논거)의 모드와 채용의 모드, 또는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관념적인 암시의 모드와 함께 결합되는 효과가 발생된다.”(p.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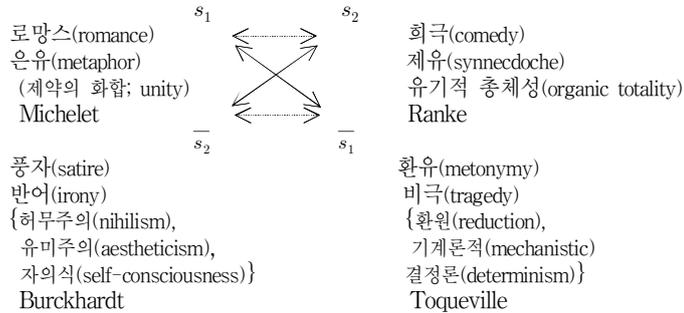
역사편찬의 전통적인 정진(正典, canon) 속에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그리고 역사편찬의 소위 역사철학자(헤겔, 마르크스, 니체)의 인식적인 요구를 거듭 주장하고, 그것과는 현저히 다르게 이 저서의 “실재적인” 또는 활동하고 있는 역사편찬자들은 네 사람, 즉 미슐레(Jules Michelet), 랑케(Leopold von Ranke), 토크빌(Toqueville), 부르크하르트(Jacob Burckhardt)의 방식으로 대치한다. 사실 메타역사적인 성취는 이러한 것보다 상당히 더 날카롭게 비꼬는데, 그 이유는 독립변수(argument)의 돌격적인 진의가 사실 역사편찬자보다 더 역사적인 역사철학자의 주장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때 이러한 정향을 생성시키는 텍스트가 기호사각형에 의해 어떻게 문제의 아티클레이션 중의 하나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어떤 해답이 필요하다.

메타역사의 또 다른 함수(특히 19세기 “역사적인 상상력”으로 한정된)는 이미 매겨진 개념적인 유형의 적절성을 단지 증명만 할 뿐만 아니라, 솔직히 은유 또는 로망티시즘을 시작하고 있는, 순환함수가 부정 또는 환유·환원의 기계적인 단계(stage)를 통해서 생기는, 제유의 새로운 단위 안에서 보다 더 큰 총체성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구성을 재요구하기 시작하고 있는, 그리고 결국 아이러니의 순간에 그 자체의 언어학적인 또는 역사적인 상상력의 새로운 위기로 신호하는 그리고 예기될지도 모르는 성서비유적인 해석 절차의 자의식으로 정박하는, 위대한 비코(Giambattista Vico)³¹⁾의 역류(逆流, ricorso)의 방식에 의해 신선한 확신으로 다시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자의식에 이르는 리듬 속에서, 그 순환(cycle)과 함께 신선한 은유적인 또는 로망틱한 순간은 더 증가하여 강화된 레벨에 다시 미쳐 빠져지기 시작할 수 있다. 사실 그것은 화이트가 아이러니와 위기의 순간이라고 마지막 결론에서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아이러니, 환유의 순간이 명확한 2개의 형식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19세기의 위기는 2개의 명확한 발작—즉, 부르크하르트의 “악행” 아이러니, 고요한 그리고 심미적인(요컨대 크로스의 “철학”은 이러한 정향의 보다 더 정교한 이중으로 존재한다) 아이러니가, 그리고 화이트가 분명히 언급한 바에 의하면(비록 헤겔과 마르크스가 언급한 것일지라도, “윤리의 계통연구”의 저자와

31) Giambattista Vico(1668~1744); 이탈리아의 문화사 철학자·법철학자. 오늘날 문화인류학이나 민속학의 선구자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주저인 「새로운 과학(Scienza nuova, 1725)에서 역사와 더욱 체계적인 사회과학들을 수렴하여 이 둘을 상호 침투시켜 단일한 인간과학을 만들려 했다. (역주)

함께 다소간 동등한 배경으로 복원된) 니체(Nietzsche)의 “선행” 또는 강력한 아이러니가 동시에 존재했던 것으로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뒤엎힌 동작은 닥치는 대로인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들이 개성적인 견해 또는 메타역사적인 것의 관념적인 편애의 “단순한” 결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사실 그 패턴은 매우 관념적인 것이며, 다양하고 가능한 텀과 그 위에 지도가 그려진 메타역사로서의 기호사각형의 작용에 의해 분명해지고 아티클레이션처럼 분절될 수 있다.

그 다이어그램은 결합적인 풍부함과 내가 그들의 복잡한 의미소적인 내용 또는 각각의 안에서 다양한 레벨과 부호의 공동현존재로 존재하는, 그 텀 안의 미끄러짐이라고 호칭했던 것을 아종적인 바로 그것으로 포함하고 있는 텍스트의 복잡함을 되도록이면 참작하려고 한다.



노트: 1. 미슐레(Jules Michelet, 1798~1874); 프랑스의 역사가. 역사에서의 민중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과거의 전체적 재현을 역사 서술의 목적으로 삼았다. 나폴레옹 삼세에 반대하다가 교단에서 쫓겨났다. 저서에 「프랑스사」, 「프랑스 혁명사」, 「마녀」 따위가 있다.

2. 랑케(Leopold von Ranke, 1795~1886); 독일의 역사가. 엄밀한 사료 비판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역사 기술과 세계사적 관점의 종합적 파악을 통한 역사 연구로 근대 실증적 역사학을 수립하였다. 저서로 「세계사」 9권과 「로마 및 게르만 제 민족의 역사」 등이 있다.

3. 브르크하르트(Jacob Burckhardt, 1818~1897); 스위스의 문화사가·미술사가. 근대 문화사학, 미술사학의 기초를 쌓았으며 미적(美的) 입장에서 르네상스 문화를 연구하였다. 저서에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 따위가 있다.

4. 토크빌(Alexis-Charles-Henri Clérel de Tocqueville, 1805~1859); 「미국의 민주주의(Democracy in America, 1835, 1840)」와 「낡은 정권과 혁명(The Old Regime and the

Revolution, 1856)』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의 정치사상가, 역사가. 두 저서에서, 그는 개인과 서구 사회집단에서의 사회조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평등의 효과에 관해 연구했다. (역주)

기호사각형 위의 이러한 최초의 지도그리기로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은 그들의 모든 편차 속에서 4명의 각각의 역사가들이 모든 레벨 사이의 화합(unison)의 광경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며, 사실 그것은 내적 긴장의 바로 이러한 부재 또는 그들에 대한 작가의 평가로 고찰되는 모순으로 존재한다. 토크빌의 경우에, 알라존(alazon)과 같이 상대를 경멸하지 않는 아이러니의 형식 그 자체는, 어떤 오이디푸스와 같이 비극적인 정직의 신념을 운반하지만, 주목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일의어적인 정향이 또한 궁극적으로 그 자신의 타성을 부르크하르트 유형의 아이러니와 니힐리즘으로 분해되며, 그때 그 자체(아직까지는 일의적인·관념적인 정향)는 메타역사학자의 아이러니의 충만한 힘에 종속된다.³²⁾ 따라서 이러한 최후는 다양한 유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며, 우리의 다이어그램 안에 아직 고찰되지 않은, 소위 합성된 텀이 아닌,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열려있는 기호사각형의 장점으로 분명히 존재하고, 그 복합적이고 중립적인 텀 S 와 \bar{S} , 그리고 또한 사각형의 바깥 측면의 직증적인 축은 가능한 통합을 지시한다. 그러나 이것을 증명하기 전에, 그것은 최초의 이원대당의 선택 안에 이미 귀속된, 말려든, 전략적인 함수로 고찰할 가치가 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언급할지도 모르는 것으로서의, 그

32) irony: 이 말은 'eiron'이라는 그리스말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그리스 희곡에 항상 등장 하던 불박이 인물 중의 하나였다. "에이론(eiron)"은 겉보기에는 약하고 세력도 없지만 꾀가 많아서 역시 희곡의 불박이 등장인물이었던 "알라존(alazon)"이라는 힘센 허풍쟁이(사기꾼)를 살짝 골려주곤 한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특별한 대가 없지만 속으로는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 인물 'eiron'의 뜻이 아이러니라는 추상명사에 살아남아 있다. 즉 아이러니는 겉으로 나타난 말과 실질적인 의미 사이에 괴리가 생긴 결과이다. 현대 이론가들은 대체로 아이러니를 말의 아이러니와 극적인 아이러니로 크게 나눈다. 말의 아이러니는 겉으로 하는 말이 내면적으로 의도된 뜻과는 다르거나 정반대가 되는 경우에 생기는 것이다. 극적 아이러니는 작품 자체가 전체적으로 아이러니를 담고 있도록 된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주인공이 자기가 체험하는 사건 또는 의도하는 일이 종국적으로는 자기 생각과는 전혀 판판인데도 모르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것은 비극일 수도 있고 희극일 수도 있다. 주요섭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에서 어린 딸은 어른들 사이에 오고 가는 일의 진정한 의미를 전혀 모르는 순진한 'alazon'이다. Sophocles의 "오이디푸스 왕"에서 오이디푸스는 자기의 결백과 선의를 의심치 않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천하의 대죄인을(그가 자기인 줄도 모르고) 끝까지 추적한다. 이 비극의 관중은 그가 몇도 모르고 스스로 제 무덤을 파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는 처참한 비극적 'alazon'인 것이다. 그밖에 우스꽝스런 행동으로 희극적 요소를 더하는 광대 유형의 버퐁(buffoon), 노드뎀 프라이가 자신의 책 「비평의 해부(Anatomy of Criticism)」에서 이 전형적인 인물을 나타내는 용어를 부활시킨 촛뜨기 혹은 속기 쉬운 인물 아그로이코스(agroikos)로 나누기도 한다. (역주)

리고 화이트 그 자신이 그것을 “메타역사”의 29 페이지에서 레벨의 다이어그램 안에 최초로 지도를 그리는 것으로서의 그 설화는 최초의 은유적인 자각으로서의 이것을 환유 또는 결정론의 부정적인 순간 그리고 닥치는 대로의 기계적인 우연성으로 지시한다. 그때 그 부정적인 위기(고정관념적인·화술적인 계열체상의)는 제유적인 재구성에 의해 서서히 압도되고, 하여간 내가 기왕에 언급했던 그 관점에서의 일종의 새로운 분해에 의해 그리고 일종의 새로운 위기에 의해, 파헤쳐져 무너지고 가치가 떨어질 뿐인 그 위기(아이러니적인 자의식의 그것, 그리고 제유적인 해법이 정말 그 스스로 픽션적인 그리고 언어학적인 것으로만 존재하는 느낌의 그것)는 전체적인 체계를 은유적인 재구성의 새로운 피리오드로 시동을 걸고 회전시킨다.

그러나 이것은 에피소드와 같은 사건의 목록과 상응하는 것도 아니고, 소행(work) 그 자체의 결합적인 논리와 상응하는 것도 아니며, 코미디에 의해 추구되고, 제유에 의해 결합되지만, 환유에 의해 추구되지 않는, 그 로망스와 상응한다. 따라서 우리는 “은유 vs 환유”의 친밀관계가 아니라, 은유와 제유 사이의 어떤 새로운 구성적인 긴장—즉, 화합(unity)의 두 형식, 최초의 은유적인 또는 표상적인 화합(미슐레의 혁명 당시 대단한 무아경의 화합, 특히 1790년 7월의 시민연맹의 축제[fêtes de la fédération]의 화합), 그리고 랑케의 제도(institutions, 교회·국가 등)의 형식 안에서 그들의 분리된 부분으로 구축된 제유적인 화합의, 보다 더 “인위적인” 사회적인 화합의 구성 사이의 길항작용(拮抗作用, antagonism)³³⁾으로 필히 개념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긴장인, 그래서 전혀 예기치

33) 길항작용(拮抗作用, antagonism): 1. 길항작용과 피드백작용의 차이; 어떤 현상에 관하여 상반되는 2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했을 때, 서로 그 효과를 상쇄시키는 작용을 길항작용이라 하며 이 때 상반되는 2가지 요인을 길항인(拮抗因)이라 한다.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변화를 일으킨 원인에 작용하여 변화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피드백작용과 차이가 있다. 길항작용의 예; 주로 생물학과 의학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약물·세균·근육·신경 등에서 볼 수 있다. 근육을 피는 작용을 하는 신근과 구부리는 작용을 하는 굴근, 심장박동을 촉진하는 교감신경과 억제하는 부교감신경, 아드레날린과 아세틸콜린, 세포의 활동에 대한 서로 다른 이온 사이의 길항작용은 잘 알려진 예이다. 노랑초파리(*Drosophilla melanogaster*)를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곤충의 변태를 조절하는 엑디손(ecdysone)이 인슐린과 길항작용을 일으켜 곤충의 성장과 성숙을 조절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약물의 길항작용; 약물의 길항작용은 약물을 투여했을 때, 다른 약물의 존재에 의해 그 작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소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카페인·스트리키니네 등의 흥분제와 바르비탈류의 수면제나 항히스타민류의 진정제, 하제(下劑)와 지사제, 발한제와 지한제, 혈관수축제와 혈관확장제, 파라아미노벤조산과 술폰제, 포도당과 인슐린 등을 들 수 있다. 약물의 길항 작용은 약물 투여시의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버섯의 무스카린 중독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아트로핀과의 길항작용을 이용하여 해독한다. 2. 세균의 길항작용; 각종의 세균을 혼합배양하면 어떤 균종(菌種)은 그 배지(培地)가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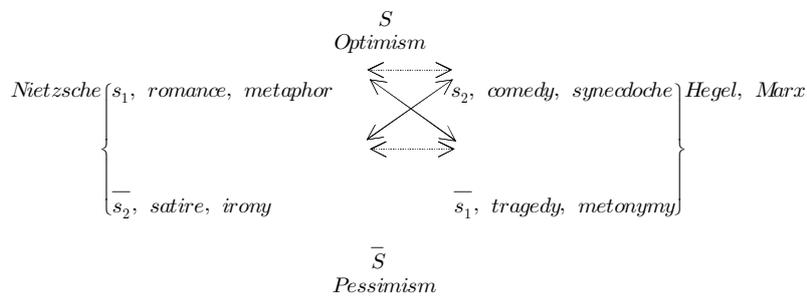
못한 이원대당으로 둘러싸인 기호사각형의 지도를 그렸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사각형이 어느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며(이제 독자가 실험에 의해 이러한 주장이 시도되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그 팀의 오로지 이러한 조정(調停)만이 메타역사의 본질적인 것을 생성할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무엇을, 즉 가장 심층의 주체, 해법(또는 이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모순을 체득했던 것에 대한 지식의 원천(book)은 “의미 vs 비-의미”의, 또는 “믿음 vs 우연성”의 그것(은유 vs 환유: 19세기 “신앙의 위기”의 지도그리기의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인 것의 2개의 불일치적인 환상 사이의 긴장이지, 만족한 것(무아경의 혁명적인 자발행동과 커다란 사회제도의 보수적인 영속성)이 아니다.

또한 나는 초기에 제기되었던 “제4의 팀”의 문제의 말(word) 대해 부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 자체가 비록 단연코 신선하거나 놀라운 것이 아닐지라도, 분명히 존재하며, 아이러니는 텍스트가 전도될 때 굉장히 마술적인 팀으로 존재하고, 그 결합적인 메커니즘은 의미의 광대한 의미를 열십자로 교차함으로써 이렇게 터무니없고 놀라운 “정향(position)”을 생산하는 만큼 충분히 빗대어 말하며, 그들이 연구의 대상으로 그리고 타자들 사이의 한 애틀튜드로 간단히 나타나는 것으로 사용한다(이러한 제4의 팀 안에서의 미끄러짐은 타자의 어느 것보다 더 크지 않다).

우리는 사각형의 지도그리기, 즉 그 복합적이고 중립적인 팀이 역사적인 낙천주의(optimism)와 염세관(pessimism)으로 막연히 지시될 수 있으며 그 이완(弛緩)의 언어는 우리가 오랫동안 억류하지 않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이제 곧 결론을 내야할지도 모르는데, 그 이유는 양측의 그 작용의 순간이 거절하는 그래서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정향으로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S 는 상상할 수는 있지만 불가능한 통합으로 존재하며, \bar{S} 는 내용과 최초 대당의 양 팀의 총체적인, 기계적인 부정의 위치를 일소하고 있는 단지 빈 공간으로만 존재한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의 주의력을 전도시키는 측생(側生, 또는 직시)의 통합으로 존재한다. 여기서 사실 그 위대한 “역사철학자들”은 사각형 자체의 내재논리에 의해 생성되었던 그들의 정향을 발견한다. 화이트에 의하면, 헤겔과 마르크스는 비극과 코미디의 통합을 성취했다. 역사는 코미디이며, 그 개체적인 순간은 비극적이다. 동시에 니체는 비극과 코미디의 동정으로 시작하고, 그것은 서로를 명료하게

기 발육조건에 알맞아 왕성하게 발육되어 다른 균종의 발육을 억제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푸른곰팡이는 페니실린을 생산하여 각종 병원세균의 발육을 억제한다. (역주)

능가하고, 무차별적으로 어떤 무엇을 발생시키며, 이제 다시 한 번 극도의 은유적인 에너지를 방출하는 언어의 힘의 아이러니한 의미가 될 것이다(그것이 로망스와 풍자의 단순한 통합보다 더 나은 어떤 무엇이 되는 이 최후의 순간에 능력을 부여하는 로망스와 은유 사이의 기호학적인 미끄러짐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존재하는가를 주목하라). 이것과 함께 그 지식 기원의 결합 순간은 남김없이 구명(究明)되고, 어떤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헤겔, 마르크스, 니체의 선형성은 “일의어적인(univocal)” 역사가들을 초월하며, 그 후 아마 니체의 보다 더 모호한(tentative) 선형성은 니체가 비극과 코미디의 순간을 “포함하는 한,” 그리고 그때 더 나아가 새로운 그리고 독창적인 가능성, 즉 은유와 아이러니를 투기하는 한(절저하게 언어학적인 또는 재귀적인 순간), 초기의 짝을 벗어나는 한, 또 다른 2개의 정향을 초월할 것이다.



노트: romance(로망스), metaphor(은유), comedy(희극), synecdoche(체유), satire(풍자), irony(반어법), tragedy(비극), metonymy(환유), optimism(낙천주의), pessimism(염세관). (역주)

이제 기호 사각형 그 자체의 성질로 되돌아가면, 그레마스의 기호학의 약동성의 발생은 보편적으로 체계 내에서의 어떤 심원한 공간성의 조짐이 되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 이것은 사실 르네 퉁의 파국이론의 공간적인(그는 정향적인 또는 위상적인) 전제 안에서 그레마스의 기호학의 토대에 지나지 않은 것을 성취하려고 시발하는, 기왕에 언급되었던 다시 말해서 지식의 기원 속에서 장 프티토-코코르다에 의해 인식되었던 어떤 무엇으로 존재한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 진취적인 정신의 생존능력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새로운 변

의 기호학 안에서 변형을 허용치 않는 공간의 이러한 끈덕짐(persistence)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우리의 사회집단 안에서의 그 발생의 역사적인 사실인, 그것이 관자놀이-시간적인 것에 사로잡혀 모더니스트 이전의 생성과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공간을 초월하는 지적으로 주어진 피리어드 그것만의 예 또는 진조(symptom)의 증명사도 아니다. 모든 구조주의는 어떻게 해서라도 교묘히 공간적이며, 그리고 단지 그들이 수사학적으로만 또는 직각의 표상(presentation)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비록 그 사실이 사전에 언급된 것일지라도, 우리는 부합하는 언어학적인 표현보다 그리고 반드시 무의미한 것도 아닌 그들의 진전보다 현대의 보다 더 교육학적으로 확신하는 그리고 설득적인 이러한 다이어그램을 발견한다).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을 만큼 위대한 철학자 르페브르(Henri Lefebvre)³⁴는 공간의 진심에서 우러난 새로운 철학을 가장 역사적인 기초, 즉 현대 자본주의의 경향을 나타내는 공간화(그리고 우리는 포스트모던의 르페브르의 저서 안에서 예견되지 않은 개념의 사용을 덧붙여 언급하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로서의 기초를 조정(措定)했다. 그 그레마스의 기호학은 어느 의미에서 틀림없이 “진리”로 존재할 할 것이며(하어튼 화용론적으로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적인 진전으로 가득 찬), 동시에 내가 화해(reconciling)를, 즉 현대 자본주의의 총체적인 체계의 그 구조가 새로운 이론체계의 개념화와 아티클레이션(articulation)을 위한 가능성의 조건과 같은 어떤 무엇을 구성하고 있는 그 화해를 무난히 발견하는 그 시대의 성격의 심원한 역사적인 진조로 위치한다. 아마 이것은 또한 더 한층 다르고 새로운 그리고 기호학 그 자체의 진전을 위한 미답의 영역을 제공할지도 모른다. 공간의 기호학, 즉 그레마스의 저서에서의 기호학의 기왕의 편협한(local, “지역·전국”에 대한 “특정 지역의, 지방적”의 뜻의) 영역은 보편적으로 실행된 존재(being)가 아니라, 기호학 그 자체의 공간과 공간화, 그리고 이렇게 새롭고 정향적인 또는 위상적인(topological) 의미의 우리들 사고의 지평(horizon)으로 존재한다. 하어튼 영어권에 소개된 기호학의 예사롭지 않은 사건의 파노라마와 같은 이 새로운 최초의 개관에 참가하게 된 것을 나는 영예롭게 생각한다.

34) Henri Lefebvre(1901~1991); 르페브르는 지력이 뛰어난 프랑스의 마르크시스트, 사회학자였다. 「공간의 생산(The Production of Space, 1974)」에서, 그는 공간의 다양한 레벨이 매우 추상적인, 가공하지 않은, 자연 공간(“절대공간”)으로부터 사회적으로 생산된 의미의 보다 더 복합적인 공간성(“사회적인 공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역주)

노트: denotation(외연); 1. 텀 A는 확장(extension)이 관련되는 한 개념을 다 써버리고 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정의를 에워싸고 있을 때, 외연(外延, denotation)이라고 언급된다(cf. J. S. Mill). 따라서 예를 들면, 언어학적 단위는 그것이 그것의 모든 출현을 포섭할 때 외연적(denotative)이다.

2.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외연적(denotative) 성격은 이러한 체계가 경험론의 원리의 요구(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총망라의 요구)로 채워지는 한, 그들은 복합적 대상으로 존재하는, 기호학적 체계로 추정된다. 외연적(denotative) 기호학적 체계는,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에 의하면(그리고 단지 정의의 예비적 시도로서), 기호학적 체계 그 자체로 존재하는 그 측면의 무(無)-체계로 존재하는 것이다. 두 측면 가운데 하나가 스스로 표현측면과 내용측면으로 조립될 때, 그러한 기호학적 체계는 외연적(denotative)으로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3. 그러한 정의는 2중 2차원의 기호학적 체계의 정의(즉, 정확히 말해서 유명한 덴마크 언어학자들의 용어법으로 말해서 'semiotic')에 덧붙일 것이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는 과학적(scientific) 그리고 비-과학적 기호학체계(semiotic system) 간의 새로운 정의를 제안하기 위하여 "외연기호학체계(denotative semiotic system)"을 단념한다. 그는 이것을, 기호학적 체계에 대한 그의 정의를 확립하기 위하여, 그가 착상적인(ideal, 막연한 느낌) 텍스트로 전제했던, 그리고 구조적 동차성으로 성격을 만들었던 그 무(無, nothing)로 인하여 용어법을 바꾸게 되었다고 스스로 설명한다. 그러나 그러한 텍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생산된 것으로서의 어느 텍스트는 몇 가지 다른 체계에 속한다. 따라서 ④ 어떤 테스트는 동차적인 실재물로서의 아프리오리로 관측될 수 없다. 역으로 그것은 진보된 분석으로 선택된 부속물로서의 레벨의 텀으로 구성된다. ⑤ 어떤 자연언어는 외연적(denotative) 기호학체계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렇게 표출된 담화는 몇 가지 체계(몇몇 내포적[언외지의적, connotative] 기호학체계의 비-과학적 메타기호학체계 등의 기호학체계)에 속한다. ⑥ "모든 랑가주(languague)"는 기호학적(semiotic system) 개념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은 '시니피앙'으로 존재하는 전체로 채택된, 그것을 내포기호학체계(언외지의적 기호학체계, connotative semiotic system; 또는 내포[언외지의, connotation]의 랑가주)로 만드는, 외연기호학체계(denotative semiotic system)의 개념과 결코 동정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랑가주는 증명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N극과 S극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는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denotative semiotic system=semiology의 차원, 즉 "figure+sememe"이며, connotative semiotic system=semiotics의 차원, 즉 "figure+sememe+thymic category"이다. -역주)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SEMIOTICS and LANGUAGE』(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9), pp. 72~73. (역주)

영역자의 서문

폴 J. 페롱(Paul J. Perron)³⁵⁾

이 서문의 의도는 유럽에서의 기호학의 진전을 다시 투사하려는 것이 아니며, 그레마스(A. J. Greimas)의 시대의 지적인 전통 안에서 그의 저서의 모든 것을 세부에 걸쳐서 어떤 장소에 위치를 정하여 놓으려는 것도 아니다. 코케(J. C. Coquet)³⁶⁾의 「기호학(Sémiotique—l'École de Paris, 1982)」과 그의 「생애-작품연구의 원소(Éléments de bio-bibliographie, 1985)」에서 그는 그의 많은 저서의 전기와 마찬가지로 기호학의 역사에서 그레마스에게 의해 연출된 기본적인 역할의 상술된 개관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게다가 「헌정선집/그레마스에게 경의를 표하는 소문(Recueil d'hommages pour/A. J. Greimas, 1985)」의 그들 견해의 서문에서 파레트(Herman Parret)와 루프레히트(Hans Rupprecht)는 그 이론의 현저한

35) Paul Perron: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현대프랑스어와 프랑스/퀘벡문학 교수이다. 그는 대학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관심영역은 첫째, 17세기의 새로운 문학(궤변적인 관계)과 19세기~20세기의 프랑스계/퀘벡문학이다. 둘째, 기호학과 화술학(narratology). 셋째, 현대(modern) 프랑스/퀘벡 소설의, 그리고 에스노-역사적인 담화(궤변적인 관계)의 기호학이다. 그는 여러 가지 책을 저술, 공동저술, 편집, 공동 편집했는데, 그 중에서 「기호학과 현대 프랑스/퀘벡 소설(Semiotics and the Modern Quebecois Novel)」(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6), 마르셀 다네시(Marcel Danesi) 교수와 함께 저술한 「분석적인 문화(Analyzing Cultures)」(Indiana University Press, 1999)는 가장 최근의 것이다. 또한 그는 문학적인 기호학과 화술학 상의 학문적인 간행물과 편집된 책을 간행했다. 최근의 관심은 문학적인 기호학, 문학이론, 화술학 그리고 문학방법론의 보편적인 문제이다. (역주)

36) Jean-Claude Coquet: 파리 8대학 문학부 기호분석 언어학의 명예교수. 프랑스 기호학의 역사에 관한 고찰은 70년대의 결정적인 어떤 무엇으로 위치를 선택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고찰하도록 우리를 유도한다. 그러나 형식적인 구조주의에 의해 좌우된 “의미(meaning)”의 연구는 유정(有情)의 우주 그리고 내재성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타당한 개념의 우주로 존속될 때까지 고려하지 않았다. 게다가 언어학적인 언의발언(Benveniste)에 의해, 현상학(Merleau-Ponty)에 의해, 그리고 정신분석학(Freud와 최근의 Lacan)에 의해, 존속되고 최근에 진전된 과업은, “의미”에 관해 동의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존재할 것이며, 그것은 “사물의 힘(force),” 실재성의 원리(M. Arrivé)로 고려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60년대의 표준 기호학과는 반대로, 실례의 기호학은 반영 안에 통합하려고 노력한다. 모든 분석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메타언어는 그 자체로서의 그 언어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존재(being)로부터, 신체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지식으로서의 이러한 최초의 사실을 결코 은연하지 못한다. 방브니스트(Benveniste), 메를로퐁티 그리고 프로이트는 이러한 관점에 동의한다. 그 논조는 3가지의 프로이트의 텍스트(1891, 1905, 1919) 상에 기초한다. 그들은 종속된 또는 “힘”이 아닌 “의미”의 생산적인 실례를 발생시킨다(체3의 내재의 힘[power] 또는 초월적인 행위주: 비-주체, 거의 주체와 같은 그리고 주체로서의). 그것은 실례의 기호학이 조립된 이렇게 기본적인 실례의 책략(game)으로 시발하고 있다. (역주)

특징에 대한 고찰뿐만 아니라,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 안의 지적인 지평(horizon)을 묘사한다. 번역된 이 책에서의 소론은 3가지 주요한 저서로부터, 즉 그레마스의 기호학에 기초를 두고 있는 텍스트와 함께 영어권독자에게 제공된, 그리고 문학적인·역사적인·에스놀로지적인(ethnological)·사회학적인·심리학적인·과학적인 담화에 적용됨으로써 화술이론의 발견학습적인 가치에 조명을 비추는, 「의미론(Du sens, 1970)」, 「기호학 그리고 사회과학(Sémiotique et sciences sociales, 1976)」, 「의미론 II(Du sens II, 1983)」로부터, 선택되었다.

서언

「의미론(Du sens, 1970)」에서 보이고 있는 그 소론은, “의미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의미심장한 어떤 무엇을 언급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p. 7)”고 하는 영성한 소견을 공개하고, 그레마스의 기호학의 최초의 2개의 상(相, phases)³⁷⁾의 위치(place)를 탐색하기 시작한다. 1956년, 그레마스는 「소쉬르주의의 현시성(L’actualité du saussurisme)」이라고 제목이 붙여진 「현대프랑스어(Le Français Moderne)」에서,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와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에 의해 고찰된, 그리고 사실 “그 의미작용의 감지할 수 있는 구조세계의 소쉬르적인 가정(postulate, p. 193)”이 인간과학으로 단일화된 방법론의 합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의

37) 상(相, phase): 물리학·화학 용어로, 어떤 물질이 어느 부분에서건 물리적·화학적으로 같은 성질을 나타낼 때를 표현하는 것이다. 기체상, 액체상, 고체상이 존재하고, 하나의 상으로 이루어지는 균일계와 2개 이상의 상으로 이루어지는 불균일계로 나뉜다. 어떤 물질의 어느 부분을 취해도 물리적·화학적으로 같은 성질을 나타낼 때, 그 물질은 하나의 상을 이룬다고 한다. 예를 들면, 공기는 질소·산소 및 그 밖의 기체의 혼합물이나, 혼합은 완전하고 또한 균일하므로 하나의 상을 이루고 있다. 이 경우에는 기체의 상이므로 기체상(氣體相)이라 한다. 식염수는 식염이 물에 녹은 것인데, 역시 균일하므로 하나의 상을 이루고 액체의 상이므로 액체상(液體相)이라고 한다. 물의 결정인 얼음도 하나의 상을 이루는데, 고체의 상이므로 고체상(固體相)이라고 한다. 또 상은 균일계(均一系)와 불균일계로 나뉜다. 즉 하나의 상으로 이루어지는 계를 균일계, 2개 이상의 상으로 이루어지는 계를 불균일계라고 한다. 예를 들면, 식염수는 균일계이나, 물과 기름을 잘 섞어서 방치하면, 2개의 층으로 나누어져 기름이 약간 섞인 물과, 물이 약간 섞인 기름의 2개의 상으로 이루어지는 불균일계가 된다. 불균일계는 어떤 상이 공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기도 하는데, 기체상과 액체상, 액체상과 고체상, 또는 이 세 가지 상이 모두 공존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물과 수증기, 물과 얼음 등이 공존할 때도 불균일계이다. 균일계를 단상계(單相系), 불균일계를 다상계(多相系)라고도 한다. (역주)

해 시도된 저서 안에서, 화용론적인 논조를 피력했다.³⁸⁾ 이때 그레마스는 그 많은 형식 중에서 구조주의가 비록 언어학적인 투시도법으로부터 언어의 문제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지라도(예를 들어, 인류학에서의 레비스트로스³⁹⁾와 뒤메질, 문학에서의 롤랑 바르트, 정신분석에서의 라캉이 그들 각각의 분야에서 혁명을 일으켰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떨림을 같은 격상으로 명목을 붙인), 본질적으로 그들 자신의 영역 안에서 동일한 것을 실행하려고 분투했던 구조언어학자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프랑스의 언어학에서의 최근의 언급으로 블룸필드(Leonard Bloomfield)의 주연주의(distributionalism)가 있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소쉬르와 엘름슬레우로부터 차용된 개념의 외삽(外挿)에 의해, 그리고 새로운 연구방법의 단조(鍛造)에 의해, 위대한 진진(strides)이 인간 과학의 변화가 많은 영역 안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 그레마스에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 책의 제1장 “비교신화학”은 1962년에 쓰였고, 그것의 방법론적인 그리고 이론적인 토대(underpinning) 안에서 레비스트로스와 야콥슨(Roman Jakobson)에게 많은 은혜를 입고 있다. 그레마스의 이탈리아의 관점은 의미의 연구가 말과 발화를 부연(paraphrase)하는 것과 또 다른 말과 발화로 발화하는 어떤 메타언어적인 활동을 정의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의미작용을 기술하는 첫 단계는 언어의 어떤 레벨의 또 다른 레벨로, 어떤 언어의 또 다른 언어로, 치환되는 것으로 존재한다. 왜냐하면 의미는 초월등록의 바로 그 가능성으로 기술될 수 있기 때문이며, 그 다음의 단계는 새로운 용어법으로 전진되고 당해 대상으로 고찰될 수 있는 말하자면 양의연동의 적합한 메타언어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화적인 시니피에”를 폭로하기 위하여, 그레마스는 구조언어학으로부터 부분적으로 채택된 분석의 객관적인 기준상에 기초가 만들어진 엄격한 방법론을 성취하려고 진력하며, 우리가 주목했던 것처럼, 그것은 언제나 다소 포기된 탐색을 의미작용으로 소유했다. “신화학적인 언어를 관념적인 언어”로 번역한 그 번역으로서의 제1장에서 고찰된 그 신화에 관한 뒤메질(Georges Dumézil)의 저서는 레비스트로스가 오이디푸스 신화를

38) 파레트(H. Parret)와 루프레히트(H. G. Ruprecht)에 의해 출간된 「헌정선집/그레마스에게 경의를 표하는 소론(Recueil d'hommages pour/A. J. Greimas) (Amsterdam: John Benjamins, 1985), p. liv. Jean-Claude Coquet의 「생애-작품연구의 원소(Éléments de biobibliographique)」에서 인용되었다.

초월 분석했던 방식 그대로 “초월 분석한다.” 간단히 말해서, 뒤메질 분석의 새로운 형식화는 신화의 연구에 의해 그리고 사회적인 관념의 초월구조를 고찰하는데 사용된 그래서 사회과학으로부터 차용된 구조적인 방법론에 의해 제안된다. 사실 이것은 기호학의 관점에서 보면 주요한 진전인데, 그 이유는 엘름슬레우의 텀 “내포기호학(connotative semiotics)”이 텍스트의 양의연동의 적합한 기술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존재하는 “외연기호학(denotative semiotics)”으로 변형되기 때문이다.

의미의 문제가 최소차원으로 환원됨으로써, 즉 의미작용이 초월 등록됨으로써, 이러한 영역의 과학적인 능동성은 치환의 테크닉을 확립하는 것으로 존재한다.³⁹⁾ 뒤메질의 저서에서의 분석의 주요한 특징은 신화의 결합체적인 표출의 치환으로, 또는 다시 말해서 화술을 통해서 주연된 신화적인 시니피에의 제한된 수의 단위 사이의 상호관계를 설치함으로써, 발견될 수 있다. 최초의 중요한 방법론적인 단계로서의 타당성은 정의되고, 내재정의상에 기초가 만들어진 담화는 신화적인 대상으로 구성된다.⁴⁰⁾ 그러나 뒤메질의 텍스트의 이 새로운 형식화가 엄밀한 의미에서(stricto sensu) 형식이론의 논리학자들에게 의해 예로 정의되는 것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최초의 기호학이 본질적으로 형식적인 언어로 고찰되지 않고 오히려 해설 쪽으로, 의미의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쪽으로의 매개단계로 고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실제적인 증가가 선행 방법론적인 투시도법을 채택하는 것으로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의 결론은 의미적으로 서로 대당인, 어느 결합체적인 관계를 배척하는, 시니피에 단위의 두 짝의 상호관계로서의 신화에 관한 레비스트로스의 계열체적인 정의가 불충하다는 것을 분명히 지시한다. 사실 그레마스는 구조인류학으로부터 차용된 방법론적인 절차를 사용하며, 더 나아가 의미소 또는 의미소범주 그리고 궁형어휘소(신화의 기

39) 「현정선집/그레마스에게 경의를 표하는 소론(Recueil d'hommages pour/A. J. Greimas)」의 그들의 서문에서, Parret과 Ruprecht는 그레마스가 의미의 성층개념을 치환적인 것으로 변형하고, 소쉬르적인 언어로부터 물려받은 의미의 관계적인 개념을 치환적인 성분의 중명사로 풍부하게 만든다. “마치 아티플레이션이 보충을 관계로 구성하는 것처럼, 치환이 보충을 아티플레이션처럼 분절된 관계로 구성한다.” (pp. 26~27).

40) 그레마스와의 페레드릭 제임슨의 서문에서 사용된 텀의 정의와 내재정의는 그레마스와 쿠르테(J. Courtés)의 「기호학과 랑가주(Semiotics and Language, An Analytical Dictionar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2)」의 의견을 참고한 것이다.

본구조를 만들고 있는 그래서 어휘소적인 대당의 짝을 구성하고 있는 의미소범주의 세트)로 호칭된 그래서 독특한 특징으로 떨어진 그들을 조련(訓練)함으로써 주요한 구성단위로 정련한다. 또한 그는 담화분석으로 배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결합체적인 구조를 연구할 필요성의 경우를 만든다.

그리고 이 책의 제2장 “자연세계의 기호학에 대하여”는 「구조의미론(Sémantique structurale, 1966)」 이후에 쓰였으며, 그것은 의미작용의 기본구조의 최초의 모드를 묘사했고, 최초로 담화의 통사론적인 그리고 의미론적인(행위주적인) 이론(독창성이 풍부한 이 저서의 상세한 고찰에 대해서는 Fredric Jameson의 「Prison House of Language, 1972」와 Ronald Schleifer의 그레마스의 「Structural Semantics, 1983b」의 서문을 보라)을 제안했다. 더 나아가 제2장은 기술가능성의 탐색에 의해, 또는 자연언어에 의지하지 않는 체계 안에서의 의미작용의 포착에 의해, 메타기호학 그리고 이론적인 성질의 문제를 제기한다.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의 부연에 의하면, 그레마스(1970)는 기호학을 “분석에 종속될 수 있는 계층 그리고 상호관계에 의해(그리고 대체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원소(p. 22)”로 정의한다. 다시 말해서, 기호학은 오로지 기술가능성으로만 존재하며, 기술된 관계의 체계는 표현된 외부세계 또는 내재세계에 의해 기호(sign)의 성질에 결코 의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술은 관측된 관계와 교차 또는 선언(選言)의 관점의 동정과 명목 만들기에 의해, 관계의 네트워크의 구성을 통해서 존재한다.

구별이 분명한 것과 의미심장한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내용의 레벨에서 타당한 특징의 기술을 통한 자연세계의 몸짓영역의 연구가 그레마스의 기호학의 인류학적인(anthropological) 차원의 전면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가 고찰했던 제1장 “비교신화학”은 텍스트의 계열체적인 조직상에 초점을 맞추고, 반면에 제2장 “자연세계의 기호학에 대하여”는 “주체/대상”의 관계의 화맥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 주체에 의해 구성된 그리고 또 다른 주체에 의해 해독된 “발화(utterance)”로 나타나기 때문에, “담화구조”로 고찰된 몸짓의 결합체적인 차원을 연구한다. 표현과 내용 사이의 기호학적인 관계의 탐으로 정의된 몸짓기호의 기호학적인 지위는 실제로 몸짓단위를 구성하는 동정의 기본적인 문제와 함께 연언(連言)으로 연구된다. 신체로서의 인간존재는 우선 세계의 격상으로 관찰되고, 그때 유동성(mobility)으로서의 복합적인 매커니즘은 의미작용이 위치(place)를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의해 시니피앙의

레벨에서 편차적인(정향적인) 간극을 생산한다. 몸짓적인 능동성은 그것을 정의하고 있는 투기의 프레임 안에서 탐구된다. 따라서 프로그램화된 몸짓적인 투기는 몸짓적인 능동성의 시니피에를 구성하는 것으로 언급될 수 있으며, 반면에 몸짓적인 시퀀스는 그것의 시니피앙과 동등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것은 그레마스에게 몸짓적인 프로그램의 기호현상을 시니피에로 선택된 몸짓적인 시퀀스와 시니피앙으로 고찰된 몸짓적인 투기 사이의 관계로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언급되고 실행될 때, 그 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의 분석은 몸짓적인 기호학의 함수적인 성질로서의 문제를 제기한다. 제2장에서, 그레마스는 특히 내용의 조직을 취급하고 있는 분석의 레벨을 성취할 필요성과, 또한 자연언어의 의미론적인 차원을 예외시키고 있는 보편적인·함수적인 기호학의 일부가 될지도 모르는 그리고 선택될 수 있는 그래서 가능할 수 있는 형식을 암시하는 것을 동정한다.

화술문법

우리가 「의미론(Du sens)」으로부터 번역했던 제3장, 제4장의 마지막 프로그램의 소론은 그레마스 기호학의 초석의 주성분이 된다. 이러한 두 소론은 심층의 기호현상-화술문법(semio-narrative grammar)을 위한 통사론적인 성분을 제공한 프로프(Vladimir Propp), 그리고 의미론적인 성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레비스트로스, 두 사람에게 빛을 지고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한다. 프로프의 31가지의 함수(화술의 다양성, 그리고 그것의 목록로 분류된 시퀀스가 민담의 구조를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로 남아있는 결합체적인 단위를 지시하고 있는)는 제한된 수의 행위주의 텀 안에서 재 정의된 뒤, 그때 그것은 화술의 전체강류의 기초가 되고 있는 조직 원리를 임신한 것처럼 마음속에 그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심층구조는 격아강적인(格亞綱的인; figurative) 담화의 조직 원리로 정위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연언어(영화, 격아강적인 회화, 건축, 광고 등)를 통해 필연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또 다른 기호학과 마찬가지로 추상적인 담화(철학적인, 정치적인, 과학적인)로도 정위되었다. 더 나아가 장 프티토-코코르다(Jean Pettitot-Cocorda, 1985)에 의하면, 우리는 이러한 구조가 인간의 정념, 관념, 연기(action), 꿈 안에 실존적으로 생존된 것을, 그리고 어느 진전·변화의 상(相, phases)을 뒤랑(Gilbert Durand)으로부터 차용한 기호현상-화술구조가 “상상적인

것의 인류학적인 구조”⁴¹⁾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을, 제안하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그레마스를 위해 그렇게 존재하는 그것은 그러한 구조로 고찰될 수 있는 의미를 성취하는, 또는 문법을 성취하는, 최고도의 망상(importance)이 된다. 사실 그가 정성을 들여 만든 기호현상-화술문법은 장 프티토-코코르다가 “구조주의의 핵심문제 중의 하나 어쩌면 정말이지 그것의 핵심문제일지도 모르는 것 중의 하나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결합체적인 축 상의 계열체적인 축의 투기(치환, conversion)”로 기술하는(1985, pp. 48~49), 통사론과 의미론 사이의 아종적인 관계를 확립한다.

가치체계의 세트로 정의된 의미론적인 우주는 그것이 아티쿨레이션처럼 분절된 그리고 화술적인 것이 될 때만 의미심장한 것으로 출현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담화는 그 아티쿨레이션보다 앞선 그 자체로서 가정된 의미작용의 총체성(totality)을 가정하여 만들어졌고, 그것을 부분적으로 외연화하였다.⁴²⁾ 기본적인 레벨에서의 이러한 초미의미론적인 우주는 마치 “삶/죽음(개인적인 우주)”과 자연문화(집합적인 우주)와 같은 기본적인·가치론적인 구조로 분절된다. 심층의미론의 레벨에 정위된 이 기초구조는 개인적인 또는 집합적인, 즉 의미론적인 우주의 분석을 위한 시발점으로 기여하고 있는 일시의(ad hoc) 우주로 고찰된다. 그들의 의미는 그 자체만으로 설빙상단의 빙설(névé)이라기보다, 오히려 아티쿨레이션처럼 분절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설빙의 하단처럼 의미작용의 형식 내부에 나타날 때만, 다시 말해서 그들이 행위주적인 구조로 치환될 때만 명백히 존재한다. 장 프티토-코코르다(1985)는 그가 인류학적인 프레임 안에 기호현상-화술구조를 정위할 때 그레마스의 기호학의 “의미론의 심층범주는 상상적인 것의 우주”라고 하는 이론적인 망상(내포 의미, import)을 분명히 감지한다. 우리는 그들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그들 또한 가치화되기 때문에, 대상가치, 즉 주체행위주의 연기(action, 그레마스의 용어법 안에서의 화술프로그램)를 통제하는 것을 위한 주객치환응집(quest)으로 다시 말해서 관념적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오로지 존재할 뿐이다. 그것은 그

41) Gilbert Durand, 「상상적인 것의 인류학적 구조(Les Structures anthropologiques de l'imaginaire)」(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3). (역주)

42) 성경 텍스트에 적용함으로써 기초이론적인 모델로 표현한 것을, 파트(D. Patte)의 「담화에서의 의미의 생성체도를 위한 그레마스의 모델(Greimas's Model for the Generative Trajectory of Meaning in Discourses: American Journal of Semiotics 1, 1982: 59~78)」을 통하여 보라.

들이 감지될 수 있는 행위주적인 통사론에 의해 통제된 대상가치의 순환을 통해서만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 자체로만 주체화될 수 없고, 그 대신에 연기(action)의 논리의 증명사를 통해서만 주체화될 수 있다. 따라서 행위주적인 통사론의 역할은 화술의 메시지를 구성하는 그리고 인류학적인 함수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의미론을 실행하는 화술로 치환된다. 이러한 통사론은 그들을, 즉 주체성의 변화과정을 구체화하고 있는 무의식을, 극화하는 “장면(scene)”의 시뮬레이크림(simulacrum)을 통해서 포착할 수 있다(1985, pp. 50~51).

제3장 “기호학적 강제와 상호작용”은 궁극적으로 담화화를 통해서 나타나기 전에 행위주적인 통사론으로 치환된, 그러나 전체체도의 최초의 영역에 특히 초점을 맞춘, 기본적인 기호학의 레벨과 함께 시발하고 있는, 생성체도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기호사각형 이론의 주요한 대상은 내용의 실체(substance, 엘름슬레우의 텀)를 아티큘레이션처럼 분절하는 것이며, 거기에 내용의 형식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구조는, “한편으로는 포착을 위한 최소조건을 결합하고 있는 개념으로 또는 의미작용의 생산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언어(보다 더 보편적으로 말해서, 어느 기호학적인 체계 또는 변화과정)의, 그리고 어느 기호학적인 단위의 최소정의를 담고 있는 모델(그레마스과 쿠르테, 1982, p. 314)”로 고찰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이든지 간에 의미론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본구조는 접합관계(junction: 연언/선언)의 증명사에 의해, 상호적인 전체에 의해, 2개의 반대의미와 서로 관련된 복합적이고 이원적인 의미소범주로 나타난다. 그러나 장 프티토-코코르다(1985)의 견해에 의하면, 불대수(Boolean algebra)⁴³⁾ 기본집합논리의 텀 안에서 형식화된 단순논리형식으로

43) Boolean algebra(불 대수); 1. 실체(개념 또는 객체)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리논리학의 기호체계. 이 체계의 기본규칙은 1847년 영국의 조지 불이 공식화한 뒤 다른 수학자들에게 의해 다듬어졌으며, 집합론에 응용되었다. 오늘날 불 대수는 확률론, 집합의 기하학, 정보론에서 중요하다. 더욱이 전자식 디지털 컴퓨터에 사용되는 회로설계의 기초가 된다. 불 대수에서 원소들의 집합은 여러 가지 공준들의 계의 어떤 것에 의해서도 묘사될 수 있는 두 가환이항연산에 대해 닫혀 있다. 그 공준들은 각 연산에 대해 항등원이 존재하고, 각 연산은 다른 연산에 대해 분배법칙이 성립하며, 집합의 모든 원소에 대해 각 연산의 역원이 존재한다는 기본공준으로부터 연역된다. 보통의 대수(즉 원소는 실수이고 두 가환이항연산이 덧셈과 곱셈인 대수)는 불 대수의 모든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실수집합은 두 연산에 대해 닫혀 있고(즉 두 실수의 합이나 곱은 실수임), 덧셈에 대한 항등원 0과 곱셈에 대한 항등원 1이 존재하며(즉 모든 실수 a 에 대해 $a+0=a$, $a \times 1=a$ 임),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법칙이 성립한다[즉 $a \times (b+c)=(a \times b)+(a \times c)$]. 그러나 곱셈에 대한 덧셈의 분배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즉 $a+(b \times c) \neq (a+b) \times (a+c)$]. 불 대수의

서의 기호사각형은 평범한 것으로 존재하며, 망상이 거의 없는데, 그 이유는, 그것은 단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로 되돌아가고 있는 논리사각형을 재 형식화하기 때문이다.⁴⁴⁾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것을 그 팀의 강력한 느낌으로서의 구조로 고찰한다면, 그때 모든 것은 변화할 것인데, 그 이유는 그것이 상호조력의, 그리고 팀을 결코 정의하지 않고 오히려 유성음 생성의 또는 포르만트(formant) 생성의 음운론적인 계열체와 같은 방식으로 정향적인 가치의, 매우 관계적인 양식으로 정의된 위치의, “독창적인” 그리고 “자기조절적인” 체계가 되기 때문이다. 주장된 기호사각형의 반대와 모순의 구성관계는 사실 상 논리적인 것이 아니고, 야콥슨적인 그 느낌은 “자질적인 대당 그리고 박탈적인 대당으로 존재하며, 그 자체만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기호사각형의 형식적인 성격은 팀과 연결의 안정적인 논리로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위치(place)와 연결의 약동적인 위상으로 성립되는 것이다(pp. 51~52).

제4장 “화술문법의 원소”는 그레마스(J. Courtés)의 저서에서의 (1982) 생성계도 표제 하에 완전히 도표로 표현된 다양한 성분과 화술이론의 최초의 두 레벨의 상호관계를 적소에 설치한다. 아래 도표를 보라.⁴⁵⁾

이점은 진리값(즉 주어진 명제나 논리명제의 참 또는 거짓)들을 보통의 대수에서 쓰는 수량 대신 변수로서 사용할 때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참(진리값은 1)이거나 거짓(진리값은 0)인 명제들을 다룰 때 적합하다. 이러한 두 명제는 논리접속사, 즉 연산자 “그리고(and)”나 “또는(or)”으로 결합되어 복합명제가 만들어진다(이 두 접속사의 표준기호는 각각 ‘^’와 ‘v’임). 복합명제의 진리값은 원소와 사용된 접속사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명제 a와 b는 서로에 무관하게 참 또는 거짓일 때, and로 연결된 명제 $a \wedge b$ 는 a와 b 모두가 참일 때만 참이고 다른 경우는 거짓이다. 2. 불 대수(Boolean algebra) 이론은 계산기 설계에 널리 이용되었으며,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심리학·경제학이 선형계획법이라는 분야에서 행렬과 선형대수를 사용한다. 대수학이 다른 분야에 사용됨으로써 대수학 그 자체의 발전이 촉진되었다. 불(George Boole, 1815~1864): 영국의 수학자·논리학자. 가장 유명한 업적은 기호논리학(記號論理學)의 창시와 논리대수(Boole 代數)의 전개였다. 논리 또는 추론을 수학적으로 다루려고 한 이 연구는 마침내 「논리와 확률의 수학적 기초를 이루는 사고(思考)의 법칙 연구(1854)」라는 불후의 노작(勞作)으로서 결실을 맺었다. (역주)

44) 각주 “격상(格象)” 참조. (역주)

45) 결합체적인 성분(syntagmatic component)의 심층레벨(deep level)은 기본적인 의미론(fundamental semantics)과 달리 아래와 같이 세분되어야 할 것이다.

심층레벨(deep level) { 문체론적인(stylistic) - 단기 지속성
 역사적인(historical) - 중기 지속성
 기본적인(fundamental) - 장기 지속성 (역주)

생성궤도(generative trajectory)			
	결합체적인 성분(syntagmatic component)		의미론적인 성분 (semantic component)
의미론적 그리고 화술적인 구조 (semantic and narrative structures)	심층레벨 (deep level)	기본적인 통사론 (fundamental syntax)	기본적인 의미론 (fundamental semantics)
	표층레벨 (surface level)	표층화술 통사론 (surface narrative syntax)	화술적인 의미론 (narrative semantics)
담화적 구조 (discursive structures)	담화적인 통사론(discursive syntax)		담화적인 의미론 (discursive semantics)
	담화화(discursivization) 연기화(actorialization) 관자놀이-시간화(temporalization) 관자놀이-공간화(spatialization)		주제화(thematization) 격아강화(figurativization)

화술성의 이러한 모델이 제기하고 있는 주요 이론적인 문제는 한편으로 분류법적인(taxonomic) 형태론, 또는 계열체적인 관계로부터 작용적인 통사론 또는 결합체적인 통사론으로의 치환과, 다른 한편으로 추상적인 기본적인·추상적인 통사론으로부터 화술적인·신인동형동성적인(anthropomorphic, 神人同形同性的) 표층통사론으로의 치환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담화-격아강적인 통사론으로의 치환과 관련된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수직적인(vertical)” 치환(레벨들 사이의 관계와 함께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과 “수평적인(horizontal)” 치환(각 레벨의 통사론적인 그리고 의미론적인 성분 사이의 관계를 취급하고 있는)의 이론적인 두 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1982 장 프티토-코코르다의 p. 5를 보라). 그 심층레벨에서, 수평적인 치환 또는 기본적인(fundamental) 관계에 의해 구성된 원소적인(elementary) 형태론으로부터 작용적인 통사론에 이르는 변천(passage)은 행위주적인 주체의 도입에 의해 확실하게 만들어진다.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대상을 발견하기 위하여 탐구하는 그 확장으로서의 의미작용은 안정적인·기본적인 관계의 아티클레이션으로 나타난다. 또한 만약 우리가 그것을 어떤 주체에 의한 포착 또는 의미의 생산으로 고찰한다면, 그것은 약동적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동치(equivalence)는 분류법적인 모델의 기본적인 구성관계와 동일관계의 투기 또는 심층레벨의 수평적인·신인동형동성적인 치환의 증명사에 의한 작용 사이에 확립된다. 따라서

통사론적인 관계의 모순작용으로서의 그래서 분류법적인 레벨에서의 모순관계는 팀의 모순 자체를 부정함과 동시에 그 모순의 팀을 긍정할 것이다.

치환적인(transposition) 모델에서, 수직치환 또는 기본적인 통사론으로부터 의식적인·화술적인 통사론에 이르는 변천의 문제는 이 두 레벨 사이의 동치를 확립하는 절차를 설치하는 것에 의해 해결된다. 여기서 조정된(posited) 동치는 동정과 상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둘 이상의 통사론적인 형식(또는 둘 이상의 의미론적인 형식화)이 상수적인 대체론(大體論, topic)에 귀속될 수 있는” 전제 상에 설립된다는 것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그레마스과 쿠르테, 1982, p. 62). 게다가 의미가 아티클레이션으로 분절될 때 의미작용으로 변형되는 한, 각각의 새로운 아티클레이션은 의미 안에서 풍요로운 또는 증진된 것이 존재하며, 따라서 심층레벨에서 표층레벨로 나아감으로써, 그 표층레벨은 그 심층레벨보다 더 풍부한 것으로 고찰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어느 치환은 의미작용의 동치로 그리고 과잉으로 관측되지 않으면 안 된다(ibid.).” 인터뷰에서 그레마스가 루프레히트(1984)와 함께 반복함으로써, 치환은 동차대체론(homotopic) 그리고 동질이형(heteromorphic)으로 존재한다. 즉 “그 형식은 심층구조(작용이 기호사각형 상에 위치를 선택하는 곳)로부터 기호현상-화술적인 레벨(표층의 화술문법으로 존재하는 곳)로 변화한다.” 이러한 두 레벨은 동일한 사물과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관련된다(p. 14).

심층레벨의 표층레벨로의 치환은 기본적인 레벨에서의 통사론적인 작용과 표층레벨에서의 통사론적인 실행 사이의 동치확립에 의해 확실하게 만들어진다. 따라서 지향반응운동적인(taxic) 관계로부터 스스로 치환되었던 그래서 통사론적인 작용으로부터 치환되고 있는 통사론적인 실행은 화술문법의 중요한 성분인 화술적인 발화의 생성을 위해 필연적인 중재를 제공한다. 발화 $N=F(A)$ 는 프로포지적인 의미 안에서 그리고 행위주 안에서 함수로 조립된 변화과정으로 고찰된다. 따라서 치환은 한편으로 통사론적인 작용과 통사론적인 실행 사이의, 다른 한편으로 통사론적인 실행과 행위주적인 실행의 기본발화 사이의 동치로 안착한다.

신인동형동성적인·행위주적인 차원은 주체와 대상, 주체와 반주체, 주체와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관계를 확립한다. 요망으로서의 주체와 가치대상으로서의 대상의 제도(institution) 상에 설립된 최초의 관계는 양태적인 발화의 팀으로 기술될 수 있다. 요망(wanting)은 실행(doing)의 내포적인 작용인자로서

의 행위주를 이중적인 것으로 분류하는 최초의 일련의 결정된 의미론적인 제한으로 존재한다. 또 다른 의미론적인 제한, 즉 능력(being-able-to)과 지식(knowing)의 양태성의 도입은 존재(being) 또는 행위주적인 주체의 실행을 구성한다. 더 나아가 주체와 대상의 관계는 사실 접합적인 것으로 존재하는 상태 발화의 텀 안에 통사론적으로 기술된다. 주체와 반주체 사이의 두 번째의 관계는 심층레벨에서 모순의 계열체적인 관계의 치환으로, 표층레벨에서 신인 동형동성적인·결합체적인 시리즈로 고찰된다. 게다가 표층레벨에서의 내용의 변형은 모순(부정)과 전제(주장)의 작용으로부터 유래하는 그 화술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일련의 조우와 투쟁으로 나타난다. 부정은 귀속으로서의 영역과 주장으로 형식화되며, 반면에 언어연기는 결합체적인, 목록로 분류된, 일련의 조우, 영역, 그리고 귀속으로 형식화된다.

주체와 발신자, 주체와 수신자 사이의 세 번째 관계는 교환의 보편적인 구조의 텀으로 재 형식화된다. 여기서 가치대상의 귀속은 선언적인 관계(박탈)와 언어연적인 관계(귀속)로 고찰된다. 이러한 재 형식화는 어떤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의 이동하는 가치대상의 전승 위치로의 이전의 작용을 마음속에 그리는 것이,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대상가치의 위상적인 통사론을 확립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드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가치를 창조하고 있는 변화과정으로서의 화법을 조직하는 심층문법의 레벨에서 논리적인 작용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점을 바꿈으로써, 그리고 주체와 발신자 또는 수신자의 작용인자 사이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위상적인 통사론이 주체의 실행능력과 가치 양쪽의 전승을 통제한다는 것을 고찰할 수 있다. 또한 주체를 교묘히 다룸으로써, 그리고 실행의 내포성과 함께 능력·자질을 부여함으로써, 위상적인 통사론은 통사론적인 작용인자의 제도를 통제한다. 나중에 그 이론의 완벽한 버전, 즉 주체와 발신자는 이중계약·응축적인 관계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질 것인데, 그 이유는 그 주체행위주가 그것을 작용인자의 주체로 설립하는 그래서 교묘히 다루고 있는 작용인자의 행위주(발신자)와 계약·응축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 발신자에 의해 생크션(sanction)될 언어연기의 절대적인 언어능력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그레마스는 기호학이 과학이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불완전한 과학적인 투기라고 항상 정확하게 주장했으며, 그가 실행하려고 시도했던 그것은 완벽해지는 또는 변형되는 것이 필요했던 이론적인 원칙을 확립했다.⁴⁶⁾ 그러나 우

리는 치환의 논쟁과 관련된, 그리고 가장 단순한 것으로부터 가장 복잡한 것으로, 가장 추상적인 것으로부터 가장 구체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궤도와 함께 연결된 여러 가지 성분에 따라 모델의 생성적인 개념화에 기인된 이론적인 문제의 망상(import)을 결코 최소화하여서는 안 된다. 치환과 동치의 문제는 “화술문법의 원소”와 함께 시발하고 있는 그레마스 그 자신에 의해 다수의 경우로 제기된다. 프레더릭 네프(Frédéric Nef, 1976)와의 인터뷰에서, 저자는 “첫눈에 비록 만족스럽게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이론적인 구성은 심층의 다른 레벨 사이의 동치의 문제가 분명하게 포즈를 잡지 못하는 한, 어떤 레벨에서 또 다른 레벨로의 치환의 절차가 정교하게 만들어지지 못하는 한, 가언적인 것으로 남아있을 위협과 부딪친다(p. 24)”고 실토한다. 다시 기호사각형에 대해 전적으로 쏟은 특집 발행의 회보(Le bulletin, 1981)에서, 그레마스는 치환의 탐구를 떠맡게 된 기호학자들에게 직면하고 있는 절박한 과업 중의 하나가 마치 잉태와 같이 마음속에 그리는 것이며, 의미론적인 범주화의 심층 레벨로부터 신인동형동성적인·화술적인 통사론 그리고 그 외각(外觀)의 보다 더 표층의 레벨로의 이동을 위한 구성절차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진술한다(pp. 45~46). 그 이론에서 가능할 수 있는 약변화의 전망의 선행의식과 동일한 자각은 그레마스나 쿠르테에게서 입증된다. 예기될 수 있는 것으로서, 치환규칙의 합성은 기호학이론의 응집성에 관한 기본적인 시험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p. 62).

특히 그것은 우리가 방금 묘사했던 화술문법의 프레임 안의 치환과 동치의 바로 이러한 논쟁으로 존재하며, 리코르(Paul Ricoeur, 1983)는 그 이론의 실제적인 응집성에 대해 4가지의 은폐의 탓으로 돌린다. 리코르는 기본적으로

46) 그것은 J. Culler(1975)가 그레마스의 연구작업(undertaking)의 생존가능성을 연구하는 과학으로서의 잉태의미론이 가능함을 중시하는 바로 그 논쟁 상에 존재한다. 그러나 R. Scheifler(1983)의 견해에 의하면, J. Culler의 비판은 그가 “크기(measure)로서의 세미올로지(semiology, 의미의 문제)보다 오히려 기호학(semiotics, 기호의 논리)을 선택하는” 그 방법으로 고찰하는 그 실패 그 사실로부터 유래한다(p. x iii). 한편으로 이것은 자연과학과 인간과학 사이에 존재하는 편차를 융합상태에 이르게 하며, 따라서 그것은 의미작용의 과학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 J. Culler는 사회과학이 반드시 체계로 고찰되어야 하는 것이지, 변화과정(진전하고 있는 과학적인 투기)으로, 즉 “항상 불완전하게 그리고 그것이 생산하는 담화 속에서 종종 결여적인 방식으로 표현된, 다시 말해서 첫눈에 그들이 부여된 것과 함께 오로지 과학의 사회언어학적인 언의지의(내포)이기 때문에 인식될 수 있는, 과학적인 실행으로” 고찰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레마스의 「사회과학의 기호학(Sémiotique et sciences sociales)」(Paris: Le Seuil, 1976), pp. 9~42를 보라.

3개의 논점상의 모델과 함께 생긴 수확으로 거두어들인다. 그 첫 번째는 심층레벨의 모순의 치환을 표층레벨의 논박과 관련시킨다. 즉, 논박적인 화술성은 모순-반대의 분류법적인 관계로부터든지, 또는 부정의 통사론적인 작용으로부터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부터든지 간에 도출될 수 없다. 두 번째는 기본문법의 치환으로부터 표층문법으로 획득될 수 없는 표층레벨의 결합체적인 보충으로 존재하는 그 사실과 관련된다. 세 번째는 화술의 프락시스적인-남색의 상대소년과 같은(praxic-pathic) 차원이 혼합된 가해성(可解性)의 통사론을 활성화하는 연기(action)의 의미론의 연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현상학적인 것으로 그리고 언어학적인 것으로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장 프티토-코코르다, 1985, p. 268을 보라). 의미의 형태형성상의 그의 진실로 독창적이고 훌륭한 저서에서, 장 프티토-코코르다(도식화의 합법성 [legitimacy]의 고도로 혁신적인 그리고 통찰력이 있는 토론 속에서, 즉 파국이론의 텀 안에서의 그레마스에 의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호현상-화술구조의 구조적인 범주 안에서)는 진실로 타당한 리코르의 비평이, 즉 연기(action)의 프락시스적인-남색의 상대소년과 같은 의미론의 암시적인 현상학이 형식화되지 않으면 안 되므로 형식적인 모델로 통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논박적인 부정성이 파국이론의 텀 안에서 도식화될 수 있고, 따라서 대립도식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기본문법의 재 형식화는 논리적인 개념화로 인하여 조우하게 된 곤란을 극복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때 그는 우리가 메타언어 사이의 단순동치로서의 그레마스의 사고와 관점전환을 강제로 끌어낼 때 비로소 유지할 수 있는 계열체를 약분할 수 없는 결합체적인 보충의 가언으로 추정하며, 이것은 사실의 진술과는 거리가 멀다(p. 268). 최종분석에서, 언급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론상의 실재적인 문제는 그레마스 그 자신이 처음부터 제기했던 것, 즉 치환의 실제적인 절차를 확립할 필요성으로 존재한다.

단순한 비망록(aide-mémore)이기는커녕, 그 대상은 원소적인 발화의 텀 중의 하나이며, 주체와 함께 접합관계로 명기될 때 주체의 기호학적인 존재자를 보증한다. 그러나 “불가지 그 자체로 남아있는” 반면에, 그 대상은 “고착의 장소, 즉 가치결정의 그리고 추정상의 한 음으로 발음하는 둘이상의 연속자음 같은 한 덩어리(cluster)의 장소”로서 기호학적으로 존재한다. 대상 안에 투사된 가치는 오로지 통사론적으로만 존재하며, 그것은 이러한 “통사론이 의미론과 결합하는 결합체적인 전개” 안에 존재한다. 더 나아가 그것은 의미론

으로부터 가치가 의미작용으로 포착될 수 있는 통사론적인 구조로 치환될 때만 존재한다. 계속해서 치환은 화술화를 가치의 결합체적인 정치(定置)로 정의하는 것과 그것을 원소적인 발화의 구성적인 원소를 교묘히 다루는 담화조직으로 지각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더 나아가 가치의 두 광대한 범주(기술적인 것, 즉 소비할 수 있는 또는 저장할 수 있는 대상, 상태와 감정과 양태적인 것, 즉 "being-able-to, knowing-how-to-be/to-do")는 구별될 수 있다. 게다가 기술적인 가치는 더 나아가 주체적인 것(본질적인 가치)으로, 그리고 대상적인 것(부수적인 가치)으로 분류되고, 화술프로그램 안에서, 기초가치는 조격적인 것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다(그레마스와 쿠르테, 1982, p. 365).

표층레벨에서의 화술은 메타주체적인 작용인자(실행의 발화)에 의해 일련의 상태발화(접합발화)의 변형으로 정의되었으며, 이러한 통사론적인 조직은 화술을 일련의 가치의 내포화(virtualizations)와 외연화(actualization: 선언)로 묘사할 수 있게 만든다. 소정의 가치론적인 우주 안에 명기된 가치는 2가지 방식으로 순환한다. 동류체적인 그리고 폐포된 우주 안에서 주체들 간 상수적인 가치의 경우에, 그들은 대립적인-논박적인 조우의 모드 안에서 순환하며, 반면에 변화가치의 경우에, 두 가치대상의 현존재는 규정되고, 이러한 구조는 주체의 새로운 내포화와 새로운 외연화를 구성한다. 그때 단순교환은 표층통사론의 레벨에서 가치전송의 복합적인 모드로 고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정적인 것이 아닌 교환가치가 그들의 임시적인 동정을 주체들로, 즉 언급된 가치대상의 교환가치를 고정시키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의 그러한 작용이 위치를 선택하는 것은 그들 사이의 피신탁의 교차점적인 계약·응축(fiduciary contract)을 확립한다. 대상가치가 지식의 대상일 때, 또는 커뮤니케이션으로 만들어진 메시지일 때, 그리고 당해 주체가 언어능력(competence)이 있지만 불공평하게 양태적일 때, 화술문법의 구조를 조직하고 있는 기본적인 것 중의 하나인 그 논박적인-계약·응축적인 것은, 그레마스(1983a)가 "그것은 피신탁의 교차점적인, 교란되고 있는 그리고 이해 못해 어리둥절한 것으로 고찰되는 것 같지만, 동시에 커뮤니케이션의 성질이 교묘한 것으로 그리고 지배적인 것으로도 고찰되는 것 같다(p. 11)"고 언급한 것처럼, 상호주관성의 바로 그 핵심으로 전치된다.

참여적인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폐포된 우주 안 교환의 계약·응축적인 차원은, 내재우주(immanent universe)와 통사론의 표층레벨에서의 행위주의 현존재

를 통해서 표현된 초월우주(transcendent universe) 사이의 매개영역과 상응하는 가치의 순환을 보증하는 발신자에 의해 확실하게 만들어진다. 담화 안에서의 계약·응축의 기원인 발신자는 투자된 내용의 또는 기본적인(fundamental) 문법의 분류법적인 구성으로 존재하는 가치의, 계열체적인 체계의 표상적인 것으로 지시된다(쿠르테, 1976, p. 99). 이렇게 해서 그것은 화술 안에서 계열체적인 차원의 치환의 내면화가 계약·응축적인 시퀀스와 언어연기적인 시퀀스 사이의 관계에 의해 구성되는 것을 추구한다. 만약 계약·응축적인 시퀀스가 화술프로그램으로서의 주체-수신자에 의해 수용된다고 하면, 그것은 언어연기를 하고 있는 주체로 변형될 것이다. “(그것이 양태적인 언어능력을 획득하는 그 조건상에서) 체계(계열체적인, paradigmatic)와 변화과정(결합체적인, syntagmatic) 사이의 중재를 확실하게 만들고, 내포적인 가치를 실현한다(장 프티토-코코르다, 1985, p. 240).”

그것이 행위주의 기호학적인 존재자를 보증하는 한, “그 가치의 화술조직은 화술성의 토대로 구성된다.” 관계를 어떤 장면의 형식 안의 세계로 표상하고 있는 그래서 기호학적인 시뮬레이크럼으로 사전에 정의된 원소적인(elementary) 발화의 텀 가운데 하나로 존재하는, 가치대상은 또한 통사론적인 개념이다. 행위주(최초에 단순주주로 고찰된, 그리고 그때 접합관계를 통하여 가치에 의해 점진적으로 투자된)와 연기자(몇몇 행위주를 융합할 수 있는) 사이의 편차는 우리로 하여금 원소적인 화술구조와 담화구조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도록 할 수 있다(제6장을 보라).

행위주가 화술궤도를 통해 진진함으로써, 그것은 다소간의 화술상태 또는 화술궤도 안의 정향에 의해 정의된(통사론적인 정의) 행위주적인 역할과 그 양태적인 투자(형태론적인 정의)를 떠맡는다. 필연적인 것이 언어연기로 나아감으로써, 그 주체행위주는 언어능력의 양태성을 성공적으로 부여받게 될 것이고, 이 경우 “주체는 요망의 텀으로서의 주체, 지식의 텀으로서의 주체, 그리고 실행능력의 텀으로서의 주체를 표현하는 이러한 행위주적인 역할을 떠맡으며, 그때 그것은 그 양태적인 언어능력의 획득으로서의 3가지의 상태를 지시한다(그레마스과 쿠르테, 1982, p. 6).” 그들이 양태적인 내용에 의해 형태론적으로, 그리고 화술궤도의 행위주의 정향에 의해 통사론적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행위주적인 역할은 화술적인 통사론 안에 정위된다. 그러나 “주제적인 역할(담화의 의미론적인 성분을 구축하는)”로 연합될 때, 그들은 화술적인 그리고

담화적인 구조가 한 점에 모아지는 그리고 투자되는 장소로서의 연기자의 구성을 허락한다(ibid.).

우선 무엇보다도 연기자로부터 행위주적인 역할을 구별하는 것은 담화의 레벨에서 “연기자의 의미론적인 내용이 ① 격아강적인 실재물(entity, 신인동형 동성적인, 수형신적인 분류), ② 물활론적인(animated), ③ 개성에 종속된, 의미소의 현존재에 의해 정의된다.”고 하는 것이다. 동일한 레벨에서의 “행위주적인 역할은 자질로, 연기자의 귀속으로 표현된다. 의미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자질은 함수의 영역(화술 안에서 실제적으로 주목된 또는 단순하게 암시된 행동을 말한다)을 포섭하고 있는 단자(denomination)에 불과하다. 따라서 역할의 최소한의 의미론적인 내용은 연기자의 개념과 동정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개성의 의미소가 제외된 연기자의 개념을 소유하지 못한다. 그 역할은 비록 익명적이고 사회적이긴 하지만, 물활론적인 격아강적인 그래서 신인동형동성적이며 수형신적인 실재물로 존재한다. 게다가 연기자는 개성적으로 통합된 그리고 떠맡은 것 또는 몇 가지의 역할로 존재한다(그레마스, 1970, pp. 155~256).” 서로 엉겨 붙은 함수적인 영역과 상응하고 있는 원소적인·행위주적인 단위인 그 역할은 행위주(화술의 원소) 그리고 연기자(담화의 단위)와 관련된다(ibid., p. 256).

따라서 연기자는 통사론적인 그리고 의미론적인 성분의 투자의 관점으로 고찰된다. 연기자로 지시됨으로써, 어휘소는 행위주적인 그리고 주체적인 역할 양쪽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게다가 주체적인 역할은 “그들의 내포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언어의 어휘소적인 레벨로 활동케 하고, 담화적인 형태(초미-화술, configuration)로 확장된 격상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화술케도의 최종 영역인 담화의 격아강적인 레벨은 격상 안 주제와 가치의 투자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다. 시퀀스로 묶일 때, “자연적인 기호학체계의 표현측면의 격상(phoneme+sememe)과 상응하는 내용측면의 격상으로(formant+sememe; 그레마스 와 쿠르테, 1982, p. 120)” 정의된 격상은 담화적인 형태를 구성한다. 첫 번째는 격아강화(格亞綱化: figurativization)로 기술되고, 두 번째는 이상화(iconization)로 기술될 수 있는, 격아강화의 절차는 지시적인 환영을 생산하는 아종성과 함께 이러한 격상을 포위한다. 그리고 격아강화의 기초성분 중의 하나는 고유명목적인 것이다. 격아강화는 “그것이 심층구조 안에서, 그리고 발생적(유전적, generic, “왕,” “숲,” “겨울”)으로부터 그보다 하위계열의 아종적인 것(specific, 고

유명목, 관자놀이-시공간의 지표, 연대 등)으로 나아감으로써 목록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연기어(anthroponymie, 담화적인 통사론의 측면에서 담화화의 3가지 구성절차, 즉 연기자화, 관자놀이-시간화, 관자놀이-공간화와 상응하는)⁴⁷⁾의 도입에 의해, 포착되는 한, 추상적인 담화를 아종적인 것으로 분류하고 특별한 것으로 만든다(그레마스과 쿠르테, 1982, p. 119).

양태성의 문법에 대하여

기호사각형과 「의미론(Du sens)」 안에서 성취된 행위주적인 모델은 화술성의 가언적-연역적 이론의 보편적인 구조를 필연적으로 자각하는 일 없이 발견학습적인 가치의 망상을 빠르게 포착했던 비평가들의 배려에 매료되었다.⁴⁸⁾ 그레마스 자신의 말에 의하면, 그의 기호학적 투기, 반면에 화술성의 이론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세 번째의 진진·변화의 상(相, phases)은 양태

47)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SEMIOTICS and LANGUAG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9), p. 14. anthroponym: 연기어(고유명목에 의한 연기자의 지시로서)는 격아강화(figurativization)의 고유명목적 하위 그룹의 일부이다. 공간어(toponyms)와 시간어(chrononyms)에 의해 조립된 그들은 역사적 정박(anchoring)을 허락하며, 그것은 외제적 지시물의 시뮬레이크럼을 구성하는 것과 “실재성”의 의미 있는 효과의 생산을 목표로 삼는다. —일반적으로 다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Anthroponyms(앵트러포니미; Anthroponymy, 또는 Anthroponomastics)는 언어의 표준어휘로부터 탈락된 어휘성분으로 흔히 유지된다. 예를 들어, 영어의 명사 “Fishburn(영국의 북부 Durham 주의 한 시골 마을 명칭이다. 잉글랜드 북부 Cleveland주의 항구 도시-Hartlepool의 서부에 약간 산재해 있다)”은 고어 “bourn”로부터 “-burn”을 유지하는데, 이 앵글로색슨 말(Anglo-Saxon)은 일반표준영어의 사용 범으로부터 탈락된 “brook(시내)”를 의미하고 있다. 또한 Anthroponyms는 언어의 기원으로부터 다른 언어로, 다시 말해서 무관계한 언어로 쉽게 이동한다. 불충분하게 입증된 언어의 경우, 비록 이것이 언어의 특징의 보다 직접적인 증거로 비교하는데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Anthroponyms는 흔히 그 성질과 특성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원천으로 존재한다. 이것을 세분하면, Surnames(별명, 이명), Clan names(씨족, 一門, 閥族·특히 스코틀랜드 고지 사람의 씨족, 당파, 도당, 파벌), Exonyms(외국어 지명, 한 지명에 대해 각국에서 부르는 다른 이름), Nicknames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역주)

48) 루프레히트(Hans Ruprecht)의 “「메타-기호학 개관(Ouvertures meta-sémiotiques: Entretien avec A. J. Greimas,)”, 기호학연구 4(1984); 1~23. 그레마스는 이론의 가언적-연역적인 양상을 정교하게 만든다. 논리적인 가언이 최초로 형식화되고, 그 이론과 함께 상반될 때, 시도는 전체로서의 체계의 응집 안에서 현상을 통합하는 것으로 만들어진다. 그러한 현상은 그 자체만으로 분석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타당성의 규칙에 따르고 있다. 즉, 그것은 계층적으로 상위레벨 안에 명기되며, 그래서 비교할만한 성질의 현상은 또한 이러한 계층적인 메타레벨의 팀으로 설명된다. “이것은 가언의 연역적인 양상이다. 당신은 획득된 경험 또는 기호학적인 프락시스의 팀으로 형식화한다. 그때 당신은 계층적으로 상위인, 따라서 보다 더 강력한 모델을 구성하려고 시도하며, 이것은 연역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당신은 이론의 응집이 약해지지 않는지 어떤지를 발견하려고 시험할 수 있을 것이다(p. 7).”

적인 그리고 양상적인 문법으로 진전된 기호현상-화술적인 문법을 구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⁴⁹⁾ 보다 좋게 아티클레이션처럼 분절된 원소적인 통사론을 구성할 필요성을 지각함으로써, 그는 담화의 표출레벨에 지나치게 밀접한 것으로 남아있는 개념으로부터 그 이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화술의 프로포지적인 형식화를 단념했다.

그 첫 단계는 양태성의 텀 안에서의 표층의 화술적인 통사론을 재 형식화하여 존립시키는 것이었다(제 7장). “발화의 빈사를 양태화 하는 것”으로서의 양태성의 정의와 함께 시발함으로써, 그때 양태화는 “기술적인 발화를 과도-결정하는 양태적인 발화”의 생산으로 고찰된다(그레마스과 쿠르테, 1982, p. 193). 원소적인 발화의 구조의 텀으로 정의된 최후의 텀은 행위주, 즉 접합상태의 변형으로 고찰될 수 있는 실행의 발화 또는 상태의 발화이다. 그러나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의 행위의 재 형식화는 언어능력을 전제하고 있는 그러나 그 역은 아닌 언어연기와 함께 언어능력과 언어연기를 조립하고 있는 하위 계열적인(hypotactic) 구조로서의 재 정의를 허락한다.

주체와 실행발화 사이의 기술적인 빈사(predicate)⁵⁰⁾를 정의하고 있는 다동적

49) 1984, 6월 토론토 대학에서 개최된 “화술성의 일반개념”에 관한 세미나에 제출된 편집되지 않은 논문. “화술성과 일반개념(Universaux et narrativité).”

50)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p. 241~242. predicate(빈사, 賓辭); 1. 빈사는 전통적으로 발화를 구성하는 통사론적 함수 중의 하나로 고찰된다. 통사론적 강류로서, 빈사는 다소간 언외지언(verb, 형태론적 강류로 정의된) 또는 언외지언적 결합체(결합체적인 강류로 고찰된)와 상응한다(게다가 동정(同定)된 존재[being] 없이). 언어학의 이러한 세 형태가 서로 결합하고 있는 것으로서의 은신처는 모든 문법이론을 위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를 구성한다. 2. 빈사와 발화의 경제성(실리)과 일치된 그 장소는 주어진 언어학적 이론이 진리로 자명하게 표명하는 기본발화구조의 개념에 의지한다. 가장 완강한 그 이원개념은 용어법적 변이(variation, 주제/빈사; 주제[theme]평언/[rheme]; 화제 또는 대체[topic]/평언[comment], 등)를 “우리가 언급하려고 하는 그것”과 “그것에 대해 언급하려고 하는 것” 사이의 의미론적 대당관계의 집합체 안에 안주시키는 대신에 옛것으로 되돌려 보낸다. 그 결과 발화(언외발언[enunciation]을 근거로 취하지 않는)의 모든 문법을 위하여 빈사(predication)는 파롤 행위의 본질적 원소의 하나로 나타난다. 3. 다른 가정과 매우 혼하게 동반되는 발화의 이원적 성격의 선택적 선택은 다소간 함축적이며, 기본발화의 단일성, 즉, 모든 발화가 무엇이 되든지 간에 단순 기본형식으로 감축할 수 있는 확신의 방향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전논리학은 오직 하나의 한정적 형식(“Peter가 잠을 자고 있다”)으로 발화의 집합을 축소한다. 좀 더 최근의 언어학이론(언리학(glossematics)과 마찬가지로 주연주의(周延主義, distributionalism[일반문법으로 추구된])은 결합체적 강류 상에 기초된 통사론을 구성하는 것으로든지 또는 주체에 빈사를 연결하는 끈의 반의미론화에 의하든지, 즉, 유일한 전제조건 추상적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에 의하든지 하여간 이러한 문제를 벗어나려고 시도했다. 4. L. Tesnière와 H. Reichenbach에 따르면, 우리는 발화의 인식론적 관계로, 즉 행위주인 마지막 텀을 함수로 이해한다. 게다가 우리는 두 가지의 기본발화 형태(이러한 발화의 빈사-관계의 두 가지 형태), 즉, 실행(doing)의 발화와 상태(state)의 발화를 식별한다. —빈사(賓辭); 명제에 있어서의 주사에 결합되어 그것을 규정하는

인(transitive) 관계는 또 다른 주체에 의해 생산된 주체와 발화에 의해 확립된 진정한 관계로부터, 그리고 주체와 기왕에 실행발화로 존재하는 대상 사이의 작위적인 관계로부터 구별된다. 이러한 최후의 2개의 관계, 즉 2개의 계층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진기한 주체(인식적인 주체와 화용론적인 주체)는 단순양태적인 구조를 구성한다. 이러한 텀 안에서의 행위를 재 형식화하고 있는 것의 이점은 언어연기의 이론이 교묘히 다루기(또는 발신자에 의한 주체의 교묘히 다루기)의 기호학의, 연기(action, 주체에 의한 언어능력의 획득)의 기호학의, 그리고 생크션(그 자체의 그리고 또 다른 주체의 판단)의 기호학의 언외지시로 발전될 수 있다.

화용론적인 언어능력의 조직의 레벨에서 고찰될 때, 4개의 기본적인 양태성은 동정되었다. 의무와 요망의 양태성은 변화과정을 내포화하고, 능력과 지식의 양태화는 그것을 외연화한다. 그러나 언어능력의 이러한 정전적인 표상이 영구히 실행되지 못한다고 하는 그 사실은, 일련의 상호결정을 통해 다양한 아티클레이션을 포섭하고 있는 것에 의해 기본적인 양태구조로 고찰할 수 있는 모델 구성의 필요성을 시사했던 표출의 레벨에서 발생하는 것과 상응한다. “상호결정의 기준과 양태성의 분급(分級, classification)은 결합체적인 것과 계열체적인 것으로 동시에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각각의 양태성은 한편으로 하위계열적인 양태구조, 다른 한편으로 기호사각형 상에 표현될 수 있는 범주로 정의될지도 모른다(그레마스과 쿠르테, 1982, p. 195).”

실행(doing)의 양태성을 분석한 후에, 그레마스는 제8장에서 존재(being)의 양태성을 진도시킨다. 코케(1985)에 의하면, 이러한 분석은 표층의 화술적인 통사론의 도정(道程)에 따라 재 형식화된 양태문법의 화맥 안의 그들의 정념(양태적인 존재자)에 관한 연구와 함께 주체의 연기(action, 양태적인 언어능력)에 관한 연구를 완벽하게 한다(p. 128). 심층레벨에서, 방향적(芳香的, thymic) 공간은 에워싸인 환경(animated)과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표층레벨에서, 방향적인(thymic, 인간적) 범주의 초월아티클레이션으로 나타나는 양태공간으로 치환된 삶의 원소적인 표출을 의미한다. 어느 발화 속에서, 주체의 기호학적인 존재

개념. 예컨대, “소는 동물이다”에서 ‘동물’ 같은 것. 빈개념(賓概念), 객어(客語)↔주사(主辭). 주연(周延, distribution); 형식논리학에서, 판단의 주장이 그 개념의 외연의 전부에 미쳤을 경우, 그 개념의 상태를 이르는 말. 예를 들면, “모든 등변삼각형은 등각삼각형이다” 등에서 ‘등변삼각형과 등각삼각형’은 주연되어 있다고 함. (역주)

자는, “가치대상과 가치대상의 지위의 양태화로 고찰된 존재(being)를 양태화하는 것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대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양태성(또는 오히려 그 속에 투자된 가치)은 상태의 양태적인 존재자 그 주체의 구성으로 언급된다.” 양태적인 통사론을 위한 분류법적인 네트워크는 기호사각형 상에 양태적인 발화를 투기하는 것에 의해 그야말로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진다(wanting-to-be[desirable for the subject; 상태의 주체를 위해 바람직한], having-to-be[indispensable; 불가결의], beng-able-to-be[possible; 가능한], knowing-how-to-be[genuine; 진짜의]). 실행의 양태화를 분석할 때 발견된 동일한 상호관계는 여기서 조우되고, 양태화된 가치의 통사론은 화술적인 통사론 상에서 암시되고 기초가 된다.

방향적인 가치가 주체들과 함께 집합관계에 의해 정의된 통사론적인 대상과 함께 투자될 때 심층레벨로부터 치환된다는 것을 보았다. 파레트와 루프레히트의 통찰력 있는 언급에 의하면, 이러한 치환은 주체성과 고의성 아래 그것을 위치시키는 것에 의해 가치에게 심오하게 영향을 끼친다. 심층구조 그 자체 안의 긴장성과 점진성의 도입에 의해 그레마스의 기호학의 상상적인 것의 실현화를 위한 이러한 가능성의 이론적인 결론은 폭로되어 있으며, “따라서 심층레벨에서 가치가 경제적-유기적인(소쉬르적인 의미로), 그리고 표층레벨에서 그들이 점진적이고 긴장이 있는 그 변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양태성 이론의 도입과 치환절차의 성취는 화술성의 통합이론을 향해 의심할 여지가 없는 단계를 구성한다.

우리는 정념의 불확실함이 주체의 양태적인 존재자의 연구와 연결되고, 행위주적인 구조의 양태적인 성분과 보다 더 엄밀하게 연결된다는 것을 제안했다. 연구의 대상이 마치 분노(내포적인 화술케도로 고찰된)와 같은 어휘소-정념으로 발생되든지, 또는 반대로, 란도프스키(Landowski, 1979)가 언급한 바와 같이, 화술적인 체계로 실현된 정념적인 설화가 되든지, 하여간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정념적인 영역(passional field)”의 탐구는 “화술이론의 아티큘레이션의 모든 레벨을 뺄뺄이 포함시킨다. 타당한 기호현상-화술적인 구조(그들의 기초가 되고 있는 양태적인 그리고 행위주적인 구조에 의해 동정될 수 있는 정념의 실례)뿐만 아니라, 담화적인 구조(기초가 되고 있는 결합체의 양상화, 연기자화, 의미론화)뿐만 아니라, 심층레벨의 추상적인 구조까지도 포함시킨다(p. 8).”

연기(action)와 대조 구별됨으로써, 그것은 행위의 결합체적인 조직으로 정의될 수 있고(그레마스와 쿠르테, 1982, p. 6), 정념(제9장)은 마음 상태의 결합체적

인 조직, 또는 화술적인 주체의 양태화된 존재(being)의 담화적인 양상으로 고찰된다(그레마스과 쿠르테, 1986, p. 162). 단순하든지 복잡하든지 하여간 정념(상태와 실행의 결합체적인 배배코임)은 연기자를 통해서, 그리고 연기(action)와 함께 표현되고, 그들이 실현하는 역할(행위주적인 그리고 주제적인)을 결정한다. 따라서 연기와 정념 사이의 대당은 “보다 더 심층의, 그리고 존재(being)와 실행(doing) 사이의, 또는 보다 더 이중적인 것으로 양태화된 존재와 양태화된 실행 사이의, 담화적인 레벨 상의 치환”으로 표현된다(ibid.).

예를 들어, 단순한 것으로든지 또는 피신타의 교차점적인 예기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주체의 그 존재(being)는 우선 무엇보다도 요망의 양태성에 의해 양태화되며, 그것은 그때 실현화되기 위하여(예를 들어, 가치대상과 결합된) 외연화된다(결합된 “wanting-to-be”). 그것은 주체의 기호학적인 존재자를 보증하는 바로 이러한 연언으로 존재한다. 의미론적인 레벨에서든지 또는 담화적인 레벨에서든지 하여간 어떤 레벨에서든지, 우리가 주체의 실행과 관련하여 고찰했던 그 가치의 변덕은 이론의 바로 그 심장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실행주체의 궤도와 병치적인 것은 언어능력의 획득과 언어연기의 성취를 이루어냈으며, 거기에는 높고 낮은 것을 만든 “감정상태”의 연속으로 표현된 상태주체에 필적할만한 궤도가 존재한다. 따라서 주체존재의 양태화는 통사론적인 주체의 언어능력의 구성 안에서의 본질적인 역할을 소유하고, 정념의 그 개념은 연기자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따라서 정념은 “연기자적인 개성을 구성하는, 인식할 수 있는 주제적인 역할을 위한 단자(“수전노,” “성급한 사람,” “무사태평한 사람”)를 제공할 수 있는 원소 중의 하나가 된다(그레마스과 쿠르테, 1986, pp. 162~163).” 더 나아가 연기자와 주제적인 역할 그리고 행위주적인 역할 사이의 관계의 연구와 정념의 연결은 탐색의 새로운 영역을 정념적인 유형학으로 개설해 놓았다.

양태성이론의 한계 안에 상세하게 나타난 또 다른 연구영역은 인식론적인 행위를 유도하고 있는 절차와 관계된다(제 10장). 그때 표층화술의 레벨(교묘히 다루기, 연기, 생크션)에 정위된, 설명을 위한 그리고 설득적인 실행은, “첫 번째의 경우, 결국 믿음-원인(causing-to-believe)으로 끝나게 되고, 두 번째의 경우, 믿음의 행위로, 즉 인식론적인 행위로 끝나게 되는” 인식론적인 절차로 정의된다. 기호사각형 상에서 아티클레이션처럼 분절될 때(긍정하는, 거부하는, 허락하는, 의심하는), 그때 인식론적인 행위는 변형으로 정의되고, 표층레벨의 통사론

은 계층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화술프로그램으로 드러난다. 또한 인식론적인 양태화는 양태성과의 접합 작용으로, 그리고 행위 또는 작용(실행의 목표로 존재하는)이 되기 전에, 양태적인 언어능력 또는 실행의 존재(being)는 주체의 일부로 전제된다. 앞으로 더 나아간 단계는 교류(transaction)가 피신타의 교차점적인 계약·응축 안에서 맞물려 연동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계약·응축의 진술명제(사실 그것은 커뮤니케이션으로 추정된다)의 텀으로 정의될 수 있는, 비망록을 닮았다. 교묘히 다루기와 생크션의 기호학 안에 정위된, 인식적인 공간은 주체가 확신된 주체로 변형하는, 그리고 그것을 최종 주체 쪽의 인식론적인 능동성으로 판단하는 것에 종속되는, 그 안의 지식에 따르고 있는 교묘히 다루기를 위한 장소가 된다.

그러나 인식론적인 행위의 최초의 정의는 표층 통사론의 사각형 상의 원소를 모순이 아니라 선형의 단계적인 변화로 치환하였기 때문에, 코케(1985)는 “기호사각형의 이러한 유형은 결합체적 무계약의 자유·이율배반의 이성(rationality)의 중요한 진전으로 표현한다”고 언급한다(p. 132). “객관적인·양태적인 필연성(비-반존재능력/not-being-able-to-not-be/ 상의)”으로 설립된 알고리즘적인 성질의 전문적인(기술적인·기교적인) 사고는, “관자놀이-시간적인 인접 속에서, 상호발생에 의지하는 고정관념적인 성질의, 빈사적인 것으로 고찰될 수 있는, 따라서 그럴 듯하게 말하는 또는 필연적(주체적으로 실행의무/having-to-do/에 따르고 있는)이기까지 하는 연속성의 행위(또는 그들을 기술하는 발화)”의 실제적인 사고와 대당이 된다. 담화적인·인과율적인 이유의 표층레벨에서, 결합체적인 무계약의 자유·이율배반의 이성은 더 나아가 전문적인(기술적인·기교적인) 사고 또는 실제적인 사고의 텀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그렇게 병치적인 사고는 새로운 지시 또는 주제적인 레벨을 창조하는, 그러나 지시가 아닌, 격아강적인 담화의 성격을 만들고 있는 암시의 외관(seeming) 상에 기초가 만들어진 담화의 이중동류체를 우리가 발견하도록 유도한다. 이중지시(“보다 심층으로 이동하는 그리고 보다 더 추상적인·주제적인 동류체를 창조하는 것, 그리고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그래서 새롭고 병치적인·격아강적인 동류체로 진전하는 것”)의 투기에 의해, 병치담화는 결합체적인 아티클레이션의 독창적인 유형을 구성한다. 사실상 비유적인, 언지시 비추는 것 같은, 격아강적인 모델은 격아강적인 무계약의 자유·이율배반의 이성(reasoning)⁵¹⁾의 예로 제공된다. 발신자에 의해 투기된, 즉 정의에 의해 피신타의 교차점적인 것으로 만들어진, 그리고 주제적인 “의무

(having-to-be)의 목류”의, 이러한 모델은 “수학적인 비율을 추정된·병치된 동류체들 간 관계의 평가로 도입하는,” 동차적인 사고와 대당이 된다. 따라서 양태문법의 이론적인 토대를 더욱 정련하고 있는 이 장에서, 인식적인 논리안의 피신탕의 교차점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 사이의 관계는 “인식적인 주체가 진정성의 담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그것이 필요로 하는 동치를 선택하는” 가운데 형식적인·기호학적인 관계의 네트워크로 정의되었고, 그래서 믿음과 지식이 그 자체의 윤곽으로 그려진 “동일한 인식적인 우주의 일부로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기호학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과학

비록 양태문법이 화술성의 이론 안에서 돌파구를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문법이 제4장 “화술문법의 원소”에서 성취한 보편적인·기호학적인 문법의 재 형식화와 정련이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문법이 모든 레벨에서 의미생산의 증가 또는 진진과 상응하는 의미작용적인 아티클레이션으로 정련된 위치 안에 설치된다는 것을 고찰했는데, 그 이유는 의미작용이 아티클레이션처럼 분절된 의미로 정의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것은 의미가 화술(적아강적인 담화로 최초의 실례 안에서 동정된)로든지 또는 비-화술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 모든 담화를 조직하고 있는 바로 그 주동자로서의 화술성으로 분절될 때 또는 화술화될 때 오로지 그때만 포착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했다(그레마스과 쿠르테, 1982, p. 209). 의미작용의 과학으로 고찰된 기호학이론적인 과업은 의미론적인 실체(substance)가 최초의 아티클레이션을 수용하는 기본적인 영역으로부터, 의미작용이 담화를 통하여 그 자신을 나타내는 최후의 영역까지, 내용의 아티클레이션과 의미의 궤도로 고찰될 수 있는 위치 안에 설치되었다. 이것은 계층화된 기본적인 것의 합성과 표층의미론, 그리고 내용을 조직할 수 있는·교묘히 만들 수 있는 형식적인 모델을 확립하고 있는 문법(분류법과 통사론)을 유

51) reasoning: 추론, 추리, 논거 등으로 번역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칸트·헤겔의 무제약의 이성의 인식능력에 근거한다. 헤겔에 의하면, 오성(understanding)이 추상적인 제약개념의 능력임에 반하여 이성은 구체적인 개념의 능력으로서, 오성의 대당(대립)의 입장을 초월하여 통일을 이루게 하는 힘이다. 또한 이성은 우주를 지배하는 근본원리의 의미로 사용된다. (역주)

도했다.

「사회과학과 기호학(Sémiotique et sciences sociales, 1976)」에서 번역된 소론은 선행의 이론적인 화맥 안에 정위되었음이 틀림없고, 최초로 그레마스에 의해 조정된(posited) 기본적인 불확실성의 다양한 형식화, 다양한 실례로 고찰될 수 있다. 특히 의미의 생산을 위한 조건이 무엇이며, 의미작용으로의 의미의 변형이 어떻게 기술될 수 있는가? 본질적으로 이것은 그레마스가 한정된 수의 개념(관계, 기술, 체계, 변화과정, 치환)으로부터 시발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의 동차성과 응집성을 제어하고 있는 보편적인·기호학적인 이론 안에서 확증될 수 있는, 실효될 수 있는, 또는 위조될 수 있는 하위계열적인 표상으로 존재하는 모델의 구성으로부터 시발하고 있는, 과학적인 담화의 합성의 텀으로 그들의 투기를 정의하지 못했던 하찮고 평범한 것으로 남았을지도 모른다.

그레마스는 기호학이 그리고 이 특별한 경우의 사회과학의 기호학이, “지식의 완벽한 조직”의 텀으로 기술될지도 모르는 과학의 지위를 갖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했다(그레마스, 1976, p. 9). 인간존재에 대한 지식은 매우 불명확하고, 기껏해야 사회과학의 기호학은 과학적인 담화를 정교하게 만들고 있는 변화과정의 과학적인 투기로 성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이의가 제기될 뿐이다.⁵²⁾ 만약 이것이 그 경우로 존재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 표출모드의 고찰에 의해 그리고 “지식의 또 다른 형식”으로부터 그것을 구별하는 기준과 마찬가지로 그 생산의 조건”에 의해, 그런 담화의 과학적인 지위를 연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될 것이다(ibid). 그러한 스텐스는 과학이 체계라고 하는 것을 단념하게 되고, 그것이 변화과정이라는 그 변덕을 채용하게 된다. 즉, 그 연구 영역의 과학은 사실 과학적인 실행(doing)과 상응한다.

제11장~제14장의 동일한 절차는 사회과학 안에서 4가지의 중요한 분야(커뮤니케이션, 사회언어학, 역사, 그리고 에스놀로지)의 “과학”을 요구하는 것의 연구와

52) 지식의 불명확한 지위와 형식화 즉 사회과학 안에서 사용된 형식적인 이론과 같은 용어법을 남용함으로써, 그레마스는 그 시간이 어느 이론을 형식언어의 텀 안에서 이러한 영역으로 형식화하는 것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래서 그것은 본질적으로 기호학 안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개념적인 성질의 이론을 구성하는, 즉 개념이 상호 정의되고 결합된 응집이론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그러한 이론이 그것이 형식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즉 그것의 변형을 형식언어로 언급되는 것으로 구성될 때만 존재한다(루프레히트, 「메타-기호학 개관(Ouvertures meta-sémiotiques)」, pp. 7~8).

함께 시작하는 것으로 채택된다. 이것은 화술성의 응집이론 안에서 각각의 담화적인 실천(practice)의 재 형식화에 의해 추구된다. 여기서 그 목표는 보편적으로 과학적인 담화를 위한 기준을 기술할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실행을 기술하고, 어찌할 셈으로 그것에 관해 연구함으로써 사실 어떤 종류의 과학적인 지위를 갖도록 요구하는 당해 각각의 분야는 그 자신의 실천을 보다 더 좋게 평가하고 화술성의 총체적인 이론 안에서 그것의 실행을 보다 더 엄격하게 조직한다. 통사론적인 행위주로서의 존재론적인(ontological) 지위로부터 총체적으로 독립적인 그러한 담화의 구성된 주체는 교묘히 다루고 있는 작용인자로서의 내포화하고 있는 그리고 외연화하고 있는 역할의 텀으로 기술된다. 이러한 언어학적인 실행의 분류법적인 그리고 통사론적인 성분은 고찰될 수 있고, 그 진정한 출현의 함수는 응집으로 설립될 수 있으며, 주체의 그 지식은 기술될 수 있다. 이러한 담화, 언외발언적인 계약·응축, 그리고 과학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행위주적인 구조는 사실상 대상으로 언급되는 그러한 담화의 딸림음적인(dominant) 특징으로 고찰된다. 또한 그것은 “사회과학의 관념론적인 모델(신을 찬미하는 송영상태를 초월한 것으로 고찰되지 않는 어떤 것, [그레마스, 1976, p. 38])”로 인식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과학적인 투기에 의해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이러한 투기의 명목 하에 실천된 과학적인 실행에 의해, 정의되기 때문이며, “어느 인간투기와 같은 이러한 투기는 오로지 관념적인 것이 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ibid.).”⁵³⁾

미디어의 또는 커뮤니케이션의 최상의 정의가 아티클레이션처럼 분절된 내용보다 오히려 보다 더 좋은 의미와 관련된 관측으로부터 시발함으로써, 그레마스는 제11장에서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모델, 발신자-부호-수신자(sender-code-receiver)가 방법론적인 동차성의 어느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발신자와 수신자는 개인 간의 구조를 구성하고, 언어연기를 제어하는데 필요한 방사적인 그리고 감수성이 예민한 언어능력으로 타고난다. 미디어의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에 접근하는 것은 채널과 부호의 도입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고도로 복합적인 분석을 하게 만들고, 사실 사회집단의 문화적인 차원의 탐색에 관한 동차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오로지 그 방법만이 사용된 부호를 통해 표현된 의미작용의 독자성으로 조정된다. 우리는 이러한

53) 사회과학의 다양한 담화의 분석을 위해서는, 그레마스 와 란도프스키의 「Introduction à l'analyse du discours en sciences sociales」(Paris: Hachette, 1979)를 보라.

영역의 탐색을 위한 무제약의 자유·이율배반의 이성(reason)이 사회집단과 개인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라는 그 사실의 조망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개인 간의 언외지언의 교환모델은 기호학적인 현상의 사회적인 차원으로 채택된다.

대당언어(문법과 동연인)/파롤(어휘적인 시소러스의 자유로운 사용)은 공통언어, 즉 언어공동체의 일원 간의 공통의미론적인 축적의 조정을 유도한다. 은유적이고 가치론적인 성질의 이러한 공통 시소러스(thesaurus: 동의어·반의어 등의 사전)⁵⁴⁾의 어휘소는 기본적인 의미론, 즉 언어공동체 안에서 참여(participating)를 위한 필요조건으로서의 개인적인 교묘히 다루기를 구성한다. 사회적인 어군은 한편으론 그 어군의 모든 개인적인 것의 언어능력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 한정어군으로, 다른 한편으론 의미론적인 우주의 그리고 사회화된 담화, 즉 “몇몇 기호학적인 어군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어군이 통합된 것으로 존재하는 만큼 많은 사회기호학적인 역할을 선택하는 동일한 개인적인 것의” 유형학의 텀으로, 정의된다. 담화의 그 격아강적인 차원은 그들의 흡착을 문화로 만들고 있는 가치체계의 그 양상블로 표현하는 사회집단의 개인적인 것의 연좌로서의 레벨로 고찰된다. 그레마스는 “그들이 나타나는 것(텔레비전, 영화, 집단스포츠, 오락, 그림책 등)을 통하여 모든 실체, 채널, 또는 미디어를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담화적인 기호학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 모두가 단지 그 자체만으로도 바로 그 동일한 의미작용의 우주로, 그리고 필적할만한 담화조직의 형식으로, 되돌아가 변죽을 울리기 때문이며,” 그리고 사회적인 담화(예를 들어, 내레이터의 관계적인 비-중재, 의미론적인 부호의 부재)에 의해 생산된 화술적인 대상들 간의 구별을 위한 이중성의 기준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제12장의 “사회언어학에서의 이론적 모델에 대하여”에서, 그레마스는 비언어학적 기호학체계(몸짓의, 음식물의, 복장의 기호학 등)에 관한 사회적인 언외지의

54) thesaurus: 어원(語源)은 그리스어로 “지식의 보고(寶庫)”라는 뜻인데, 로제(Peter Mark Roget; 1779~1869)가 영어의 어휘를 내용상으로 분류하여 관련어(關聯語)를 표시한 사전을 만들어 시소러스라는 이름을 붙인 이래, 그러한 사전을 시소러스라고 일컫게 되었다. 현재에는 정보검색, 특히 전자계산기를 사용하는 기계검색의 분야에서 관련어를 표시한 어휘표(語彙表)의 필요성이 중요시되어 그것을 시소러스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유의어·반의어·대용어뿐만 아니라, 상위개념(broader term)·하위개념(Narrower Term)의 관계에 의한 관련어도 중요하여, 필요한 정보가 빠짐없이 검색되는 것이 요구된다. 한국의 경우 남영신의 「우리말 분류사전」, 박용수의 「우리말 갈래사전」 등이 시소러스에 속한다. (역주)

(내포)의 보다 광대한 영역의 일부로서의 사회적인 언외지의의를 갖고 있는 언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구의 영역을 정의한다. 사회언어학적인 투시도법으로부터 자연언어를 기술하려고 시도함으로써, 그레마스는 과학적인 그리고 에스놀로지적인 분류법을 탐색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언어가 그들의 사회적인 화맥 안에 어떻게 명기되는지 고찰할 수 없기 때문이며, 그는 그들을 사회언어학적 분류법의 편을 들어 폐기하고, 문화적인 영역의 유형학과 반대로 사실 그것은 연구의 단순영역 안에 방법론적인 경계를 확립한다고 언급될 수 있다.

사회언어학이 보편적인 성질의 과학적인 투기가 되기 위하여 그것은 탐색과 기술의 동차적인 레벨을 공리로 간주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사회기호학적인 담화의 분석을 위해 정교하게 만든 이론적인 프로그램과 함께, 그레마스는 가언적인 것과 작용적인 것으로 존재하는 보편적인 모델을 제안한다. 그것은 사회언어학의 영역을 에워쌀 수 있는 언외지의(내포)적인 범주와 분류법적인 모델의 3가지 유형, 즉 근접학적인(proxemic)⁵⁵⁾ 것, 형태론적인 것, 그리고 함수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범주와 모델은 넓은 사회와 산업사회를 구별하여 사용될 수 있다. 게다가 커뮤니케이션의 전략경로에 따라 형태론적인 모델, 사회언어학적인 통사론은 그 자체로 지금까지로 봐선 사회적인 언외지의(내포)의 부적당한 영역으로 고찰할 수 있는 사회언어학적인 문법을 완성한다.

제13장의 날카로운 비꼬음으로서의 “사건기록의(evenemential) 역사에 대하여와 역사편찬의 심층구조”는 역사의 생산으로 고찰할 수 있는, 그리고 역사적인 실행노하우(knowing-how-to-do) 아래의 언외지의(내포)를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보편적인 모델을 구성할 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존재하며, 사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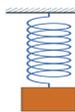
55) 1. 근접학; 인간이 타인과의 사이에 필요로 하는 공간 및 이 공간과 환경이나 문화와의 관계를 연구함. 2. 아울러 근방(近傍, neighborhood; approach)을 참조하라. 근방은 독일의 하우스도르프(Felix Housdorff, 1868~1942)가 수립한 위상공간론(位相空間論)에서의 기초개념. 일반적인 위상공간에서 어떤 집합 X에 대하여 어떠한 점 P를 포함하는 X의 부분집합을 P의 근방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집합 X에서, X의 각 원소 x에 대하여 x의 근방 U(x)의 계(系)를 결정하는 데 따라 X의 위상이 정의된다. 반대로, 일반적인 위상공간에서 점 P의 근방이란, P를 내점(內點)으로 하는 X의 부분집합을 말한다. 이를테면, R²을 직교축(直交軸) xy를 갖는 평면이라 할 때 R²의 점 (r, s)와, 양수 ε에 대하여 U_ε(r, s)={(x, y)|e(x-r)²+e(y-s)² < ε} 을 (r, s)의 ε-근방이라 한다. 어떤 ε(>0)에 대하여 (r, s)의 ε-근방을 포함하는 R²의 부분집합을(r, s)의 근방이라 한다. 이 근방의 개념은 점렬수렴(點列收斂)이나 극한점의 정의에 불가결한 것이다. (역주)

과학은 위치 안에 설치될 수 있다. 그의 화술성의 보편적인 이론 안에서 성취된 절차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그레마스는 분류법적인 조직과 구조적인 변형이 위치를, 즉 표층의 화술적인 통사론의 증명사에 의해 조직되고 있는, 중재하고 있는 매개자, 그리고 역사성이 표현된 표층차원을 선택하는 기본적인 심층레벨을 확립한다. 그렇게 총체적인, 통합된, 계층적인 모델은 총체 상에서 역사적인 연구의 성질로부터 유래한다. 예를 들어, 비록 역사학과와 마르크시스트의 전통이 심층구조의 분석을 위해 적합한 모델을 제안하였다고 할지라도, 응집적인 모델이 아닌 그 자체는 이러한 심층구조를 “각각의 순간과 모든 장소에서 함께 발생하고 있는 무한수의 초미사건(microevents)”을 만든 “역사성의 추측적인 구조”와 연결할 수 있는 것으로 존재한다.

그 심층구조(분류법적인 성분)는 “역사적인 담화 안에 명기될 수 있는 통사론적인 끈(strings; super-string theory)⁵⁶⁾의 조직을 지배하고 있는 규칙”과 마찬가지로 제한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는 일련의 역사문법의 일부가 될지도 모

56) 초끈이론(string theory): 1. 만물의 최소 단위가 점 입자가 아니라 “진동하는 끈”이라는 물리이론. 입자의 성질과 자연의 기본적인 힘이 끈의 모양과 진동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초끈이론을 줄여 끈이론(super-string theory)이라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 끈은 흔히 분자로 이루어져 눈에 보이는 끈이 아니라 더 이상의 세부구조를 갖고 있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말한다. 자연계에는 중력, 전자기력, 약력, 강력의 4가지 힘이 존재한다. 끈이론은 이 4가지 힘을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끈이론은 자연계의 기본입자가 하나의 자유도를 갖는 점(point)이 아니라 무한한 자유도를 갖는 1차원 끈(string)이라는 가설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끈의 진동 형태에 따라 입자의 질량을 비롯한 모든 물리적 성질이 결정되고 우주도 이에 따라 형성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끈의 진동이 격렬하면 에너지가 크고 질량도 커진다. 끈의 진동 세기에 의해 힘의 크기가 결정되고, 끈의 진동 패턴에 따라 힘의 종류(중력, 전자기력, 약력, 강력)가 결정된다. 끈이론은 이후 초끈이론으로 발전하여 일반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이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주고, 모든 것을 설명하는 통일장이론의 유력한 후보가 되었다. 또한 지난 50년 동안 과학계를 지배했던 점으로부터 시작하는 빅뱅이론을 부정하여 새로운 개념의 우주론을 제시한다. 하지만 아직 완벽한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문제도 많다. 2. 진동(振動, oscillation): 물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의 점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상태 혹은 어떤 물리적인 값이 일정 값을 기준으로 상하 요동을 보이다

는 상태이다. 한쪽 끝 부분이 고정되어 매달려 있는 용수철의 다른 쪽 끝 부분을 길게 늘였다가 놓았을 때, 현악기의 줄을 튕겼다 놓았을 때, 그리고 또한 시계추를 잠시 옆으로 들였다가 놓았을 때의 경우를 각각 상상해 보자. 대상 물체가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게 된다. 조금 더 추상적인 예로 일반 가정에서 주로 쓰는 교류 전원을 생각해 보자. 전압이나 전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0을 기준으로 값이 오르락내리락하며 변한다. 또한 전자기파에서 전기장 혹은 자기장의 세기도 역시 위와 같은 의미에서 0을 중심으로 값이 계속해서 아래위로 변하며 요동한다. 위와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적인 물체가 기준점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보일 때 혹은 물리적인 양들이 기준값을 중심으로 하여 아래위로 요동하는 현상을 보일 때 물리학에서는 이 모두를 진동 현상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naver 백과사전. (역주)



른다. 중재적인 표층 통사론은 역사의 사건을 조직할 것이며, 그것은 일상사로부터 역사적인 사건의 인식을 위한 절차가 확립되는 것의 이러한 레벨로 존재한다. 그것은 실행발화가 단조로운 일의어적인 방식 속에서 모든 역사적인 사건의 형식화할 수 있는 이러한 중재의 레벨로 존재한다. 그러나 역사적인 담화의 아종적인 특이성은 프로그램화된 실행의 가동자로 고찰된, 그리고 전제된 내포화와 외연화의 양태성에 의해 지배받는 그래서 양태화된 행위주로 정의된, 집단주체 개념의 도입을 필요로 한다. 선행 전제조건에 부가해서, 역사적인·집합적인 주체는 집단주체 그 자체가 아니라 하위개념적인(hyponymic) 주체, 예를 들어, 사회적인 계급이다. 역사적인 투기는 고의적인 관념의 제공을 회피하지만, 발화를 확립하고 있는 타이는 “말단과 역사적인 프로그램의 발단이 아닌 것”으로부터 시발하지 않으면 안 되며, “타이의 구성관계를 확립하는지도 모르는 전제논리”를 사용하도록 만든다.

에스놀로지의 목표에 대해 의심스러워하는 것은 제14장 “에스노-기호학의 대상에 대한 반성”에서 하찮은 사태가 아니며, 그레마스는 아종적인 대상들의 동정이 접근의 재평가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소정의 문화 안에서 시적인, 음악적인, 그리고 몸짓적인 사실의 화해를 위한 새로운 방법의 합성을 발생시킨다. 만약 담화적인 투시도법으로 고찰된다면, 그때 이렇게 이질성분으로 만들어진 사실은 혼합주의적인 성질의 복합적인·기호학적인 대상으로 고찰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하고 있는 사회언어학적인 범주 안에서 정교하게 만들어진 도식을 외삽하고 있는(형태론적으로 안정적인 “언어”와 함께 낡은 사회 vs 유동적인 사회언어학적인 통사론과 함께 현대 사회), 그리고 동일한 변형, 즉 “에스노-기호학의 레벨에서 인식할 수 있는, 복합적인·기호학적인 대상은 사회기호학의 레벨에서 복합변수의 문체론으로 분리되고 발생된다.”

에스노-기호학적인 상태(낡은, archaic)로부터 사회기호학적인 진전 상태에 이르는 변천의 연구는 “분리된 총체로부터 그리고 자율적인(자치적인·독립적인, autonomous) 담화(시, 음악, 무용)로부터, 신성하게 만들어진 함수를 가지고 있는 담화로부터, 유희적인(ludic) 또는 심미적인 함수를 가지고 있는 담화”에 이르는, 즉 집합적인 차원으로부터 개인적인 차원에 이르는 변천을 분석하는 것과 상응한다(코케, 1985, p. 115). 따라서 예를 들어 신비한 시로부터(집합적인·가치론적인 체계) 민중시(아종적인·의미론적인 부호의 부재)에 이르는 변천은 탈의미론의 형식으로 고찰될 수 있고, 반면에 탈의미론의 형식으로부터 현대시(modern po-

etry; 개인적인 가치)에 이르는 변천은 의미작용의 재행위화(reactivization; 그 구조 안에서 의미론주의의 재통합)로 성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에스노-기호학적인 레벨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화맥 안에 정위될 때, 신화적인 대상은 발신자에 의해 신화적인 수신자에게 발송되고, 수동적이지 않은 인간으로서의 청자는 시가 암송된, 음악이 청취된, 발레가 관람된 그 사회기호학적인 화맥 안의 상태로 존재한다. 실행을 만들고 있는(making-to-do) 그리고 결코 보이는 것을 만들고 있지 않은(never a making-to-see) 에스노-기호학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짐작력이 있는 함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집합적인 주체로서의 사회적 어군을 구성하고 있는 것에 의해 그 어군 안에 그 개인적인 주체를 통합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참여적인(participatory) 민중표출의 기초가 되고 있는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 관측되는 커뮤니케이션의 바로 이러한 통합적인·사회적인 체계로 존재한다.

* * *

이러한 도입을 통해, 진전적인 또는 역사적인-변덕스러운 투시도법으로부터 그레마스의 기호학의 돌출적인 특징을 추적했던 그 안에서, 우리는 내재 정의된 그리고 계층적으로 분류된 개념 안에서 이론의 구성된 그리고 가언-연역적인 양상을 강조하려고 시도했다. 또한 우리는 내재적인 응집성을 형식화의 전제조건으로 주조한 그래서 진전하는 이중적인 투기로 잉태된, 총체적인 이론의 신인동형동성적인 차원을 역설했다. 더 나아가 우리는 3가지 주요한 진전·변화의 상(相, phases), 즉 형식화, 화술문법, 그리고 양태적인·양상적인 문법을 동정했다. 또한 우리는 심층구조에서 시발된 탐색의 방법을 동정했으며, 그때 표층(담화적인 그리고 격아강적인) 구조상에 농축하기 전에, 기호현상-화술구조를 탐색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표현된 치환적인·기호학적인 이론이 어느 정도 충분히 완성된 이론이라고 추단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인데, 그 이유는 탐색이 담화의 언외감수의미소적인(pathemic), 심증-윤리적인, 그리고 심미적인 차원을 어렵지 않게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호현상-화술문법의 구성을 완성했음이 틀림없으며, 더 나아가 양상성의 작업이 통합된 그리고 상보적인 담화문법의 진전을 유도했음이 틀림없다. 그레마스 그 자신의 언급에 의하면, “이러한 두 과업은 기호학

자들의 다음 세대가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57)

노트: figurative: 격아강적인(格亞綱的) 1. 격상(figure)로부터 유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식어 “격아강적인(figurative)”은 그 내용이 자연적 기호학체계(the natural semiotic system; 또는 자연세계의 기호학)의 표현레벨의 무엇인가와 상응하고 있을 때 주어진 내용(예를 들어, 자연언어)과의 관련 속에서 사용될 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담화의 생성적 궤도의 화백 안에서, 담화적인 의미론은 주제적(thematic; 또는 abstract) 구성요소와 함께 격아강적인 구성요소(figurative component)를 포함한다.

2. 이러한 동일 투시도법의 관점에서, 격아강적인 궤도는 주어진 주제와 상관된 동류체(isotopy)적 연결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다. 격상의 연합(결정된 문화세계와 적합한)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연결은 부분적으로는 자유롭고 부분적으로는 강요되며, 다소간, 최초의 격상이 설치될 때 다른 모든 것에 배타적인, 어떤 다른 격상을 도출해낼 뿐이다. 격아강적인 것과 동일 주제의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주제는 다른 격아강적인 궤도를 잠재시킬는지 모른다. 따라서 상수(invariant)는 밝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scared(겁에 질린)”의 주제는 몇몇 격상, 이를테면, “priest(신부),” “sacristan(교회직이),” 또는 “beadle(교구직원)”과 같은 격상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시퀀스의 격아강적인 표명은 격상의 다양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최초로 선택된 격상을 확립할 때마다 시퀀스가 실현되어야만 하는 시간과 장소와 연기의 모드는 동일 조화 속에서 서로 다르게 존재할 것이다. 역으로, 위치가 잡혀진 최초의 격아강적인 다의성은 그와 다른 주제(어떻게 다의의 동류체 현상이 단순 담화 안에서 서로 포개어진 의미작용으로 발전하는가)에 상응하는 몇몇 격아강적인 궤도로 어떠한 가능성 있게 개방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SEMIOTICS and LANGUAGE」(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9), pp. 117~118. (역주)

figurativization(격아강화): 1. 격아강화가 모든 담화를 2개의 큰 강류(classes; figurative 그리고 non-figurative-또는 abstract 담화)로 분류하는 것의 과업을 떠맡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는 즉각 거의 모든 텍스트가 격아강적인 담화의 강류에 속한 문학적이며 역사적인 것이라고 호칭했던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구별(특징)이 다소 “관념적인(ideal),” 분류형식(figurative와 non-figurative)을 탐색하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합금이 안 된(unalloyed)” 형식으로 결코 나타나지 않는, 바로 그렇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식했다. 사실, 기호학자들(semiotician)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담화의 그리고 텍스트의 격아강화(담화적인 의미론의 하위성분)가 존재한다는, 그리고 발화를 격아강화하는 언외화자(enunciator)에 의해 위치(place; 자리) 안에 삽입되는 절차가 존재한다는, 바로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담화생산 모델의 구축(우리가 생성궤도라고 호칭하고 있는)은, 그것이 작용적인 그리고 애매모호한 방식으로 내접시키려고 애를 쓸 수 있는 그 안의 보편적인 프레임의 구성을 허락하기 때문에, 실효(失効)와 재구축, 다시 말해서 최초로 중립적인 그리고 추상적인(abstract) 것으로 포즈를 잡게 된 담화의 격아강화의 절차에 종속되기 때문에, 그저 그것만으로도 유용하게 된다는 것을 입증한다.

2. 그것은 아마 우리가 격아강화를 의미하는 것의 간단한 예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담화-발화의 최초에, 대상으로부터 분리된 주제는 그것에 의해 탐색된 결승점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존재토록 하자.

S U O

57) “화술성과 일반개념(Universaux et narrativité).”

이러한 대상은 통사론적인 정향(position)으로만, 즉 가치로 투자된 일습(stands; 一襲), 예를 들어, “힘(power),” 즉 존재-능력(being-able; to do/to be)의 양태성의 형식으로만 존재한다.

S U O_v (: power)

거기서, 답화는 전동장치(傳動裝置)로 구동될 수 있다. 그 화술적인 프로그램은 그것이 탐색하고 있는 가치와 함께 주체를 결합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러한 설화를 발설하는 무한수의 방법이 존재한다. 그 답화는, 통사론적인 대상(O)이 그것을 “격상(figure)으로, “기민한 인자(因子; automobile)”로, 인식하고 있는 언의청자(enunciatee)를 허락할 것인 의미론적 투자를 수용할 때, 바로 그 순간에 격아강화가 된다고 언급된다. 예를 들면, S U O(automobile) vs (: power).

그 기민함, 그 발휘를 위해, 그리고 어쩌면 최후에 표출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힘의 또 다른 것으로의 인식을 위해, 주객치환응집(the quest)⁵⁸⁾을 표현하는 그 답화는 격아강적인 답화일지는도 모른다.

3. 그러한 단순·천진난만한 대신에, 이러한 예는 격아강화가 단지 단순한 관점으로만 표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것은 수사법의 격상이 어휘소의 또는 발화의 골조(骨組) 안에서 작용할 수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은 격아강화가 된 화술주체의 전체 체도로 매우 흔하게 존재한다. 격상 “기민한 인자(因子; automobile)”의 장치는 그들 능동성으로 바꿈으로써, 변화과정의 세트에 영향을 주고, 연기자(연)가 된 주체 위에 격아강적인 윤곽을 그리고, 관자놀이-공간적 정박(anchoring), 등등의 경험을 하게 된다. 그때 그것은 격아강화가 격아강적인 체도를 설치하고, 이것들이 답화의 차원과 함께 동연(同延)이 될 때, 그것은 격아강적인 동류체가 나타나는 원인이 된다.

4. 격아강화의 연구는 오로지 발단에서만 존재하며, 따라서 어느 조금한 개념화는 위험하다. 그 최대의 난국은 모든 기호학적 체계(semiotic system; 예를 들어, 문학 또는 회화)가 세계의 “표상(representation)”으로 존재하는, 그리고 주어진 그것의 정화(精華)로서의 우상성(iconicity)을 갖추고 있는 것에 따르고 있는 함축적인 선형성 안에 들어있다. 문학적인 답화가 비록 “허구(fiction)”로 고찰된다고 할지라도, 그 허구적인 성격은 단어(그것은 사물을 표상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쪽을 향하고 있지 않고, 단지 최초의 위치에서, 기술된 능동성의 조정(調停)으로 존재할 뿐이며, 따라서 그 답화 안에 내접된(새겨진) 어휘소는 그곳에 기호학적 격상(semiotic figure)을 설치하지 못하고, 오로지 기왕에 만들어진 “세계의 이미지”로만 존재할 뿐이다. 그것은 화보적인 기호학과 동일하며, 그곳의 그림은 자연히 “그것이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세계에 되돌려 보내고 있는 유명한 우상의 컬렉션으로 간주되며, 동시에, 언의지연화 된 것으로서의 세계로도 간주된다. 반대로, 그 텍스트가 그것의 구조와 기호학적 격상(semiotic figure)의 행로에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연속적인 수명법으로, 위치안으로 들어가는 의미의 점진적인 생산의 결과로 고찰될 때, 이 모든 것은 바뀌며, 그곳의

58)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p. 253~254. quest(주객치환응집); 주객치환응집은 추구된 가치의 주체와 대상, 그리고 전자를 후자 쪽으로 치환하는 것을 지시한다. 그것은 “순간”의 형식 하에, 그리고 지속적인 모드 하에, 외연화(actualization, 주체와 대상 사이의 선연관계와 상응하는 것)의 관자놀이-공간적인 표상으로 존재한다. 보다 더 엄밀하게 말해서, 그것은 요망(wanting)의 양태성의 표상으로 존재한다. 주객치환응집의 결정적인 양상은 실현화(realization, 또는 주체와 대상 사이의 연연)와 상응한다. (역주)

양태(Modality)	내포화(virtualizing)	외연화(actualizing; 선연)	실현화(realizing; 연연)
외인궤략(exotactic)	의무(필연, HAVING-TO)	능력(BEING-ABLE)	실행(연기, DOING)
내인궤략(endotactic)	요망(결여, WANTING)	지식(KNOWING)	존재(내관, BEING)

담화는 지속적인 이상성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매 순간 추상적인 형식으로든지, 격아강적인 편제(formation)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표출 쪽으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앞으로 격아강화의 절차 안에서 적어도 2개의 레벨로 구별되는 것이 필연적이다. 그 2개의 레벨의 첫 번째는 격아강화, 즉 기호학적 격상(일종의 음운론적 레벨)의 조립이며, 두 번째는 일종의 이상화가 될 것이며, 그것은 세계의 이미지로 변형시킬지도 모르는 지시적 환영을 생산하기 위하여 격상을 남김없이 그리고 잘게 나누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5. 바로 지금, 우리는 격아강화의 절차 안에서, 고유명목적인 하위성분이 연기로 호칭되는 그 특별한 역할에 주목할 수 있다. 격아강화는 그것이 심층구조 안에서 포착되는 한에 있어서는 추상적 담화의 이중화와 특별화에 의해, 그리고 연기어(anthroponyms)⁵⁹의, 공간어(toponyms)의, 그리고 시간어(chrononyms; 담화적인 통사론의 측면에서 연기화·관자놀이-공간화·관자놀이-시간화의 3가지 담화화의 절차구성과 상응하고 있는)⁶⁰의 도입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지며, 그것은 발생적(유전적; king, forest, winter)인 것으로부터 아종적인 것(고유명목, 관자놀이-시공간적 지표, 연대 등)으로 목록화될 수 있다. 그 자체 그것만으로, 격아강화는 텍스트 그 이상이 되어 실제적인 것의 생산의 매력적인 단계를 부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Ibid., p. 118~120. (역주)

노트: figure(격상); 1. 격상이라고 하는 용어는 비기호(non-signs), 즉 표현의 측면이나 내용의 측면을 따로따로 구성하고 있는 단위를 지시하기 위하여 Louis Hjelmslev에 의해 사용되었다. 따라서 엘름슬레우적 의미에 있어서는, 음운론과 의미론은 격상의 기술이지 기호의 기술이 아니다. 2. 이러한 입장에서 출발하면, 단어 격상의 의미는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이 편리하다. 만약 우리가 최소 단위로서의 격아강적인(pheme과 seme) 범주를 가지고 있는 언어의 두 측면을 고찰한다면, 격상이라고 하는 명목은 음소(phoneme) 또는 어의소(sememe)가 격상소(pheme) 또는 의미소(seme)의 결합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어야만 하며, 마찬가지로, 잠재적으로 음소와 어의소가 격상소와의

59) Ibid., p. 14. anthroponym: 연기어(고유명목에 의한 연기자의 지시로서)는 격아강화(figurativization)의 고유명목적 하위 그룹의 일부이다. 공간어(toponyms)와 시간어(chrononyms)에 의해 조립된 그들은 역사적 정박(anchoring)을 허락하며, 그것은 외재적 지시물의 시물레이크림을 구성하는 것과 “실재성”의 의미 있는 효과의 생산을 목표로 삼는다. —일반적으로 다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Anthroponyms(앵트러포니미; Anthroponymy, 또는 Anthroponomastics)는 언어의 표준어휘로부터 탈락된 어휘성분으로 흔히 유지된다. 예를 들어, 영어의 명사 “Fishburn(영국의 북부 Durham 주의 한 시골 마을 명칭이다. 잉글랜드 북부 Cleveland주의 항구 도시-Hartlepool의 서부에 약간 산재해 있다)”은 고어 “bourn”로부터 “-burn”을 유지하는데, 이 앵글로색슨 말(Anglo-Saxon)은 일반표준영어의 사용법으로부터 탈락된 “brook(시내)”를 의미하고 있다. 또한 Anthroponyms는 언어의 기원으로부터 다른 언어로, 다시 말해서 무관계한 언어로 쉽게 이동한다. 불충분하게 입증된 언어의 경우, 비록 이것이 언어의 특징의 보다 직접적인 증거로 비교하는데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Anthroponyms는 흔히 그 성질과 특성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원천으로 존재한다. 이것을 세분하면, Surnames(별명, 이명), Clan names(씨족, 一門, 閥族·특히 스코틀랜드 고지 사람의 별족, 당파, 도당, 파벌), Exonyms(외국어 지명, 한 지명에 대해 각국에서 부르는 다른 이름), Nicknames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역주)

60) Ibid., p. 29. 어떤 의미론자(G. Combet)는 공간어(toponym)·연기어(anthroponym)와 함께 마치 “하루(day),” “봄(spring),” “차 마시는 시간(coffee break)”처럼 시간의 특별한 길이를 지시하는 용어 시간어(chrononym)를 도입하도록 제안했다. 이 단어는 연기어와 공간어와 함께 “피리어드(period: 기간)”를 유리하게 대체할 수 있으며, 외부 지시대상의 시물레이크림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역사적 정박(anchoring)을 확립하도록 돕고, “실재성(reality)”을 성취하는 의미를 생산한다. (역주)

미소를 계속 지켜나갈 수도 있다. 용어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비언어학적 기호 체계를 다룰 때, 어의소, 특히 음소라고 하는 명목의 사용은 아무래도 온당치 못한 것 같다. 따라서 그것은 내용의 격상(figures of content)과 표현의 격상(figures of expression)이라고 언급하는 것이 보다 더 좋을 것이다. 3. 담화적 의미론에서, 격상의 정의는 자연적 기호체계(또는 자연세계)의 표현측면의 격상과 상응하는 내용의 격상을 위하여 단독으로 이러한 팀을 남겨두는 것에 의하여 보다 더 정밀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핵격상(nuclear figure)은 재현하는 화백적 의미소(또는 강류의미소)의 독점적인 의미소의 격아강적인 부분만을 떠맡는다. 이러한 격상의 개념은 게슈탈트 심리학(the Gestalt)에서의 형태이론(form theory)의 개념과 그리고 바슐라르적 비유개념과 유사하다. 이러한 예외에도 불구하고, 기호학적 격상은 격아강적인 범주의 팀인 이 단순 단위로 나눌 수 있는, 두 번째 단계의 단위로 고찰된다. 4. 총체로서의 생성적 궤도의 관점에서 보면, 담화의 격아강적인 레벨은 추상레벨과 격아강적인 레벨 위에 덧붙여지고 있는 새로운 투자(내용격상의 설치)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 영역으로 나타난다. 비록 강류의미소적 수사학의 비유목록을 조금도 소모하지 않고 있을지라도, 그러한 정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팀의 두 의미(기호학적 그리고 수사학적)와 다른 성질을 보여준다. 사실, 그러한 관점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과 다르다는 것이 명백하며, 예를 들어, 그것은 Bréal이 자연언어 안에서의 의미론적 변화를 고찰하기 위하여 그의 체계 안으로 통합하려고 했던 것처럼 언어의 격상으로부터, 수사학적 비유(그것은 다소간 발음하는 사람의 상투적인 절차와 상응하고 있는 문체일 것이라는 것이 맞을 것이다)를 구별하기가 어렵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격상이 어휘소적 레벨(그때 문장의 주어진 단어에 한정된다), 또는 전환적, 담화적 레벨에서 고찰(비유의 경우에)되는 지 어떻든지 그에 따라서 격상 차원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두 번째 경우(격아강적인 레벨)에, 격상은 동류체적 연결자 또는 넓은 의미에서, 그들의 문체적 특성 바로 이러한 사실에 의해 상실되고 있는 팀과 레벨 사이의 관계로 나타날 수 있다. 결국, 그것은 수사학적 비유로 주목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자연언어 문제의 범위를 초월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시네마의 사실은 담화, 기호학적 일반 줄거리에 속하는 격상 그리고 표현의 특별한 실체 안의 어느 표출에 선행하는 생성 궤도의 구조 안에서 적어도 은유와 환유를 보여주고 있다. —Ibid., pp. 120~121. (역주)

노트: 위를 요약하면 "figurative"는 semiotics의 thymic category의 차원이고, "figure"는 그보다 하위인 semiology의 차원이다. (역주)

제1장 비교신화학

뒤메질(Georges Dumézil)에게

영향력 있는 언어학자와 기호학자들(언어체계는 기타의 많은 기호구조 사이에서 특권이 부여된 체계 바로 그것으로 존재하니까)이 신화학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원성(twofold)이다.⁶¹⁾

그들에게 있어서 신화학은 구조 그 자체가 대상언어로서의 기존의 인간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자연적” 메타언어이다. 따라서 언어학자와 기호학자들(semioticians)은 의미작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이 새로운 복합 시니피앙의 “형식(forms)”의 함수(function)⁶²⁾를 검증하고 기술하려고 시도한다.

또한 신화학의 탐색은 그 탐색 안에서 명령적인 그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메타언어적 형식의 의미작용의 기술상에서 명백하고 강력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학자들을 필요로 한다. 보통 언어의 입장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덜 확고하게 연결된 것으로 존재함으로써, 신화학적 시니피앙은 거기서 더디게 그리고 분석의 객관적 기준을 위해 부단히 찾고 있는 그 탐색 상에 기초한

61) 1962년으로 되돌아가는 이 연구는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의 「신화학」에 선행하는 것이라고 지시될 것이다. 비록 그 표현의 순서에 있어서 날자가 약간 다르게 나타날지라도, 아직도 그 텍스트는 약간의 교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twofold: 이중진리(二重眞理 twofold truth). 후기 스킨라철학에 나타난 진리관으로, 진리는 계시에 의한 종교적 진리와 이성의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학설. 후기 스킨라철학에 나타난 진리관으로, 진리는 계시에 의한 종교적 진리와 이성의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학설. 진리는 많이 있어도 결국 하나의 진리(근거)에 의하여 성립된다는 것이 그리스철학의 진리관인데, 이에 대하여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는 “계시(신앙)의 진리”와 “이성(理性)의 진리”로 구별한다. 교부(敎父)들은 이성은 신의 빛을 받아 작용한다고 하였고, 스킨라철학은 자연적 인식을 신학의 준비 또는 변증으로 보았으므로, 두 진리는 분리되지 않았다. 그러나 곧 인간이성의 자연성과 자존성을 깨닫게 되자 이 둘의 모순이 드러나 철학이 신학으로부터 갈라져 나오게 되었다. 이중진리설은 이 과도적 단계에서 나타난 것으로, 아라비아 철학자 이븐 루슈드(Ibn Rushd, 1126~1198)와 그의 제자 시제 드 브라방(Siger de Brabant, 1240~1284), 후기 스킨라철학자 존 던스 스코터스(Johannes Duns Scotus, 1266~1308), 오컴(William of Ockham, 1285?~1349) 등이 주장했다. 그때 이성의 능동성과 수동성, “필연적인 명제”와 “우연적인 명제”에 대하여 논의가 많았던 것은 서양 철학사상 중요하다. (역주)

62) $y=f(x)$; 변수 x 와 y 사이에 x 의 값이 정해지면 따라서 y 의 값이 정해진다는 관계가 있을 때, y 는 x 의 함수라고 한다. 또 x 를 독립변수, y 를 종속변수라고 하는데, 이것은 P. G. L. 디리클레에 의한 정의이다. 함수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G. W. F. 라이프니츠였다. 함수라는 개념은 수학의 역사와 더불어 존재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역주)

또 엄밀한 신화학의 요구하는 흔히 매우 미묘한 해설적 변화과정으로 발견되고 검증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오랫동안 구조언어학은 그 자체가 어느 탐색 안에서 의미작용으로 고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음성 또는 의미로서의 실체(substance)의 분석에 대한 두려움 없이 관찰되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이다.

사학자들은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에서 신화학으로 나타난 그 방식을 관찰할 수 있다. 그것은 그들이 이원적 과제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신화학자들을 추종하도록 자극하고 있다. 우리는 신화의 해석이 “새로운” 관념론적인 언어를 어떻게 도입하고 있는 것인가 관찰할 수 있으며, 사실 이러한 관찰이 가능한 것은 무언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의미작용의 분석은 새로운 “용어법”과 새로운 메타언어를 필연적으로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신화학자들은 신화학적인 언어를 관념론적인 언어로 번역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불가피하다. 즉 우리가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의 용어법을 사용한다면, “내포기호학(connotative semiotics)”을 “외연기호학(denotative semiotics)”으로 변형하는 것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진자의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안으로 느낄 수 있는 확장적 이원성을 후자의 환원적 단자로 읽을 수 있는 것으로 독해할 수 있다. 따라서 신화학의 탐색은 그 이원성의 인식론적 상부구조에 대한, 그리고 단자와 같은 사회적 관념론의 기술을 위한 지각차원의 하위구조의 모델로 기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신화적 시니피앙은 소정의 레벨의 다양성으로 발견되기도 하고,⁶³⁾ 다수의 형식으로 획득되기도 하며, 그래서 우리의 주의력은 다소간 응집력으로 존재하는, 즉 비록 그 설화(story)가 그것과는 다르게 나타날지라도 계열적으로 연결된 시니피앙의 또 다른 연결단위와 동시에, 확장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명시된 신학적 화소(話素)와 신화소(神話素)로 존재하는, 결합체적 고삐로서의 다양한 설화의 줄거리에, 다시 말해서 신화에 매우 자연스럽게 빼앗기고 만다. 신화의 주목할 만한 구조적 연구는 이러한 주제에 아무런 의심 없이 일임하고 있는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⁶⁴⁾에 의해 최근에 실행에 옮겨졌

63) 뒤메질(Georges Dumézil)은 신화학에서 사용될 수 있는 설화(story) 또는 설화의 단편들이 모든 문맥 안에서, 즉 종교적인 텍스트, 서사시, 의식과 제례의 지침, 역사서, 민담(legends of folklore) 등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왜냐하면, 의미작용의 연구는 시니피앙이 획득한 이러한 형식의 의미작용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64) 레비스트로스, 「신화의 구조적 연구」,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68(1955), pp. 42

다. 우리는 신화를 설화의 단순한 줄거리로 지시되는 방식으로서의 결합체적으로 독해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소정의 신화가 널리 유포됨으로써 사회집단의, 설화의 길이를 통해 분배된 시니피에의 다양한 단위 간 관계의, 성분상에서 매우 무의식적으로 존재하는 방식으로 포착해야 한다. 시니피앙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시니피에의 이렇게 다양한 단위는, 따라서 신화의 그러한 표현은 수학의 방정식으로 환원될 수 있다. 레비스트로스는 오이디푸스 신화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공식화한다.

$$\frac{\text{/과대 평가된 동족관계/}}{\text{/과소 평가된 동족관계/}} \approx \frac{\text{/토착적 인간성/}}{\text{/토착적 인간성의 부정/}}^{65)}$$

그러한 신화의 공식은 2개의 조건을 전제한다.

1. 우리가 시니피앙의 분석이 완벽했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시니피앙이 가져올 수 있는 정보는 약간의 시니피에의 단위를 환원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일 것이다.
2. 이러한 의미작용의 단위는 그 자신을 이원관계의 네트워크로 조직하여야만 한다.
 - a. 미학적 관계의 단위인 각각의 짝은 그 유형의 변별적 특징(distinctive features)의 현존재와 부재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 대당적(oppositional) 커플을 구성한다.

A vs 비-A

- b. 두 커플은 상관물에 의해 총괄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신화를 위해 매우 단순하게 만들어진 공식은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 보여줄 것이다.⁶⁶⁾

8~444.

65) 시니피에와 함께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단어 또는 표현을 슬래시(/.../) 사이에 넣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신화적 설화 그 자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화학적 기술의 “용어법” 안에 속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여야만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장의 결론 부분에서 명시된다.

66) 우리는 가능한 한 변별적 특징의 기술을 확장하기 바라기 때문에, 그것을 오이디푸스를 분석함으로써 그 결과로 얻게 된 신화의 공식에 고착시킬 것이며, 더 나아가 레비스트로스가 동일 연구에서 제안한, 즉 보편화된 공식에 귀속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frac{A}{\text{비-A}} \approx \frac{B}{\text{비-B}}$$

예를 들자면, 우리는 이러한 설화가 레비스트로스에 의해 제안된 독특한 공식에 적합한지 어떤지 관찰할 수 있도록 뒤메질에 의해 분석된 약간의 설화에서 취해올 것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신을 갖도록 그리고 그의 비판에 대해 응답하도록 요구됨으로써, 그의 연구가 부분적으로 논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초래된, 어떤 결과로서의 그의 표현이 상황함에도 불구하고, 뒤메질의 분석은 매우 풍부하며, 그 점에 있어서, 우리의 과업은 때때로 약간의 편차가 있는 용어법을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공식을 제공함으로써 혁신을 가져오는 것과 얼마간 일치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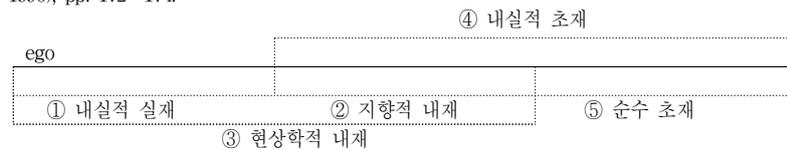
또한 우리는 레비스트로스에 의해 정의됨으로써, 변별적 특징(음운론에서의 일상관행)으로 그들을 분류하는지도 모르는, 의미작용 단위의 보다 엄밀한 분석이 가능한지 어떤지의 관찰을 시도하려고 한다. 결국 의미실체에 대한 구조적 기술로서의 그러한 분석의 사용은 보편화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이원분석(시니피에의 단위와 변별적 특징으로)의 어려움은 우리가 그것을 비교 연구하여 적용할 때 직면하게 되는 것임에 틀림없다.

사회계약 · 응축으로서의 “신화”

그의 연구와 동족관계인 뒤메질의 연구는, 세르비우스(Servius) 왕의 검열관의 “선임”과 아일랜드의 브레스(Bress) 왕의 폐위에 관한 병치적 설화(parallel stories)⁶⁷⁾가 부가된, 변형의 완만한 변화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신화학이 가지

67) parallel stories: 병치설화, 또는 후소설화(後素說話), 한전숙, 「현상학」(서울: 민음사, 1996), pp. 172~174.



(중략)

“후설은 내재(①) 속에 질료(Hyle)와 노에시스의 두 성소를 들고 이 둘의 교직(交織)으로 노

게 된 설화, 즉 프르투(Prthu) 왕의 즉위에 관한 인도의 설화를 이해하도록 할 것이다. 그것이 비록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여기로 되돌아올 것이며, 이러한 예증은 단순·천진난만함(simplicity)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시니피에의 단위와 변별적 특징이 인도의 설화와 라틴 민족의 설화 안에서 검증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들에게 비교언어학의 방법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점진적으로, 그리고 하나씩, 보여주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노트: Prthu: “힌두교에서의 전륜성왕의 개념을 살펴보면, 마하바라타에는 신들의 왕인

에마(②)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따라서 이 노에마는 인식작용에 내설적으로 내포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초월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현상학적 의식을 초월하는 것은 아니다. 즉 노에마는 <초월적이면서 내재적>이다. 이리하여 주관에의 귀환이라는 현상학적 태도는 선형적 전환이전에는 내설적 내재(①)로의 귀환이던 것이 그 후에는 현상학적 내재(③)로의 귀환으로 뜻이 확대된다. 이것은 또 현상학적 환원이 <현상학적 잔여>에의 제한<판단중지의 단계>이라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대상을 구성하는 <생산적> 기능으로 눈을 돌린다(선형적 태도의 단계)는 적극적 의미로 바뀌는 것도 의미한다. 이렇게 선형적 태도에 들어서면 앞서 초월적이라 하여 배제되었던 모든 것이 이제는 지향적 대상, 의미구성체로서 다시 현상학적 영역 속에 들어오며 따라서 총적인 현상학적 기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세계와 그 모든 대상이 현상으로서 경험되는 이런 경험을 후설은 현상학 경험(「위기」, 156)이라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현상학적 환원에 의해서 도달하는 주관이란 독일의 고전적 관념론에서와 같이 원리의 영역이 아니라 노에시스의 순수 작용의 영역임을 알 수 있다. 즉 순수 주관성이란 무슨 신비로운 가정이거나 논리적 요청 또는 속이 빈 형이상학적 존재가 아니라 선형적 경험이 이루어지며 따라서 그 체험 내용을 기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험의 장(Erfahrungsfeld)>이다. 이 주관은 후설에 의하면 본시 이중적이다. 즉 주관은 심리적으로는 객관적 세계 내에 실재하는 정신물리적 주관이지만 동시에 선형적으로는 세계를 구성하는 선형적 주관이다(「심리학」, 338 참조). 후설은 이렇게도 말한다. (중략) 이 두 주관, 그리고 각 주관의 연구대상으로 하는 심리적 경험과 선형적 경험을 후설은 서로 <평행(parallel)>이라고 한다. 그것은 서로 <대응한다>(「심리학」, 342)는 뜻인데 이것은 대응하는 두 항이 서로 대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대응관계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는 다른 것 속에, 말하자면 함축되어 있다>(steckt sozusagen implizit, 같은 책, 343)는 뜻이다.” 이하 참조. 그리고 후소(後素)와도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후소는 후공(後功), 여백이라는 유의어를 가지고 있는데, 여운, 토운, 신화체계, 심층구조, 빙산의 일각(tip of iceberg) 1)과도 의미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후소는 회사후소(繪事後素)와 소이위현(素以爲絢), 소기위이행(素其位而行)에 근거한다. 소(素)는 문질민민(文質彬彬)의 질(質)과 “소유현재야(素猶見在也)”의 보이는 것이 유예된 재(在), 그리고 “소부귀(素富貴) 행호부귀(行乎富貴)”의 “어떤 처지에 놓이다”라는 뜻의 소(素)이다. 정사농(鄭司農)은 소(素)란 회화의 질(質) 즉 색채의 정신적 표현으로써 후공이라고 한다. 주희(朱熹)는 현(絢)과 대비하여 보이지 않는 질(質)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사군자(四君子)인 매란국죽(梅蘭菊竹)은 현(絢)이며 진선미정(眞善美貞)은 소(素), 즉 매(梅)=선(善), 난(蘭)=미(美), 국(菊)=진(眞), 죽(竹)=정(貞)이다. 그러나 이것도 보편성이므로 보다 더 개별성이 있는 것을 찾아야 할 것이다. 화가는 이 후소의 원리를 알아야 하고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진의를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후소는 노자(老子)의 “곡신(谷神)의 현민(玄牝)”. 과 장자(莊子)의 “혼돈(渾沌)의 칠규(七竅)” 또는 선(禪)에서의 “견산지시산(見山祇是山)”의 경지와도 통하는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역주)

인드라에게 중요했던 나라인 인도를 다스린 전륜성왕들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 왕들은 바이바스바타마누(Vaivasvata Manu), 프르투(Prthu), 익스바쿠(Ikṣvāku), 만다타(Mandhātā), 무츠클둠(Mucukundum), 시비(Śivi), 르사바(Rsabha), 아일라(Aila), 느르가(Nṛga), 야야티(Yayāti), 암브리사(Ambriṣa)이다. 마이트리우파니샤드에는 물질적 즐거움의 공허함을 깨닫고 삶의 더 높은 가치에 그들의 생각을 집중한 전륜성왕들의 전통적인 명단이 있다. 그들은 성냄, 사랑, 탐욕, 집착, 공포의 허망함을 깨달았다. 이것은 불타나 아쇼카의 접근처럼 인생과 세상에 대한 인식접근이 같은 종류임을 말한다. 고대관념에 따르면 전륜성왕은 그 위에 왕권의 우산을 들고 7보를 구족해서 그의 영토 또는 차크라에 기둥처럼 서 있다. 옮겨 말해 인간은 우리가 브르하드아라냐카 우파니샤드(Bṛhad-āraṇyaka Upaniṣad)에서 읽듯이 기둥이다. 인생원칙은 기둥이다. 전륜성왕은 다르마라는 기둥상징위에 섰다. 전륜성왕은 그의 다르마차크라가 항상 통치하는 그의 왕국을 통하여 퍼진 부(富)의 비를 내리고, 궁전에 설치된 정의의 권좌로부터 저항할 수 없는 힘을 끄집어내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와 같은 전륜성왕이란, 그 용어의 출현 시기에 대해서도 엘리어드(Eliade)는 전륜성왕을 의미하는 차크라바르틴(cakravartin)이란 실제 용어는 고행적 명상의 삶을 위하여 왕권을 포기했던 여러 왕들의 이름을 정리할 때 이 명사를 사용한 마이트리우파니샤드(Maitri Upaniṣad)의 편찬자들에 의해서 기원전 5세기말과 4세기 초에 알려졌다고(Maitri Upaniṣad 1.4) 하였는데 반해 스트롱(Strong)은 어쨌거나 인도에서 그 개념은 적어도 기원전 10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본다. 그리고 아르타사스트라(Arthaśāstra, 實利論)와 같은 정치지향적인 작품은 전륜성왕의 영토인 히말라야에서 바다까지 펼쳐지는 가정적 영토인 즉, 차크라바르티세트라(cakravartikṣetra, 전륜성왕의 영토)에 대해 말한다. 게다가 이상적인 왕국을 운영하는 이상적인 군주의 일반적인 개념은 마하바라타의 프르투(Prthu) 신화 같은 잘 알려진 경전에서도 발견된다. 무정부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호출된 ‘위대한 선출자’인 마누(Manu)와는 달리 프르투는 풍요, 번영의 황금시대를 주재한다. 그의 통치하에서 대지는 스스로 과일을 생산하고, 암소는 원할 때마다 우유를 주고, 연꽃 봉우리는 꿀로 가득 찬다. 모든 존재는 프르투를 그들의 왕 겸 구원자로 선언하고, 행복과 풍요의 끊임없는 삶을 산다. 그러나 불교의 전륜성왕 신화와 다른 점은 이 호시절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왕이 이상적으로 살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확실하게 계속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말로 두 종류의 통치자가 있다는 제안이 이루어졌다. 하나는 완전히 성숙한 전륜성왕으로서 올바르게 법에 따라 통치하며, 프르투(Prthu)나 달하네미(Dalhanemi)같이 호시절을 확실케 한다. 다른 하나는 아마도 전륜성왕이라고 불릴 가치가 없는 즉, 바르하지 못하며 다르마에 의한 정치를 하지 않아, 통치국의 파탄은 물론 나아가 우주의 파국에 책임이 있는 통치자이다.” —박정환, 『印度初期佛敎의 轉輪聖王 思想研究』(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p. 39~40.

dharma(正法); 라자다르마(rājadharma: 국왕으로서 준수 실행해야할 의무); “초기경전에 따르면, ‘위대한 선출자’의 제도는 같지가 않았다. 이 자리를 계승한 자들은 크샤트리아(범명: Kṣatriya, 팔리명: Khattiya) 또는 대지의 영주라고 불렸다. 이렇게 크샤트리아가 정치권력 발전의 두 번째 단계를 대표한다. 왕권의 개념이 나타난 것은 이 제도 진화의 세 번째 단계에 이르러서이다. 그 사람은 왕(rāja)이라고 불렸다. 왜냐하면 그는 다르마(범명: dharma, 팔리명: dhamma) 또는 정의로써 사람들을 즐겁게 했기 때문이다. 불교의 다르마는 브라만의 다르마와는 매우 다르다. 불교경전에서의 다르마는 “사마(sama, 평등)”이라는 말을 동반해서 종종 쓰였으나, 브라만 전통에서의 다르마는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쓰일 때는 항상 불평등을 의미한다. 로밀라 테퍼(Romila Thapar)는 “다르마의 개념은 종성 제도(Varna)의 이론 안에서 완전히 나뉘어진다. 점차로 다르마는 힌두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었고, 그리고 사회안에서 개인의 지위의 기반이 되었다.” 불교용어 다르마를

설명하면서, 고칼(Gokhale)은 “이 다르마는 정의, 평등, 최고의 도덕성 등에 일치하는 개념으로 일찍이 지적되었다.” 그는 이어서, “고대인도정치의 평범한 이론들 위에서 특별한 불교의 변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시행된 왕권에 대한 초기 불교도들의 시각을 먼저 검사해야 한다. 그 파괴적인 면에서, 왕권은 홍수나 큰 불같이 잠재적인 재앙 같은 것으로 종종 여겨졌다. 왕권은 사람들로부터 재산을 빼앗는다는 면에서 왕과 도둑사이의 암시가 그렇듯이 예상치 못한 폭력과 몰수 같은 결과를 내면서 종종 임의적으로 시행되었다.” 법 자체가 일정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 매우 개인적이고 임의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왕들은 그들의 개인적 이권에 따라서 상을 주거나 벌을 주는 것으로 묘사된다. 코살라 파세나디 왕의 아들인 비두다바와의 대화중 아난다의 주의를 그의 영토내의 백성들에 대한 왕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통제에 모아졌다. 그는 묻는다. “코살라 왕국 내와 그의 통치권의 범위 내에서 왕은 그가 덕이 있거나 없거나, 그가 지도자거나 고귀한 생활을 하거나 관계없이 아무 사문이나 바라문을 내쫓고 벌줄 수 있는가?” 비두다바는 그의 영토 내에서는 왕의 권력을 그렇게 행사한다고 인정하나 영토 밖은 안 된다고 한다. 임의적이거나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권위를 행사하는 것으로부터 왕들을 억제하기 위해 어떤 통제도 빌릴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 왕의 별칭은 이사리야마다(issariyamada) 혹은 ‘권력중독에 걸린 사람’이다. 그리고 이것이 파세나디가 자신을 묘사한 것이다. 비구들은 왕의 폭정으로부터 위협을 가지고 대해야지 아니면 그가 왕이 되면 복수할 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있다. 고칼은 또한 국가의 잠재적 전제성(專制性)과, 사유재산권과 사람들에 대한 제제가 왕의 기분여하에 따라서 행해졌다는 사실들을 지적한다. 이처럼 왕은 종종 임의로 권력을 행사하였다.” —Ibid. p. 27. (역주)

뒤메질은 이 설화를 통해서, 왕과 그의 백성들 간에 성립된 이중계약·응축이, 왕위계승권과 동시에, 어떻게 은유적으로 의미하고 있는가를 잘 증명하고 있다. 2개의 동치부분으로 그리고 거의 대칭적으로 분할될 수 있는 그 설화는, 먼저 백성들이 왕에게 자질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나서 왕이 백성들에게 자질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언급된다. 이러한 자질은 메시지 교환의 언어학적 범주 안에 상호작용적으로 정위된다. 왕은 칭송을 통해서 자질을 부여받고, 역으로 왕은 백성들에게 증여(자질을 부여하고 있는)를 분배한다. 만약 증여(또는 은혜)가 자질에 우선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단순자질이라고 부를 것이다. 다른 한편, 만약 그 자질부여의 칭송이 증여의 분배에 우선한다면, 이것은 자질을 안정시키고, 자질이 부여된 대상과 사람에게 새로운 권력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기하는 파툼은 실재성으로 전도(顛倒)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 새로운 권력은 풍요 그 자체인 암소의 소유에 의해 다음과 같이 상징기호적으로 지시된다.

따라서 인도의 왕이 그의 백성들과 맺은 계약·응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공식화될 수 있다.

$$\frac{\text{왕}}{\text{백성}} \simeq \frac{qgV(\text{자질} + \text{증여} + \text{가치안정책})}{gq(\text{증여} + \text{자질})}$$

q=qualification(자질), g=gift(증여),

V=valorization(가치안정책) 또는 overvalorization(초가치안정책)

계약·응축의 첫 번째 단계는 왕을 단지 신성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에 게 활력(invigorate)을 부여한다. 두 번째 단계는 백성의 권리와 의무를 신성시키는 단순한 상징기호적 교환 그 이상이 아니다. 우리는 첫 번째의 예에서 가치를 안정시키고 있는 자질(qg)로부터 단순자질(gq)을 변별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의 결합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q → g) vs (g → q)

그리고 두 번째 예에서, 풍요 그 자체인 암소(왕이 그의 자질에 따름으로써 점령하고 있는)와 함께 실행되어야만 하는 설화의 시퀀스로서의, 이것은 새로운 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과장의 방식으로 존재한다. 만약 우리가 초가치안정책의 소정의 사실을 이러한 결합체적 목표로부터 제외한다면, 왕의 자질과 그의 백성의 자질 간 관계는 변별적 특징 V의 현존재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 전자의 두 텀(term) 사이의 관계가 되는 것 같이 보일지도 모르며, 반면에 후자에서의 V는 부재가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검증된 시니피에의 범주는 다음처럼 공식화될 수 있다.

V(유표) vs 비-V(무표)

뒤메질이 세르비우스 왕의 삶으로부터 의사역사적인 사실과 시퀀스의 조력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재구성은, 또한 다음과 같은 서사시적이며 상징기호적인 신비성을 공식화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frac{\text{왕}}{\text{백성}} \approx \frac{gg}{ggV}$$

로마에서 가치가 안정되는 방식으로 자질을 부여받은 것은 왕이 아니라, 백성이다. 왕으로 선출된 세르비우스는 그에게 아낌없이 주어진 증여에 고마워하며, 그도 시민들에게 계급과 재산에 따라 자질을 부여한다. 물론 이것은 세수입을 창출할 것이다. 여기서 제국의 암소는 풍요 그 자체인 암소로 반제(反濟, replace)되며, 그 획득과 희생의 설화는 백성에게 자질이 부여된(왕에게 자질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뒤에 통시적으로 정위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왕은 로마 백성들로부터 받는 칭송을 확실하게 한다.⁶⁸⁾ 우리는 여기서 가치를 안정시키고 있는 동일 범주가 2개의 상징기호적 교환 사이에 관계를 설치하고, 그래서 이중으로 도장을 찍은 사회계약·응축이 성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인도와 로마의 설화 간의 비교에 방정식과 같은 형식을 제공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그러한 공식에 대해 물어올지도 모른다.

$$\text{인도 vs 로마} \approx \frac{V}{\text{비-V}} \text{ vs } \frac{\text{비-V}}{V}$$

인도에서 왕에게 자질을 부여하고 가치를 안정시키는 그 자질부여의 칭송 방식에 따르고 있는 뒤메질의 분석에 새로운 조명을 비추며, 반면에 로마에서 이것은 백성에게 발생하며 인구조사의 실시에 고마워하는 왕에게서 발생하지 않는다.

분석의 기본양상이 변한 것은 분명히 아무 것도 없다. 사실 풍부해지기는 커녕, 이러한 분석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환원에 의해 허약해진 것 같이 보일 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방법론적으로 세련되어 달성된 것이라고 언급될 수 없다. 두 설화가 정확하게 동일한 상징기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발견에 감사하며, 비교를 위한 그 조건은 그들이 함축되기 이전에 지금

68) 우리가 시니피앙을 떠맡지 못함으로써 과거의 사회집단이 신화를 위해 불연속적이며 유약하고 개략적인 시간을 부여할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 있지만, 그 원소들은 분명히 고정적이고 낡았으며, 그러나 그들은 총체적 의미작용을 작동한다. 예를 들어, 소정의 정치적 "이테올로지"는 어떤 역사적 화백과 비역사적인 화백과의 일치를 가능하게 한다.

곧 우리 앞에서 오로지 명석판명하다는 것뿐이다. 여기서 대당으로 오랫동안 가르쳐왔던 그 비교는 유사와 편차로서의 단순목록이기는커녕 동일현상 속의 병치로 대신하며, 환원된 그 공통단자의 확립만이 편차를 측정하고 비교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다.

선악으로서의 신화

우리의 두 번째 예도 잘 알려진 것이다. 그 유명한 스칸디나비아의 괴테르다메룽(Götterdämmerung)의 신화가 인도의 마하바라타(Mahabharata)⁶⁹⁾의 신화와

69) Mahabharata: 마하는 “위대함”, 바라타는 “땅”이란 뜻으로 크리쉬나의 탄생지인 고대 인도 중부 지방에서 기술된 성전(聖典)에 “위대한 땅에서 만들어진 성전(聖典)”이란 뜻으로 붙인 이름이다. 「라마야나」와 함께 힌두 예술이 자랑하는 2대 서사시인 「마하바라타」는 위대한 성인 바야사(Vyasa)에 의해 기록된 엄청난 분량의 신의 업적을 그린 찬양시로서 총 18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많은 내용이 유실된 채 일부만 전해온다. 「마하바라타」는 구전(口傳)되어 오던 술한 전설과 신들의 업적, 종교적 설교를 재밌는 이야기와 장편 전쟁야화 식으로 꾸며 서민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게 꾸민 서사시이기에 더욱 가치를 인정받는다. 그 중 힌두교인의 삶의 근간인 다르마 구현과 관련된 제3편 제6장에 서술된 「바가바드 기타(Bhagavad Gita)」가 「마하바라타」의 근간이며 가장 인기 있는 내용이다. 「마하바라타」의 무대는 바라타(Barata) 왕국. 현재 인도의 수도 뉴델리 부근, 야무나 강가에 위치한 도시 마투라(Matura)가 옛 바라타로서 덕분에 「마하바라타」를 사랑하는 힌두교인들이 연중 성지순례 차 찾아온다.

쿠르세트라 전쟁 스토리: 「바가바드 기타」 요약-바라타 왕국의 비치트라비야 왕이 사망한 후 장남 드르타라스트라는 장남이어서 국법에 의해 왕위 계승에서 제외되고 이복동생인 판두바가 즉위한다. 그러나 판두바는 실수로 신의 화신인 사슴을 죽이는 바람에 아들을 갖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되고 그 저주를 풀기 위한 수행을 할 동안 드르타라스트라에게 왕위를 맡겨두고 히말라야에 들어가 은거한다. 오랜 수행 끝에 판두바는 드디어 저주도 풀고 아르주나를 비롯한 다섯 아들도 낳았다. 판두바의 사후 그의 아들들이 왕국으로 돌아가 왕권을 내주길 요구하자 드르타라스트라의 아들이자 사촌이 되는 듀료다나는 갖은 흉계로 오형제를 죽이려 한다. 오형제가 고된 피신 생활을 하는 동안 아르주나는 드라우파디를 아내로 맞이하고 비쉬누 신의 화신인 야다바 부족의 족장 크리쉬나와 인연을 맺는다. 도리에 어긋남을 느낀 드르타라스트라 왕은 오형제를 불러 땅을 나눠 새 왕국을 건설케 해주려하나 못마땅한 듀료다나는 장남 유디스트라를 피어 패자가 모든 땅을 내놓고 13년간 신분을 감추고 추방되는 게임을 한다. 듀료다나의 흉계에 말린 유디스트라는 게임에 지고 왕국에서 추방되지만 약속한 기한을 귀국하여 다시 왕위 이양을 요구하나 듀료다나는 거부한다. 이리하여 판두바의 아들들과 드르타라스트라의 아들들 간의 처절한 왕위쟁탈전이 발생한다. 18일 동안, 인도 북부 “쿠루” 평원에서 펼쳐진 대전투 끝에 나뉘는 시제들과 사촌 형제들의 처참한 주검을 바라보면서 아르주나는 깊은 회의의 늪에 빠진다. 피를 나는 사촌들을 죽여서까지 왕좌를 차지해야 하나, 이런 갈등 때문에 전의(戰意)를 상실하고 다르마의 방향마저 잃은 아르주나에게 다가온 사람은 야다바 족의 부족장이자 이번 전투에서 아르주나의 전차를 몰던 마부 크리쉬나였다. 크리쉬나는 아르주나에게 이 전투를 계속해야 하는 정당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한다. 술한 사례와 다르마에 대한 교훈을 곁들인 크리쉬나의 긴 설교는 아르주나로 하여금 사촌들을 살해하는 것에 대한 다르마의 정당성을 깨닫게 한다. 크리쉬나는 자신이 비쉬누 신임을 밝히며 어차피 신의 섭리에 의해 사촌과 그 일행들은 아르주나가 죽이지 않아도 그 생명은 신의 뜻에 의해 환수될 것이며 그러한 죽음 자체는 삶의 한 고리

나란히 고찰되고, 이러한 병치론(parallelism)⁷⁰⁾의 가치에 의해 재해석된다. 역사의 획기적인 사건, 즉 두 종류의 설화로서의 선악은, 한편으로는 부당하게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하게 순간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신이 교차시키고 있는 그리하여 두 가지 다른 종류 간의 투쟁방식에 따르고 있는 인간 앞에 전개된다. 양 경우에, 신화는 다음의 방식으로 공식화될 수 있다.

$$\frac{\text{/부당한 투쟁/}}{\text{/정당한 투쟁/}} \approx \frac{\text{/보다 나쁜 세계/}}{\text{/보다 좋은 세계/}}$$

두 신화를 위해 검증된 이러한 공식은 그들이 설화를 미분화하고 있는 특징과 함께 의미작용의 이러한 본래 가지고 있던 지각차원의 범주(정언)를 잠정적으로 과기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 보다 상위의 인식론적 차원에서 파악되는 동정의 존재(identical being)로서의 이러한 인위적인 확실성과 함께 많은 원소(투쟁으로서의 삶의 동일한 개념, 인간세계의 동일한 심증-윤리적인 관점)⁷¹⁾를 공유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을 뿐이다.

방정식, 즉 관계의 각각의 연속적인 고찰을 통해서, 다음에 우리가 변별적 특징으로 분석하고 있는 시니피에의 단위들에 대한 기술은, 사실상, 그들이 비록 두 신화의 구조가 개인적으로 획득된 것인지 아닌지 검증하기가 때때로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두 신화가 서로 비교될 때 매우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그 분명한 구조적 편차를 폭로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당으로 고찰하여야만 할 것이다.

일 뿐 생명의 영원성에 대해 설명한다. 이 설교가 “고귀하신 분의 설교”라는 뜻의 「바가바드기타」이다. 그 설교를 듣기 전에 스토리의 끝부터 맺자면, 설교에 감동한 아르주나는 거리낌없이 사촌과 그 일행을 멸살하고 만행인 유디스트라를 왕좌에 올린다. 그리고 선정을 배운 오형제는 훗날 아르주나의 손자에게 왕위를 물려준 뒤 신들의 거처인 메루산으로 들어가 은거했다. (역주)

70) 각주 병치설화 또는 후소설화 참조. (역주)

71) Algirdas Julien Greimas, Ronald Schleifer · Danniele McDowell · Alan Velie 역역, 「Structural Semantics: An Attempt at a Method(1983)」, p. 139의 “노트: 어떤 사물에 빗대서 은연중 어떤 의미를 비추는 그 우의[寓意, affabulation; afabyɫ asjɔ]는 화술의 “증거가 없지만 틀림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 즉 심증-윤리[moral]”와 “은밀한 계략[plot]” 모두를 추리한다. 그러므로 그 대당은 “무의미[nonsense],” “횡설수설[radotage]”이며, 그것은 비통사론적 언어[허튼소리, 실없는 소리, 등]를 암시한다. 또한 야콥슨[Roman Jakobson]의 환유와 은유, 결합체적 그리고 계열체적 축은 이러한 식별을 만든다. —영역자”를 참조하라. (역주)

/보다 나쁜 세계/ vs /보다 좋은 세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단다.

1. 세계에 관한 심층-윤리적인 판단은 둘이 아니라 적어도 3개의 텀으로 말려들게 하고 있는 시간의 어떤 범주와 연결된다.

/과거/ vs /현재/ vs /미래/

2. 우리가 /선/ vs /악/의 2분법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그것은, 그러나 사실상 /보다 좋은/ vs /보다 나쁜/의 관계적 범주와 함께, 또한 3개의 텀을 담고 있는, 그러면서도 이것은 1개의 복합관계로 통합된다.

/보다 좋은/ <----> /보다 나쁜/
/조정적/ vs /복합적/ vs /부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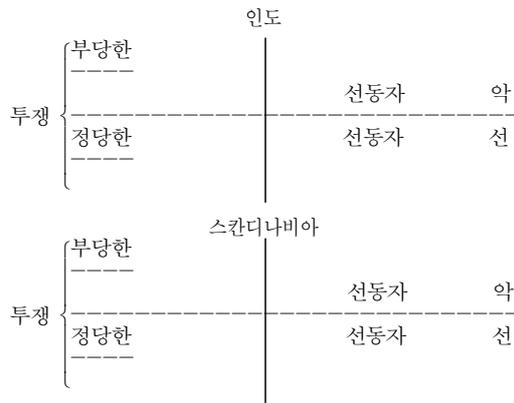
이제 우리가 만약 이러한 두 범주를 함께 불러들인다면, 우리는 최후의 분석에서 복합 텀이 지금 인간존재 앞에 나타나고 있는 그리고 “보다 좋은”으로든지 또는 “보다 나쁜”으로든지, 그리고 “과거”로든지 또는 “미래”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판단되고 있는 시간 그 이상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2개의 범주를 포함시킬 것인, 인도와 스칸디나비아의 신화 사이의 대당에 관한 해석이 포함된, 보다 큰 도식(schema)은 다음과 같이 설치될 수 있다.

세계	<u>부정적 / 과거</u>	인도의 개념
	<u>복합적 / 현재</u>	
	<u>조정적 / 미래</u>	스칸디나비아의 개념

우리는 범주(3개의 텀을 포함하고 있는 각각의 것)의 어느 쪽도, 즉 단독으로 획득된 인도의 신화 또는 스칸디나비아의 신화 어느 쪽도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분석에 속하고 있는 의미작용의 폭넓은 단위와 오로지 불완전한 실현만으로 표출되고 있는 두 신화의 단위는 이제 공

리로 간주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만이 구조적 프레임을 기술하는데 제공될 수 있을 뿐이다.

/정당한/ vs /부당한/의 범주를 연출하고 있는 관계의 첫 부분 /부당한 투쟁/ vs /정당한 투쟁/은 첫눈에 방정식에서 안정적인 원소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분석은 비교되지 않는 한 주목되지 못할지도 모르는 시니피에 안에서 보충적 특징을 폭로한다. 만약 /정당한/ vs /부당한/으로 조직된 시니피에 /투쟁/이 양측의 신화 안에서 발견된다면, 투쟁의 선동적인 대행자를 결정하고 있는 범주 /선/ vs /악/은 같은 방식으로 주연(周延)되지 못할 것이다.



인도의 경우에, 투쟁에 자질을 부여하는 상호관계적인 범주의 좌우대칭은 두 가치판단, 다시 말해서 투쟁의 발단과 관계하고 있는 것과 그것의 전개 사이의 변별을 부분적으로 위장한다. 즉 투쟁은 원인과 동기로, 선과 악, 그리고 그 전개로, 다시 말해서 정당함 또는 부당함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⁷²⁾ 다른 한편, 스칸디나비아 버전의 경우에 좌우대칭은 깨지고, 정당함 또는 부당함으로 존재하는 투쟁은 항상 대행자 악에 의해 유발된다. 인도의 신화 안에서 실현되는 선과 악의 범주는 스칸디나비아의 버전 안에

72) 본질적인 것으로만 제한하여 언급하면, 우리는 새로운 대당, 예를 들어, /야기하고 있는/ vs /야기된/, 다시 말해서 투쟁의 선동자와 상응하고 있는 전자와 투쟁 그 자체인 후자와의 대당을 밝힐는지 모르는 관점에서의 이러한 분석을 실천하지 못할 것이다.

서 중립화되고, 이것은 무표의 텀 /악/의 이점으로 존재한다. 엘름슬레우는 나중에 보게 될 것이지만, /투쟁/의 지배하에 존재하는 이 텀이 시니피에 /전쟁/ vs /평화/의 스칸디나비아적인 범주 안에서의 부정적 텀으로 존재하며, 그것은 범주 /선/ vs /악/과 함께 상호관계 안에 단려있다고 언급할지도 모른다.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쟁과 투쟁은 항상 악에 의해 유발되며, 빛의 신 발드르(Balder)⁷³⁾의 설화에 의해 과장(중복)해서 기록된다.

월권(과잉, excess)의 신화

첫 번째의 것보다 더 복잡한 무엇이 존재하는 세 번째의 예는 스칸디나비아의 크바지르(Kvasir)⁷⁴⁾ 신화와 일시적으로(briefly) 나타나는, 즉 크바지르의 인도의 대응물인 마다(Mada)⁷⁵⁾의 마하바라타(Mahabarata)의 에피소드 사이의 병치론을 연루시킨다.

양측은 전쟁 상황에서 나타난다. 지혜의 화신인 크바지르는 평화협정을 조인하기 위하여 신에 의해 만들어졌다. 초인적 도취의 상징인 마다는 평화

73) Baldr(Balder);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빛나는 신. 공명정대하고 현명하며 평화를 가져다준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신이다. 오딘과 프리그의 아들이다. 회드르에게 겨우살이(mistletoe)라는 관목(灌木)으로 죽음을 당한다. 오딘의 명을 받은 헤르문트가 다시 그를 살리러 헬의 나라로 가지만, 로키의 비협조로 구해내지 못하고, 라그나뢰크 이후에 다시 살아 나온다. 그의 아내는 난나이다. 후대의 몇몇 학자들은, 발드르의 수동적이고 고난을 받는 성격은 그리스도(Christ)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하지만, 13C의 덴마크 사학자 색소 그람마티쿠스(Saxo Grammaticus)는 여인의 손에 넘겨진 싸움에 관계된 전사(warrior)로서 매우 다르게 묘사하였다. (역주)

74) Kwasir(Kvasir); 애지르와 바니르의 휴전 서약의 증거로 신들이 침을 뱉어놓은 그릇에서 태어난 사나이. 매우 현명하였으나 푸아라르와 가라르라는 난장이들이 죽여 버림. 그들은 크바지르의 피를 손과 보몬이라는 2개의 통에 받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오드레리르라는 술에 넣었다. 그들은 그 피에 꿀을 섞어 꿀물을 만들었는데, 그 술을 마시는 사람은 시(詩)를 짓는 재능을 갖게 된다. (역주)

75) 김재성, “붓다의 생애와 불교교단의 성립”(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 p. 3. “왕자(śītāḍḍa)가 16세가 되던 해, 부왕은 건기와 우기 등의 계절에 맞는 궁전을 세 곳에 마련해주었고, (AN I 145~146; Ja I58) 우리에게 야소다라로 알려진 라홀라의 어머니(DPPN II 741~744)가 될 여인을 왕자비로 맞이하였다. 왕자는 유복한 젊은 시절을 보내는 가운데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찰하고는 젊음의 도취(yobbana-mada), 건강의 도취(ārogya-mada), 살아있음 도취(jivita-mada)를 완전히 버렸다고 회고하고 있다.(AN I 145~146) 왕자로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와 영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으면서도 출가하게 된 것은 이러한 삶의 괴로움에 대한 근본적인 자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참조. 또는 노트 “왕의 별칭 이사리아마다(issariyamada); 권력중독에 걸린 사람” 참조. (역주)

를 실천하고 있는 신들 앞에 순진하게 출현함으로써 신들을 강요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각각은 평화의 상황에서는 “일상의 삶보다 호방하기” 때문이며, 양측은 파괴된 사건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크바지르는 시가 되고, 마다는 남자의 네 가지 정념, 즉 술, 여자, 사냥, 그리고 도박이 된다.

스칸디나비아의 신화는 다음처럼 공식화된다.

$$\frac{\text{/월권/}}{\text{/중용/}} \approx \frac{\text{/보다 좋은 세계/}}{\text{/보다 나쁜 세계/}}$$

인도 신화의 에피소드도 위와 아주 비슷하다.

$$\frac{\text{/월권/}}{\text{/중용/}} \approx \frac{\text{/보다 나쁜 세계/}}{\text{/보다 좋은 세계/}}$$

사회계약·응축 “신화”의 경우, 스칸디나비아의 버전에서 인도의 버전으로 전승(轉乘)함으로써, 우리는 방정식의 두 번째 절반을 만들고 있는 관계의 전도를 관찰할 수 있다. 양쪽에서 어른거리고 있는 소정의 시니피에의 단위는 원래 동일한 것이므로, 그 전도는 신화구조의 양태성의 하나로 관찰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의 분석을 이행함으로써, 우리는 그 관계를 관찰할 수 있다.

$$\text{/월권(excess)/ vs /중용(moderation)/}$$

이것은 처음에 다음과 같은 관계로 해석된다.

$$\text{/전체(whole)/ vs /부분(part)/}$$

사실, 우리는 크바지르의 모든 시와 마찬가지로 마다의 정념이 상징적으로 부분들로 분할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마다가 “실제로” 정념, 즉 4개의 부분들로 분할된다 할지라도, 크바지르는 그의 최초 상태의 파편으로서가 아닌, 그러나 그것의 환원으로서, 시의 형식으로

다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는 총체성(totality)의 2개의 다른 개념, 즉 총체성의 2개의 다른 오렌지의 낭중분절(囊中分節)과 같은 또는 음악의 프레이징이나 아티큘레이션(articulation)⁷⁶⁾과 같은 개념을 취급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독창적인, 조화로운 총체성은 그 부분들의 산술적인 합계로서의 총체성의 개념 안에서 그것의 대응물을 발견한다. 이러한 대당은 다음과 같이 공식화될 수 있다.

스칸디나비아

인도

/통합적인(integral)/ VS /부분적인(partitive)/ /종합적인(universal)/ VS /기본적인(cardinal)/

또 다른 변별적 특징은 총체성의 2개의 개념과 이러한 기본적인 대당에

76)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 17. articulation(아티큘레이션); 1. 음성학에서, 아티큘레이션의 첫 번째 의미는 “발음기관”의 생리적 함수다. 두 번째로, 그것은 표현층면을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언어발성”의 조합적 배열을 생산하는 이러한 발성기관의 능력이다. 진술된 음성자료의 특별한 영역에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조음음성학(발산의 레벨), 음향음성학(전달의 레벨), 청취음성학(수취의 레벨)으로 구별하여 언급할 수 있다. 2. 아티큘레이션이 화자의 측면에서 보편적으로 모든 기호학적 활동을 지시함으로써, 또는 이러한 활동의 결과를 고찰함으로써, 모든 형식의 기호학적 조직은 분리하고 결합할 수 있는 단위를 창조한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조합은 충분히 보편적이고 중립적인, 즉 다양한 언어학적 이론과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이탈된 것으로 보인다. 3.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는 용어 아티큘레이션에 보다 더 한정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의해 체계의 분석을 지시함으로써, 대당이 된 구분처럼 분석과정을 지시한다. 4. 이중 아티큘레이션에 의해, 마르티네(A. Martinet)는 다른 “커뮤니케이션의 의미”와 비교된 자연언어의 특이성을 정의하려고 한다. 첫 번째 아티큘레이션은 기호(sign)의 형태소의 레벨에, 두 번째는 음소의 레벨에 정위되며, 그것은 형태소를 위한 포르만트를 구성한다. 결합배열의 원리에 적용함으로써, 그러한 해석은 부적당하지 않지만, 지금 당장은 부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실, 그것은 통사론적이며 의미론적인 연구에서 이루어진 최근의 발전에 선행하는 언어학적 상대와 상응한다. 브리태니커, 1999, articulation(조음; 調音); 음성학에서 발성기관(후두 · 인두 · 구강 · 비강)이 이루는 형태. 이 형태는 경직된 발성기관(예를 들면 경구개)과 상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발성기관(예를 들면 혀)의 위치에 따라 형성된다. 이러한 발성기관의 형태는 폐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변화시켜 독특한 말소리를 낸다. 주요한 조음기관은 혀 · 윗입술 · 아랫입술 · 윗니 · 윗잇몸 · 경구개 · 연구개 · 목젇 · 인두 · 성문(성대 사이의 공간) 등이다. 조음은 크게 제1·2차 조음의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제1차 조음은 ① 하나의 자음을 내기 위해 폐착(閉塞)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방식, ② 하나의 모음을 내기 위한 혀의 형태와 입술 모양 및 후두의 높이와 관련이 있다. 제1차 조음은 그 발음 형성에 관여하지 않는 다른 조음기관들의 움직임도 어느 정도 허용한다. 예를 들어 “혀끝 잇몸” 조음에 관여하는 조음기관은 혀끝이지만, 위·아래 입술과 혀뿌리도 발성기관 안에서 다른 조음기관에 어느 정도 쉽게 폐착할 수 있다. 이것을 제2차 조음이라고 한다. 주요한 제2차 조음으로는 러시아어를 비롯한 많은 언어에서 볼 수 있는 구개음화(혀의 앞부분이 경구개에 접근하는 것) · 연구개음화(혀뿌리가 연구개에 접근하는 것) · 순음화(조음할 때 입술이 등글게 되는 것) · 성문화(성대를 완전히 또는 일부만 폐쇄하는 것) · 비음화(공기를 비강과 구강으로 동시에 내보내는 것) 등이 있다. (역주)

적용되고, 그들은 월권의 2개의 정반대의 대당개념을 우리에게 부여한다. 우리는 뒤메질에 의해 확립된 변별적 특징의 리스트에 아무것도 첨가할 수 없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도식적으로 재생산할 뿐이다.

스칸디나비아		인도
<u>/통합적인(integral)/</u>	VS	<u>/종합적인(universal)/</u>
<u>/이로운(beneficent)/</u>	VS	<u>/해로운(maleficent)/</u>
<u>/정신(spirit)/</u>	VS	<u>/물질(matter)/</u>
<u>/평화(peace)/</u>	VS	<u>/전쟁(war)/</u>

크바지르와 마다의 변별인 마지막 3개의 특징은 우리가 나중에 궁형어휘소(archilexeme)⁷⁷⁾로 정의할 것 안의 이원적 범주의 아티클레이션이 된다.⁷⁸⁾ 우리는 그 이원적 범주가 관계의 첫 번째 부분에서 실행됨으로써 위와 같은 방식으로 만날 때 그 분석이 주목할 만한 증거로서 완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칸디나비아(시)		인도(분할된 정념)
<u>/부분적인/</u>	VS	<u>/기본적인 것의 집합/</u>
<u>/이로운/</u>	VS	<u>/해로운/</u>
<u>/정신/</u>	VS	<u>/물질/(술+여자)</u>
시		
<u>/평화/</u>	VS	<u>/전쟁/(사냥+도박)</u>

방정식의 두 번째 절반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 범주가 그것을

77) Ibid., p. 17. archilexeme(궁형어휘소); 궁형어휘소는 분류법적 마이크로 체계의 포섭에 의해, 지시하도록 사용된 고찰 중의 주어진 자연언어의 어휘소이다. 잘 알려진 B. Pottier의 예를 들면, “자리(seat)”는 어휘소 “의자,” “소파,” “안락의자” 등을 포섭하는 궁형어휘소이다. 이 용어는 유용한 반면에, 전적으로 안전하지는 않다. 한편 분류법이 계층적이기 때문에, 궁형어휘소는 보다 높은 상위 분류(예를 들어, “자리”에 “가구”)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른 한편, “궁형어휘소”는 자연언어의 일부가 아니며, 오로지 그것을 고찰하는데 사용된 메타언어(예를 들어, “가구”에 “제조된 대상”)일 뿐이다. 하나의 병치적 팀은 이러한 “구성된 궁형어휘소”를 지시하도록 제안되어야만 한다. (역주)

78) 이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 장의 결론부분을 보라.

제한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기서 비록 범주 /보다 좋은/ vs /보다 나쁜/이 이전의 신화와 같은 방식으로 확립된다고 할지라도, 그때의 범주는 오로지 과거와 현재 2개의 좌우대칭으로 자세가 잡힌 텀으로만 나타나게 된 그것과 상호관계적이다.

더 나아가, 과거와 현재의 범주와, /보다 좋은/ vs /보다 나쁜/의 범주, 2개의 범주는 2개의 신화 안에서 같은 방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즉 과거는 인도인들에 의해 보다 나쁜 것으로 관찰되고, 스칸디나비아인들에 의해 보다 좋은 것으로 관찰되며, 역으로, 이러한 과거와의 관계 안에서, 현재는 인도인들을 위해 좋은 것으로 존재하고 스칸디나비아인들을 위해서는 보다 나쁜 것으로 존재한다. 이제 시니피에의 단위의 공식화의 단계에서 관계의 전도로 나타난 것은, 비록 이전 설화의 그것과 다른 어떤 무엇일지라도, 양 신화 안의 변별적 특징의 주연으로 고찰될 수 있는 궁형어휘소 안에서 하나의 도식으로 통합된다.

세계	부정적 / 과거		인도의 개념
	복합적 / 현재		
	조정적 / 미래		스칸디나비아의 개념

의미작용의 동일 범주가 필연적으로 수반됨으로써 상호관계의 시리즈로 나타난 선악과 월권의 양 신화가 서로 비교되기 때문에 그들은 유익한 것이 될는지 모르며, 그러나 만약 그것이 그저 신화의 유형학을 위한, 그리고 이러한 “관념론”의 유형학을 위한 원리적 원소로만 동정된다면, 결국 그것은 단순히 인도-유럽 신화학의 모든 연구의 대상이 될 뿐일 것이다.

첫눈에, 우리에게 일격을 가하는 것은, 인도의 두 신화가 세계를 판단하는 그 안에 동일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양 신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간의 대당을 발견할 수 있다.

과거의 부정적 세계/ vs 현재의 복합적 세계/

인도 신화에서의 악(만약 우리의 추정[의삽]이 대담무쌍하지 않다고 한다면)은 과거

안에 정위된다. 현재는 인간사회의 공동운명을 어의적으로 향상하여 재현하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인도 역사철학에서의 현재의 악은 최소한의 것으로 존재한다.

다른 한편, 세 가지 차원의 시간을 사용하는 스칸디나비아의 신화는, 복합적 현재의 관계 안에서 과거로든지 또는 미래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 지 간에 선의 지배로 정위된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텀 안에서 양 신화를 비교해본다면, 아래와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월권의 신화:	/조정적 과거의 세계/ -----
	/복합적 현재의 세계/ -----
선악의 신화:	/복합적 현재의 세계/ -----
	/조정적 미래의 세계/ -----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양극단(주사와 반사)의 생성을 허락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첫 번째의 신화가 전략세계의 한 극이라고 언급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반하여 두 번째의 신화는 구원세계의 한 극이라고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스칸디나비아의 신화학은 기독교철학과 함께 인상적인 병치론(parallelism)으로 나타난다.

노트: 프레이징(phrasing)과 아티큘레이션(articulation); 그레마스는 언어학의 용어를 음악의 용어에 초점을 맞춰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다음 신현수(辛賢秀)의 언급을 참고하기 바란다. “1. 프레이징(phrasing)-흔히 동기(motive)는 2마디, 작은악절(Phrase)은 동기의 두 배인 4마디, 큰악절(period, sentence)은 작은악절 두 개가 합쳐진 8마디의 길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규칙에 부합되지 않는 예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히 고전파와 낭만파 음악은 대개 그와 같은 규칙성을 보여 줍니다. 큰악절을 구성하는 두 개의 작은악절(프레이즈) 중, 앞의 것은 테제(Thesis) 또는 앞작은악절(Antecedent Phrase)이라고 하며 뒤의 것은 안티테제(Antithesis) 또는 뒤작은악절(Consequent Phrase)이라고 합니다. 앞작은악절과 뒤작은악절은 흔히 “질 의↔응답” 또는 “진술(statement)↔확인(confirmation)”의 대화형 관계를 가집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작은악절도 있습니다. 프레이징이란 바로 이들 프레이즈(앞작은악절과 뒤작은악절, 또는 그 밖의 작은악절) 단위를 구분하여 연주하는 그루핑의 기법입니다. 흔히 프레이징을 「숨을 쉬는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관악기 연주자나 성악가는 실제 프레이즈의 끝 음을 음가(音價)보다 짧게 끊고 음

가의 나머지 부분을 호흡에 사용하는데, 이로부터 유래된 말이라 하겠습니다. 생리적 호흡에 구애 받지 않는 기타나 피아노와 같은 악기의 연주자에게 있어서도 성악가의 호흡을 모방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프레이징 기법 중 하나입니다(프레이징 기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제194페이지의 프레이징 기법에 대한 글과 관련 악보 예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악에 몰입하여 연주하다 보면 (호흡에 구애 받지 않는 악기인) 기타나 피아노 등의 연주자에게 있어서도 생리적 호흡과 프레이징이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약하여 정의한다면, 프레이징이란 문장에 있어서의 쉼표(.)나 마침표(.)처럼 음악 어법에 있어서의 프레이즈(작은악절)라는 구문(構文, construction of sentences)적 단위를 표시하는 표현 방법에 해당합니다. 음악에도 말이나 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문적 구조가 존재합니다. 말이나 글에 있어서의 단어, 구, 절, 문장, 문단 등의 구문적 요소들처럼 음악에도 동기(또는 부분 동기)와 그 발전, 작은악절, 큰악절, 그리고 문단(文段, paragraph)에 대응하는 악단(樂段, part) 등이 있습니다. 이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구문적 구조가 엄연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말과 글의 운율에 상응하는 리듬도 있어서 “음악 어법”이라는 표현이 과히 어색하지 않습니다.

2. 아티큘레이션(articulation)이란 용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프레이즈를 보다 작은 단위의 그룹(아티큘레이션·그룹 see. p. 26)으로 나누는 것(그루핑)을 뜻하는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이 경우, 명백한 잘못이긴 하지만, 프레이징과 아티큘레이션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프레이징이건 아티큘레이션이건 모두 프레이징이라는 말로 얼버무리 버리는 경향이(용어 사용의 혼란이) 마치 관습이더라도 하듯 아직도 잔존(殘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프레이징」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프레이징을 의미할 수도 또는 아티큘레이션을 의미할 수도 있으므로 듣는 사람이 스스로 주의해서 구별하여 들어야 합니다. 사실, 전문 음악가 중에서도 이들 용어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이들이 없지 않습니다(관련 내용 see. p. 78, 참고: 프레이징이란 용어 사용의 혼란). 그리고 아티큘레이션이란 용어의 나머지 한 가지 의미는 「음을 끊는 것」입니다. 즉, 스타카토(staccato)나 스타카티시모(staccatissimo) 논·레가토(non legato) 등, 음을 끊어 연주하는 것을 두루두루 통칭(通稱)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티큘레이션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 말의 사전적 의미가 그러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련의 음들을 이음줄로 묶는 것은 선율선을 “분절(分節, 마디로 나눔)”하는 것이며, 음을 하나하나 스타카토나 논·레가토로 끊어서 연주하는 것은 “유절(有節, 음을 끊어 소리 내는) 발음”이나 “뚜렷한 발음”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전자에 있어서의 이음줄 끝에 걸린 음을 끊는 행위는 음을 끊는 것 자체보다는 그루핑이 그 진정한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즉, 그룹을 형성하기 위해 그룹의 마지막 음을 어떤 형태로든 다음에 오는 음(또는 그룹)과 단절시키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는 곧 [言(말)]에 있어서의 ‘분절(分節)’과 일치합니다. 이로써 음악에서의 ‘아티큘레이션’이란 용어 역시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대체로 그대로 물려받아 “그루핑(분절)”과 “음을 끊어 소리 내는 것(유절 발음)”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음악에서의 이러한 발음(發音) 현상은 언어에서의 그것(발음 현상)과 유사한 데가 있는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음악은 언어, 즉 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시(詩)와는 서로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음악사를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더라도 <말(가사, 시) → 성악곡 → 기악곡>으로 연결되는 연관성은 누구든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웅이나 전설에 대해 이야기하는 서사시나 연애 감정을 담은 서정시 그리고 신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찬양의 시 등을 노래한 것이 성악곡의 기원이며, 악기란 오랜 세기(世紀)를 노래 반주용 도구로 그 명맥을 유지해 왔던 터이며, 그런 연후에야 점차 그 기능과

연주법이 발달하면서 비로소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게 되어 본격적인 기악곡이 등장하게 되었으니, 기악곡조차도 말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겠습니다. 언어와 성악곡 그리고 기악곡. 이들의 관계란... 언어(가사)와 음악적 영감을 결합하여 만드는 것이 성악곡이라면, 성악곡이라는 원료 또는 재료를 이리저리 가공하여 만든 레고 블록(LEGO block)으로 조립하여 만드는 것이 기악곡이 아닐는지. 인간이 태어나서 요람에서부터 먼저 배우는 것은 (기악이 아니라) 말과 노래입니다. 물론 바흐, 모짜르트, 베토벤도 그랬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국어의 발음 현상에 길들여진 소리에 대한 감각을 제2의 천성(天性)으로 하여 작곡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제2의 천성을 가진 연주자들이 그것을 연주하고 관객은 듣습니다. 사정이 그러하니, 언어가 다르면 음악도 다를 수밖에 없는 인과 관계가 성립합니다. 특히, 운율이나 구문법(構文法, sentence structure)적 구조 등을 반영하는 음악 어법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서양음악의 아티클레이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서양 언어의 아티클레이션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악에 있어서의 아티클레이션은 언어의 아티클레이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쩌면 언어의 아티클레이션으로부터 유래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티클레이션’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가 말(언어)의 발음 현상과 관련이 있음(see. p. 70)을 단지 우연으로 돌릴 일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서양의 대표적 언어 중 하나인 영어를 말할 때의 아티클레이션, 즉 분절(分節, 그루핑)이나 유절(有節, 음을 끊어 소리 내는) 발음 현상은 첫째, 악센트와 관련한 운율적인 것과 둘째, 단어 구절 등의 구문법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것, 셋째, 감정이나 그 밖의 표현적 욕구 등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The book is on the desk.」라는,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리 어렵지 않을 법한 이 영어 문장을 말할 때, 지난 세기의 아동극에나 등장하던 원시 깡통 로봇이 아닌 한 여섯 개의 단어를 각기 구분하여(아티클레이션으로 끊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원어민(native speaker)의 말하는 품세를 들어 보면..., 「The book」은 「The-Book(ðəBúk)」으로 그리고 「on the desk」 역시 「on-the-Desk(əndðəDésk 또는 좀 더 부드럽게 혀를 굴려 ənəDésk)」로, 마치 악센트가 「book」이나 「desk」라는 음절에 있는 하나의 단어인 것처럼 붙여서 말합니다. 그리고 「is」는 약화되어 거의 발음하지도 않을 정도가 되어 「The-Book-is,」 「on-the-Desk」의 두 합성(?) 단어, 즉 두 마디(articulation)만을 말하는 것처럼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단어 간의 연결 발음에 있어서는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 쪽에 강세가 주어집니다. see. p. 88, 참고: 영어 단어의 품사별 강세). 이는 강세가 없는 단어들을 강세가 있는 단어에 연결, 하나로 그루핑함으로써 운율을 조성(組成, makeup)하여 발음하는 운율적 아티클레이션의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문장을 「The book is」라는 “주어+동사” 부분과 「on the desk」라는 전치사구(prepositional phrase)로 양분하여 구분하는 구문적 아티클레이션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화의 감도가 좋지 않아서 듣는 사람이 「Where?」라고 자꾸 되묻는다면, 「ón · thé · désk」라고 음절 하나하나를 끊어서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표현적 아티클레이션의 일종이라고 하겠습니다.

3. 그루핑(grouping); 악보2는 코스트의 기타 연습곡 첫머리의 8마디로 된 큰악절 하나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 큰악절은 각기 4마디로 된 두 개의 작은악절(프레이즈, phrase)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악절은 아티클레이션에 의해 두 마디씩으로 다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미 이야기한 바 있듯, 프레이징이나 아티클레이션의 구분은 대개 이음줄로 표시

합니다(흔히 아티큘레이션의 이음줄만 표시하고 프레이징을 나타내는 이음줄은 생략하기도 합니다. 아티큘레이션의 이음줄에 의하여 프레이징의 위치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음줄이나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음렬을 나누어 개별 그룹들을 형성하는 것을 그루핑(grouping)이라 부르기로 합니다. 이를테면 악보2에는 이음줄에 의해 프레이즈·그룹과 아티큘레이션·그룹들이 그루핑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타 악보에는 프레이징이나 아티큘레이션을 나타내는 이음줄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 곡만은 특이하게도, 시중에서 구입한 악보(see. p. 128, 참고: 코스트 기타 연습곡의 출처)에 아티큘레이션(그루핑) 이음줄이 악보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단, 회색의 프레이징 이음줄은 저자가 추가한 것입니다). 이하, 이 책에서 이 곡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악보에 그려진 그루핑의 이음줄은 모두 저자에 의해 표시된 것입니다. 원전 악보나 출처가 된 악보에는 없는. 단, 기타(guitar) 악보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4. 아래 악보에서 볼 수 있는 나 와 같이 이음줄(slur) 아래에 스타카토 점이 표시된 기호를 메조·스타카토(mezzo staccato see. p. 71)라고 합니다. 음높이가 같은 음, 즉 동음(同音) 둘을 완전무결하게 레가토로 이어 연주하면 두 개의 음으로 들리지 않고 음가(音價)가 두 배인 하나의 음으로 들리게 됩니다. 이는 동음 간을 이음줄(slur)로 연결하면 이음줄이 아닌 붙임줄(tie)이 되는 기보법의 이치와 일치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동음 간을 (붙임줄이 아닌) 이음줄로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이와 같이 메조·스타카토를 적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여러 음들을 이음줄로 연결하면서 그 내부에 연속되는 동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행여 그것이 붙임줄인 양 보일 염려가 없는 한, 굳이 스타카토 점을 찍어 메조·스타카토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 또한 기보상의 관습입니다.

악보1은 「바이어(Beyer, 국내에서는 흔히 '바이엘'로 통합) 피아노 교본」의 제19번 곡입니다. 악보 중에는 이와 같이 슬러(slur) 또는 이음줄이라고 하는 호선(弧線, a curved line)이 많이 그려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이음줄들은 이음줄로 연결한 음들을 레가토(legato)로 잘 이어 연주하라는 표시입니다. 즉, 이음줄로 연결된 “일련의 음들(= 음렬 see.

p. 26, 참고: 음렬)”을 레가토로 이어서 연주하고 이음줄이 끝나는 곳의 음은 적절하게 끊습니다. 흔히 가볍게 끊습니다. 관악기 연주자가 텅잉(tonguing see. p. 26, 참고: 텅잉)을 하거나 숨을 쉴 때처럼, 또는 바이올린 연주자가 활의 방향을 바꾸거나 활을 선에서 떼어 낼 때처럼 그렇게 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음줄이 끝나는 곳의 음을 어떻게 끊느냐 하는 점보다는 레가토로 연결된 음렬(音列)이 한 번의 호흡으로 노래하는 것으로 들리도록, 또는 (바이올린 연주자가) 한 활로 그어 연주하는 것처럼 들리도록, 그들을 결속시키는 데 더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이음줄 끝의 음을 끊는 것은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음줄은 이음줄로 연결된 음들을 레가토로 연주함으로써 그들을 한 묶음 또는 한 그룹(group)으로 들리도록 하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see. p. 75, 참고: 악기에 따른 레가토의 차이)



악보1. 레가토 이음줄 — 바이어 피아노 교본, 연습곡 제19번

그리함으로써(일련의 음들을 그룹으로 묶음으로써) 이들 이음줄은 프레이징(phrasing)이나 아티큘레이션(articulation)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악기에 따라서는 악보에서 이와 같은 이음줄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타(guitar) 악보가 그렇습니다. 기타 악보에는 프레이징이나 아티큘레이션을 나타내는 이음줄이 전무(全無)하다시피 합니다. 한데, 그 이유를 기타 특유의 「슬러 주법」에 대한 기호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한 때문이라고들 하지만, 그것이 그 이유의 전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려고만 든다면, 「슬러 주법」을 의미하는 이음줄을 점선으로 한다든지 하여 혼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강구(講究)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기타는 앞서 연주한 음의 여운에 왼손 운지 동작에 의한 울림을 더해 다음 음을 소리 내는 특유의 「슬러 주법」이라는 연주법이 있습니다).

이음줄(slur)은 현악기나 관악기 등의 「슬러 주법」을 표시하는 기호이기도 하며, 보다 범용(汎用)적으로는 레가토로 연주할 것을 나타내는 기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루핑(프레이징, 아티큘레이션)을 주목적으로 하여 사용되기도 합니다(그루핑이란 일련의 음들을 묶어서 그룹화하는 것을 뜻하는데, 자세한 것은 아래 항에서 설명됩니다).

19세기 중반 이후 유럽에서는 기존 악보를 재해석하여 프레이징 및 아티큘레이션을 나타내는 이음줄이나 그 밖의 악상 기호 등을 상세하게 붙여 출판하는 풍조가 성행했었습니다. 그러한 악보를 원전판(原典版)에 대응하는 말로 해석판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당시 기타 음악은 급격한 쇠퇴기를 맞고 있던 터여서 다행히(?) 그러한 유행에 휩쓸리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라고 한 까닭은 해석판 악보가 유익하지만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곡가가 표시해 놓은 얼마 되지 않는 아티큘레이션의 기호쯤은 무시해 버리고 교정·편집자 자신의 견해에 따라 이음줄을 그려 놓은 것이 부지기수여서, 이후 에세 원전판 악보를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 전문 계층의 전유물이었던 음악에 대한 내밀한 식견과 미학적 감각을 악기 연주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까지도 널리 공유할 수 있게 하려 애썼다는 점에서 볼 때, 긍정적인 면 또한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대개의 기존 악보(원전판)에는 악상 기호라고는 표시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프레이징이나 아티큘레이션을 나타내는 기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문에, 음악에 대한 식견이 부족했던 일반 대중이 연주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의 혜택으로 부(富)를 축적하게 되자 생활에 여유가 생겨 취미를 갖게 된 다수의 신중 부유층이 악보 출판업자들의 관심을 끄는 새로운 고객으로 등장했으므로 해석판 악보의 등장은 사필귀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수준 높은 음악 교육을 의무교육인 양 받고 자라 음악적 교양이 풍부했던 귀족층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던 것입니다. 기존 원전판 악보에 일반적으로 (다른 악상 기호는 물론이거니와) 프레이징이나 아티큘레이션을 나타내는 이음줄이 희박했던 이유란 이처럼 기존 악보의 주 구매층이었던 당시의 귀족들이 전문가적인 음악적 식견을 상식(常識, common sense)으로 하고 있어서 스스로 해석하여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표시하는 데 인색했다기보다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프레이징이나 아티큘레이션을 위한 이음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원전판 악보나 또는 기타(guitar)와 같은 악기의 악보라 해서(해석판 악보 역시 그 해석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해서 사정이 더 나을 것은 없습니다만) 프레이징이나 아티큘레이션을 무시하고 연주할 수는 없습니다. 프레이징과 아티큘레이션은 문장에 있어서의 구두점이나 끊어 읽기, 또는 절 구 단어 음절 등을 구분하거나 운율을 표현하는 등의 어법에 상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중국어나 일본어라 해서 「아버지가방에들어가신다」라는 문장을 (지난 20세기의 텔레비전 아동극에 단골로 등장하곤 했던) 진화가 덜된 강푹 로봇의 말투로 「빠리! 빠리! ~~~ 아·버·지·가·방·에·들·어·가·신·다」라고 아예 단어 구별조차 하지 않고 읽거나, 또는 「아버지 V가방에 들어가신다~ ^^!」는 식으로 틀리게 끊어서 읽지는 않습니다.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해도 문맥(context)에 의해 단어나 구문적 구조 그리고 운율 등에 대한 식별이 능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프레이징이나 아티큘레이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프레이징이나 아티큘레이션을 의미하는 이음줄들이 그려져 있지 않다 해도 곡의 문맥에 의해 연주자 스스로 그것을 해석해 낼 수 있으며 또한 당연히 그리 해야 합니다.

연주자 스스로 프레이징과 아티큘레이션을 해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해서 그것을 (해석판 악보를 사용하는 상황에 비해) 딱히 불리한 여건으로 여길 까닭은 없습니다. 연주자라면 어차피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필히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프레이징이나 아티큘레이션에 대한 해석이 되어 있는(이음줄이 그려져 있는) 악보라 해도 그것이 작곡가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와 같은 해석은 단지 참고 사항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아티큘레이션은 연주자에 따라 다양하게 달리할 여지가 다분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아티큘레이션에 비해 프레이징에 대한 해석은 견해를 달리할 여지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음줄의 모양만으로는 그것이 프레이징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티큘레이션을 나타내는 것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끊어 읽거나 억양(intonation)까지 일일이 표시되어 있는 연극 대본은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는 대본을, 강푹 로봇이 책 읽듯 읽는 것이 아니라, 실감나게 말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대사일지라도 배우마다 대사를 말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끊어 읽기, 억양, 말투, 말씨가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툰 배우의 잘못된 대사가 아닌 다음에야 관객이 그것을 못 알아듣거나 곡해하는 일은 없습니다. 음악에 있어서의 아티클레이션 역시 그와 같은 성격의 것이라 하겠습니다.” 신현수(辛賢秀), 「프레이징과 아티클레이션」, —신현수, <http://www.musicnlife.com/books/b04mint/p002author.htm>.

5. 텅잉(Tonguing); 텅잉이란, 연주 시 음의 구분을 주는 방법이다. 노래를 할 때 가사를 말하는 것처럼, 연주를 할 때도 한 음 한 음 발음을 하여, 음의 구분을 주는 것이다. 노래를 할 때 가사가 없으면 그건 허밍이 되며, 연주를 할 때 텅잉을 하지 않으면 그건 슬러이다(물론 슬러도 텅잉의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여기서는 텅잉의 기본을 말하는 것이다). 텅잉은 어렵지 않다. 그냥 ‘투’라는 발음을 해주면 된다. 혀의 끝이 윗니 뒤에 위치해 있다가 투- 발음을 하면, 혀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숨이 나간다. 텅잉 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텅잉과 동시에 숨을 내뿔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는데, ‘투’ 발음을 하면 자연스럽게 숨이 내뿔어 진다. 긴 음의 경우엔 “투 우 - -”처럼, ‘투’ 발음을 하고 정해진 박자만큼 호흡을 계속 내쉬면 된다. ‘투’라는 텅잉의 발음은 악기에 대고 말하기의 기본이다. 실제 연주를 할 때는 무조건 투투, 라고 발음을 하지는 않는다. 노래를 할 때 가사를 한 글자 한 글자 또박 또박 말하지 않듯이, 텅잉도 자연스럽게 곡의 분위기에 어울리도록, 여러 방법으로 연주를 하게 된다. (역주)

contract(계약·응축); 1. 매우 보편적인 의미에서, 계약·응축은 확립하고 있는 것의, 즉 연관된 주체 각각의 지위(being 또는 seeming)의 수정이라고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상호주관적인 관계를 “양극이 맞물림으로써 계약·응축하고 있는 것(contracting)”의 사실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직관적인 생각이 비록 엄밀하게 정의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소를 선택하는 두 주체 사이의 “계약·응축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entering into a contract)”의 확립 아래 최소의 조건으로 존재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결정함으로써 텅 계약·응축(contract)을 조정(措定, posit)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은 기호화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구조 확립에 의해 전체된 존재(being)로 관찰될 수 있다. 사실 그것은 계약·응축 아래 숨겨진, 그 “교감적인(phatic)”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필연성과 임시적인 이해를 구성한다고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긴장(호의를 가진 것 또는 신뢰하지 못하는 예기)과 이완(예기에 대한 반응의 일종으로서)을 예워싸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상호주관적인 구조의 확립은 즉각 한편으로는 미래를 향하여 그리고 연기의 가능성을 향하여 열려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주체 각각의 자유를 제한하는 압박으로 존재한다. 우리는 기초가 만들어진 상호주관적인 구조상의 임시적인 성분의 이러한 세트들 지지하는 텅 함축적인 계약·응축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2. 기호화적인 투시도법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사회생활이 조우와 투쟁을 조합함으로써, 또는 “관용(charity)”과 “결과가 여하튼 간에 선의에서 나온(well-intentioned)” 관습에 의거함으로써, 따로따로 고찰하는 2개의 대상으로 만들어진 관념론적인 태도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점유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역으로 구조적인 접근은 함께 고찰된 범주의 조정적이고 부정적인 텅 양쪽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서, 그 논쟁적인 구조(소정의 아프리오리 또는 파괴의 결과)는 계약·응축적인 구조(엄밀한 의미로)의 대담적인 추축(pole)을 구성하는 것으로 관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구조의 두 유형은 상호주관성의 동일한 계약·응축적인 조직에 속한다.

3. 첫눈에 두 종류의 계약·응축은 구별될 수 있다. 그 주체의 하나가 “제안적인 것(proposal)”을 만들고, 다른 하나가 그 제안적인 것의 “실행(commitment)”을 만들고 있을 때, 한쪽만인, 즉 단독적인 것이라고 언급된다. “제안적인 것(proposal)”과 “실행(commitment)”이 서로 뒤섞여 짜일 때 계약·응축은 좌우동형적인(bilateral) 또는 상호적

인(reciprocal) 것이 된다. 그러나 일반 사전에서 차용된 그러한 정의는 계약·응축적인 구조의 양태적인 성질을 보여준다. “제안적인 것”은 주체 s_2 가 어떤 무엇을 실행하는(또는 실행되는) 주체 s_1 의 요망(wanting)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행”은 암시된 실행 그 자체를 선택하고 있는 s_2 의 요망(wanting) 또는 의무(having-to) 그 이상이 아니다. 이러한 투시도법의 관점에서 보면, 계약·응축은 연좌된 주체의 양태적인 능력의 변형을 발생시키고 있는 상호적인·인식적인 능동성의 조직으로 나타난다.

4. 그 선행관찰은 철학적인 또는 사회학적인 관심사에 의해 고취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경우가 아니다. 그들은 독자적으로 발전되었으며, 특히 담화의 명확한 분석의 성장, 그리고 더 좋은 아종적인·화술적인 담화의, 기초 상에서 발전되었다. 그러한 담화는 계약·응축적인 구조의 많은 기술을 에워싸며, 따라서 그들은 기호학자들이 계약·응축적인 구조의 유형학을 확립하는 그들의 연구결과와 위업을 달성시킬 수 있는 주요 기원을 구성한다. 따라서 예들 들면, 프로프(Vladimire Propp)로부터 도출된 정전적(正典的)인 화술도식은 계약·응축적인 구조의 결합체적인 투사로서, 그 양상의 하나로 나타난다. 이러한 화술도식의 관점에서 보면, 발신자와 주체-수신자 간의 발단에서 확립된 계약·응축은 종합적인·화술적인 진전의 속도를 조절한다. 화술 안에서 추구하는 그것은 계약·응축하고 있는 두 부분에 의해 그것의 실행(execution)으로 나타난다. 수신자의 기증으로 존재하는 주체의 궤도는, 발신자에 의해 화용론적인(또는 응보적인, retribution) 것 그리고 인식적인(cognitive, 또는 재인식, recognition) 것의 양쪽의 생크선에 의해, 추구된다. 그것은 계약·응축의 아티클레이션에 기초한 이 결합체적인 조직이 마치 확립, 파괴, 재확립, 그리고 계약·응축의 실행처럼 일련의 계약·응축적인 단위로 해체될 수 있다.

5. 계약·응축의 개념은 교환의 그것과 관계되지 않으면 안 되며, 그것의 이론은 모스(Marcel Mauss)에 의해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그런 경우에, 먼저 그 계약·응축은 지연된 교환으로 나타난다. 그 간격은 신용(confidence)과 채무(obligation)와 같은, 오른쪽의 대변(貸邊, credit)과 왼쪽의 차변(借邊, debit)과 같은 것으로 존재하는 긴장에 의해 보증된 그것의 실행으로부터 그것의 귀결을 분리한다. 그러나 2개의 가치대상의 교환을 에워싸고 있는 단순작용으로 보이고 있는 최종고찰은 단지 화용론적인 능동성만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식적인 레벨에서 본질적으로 위치를 잡는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교환은 위치를 잡을 뿐만 아니라, 두 부분이 주어진 대상을 위한 대응물로 수용된 대상가치의 “가치”로 보증되는 것이 필연적이다. 다시 말해서, 피신탁의 교차점적인 계약·응축(흔히 주체들의 설득적인 실행 그리고 해석적인 실행에 의해 전제된)이 실제적인·화용론적인 작용에 선행하는 것으로 확립되는 것이 필연적이다.

6. 그러한 피신탁의 교차점적인 계약·응축은 그것이 발화-담화 안에 명기되고 있는 한, 그리고 화용론적인 가치를 에워싸고 있는 한 발화적인 것이라고 호칭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언외발언적인 계약·응축(F. Nef에 의해 제안된 팀), 또는 진정성의 계약·응축인 것 같은 언외발언(enunciation)의 구조의 레벨로 표출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발화-담화의 진정한 지위(언급-진실)를 에워싸고 있는 언외화자와 언외청자 간의 피신탁의 교차점적인 관습을 확립하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신탁의 교차점적인 계약·응축은 증거(예를 들어, 자명한 확실성)의 근거가 될 수 있거나, 언외화자의 설득적인 실행(믿음-원인, causing-to-believe)에 선행할 수도 있고, 그 언외청자 또한 해석적인 실행(신앙, believing)의 방식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p. 59~60. (역주)

신화적 설화 또는 의식적 설화

이제 우리는 첫 번째의 예, 즉 사회계약·응축의 종결을 열거하는 설화로 돌아올 때이다. 먼저 우리는 오로지 인도와 로마 설화의 변형만을 고찰함으로써 고의적으로 단순화시켰고, 브레스 왕의 폐위와 관련된 아일랜드 설화를 제외했었다.

뒤메질의 방법을 다시 따라가고 있는 이러한 아일랜드 설화의 총체에 관한 분석은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실행될 수 있다. 왕의 폐위는 그의 왕위 즉위에 대한 그 극의 대응물임이 명백하며, 우리는 이러한 아일랜드 설화의 변형이 왕의 폐위에 관한 인도와 로마의 설화도식으로, 즉 단편화된 그리고 불완전한 방법으로 전해 내려왔던, 다시 말해서 프루투와 세르비우스의 전임자의 폐위와 관련된 버전으로, 재구성되도록 허락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우리 자신에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아일랜드 왕의 폐위에 관한 설화가 아일랜드의 화맥 안에서 왕의 즉위를 위한 설화도식으로 우리에게 제공되지 못할는지 어떨는지 그 여부를 고찰하여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frac{\text{베나(Vena)}}{\text{프루투(Prthu)}} \sim \frac{\text{타르쿠앵(Tarquain)}}{\text{세르비우스(Servius)}} \sim \frac{\text{브레스(Bress)}}{X}$$

만약 위와 같은 비교 시리즈가 확실한 자율적 발견의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말이다.

언어학에서 변별적 특징(distinctive feature) 분석의 지지자인 야콥슨(Roman Jakobson)은 변별적으로 소정의 관계에 관한 팀의 관점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2개의 대당유형을 분명하게 구별한다. 한편 우리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

a vs 비-*a*

위에서 *a*는 유표로 고찰되는데, 그 이유는 결핍(lacks)으로서의 무표의 팀인 “비-*a*”라고 하는 여분의 변별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는 전혀 다른 관계가 다음과 같이 설치된다.

제1장 비교신화학

a vs $-a$

위에서 $-a$ 는 a 의 부정이다.

우리가 왕이 왕위에 즉위함으로써 종결된 사회계약·응축을 분석했을 때, 먼저 우리는 자질 (V)와 단순자질 ($\text{비-}V$)의 가치를 안정시키는 것으로 구별했다. 사회계약·응축의 부정인 아일랜드 설화의 변형은 이제 우리에게 매우 친밀하게 궁형의미소적(*archisemic*) 분석으로 대당을 설치한다.

V vs $-V$

$\text{비-}V$ vs $-\text{비-}V$

따라서 사회계약·응축의 폐지 공식은 다음과 같이 허락된다.

$$\frac{\text{백성}}{\text{왕}} \simeq \frac{-\text{비-}V}{-V}$$

이것은 백성이 적당한 방식으로 자질이 부여되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의미하며, 왕 자신으로서는 자질이 박탈된 자신을 발견하고, 최초의 활력 또한 상실한다.

따라서 아일랜드 이데올로기의 프레임 안에서 즉위도식의 재구성은 이원 작용으로 고찰될 수 있다. 부정의 기호(*sign*)는 폐지되고, “왕 vs 백성”의 관계는 반전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할 수 있다.

$$\text{인도 vs 로마 vs 아일랜드} \simeq \frac{V}{\text{비-}V} \quad \text{vs} \quad \frac{\text{비-}V}{V} \quad \text{vs} \quad \frac{V}{\text{비-}V}$$

그리고 이것은 아일랜드의 즉위도식이 인도의 즉위도식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하도록 허락한다.

부정으로부터 긍정에 이르는 추이가 비록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관계의 전도는 인도와 로마의 설화도식을 포섭하고 있는 방정식 안에 아일랜드의 설화도식을 포함시키기 위해 필요하며, 어떤 관점에서는, 그 공

식보다 더 공식적일(disquieting)⁷⁹⁾ 수도 있다. 사실 우리는 그러한 현상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frac{\text{패위}}{\text{즉위}} \approx \frac{\text{부정(negation)}}{\text{긍정(affirmation)}}$$

그러나 거기에는 관계의 두 팀이 결합체적인 관계(syntagmatic relation)로 더욱 진전되어 존재한다(먼저 왕에게 자질이 부여되고, 그때의 백성 쪽; 백성은 왕에 의해 자질이 부여되지 못하며, 그 다음에 왕은 자질이 없는 그리고 그 자질이 박탈된 그 자신을 발견한다). 또한 부가적 분석은 결합관계의 전도가 보다 낮은 레벨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왕에 사용되었던 상징기호를 사용함으로써, 상술된 아일랜드 설화의 패위도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다.

$$\frac{\text{백성}}{\text{왕}} \sim \frac{g(-q)}{(-g)(-q)(-V)}$$

왕이 그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지위에 따라 자질을 부여하는 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에피소드는, 계속해서, 시인에 의해 왕의 풍자적 실격과 관계되고, 결국 그가 풍요에 대한 거짓 암소의 거짓 우유를 마셨기 때문에 매우 약화된 왕과 관련된다(그의 특징은 마치 다음과 같은, 즉 /자연/ vs /인위/ vs /활력/ vs /질병/ 과 같은, 진리의 암소와 구별된다). 환대의 부정은 왕의 실격을 전제한다. 2개의 시니피앙은, 한 번 더 그들이 즉위설화(the ascension stories) 안에 가지고 있는 관계의 전도인 결합체적인 관계로 응축된다.

결합체적인 원소의 이러한 관입(貫入, intrusion)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레비스트로스의 정의의 입장에 따라 나타냈던 신화의 정의와 모순되기 때문이다. 시니피에 단위의 두 짝의 상호관계는 의미작용에 있어서 서로 대당이다. 이러한 정의는 어떤 결합체적인 관계를 배척하고 있는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계열체적인 것이면서도, 그것은 또한 신화의 무시간

79) quiet: “informal(비공식적)”의 의미도 있으며, 이 단어 앞에 부정사 “dis”가 붙어 “disquiet”가 되었으므로, “공식적”의 의미. 그리고 아래 공식의 affirmation(긍정) vs positive(조정)는 이와 같이 대비되어야 할 것임. 즉 다른 저서에서는 “positive(조정)”으로 번역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나, 조정(措定)이 보다 적합할 것임. (역주)

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신화를 위해 주어진 정의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또는 사회계약·응축의 상징기호적 표현이 담겨있는 설화가, 신화가 아니거나 둘 중의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몇 가지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두 번째 해법(또는 이산) 쪽으로 기울게 한다.

물론 어떤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는 즉위설화에 대한 뒤메질의 기술을 단순화시켰다. 그러나 어떤 확장(외연, extent)을 더욱 확장하기 위하여, 우리는 인도의 설화 안에서 대담적인 한 쌍을 강조하려고 했다.

/왕의 자질/ vs /백성의 자질/

따라서 우리는 고의적으로 선행 에피소드를 무시해버렸다. 뒤메질이 세르비우스의 설화 안에서 병치적 원소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러한 에피소드는, 사회계약·응축이전에, 신과 인간존재 사이에서 확립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 나타난다.

/발신(the sending)/, 신에 의한 /인지/, 인간에 의한
/숙명론적 기호들(signs)의/ vs /이러한 기호들의/
/발신(sending out)/ /수신/

우리가 신화의 여분이 인간의 레벨에서 확립된다는 것을 기억해낸다면, 신성한 기원으로서의 통치권의 개념과 가능한 상호관계로 설치되고 있는 그것의 관념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 자신을 암시한다. 따라서 통치권의 두 유형 사이의 대당, 즉 바루나(Varuna, the "other world")와 미트라(Mithra, "this world")의 통치권의 대당은, 우리의 설화 안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어떤 순간에는 양여된 통치권으로서의 신성한 권리로, 또 어떤 순간에는 계약·응축된 통치권으로서의 인간의 권리로 나타난다.⁸⁰⁾ 따라서

80) Varuna: 바로나[縛魯拏]·수천(水天)이라고도 한다. 수계(水界) 또는 용왕(龍王)의 주인으로, 원래 브라만교에서는 천지를 보지(保持)하는 신, 제신(諸神)의 왕으로 알려졌다. 밀교(密敎)

$$\frac{\text{바루나(Varuna)}}{\text{미트라(Mithra)}} \approx \frac{\text{/양여된 통치권/}}{\text{/계약적 통치권/}}$$

위와 같은 두 대당은 대비를 더욱 지나치게 재촉할지도 모르고, 따라서 미트라(Mithra)와 아리아만(Aryaman)이라고 하는 두 아들(왕과 Arya 백성의 보호자)과 바다(Bhada, 두 아들이 분배한 땅) 안에서 볼 수 있을지도 모르며, 그 상호관계의 두 팀은 다음과 같다.⁸¹⁾

$$\frac{\text{아리아만(Aryaman)}}{\text{바다(Bhada)}} \approx \frac{\text{/왕의 자질/}}{\text{/백성의 자질/}} \quad ?$$

우리가 이러한 최후의 가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두 레벨(신화적인 것과 신화적인 것) 사이의 병치론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⁸²⁾ 결합체적인 관계의 현존재에 의해, 그리고 신학적 단위의 시리

에 도입되어 십이천의 하나로서, 그리고 양계(兩界) 만다라(曼荼羅) 가운데서 서방의 수호신이 되었다. 형상은 왼손에 용삭(龍索)을, 오른손에 칼을 들고 거북 등에 올라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밖에 금강계의 내원(內院) 수호자로서의 4대신(四大神: 地·水·火·風)의 하나로 꼽히기도 하고, 수천법(水天法)의 본존(本尊)으로서, 수화(水禍)를 막기 위한 독존(獨尊)으로서 신앙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만다라(水天曼荼羅)가 그려지는 경우도 있다.

Mithra: Mitra, Mithras라고도 씀. 인도-이란 신화에 등장하는 빛의 신. 그에 대한 숭배는 동쪽의 인도에서 서쪽으로는 스페인·영국·독일에까지 전파되었다. 베다 미트라가 처음 기록으로 언급된 때는 BC 14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에 대한 숭배는 페르시아까지 퍼졌고, 페르시아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패배한 뒤에는 헬레니즘 세계 전역으로 퍼졌다. 3~4세기에 로마 제국 군인들이 전하고 지켜왔던 미트라 숭배는 새로 성장하고 있던 그리스도교의 주요경쟁상대였다. 로마 황제 콤포두스와 율리아누스는 미트라교에 입교했고, 307년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도나우 강변에 “제국의 수호자”라는 이름으로 미트라에게 신전을 봉헌했다. 신화에 따르면 미트라는 성스러운 강변, 성스러운 나무 아래에서 햇불과 칼을 지니고 대지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한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말을 타기 시작했고, 후에는 생명을 주는 우주의 황소를 죽여 그 피로 모든 채소가 풍작을 이루게 했다. 미트라가 이 황소를 죽인 것은 헬레니즘 예술의 인기있는 주제였고, 미트라 종교에서 황소를 죽임으로써 다산(多産)을 비는 의식의 원형이 되었다. (역주)

81) Aryaman: 리그베다(Rgveda)에서 Aryaman은 신을 나타내는 남성명사로서 “a bosom friend, play-fellow, companion, a friend, who asks a woman in marriage for another”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name of a Āditya”를 표현하기도 한다. (역주)

즈와 함께 시니피에의 이러한 단위의 상호관계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 설화를 우리는 신화의 정의와 상응하는 것으로 더 이상 연구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역으로 연구할 것이다. 이러한 두 특징은 제의적 설화가 구조적 유형의 텀 안에서, 신화적 설화와 다르다고 우리로 하여금 언급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⁸²⁾

이제 이러한 연구에 의해 얻게 된 방법론적 통찰을 요약하기로 하자. 그 통찰은 언급 없이 실행되며,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는 이러한 연구가 비전문가에 의해 기도됨으로써, 의미론적 실체(substance)의 모든 기술이 방법론적으로 동일한 아프리오리를 가정하지 않고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었다. 이것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외삽(外挿)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신화학적 탐구로부터 획득한 것을 보편화할 수 있다.

그 독립변수(argument)에 찬성하여, 방법이 동일하다는 것은 신화학이 언어에 속한다고 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특히 그러한 모든 탐구를 위한 시발의 관점에서 오히려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요컨대 우리는 내용의 어느 기술을 위한 우리의 “용어법”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지시의 응집체계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용어법은 “과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메타언어이다. 이러한 체계의 텀이 비록 독단적인 방식(즉, 그들은 선택성과의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으로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게다가 소행(work)이 용어법의 총체현상 상의 탐구의 보다 높은 레벨에서 독단적인 방식으로 향하게 될지라도,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보편적인 가치를 소유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작용의 모든 탐구에서, 특히 더 나아가 비교신화학의 연구에서, 언어학의 경계를 초월하여 사용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기호학적(semiotic) 용어법의 바로 이러한 보편성이다.

메타언어로 고찰된 소정의 신화학은 먼저 우리가 박자(拍子)와 같은 운율(measure)의 단위를 선택하는 것 없이 기술될 수 없다. 이것이 교묘하게 다루어질 때(그들이 서로 관계 안에 그리고 상호관계 안에 정위될 때), 이것은 보다 큰 구조

82) 같은 방식으로, 대비적 레벨에서: 만약 뒤메질에 의해 제안된 인식론적 관계가 확실하다면, 그것은 제의적 사실과 신학적 사실 사이의 상호관계에 의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frac{\text{Cams-}}{\text{cens-}} \approx \frac{\text{포르투(Prthu)}}{\text{포투나(Fortuna)}}$

83) 이 연구는 「야성적인 마음(La Pensée sauvage)」이 출간되기 전에 실행되었다. 레비스트로스의 관점(특히 pp. 46~47에서 발견된 것처럼)의 어떤 것은 제의 설화 문제의 좀 더 좋게 정의된 공식화 하는데 아마 조력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적 총체의 재구성을 위하여 조금씩 허락되며, 결국은 전체 신화학적 체계로 허락된다. 우리가 기왕에 몇 차례 언급했던 연구에서, 레비스트로스는 이러한 구성적 단위를 신화적 설화의 시퀀스와 상응하는 시니피에로 인식하며, 그것은 신화적 방정식의 주요한 팀으로 계속해서 그 뒤에 나타난다.

$$\frac{A}{\text{미-A}} \simeq \frac{B}{\text{미-B}}$$

그때 우리는 이러한 “보다 큰 구성적 단위”가 계속해서 변별적 특징으로 분석될 수 있다는 것을 고찰했었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팀 의미소에 의해 변별적 특징이 지시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신화적 방정식 안의 팀, 즉 의미소의 무리들(각각 명확한 사실로 분석된 오직 일부분의)은 어휘소로 지칭될 수 있을 것이다.⁸⁴⁾

게다가 변별적 특징은 그들이 2개의 또는 더 좋은 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할 바 없이 타당하다. 따라서 의미소는 의미소범주를 구성한다. 그들의 부분을 위하여, 만약 어휘소가 오직 그들의 변별적 특징만으로 고찰되는 것 대신에 궁형어휘소가 된다면, 우리는 어휘소적 대당적 커플로 구성된 의미소범주의 총체적 집단으로 고찰하게 될 것이다. 의미소와 어휘소, 의미소범주와 궁형어휘소—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찰했던 것처럼 신화학자들과 언어학자들이 내용을 분석하는데 사용하는 4개의 원리적 “약수(約數)의 단위들”이다.

그들의 조합, 그들의 기본구조들은 많은 변이(변수, variation)로 고찰될 수 있다. 궁형어휘소의 상관관계(또는 보다 엄밀히 말해서 의미소범주의)로의 정위는 신화를 구성한다. 다른 구조들도 아마 가능할 것이며, 결국 결합체적인 것들 안에서의 이러한 것들은 탁월하게 회복되지만, 그 여부는 신화학자들의 판단에 달려있다.

84) 이 장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의미소와 어휘소에 밀줄을 그었다(강조했다). 팀 어휘소는 우리의 「구조의미론」(Paris: Larousse, 1966)으로부터 어의소에 의해 교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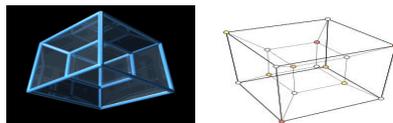
제2장 자연세계의 기호학에 대하여

일단 기호(sign)의 독단적인(arbitrary) 성질이 정위되면, 대개 자연언어(natural languages)로 지칭되는 것으로서의 내재구조와 관계된 지식 안에서 꽤 많은 진척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처음에 비빈사적인 시퀀스였으며, 하지만 그와는 달리 이것은 언어 지위의 문제가 많은 불확실성으로의 확장을 필연적으로 유도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언어학자들은 모든 형식과 의미작용의 표출을 고찰할 수 있었던 보편화된 기호학이론(semiotic theory)의 가능성을 깨달았다.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사이의 관계는 기호의 레벨에서, 즉 단어의 레벨에서, 또는 결합체적인 단위의 레벨에서 독단적이며, 또한 그것은 언어가 나타나는 것을 무시하고 담화의 모든 유형의 레벨에서, 독단적이다. 달리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는 그 자신이 나타나 단순히 사전적 의미로만 발생하는 그것으로서, 실체와는 무관한(irrespective of substance) 형식(그렇지만 더 좋게, 2개의 형식이 뒤엎힌)이다.

만약 이러한 관점이 반전된다면, 세계 안에서 획득될 수 있는 의미작용의 오로지 상상만 할 수 있는 현존재는 곧 인간존재를 에워싸고 있는 “실체(substance)”로서의 표출로만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투시도법(perspective)⁸⁵⁾을 통하여 총체로 감지할 수 있는 세계가 의미작용을 위한 탐색의 대상이다. 그것이 형식을 취하고 있는 한에서는, 총체로 그리고 다양한 아티클레이션으로, 잠재적인 의미로 나타난다. 의미작용은 감지할 수 있는 모든 현상의 뒤에 숨겨질 수 있다. 그것은 숨어있는 소리로, 숨어있는 이미지, 냄새, 맛으로 나타나며, 지각으로서의 소리나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시니피앙이 동반하고 있는 변이, 즉 의미 안에서의 그 변이의 문제를 열

85) 투시도법(perspective)은 다음의 하이퍼큐브(hypercube; 정사각형과 정육면체 등을 n차원으로 확장한 polytope)이다. 이는 서로 평행이거나 직교하는 선분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닫혀 있고 볼록한 콤팩트 공간을 이룬다, 4차원 입방체의 3차원의 그림자를 참조할 것. (역주)



으로 제껴놓음으로써, 행동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은 어떤 언어학이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원소를 통합했던 이론은 시니피앙의 다양성이 복합부호화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을는지 모른다는 것을 제안했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이론 안에서, 표현부호(codes of expression)의 수많은 그리고 관계적인 자율성(자치권·독립권, autonomy)은 전송채널의 유형학, 다시 말해서 다섯, 여섯, 또는 일곱 가지 감각으로 분할되고 있는 지각 상에 기초된 유형학 하에 기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현부호에 따르고 있는 가언은 어떤 것이 다른 것으로 치환될 수 있을지도 모르며(여전히 불변적인 것으로 남아있는, 그리고 흔히 동정되지 않은), 비록 어떤 부호에서 다른 부호로 전환함으로써 시니피앙의 영역이 좁혀지거나 넓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허락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현상의 복잡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는 못하는 것 같다.

첫째, 비록 우리에게 건네진 의미작용에 의해 그리고 그 전송채널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 표현실체를 우리가 허락한다고 할지라도, 동일 기준(즉, 전송채널의 경향에 따르고 있는)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 그래서 그들 스스로 이렇게 다른 표출을 조직하고 있는 부호로서의 그 아프리오리에 대해, 또는 자연언어로부터 구성된 모델에 따라, 단순한 유비(類比)로, 각각 기술될 수 있는 이러한 표현형식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둘째, 엄밀한 의미에서(stricto sensu), 언어학적 표현은 “칭각적인 것” 또는 “지각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발성에 적합한 “생리학적” 레벨에서 포착되고 성문화될 수 있는(즉, 새로운 과학적 언어의 의미에 의해 메타언어학적 해석이 부여된), 언어학적 시니피앙의 접근에 대한 다양성의 즉각적인 증거가 된다. 상호관계의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어려움과 동일한 언어학적 부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치환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표현의 적합한 부호가, 다른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동일 언어학적 현상의 포착의 이러이러한 레벨과 결코 상응하지 못하는 표출의 실체를, 고찰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아프리오리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우리는 나중에 이 문제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끝으로, 만약 우리가 행동주의자의 문제가 많은 불확실성의 채택과 그 함축의 수용을 거절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호현상(semiosis)의, 즉 언어적인 것 것보다 다른 표현부호의 지위가 고찰되자마자 편재하는 표현과 내용(의미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고 모든 언어이론의 공리를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사이의 기호학적 관계(semiotic relation)의, 문제를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그것이 글쓰기의 창작과정(정확히, 부호의 시각적 성질로 낭랑히 울려 퍼지는 실체를 사용하고 있는 부호의 치환)을 고고학적으로(통시적으로, -역주) 재구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지라도, 망설이고 있는 변화과정의 완만함과 해결된 문제의 복잡성(그러한 치환을 위해 필요한 함축적 음운론의 합성)을 암시하며, 그렇다고 해서 그럴만한 이유가 없는 것도 아니며, 아마 그것은 말(horse)은 아니지만 글쓰기로서 고귀한 인간의 획득물일 것이다. 또한 그것은 이러한 발견이 신속한, 인간사회의 자질적인 변전(變轉)과 상응하는 것으로 언급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같은 방식으로, 자연언어의 언어학적 한계를 초월하여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보편적인 기호학을 만들어내고 있는, 오늘날의 노력의 결과는 어쩌면 망설임과 어려움이 동시에 존재하는 기호의 또 다른 변혁일지도 모른다. 이것은 오로지 교훈적(didactic) 담화의 일부인, 그리고 변덕스런 유행의 파동으로부터 기호학적 탐구의 분리를 피하려고 하는, 은유로 분명히 존재한다. 또한 그것은 야망과 지각되지 않지만 뒤이어 나타나는 표현의 조심성 있는 의미를 지시한다.

언어학에서 최근의 진척은 논리학의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양측은 함께 그들이 다른 언어에 대하여 능숙하게 언급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응집 언어의 구성을 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그들 자신의 언어의 응집성과 함께 관련을 공유했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다른 목적 때문에 즉시 방식을 분리시켰다. 한편,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의 기호의 독단적 성질의 발견은 그로 하여금 언어학적 대상의 자율성(자치권·독립권, autonomy)에 대해 선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으며, 따라서 그 대상과 상응하기 위하여 과학적 담화는 내재적 응집성으로 단순하게 충족될 수 있었다. 다른 한편, 자신의 판단에 대한 응집성을 검토하고 있는, 게다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충당된, 논리적 담화는, 언어영역 밖의 세계와의 관계 안에 존재한다.

이것이 지시의 개념이 언어학적 논쟁으로 받아들여졌던 그 이유이다. 세계의 대상에 대한 개물(個物)로서의 “고유명목(proper names)”의 지시의 존재자를 긍정했던 신실증주의 논리학자들의 견해는, 언어가 대상세계를 구성함으로써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언어학자들을 괴롭힐 수 있을 뿐이었다. 또한 그들은 인간집단의 다양성과 함께 그리고 의미작용세계의 분할과 함께

연합되었던, 상대성을 깨달았다. 동시에, 언어의 폐포된 그리고 오만한 세계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던 논리학자들은 그것을 구체화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개물로서의 고유명목과 함께 세계를 동정하려고 하는 한계까지 밀고 나갔다.

모든 언어의 그리고 의미작용의 모든 체계의 이론을 고찰할 수 있는 기호학의 발전은, 언어가 정위되는 그 위치에서 논쟁을 아마 종결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과학적 인식론의 레벨에서, 그리고 더 이상 철학적 전제조건이 아닌 레벨에서, 정위되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언어영역 밖의 세계가 절대적 지시체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감각을 통해서 표현된 것이 인간의미의, 즉 의미작용의 표출이 될 수 있는 그 장소로, 고찰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지시체를 다소간 함축된 기호학적 체계의 세트로 고찰하는 것이다. 반면에 자연언어의 기호학의 특권적 지위(이들은 다른 기호학 체계와 화해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명백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존재자와 자연세계의 기호학의 가능성으로 가정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그리고 기호(“자연적”)와 언어학적 체계 사이의 관계로, 즉 한편으로 기호와 자연세계의 의미작용 체계 사이의 관계로, 다른 한편으로 상징기호적인 것으로부터 자연적인 것으로, 변하는 것으로부터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이어붙이고 있는 지시로, 그러나 의미작용을 하고 있는 실재성의 두 레벨 사이의 상호관계의 네트워크로, 생각하는 것 또한 필연적이다. 자연과학이 하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인간과학 또한 그들의 자율성(자치권·독립권, autonomy)을 주장할 수 있으며, 그것은 연구 대상의 성질(nature, 단어 또는 사물, 자연 또는 문화)로부터 유래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들 모두를 인간 대상으로, 즉 의미작용을 하고 있는 대상으로, 구성하고 있는 접근방법으로부터 유래한다.

노트: language, natural(langue, 자연언어); 1. 우리는 거시-기호학체계의 형태를 자연언어(natural language)라고 부른다. 반면에 명백하게 나타나는 그 아종(亞種)의 특이성은 쉽게 만들어지는 정의가 아니다. 용어 “자연적”에 의해 한정된 언어(language)는 “인간본질(human nature)”의 특징을 만들고 있는 전자(자연적) 안에서 “인위적(artificial)”과 대당관계가 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것(인위적)을 사용하고 있는 개인을 초월한다. 비록 그것(개인)이 구성하고 있는 그들의 힘 안에 있거나 그리고 인위적 기호학적 체계(언어)를 교묘히 다루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자연언어)은 그것을 바꿀 수 없는 다시 말해서 발화주체를 지배하고 있는 내재 구조적 조직으로 나타난다. 자연언어는 이중 아티클레이션으로 호칭되고

제2장 자연세계의 기호학에 대하여

있는 것에 또는 이탈과정에 기인하고 있는 그들의 결합적 힘에 의해 다른 기호학적 체계와 구별된다. 이것은 기호(sign)와 결합체적 단위(마치 큰 길이의 담화처럼[Louis Hjelmslev])의 구성을 지배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탄력성 있는 규칙을 공식화하기 위하여 예비제한적인 가능성으로 유도한다. 이중의 초월성은 이것으로부터 유래한다. 모든 다른 기호체계들은 불완전하든지 또는 그렇지 않든지 간에 자연언어 안으로 전이될지도 모른다. 반면에 그 역은 진리가 아니다. 다른 한편, 자연언어는 그들의 시니피에와 마찬가지로 시니피앙과 함께 다른 기호체계(예를 들어, 인위적 언어[languages])를 위하여 기초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이성은 그들에게 명목이 부여되고 어구가 장황해질 수 있는 한도에 한해서만 존재하는 시니피에를 가정하기 위한 구실로서 이바지한다. 그러한 정향의 획득은 다른 기호체계를 자연언어의 파생적 존재의 상태로 축소시킬 것이며, 예를 들어, 회화에 대한 담화분석으로 회화기호학을 변형시킬지도 모른다.

2. 소쉬르적인 전통으로서의 파롤(speech)과 대당관계가 되고 있는 자연언어(natural language)는 기호학체계(semiotic system)로서 기호학적 변화과정에서 제외된 것과 동정(同情)될지도 모른다. 형식적(개인적인 것으로부터 이러한 대상을 분리하는 것에 의해 언어학적 대상의 스스로 충분한 정의), 질료적(material), 더 보편적으로, 비구조적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는 목표와 함께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에 의해 확립된, 이러한 차이는 조정적(措定的)이고 결정적인 공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는 자연언어(그때 그것은 순수 분류법에 종속된다)의 지나친 계열체적 개념을 나타나게 하고 있는 많은 언어학자들을 위해 그것을 공교롭게도 가능하도록 만든다. 오늘날 그것은 능력과 함께 자연언어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이 되고 있다. 이러한 화해는 자연언어의 정의 안에서 결합체적 구조의 명백한 통합을 요구하고 있는 듯하다.

3. 그 특성이 위의 1항과 2항의 정의에 의해 신뢰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자연언어는 사회언어학적 개념과 마찬가지로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연언어를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인 기준은 흔히 결합력이 부족한 파생언어(dialect, 같은 어족에서 갈린)와 구별되며 다음의 경우와도 차이가 있다. 자연언어(그것의 정의는 “방언”처럼 적용될 수 있다)는 그 공동체에 고유한 “언어학적 감수성”의 기초 위에서만 “자연언어”의 위계로 올려진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언어,” “파생언어,” “지방적 파롤,” 등의 계층을, 자연언어 함수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사회적 함축의미의 체계에 속하는 비과학적 분류법으로 고찰할 수 있다.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p. 169~170. (역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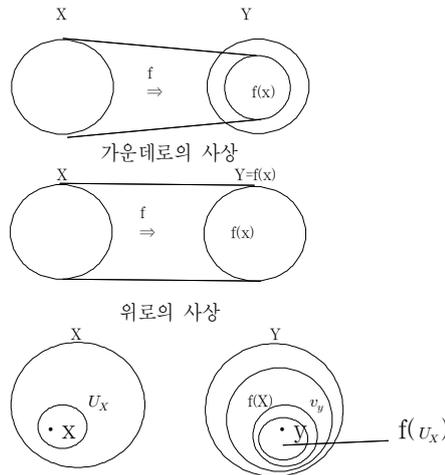
자연세계와 그 의미작용

자연세계 상의 우리의 반성을 영상부분으로 제한함으로써(왜냐하면, 이러한 토론의 주제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며, 또한 시각세계를 통한 의미의 표출은 정량적으로 그리고 정성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선형적 방식으로 우리는 시각세계의 표출의 다양한 양태성을 연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시각세계가 형식의 동차(또는 상동)적인(homogeneous)⁸⁶⁾ 화면으로 우리 앞에 투기되는 대신에,

86) homogeneity(同次性); 수학과 논리학에서는 동차(同次), 또는 상동(相同)이라고 한다. 혼마 다쓰오(本間龍雄), 임승원 역, 「위상공간으로 가는 길-직관적 토폴로지의 세계」(서울: 전파과학사, 1995), pp. 15~28.

몇 가지 겹쳐진 것으로 또 어떤 때에는 병치적인 것으로 의미작용의 단층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즉각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자연기호



위상공간 X에서 위상공간 Y로의 사상 $Y=f(x)$ 란 X의 점 x에 대하여 Y의 점 Y가 대응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x와 x'가 상이한 점이라도 그 상 f(x)와 f(x')는 일치해도 지장 없다. 특히 x와 x'가 다르다면 f(x)와 f(x')가 다를 때 1대 1의 사상이라 한다. X에서 Y로의 사상 f에서 X의 상 f(x)가 Y를 덮어버릴 때 f는 “위로의 사상”이라 부르고 보통의 사상은 “가운데로의 사상”이라 부른다. 위상공간 X에서 위상공간 Y로의 사상 f가 1대 1 위로의 사상일 때 f를 1대 1의 대응(변환)이라 부르기로 한다. $y=f(x)$ 가 1대 1 대응이면 y를 옮기는 사상도 1대 1의 대응이므로 이것을 역사상(逆寫像)이라고 말하고 f^{-1} 이라 표기하기로 한다. 위상공간 X에서 위상공간 Y로의 사상 f에 있어서 X의 각 점 x의 충분히 작은 근방의 상은 x의 상 y의 근방에 포함될 때 f는 연속이라고 한다. 정확히 표현하면 X의 각 점 x와 그 상 y의 임의의 근방 v_y 에 대하여 x의 충분히 작은 근방 U_x 를 선정할 수 있고 U_x 의 상 $f(U_x)$ 가 v_y 에 포함될 때 f는 연속이라고 말한다. 위상공간 X에서 위상공간 Y로의 사상 f가 1대 1 대응이고 f도 역사상 f^{-1} 도 모두 연속일 때 f는 동상사상(同相寫像)이라 부르고, X와 Y는 동상(同相)이라 한다. 우리나라 지도를 바라보자. 우리나라의 각 지점에 대해서 지도상의 한 점이 그것에 대응하고 있다. 이 대응은 분명히 1대 1의 대응이다. 근방이라 해도 크기가 전적으로 다르지만 한쪽의 근방이 딴 곳의 근방 안으로 들어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동상사상이다. 보다 알기 쉽게 말하면 산이나 분지(盆地)가 있는 뾰족한 우리나라가 한 장의 평평한 종이의 일부(우리나라지도)와 동상이라는 것이다. (역주)

위상공간 {

- 리니어(linear) 그래프(그래프의 장)
- 다양체 {
 - 곡선-(곡선의 장)
 - 곡면-(곡면의 장)
 - 곡면-(역사의 장)
 - 고차원의 다양체-(고차원의 장)

우리는 공통감각의 세계가 융통성이 있거나 융통성이 없는 대상을 만들어 낸 최초의 대상적 실재성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로 그것은 “단어-대상(word-objects)”과 “언외지언-변화과정(verb-processes)”을 만들었으며,⁸⁷⁾ 진술된 순서에 따라, 구성적인 것 그리고 언어학적 능동성(activity)을 범주화하고 있는 것의 결과로든지, 또는 언어학적 상징기호의 기원으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해석하도록 그 자체를 빌려준다. 양 경우에, 오로지 경험적 방식만을 통해서, 이것은 단어와 사물 사이의 변화과정과 함수 사이의 동치(equivalence)를 확립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치를 받아들인 뒤에, 우리가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할 때, 따라서 사물을 고찰하고 기호(정확히 자연기호로 지시될 수 있는)로 처리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들이 존재하거나, 그들이 그들 자체로 존재한다고 하는, 판에 박힌 그대로의 관찰로 만족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기호학적 지위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이를테면,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기호의 성질 그대로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은 대상 “책상”이 내용으로 책상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것은 판에 박힌 그 자체로서의 사물을 융통성이 있는 단어로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지시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자연기호의 지위를 기호로 연구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그때 자연기호는 그 자신보다 다른 사물로 후퇴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지시적 관계(비록 그것이 구조적 팀으로 정의될 수 있을지라도, 따라서 불변적 관계로 고찰될 수 있을지라도)는 다른 아티클레이션, 또는 마음속에 그려진 문화적

87) verb-processes: “verb”는 “verbal”로 보아야 문맥이 통한다.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p. 366~367. verbal: 언외지언(言外之言); 1. 계열체적 실행(doing)과 상보적인 것이 그리고 대당적인 것이 됨으로써, 그것은 세계의 대상과 함께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고,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적인 실행은 상호주관적인 관계를 포함하며, 계열체적 대상으로든지 또는 인식적 대상으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연기한다. 후자의 경우에, 그리고 사용된 채널 상에서, 그것은 언외지언(言外之言) 또는 신체적 형식(몸짓, 흉내, 자세, 등)을 획득한다. 계속해서 언외지언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실행은 사용된 시니피앙(음성과 문자)에 의존하고 있는, 구술과 표기 커뮤니케이션으로 세분된다. 2. 화술적인 담화에서, 예를 들어 대화로 형식을 획득하고 있는 언외지언의 측면은, 인식차원의 격아강적인 표현으로 고찰될 수 있다. 김치수 · 김성도 · 박인철 · 박일우 저, 「현대기호학의 발견」(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p. 17. “말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말(verbe)과 비슷한 말을 대화자의 마음속에 상기시키기 위해 말이나 감각적 기호들을 사용한다.” 언어로 분화되기 이전의 말과 그것을 알게 해주는 언어 기호가 구분된다. 말이란 모든 인식대상과 함께 정신에 새겨져 있는 것으로 어떤 언어에도 속하지 않는다. 사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형성된 것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발음된 말이다. 이러한 말을 대화자에게 알려려면 기호들에 의존해야 한다.” 참조. (역주)

군집(群集)을 가지고 있다.

18세기 유럽의 경향을 고찰해보면, 그것은 자연기호의 변덕으로 확립되었으며, 또한 그것은 다른 자연기호를 지시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즉 기호 “구름”은 기호 “비”를 지시한다. 두 관점은 다음과 같은 점이 제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일단 지시적 관계가 확립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과의 원인이 된 관계로 작용하는 것으로 고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인으로 야기된 결과의 관계는, 예를 들어 의료진단(무릎반사 → 양호한 건강)에서, 단순히 전자의 반전으로 발견될 수 있다. 둘째, 지시로서의 관계는 다른 기호를 지시하지만, 그것은 동일 레벨에서 전자로 정위된다. 라스티에(François Rastier)가 언급한 것처럼, 만약 구름이 비를 지시한다면, 이번에는 비가 가을 등등을 지시할 수도 있을 것이며, 어느 순간에도 기호현상의 레벨의 변덕스러운 끈을 끊지 않을 것이다.⁸⁸⁾

자연세계를 오로지 실재성의 레벨로만, 단지 담화의 통사론적 법칙에 따라 조직된 레벨로만 생각하는 문명에 대한 이러한 유형의 해석은, 자연적 실재성의 제2의 레벨을 긍정함으로써, 즉 심층레벨을 그렇게 언급함으로써, 기호를 제2 종류의 실재성으로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자연기호의 다른 해석에 의해 대당이 된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이러한 관계를 은유, 환유, 반어법(즉, 계열체적 또는 체계적 목록)의 변하기 쉬운 구조의 탓으로 돌린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연기호를 정의하고 있는 구조적 관계의 유형학에 기초하고 있는 문화의 유형학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Yuri Lotman).

두 가지 결론이 이러한 선행적 관찰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기호학적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는 그리고 자연세계에 따르고 있는 가언은 보장된 것 같다. 기호학적 관계의 존재자 때문에, 그리고 그들 아티쿨레이션의 무관심 때문에, 자연기호는 기호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접근은 성질에 대해 그리고 기호 그 자체의 내재적 조직에 대해 우리에게 결코 고지(告知)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고찰했던 것처럼, 사실, 다양한 이러한 접근이 이러한 기호 상에서 메타기호학적 반성(자연기호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문화적 기호로 변형시키고 있는 기호학적 인외지의)으로 존재하는, 기호학

88) F. Rastier, “행동과 의미작용(comprtement et signification),” *Langages* 10(1968): 76~86.

적 관계의 해석으로 그것이 고찰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자연세계의 격상(格象, figure)⁸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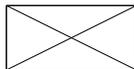
자연언어의 연구를 통해서 의미심장한 단위로서의 단어의 부적절성이 더욱 더 분명하게 되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자연 기호를 최초의 관점으로 삼아 대상의 기호학을 구성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것 같다. 따라서 그것은 심층에서 다른 레벨로의 이동 없이, 그리고 정위될는지 모르는 사건적 광경 없이 정위되는 것이 필연적인 것 같다.

비슐라르(Gaston Bachelard)는 형식의 목록이 확립되고 있을 때, 그리고 형태(초미-화술, configuration)가 활동하고 있을 때, 인간이 정사(精査)하는 것으로서의

89) 서구어에서는 "representation vs sign vs figure"의 의미적 식별이 분명하지만, 한국어에서는 그 식별이 애매하다. 특히 "representation vs figure"의 식별이 더욱 애매하다. "figure"는 형상, 표상의 의미로, 그러면서도 시적 비유로서의 변형 등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으나, "표상(representation) vs 형상(figure)"과 같이 그 번역을 대비해 놓고 볼 때 의미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한국어가 서구어에 비해 철학적으로나 언어학적으로 아직 발달되지 못한 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에스키모족이 눈의 종류를 다양하고 미세하게 구별하는데 비해 한국어에는 그렇지 못한 것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부득이 조어(造語)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따라서 논리학 용어와 언어학 용어를 차용하고자 한다. 사실 A. J. Greimas는 "figure"를 철학적으로 보다는 논리적 용어로 사용하는 것에 보다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즉, 직접추리는 대당관계(對當關係)에 기초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언삼단논법은 다시 식(formula)과 격(figure)으로 이루어진다. 식은 대전제 4개(A, E, I, O)×소전제 4개(A, E, I, O)×결론(A, E, I, O)=64개의 종류가 가능하며, 이것이 다시 4개의 격과 결합하여 256개가 된다. 격은 정언삼단논법의 3개의 개념 중 매개념(또는 증명사; M, Mean)의 위치에 따른 구별이다. 이러한 추리법에 따라 일종의 대전제와 소전제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는, 총체로서의 "격식(格式)"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러나 이것도 연언(conjunction) 또는 선언(disjunction)에 의한 일종의 변형(transformation)으로서의 다른 형상이어야 할 것이므로, 즉 표출 면에서는 그 외형을 구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격상(格象)"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대당관계는 모순대당, 대소대당, 반대대당, 소반대대당 등 네 가지가 있다. (역주)

1격(figure)	2격	3격	4격
M-P S-M ∴ S-P	P-M S-M ∴ S-P	M-P M-S ∴ S-P	P-M M-S ∴ S-P
AFFIRMO(긍정)		NEGO(부정)	
첫 번째 모음 A, 네 번째 모음 I		두 번째 모음 E, 네 번째 모음 O	

A명제 반대 E명제



I명제 소반대 O명제
/ 사선은 모순

시계(視界)로 투기된 격상의 변덕을 그가 제안 했을 때, 그는 그러한 레벨을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도출해내려고 하는 인간의 지각 그리고 개념화와 관계된 도식론(schematism)의 골치 아픈 논쟁을 일으키는 일 없이, 가장 고전적인 언어학적 절차에 따라, 그것은 자연기호 “책상”을 상수(invariant)로 얻게 된다고 언급할 수 있으며, 그것은 이원화된 환원을 실행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즉 다음을 수반한다. ① 상대적으로 단순한 기하학적 격상을 얻게 될는지 모르는 상수 “책상”으로 발현하는 모든 책상을 환원하기. ② 책상(식사하는, 글을 쓰는, 등등)의 의미작용의 함수를 괄호로 묶기,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얻게 된 다른 격상들의 목록 안에서, 사전에 확신으로 고착되었던 격상 “책상”과 동일한 또는 동치인 예들을 탐색하기.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의 격상의 레벨은 한정되어있는 목록 안에서 분할되고, 형식과 존재할 수 없는 실체로 고찰된 의미작용세계의 최초의 개념이 부여된다. 따라서 그것은 대상의 사건적 그리고 우발적 세계로 치환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구성될 수 있을는지 모르는 시각적 표현의 기호학적 부호로부터 발화자료체를 만들고 있는 안정적 그리고 약동적 목록의 세트로 정확하게 존재한다.

노트: configuration(형태, 초미-화술): 1. 먼저 담화적 형태는 하나의 자율적(자치적인·독립적인, autonomous) 통사론적-의미론적 구조와 함께 초미-화술(micro-narrative)의 일종인 것 같으며, 그것은 보다 큰 담화적 단위 안에 통합될 수 있으며, 그것에 의해 이렇게 큰 단위 안에 그들의 정향을 상응시키고 있는 함수적 의미작용을 획득할 수 있다.

2. 이러한 형태에 의해 대두된 소산(결과)은 그들이 마치 민속학(folklore, 예를 들어 J. Bédier)의, 예술사(특히, Panofsky) 등의 영역 안 19세기의 방법론적 전통으로 형식화되었던 것처럼 모티프(작의, 또는 동기)로 대두된 것들과 연결된다. “감응이론(theory of influence)”의 기초구조에서 보았듯이, 모티프는, 어느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변화할 수 있는, 관습에서 벗어난 사람의 편을 들거나 새로운 의미론적 투자로 그들 이전의 의미작용의 분할적인 또는 총체적인 상실과 함께 보다 큰 세트로 통합될 수 있는 화술적 또는 격야강적인, 자의적인 그리고 유동적인 형식으로 관측된다. 모티프의 그러한 궤도는 형식의 보편적인 역사를 구성한다. 따라서 중세 프랑스의 우화시(fabliaux)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으로부터 수집된 매우 다른 형식의 컬렉션인 것처럼 관측되었으며, 그것은 고대 인도의 문화화 기꺼이 동정(同定)된 단일하고 최초이며 창조적인 발생원이었다.

3. 동시에 탁월한 그 역사적 투시도법은 학자들로 하여금 인식된 형식의 기원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의해서 “표절된” 형식이 포함된 그 안의 감수성이 예민한 구조(담화, 텍스트)를 간과하도록 했다. 투시도법 안의 그 적응적(適從的) 변화는 상수적(常數的) 기초구조 안에서 변화무쌍한 것으로 고찰된 새로운 형식을 수용할 수 있는 말하자면 감수성이 예민한 형식(통사론적 그리고 의미론적)의 존재를 우리로 하여금 인식토록 했다. 따라서 우리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담화구조를 포위하고, 다른

제2장 자연세계의 기호학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충전될 수 있을는지 모르는 보다 큰 담화의 기초구조의 모티프라고 호칭되는 초미-구조(micro-structures)를 식별한다.

4. 여기서 우리는 오랫동안 시도하고도 무언가 부족함을 발견했던 “감응이론”의 비판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없다. 기호학(semiotics)에서, 정위된 방법론의 절차를 활용하고 있는 비교방법론은 그것과 치환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주어진 담화(예를 들어, 프랑스의 에스노-문학적 담화)의 세계 안일지라도 그것은 진리이며, 그 모티프의 유용성은 인식된 사실이다. 마치 “결혼”처럼 또는 “공평한 할당”처럼, 모티프는 이야기의 중간 또는 끝에서와 마찬가지로 발단에서 발견되며,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수용하고 있는 구조(새로운 형식을 수용하고 있는 작용의)와 수용된 구조(모티프)의 구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5. 그러나 첫눈에 이상하게 나타날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현상은 프래스틱적인 언어(phrastic linguistics)가 다른 레벨에서 문법적 사실을 발견하는 것과 같아서 유비(analogy)가 없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형태론적 그리고 결합체적 강류의 수많은 자연언어 안에서 비명존설에 의해 대두된 곤경을 생각하고 있다. 반면에 이것은 이론적으로 형태론적 강류와 함께 작용하고 있는 정언적(categorical) 문법을 구성하며, 역으로 순수 결합체적 문법은 이틀테면 영어와 같은 언어의 관례 안에서, 병존설(“to fear”의 경우, 언외지언과 빈사)의, 문법적 발산 장면(“to be afraid”)의, 또는 의미론적 “이탈(“to sports clothes”에서 “sports”는 명사적 성격을 상실한다)”의 사실과 나란히 아주 흔하게 발견되는 결합체적인 강류만을 오로지 교묘하게 다루어야만 할는지 모른다. 비록 마치 모든 것이 고찰된 몫(proportion)과 같을지라도, 결합체적 유형의 화술적 문법은 체계화 그리고 담화적 형태(초미-화술)의 통합절차로 고찰할는지 모르는 “형태론적” 하부성분을 부가해서 답아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C. Bremond에 의해 고찰된 것처럼, 화술적인 논리는, 심층 의미 안에서, 화술적 기호학(semiotics)이 엄격히 언급하는 것보다 더 “형태적(초미-화술인)” 기호학이 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도록 하는 것 같다.

6. 담화적 형태(초미-화술)의 연구는 여전히 형태 그대로 있으면서도 반드시 담화적 기호학 안에서 매우 절박한 과업 중의 하나를 구성한다. 여기서 두 가지의 문제, 즉 담화적 형태(초미-화술)의 내부체제와 관련되고 있는 문제와 그들이 보다 큰 담화적 화맥 안으로 통합되는 것과 관련되고 있는 문제가 대두된다.

7. 우리가 언급했던 담화적 형태는 초미-화술로 나타난다. 이것은 형태가 화맥 상에 위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그것으로부터 추출될 수 있고, 그 스스로 충분한 담화의 형식 안에 명백히 표출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형태의 분석은 모든 레벨과 생성케도의 다른 영역으로 고찰된 담화의 모든 성분 그 안에서 동정(同定)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그것은 주제적(thematic; 또는 어간형성모음적인) 형태 또는 격아강적인 형태(모티프가 속한)와 동정되기 쉽다.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담화적 표출은 지금 곧 근원이 되고 있는 화술적 체제를 전제한다. 그것은 적지 않은 놀람이며, 따라서 그 목록은 표준적 양태구조, 즉 책임이 떠맡겨질 수 있는 유형학(cf. 계약적[결합적, 응축적] 그리고 교묘히 다루기의 양태적 구조)을 표현하고 있는 스테레오타입으로 담화적 형태를 끌어올릴 수 있다.

8. 생산 하의 담화로 형태가 통합되는 것은 형태의 잠재적 케도 중의 하나에 의해 수용되고 있는 담화(또는 성분으로서의 화술프로그램 중의 하나)의 화술적인 케도의, 언외발언되고 있는 동안의, 투자로서 가장 단순한 절차로 형식화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형태 안에서 선택된 주제적 또는 격아강적인 역할은 화술적 담화의 행위주적 역할과 동정된다. 이러한 동정화(identification)는 국부적(local, 시간과 공간상의 국부) 또는 보편화된 동류체를 발생시키고 있는 담화의 행위주적 성향(性向)으로의 동작을 일으킨다. 이러한 성질의 중재는 확실히 화술적 언어능력뿐만 아니라 담화적 형태로 그리고 말하자면 그들의 작용방법

(modus operandi)의 공급으로 부여된 언외발언의 주체를 전제한다.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p. 49~51. (역주).

자연세계의 범주화

창조적 상상력을 떠맡으려고 하는 형식 축적의 바슐라르적인 투기(project, 投企)에 몇 가지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① 그러한 축적은 보편적인 성격을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최소한 그것은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을 떠맡고 있는 필연적 아티클레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② 비록 그들이 유사보편성으로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이를테면 물(water)과 불(fire)과 같은 기초적인 격상은 상수로서의 시니피에로 지시되지 않는다. 일자일음주의(homographies) 철자법의 해법(또는 이산)은 오로지 두 가지 방식으로만, 즉 화맥(그리고 이것은 “자연적” 통사론의 포즈를 취한다)의 지시로든지 또는 격상을 그들의 구성원소로 해체하는 것으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그 방식으로만 지시된다. 바슐라르가 그의 마지막 저서에서 선택한 것은 후자이다.

이와 유사한 해법(또는 이산)은 시각적 격상 뒤에서 자연세계의 범주적 광경의, 관자놀이-공간성의 기본범주의 제한된 수로 만들어진 격자(格子)의, 존재자를 인식하는 것으로 존재할지도 모르며, 그 조합조정은 시각적 격상을 제공하고 또한 시각적 표현부호의 함수를 떠맡는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몸짓의 후자의 분석이 시각성의 이러한 두 레벨(격상과 원소)을 어떤 때는 하나로 또 어떤 때는 다른 것으로 지시하기 때문만 아니라, 이러한 구별이 상대적으로 시각부호로 도출된 어떤 인공언어의 지위를 정의하는 것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쟈스(A. Zemsz: Revue d'esthétique)는 도상(圖像) 언어가 원소의 범주로 분해된 시각부호 상에서 어떻게 안주하는가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각부호의 다양성이 동일 범주 안에서 다른 구조적 아티클레이션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방금 말한 것은 언어의 건축술로도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그러한 해석이 정확하다고 하는 한에 있어서는, 표현형식을 추출하려고 할 때, 그것은 접근방법과 자연세계의 실체에 대한 기술절차를 제안할 뿐만 아니라, “자연적” 그리고 언어학적 기호학 양측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관계의 유형을 부분적으로 떠맡을 수 있게 하고, 따라서 언어학적 현상 그 자체로서의 우리의 지식에 기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연세계의 표현형

식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높은 vs 낮은, 미래전망적인 vs 회고적인, 직선적인 vs 곡선적인, 볼록한 vs 오목한, 등등과 같은 시각범주는 우리가 자연언어의 내용형식을 기술할 때 그런 자격으로 명백하게 발견된다. 그 결과, ① 감각세계와 자연언어 사이의 상호관계는 단어와 사물의 레벨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아티클레이션의 기본단위의 레벨에서 발견된다.⁹⁰⁾ ② 감각세계는 언어학적 형식으로 즉각 나타나며, 우리가 어떤 곳에서든지 세미올로지적인(semiological) 것이라고 호칭했던 의미작용의 차원을 생김에 함으로써, 구성에 참여한다.⁹¹⁾

자연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gestuality)

교훈적(didactic) 관계를 위해 단순하게 시각성에 중점을 두어 다루고 있는 한, 선행관찰은 소정의 전체 대상으로서의 자연세계에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즉 세계는 발화(utterance)라고 하는 종류의 언어학적 팀이지 언외발언(enunciation)의 종류가 아니다. 신체로서의 인간은 다른 격상들과 나란히 이러한 세계로 통합된다. 그들은 다른 형식과 비교되는 형식이다. 우리는 한 번 더 우리의 연구영역을 한정할 것이며, 그것을 단순한 인간형식으로 제한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러한 특별 형식이 명기됨으로써 시각적 전체 화맥이 마음속에 간직되는 것을 시도할 것이다.

인간체적의 아프리오리의 동격자(同格者, coordinate)

인간의 신체는 관자놀이-공간적(spatial) 화맥 안으로 전승하는데, 그 이유는 기술이 그것을 채우고 있는, 그 안에 정위된, 또는 전승될 수 있는, 인간체적 앞에서 범주화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기준의 세 가지 유형은 치환(displacement), 정위(orientation, Vera Proca-Ciortea와 Anca Guirchescu), 그리고 반주(伴奏, 또는 조연, support, Pierre Condé)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⁹²⁾

비록 인간체적의 기술 안에서 입체공간의 활용이 자명한 것 같이 보일지

90) B. Koechlin, "techniques corporelles et leur notation symbolique," langages 10(1968); 45~46.

91) Sémantique structurale(Paris: Larousse, 1966), pp. 55 ff.

92) 여기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종류로 각각 연구되었다. ① 정위(orientation), ② 지주(support), ③ 치환(displacement).

물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적어도 세 가지 다른 체계를 포함한다.

1. 인간체적 그 자체를 떠맡을 수 있는 관자놀이-공간적 동격자의 체계.

2. 지각된 대상으로서의 인간의 신체가 관찰자를 전제한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에 의해 도입된 관자놀이-공간적 투시도법(perspectivism). 그 관찰자 또한 포함된 인간의 그 신체에 관해 입체적이며 총괄적인 공간(tridimensional inclusive space)을 부여하면서 정위된다. 이렇게 해서, 측생(側生)적 투시도법으로부터, 인간형식은 스크린 상에 투기되는 것으로 지각될지도 모르며, 반면에 포착된 어떤 친족집단의 치환은 아마 상하 계층적 투시도법으로부터 지각되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3. 위상(位相, topology), 즉 공간의 상대화(relativization of space)는 인간형식 또는 형식들이 공간 안에 고착된 관점(출진 또는 승진의 춤, 또는 유동적 관점(강기슭에서의 낚시),⁹³⁾ 또는 다른 인간형식(짝 또는 집단으로 추는 춤)과 관련하여 관계로 전승할 때 필연적인 것이 된다.

일정한 방식으로, 인간의 체중은 두 관자놀이-공간의 축에 망상(importance)을 부여한다.

1. 인간의 체중이 발휘되는 방향에서, 수직 축은 다른 체적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체적 범주 “접촉 vs 비접촉”을 도입한다. 어떤 때 그것은 체중과 관련하여 신체 유리(遊離)의 연외지의(내포)를 통해 비접촉된 행복감을 표현하며(발레), 또 어떤 때는 그들이 규범을 이탈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자세로 가치를 안정시킨다(꼭에서처럼 손으로 걷기).

2. 이어서 수평축은 “자연적” 치환 상에서 발생하는 “자연적” 자세 또는 직립자세와의 대당으로 고체의 표층(또는 수영의 경우, 액체)을 구성한다. 비록 그것이 부분적으로만 전승할지라도, 아티클레이션 “수평적 세계 vs 수직적 인간”은 보편적으로 유동성(mobility) 이전의 기동(起動, inchoative)적 자세로 인식된다.

부동성과 유동성 사이의, 자세와 동작 사이의 범주적 대당은 철학적 전제 조건을 정확히 괄호로 묶고 있는 매우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며, 그것은 약간의 문제를 열거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이유는 적절한 표기상에서의 탐구가 방금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자세는

93) 모파상(Guy de Maupassant)의 소설 “두 친구”를 상기하라. (역주)

접촉이 하고 있는, 즉 몸짓적인 텍스트를 결합체적인 단위로 분열시키고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경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기동적 양상으로든지, 또는 중지적 양상으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그 텀으로 동작을 포착하고 있는, 그리고 미완의 의미로 언외지의(내포)를 만들고 있는 양상의, 즉 통합된 양상 상의 텀으로 기술될 수 있는가? 그러한 양상적 기술이 가능한가, 그리고 빈사적 변화과정으로 고찰된 동작의 그 기술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

유동성(mobility)과 근육신축성(motricity)

명기된 인간형식 안에서의 관자놀이-공간적 화맥은 촉감의 범주로부터든지, 또는 세계의 지각형식의 약동성(躍動性)의 문제가 많은 불확실성으로부터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분리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필연적으로 지각되었던 것(그리고 사실 그것은 자연세계의 기호학적 합성을 작성시키면서 공리화로 접근하고 있다)의 어떤 범주화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분리하려고 시도했다. 우리는 이것이 지각대상으로서의 인간신체의 기술을 위한 필요성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비인간의 공간(space)과 그들의 현존재를 몸짓 또는 도구의 목표로 연장하는 인간존재 안의 어딘가 다른 곳 사이의 분리(운동신경장애 상에서 탐구에 의해 긍정된)를 강조했다며, 인간의 공간, 즉 무의미·단순 몸짓언명성(gesticulation)이 위치를 획득하는 “여기-거기”로 환원시켰다.

사실, 인간 대상의 지각영역을 동정하는 것에 의해 연구영역이 환원됨으로써, 그때 우리는 관점을 바꿔 새로운 관찰로 넘겨줄 수 있다. 인간의 신체를 지각의 대상으로 고찰하는 대신에, 우리는 그것을 그 자신의 운동근육적인 함수(motor function)의 창조자로 고찰할 수 있다.

이러한 기계작용적 접근이 원리적인 것으로든지(Proca-Ciortea와 Guirchescu), 또는 단순하게 교훈적인 것으로든지(B. Koechlin),⁹⁴⁾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이루어지게 되고, 따라서 레버와 조종 장치의 체계로 인간의 신체를 관찰하도록 함으로써, 무의미·단순 몸짓언명성(gesticulation) 영역의 둘레에 선을 긋

94) V. Proca-Ciortea와 Guirchescu와 A. Guirchescu, "Quelques aspects théoriques de l'analyse de la danse populaire," Langages 10(1968); 87~93, 그리고 B. Koechlin, "Techniques corporelles et leur notation symbolique," Langages 10(1968); 36~47을 보라.

도록, 그리고 명료한 기호학적 영역으로 에워싸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전제조건은 전체 형식이 되는 것을 그만두고 있는, 그리고 단일 행위주를 옹호하기 위하여 그 자신의 제한된 공간 안에서 대리로 언급하는 것을 연기하고 있는 환유적 연기자(팔, 다리, 머리, 몸통, 등)의 조직으로 나타나는, 인간 신체의 형태론적 해체(disarticulation)를 긍정한다.

인간 신체의 이러한 형태론적 해체가 비록 무의미·단순 몸짓언명성의 모든 기술을 위한 기초일지라도, 그것은 즉각적이고 명료한 사실이 아니다. 신체를 여러 기관으로 분할하는 것처럼, 그 해체는 자연적이면서도 문화적인 것이다. 즉 인류학적 변이에 종속된다. 이러한 연구의 영역은 충분히 탐구되지 못했다. 그것은 기호학적 성질의 시각부호로부터, 이를테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브레몽(Claude Bremond)이 손발의 과장표현이 무의미·단순 몸짓언명성과 같은 함수를, 즉 초상화법 또는 캐리커처로 고찰할 수 있을는지 모르는 부호, 또는 마침내 연극의 어떤 언어에 속하고 있는 부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던 그 안에서의 1회 4컷의 연재만화(comic strip)에 적용되는 부호로부터, 귀중한 정보의 수집이 가능할 수 있다.

기계작용적 접근에 의해 전제된 무의미·단순 몸짓언명성의(gesticulatory) 가능성의 한계는 인간의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gestuality)을 무의미·단순 몸짓언명성(gesticulation) 그리고 자세(posture)와 관계된 가능성의 일반모델로 환원하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특별한 부호는 마음속에서 제한된 수의 가능성으로서의 선택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 사이의 한계를 정의하려고 시도할 수 있을는지 모르는 그러한 모델로 존재하며, 비정상적인 것은 문체론적 변칙이든지 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즉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진 등장인물의 제2의 무의미·단순 몸짓언명성이 존재하는 장소이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존재한다.

노트: gestuality(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 1. 이중적인 탐구영역으로서의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gestuality)은 어느 때는 의미작용의 경계가 정해진 그리고 독립적인 영역으로 나타나는, 또 어느 때는 구성된 존재(being)의 변화과정 안에서 특별한 기호학적 체계의 여전히 불명확한 경계를 무너뜨려 넘치게 하고 있는, 기호학적 반성(reflection)으로, 오로지 점진적인 그리고 말을 더듬으며 망설이는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2.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은 상호작용적인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보조적인 함수를 소유하고 있는 준언어학적인 현상으로 고찰되었다(그리고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동반자적

인 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은 약간 성급하게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탈(disengagement)된 발화를 생산하는 것을, 그리고 대상적인 내용을 전승하는 것을, 실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학자들은 그것의 역할을 단순한 강조로 축소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면, 그것은 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의 프레임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발화할 수 있는 그 범주는 양태적인 발화(assertion, negation, 불확실성과 확실성) 중의, 또는 정량화(quantification; 총체화, deivision; 문류)의 발화와 자질(qualification; 행복한 그리고 불복한 상태)의 발화, 특히 커뮤니케이션을 상호작용적인 교섭으로 변형시키는 교감적 발화(수용과 거절, 세계에 대한 개방과 자폐)의 어느 한 쪽의 형식을 선택하는 추상적인 범주로 존재한다.

3. 어떤 학자들은 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을 “기호체계(sign system)”의 소위리적인 형식에 적용함으로써 언어(language)로 연구하려고 시도했다. 그 기호들은 변환(commutation) 테스트를 통해서 인식될지도 모른다. 그 체계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상용될지도 모른다. 유감스럽게도, 기왕에 확립되었던 몸짓으로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목록(예를 들어, 북미 인디언의 몸짓)은 체계로 구성될 수 없었다. 그들은 “음운론적” 구조와 상응하지 않고, 의미론적 조직과도 상응하지 않는다(그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망상[interest]의 중심”과 상응한다). 그 속에서는 영망진창인 것, 부수적인 몸짓, 아이콘, 그리고 특히 몸짓적인 결합체로 고착된, 탈의미화된 그리고 상투적인, 요컨대 우연의 목록 안에서 총체적인 피셔의(Charles Sanders Peirce)⁹⁵⁾ 분급(分級, classification) 등으로 함께 한 덩어리가 되어 총괄된다. 따라서 그 자율적인 “몸짓 언어”는 확실한 존재와 거리가 멀다.

4. 의미·복합 몸짓언명성에 대한 또 다른 접근은 이 순간에 출발함으로써 존재하며, 몸짓으로부터 기호(sign)로 고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몸짓 텍스트(포크 댄스, 발레, 곡예 목록, 팬터마임 등)로만 고찰된다. 탐구의 이러한 유형의 망상은 복잡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우선 먼저 그 접근은 분석적이다. 그 텍스트의 오렌지와 같은 낭중분절(囊中分節)은 물론 다소간 큰 결합체적인 차원의 몸짓적인 단위의 문제를 제기하며, 또한 그들의 성격을 만들고 있는 몸짓적인 특징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한다. 따라서 조사의 이러한 유형이 유도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며, 한편 표현측면의 영역에서, 기술언어(기왕에 많이 진보했던, 그리고 그들의 메타언어학적인 응집성과 관계하고 있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기호표기법의 체계의 끌어올림)을 위한 필요성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한편, 그것은 이러한 몸짓적인 담화의 의미작용의 문제를 제기하도록 유도했으며, 프로그램화된 텍스트로서 양쪽으로 나타나고, 따라서 암시적인 의미(intentionality)에 의해 떠받쳐지며, 극적 발화로서 독자-관찰자의 함수 안에서 생산되고, 따라서 그들 자신에 의해 그리고 타자를 위해 이중으로 의미작용을 한다.

5. 몸짓적인 텍스트의 검토는 의미·복합 몸짓언명성(signifying gestuality)과 무의미·단순 몸짓언명성(meaningless gesticulation) 간의 편차를 유도해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신체로 존재하는 특별한 질료의 증명사에 의해(by mean) 표현된 것으로서의, “운동중의 용적”으로서의, “몸짓적인 실체(gestural substance)”의 정의를 반드시 이끌어 내야만 한다. 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은 단지 손짓 팔짓 또는 얼굴표현의 몸짓에만 제한되지 않고, 인간의 신체행동의 전체적인 부분(integral part)으로 존재하며, 결국은 그들의 신체언어로 호칭될 수 있는 것으로서의 양상의 오직 하나만을 구성한다. 그러나 반면에 사전에 언급된 몸짓적인 텍스트는 구성된(또는 인위적인) 신체적·기호학적 체계의 변화과정되어 나타나며, 거기서 그들과 함께 나란히, 어떤 것이 어렵듯이 느껴지며, 의미작용을 하

95) 기호(sign), 즉 아이콘(icon; 도형, 지도 초상화 등), 지표(indices; 온도계), 상징(symbol; 언어)과 지시대상(referent), 해석소(interpretant)를 지시한다. (역주)

고 있는 실천(practice), 즉 프로그램화된 인간의 행동으로 고찰된 적어도 “자연적인” 기호학체계로 존재한다. 화술적인 담화의 분석은 담화의 화용론적인 차원을 구별하도록, 엄밀히 말해서 의미작용을 하고 있는 신체행동의 기술을 만들도록,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조직되도록, 독자를 위한 사건으로 동시에 지시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우리는 이러한 2개의 특성의 증명사에 의해 몸짓적인 텍스트를 정의하는 것으로 고찰했다. 그러므로 그것은 구성된 화술모델이 “이론상(on paper)” 화용론적인 행동으로 고찰되고, 자연적인 “화용론적인” 기호학체계의 형식화를 위해 진지될 수 있다.

6. 그것은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과 마찬가지로 “신체성(somaticity)”이 쉽게 기술된 개념이 아니라는 것으로 즉각 고찰될 것이다. “말하기(speaking)” 또는 “노래 부르기(singing)”는 “걷기(walking)” 또는 “무의미·단순 몸짓언명성(gesticulating)”만큼 확실히 “신체적인(somatic)” 행동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결국 다양한 기호학체계가 그들의 “구성된” 상태(연극, 오페라, 서커스 등)만큼 그들의 “자연적인” 상태(예를 들어, 다양한 관습과 의례) 안에서 서로 끼어들어 깊이 새겨진다는 것으로 언급될 수 있으며, 흔히 우리는 구성적인 원소와 그들의 상호연결이 풀리게 된 것을 흡수하여 혼합한 기호학체계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p. 135~137. (역주).

노트: “gestuality(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는 영화 등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 “charade”와 동의어로 보는 것이 좋겠다.



“위의 사진은 아카데미 상 시상식에 참석한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n, 1929~1993)의 스냅이다. 그녀는 지금 <로마의 휴일>로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라 있고 막 수상자가 발표되는 순간이다. 그녀의 눈은 강한 기대감으로 빛나고 있으며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을 깨물고 있다. 말이 필요 없다. 이 표정과 동작만으로도 우리는 그녀가 오스카상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 그녀가 느끼고 있는 긴장

과 초조의 강도가 어떠한지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바로 이것이 서레이드(charade) 표현의 묘미이다. 다음과 같은 장면을 생각해보자.

주방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 여자. 울리는 초인종 소리.
 여자 (현관 쪽을 향해) 누구세요?
 남자 (소리) 백인철입니다.
 여자 아, 인철씨...
 급히 달려가는 여자. 현관 거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황급히 얼굴을 가다듬는다.

여기서 거울을 보는 주인공의 행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비록 단순한 동작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 방문객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심리가 담겨 있으며 곧 등장하게 될 인물이 그녀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해 줌으로써 관객의 기대감과 호기심을 증대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처럼 영화의 세계에선 대사를 통해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영상의 장점을 활용한 간접적인 표현술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서레이드의 힘이다.

일찍이 알렉상드르 아스트뤽(Alexandre Astruc)은 영상의 전통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는 사상(思想)과 심상(心象)을 표현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메시지 전달을 주로 배우의 대사에 의존하는 연극과는 달리 초창기 영화는 무성영화로서 대사를 통한 직접적인

제2장 자연세계의 기호학에 대하여

메시지 전달이 불가능했고, 특히 인간의 심층심리 표현이나 감정 전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약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화는 시각적인 표현술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아스트릭이 말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독자적인 표현 영역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탄생된 것이 서레이드의 기법이다. 다시 말해서 서레이드는 언어를 동원하지 않고 비유적 테크닉을 통해서 사상과 심상을 전달하려는 데서 출발된 것이다.

서레이드는 원래 마주보고 서서 상대방이 몸짓을 통해 어떤 신호를 하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맞추는 놀이인 '체스처 게임' 뜻하는 말로서 일반적으로 신체언어(무언극)를 통한 의미 표현을 말한다. 그러나 영화에선 이보다 훨씬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시각적 표현술로서 서레이드의 중요성을 역설한 그린(R. S. Greene)은 "서레이드는 어떤 것을 상상하여 보여줌으로써 그 속에 담긴 뜻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 무엇이냐'라고 정의했으며, 아라이 하지메(新井一)는 저서 「시나리오 기본 정석」에서 "서레이드는 간접묘사를 하면서도 정곡을 찌르는 표현"이라고 하였다. 이런 주장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영상예술에 있어서 서레이드 기법은 배우의 표정, 동작, 행위 등 신체언어를 통한 의미 표현에 중점을 두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사 이외의 모든 비언어적 수단을 동원하여 나타내는 상징적, 은유적 의미 표현을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최상식, 「영상으로 말하기: 서레이드·몽타주·미장센의 해부」(서울: 시각과 언어, 2001), pp. 41~44. (역주)

자연적 몸짓과 문화적 몸짓

모스(Marcel Mauss)의 저서에 의하면 우리는 이렇게 기계작용적인 것이 인간의 신체에 접근하는 것에 특권을 부여하는 것을, 따라서 자연현상으로 고찰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코크랭(B. Koehlin)의 언급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비록 학습되고 전승된 무의미·단순 몸짓언명성이 그 가능성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제한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른 기호학적 체계와 꼭 같은 사회적 현상이다. 자연기호의 다양화된 해석에 기초한 문화의 유형학에 대해 언급되었던 것은 소위 자연적 무의미·단순 몸짓언명성과 동등하게 진리(true)를 포착한다. 사회화된 무의미·단순 몸짓언명성의 유형학은 문화(예를 들면, 키스의 기교) 또는 성(예를 들면, 스웨터를 벗기고 있는 프로그래밍된 작용) 사이의 다양성을 떠맡을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자율적이며(자치적인·독립적인, autonomous) 기호학적인 차원의 존재자를 설명하고 긍정할지도 모른다. 단지 문화, 성, 그리고 사회집단 사이에 확립된 변별적 간극을 통한 그것 만으로서라도, 그것은 문화, 성, 그리고 의미작용으로서의 인간집단을 발견한다.

이렇게 해서, 자연적 무의미·단순 몸짓언명성은 문화적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으로 변형되며, 설사 자연적 몸짓의 그 표현이 실제적 판단력으로 유지된다고 할지라도, 자연언어와 꼭 같은 그것은 기호학적 잠재력(潛勢力)에 의해서만 정의될 것이다. 사실 그것은 의미작용의 구성적 원소인 한에 있어

서만 존재한다.

템 “자연적”을 그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것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타나내는 단어에 더 이상 권한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은 템 “몸짓”과 함께 그것만으로 존재하는 상황이 결코 아니며, 우리는 그 양식을 지나치게 풀어져 영성한 것으로 계속 사용한다.

몸짓 단위들의 문제

첫눈에, 현재의 용법으로는 템 몸짓이 어렵듯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태도의 배제를 당연히 수반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당은 일찍이 고찰했던 것처럼 결코 자명하지 못하다.

특히 우리는 템 몸짓이 어떻게 무의미·단순 몸짓언명성의 텍스트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총망라된 기술의 필요에 의해 정당화된 인간 신체의 해체는 운동근육적인 함수(motor functions)의 특별한 연기자로 지시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을 도입한다. 따라서 우리는 표현의 단순한 단위로, 그리고 몸짓으로 단순하게 지시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특별한 연기자-일원으로 상술된 부분 동작을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육체적 가동자(agents, 시험자)의 특별한 몸짓이 동등하게 되거나 동시에 장소를 획득하고 있는 전체 투기 안에 종속된 그 안에서, 인간 신체의 전체 떠맡기로 존재한다는 것이 납득됨으로써, 우리는 오드리쿠르(Haudricourt)의 견해에 따라 음소의 아티클레이션과 몸짓의 프로그램의 변화과정으로 제안했던 유비(analogy)와 관계된, 코크랭의 연구의 어떤 추이를 반드시 조심스럽게 독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비록 신체의 형태론적 문류(門類, division)⁹⁶⁾가 여기서 부분적으로 거절된다고 할지라도, 외삽(外挿)과 유비가 이리이러한 몸짓의 특징의 적절함과 적절하지 않음의 인식을 유도해낼 수 있음을 통해서, 역할에 대한 각자의 주연(周延)이 빈사적 특별전시 그리고 배경과 함께 무의미·단순 몸짓언명성 장면의 이리이러한 연기자에 귀속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이다. 따라서

96)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 93. division(문);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는 용어 문(門)을 변화과정, 즉 기호학적(semiotic) 체계의 결합체적인 차원(syntagmatic dimension)의 분석을 추리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문은 아티클레이션(분석체계를 뒤엎은 용어)하는 것과 대당관계가 된다. (역주)

그것은 인간 신체의 전제작용과 상응하고 있는 몸짓 음소의 구성을 유도해 낼 수 있다.

다른 곳에서, 코크랭은 이렇게 단순한 자연행동의 직설법적인 목록을 제안한다. 이러한 목록이 프랑스 단어의 사용빈도의 기초 상에서 성립되었던 하자목록, 즉 “프랑스어의 기본어휘”가, 다른 것과 동등하게 “준용해서(mutatis mutandis)” 상응한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놀라지 않아도 된다. 1,000개의 막연한 단어목록에서, 우리는 100개로 즉시 환원될 수 있는, 그리고 간단한 유의어적 분석의 의미에 의해 아마 보다 더 적은 수로 환원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약 300개 정도의 언외지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만약 우리가 준언외지언적 기호학의 내용측면의 이러한 것들과 축어(逐語)적으로 상응하는 자연적 기호학의 표현측면의 기본범주에 따르고 있는 선행진술을 기억한다면, 이러한 두 목록 간의 유사성은 예기치 못한 것이 아닐 것이다. 게다가, 만약 우리가 언어의 두 측면 사이에 공리로 간주될 수 있는, 즉 음소와 어의소 사이에 구조적 상응을 확립하고 있는, 동형성을 떠맡게 된다면(그리고 우리는 전부터 오히려 진기한 사실이라고 단언했다), 그때 코크랭에 의해 제안되었던 몸짓적인 음소와 프랑스어 언외지언 안에 포함된 어의소 사이의 병치론은 보다 더 명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두 목록은 최소한의 조사만을 필요로 한다. 그 둘은 언외지언화되고 다음과 같은 행동을 포함한다. ① 걷다, 뛰다, 눕다, 잠자다, 그리고 ② 쥐다, 주다, 꺾안다, 끌어당기다, 밀다; 그들은 둘 다 단순한 것의 매우 제한된 목록을 분명하게, 그리고 보편적인 신체의 능동성을 충분히 제안한다. 제한된 그 성질로 인하여, 이번에는 이러한 목록이 우리로 하여금 자연언어의 잘 알려진 아티클레이션의 총체성으로 고찰할 수 있는 음소의 매우 적은 수로 생각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추리력의 논리적 연쇄에는 분명히 위험이 따르게 되고, 때문에, 코크랭의 견해처럼, 주장된 유사성은 오로지 편차를 숨기고 있는 보다 더 좋은 모든 것으로만 기여한다. 그러나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의 이론을 문화의 세미올로지적 차원을 위한 입장으로 확립하려고 하고 있는 독립변수(argument)는, 매우 폭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서 몸짓적인 음소의 목록을 확립하여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적 떠맡기와 연결된 유비적 음소-어의소를 사용하도록 허락한다. 만약 시각적 표현 측면의 격상으로 환원하고 있는 무의미·단순 몸짓언명성의 실체에 대한 분석의 절차가 적용

된다면(이렇게 단순한 행동으로 귀속된 의미를 괄호로 묶는 것을 함축한다), 그것은 몸짓적인 텍스트의 다양한 영역과 상응하는 단순한 자연적 행동의 목록에 따르고 있는 그 가언을 공식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이러한 텍스트의 분할을 표현측면에서 최소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 표출단위로 허락하며, 그 조합조정의 최소단위는 몸짓적인 발화와 몸짓적인 담화 그 자체를 생산한다.

몸짓적인 것의 프락시스(Praxis)⁹⁷⁾

요약하기로 하자. 시각세계 상의 그리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의미상의 관찰로부터 출발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신체로 조사했으며, 계속해서 우선 무엇보다도 세계의 어떤 격상으로 고찰했다. 따라서 우리는 의미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시니피앙의 편차적 간극의 생산을 위한 모든 필요조건과 만나고 있는 이러한 유동성 때문에 그것을 복합 메커니즘처럼 독자적으로 고찰했다. 다음 단계는 자연세계 안에서 아종(亞種)으로(specifically)⁹⁸⁾ 아티클레이션이 되고 있는 인간의 차원을 도입하게 될지도 모른다.

97) praxis: 1. (일정한 목적을 위한 조직적)행동 1. (마르크스주의 철학에서, 세계 또는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행동. (역주)

98) Species: "specifically"는 "Species," 또는 "Subspecies"의 부사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생물 분류법상의 한 단위. 생물분류법은 다음과 같다. 즉, Kingdom(Regnum) 계(界), Division 문(門), Subdivision 아문(亞門), Class 강(綱), Subclass 아강(亞綱); 강(綱)과 목(目)의 사이. 곤충강을 무시(無翅) 아강과 유시(有翅) 아강으로 나누는 것 따위. Order 목(目), Family 과(科), Genus 속(屬), Species 종(種); 일반적으로 생물의 종류라고 하는 것이 이것에 해당한다. 종의 정의로서는 개체 사이에서 교배(交配)가 가능한 한 무리의 생물로서 더욱이 다른 생물군과는 생식적(生殖的)으로 격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반드시 이렇게 명쾌하게 선이 그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통 우리가 야외에서 보는 생물은 형태적으로 색채를 포함하여 종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비슷한 종이라도 일정한 차이가 있어서 두 종의 중간형이나 잡종이 생기는 일은 없으나, 그 중에는 암수 또는 개체 사이에 상당히 현저한 형태 차이가 있으면서도 서로 교배하여 자손을 남기는 종도 있다. 또, 매우 비슷하며 외견상으로는 거의 구별할 수 없지만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종도 있다. 종의 분화에는 지리적인 격리가 큰 요인이라고 생각되고 있으나, 지방적으로 분화하여 많은 아종(亞種)을 형성하며 두 극단적인 아종 사이에서는 종에 해당하는 분화를 나타내는 것도 있다. Subspecies 아종(亞種); 생물분류법상 종(種)의 하위단계로 동일한 종 중에서 주로 지역적으로 일정한 차이를 가지는 집단이 인정될 때에 사용된다(地方變異). 명명규약에서 다루는 최저 계급으로 아종을 나타내는 데는 삼명식 학명(三名式學名)을 사용하여 속명·종명·아종명의 순으로 기술한다. 아종명 다음에 명명자의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역주)

의미의 현존재

의미하고 있는 세계의 의미작용을 결정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어떤 사전(dictionary)을 참고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단어가 항상 단순화할 수 없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지시(referencing)로든지 또는 인외지시(direction)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이해된다. 첫 번째의 경우에, 그것은 두 가지 형태(초미-화술)의 이중노출(superposition)로, 즉 내용의 부호가 동등하게 형편에 따라서는 독단적으로 호칭된, 다른 부호로 되돌려 지시하는, 어떤 부호로 고찰된다. 두 번째 경우에, 그것은 지향성(intentionality)으로, 즉 감취진 여정계획과 그 마지막 관점 사이에 확립된 관계로 나타난다.

우리는 형태로서의 인간의 신체가 표현부호를 위한 받침기등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서의 조건과 만났다는 것을 고찰했다. 인위적 수기 신호적 무의미·단순 몸짓언명성은 자연언어가 지시적 내용의 밑에 깔려있는 부호로 존재하는 이러한 현상의 구체적인 예이다. 따라서 그것은 특별한 문화적 화맥으로 명각(銘刻)됨으로써, 강제의 체계로 변형된, 신체의 유동적 형태가 발신자의 부호로 함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자연적 무의미·단순 몸짓언명성은 부호화하고 있는 연역적 작용의 세트로 고찰되는 것이 합당하며, 커뮤니케이션의 축의 공명정당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창조자적(de jure if not de facto) 선행은 인식되어야 하고, 그리고 발신자-부호매김기(sender-encoder)와 수신자-부호매김기(receiver-encoder)가 반드시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⁹⁹⁾

그것은 의미의 두 번째 정의가 인간의 무의미·단순 몸짓언명성으로 적용될 때 약간 달라진다. 우리는 자연언어로 호칭된 것과 상응하는 복합적 자연적 행동이 “X가 Y를 잡고 있는(X grasping Y)”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의 관찰자(수신자의 정향을 떠맡고 있는)로 이해될 것이라는 것을 언급할 수 있다. 그것은 X의 행동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양 경우의 수신자가 여전히 발신자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몸짓으로

99) encoding: 부호매김기. 1. 정보이론에서, 부호매김기는 소정의 부호의 사용에 의해 메시지의 구성을 허락하는 작용의 세트를 지시한다. 2. 이 용어는 때때로 기호학에서 메시지의 발송으로 실행된 작용(그들을 일일이 상술하지 않고)을 일컫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작용의 복잡성은 언어행위의 개념과 언외발언의 개념으로 나타난다. (역주)

말하고 있는 연기자는 변화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즉 발신자는 주체(주사(主辭))¹⁰⁰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러한 용어법적 편차가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여전히 상술할 필요가 있다.

잡고 있다는 것을 기술함으로써, 우리는 변이의 강류(綱類)를 만들고 있는 이러한 행동의 대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 그 자체의 기술을 위해 필요하다고 진술하는 것을 빠뜨렸다. 그 대상은 이러한 유형의 무의미·단순 몸짓언명성의 밑에 깔려있는 귀속적인 타동성이 결국 밝혀지도록 만든다. 따라서 대상의 일련의 치환을 통해서, 그것은 상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1. X가 막대기를 잡다.
2. X가 바나나 송이를 잡다.
3. X가 물고기를 잡다.

가장 단순한 (1)의 경우, 만약 관찰자 쪽에서 이루어지는 무의미·단순 몸짓언명성의 의미에 대한 지각이 몸짓적인 기본발화의 부호해독으로부터 유래한다고 한다면, 그 상황은 다음의 경우보다 더 복잡할 것이다. 예를 들어, (2)의 경우, 자연적 몸짓의 연속은 내용 “잡는 것”과 상응할 수 있다. X는 바나나 나무의 꼭대기에 있는 바나나 송이를 주목할 것이며, 그는 그 나무에 접근하여 오르기 시작하고, 결국 바나나 송이를 잡는다. (3)의 경우, 작용이 물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물고기가 유동적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내용 “잡는 것”은 보다 더 명백하게 무질서하고 보다 더 복잡한 무의미·단순 몸짓언명성(gesticulation)으로 에워싸이게 될 것이다. 양 경우에, 화해시키고 있는 몸짓적인 일련의 발화는 주체의 처음의 정향과 최종의 정향 사이에 삽입될 것이다. (2)의 경우, 그것은 무의미·단순 몸짓언명성이 알고리즘적인 결합체(syntagm)의 형식을 얻게 될 것이며, 반면에 (3)의 경우, 그것은

100) “subject vs object”는 “주관 vs 객관,” “주체 vs 객체,” “주체 vs 대상,” 등으로 번역될 수 있으며, “subject”의 경우 “주사(主辭) vs 빈사(賓辭, predicate)”로 번역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레마스는 여기서 어느 한 가지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모두의 의미를 포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실천과 직접추론의 아티클레이션(화성학에서 음높이가 다른 여러 개의 음표를 이음줄로 묶은 것과 같은 기호사각형)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주체”와 “주사”의 의미가 보다 더 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역주)

전략적 결합체의 형식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만약 우리가 그러한 몸짓적인 결합체의 의미작용의 지위를 연구한다면, 관찰의 두 시리즈는 마음속에 닳을 내리게 될 것이다.

첫째, 모든 것은 그러한 결합체(나무를 향해 걷기, 오르기, 등등)를 통해서 발생하며, 그것은 우리가 고찰했던 자연적인 몸짓의 조합의 관점에서 의미를 도려내고, 일단 그들이 보다 큰 결합체로 통합되면, 탈의미화(판에 박힌 의미로부터의 이탈)되며 오로지 음소의 지위로만 남게 된다(예를 들어, 표현측면의 최소단위). 따라서 그것은 몸짓적인 결합체가 어떤 때는 서브프로그램(의미 없는 음절의 목록)으로, 또 어떤 때는 프로그램(1개 또는 몇 개의 음절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형태소-단어의 목록)으로 실현된, 이러한 단위의 조합으로 존재한다고 언급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의미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의미가 무의미·단순 몸짓언명성의 관찰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나거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다소간 우리를 이탈한다고까지 언급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기호학자들이 그들의 연구 분야(미국 기호학자들 속에 널리 알려진 경향)로부터 배척되고 있는 실제적 행동에서 얻게 되는, 그리고 전자(F. Rastier)와 대당이 됨으로써, 몸짓적인 프락시스 안에서 오로지 “암시적 행동”¹⁰¹⁾으로만 정의되고 있는 그들의 모든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향을 우리는 즉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어려움은 객관으로서의 자연언어의 의미론에 의지하지 않고서, 몸짓적인 텍스트를 의미작용의 결합체 그 자체만으로 분리해 내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가 관찰자-발신자의 레벨에 남아있는 한, 그리고 인간의 지각영역(그것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에 관여치 않는 한, 정말이지 극복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인간이 지향적으로 구성해나가는 의미작용의 주체로, 동시에 그 자신과 객관으로서의 인간세계를 위해 의미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고찰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발화(utterance)와 언의발언(enunciation)

처음에 실제적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몸에 옷을 입히는 기술과 마찬가지로 속

101) 랑가주에서의 F. Rastier의 연구 10(1968)과 “몸짓적인 커뮤니케이션,” 이 장을 보라.

관련 공장노동자의 몸짓)의 어떤 시퀀스가 자율적 무의미·단순 몸짓언명성의 레벨로 환원되기 전에, 한편 문화적 간극이 만들어지는 그들의 실제적 가능성이 증명되기 전에, 서툰 초보자의 솜씨로 전송된다는 사실은, 또한 탈의미의 현상을 확증하는 것이다. 이것은 언뜻 보기에 진기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비록 “어떤 사람이 넥타이를 매다”라고 하는 프로그램화된 결합체가 의미 없는 발화처럼 만들어진 것으로 고찰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문화적 화맥으로서의 총체로 획득된 목류 분할의 의미작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각적 메시지의 관찰자-수신자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가 무의미·단순 몸짓언명성의 병리학을 믿을 수 있다면, 프로그램 그 자체를 생산하고 있는 주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을 “어떤 사람이 넥타이를 매다”로의 실행이 불가능한 주체로 표현하는, 그렇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바지를 입다”로 표시하는 것이 아닌, 커뮤니케이션의 절차를 통해서, 그리고 프로그램을 자율적 “기호”로 주장하는 것의 절차를 통해서 내용측면으로 분할하는 것의 가능성을 배척하는, 운동신경장애의 형식이란 어떤 것인가? 몸짓적인 결합체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이러한 2분법이 언어학에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의식과 무의식 어느 것이든지 간에 그런 것은 우리가 알바 아니며, 소정의 몸짓적인 그 프로그램은 주체를 위해 경계가 확정된 의미작용의 큰 덩어리로 존재한다.

그 큰 덩어리는 의미작용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주체를 도입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외관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특이한 형식으로 고찰될 수 있는 몸짓적인 행동으로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어떤 문제가 많고 불확실한 특징을 위한 탐색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무의미·단순 몸짓언명성의 함수의 동정 상에 안주하는, 그리고 발생적 선천성이 기술적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과 일치하는, 오드리쿠르의 예에 따르고 있는 코크랭의 특별기호학적 분류(分級, classification)¹⁰²⁾도 마찬가지이다.

102) 분류(分級, classification): 1. 도태(淘汰)라고도 한다. 매체(물이나 공기 등)의 유속(流速)이 일정해서 퇴적작용이 천천히 진행된다면 분류가 잘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물·공기 등의 유체 속에서 중력에 의해 침강하는 고체 입자는 주위의 유체로부터 그 침강에 저항하는 힘을 받는다. 이 저항력과 중력과의 균형에 의해 정해지는 입자의 평형침강속도(침강종말속도)는 다른 조건이 같으면 입자의 크기(지름)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퇴적물은 자연히 입자의 크기나 모양별로 따로따로 형성된다. 이것이 분류의 원리이다. 이 원리는 가루나 알갱이를 다루는 광업·

발화의 주체와 언외발언의 주체 사이의 전통적 특징을 즉각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어학적 기호학의 레벨에서, 이러한 두 주체가 비록 근본적으로 편차가 있다고 할지라도(메시지 발신자로서의 화자는 커뮤니케이션의 변화과정의 비언어학적 목록에 속하기도 하고, 언어학적 담화의 목록에 속하면서도 언외지언의 주체[verbal subject]가 되기도 한다), “나는 걷고 있다(I am walking)”고 하는 유형의 발화로 융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그곳의 “나(I)”는 발화로서의 주체임과 동시에 언외발언으로서의 주체이다(우리가 지시대상의 문제를 배척하고 있는 순간에). 자연적 기호학에서, 두 주체는 여전히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남아있다. 몸짓적인 프락시스에서, 인간(man)은 발화의 주체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그(he)”로 존재한다. 그는 발화의 가동자(시행자) “나(I)”이며, 그의 행동을 만들고 있는 함수의 주체이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의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에서, 인간(man)은 언외발언의 주체이다. 그는 우리에게 “너(you)”이며, 그러나 필사적으로 발화를 생산하려고 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 자신을 위한 “나(I)”이다. 그러나 이제 두 주체는 표현의 동일부호로 정위되며,¹⁰³⁾ 그것은 그들이 2개의 형상으로 동시에 나타나는 현존재를 배척하는 결과로 귀착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몸짓적인 언어로 호칭될 수 있는 것의 약점은 언외발언의 주체와 발화의 주체 사이의 혼합주의의 불가능성으로부터 유래하는 것 같다. 몸짓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부호는 발화의 합성을 허락하지 못하고, 반면에 몸짓적인 프락시스는 오로지 실행(doing) 주체로서 만의 주체를 투기한다. 따라서 인위적 시각부호는 언어가 되기 위하여 모방적 기술의 절차를 통하여 발화를 만들고 있는 원소를 추출하여야만 하는 합성구성물이라는 것에 그리 놀라지 않아도 된다.

노트: enunciation(언외발언); 1. 함축적이거나 명백한 인식론적 전제이거나 하여간 어떤 것이든지 간에 따르고 있는 언외발언은 2개의 다른 방식으로 정의될 것이다. 즉, ① 언어학적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고 있는 비언어학적(지시적) 구조로든지, 또는 ② 발화의 바로 그 존재자에 의해 논리적으로 전제된 언어학적 영역(언외발언의 흔적 또는 유표를 담고 있는)으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말이다. 첫 번째의 경우, “커뮤니케이션의 상황,” 또는 “심리학적 화백”은 발화의 생산을 지시하는데 사용된다. 그러한 상황(또는 지시적 화백)은 발화생산의 실현화를 허락한다. 두 번째의 경우, 발화가 언외발언에 의해 달성된 결과로 고

요업·화학공업에서 원료 선별에 응용된다. 2. 기호학에서의 분류는 taxonomy와는 달리 상위의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결합체적(syntagmatic)인 것과 계열체적인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역주)

103) 이 장의 “몸짓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보라.

찰되기 때문에, 후자는 언어의 내포성이 담화의 발화가 되는 것에 의해, 변화과정을 보증하는 화해(중재)의 영역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의 정의에 의하면, 언외발언의 개념은 개인적으로 고찰된, 즉 은유나 상징 같은 파롤 행위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 정의에 의하면, 언외발언은 언어이론의 자율적 성분으로 고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언어학적 능력으로부터 언어학적 연기에 이르는, 내포적 기호학의 구조(아직 언어가 되지 못한 언외발언으로 실현된)로부터 담화의 형식 안에서 언어로 실현된 구조에 이르는 구조를 지배하는 그 추이 같은 것을 말한다. 우리는 두 번째 정의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영역을 기호학의 종합적 관점으로 통합할 수 있는 오로지 언외발언의 두 번째 개념으로만 진전하도록 제안하고 있는 기호학 이론과 모순되지 않기 때문이다.

2. 방브니스트(Emile Benveniste)는 언외발언의 최초의 공식을, 자연언어(소쉬르의 랑그)에 의해 담화로 변질된 변화과정으로 표명한다. 계열체적 체계로 고찰된 랑그와 파롤(엘름슬레우에 의해 결합체적인 체계로 해석된,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담화로 상술된) 사이에서, 사실 그것은 구조로 화해시키는 것으로 보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리고 그 랑그가 과학적 인식 밖에서 파롤(소쉬르의 파롤)의 무한히 많은 예로 흩어지는 결과 없이 개인적으로 폭을 넓히면서 떠맡을 수 있는 사회적 체계로 어떻게 존재하는가 상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브니스트의 혁신적인 그 공헌은, 그들의 모든 것이 주체의 의외의 재현을 강렬하게 만들고 있는, 그리고 강제의 집합체로서의 존재를 신뢰했던(또는 신뢰하지 못했던) 언어의 "의명적" 신개념의 역제를 허락하고 있는, 형이상학적 또는 정신분석학적 경향의 수많은 석의(釋義)를 제기했다. 사물을 보다 더 적당한 비율로 반환함으로써, 그것은, 다시 논쟁을 향하여 접근하는 것으로, 즉 소쉬르적인 전통의 보다 폭넓은 화맥으로, 통합하여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3. 만약 언외발언이 생산된 담화에 의해 화해의 영역으로 고찰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영역에 의해 화해된 어떤 것이라고 반드시 정의하려고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언외발언으로 선제하는 것을 구성하고 있는 내포적 구조란 무엇인가? 이러한 논쟁과 관련되고 있는 토론은 완전한 것과는 거리가 멀고, 획득된 그 정향은 언어의 기본적인 계열체적 성질(그것은 안정되고 있는 정향이며, 엄밀히 말해서, 어떤 정밀한 음운론을 위한 것이다)의 긍정을 포함하려고 전개되며, 그 랑그에 따르고 있는 엘름슬레우적인 신개념의 체계와 변화과정 둘 모두가 존재하고, 추스키적인 애티튜드(attitude, 발레에서 한 발을 뒤로 든 자세)는 언어학적 능력의 정수(精髓)를 문장의 구성물(계열체의 변두리로 볼 수 있는 언외발언을 단순한 알파벳으로, 즉 랑그로 환원함으로써)로 간파한다. 그것을 총체적 생성체도의 다양한 영역(일련의 단층으로 조직된)으로 고찰하도록 요청받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언외화자(enunciator)를 기호현상-화술적 구조가 존재하는 장소로 실현되도록 요청 받고 있는 기호학적 내포성의 장소로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것은 작용으로 실현됨으로써 언외발언의 주체에 대한 기호학적 언어능력을 만들고 있는 형식으로 존재한다.

4. 다른 한편, 만약 언외발언이, 기호학적 언어능력이 실행된 장소라고 한다면, 동시에 그것은 주체의(언외발언의) 확립영역으로 존재할 것이다. 아티클레이션 이전에, "나, 여기, 지금(ego hic et nunc)"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그 장소는 의미론적으로 지나치게 짝 차 있기는 하지만(의미의 저장소로서), 그러면서도 기호학적으로는 비어있다. 그것은 발화의 행위주와 존재하는 것이 없는 모든 사물에 의해 언외발언의 주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관자놀이-시공적인 동격자(同格者)의 행위주, 양측이, 이러한 영역 밖으로 내던져진 투기(projection, 이탈이라고 하는 명목 하에 결합된 변화과정과 함께 하는)이다. 그것은 존재(being)의 환영적인 지위를 주체로 기술하는 언외발언의 상상적인 장소를 숨기려고 기도된 동일 범주의 거부(우리가 양의연동이라고 하는 변화과정과 함께 하는)이다. 담화를 공간과 시간(space

and time)으로 설치할 수 있는, 언외화자보다 다른 주체와 거주하게 된, 변화과정의 세트는, 따라서 엄밀히 말해 우리를 위해 담화적인 언어능력을 구성한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세계의 격상 그리고 담화적인 형태(초미-화술)의 저장소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격아강적인 “실행노하우(knowing-how-to-do)”를 실현하는 언외발언의 주체에게 언어능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며, 팀의 폭넓은 의미 안에서 담화적 언어능력의 내용은 임시로 윤곽이 그려진다.

5. 일격에 환기될 수 있어야만 하는 현행연구의 불안한 상태에서, 언외발언의 메커니즘은, 우리가 진척시키고 있는 것을, 어떤 행위와 다른 행위 사이에서 언외발언을 만들고 있는 것을, 즉 지향성(intentionality)을 본질적인 특징으로 포함하지 못한다면 무익한 것으로 남아있을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의도(intention)의 개념을 거부하는데(“전달의 도”에 기초된 존재로서의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배경이 되려고 했던 어떤 것과 함께), 그 이유는, 그 중에서도 특히, 그것이 의미작용을 독단으로 의식차원으로 환원하기 때문이다(그렇다면 담화는 몽상이 되는지?). 우리는 차라리 세계의 환영으로, 즉 세계를 대상으로 구성하는 주체에 빛을 지고 있는 그래서 정위된 타동적 관계로 해석하고 있는 지향성으로 언급하기를 좋아한다. 따라서 언외발언이라고 하는 것을 정전(正典)으로 인정된 형식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향성”으로 호칭할 수 있는 것의 빈사-함수(predicate-function) 그리고 담화-발화라고 하는 것의 대상을 일괄적으로 발화로 존재하는 것으로 언급해야만 할 것이다.

6. 결국 우리는 언외발언을 추적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마지막 견해를 첨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행위로서의 언외발언은 기호현상의 산출효과를, 또는 더 좋게 상술된 효과를, 즉 우리가 표출로 호칭할 수 있는 기호학적 행위의 부단한 시퀀스를 갖고 있다. 여기서 의미작용의 행위는 축어화의 과정을 작동하도록 강제하는 표현의 실제(단일 차원적인 그리고 선형적인, 그러나 또한 두 차원적인 그리고 평면적인) 상에서의 속박을 포함한다. 그것은 언외청자(enunciatee)의 관점에서 고찰될 때 명백하며, 언외발언은 언외지시(direction)와 결과(proceeds), 무엇보다도 모든 일차원성의 배제와 대당적으로 작용한다.

7. 유감스러운 혼동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언외발언과 발화에 의해 논리적으로 전제된 것으로서의 존재자의 모드, 그리고 언외발언적 실행(doing)의 모방적 담화 안의 시물레이크럼으로만 존재하는 발음된(또는 보고된) 언외발언 사이에서 흔히 만나게 된다. 우리가 발음된 담화 안에서 만나게 된 “I(ego),” “here(hic),” 그리고 “now(nunc)”는 결코 주체, 공간(space), 또는 언외발언의 시간을 표현하지 않는다. 발음된 언외발언은 언외발언의 기술적(비과학적인 것을 통해서) 메타언어로 간주하는 발화의 아강(亞綱, sub-class)으로 고찰된다.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103~105. (역주)

인간세계

이와 같이 몸짓적인 것의 프락시스를 “자연적” 기호학의 영역으로 통합함으로써, 연구영역을 제한하고 동시에 확장한다. 인간세계가 “자연적” 세계의 총체성으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즉 각각의 문화적 사회집단으로 상술되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되고 있다. 주체로서의 인간을 가지고 있는 세계의 오로지 이러한 사건들만이 그러한 기호학을 분할한다. 즉 자연적 사건(예를 들어, 지진)은 배척된다. 또한 통합은 연구영역을 적지 않게 확장한다.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가 커뮤니케이션과 대당이 되고 있는 생산성을

제안하는 바로 이러한 투시도법으로 존재한다.¹⁰⁴ 그러한 절차적 그리고 해석적 접근이 결국 인간행동의 총체성으로 고찰됨으로써(비록 우리가 감각세계 안에서 그들의 시각적 표출에 대해 독단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제한될지라도), 기호학은 경제적-유기적 그리고 역사적 과학의 위치를 얻게 되는 것 같다. 몸짓적인 프로그램이 의미심장한 상태가 됨으로써, 기호학은 폭넓은 정의를 더 이상 피할 수 없고, 혼합된 이러한 프로그램 속에서, 몸짓적인 담화를 생산의 변화과정으로 고찰될 수 있는 매우 많은 지각반응운동적 실천(遲刻反應運動的 實踐, kinetic practice)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러한 실천이 세계를 변형시키고 있는 인간존재에 의해 시도됨으로써, 그리고 기호학이 이러한 변형을 기술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것은 인간세계의 역사적 차원으로 다룰 수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과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 사이의 간격을 충분히 깨닫고 있다. 인간과학 안에서 존재자로서의 이미 이러한 것들과 은유나 상징처럼 대치된 방법으로 제안된 것과 거리가 먼, 이러한 반성은 연구되고 있는 기호학의 이러한 “자연적” 차원의 문제가 많은 불확실성으로 폭이 넓혀진 것으로 주로 충당된다. 이렇게 해서 의미의 다양성과 복잡한 표출만이 이해되고, 해석되며, 기호학의 보편화된 이론으로 통합될 수 있다. 다른 모든 접근은 오로지 독단적으로, 화용론적으로, 그리고 몸짓 언어와 실천의 열거목록으로만 발생될 것이다.

실제적인 그리고 신화적인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

몸짓적인 결합체에 대해 언급하면서, 몸짓적인 프락시스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었고(몸짓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되었던 순간에, 그리고 이것은 섹션에서 다룰 것이다), 그것은 투기, 즉 평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조직된 동기를 생산하는 인간 자신의 신체의 사용을 포함했던 매우 폭넓은 의미로 획득되었다. 따라서 이렇게 보편화되고 프로그램화된 능동성 안에서, 특히 실제적인(practical)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은 대당이 될 수 있는 신화적(mythical)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과 구별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2개의 능동성, 즉 표현의 측면과 보편적인 바로 그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그 능동성

104) Julia Kristeva, "Le Geste, pratique ou communication?" *Langage* 10(1968): 119-27.

은, 그들 자체가 세계의 의미작용으로 분할한다. 그러나 첫눈에 그들은 지극히 복잡한 방식으로 실행한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자연적인 몸짓의 가능한 목록에 대해 언급할 때, 그들을 격상으로 환원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이 언외지언으로 기술될 때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모든 의미작용의 이러한 몸짓을 박탈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마치 “머리 숙이기”와 “곧게 세운 허리 구부리기”와 같은 동일 몸짓격상은 실제적 측면에서는 그저 “접어 구부리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신화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신화적 언외지의(connotation)¹⁰⁵⁾와 실제적 몸짓이 함께 있다고 하는 매우 보편적으로 받아들인 해석을 받아들이는 일 없이 그저 “인사”를 의미할 수 있다. 화맥에 따르고 있는 바로 그 몸짓 시니피앙은 실제적 몸짓결합체(예를 들어, 현지조사)로든지, 또는 신화적 결합체(춤추기)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혼합될 수 있다고 아주 쉽게 언급할 수 있다.

우리는 실행(doing)과 요망(wanting)의 2분법을 근거로 신화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의 편차를 증명하려고 했다. 따라서 실제적 능동성으로 획득된, 총체로서의 코끼리사냥은 신화적 능동성으로 고찰된 춤을 준비하고 있는 마을과 대당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실제적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을 지시하고 있는 모방적 결합체로 존재하는 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가 않다. 춤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과 의미의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있는 광경도 아니고, 객관적 실행으로서의 춤도 아니지만, 그러나 세계 그 자체를 변형시키고 있는 지향성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꿈속에서처럼 상징적 살인의 실행을 다룰 경우, 우리 모두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신화적 활동이 원인이 되어 갖게 된 단순한 결과로, 또는 이것이 문화의 메타기호학적 유형학 상에서 발견된 두 번째 해석적 변화과정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을 떠맡고 있는 그 주체를 위한 살인행위의 단순한 반영과 함께 나타나는 그 능동성을 위한 사냥의 실제적인 프로그램 상의 모델로 겹쳐놓는 것이지, 단순한 언외지의(connotation)로 존재하는 실천적인 것과 함께 신화적인 것의 논리적인 우선권(priority)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우선권의 문제는 기호학이 아무것도 없이 실행할 수 있는 두 대당의 형이상학적 애틀튜드의 현존재를 발생시킨다.

105) connotation: 언외지의(내포). verb: 언외지언. enunciation: 언외발언. (역주)

따라서 실제적 능동성의 단순한 언외지의(내포)가 아닌 신화적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은 커뮤니케이션적인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이든지, 또는 어떤 장소이든지 간에 획득할 수 있는 모방절차이든지, 하여간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잘못된 것이 아님에 틀림이 없다. 신화적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은 자율적(수사학적, 정신분열적) 기호학 측면을 만들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아니다. 고찰된 문화에 따라, 신화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의 두 측면은 몸짓적인 프락시스의 영역을 총체로서 공유한다. 반면에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마술적이거나 전례적인 알고리즘, 제의적이거나 의례적인, 담화인 것이 명백하다.

일단 이러한 2분법이 받아들여진 뒤, 우리는 신화적인 것이 실제적인 것 안에서 방산(放散)된, 또는 그 역으로 방산된, 혼합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의 형식으로서의 해석을 시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레벨에서, 친족구조의 기술, 부언해서 의례의 널리 알려진 신화적 화술구조는 실제적 행동 안 신화적 행동의 산만한 표출(관심의, 인식의, 권리의 간헐적인 표출)로 간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스티에는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달았다. 신화적인 것이 첨가된 현존재는 그들을 변형시키지 않고 그러면서도 실제적 행동의 프로그램을 굴절시키는 사회 또는 사회집단의 레벨에서 공리화된 내용의 구조로부터 압력이 가해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동시에 이것은 천천히 식사하는 것과 눈을 아래로 내려 까는 것으로 표현된 스탕달(Stendhal)의 소설에 등장하는 성직사회의 신앙심도 그것과 관련된 경우이다. 따라서 그것은 신화적인 것을 실제적인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 안에서 방산된 것으로 기술하는 것에 따르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그것이 의미하는 것으로 가정된 의미론적 부호에 대한 예비지식을 필요로 한다.

몸짓의 커뮤니케이션

처음에 우리가 2분법 “언외발언 vs 발화,” 그리고 발화 안에서 실제적인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과 신화적인 발화성을 구별함으로써, 모든 몸짓현상을 분류했던 기본적인 편차는, 이제 우리에게 상보적인 요소(factor)를 도입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언어”로서의 무의미·단순 몸짓언명성의 영역의 정돈을 시도할 것이다. 첫눈에, 이러한 영역은 안개가 낀 것처럼 몽

롱한데, 그 이유는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이거나 하여간 다양한 그 원소들(몸짓 기호와 결합체, 그리고 프로그램과 그들의 부호)이 나타날 때 흔히 마구 뒤섞여지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가 몸짓단위의 차원 상에서 이들을 분류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단위가 커뮤니케이션의 변화과정으로 혼합되고 통합될 때 어떻게 새로운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자율적 부호 또는 몸짓언어로 변형될 수 있는가, 시도하고 고찰할 것이다.

귀속적(歸屬的, attributive)¹⁰⁶⁾ 의미 · 복합 몸짓언명성

대부분의 기호학자들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아종으로 운명지어진 것으로 고찰하는 이러한 단위를 목록으로 만들고 있는 그 몸짓 목록의 상대적인 빈곤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빈곤이 커뮤니케이션의 발신자로 존재할 때 언외발언의 주체임과 동시에 발화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그 불가능성의 탓으로, 그렇게 편파적으로 고찰하려고 했었다.¹⁰⁷⁾

이제 우리는 그 내용이 인간 신체의 유동적 표출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부호 때문에 실제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의미작용 영역의 존재자를 인정함으로써, 언어학적 커뮤니케이션의 약점(반면에 그 가치를 변별적 기준으로

106)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 20. attribution(귀속); 자신보다 다른 실행(doing) 주체에 감사하고 있는 대상가치를 획득할 때, 격아강적인 레벨에 정위된 귀속은 주체의 상태발화의 정향과 상응한다. 따라서 화술궤도 안에서 어느 순간에 실행된 대상의 타동적 관계를 재현한다. 전유(專有, appropriation)와 함께 귀속은 획득 가능한 형식 중의 하나이며, 그것은 시련(시험)의 하위성분으로서 필연적인 귀결의 텀으로 고찰될지도 모른다.

Ibid., 15~16. appropriation(전유); 전유는 그것이 그 자신의 연기에 의해 대상가치를 획득할 때 격아강적인 레벨에 정위되며 상태발화주체의 정향의 성격을 만든다. 따라서 그것은 화술궤도의 어느 순간에 성취된 대상가치의 재귀적 관계와 상응한다. 귀속과 함께 전유는 획득의 두 형식 중의 하나이며, 그 결과, 그것은 시련(시험, test)의 하위성분으로 보일 수 있다. (역주)

변형 { 연언변형 (conjunctive transformation) = 실현화 (realization),
획득 (acquisition) { 재귀적 (reflexive), 전유 (appropriation)
{ 타동적 (transitive), 귀속 (attribution)
선언변형 (disjunctive transformation) = 내포화 (virtualization),
박탈 (deprivation) { 재귀적 (reflexive), 포기 (renunciation)
{ 타동적 (transitive), 강탈 (dispossession)

	획득(acquisition)	박탈(deprivation)	
시험(시련, test)	전유(appropriation)	강탈(dispossession)	
증여(gift)	귀속(attribution)	포기(renunciation)	(역주)

107) 이 장의 “발화와 언외발언”을 보라.

지키고 있는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에 대해 갖고 있는 우리의 견해를 어떤 무엇으로 약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의미작용의 영역은 보편적으로 기본적인 애티튜드(attitude)¹⁰⁸와 공포와 분노, 기쁨과 슬픔과 같은 내재상태로 지시되는 것을 떠맡는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다시 말해서, 의미의 첫 번째 정의에 따르고 있는 의미작용은, 다른 형태(초미-화술)로 지시됨으로써 함수 작용을 하고 있는 표현의 형태로, 즉 의미로 인간의 본성을 만들고 있는 내용의 그 형태로 단순하게 부호화된다. 그렇게 의미화 된 인간의 본성이 “동물의 정신”과 융합되는 것 같다고 하는 사실(츠포스키에 의하면, 언어능력이 작용하는 영역으로부터 지시적 부호를 배척하는 것) 외에, 존재자의 모드와 그 함수 작용은 우리에게 몸짓 커뮤니케이션 부호의 아종적인 자산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쳐준다.

시니피앙으로서의 인간의 신체는 형태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유동성은 주로 위상적인 간극을 창조하고 있는 것으로 고찰될 것이며, 이러한 동작의 분극(分極)은 내용의 병치적인 범주화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으로 추측되는 것이 보통이다. 내용의 측면에서 이것이 몸짓의 희생을 통하여(그리고 이것은, 예를 들어, Robert Cresswell은 왜 몸짓의 기동적 정향을 선택하고, 규범적 몸짓을 기술하는 동작을 선택하지 않았는가를 설명한다),¹⁰⁹ 보편적으로 애티튜드로 호칭된 것으로 가치가 안정된다고 하는 사실에 부연해서, 우리는 또한 커뮤니케이션적인 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의 성격을 만들고 있는 기호현상으로 고찰했었다. 이것은 표현측면에 속하는 격상소적 범주(phemic category)¹¹⁰와 내용측면의 의미소범주(semic category)¹¹¹ 사이의 상호관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상호관계는 독단성과 상수 두 가지 모두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거기에는 “열린 눈 vs 닫힌 눈” 사이의 관계, 그리고 마치 “책략(ruse) vs 천진난만함(innocence)”과 같은 의미론적 대당을 위한 “자연적” 지각이 없다(Rastier).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는 필연적이고 소정의 문화적 화맥 안에서 제한적이다.

108) attitude: 발레에서 한 발을 뒤로 든 자세. 즉 그 상태에서 정면을 주시하는 자세. 다시 말해서 환원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역주)

109) Robert Cresswell의 "Le Geste manuel associé au langage," *Langages* 10(1968): 65~7를 보라.

110) 몸짓 원소 간의 관계.

111) 의미작용의 편차.

그것은 그렇게 표현된 내용이 단어-프레이즈(word-phrases) 또는 감탄사로, 반드시 진술된다는 것을, 또한 그들이 그렇게 호칭된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다. 발화의 함축주체는 항상 언외발언의 주체로 존재하며(그는 세계에 대해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며, 그 자신을 독백으로 언급한다), 때문에(커뮤니케이션 안에서), 함축 언외지언(verb)은 실행의 일종이 아니라 존재(또는 내관, being)의 일종이며, 그렇게 형식화된 종합발화는 사실 귀속적인 것(attributive), 정성적인 것(qualitative)이지, 빈사적인 것(predicative)이 아니다. 따라서 발화(세계에 대한 발화, 또는 인간의 실행에 대한 발화)를 생산하는 커뮤니케이션적인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의 무능력과 관련하여 일찍이 언급되었던 것은, 이렇게 귀속적인 하부부호(subcode)의 존재자의 상태로 탄생된다.

노트: 이것은 직시적(deictic)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이며, 천성적으로 귀속적인 것이며, 또한 지각의 범주 속에서 분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양태적인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

표현의 범주와 내용의 범주 사이의 상호관계가 소정의 문화적인 텍스트 안에서 상수로 남아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내용에 관한 고찰로부터 시작하여 지향적으로 구성하면서 또는 환원하면서 커뮤니케이션적인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에 관한 우리의 고찰을 명백히 강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관례대로 표현측면에서 시작하여 분할하면서 어느 다른 기호학적 텍스트를 위한 경우가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파브리(Paolo Fabbri), 위트(Clelia Hutt), 그리고 라스티에에 의해 제안된, 다시 말해서 변화된 또는 과장된 데이터를 결합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할 수 있을는지 모르는 그 공통단자(common denominator)를 발견하려고 시도했던 내용으로부터 시작한다면, 그들 모두가 커뮤니케이션의 지위, 그리고 발화의 지위에 관하여 동의한다고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의 지위에 대해 언급할 것 같으면, 우리가 확립을, 지속을, 또는 인간존재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파기를 목표로 삼고 있는, 따라서 아종적인 지향성 때문에 다른 몸짓 프로그램과 편차가 있는, 몸짓적인 행동(어떤 때는 오로지 신체의 운동근육적인 함수로만 관련된, 또 어떤 때는 주위공간을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안에서, 고찰할 수 있는 것일 것이다. 이와 같이 분명히 정의된 커뮤니케이션의 언어학적 또는 비언어학적 유형은 그것을 확립하고 있는 객관적 조건들에 의지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대략적이며 예증적인 목록은 이것을 분명하게 해준다.

1. 비언어학적 커뮤니케이션의 발단(그리고 종결)을 연구한 의례적인 것들에 관한 탐구(Tatajana Tsivjan): 표현의 범주와 함께 인간의 접촉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는 이를테면 손아랫사람(inferior) vs 손아랫사람의 아랫사람(subordinate), 청년 vs 노인, 남자 vs 여자와 같은, 앉아있는 vs 서있는, 미소를 동반한 머리 숙임 vs 미소를 동반하지 않은 머리 숙임, 악수 vs 악수하지 않는 손과 같은, 사회적 내용의 범주의 상호관계로 설정된 완벽한 예를 제공하고 있는.

2. 인간내부의 공간의 개척을 다루고 있는 근접학(proxemics, Paolo Fabbri)¹¹²⁾에서의 미국인들의 연구: 범주 가까운 vs 먼, 화자의 신체에 대한 관계적인 정향 마주보고 vs 등을 대고, 또는 오른쪽 측면 vs 왼쪽 사선(또한 춤추기의 기술과 관계된 동일 문제에 관한 Proca-Ciortea 그리고 Giurchescu의 연구)은, 마치 커뮤니케이션의 수용 vs 거부, 또는 시작된 또는 계속된 커뮤니케이션에서의 행복감 vs 불쾌감과 같은 내용에 관한 범주와 함께 상호관계로 설정된다.

3. 위트¹¹³⁾에 의해 실행된 탐구: 그는 커뮤니케이션 또는 이해의 욕망 vs 거절과 함께 상호관계 안에서, 마치 신체 동작의 전망성 vs 회고성, 손짓의 개방 vs 폐포와 같은 표현범주의 존재자(공간의 위상적인 구조에 부연해서)를 증명했다.

야콥슨(Roman Jakobson)에 의하면, 발화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동의 vs 거절, 확신 vs 의심, 놀람 vs 책략과 같은, 그리고 언어학적 기호학 안에서, 문법적 레벨에서, 그들의 표출을 획득하지 못한, 발화에 대해 만들어질 수 있는 판단의 양태성의 세트를 의미한다. 오로지 양태범주만이 파롤 또는 모방적 목류의 보편적인 발화의 조력 없이 함수 작용을 하는, 보편적인 초미부호를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 대해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야콥슨에 의해 연구된 부정 vs 주장의 초미부호를 위한 경우이지만, 또한 동일한 범주 상에서 발견된 그러나 사실 다르게 형식화된,

112) Paolo Fabbri, "Considération sur la proxémique," Langage 10(1968); 65~75를 보라.

113) Clelia Hutt, "Dictionnaire du langage gestuel chez les trappistes," Langages 10(1968); 107~118을 보라.

교통결찰의 초미부호 “금지된 vs 허가된”을 위한 경우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그들의 사용은 커뮤니케이션이 기왕에 확립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화자가 교체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게다가 그것은 또한 화자의 어떤 것이 다른 것에 의해 형식화된 발화를 거절하기도 하고 수용하기도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앞의 검토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낸다. 흔히 지각차원에서 분류되고 있는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Cresswell)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된 “부수의 몸짓 vs 치환의 몸짓,” 즉 그 이원성은 타당하지가 않은 것 같다. 사실, 우리가 방금 윤곽을 그렸던 커뮤니케이션적인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의 유형(크레스웰에 의하면, 교체될 수 있는)은 가능성이 매우 많은 복합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중의 하나를, 가능성이 매우 많은 몸짓적인 실천 중의 하나를, 정확하게 표현한다. 그렇게 프로그램화된 화맥을 이끌어냄으로써, 수용 또는 거절을 의미하는 대신에, 양태범주는 귀찮은 날 파리들을 쫓아버리고 있는 주체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의 개념을 제공하며, 반면에 근접학적(proxemics) 범주는, 애들이 그들의 요구를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춤추기도 아닌, 참을 수 없어 동동 구르는 발을 생각나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른 한편, 언어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고찰된, 그리고 그것과 교체될 수 없는 몸짓이 언급된 화맥으로부터 예를 들어 팬터마임으로 이전되고 통합될 때, 우리는 모든 의미작용을 상실한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분급(分級, classification)의 기준으로 제안된 치환의 절차는 의미의 의식적인 판단의 개념에 의지하며, 그것이 기호학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프로그램화된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에 관해 말할 것 같으면, 우리는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이 곧 언외발언의 목류이며, 사실 발화가 그 언외발언이 전제된 텀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동시에 언외발언의 주체는 몸짓적인 발화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의 형식은 자주적으로 발생할 수 없으며, 전송되는 것으로 가정된 내용이 다른 기호학적 형식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한에 있어서는 자율적으로도 발생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은 오로지 자연언어로만, 또는 다소 인위적 자연부호로 존재할 수 있을 뿐이다.

모방적(mimetic)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

포괄적이고 자율적인 것으로 존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기호학적 부호를 형성하는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의 기본적인 무능력은 그들의 표출이 다른 모방적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으로 시도될 때 다시 크게 부각된다. 이 점에서 우리는 언외발언의 그 무능력을 관찰자-수신자에게 전송하려고 하는 그 목표와 함께 내용의 어떤 몸짓적인 표출을 야기하고 있음을 말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첫 번째의 정의는 지극히 애매하기 때문에 모방적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의 아종적인 기호학 상에서 반영으로 정체되지 않으면 안 된다.

1. 커뮤니케이션의 내용 또는 대상은 어의소의 차원이다. 그들은 명사(pistol, 권총)가 되든지 또는 함수(to asperse, 성수를 뿌리다)가 될 수 있다.

2. 내용이 몸짓으로 부호화되기 위하여, 그들은 그들 표현의 레벨에서 채택된다. 그것은 치환된 기호 "pistol," 또는 기호 "to asperse"가 아니라, 단지 그 시니피앙일 뿐이다(Rastier).¹¹⁴⁾

3. 몸짓적인 치환(transposition)은 기왕에 기호로 아티클레이션이 되었던 권리상(de jure) 또는 사실상(de facto)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기호학의 존재자를 전제한다. 이러한 치환은 "자연적" 기호(이것은 라스티에 의해 제공된 권총의 예의 경우이다)로부터 시발하는, 또는 비커뮤니케이션적인 몸짓 실천(위트에 의해 인용된 세례의 신화적인 몸짓)으로부터 시발하는 위치를 획득할 수 있다.

4. 원칙적으로, 치환은 표현의 실체(음성학적)의 레벨에서가 아니라, 형식(음운론적)의 레벨에서 위치를 획득하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기본적인 격상(권총의 방아쇠를 당기기 위한 집게손가락, 크레스웰의 주자를 지시하는 가늘고 긴 선)으로 환원하며, 그 화맥(세례식의 경우 매개적인 그리고 신화적인 프로그램의 부채)으로부터 나타나는 기본적인 몸짓을 획득한다.

5. 시니피앙의 증명사(中名辭, 또는 매개념, means)¹¹⁵⁾를 통해, 치환은 기호를 인간의 신체와 동정하는 것으로 귀착한다. 동시에 전제된 그 기호는 언외발언의 주체가 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오로지 귀속적인 발화만을 생산할 수 있고, 발화의 아티클레이션으로, 다시 말해서, 즉각 그리고 동시에 기호와 통

114) "pistol=?" 또는 기호 "to asperse=?"를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역주)

115) mean: 매개념 또는 증명사(中名辭); 3단논법의 대(大), 소(小)의 양전체의 속에 포함되어 양전체를 관계짓고 결론을 성립시는 개념으로서 M이라는 부호로 나타낸다. (역주)

사론이 되는 것으로 기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모방적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의 자율성의 부재는 항상 불연속적인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인위적인 부호(예를 들어, 묵언 수도사들의 부호, 또는 팬터마임)와 함께 자연언어를 동반하거나 통합하든지 하는 것으로 발견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정의를 채택할 수 있고, 언급할 수 있으며, 사실 모방적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은 내용의 레벨에서 어의소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표현의 측면에서 격상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 몸짓적인 기호의 목록으로 단순하게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기호들은 유체와 함께 있기 전에 느낌으로만 지각할 수 있는 실체로부터 인간 신체의 몸짓적인 실체로 획득된 시니피앙의 치환에 의해 얻게 된다.

첫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로부터 보이는 실체로의 치환은 필시 다수의 이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주의 깊은 분석을 방해하지 못한다. 이것은 자연언어 “걷다(it walks)”로서의 발화를 동반하고 있는 몸짓의 충실한 어조(rotundity)라고 했던 크레스웰에 의해 인용된 예와 함께 하는 경우이다. 그가 이것에 부여한 해석은 우리가 방금 부여했던 정의를 예증하는데 조력을 줄 것이다.

여기서 동일한 내용, 즉 주체의 확실한 애티튜드는 2개의 다른 격상으로 표출된다. 다시 말해서 한편으로는 행보의 핵심적인 선형 프로그램(linear program),¹¹⁶⁾ 다른 한편으로는 표현의 격상, 즉 유동적이며 충실한 어조, 아마 수

116) 한국브리태니커회사, 1999: 1. 선형 방정식(線形方程式, linear equation): 상수와 1차인 변수의 곱으로 된 각 항들의 합인 1차다항식이 0으로 주어진 식. 특히 n개의 변수를 갖는 1차방정식은 $a_0+a_1x_1+\dots+a_nx_n=0$ 으로 표현되며, 이때 x_1,\dots, x_n 은 변수이고 a_0,\dots, a_n 은 계수(scalar)이다. 1개 이상의 변수를 갖는 방정식은 선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방정식 $x+y=3$ 은 x 와 y 에 대해 선형이지만, $x+y^2=0$ 은 x 에 대해서는 선형이나 y 에 대해서는 아니다. 2개의 변수 모두에 대해 선형인 방정식은 데카르트 좌표계에서 직선이며, 상수항이 없으면 원점을 통과한다. 공통해를 갖는 방정식들의 집합을 연립방정식이라 한다. 예를 들어 연립 방정식 $2x-y=1, x+2y=8$ 은 공통해로 $x=2, y=3$ 을 갖게 되며, 점 (2, 3)은 두 방정식이 나타내는 두 직선의 교점이다(→ 크라머 법칙). 선형 미분방정식은 종속변수와 그 도함수에 대해 1차이며, 간단한 예로 $dy/dx+Py=Q$ 에서 P 와 Q 는 상수이거나 독립변수 x 의 함수이지만, 종속변수 y 를 포함하지 않는다. 2. 리니어 모터(linear motor): 재래식 모터와 같이 회전이 아니라 직선으로 움직이도록 전기를 사용하는 동력원. 지상의 고속 수송차량에 유용하다. 철도차량에서 이용했던 한 형태에서는 연속된 정상전도체(定常傳導體 stationary conductor)가 노반(路盤)에 고정되고, 2중고정자(二重固定子)는 정상전도체 위에 놓인 차량 중앙의 바퀴 사이에 매달려 있다. 전기 에너지는 차량에서 발전하거나 트롤리(trolley: 공중에 가설되어 있는 전기가 흐르는 가설선으로부터 전기를 얻기 위해 가설선과 접촉해 구르면서 이동하는 쇠)를 선로와 나란한 가설선과 접촉시켜 얻는다. 이 에너지를 2중고정자에 공급하여 앞으로 나가게 한다. 리니어 모터는 벨트컨베

례의 전륜(轉輪) 또는 움직이는 기계의 격아강적인 환원을 표상하고 있는 내용의 격상을 말하는, 바로 이러한 2개의 격상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비록 그것이 우리가 사전에 관찰했던 2개의 격상임에 틀림없다고 할지라도(자연세계의 표현의 격상은 자연언어의 내용의 격상과 상응하고, 몸짓적인 치환은 표현의[격상의] 형식의 레벨에서 위치를 획득하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실체의 레벨에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예는 모방적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을 단순하게 강조하는 것이며, 비록 과를 동반한 그것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후자의 단순한 예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격상들은 항상 자연언어의 내용의 이것과 함께 동일구조가 될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모방적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은 어떤 시각 기호학이 다른 시각 기호학으로 치환되는 것과 실제적으로 상응한다.

두 번째의 예도 다시 크레스웰로부터 인용된 것인데, 어떤 것의 구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화자는 선형적인, 빈약한, 그러면서도 유동적인 격상을 표상하고 있는 몸짓과 함께 그의 언어학적 고찰을 동반한다. 체육선생인 화자의 지위를 참고하면서, 크레스웰은 다른 방식으로 표출된 이러한 2개의 동일 내용 사이의 중재가 실루엣에 의지하는 주자의 시각적 이미지를 꿰뚫어 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용어법으로 볼 때 오로지 격아강적인 환원뿐이라고 정확하게 언급한다. 이러한 예가 설사 앞의 예와 동일한 해석을 하는데 조력이 된다고 할지라도(우리에게 언급되는 것이 어려울지도 모르는 편차, 언뜻 보아, 만들어질는지 모르는 어의소 “구성” 내용의 격상[예를 들어, 우리는 위트에 의해 연구된 부호 안에서 내용 “신(god)”이 몸짓으로 전치되기 전에 격상 트라이앵글의 증명사에 의해 생생하게 마음속에 그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표현의 레벨에서 기호의 내용과 격상 사이의 어떤 문체론적 간격의 존재자를 지적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재적이며 문체론적인 것은 몸짓의 동반을 단념할 때 적나라하게 열린 눈 속에 나타나며, 그때 우리는 인위적 기호 상에 주의를 집중하기 시작한다. 인위적 부호로서의 “합성어(composite words)”의 형성을 분석함으로써, 위트는 꿀벌의 예를 인용하는데, 그것의 내용은 격상 “날개(wing)”와 격상 “감미로운(sweet)”이라고 하는 표현의 두 격상에 의해 표출된다. 첫 번째의 격

이어, 방직기의 북, 그리고 선형운동하는 다른 장치를 구동시킨다. 전자기 펄프에는 고체전도체 대신 액체금속과 같은 전도유체를 사용한 리니어 모터가 있고, 전도유체에 작용하는 힘으로 펄프작용을 한다. (역주)

상이 형식을 갖게 되는 그 순간에, 그것은 내용 날개로부터 날고 있는 내용으로 넘어가며, 반면에 두 번째 격상은 감미로운 대상의 자산으로서의, 즉 내용 벌꿀(honey)을 얻게 된 내용 단맛(sweetness)을 이탈함으로써 매우 복잡한 궤도를 획득한다. 감미로운 대상의, 즉 벌꿀의 강류의 주체는 날고 있는 것의 관습적인 기질(habit)의 결과로 고찰된다. 그것은 격상 “감미로운”이 첫 번째 격상에 의해 의미가 만들어진 비상(fly)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강류를 아종으로 분할하고 있는 결정요인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로만 존재하며, 따라서 정전(正典)으로 인정된 그 형식 안에서 속(genus)과 종(species)에 의해 풀벌의 정의가 만들어진다.

만약 우리가 2개의 몸짓적인 격상의 교차에 의해 행해진 의미론적 궤도를 상상하는 순간에 중단했다면, ① 그것은 몸짓적인 텍스트, 즉 모든 격야강적인 표출을 아종으로 분할하는, 예를 들어, 팬터마임을 시적인 언어로 연결하는 절차를 생산함으로써 연기가 시작되는 절차의 복잡성을 보여주었을 것이며, ② 그러나 또한 그것은 논증할 수 있는 의미론적 전칭명제의 부재 때문에 격상의 단순한 선형적 주연(distribution)으로 환원된, 매우 기본적인 시각적 통사론과 조우한 그 어려움을 배경음악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이러한 투시도 법으로 보면, 이것은 프로이트(Sigmund Freud)에 의해 기술된 그리고 방브니스트에 의해 분석된 꿈의 통사론과 비교할 만하다.

유희적인(ludic) 유의미 · 복합 몸짓언명성

지금까지 우리는 몸짓적인 부호의 증명사에 의해 만들어진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의 관점에서부터 유의미 · 복합 몸짓언명성을 고찰하려고 했다. 그런 방식으로, 서로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는 몸짓적인 단위의 두 유형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즉 어떤 것은 격상소 또는 의미소의 목류가 되고, 반면에 다른 것은 음소(phonemes) 또는 어의소(sememes)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발화 또는 몸짓적인 담화, 즉 몸짓적인 프락시스를 검토할 때 나타난 존재자의 변화과정 안에서 보다 큰 단위로의 통합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마치 “신성한 vs 유희적인 vs 심미적인”과 같은 매우 보편적인 범주의 앞의 기호학적 정의를 문제 안에 삽입하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몸짓적인 기호

학이 아니지만 자연언어의 레벨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시적인 언어가 신성한 언어와 대당이 될 때, 또는 보다 더 간단히 말해서, 마치 익살 또는 크로스워드와 같은 유희적인 현상과 대당이 될 때, 발생한다. 이러한 범주는 내재적인 것과 상호문화적인 것으로 존재하는 유형학에 의지한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범주를 데이터(그들은 명백하기 때문이며, 또는 그들은 보편적인 기호학이론의 프레임 안에서 기왕에 정의되었기 때문이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때 그것은 소위 원시의 태고 사회에서 실행된 춤 안에서 신성한 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의, 발레 안에서 심미적인 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의, 그리고 끝으로 민속춤 안에서 유희적인 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의 표출을 쉽게 보여주게 될지도 모를 것이다.

공생적 고찰은 이러한 어떤 무엇을 분명하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신성한 춤을 신화적 몸짓 실천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했다. 곡예행위로 나타나는 이러한 신화적 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의 또 다른 형식은 서커스 활동의 프레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동물세계의 현존재와 길들이기의 화술적인 시퀀스는 신화적 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의 이러한 형식을 우리가 상징적 살인의 신화적 절차로, 다시 말해서, 아직도 현대에 살아남아있는 원시의 태고세계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고 있다. 그러한 화맥 안에서, 민속춤은 민담이 신화적 화술(話術, narrative)과의 관계로 행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기원적으로 신화적인 모든 프로그램화된 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이 “어의소(sememe)/음소(phoneme)”의 차원을 초월하고 있는 가언의 형식화를 이끌어낸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커뮤니케이션의 축 상에서의 이렇게 프로그램화된 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은 발화의 행위적 치환이며, 암암리에 신화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몸짓적인 프로그램이다. 기호학적 이원성은 선형적 아프리오리로서의 분급(分級, classification)을 결합하는데 조력을 줄 것이다. (아래의 도표를 보라)

신성한(sacred)	유희적인(ludic)	심미적인(aesthetic)
비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과 비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신화적인 프락시스	예를 들어, 민속춤	예를 들어, 발레

이제 우리는 최초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그리고 표현된 내용을 변형하지 않는 몸짓적인 프락시스로서의 발레가 “원시의 태고적인” 춤과 대당이 된다고 언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커뮤니케이션의 의도가 없는 몸짓적인 프락시스이며, 표현된 내용을 의도적으로 변형하려고 하는 프락시스이다. 민속춤은 관찰자를 위한 그리고 참여자를 위한 명백한 커뮤니케이션으로, 그리고 암암리에 신화적인 실행으로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는, 매개적인 정향을 전유한다. 그것은 해석될 수 있는 가톨릭교회의 전례적인 개혁으로서의 이러한 프레임 안에도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신화적인 실행으로서의 집합적인 참여의 매개적인 지위를 재확인함으로써, 순수 광경이었던 그 미사를 의도적으로 변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신화적 실행(그리고 실제적 실행이 아닌)의 치환 단위인 유희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단위에 따르고 있는 가언을 후원하는 것은, 자연적 또는 실제적 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의 기준과 비교될 때, 그러한 광경이 무의미·단순 몸짓언명성의 간극과 왜곡을 가지고 있는 기왕에 자주 주목되었던 그 사실로 존재한다. “자연적인 것”과 비교하여 문체론적 간극을 만들고 있는 존재로서의, 곡예뿐만 아니라, 어떤 심미적인 발레 또는 민속춤으로 고찰되는, 그것은 그들이 비록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탈의미화될는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신화적인 발화 안에 나타난 “문화적인 것”의 보통의 표출로 관측하도록 보다 단순하게 만들어질지도 모른다.

발화와 몸짓적인 프로그램의 의미에 관한 전에 제기되었던 보편적인 문제가 지금 다시 한번 제기된다. 나중에 기호현상의 이중적으로 분할하는 그 지위를 재검토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민속춤의 해석을 다루고 있을 때 그 문제가 어떻게 진술될 수 있는가 진술하는 그 순간으로 충분하다. 제한적인 방식으로, 조우하게 된 어려움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2개의 접근은 이제 지각될 수 있다.

단순한 가언으로서의 이러한 접근의 첫 번째는 언어학적 담화의 화술구조와 비교할만한 조직된 몸짓적인 담화의 존재자를 인식하는 것으로 존재할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러한 몸짓적인 담화는 비록 그것이 의미론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리고 보편적인 몸짓적인 담화의 이해를 위한 보편적인 프레임으로 제공될 수 있는, 즉 형식적인 것일지라도, 복합적이고 가변적인 형식

적 모델로 환원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민속춤의 형식적인 기술에 관해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의 국제적인 팀에 의해 채택되었던 통로이다. 물론 기술 그 자체만이라고 하는 한에 있어서는 의미론적 해석으로 추구된다. 따라서 폴 뷔삭(Paul Bouissac)에 의해 기도된 곡예행위의 기술은 도출될 민담의 이것과 비교될만한 화술적인 결합체를 기대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두 번째 접근은 암시적이며 신화적인 부호를 이해하는데 조력을 줄 수 있는 그들 상호관계의 내용에 관한 동정의 정도를 찾아내는, 절차의 좀 더 좋은 계열체적 유형을 사용하고 있는, 이 장 안에서 일찍이 토론했던 커뮤니케이션의 지위와 관계된 양태범주를 분석하게 될지도 모른다. “음소/어의소” 유형의 단위의 레벨에서, 그것은 무용소(舞踊素, *danceme*)로서의 이렇게 특별한 경우로 지시될 수도 있을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가언이 몸짓적인 표현의 격상과 언어학적 내용의 격상 사이의 병치론과 관련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자문할 수도 있으며, 그 모든 경계심을 필연적으로 갖게 된 뒤에, 또한 우리는 그들을 암시적인 내용과 동정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언제나 가능할 수 있는, 즉 몸짓적인 발화를 만들고 있는 원소의 탈의미화와 관련된 앞에서 제기되었던 이론적인 문제가 남아있다. 발레에서 심미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는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에 대해 말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서도 모방적 시퀀스를 만들었던 합성적이며 인위적인 부호의 성질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특히 광경이 언의발언의 주체, 즉 안무가에 의해 생산된 발화를 전체성 안에만 오로지 존재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신화적 담화의 “탈신성화”가 몸짓적인 발화의 탈의미화를 일으키지 못했는지 일으켰는지 그 여부를 자문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심미적인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은 의미하고 있는 담화의 화술적인 형식만을 남겨 놓고 떠난다.

몸짓적인 커뮤니케이션

이제 방금 우리는 제한된 수의 구조적 기준과 의미론적 범주를 사용하고 있는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의 보편적인 관찰을 실행했다. 그렇게 실행함으로써,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우리자신을 아종으로 제한함으로써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의 다양한 형식을 조사했다. 우선 우리는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의 두 유형을 동일목록으로 인정했다.

제2장 자연세계의 기호학에 대하여

1.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과
2. 치환의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

범주 “시니피에/시니피앙”의 상호관계에 의해 정의된 기호학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유형의 첫 번째는, 형식화 진행 발화의 또는 유형의 전조(轉調) 진행 발화의 통사론적 가능성에 따라 세분될 수 있다.

- a. 귀속적인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과
- b. 양태적인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

그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의 두 번째 유형은 오로지 시니피앙의 치환절차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의 함의로만 조사될 수 있을 것이며, 계속해서 치환될 수 있는 단위(기호 또는 발화)의 차원에 따라 세분될 수 있다.

- a. 모방적(mimetic)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과
- b. 유희적인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

가언적이고 독단적인 성질을 결정함으로써 얻게 된,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의 이러한 최후의 강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현 상태로서는 불가피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오직 기호학적 정의상에서만 발견된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의 형식의 본질적인 분급(分級, classification)을 성취하려고 시도하는, 우리의 투기의 보편적인 진의를 지나치게 멋대로 주물럭거리지 않는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또한 몸짓적인 현상을 납득할만하게 고찰하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불가능성을 지적하려고 시도했다. 비록 그들이 동일목류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범주와 몸짓적인 단위들은 자율적이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 그들이 귀속적으로 그리고 양태적으로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객관적 내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언어학적 체계와 비교될만한 의미작용의 체계로 구성되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실제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부호로 사용되는 한에

있어서는, 그들의 극단의 약점 때문에 단순히 언어학적 커뮤니케이션의 어슴푸레한 반영으로 존재하는 인위적 부호의 합성(모방적인 것과 유희적인 것)으로 그들 자신을 이끌어낸다. 역으로, 그들이 신화적 내용의 커뮤니케이션의 부호로 구성될 때, 몸짓적인 형식은 언어학적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물러나며, 함수의 출현으로 인하여, 그리고 언급의 목류든지 또는 실행의 목류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 발생하는, 모든 담화를 조절하는 화술적인 조직 원리로 인하여 새로운 언행일치의 성질을 띠게 된다.

기호현상(semiosis)

앞에서 실행한 반영은 그 방식이 부분적으로 명백했는데, 그 이유는 처음에 나타났던 것이 방금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혼동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최종 단계에서, 이제 그것은 분석의 그리고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에 관한 기술의 조건을 연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만약 양측이 의미작용세계 이전의 현존재로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을 정의할 수 있는 기호현상 성질상의 아프리오리로서의 연구에 종속된다면 말이다. 만약 처음에 우리가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의 특별한 지위에 대하여 질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로지 방법론적 모델의 치환만을 도구로 삼을 위험과 직면하게 될 것이며(예를 들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델), 그들의 적절성에 대해 결국 부정적인 결과로 끝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제한된 그리고 두 번째로서의 현상으로만 존재했던 최상의 경우의 몸짓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조사했을 때, 그 부정적 결과는 몸짓적인 프락시스의 상상할 수 있는 전체 발화자료체에 의해 얼싸안긴 의미론적 세계와는 결코 비교될 수 없을 것이다.

텍스트의 생산과 표출

우리가 기호현상의 레벨에서 몸짓적인 텍스트의 분석이 가능하다고 상상하려고 할 때, 그것은 잘 알려진 것과 음운론적 기술의 분석이 끝난 것을 적용하도록 유혹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을 언어의 표현측면으로 고찰하게 될 것이다. 코크랭은 이렇게 하도록 권유한 뒤 곧 우리가 발성의 프로그램을, 음소-몸짓을 생산하는 인간신체의 복합작용으로 해

석하는 분석의 모델로 사용도록 제안한다. 그리고 역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격상소적 구조를 동일 목류로 인정하도록 제안한다. 비록 우리가 이러한 추론의 도정을 대체적으로 정확하다고 인정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코크랭이 최종결론으로 밀고나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발성기관의 프로그램화된 근육신축적인 기능이 인간유기체의 프로그램화된 무의미·단순 몸짓언명성과 비교될만하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또한 우리는 그들이 동일한 관자놀이-공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들이 같은 방식으로 관자놀이-공간적 관계의 네트워크로 나타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두 무의미·단순 몸짓언명성의 프로그램의 결과가 비교되자마자(음소로 아티클레이션이 된 연속발언의 생산과 함께 하는 첫 번째의 경우든지, 또는 몸짓으로 분열하려고 하는 몸짓적인 시퀀스의 생산과 함께 하는 두 번째의 경우든지, 하여간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그 편차가 분명하게 고찰될 수 있다. 그러한 동일함은 발언주체의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음악의 분석할 수 있는 시퀀스를 생산하고 있는 피아노 연주자의 몸짓적인 프로그램에서도 진실로 통한다. 양 경우에, 두 몸짓적인 프로그램(발성적인 그리고 음악적인)은 어떤 감각목류의 시니피앙이 다른 것으로 치환되는 것으로, 즉 시각의 목류가 음향의 목류로 치환되는 것으로 귀착한다. 이러한 두 경우, 표현의 관점에서 보면, 표현실체의 독자적인 관계의 형태(초미-화술)로서의 두 시니피앙(시각적인 음향적인)은 비교될만하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는 동치로 고찰될 수 있다고 언급할 가능성까지도 있다. 그러나 어떤 치환이라도 표출 프로그램과 표출 시퀀스가 동시에 존재하는 기호학적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으로는 위치를 결코 획득하지 못한다.¹¹⁷⁾

117)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p. 295~296. sequence(시퀀스): 1. 화술적 기호학에서, 그것은 분할절차에 의해 얻게 된, 따라서 심층레벨에 정위된 결합체로부터 그것을 분별하고 있는, 텍스트적인 단위를 지시하는 텀 시퀀스를 쟁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시퀀스의 불연속적 속성은 그 한계를 결정하는 것에 기여하고 있는 한계설정자의 현존재에 의해 보증된다. 선행하는 그리고 추종하는 시퀀스와 비교하는 것은 형식적인 특성으로든지 또는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의미론적 성격으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인식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대조적인 선언을 확립할 가능성을 만든다. 첫 번째의 경우, 이것은 기술적인, 대화적인, 화술적인 시퀀스 등을, 두 번째의 경우는, “걷기(a walk),” “춤(a dance),” “사냥(a hunt),” “꿈(a dream)”과 같은 시퀀스를 분별하는 것으로 행해진다. 첫 번째 유형의 명사는 담화적인 단위의 유형학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두 번째 유형의 단위는 연구되고 있는 담화의 보편적인 절약의 개념을 부여하는데 조력이 되고 있는 주제적 성질의 근사한 요약으로 주어진다. 3. 시퀀스는 보다 작은 텍스트적인 단위로 세분되며(아티클레이션), 따라서 내재조직의 존재자를 폭로한다. 그러한 문(門, division)의 목표는 문장 또는 단락으로 아티클레이션이 되는 것과 필연적으로 상응하지 않을 것의 차원 바로 그러한 담화 단위의 동정(同定)이지만, 그것

예를 들어, 그것은 음성 텍스트의 발생구조를 시험할 때, 선형적 발생프로그램의 의미가 발생된 음소와 음절인 바로 이러한 발생적인 대상의 구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전체 궤도에 속한 시퀀스와 병존(concomitance)을 총괄하여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러한 발생적인 투기에 의해 통제된다는 것을,¹¹⁸⁾ 주장한다. 역으로, 관찰할 수 있는 몸짓 시퀀스(기호학적 텍스트와 같은)는 음운론적인 투기 없이 오로지 표현된 프로그램으로만 존재한다.

치환을 통해서 표현의 새로운 목류를 확립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어떤 아종으로 분열하는 몸짓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해석은, 기호학적 함수의 독단적인 성질의 문제와 언어의 두 측면의 병치를 색다른 방식으로 고찰하면서도 단순하게 실행되고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 어떤 언어를 그 중에서도 특히 자연언어를 만들고 있는 이것은 두 비동형적 대수학의 오버랩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내용의 격상과의 관계 안에서 독자성을 획득하고 있는 격상으로서의 시니피앙의 자율적 아티클레이션을 위한 필요조건을 실제적으로 창조하고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즉 감각적 목류로 치환하는 것이다. 역으로, 그러한 치환이 위치를 획득하지 못하는 한, 세계의 의미작용은 현상적 측면의 독자성이 완전하게 만들어지지 못함으로써 성공하지 못한다.

노트: program, narrative(화술적인 프로그램); 1. 화술적인 프로그램(narrative program, 약해서 NP)은 상태발화를 지배하고 있는 실행발화로 조립된 표층화술적인 통사론의 기본적인 결합체이다. 그것은 다음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NP = F[$s_1 \rightarrow (s_2 \cap o_v)$]
 NP = F[$s_1 \rightarrow (s_2 \cup o_v)$]
 다음과 같은 어떤 입장:
 F = 함수(function)
 s_1 = 실행의 주체(subject of doing)
 s_2 = 상태의 주체(subject of state)
 o = 대상(object, "v: 즉 value"의 형식 안에서 의미론적 투자를 받을 수 있는)
 [] = 실행발화(utterance of doing)
 () = 상태발화(utterance of state)
 \rightarrow = 실행의 함수(function of doing, 변형의 전환으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cap \cup$ = 접합(junction: conjunction or disjunction), 최후의 상태, 즉 실행(doing)의 결과

은 화술적인 발화 또는 결합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의 발견을 허락한다. 순수한 작용적 개념, 따라서 그러한 시퀀스는 화술적인 결합체와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 (역주)

118) 어떤 모음(가령 "e")을 발생할 때 여러 포르만트(formant)를 발생시키지만 그 중에서 하나로만 통제되어 들리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 (역주)

를 지시하고 있는.

명료하게 하기 위해 함수 "doing"은 2개의 상징기호(F와 →)에 의해 용어법적(元語法的, 말을 장황하게, 중복적으로)으로 표현된다. 그 화술적인 프로그램은 어느 주체(s_2)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어느 주체(s_1)에 의해 초래된 상태의 변화로 해석된다. 결과로 고찰된 NP의 상태발화의 기초 상에서, 텍스트, 증여(gift), 등과 같은 격상은 담화적인 레벨에서 재구성될 수 있다.

2. NPs의 유형학은 다음 기준의 고찰을 성공적으로 얻게 됨으로써 확립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㉔ 집합의 성질: 연언과 선언(conjunction or disjunction, 가치의 획득 또는 박탈과 상응하고 있는). ㉕ 투자된 가치(value)의 성질: 양태적인 또는 기술적인 가치(그리고, 기술적인 것 안에서, 화용론적인 또는 인식론적인 가치). 그리고 ㉖ 함께 나타나는 주체의 성질: 이것은 독특한 것(이 경우에, 두 자율적인 연기자에 의해 변화되어)으로 존재하든지, 또는 단순한 연기자 안에 혼합되어 나타나든지 한다. 그때 후자의 NP는 언어연기라고 호칭된다.

3. 화술적인 프로그램은 때때로 강조하기 위하여, 즉 과업의 "어려움," "절박감"이 유발된 의미를 생산하기 위하여 복합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강조의 두 절차는 특히 에스노-문학(ethno-literature)에서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난다. 즉 상징기호 NP(x_2)로 지시된 중복(NP가 두 번째 결과에 의해 추구되고 있는 첫 번째의 실패로 반복될 때), 그리고 NP(x_3)에 의해 지시된 3점(3개의 연속적 NPs가 과업의 "어려움"을 증대시킴으로써만 오로지 식별되는)을 말한다.

4. 단순한 화술프로그램은 그것이 다른 NP의 예비관계를 요구할 때 복합 NP로 변형될 것이다. 예를 들어, 원숭이의 경우 바나나를 얻기 위하여 먼저 막대기를 가져와야만 할 것이다. 그때 보편적인 NP는 "기초 NP"로 호칭되고, 반면에 전제되고 필연적인 NPs는 "도구적 NPs"로 호칭된다. 도구적 프로그램은 성취된 과업의 복합성에 의지하면서 일정하지 않은 수로 존재한다. 그들은 괄호를 사용하는 NP(iNP 1 2...)로, 확장된 선택적 성격을 지시하는 위쪽의 3으로 지시된다.

5. 도구적 NP는 주체 그 자체에 의해 실현되든지 또는 첫 번째에 의해 위임됨으로써 다른 것에 의해 실현되든지 한다. 후자의 경우에 팀 "부가 NP"는 앞으로 사용될 NP(aNP)에 의해 상징기호화 된다. "부가 NP"는 파생의 낮은 레벨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다. (실행의 위임된 주체-인간관계, 동물, 오토메이션-는 그 언어능력의 문제로 자제를 취한다)

6. 담화 안에 배치되어 충당된 총체 NP의 외연화된 형식은 미분책이 되며, 실현화의 관점에서 보면, 선택된 기초 NP에, 즉 본질적으로 빗대어 언급된 최종 가치에 의지한다. 따라서 그것은 NP가 어떻게 약간의 복합화의 절차(규칙으로 형식화될 수 있는)의 확립에 의해 작용적 프로그램으로 변형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고찰될 수 있다. 그것은 담화의 레벨에서 NPs가 명백한 것이 될 수 있거나 함축적인 것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들의 명백화는 표층의 화술적인 통사론에 의해 요구된다.

7. 그것은 단순한 NP와 관련되든지 또는 도구적 NP를 포함하고 있는 목류가 결정된 일련의 NPs와 관련되든지, 하여간 어떤 것과 관련되며, 그리고 만약 거기에 어떤 부가 NPs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따라서 인식된 결합체적 세트는, 조건부로, 그러나 소정의 연기자 안에서 융합된 실행의 주체와 상태의 주체인, 그리고 소인(素因, 또는 제1원리)적 실행의 주체와 함께 동정(同定)된 부가 NPs의 주체인, 또는 적어도 주체에 의해 위임되고 통제된, 그 주체의 언어연기와 상응할 것이다. 언어연기로 호칭된 NP는 다른 것, 즉 언어능력("causing-to-be"의 주체는, 예를 들어, "wanting-to-do"의 주체로, 또는 "having-to-do"의

주체로 사전에 양태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의 NP를 전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능력은 사실상 가치가 양태에 의해 목표를 정하고 나아갔다고 하는 그 사실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 도구적 프로그램으로 나타난다. 언어능력을 전제하고 있는 언어연기, 즉 새로운 통사론적 단위는 그들 서로가 논리적 연결을 하는 것으로 귀착하며, 그들은 그들을 계층적으로 초월하여 존재한다. 우리는 그것을 화술적인 케도라고 한다.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p. 245~246. (역주)

유의미 · 복합 몸짓언명성의 상징기호적 지위

이 단계에서 표현의 자율적 레벨을, 동시에 시각적 음운론의 합성을 유의미 · 복합 몸짓언명성으로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음소와 어의소로 분석했던 몸짓적인 단위로 우리 자신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된다(cf. 코크랭의 자연적 몸짓). 더 나아가 어쨌든 당분간,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비록 몸짓적인 실제 안에서 몸짓적인 형식의 존재자를 공리로 간주하는 것에 대하여 방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엘름스레우(Louis Hjelmslev)의 용어에 따라 유의미 · 복합 몸짓언명성은, 상징기호적인 그리고 언어학적 체계가 아닌 것을 기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형식이 가능할 수 있는 몸짓적인 화맥을 이탈하고 있는 것에 의해 최소한의 시각적 격상으로 환원함으로써 발생된 자연적 몸짓의 총체적 분량인 그 실체로부터 획득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주체가 수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물이 환경이라고 한다면, “수영하다”와 같은 자연적 몸짓은 실제적 행동의 레벨에서 수영하고 있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브레몽이 언급했던 것처럼,¹¹⁹⁾ 공중으로 비상하는 슈퍼맨은 동일한 몸짓 “수영하다”를 몸짓적인 빈사로 언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마도 이러한 격상이 손발의 일정하지 않은 동작으로 환원될 수 있는 보다 더 좋은 실재성으로 관찰할 수 있는, “나는 깊은 곳에 폭 빠져 있다(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 안의 어휘소 “수영하다”에 의해 예외적인 의미소적 격상으로 기술하려고 할 때, 그것은 오로지 자연언어의 내용으로부터 시발함으로써만 존재할 것이다.

이제 몸짓적인 표현의 시각적 격상이 언어학적 내용의 핵격상과 상응한다고 하는 재 긍정은 폭넓은 해석으로 통합될 수 있다. 만약 자연언어의 표현

119) C. Bremond, “Pour un gestuaire des bandes dessinées,” *Langage* 10(1968); 94~100을 보라.

측면이 몸짓적인 프로그램(예를 들어, 발성기관)을 만들고 있는 것과 다른 감각
목류(예를 들어, 청각기관)로 전자의 치환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내용의 측면은 양 측면으로 아티클레이션이 된 복합기호현상체계를
생산하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다시 말해서 치환되지 않은 몸짓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양쪽으로 나뉘어 만들어질 것이다.

이제 자연세계의 격상과 자연언어의 내용의 격상(몸짓적인 격상은 세계의 다른
시각적 격상에 의해 완성되지 않으면 안 되며, 계속해서 우리가 세계에 대해 파악했던 것에 의
해 지시되는 모든 감각목류의 모든 격상에 의해 후자를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이의 동
치가 확립됨으로써, 우리는 그 중에서도 특히 그리고 의미론적 모델을 어느
정도 유비적으로(analogically)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내용의 격상이 그 자체
로 언어학적 텍스트를 확립하는데 충분하지 못한 것처럼, 그래서 범주에 의
해 조직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몸짓적인 프락시
스가 몸짓적인 격상의 연속적인 전개로 결코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을 추측
할 수 있지만, 사실 부분적으로 나뉘어 사전에 분급(分級, classification)의 기초
로 형식화된, “실제적인 것 vs 신화적인 것”의 이원성과 함께 시작하고 있는,
일정한 수의 의미론적 범주의 확립을 함축한다. 다른 한편, 내용의 핵격상을
의미소로 분석함으로써, 그리고 의미소범주를 확립함으로써, 우리는 몸짓적
인 범주 목록의 존재자를, 즉 몸짓적인 격상의 구성을 떠맡고 있는 조합을
상상할 수 있든지, 또는 단순 타당한 범주의 세력 안에 모든 몸짓적인 특징
을 챙겨두고 있는 것으로서의 짝이 만들어진 격상의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
든지, 하여간 어떤 것이든지 간에 상상할 수 있으며,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의
몸짓적인 미시부호의 조립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

몸짓적인 기호현상의 함수적인 지위

우리가 발성기관의 몸짓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토론을 벌였을 때, 우리는
그들의 의미가 음운론적 투기를 실행하면서 존재했다고 진술했다. 이제 이러
한 관찰은 보편화되고 명료해질 수 있다. 비록 그것이 언어로부터 획득된 일
련의 의미가 없는 목소리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동등
하게 통합된 것이 없는 그리고 의미가 없는 즉 무의미·단순 몸짓언명성의
능동성에 대해 상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오로지 그 투기
의 증명사료만 파악될 수 있는 그리고 정의될 수 있는 몸짓적인 능동성으로

지시된, 프로그램화된 존재자가 실행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몸짓적인 프로그램의 투기가 시니피에로 존재한다는 것을,¹²⁰⁾ 그리고 이러한 시니피에로 에워싸인 몸짓적인 시퀀스가 시니피앙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언급할 것이다. 따라서 몸짓적인 프로그램의 기호현상은 시니피앙으로 획득된 몸짓적인 격상의 시퀀스와 시니피에로 고찰된 몸짓적인 투기 간의 관계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영성한 긍정은 오히려 명료해진 것임에 틀림없다.

상수차원을 가지고 있는 시니피에로부터 시발할지라도 기호학적 관계로의 전승(轉乘)은, 기호를 구성할 수 있는 단순음소(예를 들어, i), 그러나 또한 음절(ile) 또는 음절적인 시퀀스(ilex)의 일부로 존재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음소, 즉 자연언어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아닌 말하자면 변이차원을 가지고 있는 시니피앙과 함께 연합하는 것으로 끝난다.

시니피앙의 진보적 확장은 텀 탈의미화에 의해 지시된 현상을 동반한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기계 앞의 노동자의 몸짓적인 프로그램을 텍스트적인 단위로 아티클레이션처럼 분절한다면, 우리는 의미론적 해석이 부여될 수 있는 그리고 자연적 몸짓으로 되돌릴 수 있는 몸짓적인 격상과 동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격상의 이러한 아티클레이션의 동기는, 그들이 비록 “의미가 비어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달성되고 있는 격상 그 자체가 없으면서도 그들의 프로그램화된 진전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크리스테바의 언급에 따라, 우리는 몸짓적인 격상 모두가 오로지 투기의 모드로만 그렇게 존재하는 의미로 되돌려지기 때문에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의 지시조용어적(anaphoric) 성질을 언급할 수 있다. 탈의미화는 슛쳐너처럼 손대지 않은 본래 대로의 몸짓적인 격상을 그대로 두고 떠나는 것이며, 그것은 오로지 몸짓적인 텍스트를 강조하고 있는 의미론적 범주하고만 관계한다. 편파적인 시니피에로 중립화함으로써 그것은 직접적 기호학의 관계를 가언적 관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호학적 편차로 변형시키며, 각각의 탈의미화 된 몸짓적인 격상은 프로그램의 총체 시니피앙을 관계 안에서 환유적인 정향으로 지속시킨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기호현상이 시니피앙과 시니피

120) 이 장의 “의미의 현존재”를 보라.

에 간의 단순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형태론적으로 무언가 다른 것으로 지시된 관계적 구조라는 것을,¹²¹⁾ 즉 총체로(몸짓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시니피에로부터 부분으로서의 각각의 격상으로 진승하는 관계의 네트워크로 획득된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간의 관계로 존재하는 구조라는 것을, 고찰할 수 있다.

투기의 존재자에 부가해서, 그 프로그램은 경제의 개념을 전제한다. 몸짓은 다소간 경제적-유기적일 수 있으며, 좀 더 좋게 제한될 수도 또는 좀 더 좋게 확장될 수도 있으며, 게다가 하위프로그램으로 흩뿌려질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몸짓적인 프로그램의 조직 원리의 보다 더 좋은 이해에 이른 뒤에만 오로지 아종으로 분류될 수 있는 독단적 원소의 함수적인 성질은 지금 곧 기호현상의 복합구조로 받아들여진다.

몸짓적인 프락시스 안 기호현상의 지위와 관련되고 있는 관찰은 자연언어의 빈사적인 내용과 관련되고 있는 문제와 본질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리고 이것은 전형적이다. 몸짓적인 시니피앙의 격상과 자연언어의 시니피앙의 격상 간에 기왕에 확립된 그 상응에 부가해서, 비교의 새로운 영역의 출현은 몸짓적인 기호현상의 함수적 성질(모든 비귀속적 빈사를 위해 비축되고 있는 함수)을 우리가 아종으로 분류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의 분석이 기본단위를 폭로하지 못하지만, 함수의 문제가 많은 불확실성(기호현상, 프로그램, 투기, 경제성 등)으로 이해된 것으로 공급된 기본함수를 폭로하며, 또한 비록 자연언어의 내용에 대한 분석의 레벨에서 그것 자체로 떠오르는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의 성격일지라도 아득한 옛날부터 개물로서의 고유명목(proper nouns) 상에 완전히 집중된 그래서 오래 계속되고 있는 유명론자(唯名論者)의¹²²⁾ 구체화의 전통이, 즉각 단순한 형식관계로 환원시켜

121) *Sémantique structurale*(Paris: Larousse, 1966), p. 105.

122) 원래는 스킨철학에서 생긴 철학 상의 한 입장. 유(類)로서의 동물과 종(種)으로서의 말과 같은 보편적인 것이 단순히 한 물체로서 이 동물과 이 말을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라 실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실념론(개념 실재론)에 대하여, 유명론은 보편적인 것은 개물(個物)을 가리키는 이름으로서 실재하는 것은 개물뿐이라고 주장한다. 11세기경 로셀랭(Roscelin)이 보편은 소리의 흐름(flatus vocis)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발음되는 동안에만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비로소 유명론을 주장하였다. 이 입장은 사상사적으로는 개념론자 아벨라르(Abelard)를 거쳐 오컴(William Ockham)에 이르러 명료한 형태를 취해 나타났다. 그러나 그의 유명론은 직접적으로는 로저 베이컨의 경험론적인 입장의 철저한 결론이다. 이에 의하면 보편으로서의 유나 종은 단순히 말(terminus)에 지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단지 개물뿐이다. 따라서 인식의 대상은 보편이 아니라 개물이 아니며서는 안 된다. 개물의 직관적 인식

함수의 본래의 기호학적 지위를 덮어버렸다고 언급했던 크리스테바의 관찰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함수적 기호현상에 대한 매력(몸짓적인 기호학에 접근하는 유일한 가능성을 일컫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자연언어의 의미론적 차원을 일컫는 것이기도 하다)은 전체 의미작용을 떠맡는다고 하는 바로 이러한 정신 안에 있다.

문화적인 투기와 대상

우리는 인간을 단독주체로 대우하고 있는, 또한 문화적 대상을 창조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문화적 투기의 실행을 보편적인 함수로 대우하는, 그 몸짓적인 프락시스를 타동적 빈사로 고찰할 수 있다.

문화적 투기의 관점에서 고찰하면, 다양한 몸짓적인 프로그램은 오로지 화술구조의 특별한 유형으로만 상설(詳說)할 수 있는 내용분석으로서의 단힌 담화로 존재하는 것 같다. 그들은 소위 경제적-유기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구조의 존재자의 어떤 모드로 고찰할 수 있을는지 모르는 조직의 실제적인 또는 신화적인 “실행노하우(knowing-how-to-do)”의 모델로 묘사될 수 있다.

그러한 결과의 관점에서 고찰하면, 문화적 대상이며 몸짓적인 프로그램인 그것은 사물과 사건의 발생적 정의(의복은 의복을 바라보는 프로그램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로 나타난다. 더 나아가 자연언어의 레벨에서, 의미론적 프로그램은 같은 방식으로 문학적 대상(소설 또는 시)으로 정의될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것은 일단 그들이 생산된 뒤에, 계속해서 형태음소론적인 구조(기민한 유동성으로서의 인간신체는 부분과 하위부분으로 환원될 수 있으며, 또한 발생적 정의의 관점에서 몸짓적인 각각의 하위프로그램을 갖게 될 수 있다)로 고찰될 수 있는 문화적 대상으로 주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어쨌든 본래부터 빈사로 존재하는 몸짓적인 프락시스는 문화적 대상과 사건의 형식으로 무수한 발화를 생산할 수 있는 통사론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사실상 부수적인 것이다.

사용방식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문화적 대상, 즉 주체(machine,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지각차원의 인간)를 위한 보조자(tool, 증명사) 또는 대체물(machine,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빈사로서의 실체)로서의 그 함수는 발생적인 그리고 형태음소론적인 정의와 함께 새로운 몸짓 프로그램을 떠맡는다. 대상의 이렇게 새로운 함수

에 의하여 비로소 필연적인 또는 강제적인 논증이 성립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신학과 형이상학을 비판함과 아울러 경험과학의 입장을 명료하게 한다. (역주)

성은 또한 우리가 몸짓적인 그리고 실행노하우의 계층으로든지, 또는 실제적 또는 신화적 실행노하우(음식의, 의복의)의 수많은 동류체(isotopies)로 단순하게 정의된 소정의 사회집단의 문화적 차원의 확립으로든지, 하여간 무엇으로든지 상상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새로운 고찰의 도입은 이 연구를 위해 처음에 설치했던 제한프레임을 능가하는 것이다.

상징기호적 표기

불행하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에 관한 기호학적 연구에서의 기호현상에 관한 이러한 반성에 의해 폭로된 그 주목할만한 실현가능성은 대부분 탐색되지 못했으며, 아마도 치환의 만족할만한 도상부호가 애써 성취되지 못하는 한 계속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들이 교묘함에도 불구하고, 몸짓의 상징기호적 표기에 관해 코크랭이 언급한 바 있었던 예를 문제의 망상과 함께 비교할 때 그들은 아직 초보단계이다. 코크랭은 표기된 기호의 독단성에 관한 보다 높은 단계가 몸짓적인 시니피앙의 음운론적 기술과 관계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인들의 지각반응운동학(kinesics)에 의해 제안된 표기체계에 관한 연구로부터 배척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역사적 투시도법으로 볼 때 그의 언급이 아마 틀리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글쓰기의 완만한 그리고 모색적인 합성은 독단적 상징기호의 진행과 치환의 활용 사이의 어떤 상호관계를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진의 완만함은 필연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표기를 선행하여 초월하고 있는 함축적 음운론을 창작할 수 있다. 우리는 비교할만한 언어학적 모델의 현재의 존재자가 창작적 변화과정의 텀을 반전시키도록 우리에게 강제하고 있다고, 그리고 표기 자체를 초월하는 방법론적 반성의 우월을 인정하면서, 치환 문제의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단위의 동정에 관해 그리고 그들의 기호학적 지위에 관해 왜 특별하게 전력을 집중했는가를 밝혀주는 바로 그 이유이다. 만약 유지하고 있는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영화)의 새로운 방식이 기호학의 필요성과 만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한다면(“청각적-시각적”이라고 호칭된 것으로서의 총체성에 현재 심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감각세계의 2개로 기록될 수 있는 차원과 상

응한다), 그것은 이러한 의미가 오로지 그 자체로서의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으로만 기록되기 때문일 것이며, 텍스트의 분석을 사전에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은 재생산될 수 없다. 즉 아종으로 분류된 언어와 같이 능숙하게 다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몸짓적인 표기는 단순화하고 있는 기록의 실제적인 요구와 만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 탐색을 위한 증거로 완벽하게 활용하지도 못하게 된다.

실체의 레벨에 기술을 정위시키는 코크랭에 의해 제시된 세 가지의 표기는 지나치게 정밀하고 세밀하다. 그들은 격상소적 특징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 몸짓적인 단위를 기술하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많은 상징기호를 생산한다. 음성학적 글쓰기가 오로지 수십 개의 “음소-상징기호”만을 요구한다고, 그리고 약간의 타당한 격상소적 특징이 음소의 특징보다 더 낮은 필요성으로 존재한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때 그것은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의 표기가 잘못된 통로 상에 분명히 존재한다고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의 단위로 단순한 몸짓적인 격상을 선택함으로써 그리고 시도함으로써, 그것은 다른 각도에서 그 문제에 대해 논쟁하는 것이 그리고 단순한 표기법적 체계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으며, 이렇게 해서, 비록 그것이 나중에 아종적인 기술의 의미를 복잡하게 할 의도가 있을 지라도, 좀 더 유순하게 음소적 글쓰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이 기본적인 몸짓적인 상수와의 상응을 확립하고 있는 그 화술의 이미 알려진 의미론적 함수로부터 시발하고 있는 브레몽에 의해 제안된 접근은 매우 믿음직한 것 같으며 보편화되어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이것은 코크랭에 의해 얻게 된 경향이며, 그는 인간의 신체 전체가 몸짓의 생산에 속박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몸짓적인 집단으로부터 약간의 타당한 특징을 추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는 인간의 양상이 동물의 얼굴과 입으로부터 손과 팔로 행하는 몸짓적인 능동성의 중심축의 치환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다고 한 크레스웰의 암시를 탐색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오로지 손과 팔 또는 발과 무릎 만으로의 몸짓이 잠정적인 분급(分級, classification)을 확립하기 위하여 고찰될는지 모르는 기본적인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의 표기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상상해도 좋을 것이다. 이것은 무의미·단순 몸짓언명성의 실체에 속하는 특징과 마찬가지로 상보적 특징을 지시할는지 모르는 변별기호의 목록에 의해 나중에

완벽하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상호문화적인 또는 내재문화적인 편차의 표기법 안에서 문체론적 변이로 항상 전체할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지시하려고 함으로써, 결국 우리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끝날지도 모른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과업은 쉽게 해결되는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적합한 상징기호적 표기체계가 성취되었을 때, 그것이 자연언어의 기호학의 합성을, 즉 기호학적으로 떠맡고 있는 총체성의 성취를 위한 필수조건(sine qua non)을 진지하게 떠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3장 기호학적 강제의 상호작용¹²³⁾

우리는 경우에 따라 작용하는 창의력이 풍부한 마음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데 스투트 드 트라시(Destutt de Tracy)¹²⁴⁾

설명노트: 지각차원에서 명료하게 하고자 하는 욕망을 벗어나, 문화적인 구성(문학, 신학, 회화적인 것, 등등)을 성취하기 위하여, 인간의 마음이 단순한 원소로부터 시작하여 지각적으로 명석판명하게 진술하지 않으면 안 됨과 동시에 그보다 높은 인식론의 차원에서 그것이 더 좋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양쪽의 속박 가운데 조우하고 있는 복합계도를 추구한다는 것을, 어쩌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의 목표는 이러한 계도의 세련되지 못한 개념에 대해 지적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내재에서 표출로, 즉 다음의 세 가지 주요한 단계로 진행한다는 것을 고찰할 수 있다. ① 심층구조는 개인 또는 사회집단의 존재자의 기본적인 모드를 정의하며, 따라서 기호학적 대상의 존재자의 조건을 정의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심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구조는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논리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② 표층구조는 표출의 민감한 내용을 담화적인 형식으로 조정하는 기호학적 문법체계를 구성한다. 이러한 체계를 생산하는 인식론적 범주차원의 그 결과는 그들이 이론상 실체로, 그리고 언어학적 대상의 경우 어떤 언어로 나타날 수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들을 지각차원에서 명시하는 정언적 표현과는 독립적이다. ③ 그 표출구조는 시니피앙을 생산하고 조직한다. 그들이 비록 유사일반개념(유사전칭명제)을 포

123) The Interaction of Semiotic Constraints. constraints는 제약, 강제, 거부하고 어색함, 부자연스러움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s_1 과 s_2 의 축의 관계, 증명사(中名辭)로서의 sanction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귀납과 연역의 상호작용, 오성적 범주와 방향적 범주(thymic category)의 상호작용, 즉 제약과 무제약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역주)

124) Antoine Louis Claude Comte Destutt de Tracy((äNtwän' lwē klōd kōNt destüt' du träsé'): 1754~1836): 프랑스의 철학자. 부르보네 출생. 프랑스혁명 직전 삼부회 귀족 대표로, 이에 참가하였다가 1792년 몰리나 고향에서 철학·수학·자연과학을 연구하였다. J. 로크(1632~1704)와 콩디야크(1715~1780) 등의 영향을 받아, 감각론(感覺論)의 입장에서 관념(觀念)의 발생·전개를 연구하여, 이것을 “관념학(觀念學: idélligie)”이라고 하였다. 사유(思惟)·상기(想起)·의지(意志) 등을 모두 감각하는 것에 환원시킨다(예를 들면 “움직인다는 능력에 의해서만 우리의 신체의 인식도 성립한다”는 것). 이와 같은 생각을 기초로 하여 윤리·교육·정치 등 학문의 법칙을 세웠다. 1808년 아카데미 프랑세즈 회원이 되었다. 주요저서에는 「관념학 원리(Éléments d'idéologie)」(5권, 1801~1815)가 있다. naver 백과사전. (역주)

함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어느 소정의 언어(또는 좀 더 정확히 말해서, 그들은 언어의 아종적인 성격을 정의한다) 또는 어느 소정의 질료를 아종으로 분할하여 체류케 한다. 그들은 어휘소, 형상, 색채 따위의 표층적 문체론에 의해 연구된다.

여기서 우리는 오로지 이러한 전체 궤도의 최초의 단계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

구성적 모델의 구조

의미작용의 기본구조

만약 의미작용 S (의미작용을 하고 있는 전체로서의 세계, 또는 어느 기호학적 체계)가 최초의 판단 레벨에서 의미론적인 축(semantic axis)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의미의 절대적인 부재로 획득된 \bar{S} 와 대당이 되며, \bar{S} 또한 기호학적 체계로서의 팀 S 와는 모순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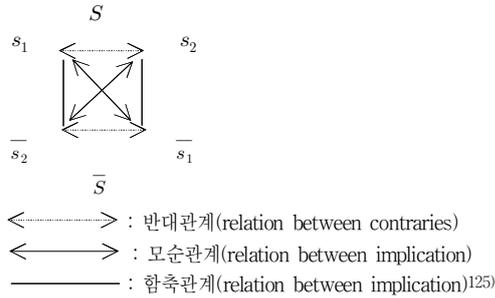
만약 의미론적인 축 S (내용의 실체)가 내용형식의 레벨에서 2개의 반대 의미소로 아티쿨레이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s_1 \longleftrightarrow s_2$$

이렇게 갈라져서 획득된 2개의 의미소는 다음과 같은 모순 팀의 존재자를 지시한다.

$$\bar{s}_1 \longleftrightarrow \bar{s}_2$$

이 사실을 참작한다면, 의미소적 아티쿨레이션의 위치가 정해진 뒤에, S 는 복합의미소 단위 s_1 과 s_2 로 재 정의될는지 모른다. 선언(選言, disjunction)과 연언(連言, conjunction)의 이중관계에서, 의미의 기본구조는 다음처럼 표상될는지 모른다.



이러한 모델은 약간의 정의되지 못한 개념을 사용한다. 즉 ① 구조적 관계의 해석을 위해 필요한 연언과 선언의 개념, 그리고 ② 2개의 선언, 다시 말해서 반대의 선언(점선으로 지시된)과 모순의 선언(직선으로 지시된)이 그것이다.

노트: 위의 모델은 원래 “구조의미론(Sémantique structurale)”에서 저자에 의해 제안되었던 것을 단지 다시 손질하여 만든 형식일 뿐이다. 이렇게 새로운 표현은 수학에서의 클라인 그룹과 심리학에서의 피아제 그룹이라고 불렀던 구조와 마찬가지로 블랑쉐(Robert Blanché)의 논리적 6각형(Claude Chabrol, “Structurales intellectuelles,” in *Information sur les Sciences sociales*, 1957, VI-5를 보라)과 비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¹²⁶⁾

125) 비록 관계의 이러한 유형의 존재자가 흠잡을 데 없이 명백한 것 같을지라도, 그 정위의 문제($s_1 \rightarrow s_2$ 또는 $s_2 \rightarrow s_1$)는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쟁점을 제기하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그 해답이 이러한 논증을 위해 필연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126) Christian Felix Klein: 1849~1925. 독일의 수학자. 기하학을 「에를랑겐 프로그램 Erlanger Programm」으로 알려진, 주어진 변환군 아래에서 변하지 않는 공간성질을 연구하는 것으로 종합함으로써 수학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에를랑겐대학교의 수학교수가 되었는데(1872~75), 취임 강의에서 군이론 통합 가능성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에를랑겐 프로그램」에 들어 있는 견해를 발표했다. 그는 노르웨이의 소푸스 리와 공동연구했고, 리의 접촉변환을 최초로 체계화했다. 1916년 직전에 클라인의 프로그램에 맞지 않는 새로운 기하가 발견되었으나, 그의 합성은 적합한 기하에서는 여전히 중요하고 유용하다. 그는 라이프치히대학교(1880~1886)와 괴팅겐대학교(1886~1913)의 교수를 지냈다. 1872년부터 괴팅겐의 「수학 연보 Mathematische Annalen」지 편집자였으며 1895년에는 수학의 위대한 「백과사전 Encyclopädie」을 창시해 죽기까지 계속 지도했다. 「진보된 견지에서 본 기초수학 Elementar mathematik von höheren standpunkte aus」(1908)을 포함한 그의 기초수학에 대한 업적은 대중적이었다. 기술면이 강조된 그의 저서 가운데 「정20면체에 관한 강의 Vorlesungen über das Ikosaeder」(1884)·「보형함수론 강의 Vorlesungen über die Theorie der automorphen Functionen」(2권, 1897, 1902)가 뛰어나다.

Jean Piaget: 1896~1980. 스위스의 심리학자. 어린이가 이해력을 획득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학자였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20세기 발달심리학의 대표자로 생각한다. 어린 시절에는 동물학에 관심을 가졌다. 10세 때 그는 백색증 참사에 대한 관찰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

제3장 기호학적 강제의 상호작용

노트: 피비우스의 띠(Möbius strip): 좁고 긴 직사각형 종이를 180°(한 번) 꼬아서 끝을 붙인 면과 동일한 위상기하학적 성질을 가지는 곡면. 독일의 수학자 A. F. 피비우스가 처음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피비우스의 띠라고 한다. [그림 1] 의 (1)과 같은 직사각형 띠를 꼬지 않고 점 A와 D, 점 B와 C가 만나도록 변 AB와 DC를 붙여 고리를 만들면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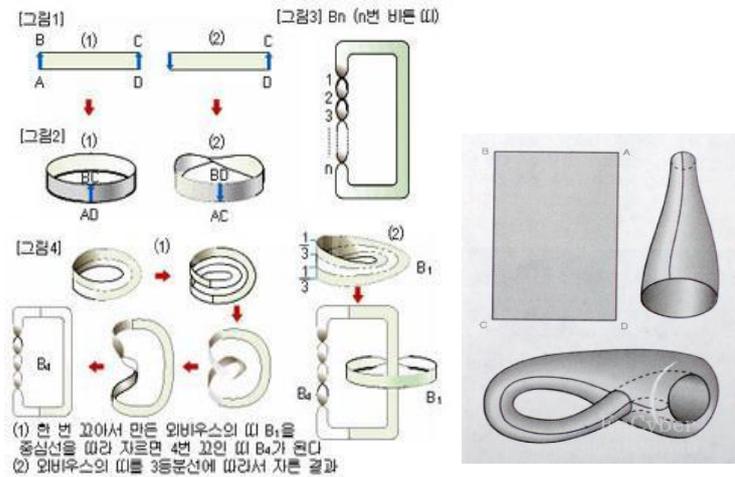
했고, 연체동물에 대한 논문을 여러 편 발표해 15세 때에는 이미 유럽 동물학자들 사이에서 명성을 얻게 되었다. 뇌사텔대학교에서 동물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1918년에 동물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그 직후생물학 지식과 인식론에 대한 흥미가 결합되어 심리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우선 취리히로 가서 카를 구스타프 융과 오이겐 블로일러 밑에서 공부한 다음, 1919년에 파리의 소르본대학교에서 2년 동안 공부했다. 그는 파리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독해력 검사를 고안해 실시했고, 학생들이 범하는 실수의 유형에 관심을 갖게 되어 그 어린이들의 추론 과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1921년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에 스위스로 돌아가 제네바의 J. J. 루소 연구소 소장으로 임명되었다. 1926~1927년에 뇌사텔대학교에서 철학교수로 재직했으며, 1929년에는 제네바대학교의 아동심리학교수가 되어 죽을 때까지 이 대학에 남아 있었다. 1955년 그는 제네바에 유전인식론 국제연구소를 세우고 소장이 되었다. 긴 생애 동안 발표한 50권이 넘는 저서와 학술 논문에서 피아제는 파리에서 처음 발견한 주제, 즉 어린이의 정신은 일련의 정해진 단계를 거쳐 성숙한다는 생각을 계속 발전시켰다. 피아제는 어린이가 자신의 독자적인 현실 모형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재창조하면서, 한 단계가 지날 때마다 단순한 개념들을 통합해 좀 더 높은 수준의 개념으로 조직화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어린이에게는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고력 발달의 시간표가 있다는 '유전인식론'을 주장했고, 그 발달과정의 4단계를 밝혀냈다. 어린이는 태어난 뒤 2년 동안은 주로 자신이 타고난 신체적 반사능력을 터득하고, 그 능력을 확대해 윤택하거나 재미있는 활동을 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 피아제는 이 시기를 감각운동단계라고 부른다. 이 시기에 어린이는 자신을 별개의 육체적 존재로 처음 인식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주위의 물체도 역시 별개의 영속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대개 2세부터 6~7세까지 계속되는 2번째 단계는 전(前)조작단계로서, 이 시기에 어린이는 외부세계에 대한 내적 표상 또는 사고를 통해 환경을 상징적으로 조작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 단계의 어린이는 사물을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전 단계에서 물리적 대상 자체를 조작했듯이 이제는 말을 정신적으로 조작하는 방법을 배운다. 7세부터 11~12세까지 계속되는 3번째 단계는 구체적 조작단계로서, 이 시기에는 어린이의 사고 과정에 논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사물을 유사점과 차이점에 따라 분류하기 시작한다. 또한 이 시기에는 시간과 수의 개념을 파악하기 시작한다. 4번째 단계인 형식 조작단계는 12세에 시작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된다. 사고방식에 질서가 잡히고 논리적 사고력을 터득해, 좀 더 유연한 정신적 실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단계의 특징이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어린이는 추상 개념을 조작하고, 가언을 세우고, 자신의 생각과 남의 생각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런 발달단계에 대한 피아제의 개념은 아동과 학습 및 교육에 관한 이전의 견해들을 재평가하게 만들었다. 어떤 사고 과정이 유전적으로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발달한다면, 단순한 강화만으로는 개념을 가르치는 데 충분하지 못했다. 어린이의 정신 발달이 그 개념들을 흡수하기에 적절한 단계에 도달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생은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어린이가 스스로 세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피아제는 다른 어린이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을 직접 관찰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아동 발달에 대한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고안한 단순한 문제에 대해 교묘하고 계발적인 질문을 던진 다음, 아이들의 잘못된 반응을 분석함으로써 아이들이 세계를 보는 방식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주요저서로는 「아동의 말투와 사고 Le langage et la pensée chez l'enfant」(1923)·「아동의 판단과 추론 Le Jugement et la raisonnement chez l'enfant」(1924)·「아동의 이해력의 기원 La Naissance de l'intelligence chez l'enfant」(1948) 등이 있다. 그는 또한 시간과 공간, 물리적 인과율, 운동과 속도, 세계 전체에 대한 어린이들의 생각과 개념을 개별적으로 다룬 책도 연작으로 내놓았다. (역주)

2] 의 (1)과 같이 된다. 또, [그림 1] 의 (2)와 같은 띠를 180° 꼬아서 점 A와 C, 점 B와 D가 만나도록 변 AB와 변 CD를 붙이면 [그림 2] 의 (2)와 같이 된다. 이 [그림 2] 의 (2)의 곡면이 뫼비우스의 띠이다.

이 띠에는 여러 가지 성질이 있다. 이를테면, [그림 2] 의 (1)의 띠 바깥쪽에 칠을 하면, 바깥쪽은 전부 칠해지나 안쪽은 칠해지지 않는다(兩側曲面). 그러나 뫼비우스의 띠의 바깥쪽에서 칠을 해가면 안쪽도 모두 칠해진다(單側曲面). 즉, 안쪽과 바깥쪽의 구별이 없다. 따라서, [그림 2] 의 (1)과 (2)는 동상(同相: 위상적으로 동형)이 아니다.

위상기하학에서는 어떤 도형이 튼튼하고 탄력성이 있는 재료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재료를 자르거나 접거나 잊지 않고 임의로 늘이거나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원·삼각형·다각형 등은 동상이고, 또 구(球)·각기둥·각뿔·정다면체 등도 동상이다.

[그림 3] 과 같이 180°×n(번)만큼 꼬아서 만든 띠를 B_n이라 하면, n이 짝수일 때 B_n은 B₀([그림 2] 의 (1))와 동상이며, n이 홀수일 때 B_n은 B₁([그림 2] 의 (2))과 동상이다. [그림 2] 의 (1)과 같은 띠를 그 중심선을 따라 자르면 2개의 독립된 띠가 되지만, [그림 4] 의 (1)과 같이 한 번 꼬아서 만든 뫼비우스의 띠 B₁을 그 중심선을 따라 자르면 네 번 꼬인 하나의 띠 B₄가 된다. 또, [그림 4] 의 (2)와 같이 뫼비우스의 띠 B₁을 그 삼등분선을 따라 자르면, 1개의 뫼비우스의 띠 B₁과 네 번 꼬인 띠 B₄가 얽혀 있는 상태가 된다.



클라인의 항아리(Klein's bottle): 뫼비우스의 띠와 같이 바깥쪽과 안쪽을 구별할 수 없는 단측곡면(單側曲面)의 한 예로 독일의 수학자 F. 클라인이 고안하였는데, 이 항아리에서는 항아리의 양끝이 접속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닫혀 있는 데도 사실은 열려 있다. 클라인병(瓶)·클라인면(面)·클라인관(管)이라고도 한다. 독일의 수학자 F. 클라인이 고안하였다. 이 항아리를 만들 때는 우선 직사각형 ABCD(얇은 고무판과 같은 것으로 상상한다)의 A와 B, C와 D를 겹치고 AD, BC를 맞붙여서 원관(圓管)을 만든다. 이렇게 만든 원관을 한 번 틀어서 A와 C, B와 D를 겹쳐 AB, CD를 붙인 다음, 원관의 곡면에 구멍을 뚫고 접어 넣어 양끝(입구)을 접속시키면 된다. 이것은 3차원 유클리드공간 내에서는 실현될

수 없다. 이 항아리에서는 항아리의 양끝이 접속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닫혀 있는 데도 사실은 열려 있다. 이 항아리의 용도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이유는 액체를 넣으면 흘러나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비우스의 띠는 기계 벨트용 등으로 이미 실용화되었다. —naver 백과사전. (역주)

오로지 내용의 형식으로만, 그리고 단순한 의미소적 텀으로만 고찰함으로써, 우리는 동일 구조와 약간 다른 형식을 제공할 수 있다. 그때 그것은 동차화된 모순관계로 정의되고 있는 상호관계 그 자체로서의 두 짝으로 만들어진 범주의 상호관계로 나타난다.

$$\frac{s_1}{s_1} \simeq \frac{s_2}{s_2}$$

이렇게 새로운 표현은 투자된 내용의 구성모델로서의 의미작용의 존재자 모드의 근거가 지극히 다양하게 변하는 영역에서의 적용으로 발견된다는 것을 고찰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사실 이것은 일정수의 특별한 의미론적인 세계(Georges Bernanos, Stéphan Mallarmé, Antoine Destutt de Tracy)를 정당화하고 있는 모델과 마찬가지로, 민담의 비통시적 아티큘레이션의 형식으로서의 레비스트로스에 의해 제안된 신화의 모델이다. 기호학자들을 위해 연역적 접근이 제한된 발화자료체로 고찰될 수 있는 구성모델과 경험적으로 조우한다고 하는 그 어조에 위안이 되고 있다.

기호학적 체계의 구조

따라서 만약 연역적 고찰이 귀납적 기술과 조우한다면, 그것은 의미작용의 기본구조가 체계로서의 총체로 획득된 의미론적 세계를 형식화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의미론적 축으로서의 그것이 정의하고 있는 각각의 내용은 다른 것을 포함할 수 있고, 게다가 그것은 계층에서의 상위구조와 동형적인 구조로 조직된다. 따라서 같은 방식으로 기본구조는 의미소와 기호학적 체계의 구성체계적 실례를 아티큘레이션으로 만든다. 예를 들어, 내용 삶과 죽음은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¹²⁷⁾의 작품의 총체로서의 의미론적 세계를 예

127)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 1888~1948): 프랑스 뇌이쉬르센. 프랑스의 소설가·논쟁작가. 대표작 「어느 시골 사제의 일기(Journal d'un curé de campagne)」로써 당대의 가장 독

위싼다. 즉 s_1 vs s_2 의 각각은 각기 s_1 vs \bar{s}_2 , s_2 vs \bar{s}_1 로 전사(轉寫)된 2개의 체계적 실례(부정적 그리고 조정적 정의)의 아티클레이션을 만든다.

먼저 구성모델의 형식적 속성을 정의하기로 하자. 그때 우리는 투자의 예를 제공할 것이다.

모델의 팀: 각각의 4개의 팀으로부터 시작해서, 두 작용(모순과 반대)의 증명사에 의해 우리는 다른 것들을 획득할 수 있다. 그들의 정의는 형식적이고 어떤 투자에 선행한다.

관계:

1. 계층적 관계:

하위개념적(hyponymic) 관계는 s_1 , s_2 , 그리고 S 사이에서 확립되고, 다른 것들은 \bar{s}_1 , \bar{s}_2 , 그리고 \bar{S} 사이에서 확립된다.

2. 범주적 관계:

창적·독자적인 가톨릭 작가로 군림했다. 왕당파 언론인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가 그 후 보협회사의 조사원으로 일했다. 선배 가톨릭 작가 레옹 블루아와 마찬가지로, 그는 항상 초자연적인 세계와 가까이 지내는 몽상가였다. 또한 익살스럽고 인정이 많은 사람으로, 유물론에 반대했고 악과 타협하는 것을 증오했다. 중산층의 유물론에 반론을 제기한 정치적 소설가 「보수주의자들의 커다란 두려움(La Grande Peur des bien-pensants), 1931」과 스페인 내란 때 파시스트의 만행과 그들을 지지한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을 맹렬히 비난한 「달빛 아래 거대한 묘지(Les Grands Cimetières sous la lune), 1938」에는 그의 강렬한 성실성이 드러나 있다. 소설가로서 그는 인간의 영혼을 놓고 일어나는 선과 악의 싸움을 주제로 삼았는데, 특히 성직자를 본보기로 삼아 이러한 감동을 다루었다. 성스러움에서 사악함에 이르기까지 인간 행동의 양극을 보여주는 그의 등장인물들은 힘찬 상상력으로 창조되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첫 소설은 아르스의 주임 신부의 경험에 일부 바탕을 둔 「악마의 태양 아래서(Sous le soleil de Satan), 1926」였다. 1936년에 죄악에 대한 젊은 성직자의 싸움을 그린 「어느 시골 사제의 일기」를 발표했는데, 이 소설은 프랑스의 영화 감독 로베르 브레송에 의해 1951년에 영화로 만들어졌다. 그밖에 중요한 작품으로는 「기쁨(La Joie), 1929」·「무세트의 새로운 이야기 (Nouvelle Histoire de Mouchette), 1937」·「원씨(Monsieur Ouine), 1943」 등이 있다.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파시스트의 정치적 횡포에 절망한 그는 1938년 7월 아내와 6명의 자녀를 이끌고 스스로 망명생활을 택해 브라질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지만 실패했다. 뮌헨 협약의 도덕적 타락을 심각하게 느끼고 「진실의 추문(Scandale de la vérité), 1939」이라는 글을 썼다. 1940년 6월에는 학교 동창인 샤를 드골 장군을 지지했다. 그의 방송 메시지와 「영국인에게 보내는 편지 (Lettre aux Anglais), 1942」는 제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1945년 그는 프랑스로 돌아왔으나 조국이 정신적으로 갱생하지 못한 것에 환멸을 느껴, 그후 튀니지에서 살다가 마지막 병석에 누운 뒤에야 프랑스로 돌아왔다. 죽기 직전에 프랑스 혁명 때 순교한 16명의 수녀들을 다룬 영화 대본인 「카르멜 수녀들의 대화(Dialogue des Carmélites)」를 완성했다. 프랑스의 작곡가 프랑시스 풀랑은 이 작품을 바탕으로 오페라를 작곡했다. (역주)

모순관계는 S 와 \bar{S} 사이에서 확립되고, 계층적으로 보다 낮은 레벨에서, s_1 와 \bar{s}_1 사이에, s_2 와 \bar{s}_2 사이에 확립된다.

반대관계는 한편으로는 s_1 과 s_2 로, 다른 한편으로는 \bar{s}_1 과 \bar{s}_2 로 아티쿨레이션이 된다.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 자신의 용어에 의하면, 그것은 결속 또는 이중전제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는지 모른다.

노트: 모순을 획득하고 있는 것과 반대를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서의 두 작용은 다음과 같이 말려들게 된다. 즉 s 의 반대의 반대는 s 이며, s 의 모순의 모순은 s 이다.

함축관계는 한편으로는 s_1 과 \bar{s}_2 사이에, 다른 한편으로는 s_2 와 \bar{s}_1 사이에 확립된다. 즉 s_2 는 \bar{s}_1 을 함축하고, s_1 은 \bar{s}_2 를 함축하며, 또는 그 역으로 함축한다.

차원: 관계적 정의에 의해, 의미소적 텀은 6개의 체계적 차원 안에서 짝으로 그리고 그룹으로 만들어진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2개의 축(axes) S 와 \bar{S} : 그들의 관계는 모순 중의 하나이다. S 는 복합 축으로 호칭될는지 모른다. 그것은 s_1 과 s_2 를 포섭한다. \bar{S} 는 모순 \bar{s}_1 과 \bar{s}_2 (s_2 와 s_1 의)의 축이다. 따라서 그것은 s_1 과 s_2 와의 관계에서 중립축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 s_1 으로도 또는 s_2 로도 정의될 수 없기” 때문이다.

2. 2개의 도식(schemata); $s_1 + \bar{s}_1$ 는 도식1로 정의되고, $s_2 + \bar{s}_2$ 는 도식2로 정의된다. 각각의 도식은 모순관계에 의해 구성된다.

3. 2개의 직시(deixes); 첫 번째는 s_1 과 “ s_1 과 \bar{s}_2 ” 사이의 함축관계에 의해 정의되고, 두 번째는 “ s_2 와 \bar{s}_1 ” 사이의 함축관계에 의해 정의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동반하는 도표를 갖게 된다.

구성적 관계	구조적 차원	의미소적 구조
반대	S 축(복합적) \bar{S} 축(중립적)	$\frac{s_1 + s_2}{s_1 + s_2}$
모순	도식1 도식2	$\frac{s_1 + s_1}{s_2 + s_2}$
단순함축	직시1 직시2	$\frac{s_1 + s_2}{s_2 + s_1}$

우리는 다양한 체계적 차원 사이의 관계를 예견할 수 있다. 반대관계에 의해 구성된 2개의 축은 모순관계 안에 그 자신을 존재케 한다. 모순관계에 의해 정의된 2개의 도식은 반대관계 안에 그 자신을 존재케 한다.

우리는 두 도식의 이중전제를 기호현상(semiosis)이라고 호칭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이러한 이원전제가 단순모델의 두 도식으로 고찰된 언어학적 내용과 표현의 그것과 상응할는지 여떨는지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연구하기 위하여 비축해둔다.

규칙의 유형학

정의에 의해 모든 체계는 일련의 규칙을 갖게 된다. 그들은 조정적(措定的)으로(positively) 정의될는지 모르지만, 또한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의해 부정적으로 정의될 수도 있다. s 가 체계 규칙의 조정적 정의로 기술된다고 하면, \bar{s} 는 부정적 정의로 기술될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모든 사람들은 문법체계가 문법성의 정의뿐만 아니라, 비문법성의 정의도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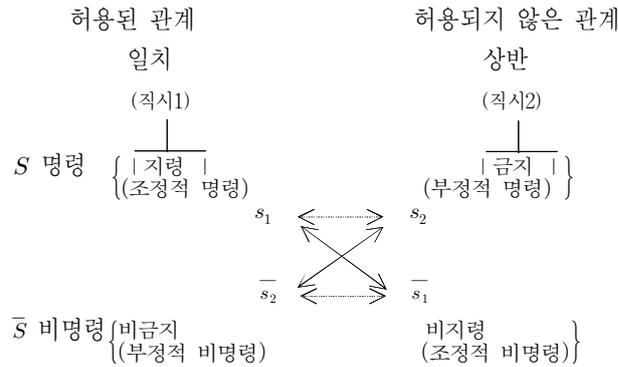
공교롭게도 비문법성의 개념은 몇몇 사물을 떠맡을 수 있다. 즉 지령(prescription)의 위반(infringements)과 실로 문법 당해의 불충분한 타당성은 물론 고찰중의 문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금지(interdiction)의 규칙마저도 떠맡을 수 있다.

우리는 표출 S 가 일련의 명령(injunction)으로, 그리고 \bar{S} 가 일련의 비명령으로 나타난다는 것과 관여하고 있다고 언급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정의적으로 자명한 일로서의 명령체계의 규칙은 일치(compatibilities)와 상반(incompatibilities, 상반이 없는 체계는 정돈되지 못한 체계일는지도 모른다)을 기술한다. 표

출과 관련하여 이러한 규칙은 각각 지령(조정적 명령; s_1 을 말한다)과 금지(부정적 명령; s_2 를 말한다)로 나타난다.

이러한 규칙의 각각의 유형은 \bar{s}_2 와 \bar{s}_1 이라고 하는, 즉 각각의 표출 비금지 와 비지령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모순 체계적 실례를 함축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도표를 확립할 수 있다.



노트: 명령(injunctions), 지령(prescriptions), 금지(interdictions), 일치(compatibilities), 상반(incompatibilities), 조정적(positive), 부정적(negative). (역주)

예를 들어, 교통신호의 초록색은 통과지령(s_1 을 말한다)을 의미하고, 빨강색은 통과금지(s_2 를 말한다)를 의미한다. 노랑색은 비지령(초록색에 이어서 켜질 때)을 의미하고, 어떤 때는 비금지(빨강색에 이어서 켜질 때)를 의미하며, 어떤 때는, 즉 노랑색이 그 자체만의 함수 역할을 할 때는 “ $\bar{s}_1 + \bar{s}_2$ ”를 의미한다.

우리가 의미소적 아티큘레이션을 2개의 모드로 구별하는 한에 있어서는 격상소적 아티큘레이션(phemic articulation, 어쨌든 야콥슨의 기술에 의하면, 예를 들어, 농축의 특징은 s_1 이 \bar{s}_1 에 포함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운론적 체계의 모든 다른 특징과 대당이 되는 방식으로 존재하며, 이중전제의 관계에 의해 방산의 특징 또한 s_1 이 s_2 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대당이 된다)¹²⁸⁾의 모드와 형식적으로 동정되며, 또한 우리가 언급한 것은

128) 텀 의미소가 내용의 최소한의 변별적 특징을 지시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표현의 변별적 특징(의미소와 같이 격상소는 본래 의미론적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지시하는 용어 격상소(pheme)를 사용할 것이다.

언어학적 표현의 형식에 있어서도 타당하다. 음운론적(phonological) 체계에서 우리는 다음을 얻을 수 있다.¹²⁹⁾

- ph_1 : 변별적 격상소의 그룹 체계
- ph_2 : 금지된(prohibited) 격상소의 그룹 체계
- \overline{ph}_1 : 실현되지 않았지만 관련된(relevant) 그룹의 체계
- \overline{ph}_2 : 격상소적 변이를 구성하고 있는 과장(redundant) 그룹의 체계

내용의 투자

성관계의 체계

우리는 기호학적 관점에서 고찰된 인간집단의 성관계의 연구에 의해 밝혀진 것으로서의, 구성모델의 투자의 예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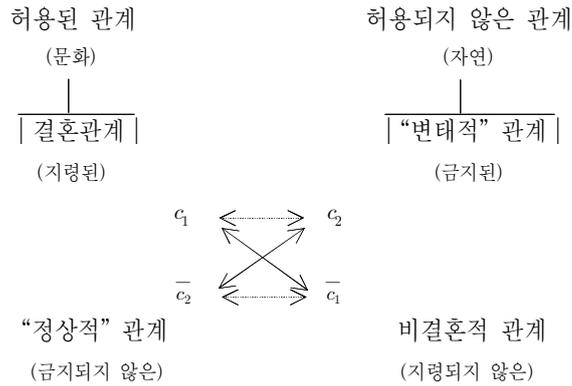
성관계의 사회적 모델: 레비스트로스의 기술에 의하면, 인간의 사회집단은 그들의 의미론적인 세계가 문화와 자연이라고 하는 2개의 차원으로 분할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전자는 그들이 떠맡은 내용에 의해 정의되고, 그것을 그들 자신에게 투자하며, 후자는 그들이 거절하는 것에 의해 정의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문화는 허용될 수 있는 성관계와 허용되기 어려운 성관계로서의 자연을 포섭한다. 따라서 우리는 “문화(허용될 수 있는 관계) vs 자연(허용되기 어려운 관계)”을 가지고 있다. 허용될 수 있는 관계는 자연과는 다르게

129)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 232. pheme(격상소); 1. Bernard Pottier는 용어 격상소(pheme)의 용법을, 의미소(eme)와 대비해서, 내용측면(the content plane)의 생김새, 즉 표현측면의 특색 있는 생김새를 지시하는 것으로 시사했다. 이 새로운 명목은 보다 더 단순하고 언어의 두 측면의 단위 사이에 확립된 유용한 특징을 허락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상소는 격상소의 범주를 구성하고 있는 관계의 마지막 팀일 뿐이다. 그것이 메타언어의 측면(이것은 구성된 것이다)에서 최소 단위의 예외로 고찰될 수 없는 이유이며, 그리고 어느 실체(substance)에도, 어느 실재(reality)에도 속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격상소의 범주는 표현측면(또는 더 정확하게, 그 form)의 구성의 관점으로 사용된 의미론적 범주와 다른 것이 아니다. 3. 격상소 범주의 이러한 추상적 성격은 R. Jakobson이 음운론적 세계(이러한 범주의 계층적 구조와 마찬가지로)의 존재자를 공리화 하도록 허락한다. compact(딱 차다)/dif-fuse(흩어지다), grave(저음 악센트)/acute(예음 악센트) 등등과 같은, 12가지 이원 대당적 격상소의 범주는 모든 자연언어의 표현측면의 아티클레이션에 고찰하기에 충분하다.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R. Jakobson의 공리는 우리의 관점에 유용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시사(그 범주는 필연적으로 이원적인 것이 아니다. 그들은 보다 단순한 방식으로 재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되었다. 만약 그것이 활동하고 있는 조건명제의 명석 판명한 전제라고만 한다면, 주어진 기호학적 조직으로 보이는 원리의 보다 더 나은 이해를 허락할 것이다. (역주)

부호화된다. 즉 사회집단은 다른 화맥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면서도 그것과 다른 “정상적” 관계들 받아들이고 있는, 결혼관계의 지령에 의해 그들 자신을 규정한다.

자연적인 직시의 경우, 이러한 관계의 두 유형은 금지된 관계(prohibited relation, 예를 들어, 근친상간)와 지령되지 않은 관계(not-prescribed relation, 비결혼적)로 대당이 만들어진다. 그 사회집단의 모델은 다음과 같은 도표를 보여줌으로써 형식화될지도 모른다.



노트: 예를 들어, 전통적 프랑스 사회집단에서 우리는 다음의 동치를 얻는다.

- $c_1 \approx$ 부부간의 성관계
- $c_2 \approx$ 근친상간, 동성연애
- $\bar{c}_1 \approx$ 남자의 간통
- $\bar{c}_2 \approx$ 여자의 간통

모델의 투자가 무엇이든지 간에, 문화의 경우, 즉 사회집단 가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자연의 경우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다(그리고 비의미작용의 영역으로 자연을 내던지는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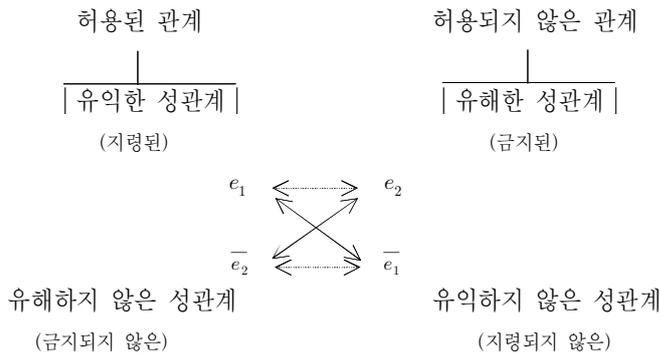
사회집단 모델의 팀은 “객관적” 내용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동성연애가 어떤 때는 금지되기도 하고(영국), 어떤 때는 금지되지 않기도 한다(Bororo 족에 있어서). 그러나 그것은 오로지 이성애만 허용되는 결혼관계의 경우보다 다른

축 상에 항상 정위된다.

선행모델의 도식1은 사회화된 성관계(결혼관계로 정의된)로 비추된다. 도식2는 “자연적” 관계를 포섭한다. 보다 더 정확히 말해서 전자는 비사회화 된(\bar{s}_1), 다시 말해서 “반사회적인(금지된 관계, s_2)” 또는 사회적 구조와 직접 연결 되지 않은(결혼관계보다 다르게 허용된 관계, \bar{s}_2) 관계를 포섭한다. 그러한 변화과정에 대한 레비스트로스의 기술은 친족(유사, kinship) 관계로 정의된, 다시 말해서 이렇게 아종으로 분열된 것까지도 총합하여 사회화된, 이성애관계(도식1)로 제한된다. 그러나 도식2는 예를 들어 근친상간의 금지의 연결 속에서 오로지 부정적으로만 정의된다.

이제 우리는 성적가치의 사회적 모델과 그것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호학적 하위구조 사이의 관계를 연구할 것이다.

성관계의 경제적 모델: 또한 경제적가치의 체계는 성관계를 규정하는 사회적 체계이다. 이득이 지령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금지로 인하여 손해를 본다는 것을(부의 소진은 종교적 위반이 되는 것 같다), 만약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경제적가치의 체계는 다음 도표에서 고찰된 것과 같이 형식화될 수 있다.



사회화된 성관계가 재화교환(지참금 등) 행위를 일으키는 한, 경제적 하위구조는 사회적 가치체계의 도식1에 순응한다. 여덟 개의 가능한 관계가 아종으

로 분류될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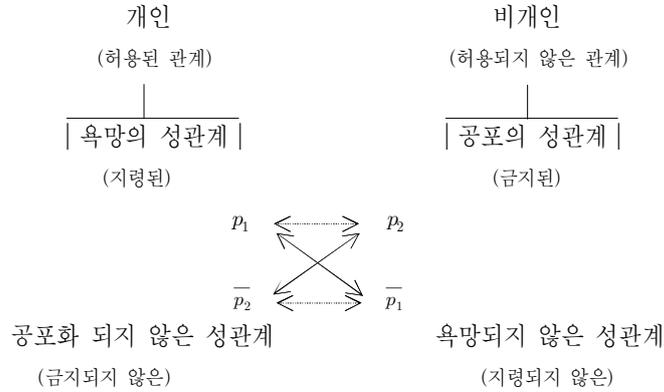
$$\begin{array}{l}
 \text{결혼관계} \left\{ \begin{array}{l} c_1 \simeq e_1 \text{ (유익한)} \\ c_1 \simeq e_2 \text{ (유해한)} \\ c_1 \simeq \overline{e_1} \text{ (유익하지 않은)} \\ c_1 \simeq \overline{e_2} \text{ (유해하지 않은)} \end{array} \right. \\
 \\
 \text{비결혼관계} \left\{ \begin{array}{l} \overline{c_1} \simeq e_1 \text{ (유익한)} \\ \overline{c_1} \simeq e_2 \text{ (유해한)} \\ \overline{c_1} \simeq \overline{e_1} \text{ (유익하지 않은)} \\ \overline{c_1} \simeq \overline{e_2} \text{ (유해하지 않은)} \end{array} \right.
 \end{array}$$

노트: 또한 우리는 경제체계의 팀과 결합하고 있는 유형 e_2 와 $\overline{e_2}$ 의 관계를 예견할 수 있으며, 따라서 또 다른 8개의 조합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발자크(Balzac)의 라브이웨즈(Rabouilleuse)는 그녀의 주인과 지령되지 않았으면서도 유익한 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이 경우 거기에는 성적 가치의 사회적 체계와 경제적 하위구조 사이의 순응이 없다. 즉 그들의 지령은 모순관계로 존재한다. (역주)

개인적 가치의 모델: 개인적 가치는 그들이 투자하는 그리고 그들의 개성을 구성하고 있는 것 안에서 내용의 경상도야(鏡像陶冶, assumption)¹³⁰에 의해, 그리고 다른 내용의 거절에 의해, 보기에 따라서는 사회집단과 유사한 것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개인적인 문화와 개인적인 자연은 허용된 그리고 허용되지 않은 관계를 각각 정의한다. 욕망(desire)은 전자의 그룹 안에 포함되고, 후자의 그룹 안에는 공포가 포함된다. 개인적 가치의 체계는 다음과 같이 도

130) 아직 입을 열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면서 그것을 통해 자신을 받아들이는 운동. 나라고 하는 것은 원초적으로 급진화하고 있는 어느 상징적 모체를 법례적 상황 안에서 명백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후에 만들어진 최초의 나는 타자와 동정(同定)되는 그 변증법 안에서 자신을 객관화하기도 하고, 언어활동이 나에게 그 주체적 기능을 보편성 안에서 되찾도록 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A. J. Greimas, Trans. by Daniel McDowell, Ronald Schleifer, and Alan Velie 「Structural Semantics」 (Lincoln and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83), pp. 113~114. “노트: 라캉(Jacques Lacan)은 새로운 레벨에 헤겔(G. W. F. Hege)의 해체(Aufhebung), 다시 말해서 변증법적 기초로서의 들어올림(lifting 또는 raising)으로 번역하고 있는 용어 경상도야(assumption[주도면밀한 의미에서])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들어올림은 초월된 대상 또는 개념을 모두 상실하지 못한다. 같은 방식으로, 예문에서 볼 수 있는 그레마스(A. J. Greimas)의 복합 동류체 안의 조정적 팀으로서의 “경상도야(assumption)”는 부정적 팀의 약간 “분할적인(partial)” 의미를 아직 존속시키고 있다. 라캉(Jacques Lacan)은 시니피앙의 레벨에 들어올림의 의미를 의미하는 경상도야로 사용하며, 그리고 화자와 청자에 의해 경상도야의 동류체를 검토하면서, 그레마스는 라캉(Jacques Lacan)을 따르고 있다.” 참조. (역주).

식화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체계의 텀은 개인적 가치가 사회화된 가치를 벗어나 그 외곽에 나타나는 한에 있어서는, 사회적 가치의 도식2와 함께 아티클레이션이 되는 것 같다.

$$\begin{array}{l}
 \text{금지된 관계} \left\{ \begin{array}{l} c_2 \simeq p_1 (\text{욕망된}) \\ c_2 \simeq p_2 (\text{공포화된}) \\ c_2 \simeq \overline{p_1} (\text{욕망되지 않은}) \\ c_2 \simeq \overline{p_2} (\text{공포화되지 않은}) \end{array} \right. \\
 \text{금지되지 않은 관계} \left\{ \begin{array}{l} \overline{c_2} \simeq p_1 (\text{욕망된}) \\ \overline{c_2} \simeq p_2 (\text{공포화된}) \\ \overline{c_2} \simeq \overline{p_1} (\text{욕망되지 않은}) \\ \overline{c_2} \simeq \overline{p_2} (\text{공포화되지 않은}) \end{array} \right.
 \end{array}$$

또한 우리는 게다가 8가지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 텀 c_1 과 $\overline{c_1}$ 의 조합을 기대한다.

우리는 다양한 체계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된 조합의 구조를 더 이상 정확하게 정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A와 B 두 체계가 같다고 하자. 즉 pr 은 지령과 같다고 하고, i 는 금지와 같다고 하자. 관계의 몇 가지 유형이 예견될

수 있다.

동차적인 팀 간의 관계

1. $pr(A) + pr(B); i(A) + i(B)$
2. $\overline{pr}(A) + \overline{pr}(B); \overline{i}(A) + \overline{i}(B)$

동차적인 직시에 속해있는 비동차적인 팀 간의 관계

3. $pr(A) + \overline{i}(B); pr(B) + \overline{i}(A)$
4. $i(A) + \overline{pr}(B); i(B) + \overline{pr}(A)$

언급되고 있는 그룹 1과 2의 관계는 균형이 잡혀있고, 그룹 3과 4의 관계는 일치가 되어있다. 비동차적인 팀과 비동차적인 직시 간의 관계는 충돌관계(conflictual relation)로 호칭될지도 모른다.

반대 팀 간의 2개의 충돌은, 우리가 명령의 축으로 취급하든지, 또는 비명령의 축으로 취급하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취급하는 방식에 따라 구별될 수 있다.

5. $pr(A) + i(B); pr(B) + i(A)$ (강력한 충돌)
6. $\overline{pr}(A) + \overline{i}(B); \overline{pr}(B) + \overline{i}(A)$ (약한 충돌)

게다가 모순 팀 간의 2개의 충돌은, 우리가 금지의 도식으로 취급하든지 또는 지령의 도식으로 취급하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취급하고 있는 그 방식에 따라 구별될 수 있다.

7. $pr(A) + \overline{pr}(B); pr(B) + \overline{pr}(A)$
8. $i(A) + \overline{i}(B); i(B) + \overline{i}(A)$

사회적으로 허용된 성관계의 경우를 선택하기로 하자. 만약 우리가 허용된 결혼을 개인적 가치의 치환에 종속되는 것으로서의 상수 c_1 과 c_2 로 고찰한다면, 가능한 결혼의 네 가지 유형을 얻을 수 있다.

조합형식 $c_1 + \bar{c}_2$	조합구조
$c_1 + p_1$ (desire, 욕망된)	균형적(1), (balanced)
$c_1 + p_2$ (phobic, 공포적인)	충돌적(5), (conflictual)
$c_1 + \bar{p}_1$ (욕망되지 않은)	충돌적(7), (conflictual)
$c_1 + \bar{p}_2$ (공포적이지 않은)	일치적(3), (compatible)

다른 예를 들기로 하자. 만약 우리가 \bar{c}_2 를 상수로, c_1 을 변이에 종속된 것으로 고찰한다면(경제적 치환과 함께), 우리는 네 가지 유형의 성관계를 얻을 수 있다(다음 도표를 보라).

조합형식 $\bar{c}_2 + c_1$	조합구조
$\bar{c}_2 + e_1$ (유익한)	일치적(4) (compatible)
$\bar{c}_2 + e_2$ (유해한)	충돌적(8) (conflictual)
$\bar{c}_2 + \bar{c}_1$ (유익하지 않은)	충돌적(6) (conflictual)
$\bar{c}_2 + \bar{e}_2$ (유해하지 않은)	균형적(2) (balanc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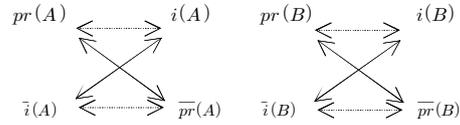
3가지 체계의 텀의 보편화된 조합조정은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성관계를 위해 16가지 가능한 상황을 생산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조합이 같은 방식으로 표출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러한 조합은 화술의 상호개인적인 관계를 기술하는데 적합한 지식획득수단의 원칙을 제공한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발자크 소설에서의 성관계를 기술한다면, 보편적으로 우리는 주인공들의 상황이 비대칭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페르 리구(Père Rigou)와 그의 하녀와의 관계는 욕망되어 있으며, 유익하지도 않고, 유해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인과 페르 리구와의 관계는 공포화되어 있으며, 허용되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표출이든지 간에 관계는 충돌적인 것으로 존재한다. 기호학적 상황의 비동차는 “로맨틱한 불만족”을 정의하는 것으로 기여하는지도 모른다. 완벽한 사랑은 그룹 2와 3으로부터 나오는 관계의 표출이다.

2. $\bar{pr}(A) + \bar{pr}(B); \bar{i}(A) + \bar{i}(B)$

3. $pr(A) + \bar{i}(B); pr(B) + \bar{i}(A)$

노트: 아래 도표 참조(역주)



개인과 사회집단

통합구조와 상호관계의 하위구조: 경제적 가치의 체계와 개인적 가치의 체계를 실행하는 것은 성관계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사회화된 성관계와 함께 전자를, 그리고 비사회화된 관계와 함께 후자를, 선택적으로 조합한다.

이러한 2개의 하위구조는 그들이 사회적 체계와 동일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과 분간하여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적 가치는 종합적 사회체계(비록 경제적인 사리사욕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로 통합된다. 예를 들어, 근친상간은 그것이 금지된 사회집단 속에서 유익할 수 있다고 상상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이를테면 그룹 5와 같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어떤 조합은 위치를 잡지 못할 것이다.

다른 한편, 개인적 가치의 체계는 사회적 체계로 통합되어 필연적으로 나타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룹 5, 즉 “ $pr(A)+i(B); pr(B)+i(A)$ ”의 관계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그들은 위반(transgression)으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개인적 체계는 사회체계와 상관된다고 언급될 것이다(더 나아가 개성은 사회화된 예를 포함한다).

인간세계: 사회적 체계의 도식1이 사회화된 관계를 포함하게 됨으로써, 개인적 체계의 도식1이 개성화된,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 그의(그녀의) 욕망 안에 투자된 확장(외연)으로 고찰될지도 모른다.

만약 우리가 두 체계를 일치(동차적인 팀이 동차적인 직시로 정위된 관계)로 고찰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상호관계를 얻게 된다.

$$p_1 \simeq \bar{c}_2 \text{ (욕망은 금지되지 않는다)}$$

$$c_1 \simeq \bar{p}_2 \text{ (사회적 지령은 공포화되지 않는다)}$$

$\bar{p}_1 \simeq c_2$ (금지된 것(things: 사태)은 욕망되지 않는다)
 $\bar{c}_1 \simeq p_2$ (비지령된 것(things: 사태)은 공포화된다)

노트: 아래 도표를 대비하여 볼 때, $\bar{c}_1 \simeq p_2$ (not-prescribed things are not feared)는 "not-prescribed things are feared"로 정정되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 \bar{c}_1 와 p_2 "는 금지의 속령에 속하니까.



다시 말해서, 사회적 체계에 의해 추정된 도식은 개인적 체계에 의해 추정된 도식을 부정적으로 정의한다. 개인적 체계의 도식1과 사회적 체계의 도식2는, 그 중의 어떤 것의 명령(s, injunction)이 다른 것의 비명령(\bar{s})과 조합되는 방식으로 오버랩 된다. 즉 개인적 체계의 도식2와 같이, 그리고 사회적 체계의 도식1과 같이.

이러한 상황에서, 두 체계의 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상관된다. 즉 개인적 체계의 중립축과 함께 사회적 체계의 복합 축이 성립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개인적 체계의 복합 축과 함께 사회적 체계의 중립축이 성립되는 방식으로 상관된다.

두 문화적 직시(사회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의 연언은 인간의 가치를 정의한다. 두 자연적 직시의 연언은 비인간의 세계를 정의한다.

사회적 자연과 함께 개인적 문화의 연언은 "위반의 공간(space)"을 정의한다. 개인적 자연과 함께 사회적 문화의 연언은 "소원(疎遠, alienation)의 공간(space)"을 정의한다.

노트: 러시아 민담 연구에서, 위반과 소원은 상호작용적이라고 지적했다. 즉 기술된 의미론적 세계에서, 가치의 향유가 사회적 체계 그리고 개인적 체계의 일치에 의해 정의되며, 그래서 " $c_1 \simeq \bar{p}_2$ (사회적 지령은 공포화되지 않는다)"와 " $\bar{c}_2 \simeq p_1$ (금지되지 않은 것은 욕망된다)"이 된다. 그러나 그때, 소원 없이 위반이 존재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다음을 갖는다면,

제3장 기호학적 강제의 상호작용

a. $c_1 \simeq \bar{p}_1$, 그리고 $\bar{c}_2 \simeq p_2$

(사회적 지령이 개인적 지령이 아니라고 하면, 그리고 사회적으로 금지 되지 않은 것이 개인적 금지라고 하면)

우리는 또한 다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b. $c_2 \simeq \bar{p}_2$, 그리고 $\bar{c}_1 \simeq p_1$

(사회적 금지는 개인적 금지가 아닐 것이며, 사회적 지령이 아닌 것은 개인적 지령일 것이다)

역으로, 만약 우리가 b를 갖는다면, 우리는 또한 a를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표출에 대하여

기호학적인 체계의 상호작용

어법(usage)의 개념은 구조에 의해 정의된 가능성과 비교해서 표출의 폐포를 고찰하도록 엘름슬레우에 의해 도입되었다.

그 표출의 진기함은 불확실한 숙려(熟慮, calculation)의 증명사에 의해 실행된 어법에 대해 연구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200명 정도로 구성된 여차여차한 인도의 한 사회공동체는 수없이 많은 조합을 허락하는 결혼체계의 가능성을 일일이 다 구명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닥치는 대로 위치를 획득하는 결혼체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마도 역사적 상황이 어떤 결혼의 선택을 결정하도록 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것을 결정하도록 하기도 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성에 대해 정의하려고 한다.

체계의 표출이 단지 허용된 관계에 의해서만 정의된다고 하는 성관계 상의 선행추측으로부터 결론을 내리지 못했음에 틀림이 없다. 만약 이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표출은 유형 “ s_1 과 s_2 ”의 규칙의 생산으로 매우 단순하게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허용된 것의 직시가 허용되지 않은 것의 직시와의 관계로 정의되기 때문에 애매하고 개연적인 것 같으면서도 개연성이 전혀 없다. 이러한 필연성은 몇몇 미국의 언어학자들이 발화자료체(기술체계 안에서 허용된 관계와 가연적으로 확증하고 있는)를 선택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왜 유형 “ s_2 와 s_1 ”의 “숨겨진” 규칙으로 표출되는 그들 자신의 어법으로서의 비문법적인 발화자료체를 창조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밝혀준다.¹³¹⁾

어떤 것은 우리를 다음과 같이 안내할 수 있다. 설화의 문제이든지 또는 결혼의 문제이든지, 하여간 어떤 것이든지 간에 기호학적 표출이 한 체계에만 동시에 매달린다고 주장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 가지에 매달리고 있는 한, 그 폐포는 그것을 생산하는 여러 가지 체계의 상호작용에 귀속될 수 있다. 예컨대, 어느 비금지된 성관계를 들어보자. 그것은 가능하지만, 겉으로 표출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당해 경제적 체계의 허용된 관계와 함께 또는 주인공 각각의 개인적인 가치의 체계와 함께 동시에 발생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자유조합조정(自由組合調整)의 경우, 세 체계의 허용된 관계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1/8이며, 사회적 모델의 텀이 균형된 조합으로 표출될 확률은 1/64이다. 우리는 예견했던 많은 조합이 위치를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을 고찰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그러한 성관계는 사회적으로 금지되고, 경제적으로 유해하고, 개인적으로는 공포를 겪게 된다.

텀 어법을, 우리는 비표출과 마찬가지로 표출에 대해 책임을 맡고 있는 기호학적 구조의 상호작용으로 지시하도록 제안한다. 상호작용의 몇 가지 유형을 예견할 수 있다.

1. 관련된 두 체계의 허용의 부재: 우리는 조합 (1.b), (2.a), 그리고 (4)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은 표출이 없을 수 있는 것으로 고찰될는지 모른다.
2. 한 체계의 허용, 그러나 다른 체계의 금지: 우리는 조합 (5), (6), (7), 그리고 (8)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그 표출이 위치를 획득할 수 있을는지 없을지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
3. 두 체계의 허용: 우리는 (1.a), (2.b), 그리고 (3)을 얻을 수 있다. 그 표출은 위치를 획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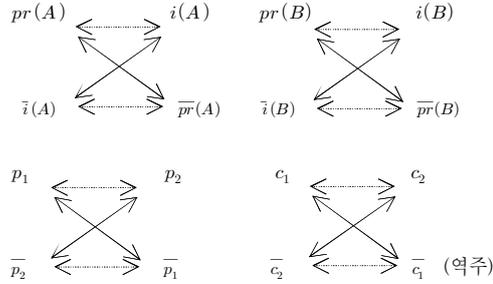
노트:

1. $pr(A) + pr(B); i(A) + i(B)$
2. $\overline{pr}(A) + \overline{pr}(B); \overline{i}(A) + \overline{i}(B)$
3. $pr(A) + \overline{i}(B); pr(B) + \overline{i}(A)$
4. $i(A) + \overline{pr}(B); i(B) + \overline{pr}(A)$
5. $pr(A) + i(B); pr(B) + i(A)$ (강력한 충돌)

131) M. Gross, "L'explorati des Modèles en linguistique," *Langages*(1968); 3~8, 5: "현대 언어학의 논설에는 수용 가능할 만큼 많은 비문법적인 예가 존재한다."

6. $\overline{pr}(A) + \bar{i}(B)$; $\overline{pr}(B) + \bar{i}(A)$ (약한 충돌)
7. $pr(A) + \overline{pr}(B)$; $pr(B) + \overline{pr}(A)$
8. $i(A) + \bar{i}(B)$; $i(B) + \bar{i}(A)$

- a. $c_1 \simeq \overline{p_1}$, 그리고 $c_2 \simeq p_2$
- b. $c_2 \simeq \overline{p_2}$, 그리고 $c_1 \simeq p_1$



게다가 만약 우리가 적어도 어떤 지령이 위치를 획득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가언을 받아들인다면, 표출이 발생할 수 있는 조합의 목록은 제한될 것이다. 거기에는 오로지 (1.a)와 (3)만 남게 된다.

여기 어법의 예가 있다. 프랑스어 음운체계에서의 음소 (r)의 변이음 (R)은 노동계급에서 금지되지 않고, “상류사회”에서 지령되지 않는다. 그것은 내용 소박성에 의해 언외지의(내포)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것은 사회계층에 따라 표출되거나 표출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가치체계와 음운론적 가치체계 사이의 상호작용은 여기서 분명해진다.¹³²⁾

어법의 함수 작용은 아종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성관계의 표상에서, 당해의 다양한 체계는 계층적 관계로 존재한다. 표출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가치체계의 각각의 내용은 2개의 중계 장치(또는 驛站, relays) 또는 구조에 의해, 즉 경제적 체계와 개인적 체계에 의해 화해(중재)되어 나타난다. 이제 체계의 계층을 결정하는 것을 고찰하는 일이 남아있다.

132) 비록 이러한 유형의 사실이 야콥슨의 “논문 선집 I (Phonological Studies, The Hague: Mouton, 1970)” 안에 자주 인용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 그들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필시 음운론자들은 그들이 연구했던 체계로부터 비명령을 제거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 문제가 흥미롭다. 체계의 계층은 충돌적인 조합 (5), (6), (7), 그리고 (8)의 경우에 표출이 될 것인가 아니면 될 것인가 그 여부를 결정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그저 공포적인(또는 욕망되지 않은) 그리고 동시에 유익한 것일 뿐인 사회적 지령을 확증하고 있는 결혼이 위치를 획득할 것인가? 발자크의 “금전결혼”에서 몇 가지 예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그가 날조하거나 기술하는 사회집단 속에서 경제적 가치의 체계가 개인적 가치를 초월하는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사회적 성적 가치를 초월하는(배출 등) 우월성까지도 가지고 있다.¹³³⁾

우리는 “에피스테메(epistemy, épistème, 학적 인식지; 여기서 우리가 선호하기에 따라서는 부르주아 또는 발자크적인 인식지)”¹³⁴⁾와 관련된 기호학 체계의 계층을 정의하는 구조라고 호칭하기를 제안한다. 따라서 표출의 페포(비표출에 의한 어법의 부정적 정의)뿐만 아니라, 실현된 표출(어법의 조정적 정의)의 성질까지도 나타낼 수 있는, 조합을 지시한다.

133) 프랑스 민법에서, “재산을 획득하는 것의 의미”의 장 첫 번째 단락은 “결혼(Le Mariage)”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있다.

134) 에피스테메(épistème): 1. 과학적 지식, 직업적·전문적 지식, 지식 일반을 가리키는 말. 철학용어로서는 실천적 지식(프로네시스; phronesis)과 상대적 의미에서의 이론적 지식, 또는 감성에 바탕을 둔 의견(臆見; 독사)과 상대되는 참의 지식을 말한다. 독사와 에피스테메의 구별은 이미 파르메니데스(Παρμενίδης, 기원전 510년경~기원전 450년경)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구별한 것은 플라톤이다. 그는 에피스테메와 에이도스(eidos)를 밀접하게 관련시키면서 독사와 아이스테티카(aesthetik, aesthetica; 아이스테시스, aesthesis; 감응적으로 파악된 것)에 대립시킴으로써 참된 지식의 위상(位相)을 인식론적·존재론적으로 규명하였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필연적이고 영원한 것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능력을 말한다. 2. 파르메니데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엘레아학파의 시조. 존재와 비존재, 존재와 사유라는 철학의 중대 문제로부터 출발했다. 이성(理性; 칸트에게서는 悟性)만이 진리이며 이에 반해 다수(多數)·생성·소멸·변화를 믿게 하는 감각은 모두가 오류의 근원이라 주장했다. 존재론(存在論) 및 인식론(認識論)에 영향을 주었다. 철학 시 “자연에 대하여”가 약 160행 남아 있으며, 그 사상의 중심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립하는 “존재하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만이 있으며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하는 근본사상으로부터 “존재하는 것”성질을 논리적으로 연역(演繹)하였다. 그의 존재론은 사실상 플라톤의 존재론에 거의 그대로 흡수되어, 이후 2000여 년 동안 서양 철학의 핵심인 존재론과 인식론의 바탕이 되었다. 3. 아이스테티카(aesthetik, aesthetica; 감응론): 감각기관에 의해 지각되는 것에 관한 이론. 감각기관에 의해 지각되는 것, 즉 감응적인 것은 예로부터 개념적 사고에 의해 파악된 것, 즉 오성(悟性, 플라톤의 理性)적인 것에 비하여 낮은 차원의 것으로 취급되어 왔으나, 근세에 이르러 차차 그 중요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G. W. F. 라이프니츠와 C. V. 볼프의 흐름을 이어받은 A. G. 바움가르텐에 이르러, 오성(플라톤의 이성)의 인식에 관한 학문(logica: 論理學)에 상대되는 것으로서 감응적 인식에 관한 학문(aesthetica)이 생겨, 전자의 완전한 인식이 진(眞)에 도달하는 데 대하여 후자의 완전한 인식은 “미(美)”에 이른다 하고 하였고, 이 말은 그대로 “미학(美學)”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경우에도 감응을 낮은 차원에 두는 사고방식이 아직 남아 있었으나, 이런 관념은 마침내 I. 칸트와 C. 피들러에 의해 완전히 극복되었다. (역주)

제3장 기호학적 강제의 상호작용

노트: 팀 “선택”은 실현된 표출을 생산하는 그리고 어법을 절대적으로 정의하는 변화과정으로 지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비표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그리고 어법을 부정적으로 정의하는 변화과정을 지시하도록 강요한다(강요는 비의미론적인 성질 또는 체계의 상호작용 팀의 상반을 결정한다).

에피스테메는 표출의 역사성을 떠맡는다. 그 사회적인 성분은 암시적인 또는 그렇지 않은, 즉 고찰된 사회집단의 모든 기호학적 구조 안에 내재하는 가치론적인 그리고 방언적인 체계로 존재하는 상식으로 나타난다.

표출된 내용의 지위

우리는 표출될 수 있는 내용의 조건을 방금 고찰했다. 이제 우리는 기호학적 표출의 성질, 그리고 심층구조로부터 표층구조로의 전승(轉乘)을 좀 더 신중하게 정의할 수 있다.

작가, 즉 어느 기호학적 대상의 생산자는 에피스테메 안에서 작용하며, 그것은 그의 개성에 의한 결과로 그리고 그가 각인된 사회집단의 결과로 존재한다. 이러한 사회집단 안에서 그는 제한된 수의 선택을 감행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에피스테메는 조직된 내용, 즉 결합가(valence, 관계의 가능성)로 타고난 내용의 투자를 최초의 결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기호학적 문법 구조의 속단 없이, 우리는 이러한 내용이 표출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상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가장 단순한 경우만을 선택할 것이다.

연언과 선언의 관계에 의해 정의된 기호학적 구조의 각각의 팀으로서의, 그것은 연언적인 또는 선언적인 모드로 나타날 수 있다.

1. 선언적인 모드: 기호학적 구조의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는지도 모른다.

a. 3개의 다른 팀으로부터 분리된 모드: 그때 그것은 표출 안에 고립된다. 예를 들어, 우리는 s_1 (vs $s_2, \bar{s}_1, \bar{s}_2$)을 얻는다. 따라서 거기에는 4개의 팀의 각각을 위한 1개의 표출로 존재한다.

b. 또 다른 팀으로부터 분리된 모드: 그것은 변별적 대당의 일부가 된다. 예를 들어 우리는 s_1 vs s_2, s_1 vs $\bar{s}_1; s_1$ vs \bar{s}_2 를 얻게 된다. 동일 구조의 표출의 다른 가능성은 \bar{s}_1 vs $\bar{s}_2; \bar{s}_1$ vs $s_2; s_2$ vs s_2 이다. 따라서 거기에는

여섯 개의 가능한 표출이 존재한다.

2. 연언적인 모드: 표출에서, 복합 텀이라고 호칭되는 것을 정의하는 여섯 개의 이원적 연언은 구성적 구조의 여섯 개의 내재표출과 상응할 수 있다. 따라서 2개의 직시적인 복합체, 2개의 반대의 복합체, 그리고 2개의 모순의 복합체가 만들어진다.

브뤼달(Vigo Brøndal)의 기술에서 단순한 텀인 중립 텀은 실제적으로는 복합 텀($\bar{s}_1 + \bar{s}_2$)이 될지도 모른다.

브뤼달이 균형적인 복합 텀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두 반대의 연언표출인지 또는 두 모순의 연언표출인지는 불확실하다. 기술에 있어서 제한된 경험은 2개의 복합체, 즉 유형 “백+흑”, 그리고 “백+비백”의 복합체를 동일 목류로 인정하도록 허락했다.

또한 우리는 확장(외연, extension)의 문제를 마음속에 그리지 않으면 안 된다. 브뤼달은 우리가 조정적 복합 텀 또는 부정적 영역과 마주친다고 정의한다. 그들은 아마 계층적으로 비동치적 체계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산되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답사적인 반성은 두 방향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기호학적 대상의 생산이 어떻게 표층구조와 함께 강요와 선택의 두 번째 레벨과 맞닥처 조우하게 되고 또 만들어지는지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담화구조(예를 들어, 화술)의 문제이다. 그들은 표출의 결합체적인 양상을 떠맡는다. 그들은 역할(행위주의 내용)의 확립과 같은, 그리고 “궁형함수 (archifunction, 함수의 내용)”와 같은, 어떤 작용의 선택을 강요한다.

그때 심층구조의 형식과 채용된 기호학적 문법의 규칙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의 확립에 대해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심층구조는 변증법적 알고리즘의 정위를 정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먼저 표층구조의 레벨에서 내용의 존재자의 모드에 대한 정의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일단 그들의 논리적 지위가 기술된 뒤에, 그들의 조합결과를 짜 맞추어야 할 것이다.

제4장 화술문법의 원소(elements)

화술과 기호학이론

역사적 개관

화술(narrativity)에서 시대를 초월하여 대두되고 있는 증가추세의 관심은 그 자신을 서서히 정의하고 있는 바로 그 보편적인 기호학의 요망과 목표가 일치하여 나란히 위치를 잡게 될 것이라는 데 있다.

첫 번째로 예를 들면, 다양한 탐구활동(민담에 관한 Vladimire Propp의 탐구활동, 신화의 구조에 관한 레비스트로스의 탐구활동, 연극에 관한 Étienne Souriau의 탐구활동)으로부터 유래된 그 결과의 비교는 자율적인 연구 분야의 존재자를 승인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했다.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론적 정제(브레몽이 결정논리의 투시도법으로부터 화법을 해석하는 그 방법, 또는 Alain Dundes가 설화조직을 형식화하는 화술문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방법)가 이론적 접근의 다양성과 함께 우리에게 제공되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의 관심은 화술분석의 적용영역을 가능한 만큼 확장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탐구과정에서 생산된 이차적 모델을 가급적이면 보다 큰 확장(외연)으로 형식화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모델들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용된 범주의 모든 기호언어학적 성질에 대해 우리가 역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았다. 이것은 보편성의 보증으로, 그리고 보편화된 기호학이론으로 화술구조를 통합하는 방식같이 보인다.

화술과 그 표출

화술분석의 방법론적 정교화(sophistication)¹³⁵⁾와 민속학(folklore)이나 신화학(mythology)보다 다른 영역으로의 적용을 위한 그 가능성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하도록 유도했다. 언어학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개념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었다.

먼저 우리는 화술구조가 자연언어로부터 유래된 의미의 표출보다 다른 어딘가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영화적인 그리고 몽상적인 언어 안에서, 격아강적인 회화(繪畵) 등등 속에서 발견될 수

135) sophistication: 궤변을 논함, 억지 이론, 세상 물정에 익숙함, 고도의 지적 교양, 세련, 복잡(정교)화, 쉬움결, 가짜 등의 의미. "complex"와 같은 의미로 보아도 될 것이다. (역주)

있다. 이것은 표상과 분석의 두 레벨 사이의 기본적인 구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즉 표상은 화법의 외양 레벨을 말하는 것으로서, 화술의 다양한 표출이 표현된 것으로서의 언어학적 실체의 아종적인 필요조건에 종속되는 그것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분석될 수 있는 내재적인 레벨이란, 화술이 선행 표출의 단계에서 정위되고 조직된 일종의 공통구조적인 동정으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한편, 만약 화술구조가 그들이 표출되기 전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떠오르는 표출을 위하여 그것은 크리스티앙 메스(Christian Metz)가 영화 기호학에 관한 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을 인용하고 있는, 커다란 결합체를 구성할는지 모르는 발화-단위의 화술구조보다 훨씬 더 큰 차원인, 언어학적 단위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화술의 언어학적 구조는 표출 레벨에서의 화술구조와 상응하며, 또한 그 화술의 분석은 당연한 결과로서의 담화분석을 얻게 된다.

화술과 기호학

따라서 그것은 의미작용이 표출의 모드와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외에, 우리가 조직된 의미작용의 폭넓은 분야로서의 공통 구조적 레벨의 존재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레벨은 어느 보편적인 기호학적 이론으로 분명히 통합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이론이 문화적 또는 개인적 목류에 속해있는 의미의 총체로서의 의미론적 세계의 표출과 뚜렷한 발음으로서의, 다시 말해서 에피스테메 차원의 아티큘레이션으로 고찰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러한 이론의 보편적인 조직은 뒤집혀 엉망으로 만들어진다. 전에 우리는 언어학적 투기가 조합적인 또는 보편적인 메커니즘으로 어느 위치에 삽입된 것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으며, 하위계열의 단순한 원소와 독창적인 중핵과 함께 시발함으로써 무한한 발화의 생산을 고찰하게 될지도 모르며, 게다가 나중에 변형될지도 모르며, 담화 안에서 발화의 연속을 창조하기 위하여 상위계열에서 조합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또한 믿을 수 있었다. 이제 역으로, 우리는 그 상위계열에서 가능한 한 작게 아티큘레이션이 된 것으로 존재하는, 의미작용적인 아티큘레이션으로 보다 더 좋게 정제된 것으로 얻게 된, 연속분할적인 레벨로 내려가는

것으로 존재하는, 의미의 응집작용과 함께 시발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작용의 보편성의 시발점으로서의 실례(instance)를 상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계속해서 이것은 그것이 표출될 때 의미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의미의 두 가지 목표란, 아티클레이션이 된 의미로 나타나는, 즉 에피스테메 차원의 의미작용으로 나타나는 것과, 의미상의 보다 상위의 인식론적인 담화, 즉 의미의 모든 초기의 아티클레이션으로부터 그 상태 그대로 진전하는 그래서 커다란 부연(敷衍, paraphrase)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의미의 보편성은 먼저 발화의 생산형식을 획득하지 못하고 담화 안에서 그들의 조합으로 획득된다. 즉 그것은 화술구조에 의해 궤도의 행로 안에서 중계되며, 발화 안에서 아티클레이션이 된 다시 말해서 의미심장한 담화를 생산하는 이것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경향을 뚫으로써, 우리는 화술이론의 진전을 고찰할 수 있는데, 그것은 탐구의 방법론적으로 자명한 영역으로서의 화술분석이 정교하게 그리고 더욱더 수가 많아져 얻게 된 그리고 이탈된 화술모델로, 그들 모두를 포섭할지도 모르는 이러한 모델의 유형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특히 기호학의 보편적인 유기조직으로서의 자율적인 실례로 화술구조를 포괄함으로써, 의미작용의 과학으로 고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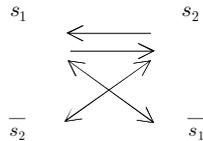
보편적인 기호학의 실례

이것을 성취함으로써, 우리는 기본적인 시발점(ab quo)으로서의 실례(의미론적 실체가 최초의 아티클레이션을 수용하는, 그리고 그 자신을 의미작용의 형식으로 구성하는 장소)와 최종 종착점(ad quem)으로서의 실례(의미작용이 그 자체를 복합 언어로 표출하는 장소) 사이의 폭넓은 영역이 자율적 기호학구조(포함된 화술구조)를 포함할지도 모르는 중계실례를 어느 위치 — 즉 내용의 상보적 아티클레이션과 보편적일지도 모르는, 기본적일지도 모르는, 그리고 아티클레이션이 된 담화의 조립으로 규정될지도 모르는 일종의 문법으로 진전될지도 모르는 장소(loci) 안에 챙겨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호학적 이론을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러한 중계실례와 관련된 구조적 투기는 이원적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그들이 마치 의미 궤도의 이러한 레벨에서 고찰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용의 아티클레이션을 위한 모델을 제안하지 않으면 안 되며,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교묘하게

다룰 수 있는, 그들이 생산과 담화의 오렌지와 같은 낭중분절(囊中分節, segmentation)을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화술표출의 어떤 조건 하에서 조직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들을 조정할 수 있는 것에 의해 이러한 형식적 모델을 위치(place)¹³⁶ 안에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기호학적 이론은 기본적인 의미론과 문법을 위해 그 중심에 어떤 위치를 유보해 두지 않고서는 결코 충족되지 못할 것이다.

기본적인(fundamental) 의미론에 대하여

기본적인 의미론의 투기, 즉 언어학적 표출의 의미론과 다른 의미론은 절대적으로 의미의 이론에 의지한다. 따라서 그것은 포착될 수 있는 의미의 조건을 명백하게 만들고 있는 변화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또한 그것은 그것으로부터 환원될 수 있는, 그리고 그 자체가 공리로 존재한다는 것을 대칭의 한 짝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미작용의 기본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제3장에서 기술되고 분석된 이러한 기본구조는 이원적 의미소범주의, 유형 “백 vs 흑”의 진진되어 새롭고 논리적인 단계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고찰되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텀은 반대의 관계로 존재하며, 또한 각각의 그것은 모순이 될지도 모르는 새로운 텀을 투기한다. 계속해서 모순의 텀은 그와 대당이 되고 있는 반대와 비교하여 전제관계를 맺는다(아래 도표를 보라).



————>는 전제를 지시하고, <————>는 모순을 지시한다.

위와 같이 작용하고 있는 경상도야를 추종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작용의

136) 텀(term)은 안정적(stable)이고, 위치(자리, place)는 약동적(dynamic)이다. 즉, 텀 $2x-(4+2)$ 일 때, x 가 8이라고 한다면, $16-6=10$ 로서, 확정된다. 그러나 위치의 경우는, ... 4 3 2 1 0 -1 -2 -3 -4 ...이라고 한다면, 양수 1자리; 1~9, 2자리; 10~99, 3자리; 100~999, 4자리; 1,000~9,999 등의 변수가 발생한다. 음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역주)

이러한 기본구조가 의미론적 초미우주 안의 의미의 최초의 아티클레이션으로 고찰되는 것에 의해 특유의 기호학적 모델로 우리에게 제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것은 의미론적 세계의 우리의 개념과 관련되고 있는 하위공간(following clear)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에(「구조의미론(Sémantique structurale)」에서), 우리는 그것이 의미하도록 사용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통제하고 있는 아티클레이션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저 아티클레이션이 되었다고 하는 것만으로 포착되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실행되고 있는 “의미론적 실체”의 총체성으로 고찰된다는 것을 제안했었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의 아티클레이션이 의미소범주의 제한된 목록을 사용함으로써 야기된 조합조정의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아티클레이션 조직의 보다 더 좋게 정제된 표상을 제안할 수 있다. 사실, 우리의 이 새로운 개념은 조합조정의 각각의 구성적 범주(우리가 고찰했던 것처럼, 어느 순간에 기본구조로 진전하고 있는 장소)가 구성적 기호학의 모델로 변형될지도 모른다는 것으로 존재하며, 그리고 그 자체를 하위아티클레이션으로 기여하고 있는 동일 목록으로부터 다른 범주에 종속시킬지도 모른다는 것으로, 따라서 의미작용의 폭넓은 분야를 포섭하는 그리고 의미론적 초미우주를 에워싸는 것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총체성 안에서 의미론적 세계의 아티클레이션을 위해 필연적인 의미소범주의 기본목록은, 또한 모든 가능한 초미우주의 내포적인(virtual) 목록과 각각의 문화, 각각의 개성이, 특권이 부여된 아티클레이션을 통해서, 다른 것의 희생으로(프랑스의 포도주 문화는 터키의 샘물을 사용한다) 어느 초미우주를 편애할 수 있다는 것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고찰함으로써, 구성적인 모델은 초미우주의 의미론적 실체의 아티클레이션 안에서 형식으로 사용된 의미작용의 기본구조보다 다른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기본구조의 텀 사이의 동류체(isotopy)는 확실하게 존재하며, 보기에 따라서는 초미우주의 기초가 의미의 단위인 것 같으며, 우리의 공리적 능동성 안에서, 구성적인 모델을 표준형식으로, 기본적인 의미론을 위한 이탈(departure)의 관점으로, 고찰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여기서 그러한 의미론의 조건에 대해 검토하려는 의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현 연구의 두 레벨(의미론적 그리고 문법적)을 단지 동정하고 싶을 뿐이다. 따라서 동정된 총체성 안에서의 그것은 용어법적 선언을 사용

함으로써 두 레벨 사이의 이러한 편차를 지시하는 것이 아마 보다 더 바람직할지도 모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구성적인 모델의 아티클레이션을 사용함으로써, 초미우주 안에서 선택된 의미소적 단위를 취급하고 있을 때 내용 “가치(value)”에 대해 언급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다만 기호학적 모델의 형식적 단위를 위해 표현 “구조적인 텀”을 뒤집어 놓을 뿐이다.

심층문법에 대하여

그러나 비록 기본구조가 의미론적 실체인 내용의 아티클레이션을 위한 모델로 기여한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하위계열적으로 의미작용을 하고 있는 의미를 만들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러한 투자와는 별개로 고찰될 수 있는 일원성의 기호학적 형식으로 확실하게 존재한다. 엘름슬레우에 의하면, 그것은 텀의 가장 보편적인 의미(sense: articulation→phrase→period의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행위주로, 연기자로, 어휘소로 환원된 의미-역주)로 모든 언어를 확립하고 조직한다. 이렇게 분할하면서도 역으로 환원작용이 발생하는 그 이유는, 비록 구성적인 모델이 내용의 조직을 위한 기초로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 이원성의 기본구조가 일원성의 형식적인 모델과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며, 그러면서도 그들과 함께 동정되는 일 없이 조직된 내용을 교묘하게 다루는 구성적인 범주에 감사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의미작용의 기본구조의 형식화를 위해 필요한 범주가 곧 어느 기호학적 이론의 구성으로 사용된, 다시 말해서 앞의 범주와 동일하기는 하지만 그보다 상위의 인식론적 범주라는 것을 어딘가 다른 곳에서 이미 언급했었다. 그것은 우리가 심층문법의 최초의 전체를 진진시키며 보증할 수 있는 기호학적 모델(그리고 이것은 의미의 교묘히 다루기에 관한 독창적인 실례이다)을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보편적인 언어(language universals)”로 존재한다.

심층문법의 원소

분류법적인(taxonomic) 핵

현재로서는 그것이 의거하고 있는 화술구조 상의 공리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이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계발된 기호학적 이론을 우리 뜻대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오로지 묘사만

할 수 있을 뿐인데, 반하여 그러한 기호학에, 주요 아티클레이션적인 실례와 빈사 작용적인 시퀀스의 전체개념에 귀속시킴으로써, 즉 화술문법을 사용함으로써, 그것은 끊임없이 애써 무언가를 성취하고 있다.

다소 명시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법은 형태론과 통사론의 두 가지 성분을 가지고 있다. 형태론은 분류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팀은 상호 규정적이다. 통사론은 작용규칙의 세트 또는 형태론에 의해 공급된 그래서 교묘히 다루고 있는 팀의 방식으로 존재한다.

그러한 분류법적 모델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1955년 레비스트로스에 의해 이루어진 오이디푸스 신화의 구조분석을 인용한다. 이 분석은 단순한 비통시적 모델의 구성에서 유래되었는데, 저자에 의하면, 그것으로부터 프로이트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오이디푸스 신화가 생성될 수 있다. 신화적인 담화의 계열체적 독해의 결과인 이 모델은 모순적인 팀으로 만들어진 두 짝의 상호관계의 한 세트로 정의될 수 있다(우리는 다른 곳에서 그것에 대해 검토한 바 있다).

그러한 모델은 우리가 기왕에 언급했던 그리고 차원이 다르면서도 동일한 관계적 범주를 사용함으로써 해석될 수 있는 구성모델과 확실히 비교된다는 것을 고찰하기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2개의 팀이 모순 관계($s_1 \leftrightarrow \bar{s}_1$, 또는 $s_2 \leftrightarrow \bar{s}_2$) 안에 포함되는 구조에 대하여 도식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개인적으로 획득된 팀으로서의 두 도식 사이의 관계인 그 상호관계가 다른 도식(이 장의 “기본적인 의미론에 대하여”를 보라)의 서로 상응하고 있는 팀과 함께 반대관계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분류법적 모델이 두 도식 사이의 상호관계로 존재하는 것으로 기술될 수 있는 정확한 관계의 네트워크에 의해 공동으로 상호 정의된 4개의 팀으로 만들어진 구조라고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레비스트로스에 의하면, 우리가 고찰했던 바와 같이, 그러한 모델은 어쩌면 소정의 의미론적 초미우주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모든 설화의 의미작용의 비통시적인 포착으로 고찰될지도 모른다. 그것은 형식적 모델이다. 실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투자된 내용으로 아티클레이션이 된다. 더 나아가 그것은 표출의 모드와도 독립적이다. 그것을 표출하고 있는 담화는 신화적 설화가 될지도 모르지만, 또한 그것은 프로이트의 교훈적(didactic) 담화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방산적인 방식으로, 끝없는 인류학적인 또

는 정신분석적인 담화로, 쉽게 나타나는 바로 그대로일 수 일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가치 또는 가치론의 체계가 정적인 모드 안에서 아티클레이션이 되고 표출될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제1원리의 분류법적 실례로부터 시발하고 있다. 그것은 순환가치 또는 관념론의 창조적인 변화과정으로 언급될 수 있다. 비록 그것이 비화술적인 담화형식을 생성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분류법적인 실례는 또한 화술적인 통사론을 생성하는 어느 약동적인 변화과정을 위해 필연적인 기반으로 존재한다.

분류법(taxonomy)의 화술화

우리는 그 구조적인 팀을 정의하고 있는 관계의 안정성 때문에 분류법적인 모델이 기본적인 형태론의 제1의 핵으로 고찰될 수 있다는 것을 고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하의 조건에 관한 검토는 우리가 대상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그 한계까지 밀고나가는 의미작용이 안정된 기본관계의 아티클레이션으로 나타나는지 어떤지 분명하게 보이도록 포착되며, 또한 그것은 비록 우리가 귀납적 포착으로 또는 주체(주사[主辭])에 의해 연역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미의 생산으로 고찰된다고 할지라도 약동적으로 묘사된다. 이것을 약동적인 양상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는 분류법적 모델의 기본적이며 구성적인 관계와 이렇게 동일한 관계 또는 이때 바로 이러한 동일 형태론의 기왕에 확립된 팀과 함께 실행되고 있음에 틀림없는 작용, 즉 통사론을 구성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조정(調停, arrangement)¹³⁷ 메커니즘 작

137) arrangement(조정, 調停): 1. 순열·조합(permutation; combination):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옛날부터 잘 알려진 사실인데, 이른바 수학으로서의 순열·조합을 처음으로 발견한 것은 12세기의 인도의 수학자 A. 바스카라라고 한다. 이론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에 들어와서인데, B. 파스칼, G. W. 라이프니츠, J. 베르누이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18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체계가 수립되었다. 2. 사전적인 의미는, 순열-주어진 물건 가운데에서 몇 개를 취하여 어떤 순서로 나열하는 일, 조합-여러 개 가운데에서 몇 개를 순서에 관계없이 나열하는 일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열은 순서에 관계가 있는 것이고, 조합은 순서에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전이 2개 있는데 앞뒤가 순서에 관계없이 나오는 경우의 수 (앞, 뒤) (앞, 앞) (뒤, 뒤)=3가지와, 순서에 관계없이 나오는 경우의 수 (앞, 뒤) (뒤, 앞) (앞, 앞) (뒤, 뒤)=4가지가 있는데, 전자가 조합이고, 후자가 순열이다. 전자는 (앞, 뒤) (뒤, 앞)이 같은 경우로 보고, 후자는 (앞, 뒤) (뒤, 앞)을 다르게 본다. 그레마스(A. J. Greimas)는 조정(調停)과, 순열·조합 모두를 염두에 두고, 'arrangement'를 사용하고 있다. (역주)

용의 투기 사이의 동치의 네트워크를 확립할 수 있다. 따라서 관계로서의 모순은 분류법적 레벨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원적 도식을 확립하도록 할 수 있다. 통사론적 레벨에서의 모순작용으로서의 그것은 도식의 텀의 어떤 것을 부정하고 동시에 그 모순의 텀을 긍정한다. 가치와 함께 기왕에 투자된 텀 위에서 실행될 때, 그러한 작용은 정위된 그리고 새롭게 주장된 내용을 그들의 위치 안에 설치하고 있는 그 부정하고 있는 것에 의해 내용의 변형이 초래된다.

노트: 우리는 신화의 소위 비통시적 포착이 안정적이지 못한 실레라는 것을, 그 “약동적 인” 구조는 어느 순간에 선회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본 연구는 가치론적인 표출이 처음에 순수하게 존재하는 것 같은, 역으로 그들이 매우 안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고찰된 것 같은, 그리고 화술화에 대해 언급된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어느 세부 장르(속담, 웰러리즘, 신문표제 등)¹³⁸⁾ 상에서 실행되었다.

통사론적 작용의 정위(orientation)¹³⁹⁾

138) 속담과 같은 화법으로 일컬어지는 ‘wellerism’은 여인숙 “White Hart”의 못 말리는 구두담이 Sam Weller와 그의 수다쟁이 아버지 Tony의 개성적인 말투로부터 유래한다. 이 인물은 C. Dickens(1812~1870) 사후에 Pickwick Club에서 간행한 “Pickwick Papers”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다. 월간지에 연재되었던 이 소설은 제10장에서 Sam Weller가 소개되기 전까지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 그 후에, 양 대륙에서 연극 애호가들에 의해 무대에 올려지면서 이 책의 인기는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야기와 극적인 구체화에 있어서, 직접 간접으로, 그의 작품은 Theocritus(310?~245. B. C. 고대 그리스의 전원시인. Doria 지방의 방언에 의한 격언시·송가·전원시 등을 남겼는데, 특히 목가체의 완성자로서 널리 알려졌음) 시대에 있었던 속담극 형식의 비어(卑語)와 수많은 예를 제공받았다. (역주)

139) A. J. Greimas·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p. 221~222. orientation(정위, 定位); 1. 아마 정의할 수 없는 그러나 메타논리 또는 내포기호학적 이론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관적 개념인 “정위(orientation)”는 다소간 이행성(移行性)의 또는 제사법(制辭法, 直, 正의 의미로 rectitude-진정, 청렴, 정확-와 같이 연결형으로 사용되는)의 언어학적 개념을 떠맡으며, 인식론 안에서 지향성의 개념과 상응한다. 2. 좀 더 정확하게 이러한 개념의 한계를 정하기 위하여, 우리는 Louis Hjelmslev의 은유적 표현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그는 지배하고 있는 텀으로부터 지배받는 텀으로 이행하고 있는 “논리적 활동”으로 보았다. 이러한 “활동”은 두 텀 사이의 관계의 비대칭적 그리고 비역행적 성격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예를 들어, 이행은 주체로부터 대상 “쪽으로” 또는 반대로 이루어진다). 그러한 해석은 “정위(orientation)”의 인식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결정한다. 반면에 그 논리로부터 부여된 해석(첫 텀의 심리학적 “강도”에 의해, 또는 뇌 속의 “흔적”의 충격에 의해-B. Russell)은 몽롱하게 유지되고 또 Louis Hjelmslev의 은유보다 더 낫지는 않다. 3. 한 예는 어떤 무엇의 이러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데 조력이 될 것이다. 수직 축 상에 위치한 두 개의 실제 x와 y는 그들을 결합하고 있는(그것은 대칭관계이다) 위상관계(位相關係,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종류의 집합족)에 의해 정의된다. 그러므로 그 실재는 그들 관계의 성격을 조금도 수정하지 않고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두 실재가 발설하고 있는 동안, 우리가 y 위에 있는 그 x라고 하는, 두 텀 사이에서 인식될 수 있는 그 관계는 비위상적이다. 실재 y는 소재 정위된 관계(x쪽으로 정위된)

일련의 작용으로서의 통사론의 표상은 새로운 속성(property)을 보다 쉽게 동정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는 분류법적 구조의 정의된 텀 상에서 실행되었다. 통사론적 작용은 정위된다.

따라서 소정의 어느 분류법적 도식의 프레임 안에 2개의 통사론적 작용과 2개의 내용의 가능한 변형이 존재할 것이다.

$s_1 \Rightarrow \bar{s}_1$ 으로 존재하거나, 또는
 $\bar{s}_1 \Rightarrow s_1$ 으로 존재한다.

다른 한편, 분류법적 모델은 2개의 도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통사론적 작용의 논리적인 우선권(priority)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정위된 작용은 다음과 같이 시작할 수 있다.

제1의 도식: $s_1 \Rightarrow \bar{s}_1$ 또는 $\bar{s}_1 \Rightarrow s_1$ 을 통해서 시작하거나, 또는
 제2의 도식: $s_2 \Rightarrow \bar{s}_2$ 또는 $\bar{s}_2 \Rightarrow s_2$ 로 시작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것은 통사론적 작용의 최초의 조합조정을 발생 시키기에 충분하다.

시발점이 된다. 반면에 그 답화 순서는 x로부터 y쪽으로 간다. 따라서 그것은 존재하고 있는 위상관계에 첨가된 추가적 그리고 한정적 투자를 구성하는 정위라고 언급될 수 있다. 같은 의미서, 비-정위된 변형(non-oriented transformation, 그것은 두 체계 또는 두 변화과정에 속하는 두 단위 사이의 상호관계이다)은 정위된 변형(oriented transformation, 발생론적 또는 역사적)과 구별되는 것이며, 그것은 뒤집혀지지 않는다. 4. 'orientation'의 어원도 참고하라. 정향(定向, 또는 정위, orientation): 'orientation'은 "떠오르는 해"라는 뜻의 라틴어 'oriens' 또는 'orientum'에서 유래. 건축에서 동서 방향의 축과 관계되는 건물 위치. 메소포타미아·이집트·신대륙으로 발견되기 전의 중앙 아메리카에서는 입구나 통로 등 건물의 중요부분을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향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정향은 종교적이나 실제적인 이유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된다. 이슬람교도들은 어느 방향에 있든지 기도할 때는 메카를 향해 기도하며 이에 따라 기도소인 미라브(mihrab; 모스크의 네 벽 가운데 Qibla, 즉 메카의 방향을 알려주는 표시기의 벽에 있는 기도벽감[壁龕], 즉 장식을 위하여 벽면을 오목하게 파서 만든 공간으로서 등잔이나 조각품 따위를 세워 둔다)가 메카를 향하도록 모스크의 방향이 정해진다. 그리스도교에서는 보통 제단과 에프스(apse, 後陣; 보통 교회 동쪽 끝에 있는 반원형 부분)가 동쪽에 있지만 항상 이 방향을 선호했던 것은 아니다. 초기 그리스도 교회 설계에서는 로마에 있는 구(舊) 성베드로 대성당과 같이 교회가 서쪽을 향하도록 방향을 잡았다. 건축계획에서는 흔히 하루 중의, 그리고 계절중의 일사량(日射量)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위해 정향을 고려하므로 구조물의 적정한 정향이란 결국 건물의 기능, 위치와 열·빛·습도·바람 같은 중요한 환경요소간의 절충을 통해 이루어진다. (역주)

제4장 화술문법의 원소

끝으로, 기본구조의 관계적인 속성(또한 그것은 통사론적 작용의 속성이다)은 다음을 폭로한다. 예를 들어, 텀 s_1 을 부정하면서 동시에 텀 \bar{s}_1 을 조정(措定)하는 모순작용은, 제기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새로운 텀 s_2 를 텀 s_1 과 결합하고 있는 어느 새로운 전제 작용에 의해 추구되고 있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통사론적 작용은 정위될 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연속으로 조직된다.

심층문법의 성격

우리가 방금 확인했던, 그리고 심층문법의 진전을 위한 기초로 기여할 수 있는 그 성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화술문법은 분류법적 모델에 의해 제공된 기본 형태론으로, 그리고 초기단계에서 상호 정의되었던 분류법적 텀 상에서 실행되었던 바로 그 확실한 기본 통사론으로 만들어진다.
2. 화술통사론은 내용가치와 함께 투자될 수 있는 텀 상에서 실행된 작용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통사론은 부정함으로써 또는 긍정함으로써, 선언하고 연언을 함으로써, 그래서 동일한 것으로 고찰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변형시키고 교묘하게 다룬다.
3. 그들이 확립된 분류법적 프레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통사론적 작용은 정위되고, 따라서 빈사적인 것이 되며 추정이 가능한 것이 된다.
4. 또한 작용은 연속으로 정위되고 작용적이며 통사론적인 단위로서의 오렌지와 같은 낭중분절의 변화과정을 구성한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심층문법을 위한 이러한 최소의 표준은 표준의 화술문법을 구성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표층의 화술문법의 원소

문법 레벨에 있어서의 문제

일단 우리가 심층문법을 갖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보다 더 아중적인 것을 사용하는 범주를 만들음으로써, 또는 보다 더 복잡한 방식으로 그들을 전

사(轉寫)함으로써, 실로 “보다 더 심도 있는(deeper)” 문법의 레벨이 자연언어로 표출된 것처럼 문법에 점진적으로 보다 더 접근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밝혀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단일화의 방식으로, 즉 심층문법이 반드시 처음에 중재적인 기호학적 레벨에서, 신인동형동성화된 것을 수용하는, 그렇다고는 하지만 격아강적인 것이 아닌 표상으로서의 격아강적인 방식으로 표출된 설화(인간 정확히 말해서 신인동형동성화된 연기자가 임무를 완수하고 시련을 견뎌내고 목표에 도달하는 장소)를 생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념적인 성질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언급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식이 아닌 것으로 존재하는 보다 적합한 표층(surface, 프랑스어로는 superficielle)을 분명하게 만들고 있는, 기호학적 레벨을, 다시 말해서 어떤 최후의 변형부호의 조력을 받아 담화로 그리고 언어학적 발화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어느 문법적 정의와 규칙을, 취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만을 오로지 지시하는, “표층의 화술문법”의 그 명목을 제공할 것인 이러한 신인동형동성적인(anthropomorphic) 레벨로 존재한다.

템 문법적인 레벨은 새로운 정의를 간절하게 요구한다. 만약 문법이 2개의 다른 레벨로 구성될 수 있다고 우리가 언급한다면, 그것은 하나로 고찰할 수 있는 2개의 다른 메타언어로, 그리고 우리의 경우 표층이라고 하는 제3의 레벨로 나타나는 동일 언어학적 현상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2개의 메타언어가 동치라고 언급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동형이 아니면서도 동류체로 존재하기 때문이며, 소정의 메타언어의 낭중분절이 형식적으로 동정되고 있는 2개의 낭중분절적인 원소 없이 다른 언어의 동류체적인 낭중분절로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신인동형동성적인 성질 때문에, 그러한 표층문법의 구성적인 원소는 심층문법의 범주의 논리적인 성질로부터 구별될 수 있다.

화술적인 발화(narrative utterance)

신인동형동성적인 실행: 따라서 만약 심층문법의 기초개념 중의 하나가 통사론적인 작용으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표층 레벨에서의 통사론적인 실행과 상응할 것이다.

작용과 실행 간 동치의 확립은 신인동형동성적인 차원을 문법으로 이입시

키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1. 논리적인 작용은 괄호 사이의 작용의 주체를 삽입하도록(또는 “어떤” 작용 인자를 사용하는) 우리에게 허락하는 자율적인 메타언어학적 변화과정으로 고찰되며, 반면에 실제적인 또는 신화적인 실행은 그것을 능동성으로, 즉 인간의 주체로(또는 적어도 신인동형동성화된: 예를 들어, “연필이 쓰다”) 암시한다. 다시 말해서, 실행은 강류의미소(綱類意味素) 인간과 결합함으로써 아중으로 세분된 어떤 작용이다.

2. 우리가 실행에 대해 언급할 때, 그것은 우리가 자연세계의 기호학적 레벨에서의 “실재적인” 실행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의 언어학적 실행(언어가 자연적이든지 또는 아니든지 하여간 그 안에서 표출된)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즉 우리는 변형된 실행을 메시지로 취급한다. 우리가 기호학적 지시체계와의 관계와 함께 발생된 실행을 가지고 있든지 또는 언급된 실행을 가지고 있든지 하여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메타기호학적 실행으로서의 지위(기술되기 때문에)는 그것의 메시지-대상을 만들고, 그것은 커뮤니케이션의 변화과정 안에 정위되며, 따라서 그것은 발신자와 수신자를 암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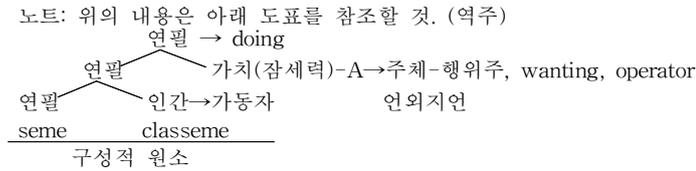
따라서 실행은 이중적으로 신인동형동성적인 작용이다. 능동성으로서의 그것은 주체를 전제한다. 메시지로서의 그것은 객관화(대상화)되고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전송의 축을 암시한다.

기초로서의 화술적인 발화: 따라서 전환(문법적인 레벨에서 다른 레벨로의 전송)은 작용과 실행의 동치로 정의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의 개념은 기초로서의 화술적인 발화의 형식을 획득하게 된다.

$$NU = F(A)$$

위의 형식 안에서, 외연화의 변화과정으로서의 실행은 함수(F)로 호칭되고, 변화과정의 잠재력(潛勢力, potentiality)으로 존재하는 실행의 주체는 행위주(A)로 지시된다. 우리는 심층문법의 어떤 작용이 화술적인 발화의 최소의 정전(正典) 형식인 $F(A)$ 로 전환될 수 있다고 언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화술적인 발화가 통사론적인 발화라고 이해한다. 즉 그들은 투자

될 수 있는 어떤 소정의 실행으로서 내용에 의지하지 않는다. 또한 그것은 *F*의 구성적인 원소와 발화 *A*가 동류체라고 이해한다. *F*의 어떤 의미론적인 제한은 *A*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그 역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행위주는 함수의 동류체이며, 동일한 방식으로 가동자(시험자)의 명목은 언외지언(verb)의 동류체이다(예를 들면, 낚시꾼—낚시하다).¹⁴⁰⁾



양태발화와 기술발화: 따라서 화술적인 발화의 유형학(동시에 행위주의 유형학)은 아중적인 의미론의 제한을 점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함수의 어떤 강류가 그것에 부착되기를 원하는 강류의미소를 갖게 됨으로써 아중으로 분할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함수와 동류체인 행위주는 “주체-행위주”로 호칭될 수 있는 제한 강류를 구성할 것이다. 사실, 요망(또는 결어, wanting)은 주체로서의, 즉 실행(doing)의 가능한 작용인자(作用因子, operator)로서의 행위주를 설치하고 있는 신인동형동성적인 강류의미소(그러나 필연적으로 격아강적인 것이 아니다: “이러한 규칙은 ...을 요구한다.”를 참고하라)이다. 이제 기술발화(DU)와 함께 우리는 화술적인 발화, 즉 양태발화(MU)의 새로운 유형을 구성할 수 있다.¹⁴¹⁾

사실, 언어학적 관점에서부터, 요망(wanting)은 기술발화를 규정하는 양태적인 빈사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존은 피터가 떠나기를 바란다(John wants Peter to leave)
2. 피터는 떠나기를 바란다(Peter wants to leave)

일단 그들이 의미론적인 발화로 전사되면, 이러한 언어학적 발화는 다음

140) 모과상의 소설 “두 친구”를 상기하라. (역주)
 141) (DU): descriptive utterance, (MU): modal utterance. (A): actant. (역주)

과 같이 나타난다.

1. *F*: 요망/*S*: John; *O*(*F*: 떠남; *A*: Peter)
2. *F*: 요망/*S*: Peter; *O*(*F*: 떠남; *A*: Peter)

언어학적으로 우리는 강류의미소 요망의 도입이 빈사의 바로 그 상위결정보다 더 좋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이 별개의 두 발화를 구성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의 첫 번째가 양태발화이고, 두 번째가 첫 번째에 종속적인, 즉 대상-행위주로 기여하고 있는, 기술발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당장에 첫 번째(1) 예에서 두 발화의 의미론적인 주체가 다르고, 두 번째(2)의 경우에 동일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우리는 양태발화를 기술발화의 형식 안에 나타난 프로그램의 실현화를 위한 욕망(desire)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대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또한 양태발화의 일부가 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양태발화를 다음과 같이 형식적으로 그리고 아종으로 세분할 수 있다.

$$MU = F: \text{요망}/S; O/$$

이것은 양태발화의 대상-행위주가 어느 순간에 어떤 기술발화로 하여간 무엇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이해되고 있는, 대상-행위주의 프레임 안에서 아종으로 분할된 내포(virtual) 프로그램의 인위발언(enunciations)이다.

이제 만약 기술발화의 의미론적인 발화가 양태발화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공리로 간주하는 그 보충적인 제한을 우리가 도입한다고 한다면, 통사론적인 실행은 내포 프로그램의 변형이 외연화된 프로그램으로 존재하는 어떤 확장(외연)이라고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프로그램으로서의 기술발화의 개념을 변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변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어느 기술발화의 암시된 전제인 그 존재자의 양태발화와 함께 함수 “요망(wanting)”을 담고 있는 양태발화의 치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귀속적인 발화(attributive utterance): 대상-행위주로 나타난 욕망의 대상에 대하여 언급한다면, 사실 그것은 프로그램-발화로서, 명시적인 설명을 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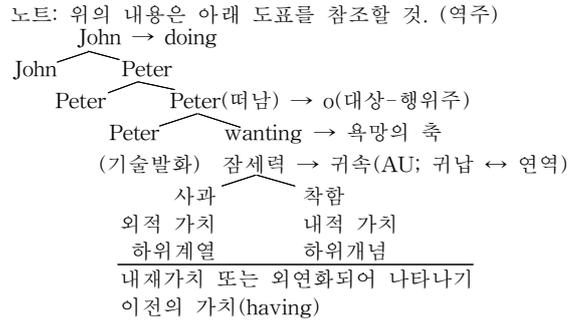
3. 피터는 사과를 원한다(Peter wants an apple)
4. 피터는 착하고 싶다(Peter wants to be good)

이러한 언어학적인 발화는 의미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3. *F*: 요망/*S*: Peter; *O*(*F*: 획득; *A*: Peter; *O*: 사과)/
4. *F*: 요망/*S*: Peter; *O*(*F*: 획득; *A*: Peter; *O*: 착함)/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의미론적인 상설은 기왕에 언급된 발화를 나란히 확립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며, 그 함수는 실행의 목표로, 즉 어떤 때는 내재화 또는 외연화되어 나타나기 이전의 소유(having)의 목표로 또 어떤 때는 실행(doing)의 목표로 존재하는 함수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 기술발화의 2개의 서로 다른 유형의 존재자로 존재한다. 기술발화의 아강(亞綱, sub-classes)에 대해, 우리는 귀속적인 발화(AU)라고 지시할 수 있다. 의미론적인 기술의 레벨에서, 발화의 이러한 두 유형에 대해 구별하는 것은 그들 함수의 아종적인 특이성(specifics)이라기보다(두 경우에 우리는 의미론적 주체와 대상 간의 귀속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귀속대상의 외적인 또는 내적인 성질이다. 그 확장(extent)까지 해석하기 위하여, 만약 우리가 양태적인 것을 그리고 기술발화의 함수를 하나로 고찰한다면,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욕망(desire)이 가치(value)로서의 내포소유(virtual possession)의 대상을 설치한다고 언급할 수 있을 것이고, 사과(apple)가 욕망의 주체에 대하여 외적인 가치라고 고찰할 수 있을 것이며, 반면에 착함(goodness)은 주체에 대해 내적으로 존재하는 가치일 것이다. 통사론적인 텀에서의 이러한 편차는 주체와 귀속적인 발화의 대상 사이의 귀납적이면서도 연역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초래되는 것으로써 전자의 경우에는 하위계열적(hypotactic, apple, 즉 대상적인 것)으로, 후자의 경우에는 하위개념적(hyponymic, goodness, 주체적인 것)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표현된다.

제4장 화술문법의 원소



요약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할 수 있다.

1. 욕망의 양태성을 도입함으로써, 표층문법은 주체와 대상이라고 하는 두 행위주를 가지고 있는 양태발화를 구성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계속해서 그들을 결합하고 있는 욕망의 축은 내포적인(virtual) 언어연기주체와 가치로 할당되었던 대상으로서의 그들을 의미론적으로 해석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2. 만약 욕망의 양태성이 대상을 안정시킨다고 한다면, 양태발화의 행위주인 이 대상은 실행의 기술(예 1과 2, 즉 John wants Peter to leave. Peter wants to leave)로 존재하는 발화로든지(그리고 실행 그 자체는 그것에 의해 안정될 것이다), 또는 그때 귀속적인 발화로 지시된 대상가치의 소유에 의해 표현되고 있는 욕망의 외연화와 함께 귀속적인 발화(예 3과 4, 즉 Peter wants an apple. Peter wants to be good)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3. 대상가치의 귀속의 두 유형("사과"와 같이 하위계열적인 것과 "착함"과 같이 하위개념적인 것) 사이의 편차는 계속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화술구조의 이해를 위해 제일 중요한 2개의 가치목류(대상적인 것과 주체적인 것)를 구별하는 것과 형식적인 표준으로 우리에게 제공된다.

귀속적인 발화의 함수로서의 양태발화: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화술적인 발화의 리스트를 완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 5. 피터는 (어떤 무엇인가) 알기를 원한다(Peter wants to know[something])
- 6. 피터는 (어떤 무엇인가) 할 수 있기를 원한다(Peter wants to be able to do)

something)

우리는 발화의 이러한 유형으로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기초적인 기술발화가 아닌 대상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론적 진사 없이도 즉각 알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기술발화로서의 함수, 따라서 안정될 수 있는 그 함수보다 다른 양태발화이다.

이 점에 관해 몇 가지 관측이 만들어질 수 있다.

1.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상태에서, 그것은 오로지 지식과 양태성의 능력(being-able)이 우리가 표층문법을 구성할 때 고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러한 양태성의 속성(property)을 우리는 계속 유지할 것이다.

a. 정전(正典)적인 양태발화의 형식화의 가능성:

$MU(k \text{ 또는 } b-a)=F$: 지식 또는 능력/ S ; $O(F)$: 실행; O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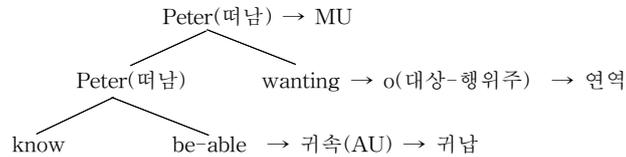
b. 요망의 양태발화의 존재대상의 가능성:

$MU(w)=F$: 요망/ S ; $O(F)$: 지식 또는 능력; A ; O /

c. 귀속적인 발화의 존재대상의 가능성:

$AU=F$; 귀속/ S ; O : 지식 또는 능력/

노트: 위의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할 것. (역주)



노트: modality(양태성); 1. 발화의 “속성”을 수식하는 것으로 이해된 양태성(modality)의 전통적인 정의로부터 시작하는 관점에서, 양태화는 기술발화를 초월해서 결정하는 소위 양태발화의 생산으로 이해될 수 있다. 양태에 대한 직관적인 접근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다. 양태동사(그리고, 적용할 수 있을 때 양태표현의)의 목록은 항상 논쟁의 여지가 있고 그들은 한 언어로부터 다른 언어로 이탈하기 때문에, 그것은 첫 번째 단계에서 고찰하는 것이 이치에 적합하며, 기본발화(실행발화와 상태발화)의 두 형식(규범적으로 밝혀진)

은 기술발화의 통사적 기술에서든지 또는 양태발화의 상위계열적(hyperotactic) 기술에서 발견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다음처럼 고찰될 수 있다. 즉, (a) 존재(being)를 양태화하는 실행(doing. cf. performance; 언어연기, art; 예술), (b) 실행을 양태화하는 존재(being, cf. competence; 언어능력), (c) 존재(being)를 양태화하는 존재(being, veridictory modalities; 진정성이 있는 양태성), 그리고 (d) 실행을 양태화하는 실행(factitive modalities; 작위적 양태성)과 같은 목록을 말한다. 이러한 투시도법적 관점에서 보면, 양태의 속성은 대상으로 획득되어 다른 발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립적인 전략적 함수에 의해, 그 타동적 목적에 의해 모든 것 중에서 첫 번째로 정의될 수 있다.

2. 이러한 기반에서 2개의 결론이 생긴다. 그 첫째는 담화의 발화의 통사적 조직과 관련된다. 반면에 프레이즈 구조의 문법은 파생어의 단계(또는 지위)로 해석된 부속물의 레벨을 인식하는 분석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그리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는 담화적 레벨(또는 담화형태의)의 그 존재자가 양태구조(기술단계를 초월하여 결정하는 양태의 단계)의 재현 사실에 기인하는 초월적 측면에서 확립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새로운 결합체적 계층은 양태화된 구조를 연결하는 하위계열적(hypotactic) 구조에 기인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또한 그때 발화담화의 통사적 조직의 원리의 하나로 공리화될 수 있는 양태화의 유형학에 기인할 수도 있다.

3. 두 번째 결과는 반드시 양태화의 유형학과 관련된다. 귀납적인 접근은 매우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보편적으로 매우 불충분하기 때문에, 오직 가연적 연역절차만이 자연언어의 양태의 혼동된 목록 안에서 일종의 어떤 체제를 발견하려고 하는 어떤 희망을 소유한다. 양태적 논리가 다음과 같이 유사한 접근의 예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확실치 않은 양태분야를 인식한 후에, 그들은 그들로부터 어떤 “진실 가치(예를 들어, 심미적 또는 의무적)”를 선택하고, 그들의 연역과 추정을 위하여 시발점으로서 자명하게 조정(posit)한다. 기호학적 절차는 보다 많은 구체적 논리 위에서 모든 것의 첫 번째로 기초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무엇이며, 더 나아가, 화술의 측면에 위치가 잡혀지고, 그것은 담화 또는 자연언어의 조직을 초월한다. 그러한 연구는 요망(waning), 의무(having-to), 능력(being-able), 그리고 지식(knowing)-실행(doing)과 마찬가지로 존재(being)를 양태화할 수 있는-의 양태가치가 담화의 기호학적 조직 안에서 연기하고 있는 개념적 역할을 끊임없이 보여왔다. 다른 한편, 언어학에서 소쉬르적인 전통은, 더 나아가 그 전통과 모순되지 않았던(그리고 그것은 철학 속으로 멀리 되돌아들어 간다) N. Chomsky는 존재자모드의 그리고 존재자의 레벨, 즉 내포적(virtual), 외연적(actual; 선언), 실현된(realized; 연언), 그 팀 안에 반영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잊도록 했다. 이러한 모드와 레벨은 이미 실현을 가리키고 있는 제로로부터 팽팽히 늘어나고 있는 긴장(G. Guillaume)으로 해석될 수 있는, 궤도를 이탈한 많은 영역을 구성한다. 비록 기호학이 자명한 선언에 의해 그 이론의 중앙에 기본적 양태구조를 설치하여 마치 논리를 행하고 있는 것처럼 목표를 삼고 있을지라도, 그 기호학은 떠맡은 일을 위해 경험적 그리고 이론적 버팀목을 찾는 것에 의해 탐색의 가연적 성격을 계속 유지한다.

4. 성공적인 상호정의를 통하여 여러 가지 아티클레이션을 포섭함으로써 기본적인 양태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근거를 허락하고 있는 모델의 구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상호정의를 표준과 양태의 분급(分級, classification)은 결합체적(syntagmatic)인 것과 계열체적인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각각의 양태는, 한편으로는 상위계열적 양태구조로, 다른 한편으로는 기호사각형 상에 재현될 수 있는 범주로 정의될 것이다. 따라서 실현화를 주도하고 있는 팽창궤도를 고찰함으로써, 지금까지 인식된 양태는 다음처럼 도식이 만들어질 수 있다. (exo= dehorse; 밖, 외부, 외관. endo=dedans; 안, 내부. tactique; 전술, 책략, 술책. wanting=bulestic; desires, wishes, will과 같은 기원법의 개념. -역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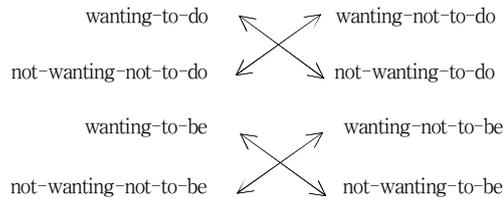
양태성 (Modality)	내포화 (virtualizing)	외연화 (actualizing; 선언)	실현화 (realizing; 연언)
외인책략(外因策略) (exotactic)	의무(필연) (HAVING-TO)	능력 (BEING-ABLE)	실행(연기) (DOING)
내인책략(內因策略) (endotactic)	요망(결여) (WANTING)	지식 (KNOWING)	존재(내관) (BEING)

렝스토르프(M. Rengstorf)의 제안에 따름으로써, 번역-전격관계(轉格關係, 그것은 여러 가지 색깔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발화를 함께 연결할 수 있다)로 진입할 수 있는 양태는 외인책략(外因策略)으로 지시될 수 있다. 단순 양태(동일한 또는 융화된 주체와 함께 연결하고 있는)는 내인책략(內因策略)으로 불릴 것이다.

5. 또 다른 분급의 표준, 바꿔 말하면, 양태화(실행의 강류와 존재의 강류)된 발화의 성격은 양태화의 폭넓은 강류 사이의 차이를 허락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규칙 having-to-do의 양태구조는 필연 having-to-be의 양태구조와 대당관계가 된다. 그러나 그들은 명백한 유연관계(類緣關係)를 지킨다. 첫 번째의 경우에, 빈사적 관계는 “양태화하고 있는” 주체 위에서 보다 더 책임을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서의 양태화로 보여질 수 있다. 두 번째의 경우에, 그것은 “양태화된” 대상(그것은 상태발화)이다. 그것은 아마 발화의 정돈된 시퀀스(예를 들어, 내포양태를 전제로 삼고 있는 외연양태)로 형식화될 수 있는 양태화 과정을 강제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퀀스(having-to-do는 not-being-able-not-to와 함께 일치할 수 있다. 반면에 wanting-to-do는 not-knowing-how-to-do와 일치할 수 없다) 안에 일치와 상반을 추정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하의 양태화 전략은 전적으로 상상적이다. 그것은 양태화된 주체와 대상(발화)의 유형학의 확립을 허락할 것이다.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p. 193~195. (역주)

노트: wanting(요망, 또는 결여); 1. 요망(wanting)은 실행이나 상태발화를 지배하는 양태발화 속성 중의 하나를 지시하여 선택된 명목이다. 그 속성의 이러한 투자에 대해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의미론적 지위는 양태 속성의 분류법(taxonomy) 안에서 그리고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의 통사적 조직의 함수 안에서만 결정될 수 있다. 의무(having-to)와 마찬가지로 요망은 실행이나 상태발화생산의 조건인 내포적 선행 필요조건을 구성하는 것 같다.

2. 그것이 지배하는 발화형태에 따라, 요망의 양태발화는 지시될 수 있는 두 양태구조, 간단히 말해, 실행요망(wanting-to-do)과 존재요망(wanting-to-be)은 같은 요소이다. 기호사각형 상의 그들의 투기에 의해 획득된 이들 구조의 범주화는 두 요망의 양태범주의 생산을 허락한다.



그러나, 반면에 의무(having-to)의 양태성을 능숙하게 다루는 논리(의무적 논리와 우연

적 논리)는 기호현상 안에서, 습관적으로 쓰고 또 같은 성격의 양태구조에 의해 기호사각형 위에서 차지한 각기 다른 정향에 상응하는 것에 의해 이미 확립된 명목을 사용하며, 거기에는 요망(wanting)의 논리(또는 buletic: desires · wishes · will과 같은 기원법의 개념. 비록 그것이 예견될지라도)가 없고, 그것의 용어법은 기호현상 안에서 사용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른 한편, 기호학적 투기에 가장 잘 상응하는 것과 관련된 정신분석학은 과학적으로 소재가 인식된 메타언어의 발전에 저항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것은 기호학적 이론(semiotic theory)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의 논리적 의미론적 아티플레이션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다. —Ibid. pp. 372~373. (역주)

화술적인 단위

언어연기(performance; being을 양태화하는 doing)와 그 논쟁적인 성질: 심층문법의 기본단위와 동치인 표층문법의 원소적인 단위의 위치가 정해지고, 따라서 보다 큰 단위의 구성으로 전승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순관계가 이러한 표층레벨에서 획득하는 논쟁적인 성질을 역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식이라고 호칭된 그 모순의 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모순적인 팀의 부정과 주장의 장소이다. 만약 우리가 모순의 신인동형동성적인 표상이 논쟁적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결합체적인 연속(심층문법의 레벨에서 부정과 주장의 작용으로부터 초래되고 있는 내용가치의 변형과 상응하는 것)은 일련의 화술발화로 나타날 것인데 그 의미론적인 제한은 모순과 투쟁의 성격을 제공하고 있는 함수를 짐짓 자기 것인 것처럼 추정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합체적인 연속은 다음을 공리로 간주한다.

1. 2개의 주체 s_1 과 s_2 의 존재자(또는 주체와 반-주체의 존재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비정위관계인 모순관계와 함께 2개의 실행(doing)과 상응한다.
2. 논쟁적인 반대의 결과로 발생된 부정 작용과 지배 함수 사이의 동치를 확립함으로써 결합체적인 실행(doing)의 의미론적인 제한이 만들어진다.
3. 문법의 두 레벨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정위원칙의 인식: 논리적 작용의 이러이러한 정위(orientation)는 부정주체의 자율적인 선택과 다른 것에 의해 주체 가운데 어떤 것이 지배되는 이러저러한 주체와 상응한다.
4. 동시에 어떤 팀의 부정과 일치하고 있는 파생절차의 승인은, 표층통사론의 레벨에서, 2개의 독립 화술적인 발화, 다시 말해서 첫 번째의 지배함수와 함께 존재하는 발화는 부정실례와 상응하고, 두 번째의 귀속함수와 함께 존재하는 발화는 주장실례와 상응하는데, 바로 그 2개의 발화로 표상된 모순

팀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언어연기로 호칭된 결합체적인 연속을 추구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¹⁴²⁾

$N_1 = F$: 대당($s_1 \leftarrow \rightarrow s_2$)

노트: 2개의 모순 팀 사이의 관계를 신인동형동성적으로 표현하는 화술적인 발화는 실은 2개의 양태발화의 융합, 즉 각각의 주체를 위한 1개이다.

$N_2 = F$: 지배($s_1 \rightarrow s_2$)

노트: 그 발화는 s_1 이 s_2 를, 또는 그 역을 부정함으로써 정위된 부정 작용의 계기와 상응한다. 우리가 내포적인 것의 변형을 외연화된 것으로, 또는 외연화 된 것을 존재자(existence) 또는 존재(being)의, 그리고 지배에 의해 지배되는 욕망의 양태발화의 치환으로 결국 이르게 된 것으로 존재하는 부정으로 고찰했었다.

$N_3 = F$: 귀속($s_1 \leftarrow O$)

노트: 마지막 발화는 주장실례와 상응한다. 후자는 대상가치의 귀속에 의해 신인동형동성적으로 표현된다.

노트: being(존재, 또는 내관); 보편적인 사용 이외에, 어휘소 존재(being)는 기호학에서 적어도 세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a) 발화의 지위에서 한 쌍으로 이바지한다. 따라서 민사화(賓辭化, predication)에 의해, “본질적(essential)”으로 고찰된 객관적 특성과 결합된다. 의미론적 표상의 레벨에서, 그러한 특성은 집합 속에서 주체적 지위와 함께 주체적 가치로 해석된다. (b) 그것은 비-작위의 진정성(veridiction-초자연적인 현상 등-) “존재(내관, being)/외관(seeming)”의 양태범주의 명목과 마찬가지로 사용된다. (c) 끝으로, 그때 그것은 외관과 함께 대당관계에 있다.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p. 22. (역주)

노트: assertion(주장); 1. 주장은 변형범주 안에서 부정과 함께 있는 두 팀 가운데 하나이다. 이어서 이러한 주장은 마치 그것이 “causing to be” 또는 “causing to do”로 표현되는 것처럼, 사실의 추상적인 형식화로 간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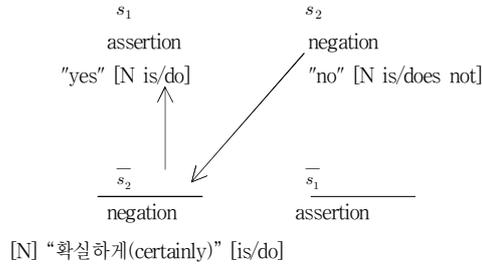
2. 주장은 사실상 단순하게 정보로서의 기호학적 존재의 획득된 특징인, 그리고 집합관계(연언과 선언)에 의해 상태발화 안에서 표현될 수 있는 긍정(affirmation)과 구별된다. 반대로 변형(즉, 주장 그리고/또는 부정)은 상태발화의 한계를 초월해서 결정하는 것에 의해 지배를 받는, 또는 “causing to do” 형태의 양태구조이며 교묘한 숨쉴인, 실행(doing)발화의

142) 대당: confrontation, 지배(탈림음 같은); domination, 귀속: attribution. (역주)

제4장 화술문법의 원소

함수다. 이러한 차이는 사전에 조정된(posited) 내용만이 주장되고 부정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만약 필요하다면, assertion과 affirmation(s_2 의 being을 감동시키는 s_1 의 doing)을 위해 특별한 주제(subject)를 공리로 간주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다.

3. 계열체적으로 주장은 부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기본적인 통사론의 레벨(또는 기호사각형 상에서 작용된 기본 작용의)에서, 주장은 정의된 결합체적인 정향을 차지하고 소재가 정위된(oriented) 작용으로 나타난다.



s_2 를 \bar{s}_2 로 변형시키는 부정의 작용에 따르면, 주장은 텀 s_1 을 유발시키는 것과 반대로, \bar{s}_2 를 s_2 로 재전환시키는 대신에 텀 \bar{s}_2 를 불러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때 결합체적인(syntagmatic) 주장의 효과는, s_1 이 전제된 텀이라고 하는 그리고 \bar{s}_2 를 전제하고 있는 텀이라고 하는 조건하에서, 대소대당(大小對當, 또는 함축관계. 만약 "certainly"라고 한다면, 그때는 "yes"이다)을 실제화한다. 그때 단순 주장(simple assertion, 고전적 논리학의 주장)은 결합체적인 주장과 구별되어야만 한다. 단순 주장은 또한 부정적이라고 불릴 수 있으며, 두 텀 사이의 보충적 관계를 확립한다. 단순과 결합체적인 주장 사이의 차이는 반대의 범주가 관련된 한 형식화 안에만 위치하며, 그 범주가, 예를 들어, 텀 non-death와 life의 상보성을 특별한 내용으로 활동시키고 있는 반대 축에 의해 구성될 때 분명하게 된다. —Ibid. pp. 19~20. (역주)

언어연기(performance)의 구성적인 원소: 표층문법의 이러한 개요에서, 오로지 어떤 결합체의 예로 획득함으로써 문법의 두 레벨 사이에 상응하는 텀과 텀의 확립을 우리는 역설했다. 또한 우리는 논리적인 텀과 작용으로 치환된 신인동형동성적인 범주에 조명을 비쳤다. 이것은 하나의 특별한 화술단위, 언어연기를 구성함으로써 초래된다. 내용의 변형을 위한 작용적인 도식을 구성함으로써, 그것은 화술적인 통사론의 최고의 독자성(characteristics)같이 존재한다.

그렇게 정의된 언어연기는 매우 다양한 내용을 수용할 능력이 있는 형식적인 도식으로서의 통사론적인 단위이다. 한편 언어연기의 두 주체는 지배를 하든지 또는 지배를 받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상호 교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대상의 강류는 통사론적 귀속의 특별한 모드에 따르고 있는 변화에 종속된다.

그 통사론적인 지위의 관점에서 보면, 언어연기는 정전(正典)적인 공식에 따라 구성된 일련의 화술적인 발화의 형식을 획득한다. 그 화술적인 발화는 행위주들 간의 관계이다. 함수라고 호칭된 이러한 관계는 의미론적으로 이중적인 열거를 수용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발화의 동류체가 행위주에게 전송되기 때문이며, 사실 그들의 수를 결정하는 데까지 밀고 나간다.

만약 함수와 행위주가 이러한 화술문법의 구성적인 원소라고 한다면, 만약 화술적인 발화가 기본적이며 통사론적인 형식이라고 한다면, 그때 화술적인 단위(여기서 다음의 예로 존재하는 그 언어연기의 단위)는 화술적인 발화의 결합체적인 연속일 것이다.

언어연기의 구성적인 관계: 그 발화들 간의 관계의 그 문제는 이제 발설되지 않으면 안 되는 화술적인 단위를 형성하기 위하여 원만하게 해결되고 서로 화해한다. 우리는 화술적인 단위로서의 언어연기가 분류법적 도식과 상응하고, 따라서 그것을 만들고 있는 그 발화는 도식 안에 정위된 논리적인 작용과 동치가 된다는 것을 고찰했다. 또한 우리는 도식의 구성적이며 논리적인 작용이 정위된다는 것을 고찰했다.

표층문법의 레벨에서 이렇게 중요한 편차와 함께 함축관계가 이러한 정위(orientation)와 상응한다는 것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그 정위가 발화로서의 동일 목류를 다음과 같이 추구한다면,

$$N_1 \rightarrow N_2 \rightarrow N_3$$

그 함축은 대당의 방식으로 정위될 것이다.

$$N_3 \supset N_2 \supset N_1$$

발화 간의 일련의 함축으로서의 화술적인 단위를 정의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는 이러한 전환은 우리가 표층 레벨에서 분석되고 있는 화술과 조우할 때 어떤 실제적인 중요성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 그것이 생략과 촉매작용을 통제하는 규칙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소정의 언어연기의

프레임 안에 논리적으로 포함된 그 화술적인 발화는 표출의 레벨에서 생략될 수 있다. 함축(NU_3)의 사슬 안 최후 연결의 현존재는 화술적인 단위를 재구축하는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그것을 완벽한 형식으로 재확립할 것인 촉매작용을 충분히 허락한다.

언어연기의 양태화: 만약 우리가 양태발화의 속성으로 되돌아가 반성한다면, 우리는 언어연기의 두 가지 가능한 유형 간의 편차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함수로서의 요망(waning)을 갖게 될 때, 양태발화는 실행(doing)의 내포성으로서의 주체를 설치한다고 상기하게 될 것이며, 반면에 지식(knowing)과 능력(being-able)의 양태성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 2개의 다른 양태발화는 두 가지 방식 중의 한 가지로 최후의 실행(doing)을, 다시 말해서 지식의 결과인 그 실행을 또는 능력상에서 단독으로 기초가 만들어진 실행을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실행의 이렇게 다른 2개의 양태화는 언어연기로 인식된다. 따라서 우리는 연기하고 있는 주체가 실행능력(P_{b-do} , being-able-to-do)를 통해서 성취된 언어연기로부터, 표출의 레벨에서 책략과 농간을 통해 행위를 하든지 또는 아니 하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 그것에 따르고 있는 지식-실행노하우(P_b , knowing-how-to-do)에 의해 양태화된 언어연기를 구별할 것이며, 그 안에서 연기하고 있는 주체는 그 자신의 에너지와 힘을 최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실재적이거나 마술적인 것이 된다.

언어연기적인 시리즈

커뮤니케이션의 통사론: 지금까지 우리는 표층 레벨에서 심층 레벨의 논리적인 주장과 동치인 바로 그 언어연기의 최후의 화술적인 발화(NU_3)가 귀속적인 발화(AU)라는 것을 고찰했다. 그러나 그러한 형식화가 만족스러운 것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의구심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한 귀속(또는 주체에 의한 대상의 획득)은 본래 타동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귀적인 실행(doing)임이 확실한 것 같다. 연기하고 있는 주체는, 그 자신을 기술발화 즉 대상가치의 주체로 고찰함으로써, 그 자신에게 귀속시킨다. 만약 이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재귀적인 귀속은 커뮤니케이션의 도식으로서의, 더 보편적으로 말해서, 교환구조로서의 언어학으로 잘 알려진 것보다 더 보편적인 귀속구조의 특별한 경우보다 더 많은 것이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은 3개의 행위주(발신자, 커뮤니케이션의 대상, 그리고 수신자)와 함께 정전(正典)적인 형식으로 표상된다.

$TU=F$. 전승($S \rightarrow O \rightarrow R$)

매우 보편적인 도식 사용의 가능성은 이렇게 새로운 형식화에 의해 제공된 최초의 이점이다. 게다가 이러한 형식화는 다음과 같이 2개의 다른 통사론적인 레벨 간의 구별을 분명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① 주장의 통사론적인 작용의 레벨은 귀속의 작용주체(사실 그것은 메타주체이며, 발생된 전승의 최초의 경우이다)가 된 표층문법의 레벨에서 이렇게 동일한 작용인자로 존재한다. 그리고 ② 그 스스로 전승함으로써 레벨이 위치를 획득하게 된다. 발신자와 수신자의 텀은 그저 편차를 감추는 것에 기여할 뿐이다.

두 번째 레벨(기술적인 그리고 작용적인 레벨이 아닌)은 이제 신인동형동성화된 위상적인 표상으로 제공될 수 있다. 그 행위주는 대상가치가 정위될 수 있는 장소 대신에 그저 작용인자로 고찰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경우의 전승(轉乘, transfer)은 박탈(privation, 표층레벨에서)로 또는 선언(disjunction, 심층레벨에서)으로, 그리고 귀속(attribution, 표층레벨에서)으로, 또는 연언(conjunction, 심층레벨에서)으로 동시에 해석될 수 있다.

전승적인(또는 번역-전격적인, translative)¹⁴³ 발화(TU)와 함께 귀속적인 발화로 반제되고 있는 그러한 해석은 언어연기의 보다 더 엄밀한 표상을 제공하는 것 같다. 언어연기(NU_3)에 관한 소정의 실례의 귀결은 단지 가치의 단순한 획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전승된다. 만약 대상가치가 지배주체에 귀속된다고 한다면, 피지배 주체가 동시에 그것을 박탈당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그 2개의 논리적인 작용은 1개의 발화 바로 그 안에 담겨진다.

노트: attribution(귀속); 자신보다 다른 실행(doing) 주체에 감사하고 있는 대상가치를 획득할 때, 격아강적인 레벨에 정위된 귀속은 주체의 상태발화의 정향과 상응한다. 따라서 화술제도 안에서 어느 순간에 실행된 대상의 타동적 관계를 재현한다. 전유(專有, appropriation)와 함께 귀속은 획득 가능한 형식 중의 하나이며, 그것은 시련(시험)의 하위성분으로

143) 전격(轉格): ① 명사·대명사와 같은 실질 개념을 나타내는 말의 다른 말에 대한 관계, 즉 주격·목적격 등의 격이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과 ② 삼단논법의 대소 두 전제에 있어 매개념(중명사)의 위치에 따라 생기는 추론식의 형식이 전치되는 것, 즉 제1격 제2격 제3격 제4격이 전치되는 것의 이중의미. (역주)

제4장 화술문법의 원소

서 필연적인 귀결의 텀으로 고찰될지도 모른다.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20. (역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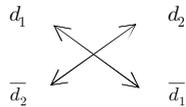
노트: appropriation(전유); 전유는 그것이 그 자신의 연기에 의해 대상가치를 획득할 때 격아강적인 레벨에 정위되며 상대발화주체의 정향의 성격을 만든다. 따라서 그것은 화술케도의 어느 순간에 성취된 대상가치의 재귀적 관계와 상응한다. 귀속과 함께 전유는 획득의 두 형식 중의 하나이며, 그 결과, 그것은 시련(시험, test)의 하위성분으로 보일 수 있다.

	획득(acquisition)	박탈(deprivation)
시련(시험, test)	전유(appropriation)	강탈(dispossession)
증여(gift)	귀속(attribution)	포기(renunciation)

변형 { 연언변형(*conjunctive transformation*) = 실현화(*realization*),
 획득(*acquisition*) { 재귀적(*reflexive*), 전유(*appropriation*)
 { 타동적(*transitive*), 귀속(*attribution*)
 선언변형(*disjunctive transformation*) = 내포화(*virtualization*),
 박탈(*deprivation*) { 재귀적(*reflexive*), 포기(*renunciation*)
 { 타동적(*transitive*), 강탈(*dispossession*)

—Ibid., pp. 15~16. (역주)

대상가치의 위상적인 통사론: 대상가치가 순환함으로써 그러한 방식의 위상적인 표상은 결국 분류법적 모델의 텀과 함께, 투자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론적 단위로 고찰된 후자와 함께, 전승하는 직시의 동정이 된다. 앞에서 우리는 내용가치의 투자가 2개의 상호 관련된 도식에 따르고 있는 위치를 획득한다고 고찰했다. 이제 우리는 신인동형동성적인 레벨에서 도식이 동류체적인 공간(isotopic space; 즉, 언어연기가 전개되는 그 장소)과 상응한다고, 그리고 그 각각의 공간이 결합된(그들이 모순의 동일한 축과 상응하기 때문에), 그러나 적합하지 않은 2개의 직시로 만들어진다고 언급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심층 레벨에서 모순적인 텀과 동치로 존재한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위계열적인 축 $\bar{d}_2 \rightarrow d_1$ 과 $\bar{d}_1 \rightarrow d_2$ 는 분리된 직시의 원칙변형적인 공간(heterotopic space)을 구성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동일도식에 속하지 않지만 그래도 적합하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이 전제관계에

의해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제 대상가치의 일련의 전승으로 고찰된 순환가치는 2개의 궤도로 추구될 수 있다.

$$1. F(d_1 \rightarrow O \rightarrow \bar{d}_1) \rightarrow F(\bar{d}_1 \rightarrow O \rightarrow d_2)$$

프로프(Vladimire Propp)의 러시아 민담의 경우, 그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사회집단(d_1)은 결핍(lack)을 경험하고, 반역자(\bar{d}_1)는 왕의 딸(O)을 납치하며, 그녀를 숨기기 위하여 다른 어딘가로(d_2) 전승시킨다.

$$2. F(d_2 \rightarrow O \rightarrow \bar{d}_2) \rightarrow (\bar{d}_2 \rightarrow O \rightarrow d_1)$$

그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즉 영웅(\bar{d}_2)은 어딘가에서(d_2) 왕의 딸(O)을 발견하고, 그녀를 그녀의 부모(d_1)에게 돌려보낸다.

따라서 러시아 민담은 2개의 언어연기주체를 연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리고 다른 것의 희생으로(반역자의 희생) 적합하게 만들어진 공간(space: 영웅의 공간) 1개로 안정시킴으로써, 가치의 순환전승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단순한 이중설화만을 취급하지 않는다. 기원신화는 보편적으로 발단상태로 존재하는 이러저러한 가치의 대상의 결핍으로 고찰되며, 그 가치의 획득은 반드시 1개의 궤도(2)에 따라 성취된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완벽하게 이해된다. 직시 d_1 을 위한 가치의 획득을 구성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동시적인 것으로 직시 d_2 를 위한 가치의 박탈이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가치전승(價値轉乘)을 위한 동일 궤도는 2개의 다른 해석을 수용할 수 있다. 그 설화는 승리와 동시에 패배의 설화로 존재한다. 이러한 해석간의 선택을 결정하는 것은 화술적인 통사론으로 실행되기는커녕, 내용가치의 가치론적인 아티큘레이션과 함께 실행되는 것임에 틀림없다. 1개로 환원된 투자이면서도, 적합하게 만들어진 2개의 공간은 처음엔 행복한 것(euphoric)으로, 그 다음의 공간은 불쾌한 것(dysphoric)으로 제공된다.

우리가 우선 당장 오로지 대상가치만을 취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전승의 위상적인 통사론이, 심층 레벨에서의 논리적인 작용의 텀으로 기술됨으로써 의미포착의 변화과정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가치를 창조하는 변화과

정도로 화술을 조직한다고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상적인 통사론은 설화에 의미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고, 설화의 주요 동기가 된다. 따라서 형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승적인(번역-전격적인) 발화는 언어연기의 최종발화이며, 논리적으로 그들을 포함하고, 전승으로 표현된 통사론적인 궤도는 사실 언어연기의 결합체적인 연속, 즉 보다 상위목류의 결합체적인 단위이다.

통사론적인 작용인자(operators): 그러한 위상적인 통사론은 순수하게 기술적이다. 우리는 전승적인 발화의 행위주의 발생이 어떤 작용적 동정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러한 행위주를 발신자와 수신자가 아니라 직시라고 호칭했다. 이것은 귀납적 작용인자의 통사론이기 때문에 연역적 작용(operation)의 통사론과는 독자적으로 구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메타기호학의 레벨은 가치전승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통사적인 작용인자는 그들이 우발적인 전승 작용을 성취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 그 특별한 실행의 내포성을 소유한 주체로 고찰될 것이다. 이러한 내포성은 양태성 그 이상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러한 내포성을 2개의 다른 방식으로, 즉 실행노하우(knowing-how-to-do) 또는 주체의 일부로서의 실행능력(being-able-to-do)으로든지, 또는 주체의 일부로서의 양태가치의 획득으로 신호하는 귀속발화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표현된 양태발화로 형식화할 수 있다.

만약 주체가 양태가치의 귀속(우리가 전승의 보다 더 만족할 만한 함수와 함께 이제 방금 반제된 귀속)의 결과로서의 작용인자로 변형된다고 한다면, 그때의 작용인자의 설치는 어떤 단서와 함께 전승의 위상적인 통사론을 위해 동일 모델에 따라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전승의 장소는 직시이기는커녕 도리어 주체-행위주이다. 따라서 실행능력 또는 실행노하우로 확립되고 공급받은 그 작용인자는 방금 창조된 것을 위해 언어연기를 성취할 수 없다.

이제 언어연기의 2개의 연속은 양태가치의 타동적이며 귀속적인 획득과 전승으로 인하여 초래된 귀납적 언어연기와, 대상가치의 재귀적이며 전유적인 획득과 전승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 연역적 언어연기와 동정될 수 있다. 전자는 주체를 작용인자로 설치하고, 그때 후자는 작용을 초래한다. 전자는 아종적으로 내포성을 창조하고, 후자는 그들을 환원적으로 외연화한다.

따라서 위상적인 궤도와 함께 우리는 대상가치의 전승을 마음속에 그릴 수 있으며, 우리가 고찰한바와 같이 그것은 언어연기의 최초의 결합체적인 연속을 확립할 수 있고, 이제 동일 유형의 두 번째 궤도가 양태가치의 전승으로 마음속에 그려질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운동중의 통사론적인 궤도를 설치하는 최초의 작용인자-행위주의 기원의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전념할 수 없다. 그것은 요망의 양태성에 귀속함으로써 욕망의 주체를 확립하고 있는 그 응축의 특별한 화술단위에 관해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유도한다. 계속해서 이것은 독창적인 발신자의 일부로서 “요망원인(causing-to-want)”의 외연화와 같이 존재한다. 이제 그들이 최초의 언어연기를 성취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주체의 요망에 대해 언급하는 것에 만족함으로써, 그 언어연기는 지식 또는 능력의 양태가치의 귀속에 의해 특징이 만들어진다.

이제 양태가치의 최초의 계층이 설치될 수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통사론적인 궤도로 정위된다.

요망(wanting) → 지식(knowing) → 능력(being-able) → 실행(doing)

그리고 그것은 언어연기의 결합체적인 연속을 위한 조직 원리로 기여한다. 그러한 정위의 어떤 함축은 즉각적으로 명시된다.

1. 주체 작용인자를 만들고 있는 오로지 능력의 양태가치의 획득만이 대상가치를 그들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언어연기를 성취할 수 있을 뿐이다.
2. 이것은 실행능력(그 중재는 우리가 실행의 외연화로 전승해야할지 어떨지에 관해 결정을 요할 때 필연적이다)의 귀속을 귀결로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태가치의 획득을 의미한다.
3. 다른 한편, 지식의 중재는 실행능력의 획득을 위해 필연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최후의 관측은 주체의 두 종류를 구별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즉 언어연기를 성취하고 있는 능력으로서의 “지식(knowing)” 주체는 최초의 학습으로 만들어진 “실행노하우(knowing-how-to-do)”로부터 유래하고, 그래서 이것은 본래부터 “할 수 있는 것으로(able)” 존재한다.

제4장 화술문법의 원소

노트: 예를 들어, 마술적인 가동자(시험자)의 획득 또는 지식의 목류의 메시지-대상의 획득으로 표출된 주체(또는 반-주체)에 의한 양태가치의 획득은 이제 다음의 언어연기로 속행될 수 있는 보조자(또는 반대자)로서의 주체를 확립한다.

전승적인(번역-전격적인) 발화의 형식적인 프레임이 극단적으로 팽창되어 확립된 그러한 결합체적인 연속(즉, 연좌된 행위주의 고찰 없이)은 정위된 것으로서의 언어연기(왜냐하면 그 언어연기는 통사론적인 작용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언어연기에 의해 추구된 통사론적인 작용인자를 확립하고 있기 때문이다)와 동시에 양태적인 언어연기를 함축하고 있는 대상적인 언어연기로서의 두 가지 유형 사이의 관계의 성질을 분명하게 하도록 충분히 우리에게 허락한다.

양태가치의 위상적인 통사론: 화술의 논쟁적인 성질을 부여함으로써, 2개의 통사론적인 작용인자는 화술적인 통사론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연적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언어연기의 구성을 위한 2개의 주체(s_1 과 s_2)를 마음속에 그리도록 유도했다. 따라서 그것은 양태가치의 전승을 위한 장소를 구성하는 두 주체 사이의 교환의 축이다. 소정의 양태가치는 s_2 를 전제하고 그것이 s_1 에 귀속함과 동시에 s_2 는 그 가치를 박탈당한다.

따라서 양태가치의 전승(轉乘)을 위한 2개의 궤도는 우리가 “지식(knowing)”으로 취급하든지, 또는 “능력 있는(able)” 주체로 취급하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취급하는 그것에 따라, 즉 1개의 획득으로 또는 2개의 당해 양태성의 획득으로 충당된 우선권에 따라, 마음속에 그려진다.

전자의 경우, 결합체적인 연속은 다음과 같이 정위될 것이다.

$$TU_1(s_1 \rightarrow O: \text{지식} \rightarrow s_2) \rightarrow TU_2(s_1 \rightarrow O: \text{능력} \rightarrow s_2)$$

그것은 보다 일찍이 정위되었던 지식에 감사하는 능력(being-able)의 s_2 에 의한 획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동시에 그것은 능력의 s_1 에 의한 상실(loss)로 고찰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해서 상실되었던 지식을 다시 갖게 된다.

후자의 경우, 정위는 반전된다.

$$TU_1(s_2 \rightarrow O: \text{능력} \rightarrow s_1) \rightarrow TU_2(s_2 \rightarrow O: \text{지식} \rightarrow s_1)$$

그 시퀀스는 지식의 s_1 에 의한 획득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것은 인식된 능력에 감사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그것은 능력의 상실을 추구하는 어떤 지식의 s_2 에 의한 상실로 고찰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두 연속 가운데 1개는 대상가치의 전승의 연속으로 조합됨으로써 완성된 설화를 구성하는데 부족한 것 없이 충분하다. 그렇다고는 하나 각각의 궤도를 위해 우리는 양태가치의 수용(이러한 선택은 명백히 자율적이다)으로 존재하는 2개의 다른 주체(s_1 과 s_2)를 선택했으며, 동시에 그것은 정돈되어 발견된 것으로서의, 예를 들어 프로프에 의해 연구된 러시아 민담 속의, 경상설화(鏡像說話, mirrored story)¹⁴⁴의 단일조직으로 고찰된다. 사실 거기서 우리는 먼저 s_1 의 희생으로 양태가치를 획득함으로써 가치론적으로 반영자와 동정된 주체 s_2 를 관측할 수 있다.

$$s_2 = O_1: \text{지식} \rightarrow O_2: \text{능력}$$

그리고 영웅으로 호칭된 주체 s_1 의 값이 떨어짐으로써, 그가 일찍이 획득해서 갖고 있던 그 자신의 가치를 누군가에 의해 점진적으로 박탈당한다.

$$s_1 = O_1: \text{능력} \rightarrow O_2: \text{지식}$$

화술문법의 보편적인 형식: 우리는 표층의 화술적인 통사론의 개요에 대해, 더 정확히 말해서 설화의 바로 그 자체와 관련된 통사론의 바로 그 일부에 대해 방금 기술했다. 아직 결핍으로 존재하는 것은, 즉 여기서 단지 간략하게 언급할 수 있을 뿐인 것은, 설화의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통사론적인 단위의 동정과 검토이며, 그것은 표출설화의 최초와 최후의 시퀀스와 상응한다.

여기서 우리는 심층문법의 레벨에서 분류법의 하위계열적 관계인 것과, 즉 텀 s_1 과 s_2 사이의, 그리고 s_2 와 s_1 사이의 이러한 모델로 확립될 수 있는 관계와 상응할는지 모르는 통사론적인 단위로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될지도 모른다. 여기서 화법(narration)의 계기는 이러한 두 행위주 사이의 관자

144) 각주 경상도야(鏡像陶冶, assumption) 참조. (역주)

놀이-공간적인 선언에 의해 추구된 발신자와 수신자-주체 사이의 연연적인 응축관계의 확립으로 표상될지 모른다. 역으로 설화의 성취는 관자놀이-공간적인 연연과 이때 대상적이며 양태적인 가치의 새로운 주연(周延)을 통해서 새로운 응축을 설치하고 있는, 가치의 어떤 최후의 전승에 의해 특징이 만들어질는지 모른다.

그것이 여전히 불완전하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의 시도는 화술의 통사론적인 조직이 무엇이라고 하는 하나의 형상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위상적인 통사론의 프레임 안에서 양태적이며 대상적인 가치의 전승을 조직하고 있는 두 종류의 정위된 그리고 결합체적인 연속을 동정했다. 그 대상가치는 언어연기의 귀결로 표상된 그리고 이러한 귀결을 논리적으로 함축하는 최후의 화술적인 발화의 프레임 안에 정위된다. 이러한 결합체적인 연속은 사실 언어연기의 목류로, 즉 재현된 그리고 형식적으로 동정된 통사론적인 단위로 존재한다. 또한 우리는 결합체적인 조직의 또 다른 원리와 동정했다. 즉 언어연기는 연역적인 작용이 외연화되고 있는 두 번째에 의해 추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귀납적인 주체-작용인자를 확립하고 있는 양태가치의 귀속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 첫 번째,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주연된다.

언어연기가 전형적인 통사단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축에 의해 연결된 일련의 세 가지 화술적인 발화로 고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화술적인 발화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간결한 유형학의 윤곽을 그려낼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그들 함수의 의미론적인 결정을 도입함으로써, 그리고 그들의 수와 그들 행위주의 아종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화술적인 발화의 세 가지 원리적인 유형, 즉 기술적인, 양태적인, 그리고 전승적인(변역-전격적인) 유형을 동정할 수 있었다. 표층 화술문법의 레벨에서, 모든 발화는 관계로든지 또는 심층문법의 작용으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표상된다.

일단 그러한 화술문법이 완성되면, 그것은 동시에 연역적인 그리고 분석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은 심층문법의 기본적인 작용(의미작용의 외연화의 변화과정을 추구하는)으로 시작하며, 그리고 표층문법의 결합체적인 연속의 조합(이러한 작용의 신인동형동성적인 표상보다 더 나은 것이 아무 것도 없는)으로 계속하며, 언어연기의 결과를 통해서, 화술적인 발화로 투자된 그 내용이, 의미의 표출로 추구된 일련의 궤도를 투사할 것이다. 이것은 일련의 논리적인 함축에 의해 일련의 사슬의 연결처럼 연결된 정전(正典)적인 발화의 일차원의 시퀀스로

조직된다. 일단 우리가 화술적인 발화의 그러한 연속을 동정한다고 하면, 그리고 만약 수사학, 문체론, 그리고 언어학적 문법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화술화된 의미작용의 언어학적인 표출을 고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5장 화술적인 기호학의 문제: 가치의 대상

가치의 기호학적인 지위

문화적인 가치

지시 관계의 발화자료체로서 환상적인 설화세계를 선택하는 것은 그 속에서 발견된 화술형식의 보편성(university)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그것은 팀 “마술적인 대상”에 의해 전통적으로 알려진 격아강적인 연기자의 특별한 강류와 함께 존재한다. 일단 그들이 영웅 또는 반영웅의 뜻대로 정위되고 나면, 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을 조력하고, 그들을 위해 그들의 가치를 찾아서 치환까지도 감행할 수 있다. 다음의 3가지를 통례적으로 그러나 필연적이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는 이러한 대상은 그 자신을 각각 다르게 표출할 것이다.

그 스스로 채워지는 돈지갑

아주 멀리까지 운반하는 모자 또는 헬멧

병사들을 호출하는 뿔피리 또는 호각

아르네(Antti Aarne)와 톰슨(Smith Thompson)의 분급(分級, classification) 속의 유형 563번의 특별한 연구가 있는 뒤에,¹⁴⁵⁾ 뒤메질은 이러한 부적(符籙)이 그들의 말처럼 인구어(印歐語)의 관념형태의 함수적인 삼분법을 위해 기왕에 분석된 모델 안에 끼여 분류될 수 있는 귀결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마술적인 대상은 격아강적인 것보다, 그리고 신성한 통치권의 원칙적인 영역의 아중보다 더 낮지 못하고, 그것은 동일한 대상, 즉 인간능력의 본질적인 귀속에 이르게 된다. 그것은 설립하고 정당화하고, 상상력의 모드 안에서 인간의 실행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이러한 귀속으로 존재한다.

이제 마술적인 대상에 의해 연기된 이질과업에 대한 세밀한 검토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그것이 인구어의 영역을 초월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존재하든지, 또는 아르네와 톰슨의 연구에서 얻게 된 결과의 기

145) Georges Dumézil, *Mythe et épopée*(Paris: Gallimard, 1968), pp. 541~542.

초 상에서 화술성격의 총체성으로 보편화하여 존재하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 존재하든지 간에 의심 없이, 우리는 그들이 재화(goods)를 제공하든지 또는 은혜(service)를 제공하든지, 하여간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에 따라 이러한 대상을 2개의 강류로 분할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는 어떤 편차의 명백한 사실을 여전히 언급할 수 있다. 은혜에 관하여는, 만약 그것이 대상의 힘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그 힘에 의해 영웅은 중대한 실행(deeds)을 성취하는데 필요할 것인 성질(quality)의 재산(즉각적인 시발과 마술용단에 의해 제공된 끝없는 여행의 증여, 소정의 모자 또는 헬멧이 쓰임으로써 초래되는 불가시성과 전지적인 것의 증여, 또는 마술 지팡이에 지령을 내림으로써 그의 적을 복종시키는 그 능력)을 물려받게 될 것이며, 그때 우리는 통치권의 최초의 2개의 함수와 상응하는 능력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양태적인 보조자로서 이러한 강류에 속하고 있는 대상을 쉽게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재화를 제공하는 대상이 나타나며, 좀 더 날카롭게 말해서, 어찌면 신화적인 발신자와 의도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위한 인간 사이의 중재자와 동정된 뒤메질적인 함수의 “아종(亞種, lower-order)”의 가동자(시험자)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마술적인 대상(예를 들어, 호리병)은 그 안에 값어치를 소유하고 있거나 그 자체가 값어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재화의 제공자이다. 그것은 풍부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끊임없이 채워져 있다.

그것은 재화를 제공하는 마술적인 대상의 분급(分級, classification)으로 속행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러한 분급은 의미론적인 분석에 속하는 것이며, 이것과는 달리 그 결과는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needs)와 상응하는, 그래서 관계적인 사회문화적 편차로 고찰된 다양성과 상응하는 일정 수의 상수(constant)를 포함하는 유형학의 형식을 획득하게 될지도 모른다. 에스노-문학의 레벨에서, 우리는 소박할 수 있는 재화(풍부한 음식)와 축적될 수 있는 재화(재산, 황금)를 동정할 수 있다. 다른 대당은 좀 더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진 뒤에 나타난다. 그들은 생산의 모드에 따라 보조자의 주연을 포함한다.

자연 채취된 과일 vs 재배된 과일¹⁴⁶⁾

146) C. Calame-Griaule, Denise Paulme에 의해 인용된, "Échantillons successifs," in *Alliés animaux*, p. 102.

또는 생산에 사용된 도구에 따라

사냥꾼의 칼 vs 농부의 쟁이¹⁴⁷⁾

제공자의 역할 안의 이러한 마술적인 대상을 위한 역축(役畜)¹⁴⁸⁾의 대체는 어떤 것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변화시키지 않으며 욕망가치의 안정적인 목록으로 실행한다. 오로지 확장함으로써만 보다 더 복합적인 설화를 포함하고 있는 발화자료체는, 어쨌든 만약 표상을 자세하게 구명(究明)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구어가 제3의 함수 신성(神性)의 보호 아래 정위된 기본가치의 목록(사랑, 건강, 아름다움, 다산)을 우리가 더욱 더 높이 끌어올리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과 가치

우리가 결핍의 대상 또는 욕망 따위의 대상, 예를 들어 음식 또는 황금에 대해 언급할 때, 그리고 우리의 언급이 민간설화로 한정될 때, 대상과 가치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즉 그 대상의 격아강적인 형식은 그것의 실재성(reality)을 보증하고, 이러한 레벨에서 욕망된 대상과 동정된다. 그러나 실은 그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말해서 대상은 그렇게 단순한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갖게 될 때, 아마도 그가 갖고자 원하는 대상으로서의 자동차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신속한 운송수단으로서의 그 현대성은 옛날의 마술용단으로 치환될 것이다. 또한 그가 구매하고 있는 것은 대개 어떤 위세 또는 힘의 과시일 것이다. 그러한 경우 그 대상은 구실에 지나지 않고, 투자가치의 장소, 즉 주체(주사[主辭])와 그 자체 사이의 관계를 중재하고 있는 또 다른 장소로 존재한다.

따라서 이렇게 찢절매게 된 그 문제는 단지 심리학적인 것만은 아니다. 또한 사전의 어휘를 위해 적합한 정의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사전편찬자가 연좌된다. 이러한 문제는 그 최초의 대상이 어떤 의미론적인 분석과 직면

147) Denise Paulme, "Échanees successifs," p. 137.

148) "Échanees successifs"에서 Denise Paulme에 의해 분석된 Aarne와 Thompson의 유형 554번.

하는 것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남김없이 철저하게 기술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김없이 철저하게 총망라될지도 모르는 어휘소 자동차의 정의는 ① 형태(초미-화술)적인 성분, 그 대상을 구성적인 부분으로 분류하고 따라서 형식으로 개작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② 다른 성격으로서의 지향반응운동적인 성분(taxic component)¹⁴⁹이, 제조된 대상 중에서도 특히 대상으로서의 지위로 고찰될 뿐만 아니라, ③ 그 함수적인 성분은 실제적인 것과 신화적인 것(위세, 힘, 탈출 따위) 양쪽을 모두 소유하게 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언어학적인 그 어휘소는 내포성의 세트로, 명백하지 않은 내재조직(만약 거기에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한다면)의 세트로 나타나며, 아종으로 분할된 그 우발적인 실현화의 내포성은 담화적인 표출 밖에서 확립된 통사론적인 궤도에 오로지 감사할 뿐이다.

어휘소의 막연한 성질에 대한 강조는 우리에게 초기의 관심사를 상기하도록 하는데,¹⁵⁰ 그때 의미작용이 나타나는 그 안에서 그 조건을 조사함으로써, 우리는 다음을 공리로 간주하게 되었다.

1. 어떤 것으로 그리고 그 자체를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 것도 없다. 오로지 그것의 결정에 의해서만 그것이 인식될 수 있을 뿐이다.
2. 그 결정에 의해 만들어진 그것은 오로지 대상과 대비하여 마음속에 그려진 편차로만 포착될 수 있을지도 모르며, 이러한 편차적인 성질은 이러한 결정을 언어학적인 가치의 지위로 제공한다.
3. 그 자체만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 남아있는 반면에, 그 대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의 존재자에 의해 일종의 반주(伴奏)로 전제되었다.

149) 지향반응운동(志向反應運動, taxis); 운동(movement)의 가장 단순한 메커니즘은 자극반응운동(遲刻反應運動, kinesis)과 지향반응운동(志向反應運動, taxis)이다. 전자는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활동과 전향 정도의 단순한 변화이다. 쥐며느리(pill bugs)는 건조한 곳에서 보다 더 활동적이고 습한 곳에서 덜 활동적이며, 그 단순한 행동은 습한 환경에서 이러한 동물성을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 동물성은 특정 환경에 적응하거나 도피하려고 움직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저 유리한 환경에 느리게 반응하여 움직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지향반응운동(志向反應運動, taxis)은 다소 자율적인, 즉 어떤 자극에 적응하거나 도피하는 지향성의 운동이다. 예를 들어, 파리애벌레는 사료로 주어진 뒤에 빛으로부터 도피하려고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다시 말해서 음의(negatively, 그늘로 도피하는) 주광성(走光性, phototactic)을 가지고 있다. (역주)

150) Structural Semantics, trans. D. McDowell, R. Schleifer, and A. Velie(Lincoln and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83), 제2장, “의미작용의 기본구조”

만약 우리가 논리적인 은유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대상이 오로지 교묘히 다루어질 수 있는 그보다 상위 패러다임으로의 함축(또는 內包, comprehension)만의 개념과 비교된다고 언급하게 될지도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 함축은 오로지 편차적인 가치로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대상은 정착장소, 즉 가치결정으로 인하여 상세하게 분할된 한 덩어리의 장소로 나타난다.

대상에 대하여 언급할 것 같으면 그 자체는 어떤 의미(sense)도 만들지 못하며, 대상의 장르에 관한 분류법적인 처리법마저도(Bernard Pottier에 의해 널리 알려진 의자의 영역의 조직과 같은) 오로지 의미소범주만으로, 즉 오로지 가치만으로 작용할 뿐이다. 거기에는 최초의 어휘소 “안락의자”와 최후의 어휘소 “안락의자”의 표상을 메타언어학적으로 조직하고 있는 의미소의 덩어리 사이의 거리가 항상 존재한다.¹⁵¹⁾ 오로지 활용되고 있는 통사론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상과 그 안에 투자된 가치의 만남으로 고찰한다. 그것이 존재하기 위한 통사론을 취함으로써(즉, 집합심상적인 표상, 또한 의미의 포착과 의미 작용의 교묘히 다루기로 고찰하는 그 유일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표상), 우리는 그 대상이 통사론적인 개념, 다시 말해서 세계와 함께 관계의 마지막 텀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그것은 세계와의 이러한 관계를 드라마의 형식으로 표상하고 있는 기호학적인 시뮬레이크럼인 그 기본발화의 텀의 일종으로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찰했던 바와 같이 의미의 포착은 그 변화과정 속에서 대상 그 자체가 아닌 대상을 결정하고 있는 오로지 가치로만 만난다. 상상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물로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극사실화(tromp-l'oeil)처럼 나타나는 소정의 이러한 어휘소는 오로지 그 가치의 어떤 것의 텀으로만 쉽게 독해될 수 있다.

그것은 통사론이 의미론과 결합하는 결합체적인 전개로만 존재한다. 통사론적인 대상, 즉 주체의 의도된 투기 그 이상이 아닌 그 대상은 그것을 표출하고 있는 하나 또는 몇 개의 의미론적인 가치로만 인식될 수 있다. 그렇게 인식함으로써 가치는 교묘히 다루기의 통사론적인 장소의 텀으로 전제하도

151) 안락의자 {등이 있는(us 등이 없는 의자)
팔걸이가 있는(us 팔걸이가 없는 의자) (역주)
앉기 위한(us 입식 테이블)

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발화를 생산하는 언의발언은 대상을 표출하고 결정하는 가치를 분명하게 하며, 이것은 가치 그 자체의 어휘화의 모드와는 독자적으로 실행된다.

주체와 가치

지금까지 우리는 텀 “가치(value)”를 오로지 언어학적으로 사용된 것으로만, 즉 표현될 수 없는 의미론적인 구조를 떠맡고 있는 자율적으로 지시된 텀과 오로지 부정적인 텀으로만 정의될 수 있는 텀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는 것과 의 관계로서의 배제원칙의 영역으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이라고 호칭된 통사론적인 장소로 고착된 영역으로 사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호학 안에서 작용적인 것을 만들고 있는 가치의 정의는 심증-윤리·논리차원의 가치론적인(axiological)¹⁵²⁾ 해석을 제거하는 것과 멀지 않다. 설혹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대상으로 호칭된 이러한 장소 안에 고착된, 그리고 주체와 함께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을 표출하는 가치보다 다른 논거가 없다. 사실 한계를 넓힘으로써 기본발화는 보기에 따라서는 총체발화를 의미화 하는 당해 대상으로 투자된 가치, 즉 2개의 최종 텀(주체와 대상)을 발생케 하는, 그래서 정위된 관계로 정의될 수 있으며, 그것에 의해 그것은 대상을 찾아서 만나는 주체의 가치가 된다. 따라서 주체는 가치와의 관계를 통해서 의미론적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최종단계의 그것은 기호학의 의미(sense) 안에서, 주체를 위한 가치로, 즉 변형된 주체의 가치로 정돈되어, 텀의 심증-윤리·논리차원의 가치론적인 의미 속 주체 “존재요망(wanting-to-be)”이 되어 필요한 만큼 할당될 것이다.

따라서 실제적인 문제는 관자놀이-시간적으로(temporarily) 해소된다. 소정의

152)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 21. axiology(가치론); 1. 가치론은 보편적으로 가치체계(윤리적, 논리적, 또는 심미적)의 이론 그리고(또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에 의해 획득된다. 2. 기호학에서 용어 가치론은 가치의 존재자(existence of value)의 계열체적 모드를 지시하며, 관념론과는 달리 그것은 그들의 결합체적 그리고 행위주적 배열의 형식을 떠맡는다. 그것은 기호사각형 상에 재현된 모든 의미론적 범주(예를 들어, 삶/죽음)가 방향적 범주 “행복감(euphoria)/불쾌감(dysphoria)”에 의해 조정적 그리고 부정적 직시의 투자에 감사하도록 가치화될 수 있는 것으로 고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유형의 가치론(또는 마이크로 체계의 가치)은 추상적(삶/죽음) 또는 격아강적인(예를 들어, 전통적 네 개의 자연적 기본구조) 것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일반 범주(의미론적 세계로, 작용하고 있는 전체로 고찰될 수 있는)를 취급하고 있는 한, 그것은 기호사각형에 따라 분명하게 아티클레이션이 될 수 있으며, 원소적인 가치구조(추상적 성격의)와 격아강적인 가치구조로 편차가 만들어질 수 있다. (역주)

의미론적인 우주 안에서, 추측될 그리고 고려의 대상으로 끌어들이게 될 오로지 그 어휘소로만 존재하는 어휘소, 즉 무한대의 잠재적인 대상으로 채워진 그것은 통사론의 축 상에서 명기될 수 있다.

주체 → 대상

왜냐하면 오로지 근원적인 통사론의 네트워크만이 그들로부터 가치를 발췌하기 위하여 어휘소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것은 언외지언의 표출을 의미의 담화적인 조직으로 변형함으로써 동시에 성취된다.

대상적인 가치와 주체적인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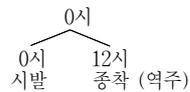
이러한 정제(精製)는 가치의 지위를 만들었으며(때때로 그것은 통사론적인 구조로 명기되었을 때만 쉽게 읽힐 수 있다), 더 나아가 자연언어 안에서 기호학적인 통사론과 그 편차의 표출 사이에서 고찰할 수 있는 관계적인 어떤 것의 민첩한 검토를 요구한다.

이제 이탈(departure)¹⁵³⁾의 관점을 위한 탐구로, 즉 우리의 영감-민속의 일상적인 기원으로 되돌아가자. 우리는 민속에서 부(wealth)의 추구하고 획득이 즐겨 사용하는 그리고 거의 보편적인 주제라는 것을 고찰했다. 부는 여러 가지 설화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처음에는 격아강적인 형식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1. 존은 황금동전으로 가득 찬 항아리를 가지고 있다(John has a pot full of gold pieces).

이러한 기호학적인 “사실”의 분석은 3개의 다른 레벨에서 대상의 지위를 해석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153) departure: 시발입과 동시에 이탈과 종착의 관점이다. 다음과 같이 보아도 될 것이다.



「통사론적 레벨: 연기자(actor); 격아강적인 대상 “황금동전으로 가득 찬 항아리”」

그러나 격아강화는 표출의 많은 모드 중에서 오로지 하나로만 존재하며, 부의 소유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언어학적 발화에 의해 이를테면 프랑스어와 같은 자연언어로 표현될 수 있다.

2. 존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John has a great fortune).

그 안에서 우리는 예문 1의 대상과 동일한 최초의 2개의 레벨을 인식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표출의 모드: 연기자: 비격아강적인 대상 “많은 재산”」

표출의 세 번째 모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언어학적 발화와 함께 나타난다.

3. 존은 부자다(John is rich).

그 안에서 우리는 가치 “부(wealth)”의 현존재를 쉽게 인식하게 되는데, 우리가 언급했던바와 같이, 그것은 통사론적인 대상의 가치를 필연적으로 전제한다. 그러나 표출에 있어서의 가치의 귀속모드는 문제를 제기한다.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는 언외지언 “to have(내재화 또는 외연화되어 나타나기 이전의 가치; 그리고 그것의 병치유어)”와 구성적인 연언을 겪게 된 어떤 상태를 기술하고 있는 그 발화에 의해 동일한 논리적인 함수를 표현하는데 사용된 것으로서의 “to be(학적 지식의 존재)”의 대당에 호소함으로써 단일 화술적인 사실의 이러한 이원성의 언어학적인 표출을 고찰하려고 애썼다. 반면에 그들을 어떤 것 그리고 그것과 동일한 함수로 실현하는 것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는 주체적인 가치(“to be”를 사용하고 있는 발화에 의해 생산된)로부터 대상적인 가치(“to have”를 사용하고 있는 발화의 조력과 함께 생산된)를 구별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할

는지도 모르는 그 편차의 기원을 발견하려고 시도했다. 게다가 이러한 구별은 가치의 외면화와 내재화에 대해 언급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했는지도 모른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한 해석은 표출의 언어에 지나치게 근접되어 있다 (“having”과 “being”의 역할의 주연은 어떤 언어로부터 다른 언어로 다르게 기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유욕이 강한[possessive] 표출의 다른 언어학적인 의미는 의심하여 망설이며 공리로 간주된 이원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진술한 해석은 어떤 담화적인 표출에 적당한 것으로 결코 고찰되지 못하며, 사용된 언어로도, 즉 행위주의 표출의 연기자적인 형식으로도, 독자적으로 고찰되지 못한다.

사실, 만약 예문 1과 2로서의 2개의 표출된 연기자, 즉 존과 “황금동전으로 가득 찬 항아리”/“많은 재산”이 각각의 경우에 두 행위주와 상응한다고 한다면, 예문 3의 경우에 동일한 두 행위주는 동일한 연기자 존 안에서 표출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음 유형의 단일 기호학적인 발화는

$S \cap O$

주체와 대상 사이의 연언의 동일한 관계의 매우 다양한 언어학적인 표출을 포섭함으로써 공리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을 조건으로 우리는 나중에 표출의 구조적인 유형학과, 아니 그 정도보다 더 나아가 발화의 발생을 통제하고 있는 규칙의 유형학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유형학은 문법의 표층레벨과 상응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기호학적인 행위주와 담화적인 연기자(계속해서 그것은 결코 프레스티지적인 언어학적인 행위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2개로 분리하고 있는 거리의 원칙을 위해 비교적 움직임이 적은 비병존설(nonconcomitance)의 원칙을 수용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화술적인 통사론의 자율성을 보증할 것이며, 담화적인 표출을 조절하는 바로 그 조직의 순간을 설치할 것이다. 그 경우 이제 가까운 장래에 연기자적인 구조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의 단일 담화적인 연기자 안에서 2개의 현존재 또는 더 많은 행위주로 그렇게 기술한다고 하면, 행위주의 혼합주의는 재귀성의 보편적인 프레임으로 해석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동일한 존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우리는 그가 부자라는 것을 언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언급할 수 있다.

4. 존은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있다(John is always torturing himself).

이러한 언어학적인 발화의 표층 분석은 존이라고 호칭된 연기자 안에서 그것이 또한 대상 행위주로 고찰된 동일한 존으로 괴로워하는 주체 행위주로서의 그의 역할 안에서의 위치, 즉 존을 획득하는 통사론적인 사건으로서의 장소(locus)로 고찰된다. 우리는 재귀적인 발화라고 부르는 것의 지위가 혼합주의적으로 정위된 연기자 안에 통사론적인 발화를 명기하는 것으로 쉽게 해석될 수 있다고 언급할 수 있으며, 그것은 그 발화가 실행발화(피로움의 경우)로든지 또는 상태를 기술하는 발화(그 안에서 재화는 행동의 빈사적인 종류의 어떤 유형을 통제하고 있는 지향반응운동적인 또는 가치론적 자질이 될 수 있다)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 약간 중요한 것으로 존재한다.

만약 이것이 정확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경계선상의 경우로, 즉 어떤 때는 개인적인 우주의 재귀적인 조직으로, 또 어떤 때는 문화적인 우주의 타동적인(transitive) 조직으로 결정된 행위주적인 구조와 연기자적인 구조 사이의 지속관계의 유형으로 존재한다고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어떤 것과 동일한 그 통사론이 심리기호학적 화술(“내재적인 삶”)과 사회기호학적 화술(신화학과 관념론) 그 두 가지로 고찰될 수 있다고 고찰할 수 있다. 물론 화술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형식은 심리기호학과 사회기호학(sociosemiotic)이 동시에 혼합된 어떤 것이다(상호개인적인 실제의 세트와 상응한다).

노트: value(가치); 1. 팀 “가치”는 언어학, 논리학, 경제학, 가치론, 미학 등 여러 분야에서 다른 의미로 폭넓게 사용된다. 기호학적인 이론은 여러 가지 정의를 통틀어 보다 더 면밀히 이끌고 싶어 할지도 모르며, 보편적인 조직 안에서 그들이 정향을 전유하는 귀속을 통하여 그들을 화해시키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2. 언어학적인 가치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갖게 되는 장점은 소쉬르에 속한다. 의미가 단어들 사이에서 포착된 편차로만 존재할 뿐이라고 지시함으로써, 그는 관계적인 가치의 팀 안에서, 그리고 그들 자체 사이의 관계로 결정된 의미작용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것은 내용 형식의 개념(Louis Hjelmslev)과 의미소적인 아티클레이션의 무리로서의 해석을 확립하도록 허락했다. 언어학에서, 가치는 따라서 의미론적인 범주 안에서 획득된 의미소(그리고 기호사각형의 조력으로 표상될 수 있는)로 정의될 수 있다. —그것은 팀 “가치”가 심미적으로 사용된(회화비평) 언어학적인 의미와 상대적으로 간격이 좁혀지는 것으로 존재한다. —발화가 진리 또는 거짓으로 존재하는 그 성격을 지시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사용된 표현 “진실가치(truth value)”는 의미론적인 범주의 형식 안에서 양태적인 가치의 조직으로서,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지나치게 제한적인데, 그 이유는

제5장 화술적인 기호학의 문제: 가치의 대상

그것이 몽상이 아닌 양태성으로만 적용되기 때문이며, 양태적인 논리의 진전에 대한 해명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논리는 기초형태론으로 기여하는 양태범주(의무적인, 비-망각의(alethic) 선험적인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3. 기호사각형의 의미에 의해 표현된 의미론적인 범주는 중립, 즉 투자된 가치의 기술적인 상태와 상응한다. 존재자의 3가지 모드를 주목함으로써, 그것은 우리가 내포적인 가치로 취급하고 있는 이러한 레벨 상에서 언급될 것이다. 그들의 가치화는 행복감으로서의 조정적인 직시와 불쾌감으로서의 그것의 부정적인 직시를 표시하는 방향적인(thymic) 범주의 상보적인 투자로만 나타난다. 왜냐하면 이러한 범주는 자기자극에 감응하는 목표로 존재하기 때문이며, 방향적인 투자는 주체와 함께 관계 안에 삽입된 이리저리한 가치(사각형 안에서 아티클레이션이 된)에 한해서만 고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치가 그들이 표층의 화술구조 안에서 예견된 그 프레임 안에 삽입될 때만, 더 정확히 말해서 그들이 상태발화의 대상-행위주 안에 투자될 때만 가치화된다(axiologized, 그리고 내포적인 것으로부터, 외연화된 가치가 된). 이 경우에, 가치는 그들이 주체로부터 분리되는 한에 있어서는 내포적인 것으로 남아있게 되며, 그때 그것은 오로지 요망(wanting)에 따라서만 존재한다. 그것이 주체의 이득으로 위치가 잡혔을 때, 가치의 대상과의 연연은 외연적인 가치(actual value)를 실현된 가치(realized value)로 변형한다.

4. 가치의 폭넓은 범주는 또한 기술적인 가치(다 소모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즐거움과 “감정의 상태” 등으로 비축될 수 있는 대상)와 양태적인 가치(wanting-, being-able-, having-to-, knowing-how-to-be/to-do)로 구별된다. 반면에 전자는 뒤매질의 세 번째 함수에 속하며, 후자는 통치권의 2개의 커다란 함수와 관련되고 있는 문제의 세트에 속한다. 게다가 기술적인 가치는 주체적인 가치(또는 때때로 자연언어 안에서 한 쌍의 “to-be”에 의해 주체와 결합된 “본질적인” 가치)와 대상적인 가치(또는 흔히 연의지언 “to-have” 또는 그 범치유의어의 조력으로 주체에 귀속된 “우발적인” 가치)로 분할될 수 있다.

5. 복합적인 화술프로그램의 인식은 기초적인 가치로부터 구조적인 가치를 구별하도록 화술적인 기호학을 유도했다. 원숭이가 얻으려고 애쓰는 그 바나나는 기초가치이며, 반면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하여 가서 가져오는 그 막대기는 그것을 위한 최상의 구조적인 가치이다.

6. 화술적인 담화는 흔히 가치 대상의 순환형식으로 고찰된다. 그때 그 조직은 가치의 일련의 전승(轉乘)으로 기술될 수 있다. 특별한 그리고 복합적인 전승의 모드는 가치의 가치교환의 모드이다. 그러한 작용은 그들의 임시적인 동일화를 포함한다(교환된 가치가 동정되지 않은 그 장소의 경우). 따라서 피신타의 교차점적인 계약·응축은 교환으로 관여하고 있는 주체 사이에서 확립되며, 그 계약·응축은 당해 가치의 교환가치를 고정시킨다.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p. 364~366. (역주)

노트: thymic category(방향적 범주); 1. 방향적(芳香的; 백리향적) 범주는 마음과 의지(will)의 조건(Webster의 The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인 어근 “thymia(향 그릇)”의 의미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명목으로서의 강류의미소적 범주이다. 방향적인 범주는 인간이 그 자신의 신체에 가지고 있는 지각에 직접적으로 속박되고 있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갈등(또는 중립) 텀으로서, 그것은 의미론적 세계의 의미소 범주의 세트를 분류하기 위하여 사용된 “외소여(exteroceptivity)/내소여(interoceptivity)”를 계층적으로 초월하고 있는 범주의 아티클레이션에 종사한다(enter into).

2. 이어서, 방향적인 범주는 “행복감(euphoria)/불쾌감(dysphoria)-중립 텀으로서의 비사위(非斜位, aphia)과 함께-”으로 아티클레이션이 되며, 의미론적 초미우주가 가치론적으로 변형된 그 변형 안에서 근원적인 역할을 연기한다. 행복감, 그리고 그 대당관계가 불쾌감을

지시함으로써, 방향적인 범주는 의미의 기본구조에 각각의 그 팀의 조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안정책을 야기한다.¹⁵⁴⁾ —Ibid., p. 346. (역주)

노트: 방향적 범주(thymic category)는 화학용어에서 힌트를 얻은 것 같다. 1. 방향족성(芳香族性, aromaticity): ① 평면구조를 가진 고리형 짝이중결합화합물의 π 전자수가 $4n+2$ ($n=1, 2, 3, \dots$)인 경우 같은 탄소수의 폴리엔(polyene)에 비해 특별한 안정도를 갖는 성질(휘켈의 규칙)을 말하며, 예를 들어 벤젠, 나프탈렌, 피리딘 등이 있다. ② 벤젠($n=1$)의 경우 불포화도가 크지만 알켄의 반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첨가반응을 거의 하지 않고, 치환반응을 잘 일으키며 산화시키기도 어렵다. 이는 벤젠이 π 전자계의 공명에너지에 의해 안정화되기 때문이다. 방향족성을 갖는 화합물로서 벤젠 외에도 비페닐·나프탈렌·안트라센 등 다중고리 화합물들이 있으며, 고리구성원자로서 헤테로원자가 들어 있는 피리딘·티오펜·인돌 등 헤테로방향족 화합물 등도 있다. ③ 벤젠고리(benzene ring)-벤젠환(環) 또는 벤젠핵(核)이라고도 한다. 6각형을 이루며, 이 고리와 결합하는 원자(예: 벤젠의 수소, 톨루엔의 수소 및 결사슬의 탄소)는 고리와 동일 평면에 있다. 1825년 M. 페리데이에 의해 벤젠이 발견되고, 19세기 중엽까지는 몇 개의 방향족화합물이 발견되었는데, 그 당시 유기화합물로는 주로 방향족에 속하는 것만이 알려져 있었으므로, 그들의 조성이나 반응성에 비추어 특이한 존재로 생각되었다. 1865년에 F. A. 케쿨레는 이들 화합물이 6개의 탄소원자로 이루어지는 고리에 의하여 구성되었다는 것, 즉 벤젠고리를 생각해 냈다. 벤젠고리는 탄소원자 사이의 단일결합 3개, 이중결합 3개로 이루어지는데, 불포화화합물로서의 특성반응은 특수한 경우에 한정되고, 일반적으로 포화화합물과 비슷한 반응성을 보인다. 이것은 각 탄소원자가 가진 6개의 π 전자가 비편재화하여 독특한 전자구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의 결합은 모두 동등하며,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 데에 기인한다. 따라서, 불포화화합물로서의 특성반응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벤젠고리는 케쿨레가 생각해 낸 것으로 케쿨레구조식이라고하며 또 R. 로빈슨에 의하여 6개의 π 전자에 의한 공명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최근에는 비(非)벤젠계 방향성화합물을 표현하는 데에도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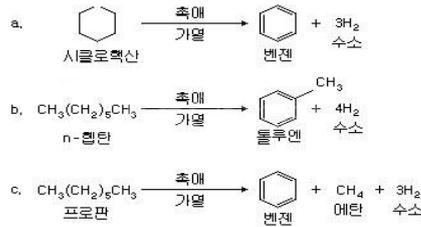
2. acyl groups(radical); ① RCO-의 일반식으로 표시된다. 아세틸기 $\text{CH}_3\text{CO}-$, 프로피

154) thymic: 기질(氣質)로 번역하기도 한다. 그러나 방향(芳香)이 보다 적합한 것 같다. 왜냐하면 "thymic category"는 선형적으로 또는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 제약을 초월한 무제약(자유)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기질(氣質, temperament): 일반적으로 성격의 유전적·생물학적 기반을 말하며, 특히 생화학적 변화와 신진대사에 관한 측면을 가리킨다. 이 말은 성격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으나, 인격의 의지적 측면을 성격, 감정적 측면을 기질로 구별하여 쓸 때도 있다. 히포크라테스는 기질을 담즙질(膽汁質)·흑담즙질(黑膽汁質)·다혈질(多血質)·점액질(粘液質)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담즙질은 급하고 화를 잘 내며 적극적이고 의지가 강하다. 흑담즙질은 우울질이라고도 하며 신중하고 소극적이며 말이 없고 상처받기 쉬운 비관적인 기질이다. 다혈질은 쾌활하고 밝으며 순응적·타협적이며 기분이 변하기 쉽다. 또 점액질은 냉정하며 근면하고 감정의 동요와 변화가 적고 무표정하며 끈기가 있다. 이것은 실증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분류는 근대 내분비학(內分泌學)에 바탕을 둔 기질연구로 이어진다고 한다. 기질의 유형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는 E. 크레치머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의 연구의 특징은 인간의 체격형(體格型)과 정신병의 종류와 기질과의 관계에 착안한 점이다. 먼저 2개의 주요 내인성 정신병(內因性精神病)을 살펴보면, 정신분열 환자는 일반적으로 체격이 가냘프고, 조울병(躁鬱病) 환자에는 비만형이 많다. 정상인의 기질에도 2개의 전형(典型)이 있다. 이를 각각 분열기질(分裂氣質)·조울기질(躁鬱氣質)이라 하는데, 전자는 가냘픈 체격의 소유자에 많으며, 후자는 비만형에 많다. (역주)

제5장 화술적인 기호학의 문제: 가치의 대상

오늘기 C_2H_5CO- , 말로닐기 $-OC-CH_2-CO-$, 벤조일기 C_6H_5CO- 등이 이에 속한다. 알데히드, 에스테르 $RCOOR'$, 케톤 R_1COR_2 , 산클로라이드 $RCOCl$ 은 모두 아실기를 분자 속에 함유한다. ② 아실기의 명명법은 기본이 되는 카르복시산의 영어명 어미 $-oic acid$ 를 $-oyl$ 로 바꾸는 것이 원칙이지만, 산의 명칭이 관용명인 아세트산(acetic acid) 등에서는 어미를 $-yl$ 로 바꾼다(아세트산의 예에서는 아세틸 acetyl). 아미노기·히드록시기 또는 벤젠핵의 수소를 아실기로 치환하는 반응을 아실화라 하고, 아실화에 사용되는 시약을 아실화제라고 한다.

3. 방향족화(芳香族化, aromatization); 석유화학공업에서 지방족탄화수소를 촉매의 존재 하에서 가열함으로써 다양한 방향족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은 산업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방향족화가 일어나는 반응은 그림과 같다. 반응 (a)는 탈수소반응, 반응 (b)는 자리옮김을 수반하는 탈수소반응, 반응 (c)는 축합반응에 의한 방향족화이다. 이들 반응에 쓰이는 촉매로는 백금·팔라듐·산화몰리브덴 등이 있다. (역주)



가치의 화술적인 지위

가치의 화술화

의미론적인 우주 안에 담겨진 것으로 존재하든지, 즉 가치로서의 그들 자신을 폭로할 수 있는 기호학적 대상의 무한대로 에워싸인 우리 자신으로 발견되든지, 또는 행위주적인 이탈(disengagement)의 절차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담화로 존재하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 자신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또는 가치 다시 말해서 주체와 선택을 유도하고 있는 기본 통사론적인 도식, 어쨌든 대상의 정향을 점령하고 있는 가치를 찾고 있는 주체와 함께 거주케 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가 강조됨으로써, 그들은 주체와 대상을 기호학적인 존재자라고 호칭하게 된다. 가치가 주체와 대상 사이의 접합관계를 확립하는 함수의 상태를 기술하는 발화로 명기되는 오로지 그때만, 우리는 이러한 주체와 다른 것을 위해 기호학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고찰한다. 공상의 은유적인 비약과는 거리가 먼, 그 같은 주장은 역으로 현저하게 실제적인 귀결로 기여한다. 구조적인 관계로 기호학적 존재

자를 정의함으로써, 그것은 우리의 고찰로부터 주체와 대상의 존재론적인(ontology; being의 모드. actual 즉 real, counterfactual; 반-actual 즉 unreal 또는 impossible) 불확실성의 사항을 배척하고, 이러한 관계를 어떤 상태를 기술하고 있는 정전(正典)으로서의 발화를 구성적인 것으로 형식화함으로써, 그것은 형식적인 프레임과 어떤 분석과의 관계로 존재하는 기호학적 사실을 위한 기준을 동일목록으로 인정하도록 우리에게 제공한다.

따라서 가치의 기호학적 지위가 정의됨으로써, 우리는 화술을 그들의 결합체적인 정치(定置)로, 정전적인 발화의 구성적인 원소를 교묘하게 다루는 담화적인 조직으로 고찰할 수 있다.

1. 주체 치환의 실행에 의해서든지
2. 어떤 것이 다른 것을 위해 대상가치로 치환되는 것에 의해서든지
3. 또는 함수의 변형으로 속행되는 것에 의해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대상의 대상이 화술의 기본형식을 탐색함으로써, 우리는 먼저 가장 단순한 경우를 마음속에 그리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상수로서의 어떤 상태를 기술하고 있는 발화의 주체와 대상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는 먼저 발화의 구성적인 함수의 오로지 변형만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함수를 2개의 모순적인 텀 “연언과 선언”으로 아티클레이션이 된 접합으로, 그러면서도 1개의 의미소범주로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상태를 기술하고 있는 발화의 2개의 유형을 제기한다.

연언적인(conjunction) 발화 = $S \cap O$

선언적인(disjunction) 발화 = $S \cup O$

이렇게 이해함으로써, 어떤 발화로부터 다른 발화로의 이동은 다음과 같은 유형 “실행발화”의 프레임 안에서만 분명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형식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메타주체의 작용인자의 유인으로만 오로지 발생할 수 있다.

F 변형($s_1 \rightarrow o_1$)

제5장 화술적인 기호학의 문제: 가치의 대상

그 안에서 변형(transformation)과 a_1 을 일으키고 있는 s_1 은 변형의 최종관점인 어떤 상태를 기술하고 있는 발화이다.

이제 우리는 화술에 대한 우리의 잠정적인 정의를 접합이 초래되고 있는, 즉 주체와 대상 사이의 연언으로든지 또는 선언으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초래되고 있는 1개 또는 더 많은 변형의 고찰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를 가치의 결합체화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팀 “실현화”를 주체와 대상 사이의 접합을 확립하고 있는 변형으로 적용할 것이다.

$$\text{실현화(실상화, realization)} = F \text{ 변형} \langle s_1 \rightarrow a_1(S \cap O) \rangle$$

이제 우리는 대상이 주체와 함께 연언을 발생시킬 때 바로 그때(통사론적인 지위에서) 대상 안에 투자된 가치를 기술하는 팀 “실현가치(realized value)”를 사용할 수 있다.

모순으로서의 연언과 선언의 관계, 즉 연언상태의 변형은 주체와 대상 사이의 최상의 선언을 생산할 수 있다. 연언의 거부 그리고 그 이상이 아닌 선언은 두 행위주 사이의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주체와 대상 사이의 모든 관계의 상실은 기호학적 존재자의 파괴를 초래하는지도 모르며, 대상을 기이한 의미론적 대혼란으로 격하시키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거부는 주체와 대상을 기호학적 존재(being)로서의 그들의 지위 안에 보존하고 지속시키며, 그와 동시에 그들을 연언이면서도 연언상태와 다른 존재자의 모드를 부여한다. 우리는 모든 선언의 실행이 연언을 위한 가능성으로 지속됨으로써 주체와 대상 사이의 관계를 내포화한다고 언급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는 주체와 대상 사이의 선언을 발생시킨, 그리고 주체로부터 분리된 대상 안에 투자된 어느 가치를 “내포가치”로 고찰하는 변형으로 기술하는 팀 “내포화”를 사용할 수 있다.

$$\text{내포화(허상화, virtualization)} = F \text{ 변형} \langle s_1 \rightarrow a_1(S \cup O) \rangle$$

그때 만약 우리가 어떤 상태를 기술하고 있는 발화의 구성적인 함수의 변

형이라고 오로지 그렇게만 고찰한다면, 그때 매우 단순하게 만들어진 그 형식 안의 화술은 내포화와 실현화의 결합체적인 초끈(strings; super-string theory)으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틀림없이 선택했던 그 팀의 자율적인 성질을 망각하지 않고, 우리는 그들이 통사론적인 형식을 정의하도록 적용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반드시 간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표층의 수사학적인 문구로서의 표현이 없지만 그래도 외관상 은유적인 용어법을 사용하도록, 그리고 먼저 실현되기 위하여 내포가치 따위로서의 그들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인 그 실현화로서의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내포주체(virtual subject)”¹⁵⁵⁾로 확립되지 않으면 안 되는 주체에 대해 언급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이것은 우리의 용어법 안에서 비과학적인 것으로 비난받는 일 없이, 즉 과학적으로 가능할 수 있음에 틀림없다.

노트: 초끈(strings; super-string theory)을 붙임줄(tie)과도 비교해 보라. 음악에서 높이가 같은 2개 이상의 음을 연결한 호선(弧線). 타이라고도 한다. 붙임줄로 연결된 음들은 한 음으로 쳐서 연주하며, 붙임줄에 의해 썸머립의 자리가 바뀌는데 이를 당김음(싱커페이션: syncopation)이라고 한다. 높이가 다른 2개 이상의 음을 연결한 호선은 이음줄(슬러: slur)이라고 한다.



슬러(slur): 이음줄이라고도 한다. 슬러는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① 이 호선이 붙어 있는 음표를 부드럽고 원활하게(레가토) 연주할 것을 나타낸다. ② 이 호선이 붙어 있는 음표를 단숨에 노래하거나, 한 활로 연주할 것을 나타낸다. ③ 성악곡에서는 여러 음에 걸쳐 동일 모음으로 부를 때 이 호선을 붙인다. ④ 프레이즈(樂句)의 도막짓기를 나타내기 위해 쓰인다. ⑤ 포르타멘토·글리산도 등 특수한 주법을 나타낼 때도 쓰인다. ⑥ 슬러와 스타카토의 두 표를 병용한 것은 메조스타카토를 나타내며, 부드럽게 음을 끊어서 연주한다. 그러나 같은 음높이의 두 음을 연결한 호선은 타이(tie: 붙임줄)라 해서 슬러와 구별된다.



싱커페이션(syncopation): 선율이 진행 중에 썸박이 여린박, 여린박이 썸박이 되어 썸머립의 위치가 바뀌는 일. 당김음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여린박의 음이 같은 음높이로 계속되는 다음 마디의 썸박과 타이(tie)로 이어졌을 때, 또는 썸박에 썸표가 붙었을 때, 여린박에 악센트가 붙었을 때 등에 생기며, 같은 마디 안이나 두 마디에 걸치는 경우도 있다. 싱커페이션은 15세기경부터 유럽의 예술음악에서 사용하였으나, 각종 민족음악의 특징으로도 볼 수 있으며, 또 재즈음악에서는 리듬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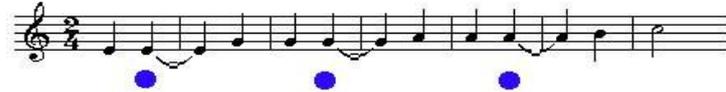
155) 단순화하기 위하여 우리는 “피존재요망(being-wanted)”으로 고찰된 대상과 함께 관계 안에서 “존재요망(wanting-to-be)”로서의 그 관례를 유예시킴으로써 주체의 불확실성에 대한 모든 것을 옆으로 제쳐놓고 있다.

제5장 화술적인 기호학의 문제: 가치의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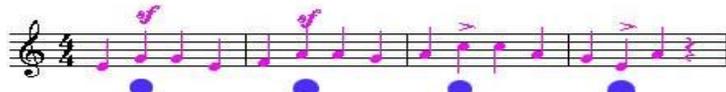
1. 리듬 변화에 의한 싱커페이션. 한 마디 안에서 박자의 분할에 의하여 센박과 여린박이 바뀌는 것으로서 이 경우 약박이 강박이 된 싱커페이션.



2. 붙임줄에 의한 싱커페이션



3. 기호에 의한 싱커페이션



4. 쉼표에 의한 싱커페이션



(역주)

가치의 기원과 용도

설화를 가치의 내포화와 실현화의 타이로 고찰함으로써, 물론 기원과 용도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들이 어디서 왔고, 따라서 그들이 언제 주체와 함께 결합된 내포가치로 처음 나타나는가? 그들이 일단 그들을 소유했던 주체로부터 되부를 수 없게 분리되자마자 그들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는 것인가?

첫눈에 발견과 상실은 근거 없는 연인과 선언의 최후의 형식이 되어 나타난다. 대상의 발견은 어딘가 모르는 곳에서 오는, 그리고 그것과 주체 사이의 최초의 관계를 확립하는 가치로 포착되는 것이다. 대상의 상실은 우연한 사태, 파괴, 또는 태만을 통해서 그것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그것과의 어떤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기호학적 존재자의 텅 안의 주체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치의 출현과 소멸의 이러한 최후의 예를 설명할지도 모르는 예문을 찾고 있을 때, 우리는 어리둥절한 애매성과 직면하게 된다. 메트르 오크코르느(Maître Hauchecorne)는 모파상(Guy de Maupassant)의

소설 안에서 한 조각의 타이틀 발견한다. 그러나 사회는 빠르게 그 타이틀 그가 창작한 의심스럽고 애매한 인물로 만들어버린다. 사회의 논리에 따라, 발견은 선언의 어떤 다른 주체를 공리로 간주하는 상실을 전제한다. 이것은 결국 가치의 무에서의(ex nihilo)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계속해서 독자는 그것이 “가치 없이” 단지 한 조각의 타이틀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메트르 오코르느의 경로 안에 정위된 ‘운명’을 기원하는 것으로부터 멈출 수가 없다. 따라서 그 독자는 비격아강적인 발신자의 형식 안의 어떤 다른 것과 초기의 주체의 존재자를 공리로 간주하게 된다. 그 스스로 깨지는 그래서 일단 굶주린 아프리카인의 가족에게 풍족한 음식을 제공하는 그 호리병은 언제 그 운명을 명확히 상실하게 되는가? 그 상실은 금기에 대해 위반했던 그곳의 팀으로 설명되며, 범 수호자의 역할로 획득된 어떤 다른 그래서 함축된 주체에 의해 발생되었던 선언으로 나타난다. 마치 소정의 심증-윤리·논리 차원의 가치론적인 우주로 존재하는 것처럼, 가치는 폐포된 공간 안을 순환하며, 실재성 속의 발견과 상실의 실례(instance)는 내재적인 우주가 초월적인 우주, 즉 순환구역 밖에 존재하는 가치의 기원·저장소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에 의해, 절대적인 연언과 선언을 떠맡는다.

피노키오의 분석에서 숨겨진 보물의 문제를 발견한 파브리¹⁵⁶)는 그것의 사회적인 해석을 제안했다. 모든 것을 대개 자급자족하는 사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중서부 토스카나(Tuscan) 지방의 농업사회는 한정된 분량 안에서 손에 넣을 수 있는 것과 같은 부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래서 가치의 그 폐포사회는 소정의 어느 폐포된 공동사회와 상응한다. 그 안에서의 부의 순환은 폐포된 구역에서의 순환이며, 가치의 통사론적인 궤도는 다른 구성원의 일부로서의 상실과 필연적으로 상응하는 그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서의 획득의 모든 실례를 위한 그것으로 존재한다. 역으로 숨겨진 보물 탐색의 신화는 이렇게 폐포된 사회에 지나지 않는 가치를 도입하며, 그래서 이것은 이원적 관점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첫째, 노동의 결과로 고찰된 재화는 찾아낸 보배(treasure), 부당하게 취득한 것,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 그리고 욕망적인 마음으로 취득한 것과 동시에

156) 이것은 “L'Ecole Pratique des Hautes Etudes”에서 1965년 이래 파리에서 개최되었던 연차연구조사 세미나의 일부로 제공된 논문으로 다루어졌다.

대당이 된다. 조정적인 가치의 관계 안에서, 이러한 부유(rich)는 가치론적인 반-우주와 함께 반드시 실행되고 있는 반-가치 또는 부정적인 가치로 나타난다. 이것을 입증하는 것은 일단 실현된, 그리고 보배가 소유물로 획득되었을 때 관측되지 못했던 행동의 어떤 규칙 바로 그 장소의 그 경우의 그 가치가 실제로 예를 들어 말뚝이나 자작나무껍질로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이다(리투아니아 민속).

둘째, 이러한 보배는 탐색주체의 사회에 속하지 않은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해 흔히 지켜지기도 하고 때때로 제공되기도 한다. 보배의 수호자이자 제공자인 이 등장인물은 순환을 위해 도입된 그 새로운 가치로 초월적인 가치의 우주와 내재적인 우주의 중재자의 역할을 연기한다.

에스노-문학(ethno literature)의 레벨에서, 이렇게 간단한 검토는 가치의 교묘히 다루기의 다양한 종류를 구별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가장 간단한 전자의 경우는 동류체적인 그리고 폐포된 우주 안 동치적인 주체 사이의 상수적인 가치(또는 동치적인 것)의 순환과 함께 실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후자의 경우는 소정의 우주로부터 이러한 내재가치의 도입과 제거의 문제를 제기하며, 그것은 전자를 포함하고 에워싸는 초월가치의 우주의 존재자를 전제하고, 그런 방식으로 내재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주체는 수신자 대 초월적인 발신자의 우주의 주체-발신자로 나타난다.

전자의 경우의 이러한 두 대당은, 즉 가치의 교묘히 다루기로 속박된 주체의 성질과 정량에 이의를 제기하는 그 대당은 가치 그 자체의, 즉 조정적인 가치와 부정적인 가치 사이에 존재하는 그 관계를 결정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 분극된 초미우주 안 가치조직 모드의 변형의 전체문제이며, 정위되고 전도된 가치의 형식 안의 그들의 화술을 예견한다.

이러한 문제를 동시에 다루면서, 이제 우리는 전자의 경우를 검토할 것이다.

오로지 1개의 대상만을 감싸 안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복합적인 접합의 발화

이제 우리는 모든 것에 의해 받아들여진, 그리고 결코 부정되지 않은, 어

편 주체로부터 다른 것으로 나아감으로써 한결같이 순환하는 그 가치 안의 폐포된 가치론적인 우주의 프레임 안 주체와 대상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관계만을 고찰하고 분석할 것이다. 우리는 파브리의 토스카나적인 모델(피노키오에서의 그의 분석) 또는 키레즈(A. Cirese)에 의해 분석된 “죽음은 네 것, 삶은 내 것(Mors tua, vita mea)”을 연기하는 지중해연안주민 특유의 유사가치론적인 우주를 선택할 것이다.¹⁵⁷⁾ 그러한 우주의 화술은, 가치의 연언과 선언의 연기에 결합체적인 타이의 형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항상 각각의 작용을 위해 오로지 1개의 대상만으로 정위된 2개의 장소로 설치되며, 따라서 아마도 설화의 매우 기본적인 형식 중의 1개를 포출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것은 헤다 제손(Heda Jason)에 의해 기술 되었었다. 게다가 그들 안에서 불량배와 얼뜨기로 존재하는 두 등장인물은 따라서 어떤 것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무한히 나아갈 수 있는 가치 대상의 소유물을 연속적으로 탈취한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을 위해 동일한 욕망과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나타내고 공유하는 2개의 주체를 갖게 된다. 그러한 상황은 기본화술의 유형적인 것으로 고찰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초기에 형식화했던, 그리고 절대적으로 상실되거나 발견된 가치가 없는 그것에 따르고 있는, 그 가언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정의 설화 안에서 명백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가치의 초월적인 기원으로서의 발신자를 넓게 확장함으로써, 대상으로부터 분리된 그 주체 s_1 은 주체 s_2 와 함께 이미 연언으로 존재하는 대상 단지 그것 만으로서의 내포적인 주체로 고찰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주체는 가치를 다른 어떤 것에 이미 속해있는 대상 단지 그것 만으로서의 대상으로 추정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유형의 화술상태가 상태로 기술되는 2개의 발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기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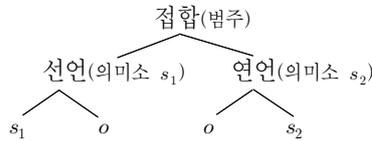
$$(s_2 \cap o) \supset (s_1 \cup o)$$

그것은 상호전제의 관계로 연결된다. 만약 s_1 이 o 로부터 분리된다고 한다면, 그때 s_2 는 발화의 어떤 것의 지위 안에서의 어느 변화가 그것과 밀접한

157) 팔레르모 국제 심포지엄의 회의록, 에스노-문학의 구조와 장르.

관계로 존재하는 다른 것의 지위로 빈사적이면서도 필연적인 반발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o 와 함께 결합될 것이다. 변형을 추구함으로써, 만약 s_1 이 o 와 함께 결합된다고 한다면, 그때 s_2 는 그것으로부터 분리될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 이상의 무엇이 존재한다. 우리가 두 발화 사이의 상호전제를 지시하는 것으로 사용할 것인 텀 결속은, 2개의 잘 알려진 관계 사이의 관계 바로 그 계열체적인 것으로, 즉 연언과 선언으로, 우리가 의미소범주의 2개의 텀 사이의 반대를 정의하는 것으로서의 관계로 존재한다(이원적인 범주 안에서의 반대, 바로 이 경우의 반대는 모순과 동정된다. 따라서 그것은 단지 전자의 소정의 실례에 지나지 않는다).¹⁵⁸⁾ 이제 우리는 의미소적인 텀의 범주가 연언과 선언으로 존재하는 텀 접합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접합은 그 함수를 정의할 것이며, 그것이 확립될 때, 그것은 결속관계 안에서의 두 발화의 병존설적인 출현을 초래하게 된다.



접합에 있어서 의미소범주의 두 텀은 상태의 두 발화의 구성적인 함수의 의미소적인 투자를 구성한다. 접합으로 지시된 범주 그 자체는 두 발화를 포섭하는 메타함수로 나타난다. 또한 두 발화를 공유하고 있는 대상 o 의 존재자는 세 행위주와 함께 복합발화의 형식을 일종의 메타발화로 공표함으로써 우리의 표기를 약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text{접합발화} = (s_1 \cup o \cap s_2)$$

결합체적인 발화와 계열체적인 발화

접합의 이 새로운 정의는 좀 더 나아가 정제를 도입하도록 요구한다. 그

158) François Rastier와의 공저 “기호학적인 강제의 상호작용(The Interaction of Semiotic Constrain),” 제3장을 보라.

것은 우리가 처음에 상대발화의 구성적인 함수의 두 유형을 1개의 텀으로 지시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텀 “접합”을 사용했던 것을 상기하게 될 것이다. 그것에 의해 우리는 담화적인 변화과정에서 실현과는 독자적인 체계 안에서의 텀 s 를 유형학적인 관점에서 2개의 관계로 고찰했다. 요컨대 접합의 의미소범주는 연언과 선언의 두 모순적인 텀을 포섭한다. 역으로 우리가 방금 형식화했던 그 접합발화는 가치의 어떤 대상의 현존재 안에서 소정의 순간 두 주체의 연기를 초래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전개담화인 그 복합화술 상태로 나타난다.

우리는 텀 “계열체적인 접합”이 2개의 명료한 주체로 작용하고 있는 연언과 선언의 두 발화의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바로 그러한 병존설로 지시할 것을 제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술이 어떤 것과 동일한 주체(그리고 역으로)로 관계하고 있는 그 선언발화를 전제하고 있는 연언, 즉 화술상태의 타이로 고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주체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단순전제의 관계로 연결된 일련의 두 접합발화를 위해 텀 “결합체적인 접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설화의 작용은 이중 타이로 성격이 만들어진다.

	결합체적인 접합 (syntagmatic junction)
계열체적인 접합 (paradigmatic junction)	$(s_1 \cup o) \rightarrow (s_1 \cap o) \rightarrow$ $(s_2 \cap o) \rightarrow (s_2 \cup o) \rightarrow$

우리가 고찰한바와 같이, 그러한 단순화술은 어떤 프로그램을 단지 존재자로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결속된 2개의 화술프로그램은 모순관계 안에서 함수의 병존설에 의해 보증되며, 그것은 2개의 주체를 정의하고, 반면에 병존설을 지키지만, 프로그램을 함축으로 도치시킨다.

그것이 비록 적용영역 안에서 여전히 제한된다고 할지라도, 그 같은 해석은 때때로 투시도법으로 호칭된 어떤 것의 구조적인 형식화를 위한 이탈(departure)의 관점으로 기여할 수 있다. 어쨌든 설화는 오로지 어떤 대상의 중심이 되고(또는 동류체로 존재하는 그리고 결합체적으로 주연된 일련의 복합가치의), 이원성의 결합체적인 그리고 계열체적인 성질을 표출하며, 동시에 불연속성의 두

유형으로 연기한다.

대상의 전승(轉乘)과 주체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화술상태의 결합체적인 전개의 기술은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주를 보증하는 변형실행의 존재자, 특히 상태발화에 속하고 있는 생산-실행의 주체의 존재자를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고찰한바와 같이, 이러한 제3의 주체는 상태발화의 주체와의 관계 안에서의 메타지향반응운동적인 것 (metataxic)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에게 설화의 약동성, 즉 통사론적인 조직으로 고찰하도록 허락한다. 따라서 연외발언과 주체의 문제를 순간적으로 무시하면서(그것은 담화 밖에 정위된 내레이터로서의 역할 안에서의 설화-발화를 위해 자기마음대로 다양한 주체를 소유한다), 그리고 화술적인 담화로 할당되고 설치된 오로지 변형주체로만 고찰함으로써, 우리는 생산하고 규정하는 실행-발화를 각각의 접합발화에 귀속시킬 수 있다.

첫눈에 2개의 가능성이 우리 앞에 전개된다.

1. 우리가 s_3 로 지시했던 변형주체가 가치의 대상과 마주하고 있는 선언 속의 s_1 , 내포주체와 동정되거나
2. 또는 s_3 이 가치의 대상과 함께 연언 속의 s_2 , 실현주체와 동정되거나 한다.

노트: 우리는 연외지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투시도법으로부터 나오며, 커뮤니케이션의 아종적인 실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고찰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은 의미의 모든 종류의 중명사(中名辭, mean)로 사용될 수 있으며, 지식원인(causing-to-know)으로, 즉 지식대상의 전승을 초래하고 있는 실행(doing)으로 분류될 수 있다.

대상의 전승으로 고찰하는 화술의 위상적인 표상은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결합체적인 조직으로서의 해석과 마주하고 있는 파트너와 모순되지 않는다.

화술적인 변형

이제 우리는 실행주체와 상태주체의 혼합주의를 소유하고 있는 것 안에서 기왕에 동정된 두 경우를 검토하기로 하자. ① 소정의 변형주체(s_3)는 주체

s_1 과 동정되든지, 또는 주체 s_2 와 동정되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 동정된다. ② 변형에 선행하는 이러한 두 주체의 각각은 내포주체(o 로부터의 선언 안에서)가 되든지, 또는 실현주체(o 와 함께 연언 안에서)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 존재할 수 있으며, 변형의 4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이 언급될 수 있다.

1. 만약, “변형 $s_3 =$ 내포(virtual) s_1 ”이라고 한다면, 그때 변형 $F\langle(s_3 = s_1) \rightarrow (s_1 \cap o)\rangle$ 가 될 것이다.

그 변형은 재귀적인(reflexive) 실현화라고 호칭될 수 있다. 격아강적인 레벨에서의 그것은 전유(appropriation, 대상의)로 나타날 것이다.

2. 만약, “변형 $s_3 =$ 실현(real) s_2 ”라고 한다면, 그때 변형 $F\langle(s_3 = s_2) \rightarrow (s_1 \cap o)\rangle$ 가 될 것이다.

그 변형은 타동적인(transitive) 실현화가 된다. 격아강적인 레벨에서의 그것은 귀속(attribution, 대상의)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두 변형은 주체의 실현화의 2개의 모드(재귀적인 것과 타동적인 것)를 제기한다.

3. 만약, “변형 $s_3 =$ 실현 s_1 ”이라고 한다면, 그때 변형 $F\langle(s_3 = s_1) \rightarrow (s_1 \cup o)\rangle$ 가 될 것이다.

그 변형은 재귀적인 내포화라고 호칭될 것이다. 격아강적인 레벨에서의 그것은 포기(renunciation, 대상의)라고 호칭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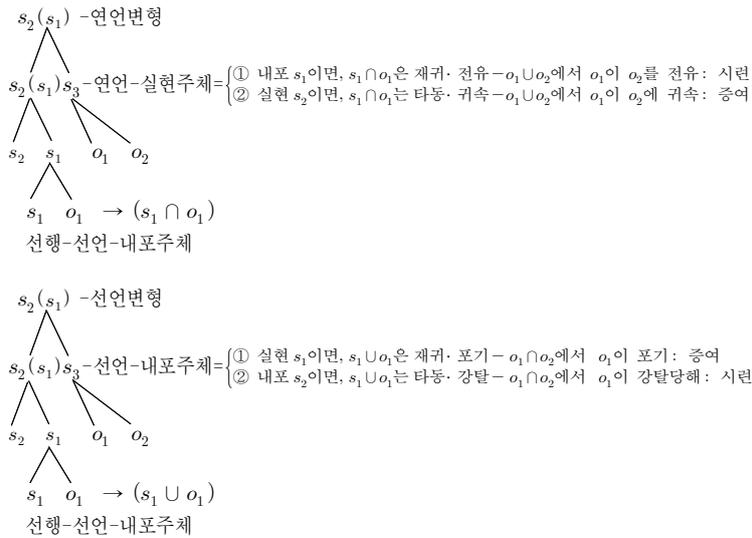
4. 만약, “변형 $s_3 =$ 내포 s_2 ”라고 한다면, 그때 변형 $F\langle(s_3 = s_2) \rightarrow (s_1 \cup o)\rangle$ 가 될 것이다.

그 변형은 타동적인 내포화로 나타나며, 격아강적인 레벨에서 강탈(dispossession, 대상의)로 호칭될 수 있다.

제5장 화술적인 기호학의 문제: 가치의 대상

마지막의 두 변형은 주체의 내포화의 2개의 유형(재귀적인 것과 타동적인 것)을 제기하고 있는 선언적인 변형으로 존재한다.

노트: 아래 도표 참조. 선언변형 s_2 는 선언이면서도 선언이 아닌 상태, 또는 선언이면서도 선언이 아닌 상태, 계열체이면서 결합체인 그 집합으로서의 단 하나의 행위주 또는 연기자이다. 거울에 비친 대상(타자; o_2)으로서의 나와 주체(s_2)로서의 나는 하나인 것($s_2 \cap o_2$ 또는 $o_1 \cap o_2$)을, 날짜변경선 위에서 팔을 벌리고 선 어제의 오른팔(o_2)과 오늘의 왼팔(s_2)은 하나인 것을, 그리고 0시(o_2)가 12시(s_2)와 둘로 갈라져 있으면서도 하나인 것을 상상하라(o_1 과 s_1 의 관계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역주)



결합체적인 관점: 앞에서 우리는 어떤 대상이 격아강적인 레벨에서, 실현화의 두 모드(재귀적인 것·전유와 타동적인 것·귀속)로, 즉 상응하는 가치대상의 획득의 두 모드로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고찰할 수 있었다. 전유 안에서 주체는 그 자신의 책략(device)에 의해 대상을 획득하려고 한다. 귀속 안에서 그 대상은 다른 주체에 의해 그 주체를 증여받는다. 이것과 병치적으로 거기에는 격아강적인 레벨에서, 내포화의 두 모드(재귀적인 것·포기와 타동적인 것·강탈)로, 즉 상응하는 가치대상의 박탈(deprivation)의 두 모드가 존재한다. 포기

인하여 그 주체는 가치로부터 그 자신을 떼어놓는다. 강탈로 인하여 그것은 다른 주체에 의해 그 자신을 박탈당한다.

용어법의 축진을 위해 그것은 다음 도표 안에서 도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유용할지도 모른다.

$$\text{변형} \begin{cases} \text{연언변형}(\text{conjunctive transformation}) = \text{실현화}(\text{realization}), \\ \text{획득}(\text{acquisition}) \begin{cases} \text{재귀적}(\text{reflexive}), \text{전유}(\text{appropriation}) \\ \text{타동적}(\text{transitive}), \text{귀속}(\text{attribution}) \end{cases} \\ \text{선언변형}(\text{disjunctive transformation}) = \text{내포화}(\text{virtualization}), \\ \text{박탈}(\text{deprivation}) \begin{cases} \text{재귀적}(\text{reflexive}), \text{포기}(\text{renunciation}) \\ \text{타동적}(\text{transitive}), \text{강탈}(\text{dispossession}) \end{cases} \end{cases}$$

변형의 이러한 4개의 유형은 오로지 어떤 대상 o 와의 관계 안에서 오로지 어떤 주체(s_1 또는 s_2)만의 경우 안에 포함될 수 있고, 그 화술프로그램의 일부가 됨으로써, 기본적인·결합체적인 구조를 구성한다.

계열체적인 관점: 다음 목상의 경우, 소정의 그 화술은 두 주체를 동시에 연좌시키고 있는 결속관계 안에서 두 화술프로그램의 병존설적인 전개로 존재하며, 우리는 병치프로그램 안에서 마치 마주보고 앉아 타는 마차의 자리 처럼 다른 주체와 마주하는 박탈의 실례로 존재할 것인 그 주체 중의 어느 하나 바로 그 부분 상에서의 각각의 실례를 고찰할 수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병존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획득과 박탈
귀속과 포기

만약 우리가 병존설적인 전유와 강탈을 제기하는 그 변형을 지시하는 텀 “시련(test)”을 사용한다면, 그리고 결속적인 귀속과 포기를 생산하는 그 변형을 지시하는 텀 “증여(gift)”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표층에서 그 자체를 표출하는 가치의 병존설에 의해 2개의 소인(素因)적인 격상을 얻게 될 것이다. 다음의 단순도표는 설화의 이러한 계열체적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획득(acquisition)	박탈(deprivation)
시련(시험, test)	전유(appropriation)	강탈(dispossession)
증여(gift)	귀속(attribution)	포기(renunciation)

그러나 우리가 방금 전제했던 포기와 귀속 사이의 그 결속은 우리가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인 그것으로서의 중요한 예외에 의해 문제가 발생된다. 거기에는 지금까지로 봐선 상태로서 결정된 발신자의 단일지위의 문제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그 자체가 소유를 계속하고 있는 가치를 포기하는 발신자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귀속을 초래할 수 있다.

2개의 대상으로 만들어진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적인 증여

화술프로그램이 마음속에 그려짐에 따라 시련(시험)과 증여는 주체의 실현화의 2개의 모드로 나타나든지, 또는 주체의 내포화의 2개의 모드로 나타나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 나타난다.

그것이 프로프적인 “결핍(lack)”과 상응하는 강탈의 형식으로 표출될 때, 주체의 내포화는 조정적인 양상을 포함한다. 그것은 요망의 주체로서의 내포주체의 진화를 위해 필연적인 조건의 어떤 것을 구성한다. 역으로 보편적인 내포화로 존재하는 포기는 주체의 잠재성으로서의 증식을 결코 일으키지 못한다. 필적할만하기는 하지만 2개의 “결핍상황(situation of lack)”은 동일한 것이 아닌데, 그 이유는 화법(narration) 안에서의 주체의 결합체적인 정향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첫 번째의 경우, 그 실행(doing)은 주체의 내포화를 추구할 수 있다. 두 번째의 경우, 그것은 전자를 선행한다.

예기될는지도 모르는, 다시 말해서 흔히 반송-증여(countergift)로 호칭된 단위가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최후의 화맥에서이다. 반송-증여의 작용인자-주체(operator-subject)가 그와 대당이 된 화술프로그램의 주체와 함께 혼합될 것이라고 하는 예기가 없으면, 반송-증여는 증여를 위해 이러한 것과 아주 동일한 팀으로 형식화될 수 있다. 만약 2개의 전승 작용의 대상이 동일한 것(예를 들어, 영웅이 나중에 결혼을 승인받기 위하여 되돌려 보내는 왕의 딸의 경우처럼)으로 남

아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 반증-증여는 “이전지위(status quo ante)”의 재확립의 형식을 획득할 것이다. 따라서 s_1 이 전승하여 또는 전유하여 갖고 있는 2개의 성분 가운데 1개의 성분을 포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공식이 만들어지는데,

$$(s_1 \cap o \cup s_2) \Rightarrow (s_1 \cup o \cap s_2)$$

위와 같은 상태의 변형 또한 s_2 의 변형실행에 의해 다음과 같이 상쇄된다.

$$(s_1 \cup o \cap s_2) \Rightarrow (s_1 \cap o \cup s_2)$$

동일대상의 두 상호작용적인 연언의 귀속을 연좌시키고 있는 2개의 선언의 포기로 조립된, 다시 말해서 최초의 의미를 상쇄하고 최초의 균형을 재확립하는 두 번째의 변형으로 조립된, 그래서 교류발전(交流發電)과 같은 결합체적인 연속은 귀속과 포기의 상호작용적인 증여로 지시될 수 있다. 그 화술적인 의미작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이 교환구조와 동정될 수 있는 의미를 실행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형식적인 레벨에서 오로지 양극단의 커뮤니케이션의 보편적인 프레임만을 구성한다.

내포적인 교환

우리가 검토했던 상황과는 역으로 교환구조를 적소에 설치하는 것은 2개의 가치 o_1 과 o_2 , 다시 말해서 주체가 포기하는 어떤 대상, 즉 o_1 과 동일주체가 갈망하는 그리고 그것에 귀속될 것인 또 다른 대상, 즉 o_2 를 요구한다. 그 수렴(收斂)은 그것이 말려들게 된 두 번째의 주체로 존재할 때 발생한다. 따라서 단독적으로 획득된 2개의 각각의 주체는 변형의 유발 이전의 실재적인 주체와 내포적인 주체 양쪽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투시도법의 관점에서 우리가 비유적으로 교환이라고 호칭하는 그 변형은 주체의 새로운 실현화와 내포화를 구성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 s_1 과 s_2 의 각각이 2개의 대상 o_1 과 o_2 와 동시에 상대적으로 존재한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그 두 주체의 화술프로그램을, 다시 말해서 세 행위주와 함께 발화의 형식 안에 존재하는 각각의 상황을 총

합 요약하는 화술상태를 단독적으로 그리고 최초로 형식화한다는 것을 고찰하도록 요구한다.

$$(o_1 \cap s \cup o_2)$$

따라서 우리는 생산된 복합발화(complex utterance, 위에서 분석했던 접합발화, “ $(o_1 \cap s \cup o_2)$ ”와 같은)가 2개의 기본발화를 단 1개의 복합발화로 만드는 그 환원(reduction)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고찰할 수 있다. 그 환원은 2개의 발화에 속하는, 또는 서로 분리되어있는 2개의 주체에 속하는 2개의 대상과 동정될 수 있는 우리의 존재(being)에게도 은덕으로 여길 가능성이 있다. 요컨대 그 주체는 대상과의 관계에 의해, 그리고 그 자신 단독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2개의 대상 o_1 과 o_2 의 현존재는 대상 각각을 위한 바로 그렇게 명료한 주체의 존재자를 우리로 하여금 공리로 간주하도록 강요한다. 연기자적인 혼합주의 안 두 주체의 동일화가 2개의 기본발화를 단 1개의 복합발화로 환원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은 오로지 나중에만 발생할 뿐이다. 따라서 이것은 필적할만한 구조를 소유하고 있는 접합발화의 두 종류를, 즉 주체의 접합발화와 대상의 접합발화를 구별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이제 교환은 대상의 두 접합발화의 이원적인 변형, 즉 병존설적으로 야기된, 동시에 두 주체에 의해 야기된 변형으로 기술될 수 있다. 만약 최초의 변형이 s_1 과 결합된 실행주체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을 것이다.

$$(o_1 \cap s_1 \cup o_2) \Rightarrow (o_1 \cup s_1 \cap o_2)$$

s_2 와 결합된 실행주체에 의해 초래된 두 번째의 변형은 첫 번째의 변형과 함께 결속의 관계로 존재하며, 연언과 선언 함수의 단순한 전도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다.

$$(o_1 \cup s_2 \cap o_2) \Rightarrow (o_1 \cap s_2 \cup o_2)$$

가치의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단위로서의 교환은 “S 변형= s_1 ”을 최초의 변

형으로, 그리고 “ S 변형= s_2 ”를 두 번째 변형으로 부여한 변형, 즉 “ F 변형 $\langle s_1 \rightarrow (o_1 \cup s_1 \cap o_2) \rangle \supseteq F$ 변형 $\langle s_2 \rightarrow (o_1 \cap s_2 \cup o_2) \rangle$ ”로 정의할 수 있다.

그것은 마치 결속, 즉 관련된 그 자신이 다시 한 번 실현되고 내포화된 것을 발견한 결속관계의 두 병존설적인 변형의 결과처럼 존재하며, 다시 말해서 마치 교환의 대상을 각각 획득한 것처럼 진행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방금 포기했던 대상에 의해 여전히 “매료된” 것으로 남아있다. 우리는 이 경우 차라리 교환 그것만으로 완벽하게 실현되지 못했다고, 즉 주체의 반전 상태가 여전히 투시도법적으로 존속한다고 언급하고 싶다.

$$F \text{ 변형 } \langle s_1 \rightarrow (s_1 \cap o_2) \rangle \supseteq F \text{ 변형 } \langle s_2 \rightarrow (o_1 \cap s_2) \rangle$$

이러한 공식은 그것이 말소로, 또는 어쨌든 주체를 단념된 가치와 동여매고 있는 내포관계의 서스펜션으로 떠맡을 수 있을 때만 정확하게 고찰될 수 있다.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해석은 실현가치와 내포가치 사이의, 동시에 그들 치환 사이의 가능한 동치를 허락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가령 그 교환이 다음과 같이 고찰된다고 한다면,

$$o_1 = o_2$$

또는 다시 말해서, 가령 “ $o_1 = o_2$ ”가 대상 o 의 강류의 치환될 수 있는 발현으로 고찰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교환이 명확하게 실현된 것이라고 언급하게 될지도 모를 것이다(즉 포기했던 가치의 회복에 대한 두 번째의 생각 없이).

이 경우에 비록 증여와 반증-증여를 떠맡고 있는 발화 안에 명기된 그 대상이 동일한 것으로 고찰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실현된 교환의 그 구조가 상호작용적인 증여의 그것처럼 상대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고찰할 수 있으며, 반면에 그들은 교환의 구성적인 발화 안에서 오로지 동치로만 존재한다고 고찰될 수 있다.

그러나 교환가치 간의 동치확립은 가치의 “가치”에 선행하는 지식을 전체

하며, 균형이 잡힌 그 교환은 상호작용적인 신뢰(trust)를 요구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교환에서의 파트너 간에 함축적이든지 또는 명시적이든지 하여간 어떤 것이든지 간에 피신탁의 교차점적인 계약·응축(fiduciary contract)¹⁵⁹을 요구한다. 따라서 가치의 커뮤니케이션의 형식 중의 하나로 고찰된 그 교환은, 사실 그 자체가 명확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해석은 그것에 선행하고 에워싸는 계약·응축상의 형식에 근본적으로 의존하고, 그 형식은 내관(존재, being)과 외관(seeming) 범주의 모든 종류의 교묘히 다루기를 허락할 것이다.

실재적이거나 날조된 것이거나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 주체 가운데 어떤 것의 무지나 소박성에 근거한 것 같은(양쪽 주체의, 간헐적으로 그리고 심리학적인 정당화와 함께) 그 교환의 구조상에서 거의 배타적으로 기초가 만들어진 민담으로부터 단순설화를 알아차리게 된 것이 놀랄 일은 아닐 것이다.¹⁶⁰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바늘을 소유하거나 황소를 획득하는 것으로부터 초래된 또는 역으로 초래된 바로 이러한 가치의 점점 세계 또는 점점 여리게 보여주는 민담으로부터 설화, 즉 그 결합체적인 타이틀 발견한다. 폭넓은 설화 안에서 준-자율적인 화술시퀀스로 도입된, 교환은 가치의 대상과 함께 결합됨으로써, 그리고 오로지 기만당한 주체에게 비-가치대상을 제공함으로써만 실현된 기만 주체 안에서 농간의 경우로 함축되고 흔히 나타나는 그 지식에 의해, 그래서 소정 계약·응축의 그 양태성에 의해 깨진 균형을 발견한다. 그 결과가 관련되는 한에 있어서는(그리고 그들은 전승의 화술도식이 설치될 때 속려로 획득된 그 모든 것으로 존재한다), 그 교환은 시련(시험)으로 인하여 초래된

159) fiduciary: ① 광학 측정기의 망선(網線) 상의 기준, 즉 십자선의 교차점. ② 신탁, 피신탁. 그러나 이 경우는 ①과 ② 양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117. fiduciary contract, relation(피신탁의 교차점적인 계약·응축, 관계); 1. 피신탁의 교차점적인 계약·응축은 발신자의 일부, 그리고 대응물로서 수신자에게 흡착하고 있는 설득적인 실행을 포함한다. 따라서 설득적인 실행의 대상이 언외화자의 진정성(언급-진리)일 때, 쟁취되어 예기된 대응-대상(counter-object)은 언외청자가 발화-담화의 지위를 부여하는 신앙-진리(believing-true) 안에 존재한다. 이 경우에, 피신탁의 교차점적인 계약·응축은 발화된 담화의 타당성을 보증하는 언외발언적인 계약·응축(또는 진정한 계약·응축)으로 존재한다. 피신탁의 교차점적인 계약·응축이 담화 안에서 화술프로그램을 생크선할 때, 그 템 발화적인 계약·응축이 사용될 것이다. 2. 피신탁의 교차점적인 관계는 내관(being)과 외관(seeming)의 두 측면 사이에 확립된 관계이며, 그때 해석적인 실행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존재자의 모드의 어떤 것과 다른 것을 계속하여 주장함으로써 한 측면으로부터 다른 측면으로 이동한다. (역주)

160) 그 중에서도 특히 Denise Pulme의 분석, "Alliés animaux"에서의 "Échanges successifs"를 보라.

전유로부터 거의 구별할 수 없다. 비-상호작용을 고찰하기 위하여 야기된 변형의 형식화는 기만주체에 의해 외관의 모드로만 초래된 그 변형을 위한 서스펜션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지도 모른다. 전환의 문체론적인 상호작용은 우리에게 기대하도록 유도된 화술적인 통사론을 타자의 위치 안에서 어떤 표층의 화술구조의 교묘히 다루기로 존재하는 위치를 획득한다. 만약 그 교환이 매우 폭넓은 결합체적인 화맥 안에 명기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화법은 애매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명확한 것이 될 것이다.

참여적인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가장 단순한 표현으로 환원된 가치론적인 우주 안에서, 기왕에 존재하는, 게다가 가치로 인식된 그 가치의 우주 안에서, 대상의 전승과 주체의 커뮤니케이션을 고찰하려고 시도했을 때, 우리는 폐포된 공간 안에서 가치의 순환을 보증하는 발신자의 조력을 받아 그 우주를 폐포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래서 그것은 내재우주와 초월적인 우주 사이를 중재하고, 그들의 현존재를 신인동형동성화된 암시의 통사론 안에서의 행위주로 그들의 형식 안에 표출한다. 우리는 신화적인 사고(그리고 필시 상상적인 능동성의 매우 보편적인 방식의 모든 것으로)가 순환가치를 무로부터의 지위로 인식하는 것에 마음 내키지 않아 꺼려했으며, 그 지위를 위해 어딘가 다른 곳으로 치환하려고 했고, 따라서 이러한 두 우주 사이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가능성을 공리로 간주하고 있다고 이미 고찰했었다. 여기서 비록 개략적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의 특별한 종류의 표상을 제공하고 싶다. 초월가치의 소유자로서의 그들의 역할 안에서 소정의 발신자는 실재와 초월이 동시에 존재하는 주체로 고찰될 수 있으며, 그것은 내재우주 안에서, 즉 내재적인(immanent) 그리고 내포적인(virtual) 주체 안에서 그들 자신의 권리로 당연히 함수를 만들고 있는 수신자와 함께 그들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이것은 독창적인 최초의 상태인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그들이 커뮤니케이션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주체로, 그리고 그들의 지위가 정전(正典)적인 발화의 텀 안에서 기술될 수 있는 주체로 존재한다.

먼저 커뮤니케이션의 구조를 사용하는 그 난국, 즉 초월가치의 이러한 성변화(聖變化, transubstantiation)를 내재가치로 기술하는데 있어서의 그 난국은, 커

제5장 화술적인 기호학의 문제: 가치의 대상

뮤니케이션의 바로 그 정의(연대적인 방식으로, 즉 주체의 어떤 것으로부터 대상의 선언과 제2의 주체와 함께 존재하는 그 연언으로 발생하는 어떤 변형으로 이해된)가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관계로 항상 적용되지 못한다고 하는 그 사실에 의해 야기된다. 전제된 발신자-팀과 전제하고 있는 수신자-팀 사이의 일방적인 전제관계의 존재자는 그들 사이의 불균형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수신자와의 관계 안에서 발신자의 계열체적인 지위는 상위개념적인(hyperonymic) 관계에 의해 정의되는 반면에 발신자와의 관계 안에서 수신자의 지위는 하위개념적인(hyponymic) 관계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불균형이, 행위주가 결합체적으로 정위될 때, 오로지 1개의 대상과만 관계를 맺게 된 주체로 고찰될 때, 그때만 강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형주체로서 증여가 수신자에게 제공된다는 것을 보장하는 발신자의 경우를 선택하기로 하자. 만약 변형이 수신자에게 가치의 귀속으로 인하여 초래된다고 하면, 그것에 의해 그 귀속은 우리가 발신자의 일부를 포기함과 동시에 기대했음인지도 모르는 것으로서의 결속관계가 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기대했던 것으로서,

$$(\text{발신자} \cap \circ \cup \text{수신자}) \Rightarrow (\text{발신자} \cup \circ \cap \text{수신자})$$

즉 위와 같이 발생하는 대신에, 그 변형은 다음과 같이 초래된다.

$$(\text{발신자} \cap \circ \cup \text{수신자}) \Rightarrow (\text{발신자} \cap \circ \cap \text{수신자})$$

수신자에게 귀속되어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의 그 대상은 발신자와 함께 연언으로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이렇게 기대하지 못했던 현상의 예는 많다. 예를 들어, 일단 발신자의 지식이 언외지언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신자에게 전승되고 나면, 그것은 할당된 일부분의 지식으로 남게 된다. 그 발신자는 지식을 모두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다. 영국의 여왕이 정당하게 임명받은 자에게 그녀의 모든 권력을 하나씩 위임했을지라도, 그녀는 최고의 지배자이다. 당신은 이것이 교묘한 픽션이라고 언급할는지 모르지만, 그와 같은 픽션 없이는 통치권의 개념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전승은 양태성으로 한정되지 못한다. 복음서에서, 한 덩어리의 빵이 그리스도의 육신이 되는 그 연기의 병존설적인 증식은 오로지 발신자 소유의 무진장한 성질의 텀으로 설명될 수 있을 뿐이다. 카우카이(kaukai)¹⁶¹⁾라고 불리는 리투아니아인의 신은 그들의 보호 아래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부를 제공하지 않는다. 리투아니아인은 그들의 재화를 반드시 무진장하게 바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재화고같이 그들 재화의 양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할당된 소정의 개념에 대해, 의미론연구자들은 여왕의 권력이나 카우카이의 능력에 관한 실재성 여부를 조사하여 확인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 자신을 그 개념의 적절한 기술이 제안되는 것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의 이중적인 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참여적인 커뮤니케이션(participative communication)이라고 호칭하도록 제안한다는 것을 언급할지도 모른다. 그 텀은 우리가 공식 “총체 대신의 부분(pars pro tota)”¹⁶²⁾의 보편적인 프레임으로 해석하는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단일구조적인 관계를 상기시킨다.

그러나 화술의 일반구조의 이러한 진진단계에서 그것은 행위주적인 구조의 개념을 본질적으로 통합하지 않고서 참여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고찰을 위해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지도 모른다. 특히 우리는 언외지언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구조를 기술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리고 보편적으로 기호학적인 전승의 그것과 오로지 화술의 자율적인 레벨만을 구성하는 지식의 교묘히 다루기의 그것을 기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 나아가 비망적으로, 즉 뒤집혔던 그 장소, 그러나 아직 탐구되지 못한 그 내용의 블랙박스도 고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배려로 약간 언급 했었다.

161) kaukai: 지하세계의 영 카우카이(kaukai)는 리투아니아 사람들에게는 매우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피조물의 이미지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영아로부터, 또는 출생의례를 치루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로부터 비롯되었다. 카우카이는 남성과 여성 양쪽을 갖고 있는 작은 난장으로 재연되었다. 그의 곁에는 또한 지하세계가 있는데 그곳은 땅속에 숨겨진 보물을 보호하는 영이 있었다. 아주 옛날부터 리투아니아 사람들은 그들의 신성한 재연 피조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처음에는 토렘으로, 나중에는 수형신-신인동형동성화된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수하게 신인동형동성화된 신). (역주)

162) "pars pro tota": "denomination(단자)"과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A. J. Greimas, Trans. by Daniel McDowell, Ronald Schleifer, and Alan Velie 「Structural Semantics」 (Lincoln and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83), pp. 3~12를 보라. (역주)

이 장에서 우리는 문화적인 가치(그것은 그들이 사회적인·의미론적인 우주로 참여 하든지, 또는 그들이 개인적인 우주로 통합되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 참여하든지 간에 별 관심이 없다)를 발생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이 비록 문법구조로 사용된 의미론적인 성질의 양태가치로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양태가치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한다. 가치의 언어학적, 사회학적, 가치론적 정의를 위한 가능성은 상보적이며 비모순적인 성격, 즉 기호학적인 진취정신을 위한 필요조건을 논증할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탐구했었다. 따라서 가치의 우주, 즉 텃 의미론의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의 그 우주는 포착된 존재를 보증하는, 그리고 화술화로 고찰하는 그들의 기본통사론적인 구조의 프레임 안에 정위 되었었다.

결론

삶, 설화, 개인적인 것, 문화적인 것 등의 그 담화적인 총체지속성(permanence: duration) 안에 단속성(irruption)의 투입(闖入)으로 고찰된 화술은 담화적인 총체지속성을 변형들 간의 분리 상태로 해체한다. 이것은 최초의 실행안에서 상태발화인 체 가장하는 실행발화의 형식으로 기술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이러한 상태발화는 가치와 함께 투자된 대상과의 접합관계인 주체의 기호학적인 존재자의 보증인으로 존재한다. 여기서 우리는 사건적인 통사론을 좋든 싫든 하여간 어떻게든 간에 신인동형동성적인 암시(영감)로 진전시키려고 시도한다. 어쨌든 그것은 기본적인 관계의 투기이며, 따라서 인간은 그 세계를 갖게 된다. —또는 그것과 상관없는 전환명제를 갖게 된다.

단순상황과 기본 통사론의 구조를 탐색하기 위하여, 우리의 이탈(departure)의 관점은 대상가치에 의해 유인된 2개의 주체를 재연하고 있는 단순 통사론의 형태(초미-화술)로 존재했었다. 이러한 형태의 고찰은 우리가 결합체적인 또는 계열체적인 접합발화로 형식화할 수 있으며, 또한 각각의 주체가 자신의 화술프로그램을 어떻게 전개할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몇 가지 단순 화술상태와 동정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했었다. 위상적인 해석에 따라, 대상의 다양한 치환은 그들의 전승 장소에 지나지 않는 주체와 함께 설화의 조직으로 고찰해도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해석을 보충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는 변형으로서의 작용인자에 의해 규정된 두 주체 간의 커뮤니케

이선이, 보다 좋은 표층의 레벨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행위(acts)로 표출된 기본 변형의 최초의 유형학을 확립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기 때문에 더할 나위없는 논리적 분석 차원을 구성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자체를 발견했었다.

이러한 유형학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는 2개의 주체와 2개의 명백한 대상 가치를 나란히 도입하도록 요구하는, 그 허락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교환구조의 통사론적인 표상에 관한 최초의 존재를 두 방향에서 추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대상 안에 투자된 가치의 동치(전제하도록 유도했던 것)는 우리가 거기서 연구를 중단하고 있는 선행 피신타의 교차점적인 계약·응축의 전제된 존재자와 동정된다. 다른 한편, 우리의 분석은 기묘하게도 대상의 귀속에 의해, 그러나 병존설적인 포기 없이 성격이 만들어진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단일지위로 엄밀하게 지시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석의 최초의 지시를 위한 그 경우는 우리로 하여금 참여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이러한 형식 발견의 귀결이 충분히 진척된 한 별의 장치(apparatus)의 결핍을 위해 이제 더욱 완벽하게 진전될 수 없다는 것을 선택하도록 했다. 화술의 최후의 단순형식은 조정적인 가치의 변형을 부정적인 가치로, 또는 역으로 고찰할하는 지도 모르며, 스케치까지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고찰함으로써, 그것은 반-주체의, 그리고 반-발신자의 존재자를 공리로 간주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할지도 모른다. 이것을 우리는 직관적으로 명백하게 고찰할하는지도 모르지만, 사실 그들의 존재자—우리가 과학적 진취정신이 되기를 원하는 것의 작용의 프레임 안에서(그저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의 내재정의를 위해 필연적인 내재응집성 때문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도)—는 자명하지 못하다.

가치론적인 투자의, 그리고 그 화술화의 고찰이 화술적인 기호학 안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장을 구성할 뿐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그들이 비록 신화학과 민담으로부터 설화 안의 특권이 부여된 장소를 점령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문화적인 가치는 소위 문학이라고 하는 그 장르에서도 기호학과 마찬가지로 거의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문학도 그 가치를, 통시적·귀납적으로 축적되어 있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또는 은유와 같은 표층의 수사학으로 비문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한 문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치의 화술조직은 표층에서의 그 “소멸(effacement)”이 오로지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로만 구성된 지각차원의 현존재보다 심층에서 적지 않은 의미작용을, 즉

참여적인·지향적인 의미작용(이원적인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술의 기초로 구성된다.¹⁶³⁾

노트: 1. 영역자는 "permanence"로 번역하고 있지만 "duration(총체지속성)"이어야 할 것이며, 단속성(irruption)이 "permanence(단기지속성, 신화)"이어야 할 것이다.

2. "permanence"는 수동적이며 강요적인 도크사(doxa, urdoxa)로서의 "연속성"의 의미지만 "단속성"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단속성이 되기도 한다.

3. 이 단속성이 총체지속성 안에 투입되고 나면,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 자발적 지향성(intentionalität)의 단기지속성의 신화로 작용한다. 따라서 마치 꺾두사(un-wise), 꺾미사(kind-ness)와 같이 불변하는 것을 지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작용을 그레마스는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신화"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Roland Barthes, Annette Lavers 역, 『Mythology』 (New York: HILL and WANG, 1972), p. 109. "그러한 생각들이 신화적 대상들을 질료의 범주 속에 넣고 식별해내려는 취지로 보일 수 있다면 완전히 착각일 것이다. 왜냐하면 신화는 일종의 파롤이기 때문이며, 모든 것은 담화에 의해 운반된 공급신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화는 메시지를 운반하는 대상에 의해 규정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메시지를 발설하는 방식에 의해 규정된다. 결국 신화에는 형식적 한계가 있을 뿐이며, 질료적 한계는 없다. 그렇다면 모든 것은 신화가 될 수 있는 것일까? 그렇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왜냐하면 우주는 끊임없이 암시 속에서 번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속의 모든 대상들은 폐포된 집목의 실제로부터 사회에 의해 충당되도록 열려있는 구술영역으로 통과할 수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연적이거나 아니거나 대상들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방해하는 법칙이 없기 때문이다." 이하 참조.

4. A. J. Greimas, Trans. by Daniel McDowell, Ronald Schleifer, and Alan Velie

163) A. J. Greimas, Trans. by Daniel McDowell, Ronald Schleifer, and Alan Velie 『Structural Semantics』 (Lincoln and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83), pp. 3~4. "의미작용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윤곽을 묘사하고자 하는 이렇게 공통적인 요망에 따라, 언어학은 가장 적합한 학문의 한 분야로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언어학이 보다 완벽하게 발전되었으며 보다 더 형식화되었기 때문이며, 그들의 경험과 방법을 다른 학문의 한 분야에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1950년대에, 프랑스에서 언어학은 인간과학 사이에서 시샘을 받고 있는 선구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부여받게 되었다. 따라서 언어학이 이와 같은 특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역설적인 장면을 창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그 역설적인 장면이란 실제적으로는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은 한 장소로부터 이중의 복사(輻射)가 방출되는 것을 말한다. 최초의 이중복사에게 이러한 역설적 장면의 창조자라고 하는 명예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실은 사회학과 심리학도 언어학 이전에 그 가치를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학과 심리학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진부화(陳腐化, banalization)"라고 일컬어질 수 있고 학문의 방법론적 구조의 뒤틀림(왜곡[歪曲])으로 성격이 지워지며, 그리고 여러 개념들 간의 대당(對當, 대립, opposition), 때때로 기본적인 대당의 중립화에 의해 성격이 지워질 수 있다. 이렇게 빈약해지고 뒤틀린 언어학적 용법은 대부분의 전위적인 잡지들 간에 확산되었지만, 언어학자들은 그들의 신생 하위학문(his own children)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웠다." 참조. 따라서 표층의 수사학을 중요시 하는 사람들의 문학은 모더니티가 없는 문학이며, 표층에서는 소멸했지만 기호학 안에서의 의미작용을 하고 있는 화술, 즉 문학을 모더니티가 있는 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학은 심층의 문화가치와 개인적인 가치 모두를 중요시 한다. 그레마스는 이러한 현대성을 "구조의미론"은 물론 "의미론선집"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다. (역주)

「Structural Semantics」(Lincoln and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83), pp. 170~173. 그리고 그의 「구조의미론」 제9장의 “이질적 모델의 폭주를 예증하고 있는 행위주적 구조의 선택은 어느 발화자료체의 성격을 동시에 고찰하는 것을 회피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했다. 우리는 이러한 역설에 대해 강조할 기회를 이미 가졌었다. 파롤의 어느 표출이 3초의 간격에 의해 또는 300년의 간격에 의해 조만간 식별될 것이라고 하는 그 역설적 사실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들 관계의 통시적인 성격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바꾸지 못한다. 따라서 의미작용의 표출 안에서의 통시적인 모든 것은, 비통시적으로, 뭉뚱 의미작용의 매우 단순한 구조로 이해하는 우리의 습성에 의해 고찰된 의미작용 그 자체를 배제한 다. 다시 말해서, 민담 또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의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의 소설로 파악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은 약간의 의미작용 범주의 화술을 통해서 얻게 되는 단기지속성(permanence, 신화)이다. 따라서 어떤 텍스트는 단기지속성과 통시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것은 약간의 기본적 과장구조 때문에 단기지속성을 명시한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구조와의 관계 속 두 번째 구조의 하위계열적 아티클레이션을 통해서 통시적이다. 어떤 통시적 자료는, 집합적이든지 또는 개인적이든지, “프랑스 언어사”의 표상이든지 또는 “말라르메(S. Mallarmé)의 생애의 표상이든지, 계층적 발달으로 기술될 수 있으며, 단기지속성의 많고 적음에 따라 아래에서 위까지 덧붙여진 구조적 단층에 의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irreparable tempus)의 상징기호인 화살표와 함께 제공된 수평축에 전개된 어떤 통시적 발화자료체는 다소간 총체지속성(duration)의 장기·중기·단기로 분할되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외관상으로 보기에 단순한 상호관계는 구조의 계층적 단층과 총체지속성 사이에 확립된다.

통시적 발화자료체

구조(structure)	총체지속성(duration)			
문체론적(stylistic)	단기(short)	단기(short)	단기(short)	단기(short)
역사적(historical)	중기(average)		중기(average)	
기본적(fundamental)	장기(long)			

따라서 위의 도표는 통시적 발화자료체 안에서 구조가 가지고 있는 3개의 계층적 단층, 즉 기본적, 역사적, 문체론적 단층, 그리고 브로델(Fernand Braudel)에 의해 확인된 장기, 중기, 단기라고 하는 총체지속성의 세 가지 유형을 식별한다. 그 상호관계는 그 자신의 상대적 총체지속성인 구조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유형을 제안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그 구조는 조만간 정위될 것이며, 역사는 구조화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해석의 원리는 사학자로부터 차용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는 통시적 집합적 발화자료체의 예는 과장처럼 보인다. 이러한 도표를 개인사의 측면에 이항시킴으로써, 우리는 기본적 구조와 구성적 범주 사이의, 예를 들어, 역사적 구조와 “어떤 개인사”의 통시적 변조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본성”의 고전적 개념과 상응하는 것을 확립할지도 모르며, 반면에 그 문체론적 구조는 구조적 반향을 가지고 있는 “긴장의 장면”에 기인한 변이를 고찰케 할지도 모른다.”를 보라.

5. 이러한 관점은 근본적으로 칸트(I. Kant)의 “자유지=이율배반=가상세계”가 지향적으로 구성해가는 관점이다. 즉 물자체가 수동적으로 표상(경험론적) 되지만 다시 연역적(합리론)으로 구성해가는 구성설(構成說)의 관점이다. 또 헤겔(G. W. F. Hegel)의 변증법적 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permanence는 “대자(주인)”가 될 것이고, 표상 그리고 fundamental과 historical은 “타자(노예)”가 될 것이며, duration은 이 대자와 타자가

제5장 화술적인 기호학의 문제: 가치의 대상

상호 인정하는 순간의 총체가 될 것이다. 즉 소위 신이 강림하는 “절대지”의 세계가 될 것이다.

6. 이는 또한 심리학과 논리학을 종합하고 있는 후설(E. Husserl)의 판단중지와 동시에 구성해가는 묘기의 지향적(자발적), 다시 말해서 빈사(술어)적인 환원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는” 12장에서 “history(증기지속성) vs permanence(단기지속성, 신화)”로 대비하고 있으므로 “단기지속성, 또는 신화”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결국 이 신화는 공통단자, 본질직관(우연성 또는 개연성이 아니라 필연성의 자유변경)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보편적이며 무제한적인 필연성의 선형 즉 순수초계(정적 a priori가 아니라 동적 “transzendenz”로서의 본질직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판단중지에 의한 선형적 전환). 그레마스의 구조의미론은 바로 이러한 지향성의 선형적 전환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역주)

노트: 그레마스는 집합기호를 사용하고 있다. 집합(集合, set): 수학용어의 하나로 어떤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요소의 모임을 말하며, 그 요소를 집합의 원소라고 한다. 어떤 원소가 그 집합에 들어 있는지, 들어 있지 않은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집합에서 취한 두 원소가 서로 같은지, 같지 않은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 반 학생의 모임’, ‘5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과 같이 어떤 조건에 따라 일정하게 결정되는 요소의 모임을 말하며, 그 요소를 집합의 원소라고 한다. 집합에 속하는 원소는 구체적인 사물 또는 추상적으로 생각된 것이라도 무방하지만,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즉,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임이다. ① 어떤 원소가 그 집합에 들어 있는지, 들어 있지 않은지를 식별할 수 있다. ② 그 집합에서 두 원소를 취했을 때, 그 두 원소가 서로 같은지, 같지 않은지를 식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큰 수의 모임’이라든가 ‘착한 사람들의 모임’은 집합이 될 수 없다.

보통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a는 집합 A에 속한다” 또는 “A가 a를 포함한다”고 표현하며, 기호로 $a \in A$ 또는 $A \ni a$ 와 같이 나타낸다. 또, d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닐 때, “d는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고, 기호로 $d \notin A$ 와 같이 나타낸다. 집합 A의 원소가 a, b, c, ...일 때, $A = \{a, b, c, \dots\}$ 로 표시하고, 또 성질 $\Omega(x)$ 를 가지는 대상 x로 이루어진 집합을 $\{x \mid \Omega(x)\}$ 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3 이하의 자연수로 이루어진 집합은 $\{1, 2, 3\} = \{x \mid x \text{는 } 3 \text{ 이하의 자연수}\} = \{x \mid x \leq 3, x \text{는 자연수}\}$ 이다.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경우는 유한집합, 무한한 경우는 무한집합이라고 한다.

집합 A의 원소가 모두 집합 B의 원소일 때 A를 B의 부분집합(subset)이라 하고, $A \subset B$ 또는 $B \supset A$ 로 나타낸다. $A \subset B$ 이며 $B \subset A$ 일 때, A, B는 상등(相等)이라 하고 $A = B$ 로 나타낸다. 또 $A \subset B$ 이고 $A \neq B$ 일 때 A를 B의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 집합을 생각할 때, 그 대상의 전체 범위를 전체집합이라 하고 보통 U로 쓴다. 임의의 집합 A는 전체집합 U의 부분집합이다. 또, 유한집합의 극단적 경우로서, 원소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은 집합(즉, 어떤 대상 a에 대해서도 $a \in A$ 가 되는 집합 A)도 생각할 수 있으며, 이것을 공집합이라 하며, \emptyset 또는 {}라는 기호로 나타낸다. 이를테면 $A = \{x \mid x \text{는 } 2x=3 \text{을 만족하는 자연수}\}$ 이면, $A = \emptyset$ 이다.

A에 속하고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의 집합을 $A - B$ 로 나타내고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라 한다. A에 속하지 않는 원소의 집합을 A의 여집합 또는 보집합이라 하고, A^c 또는 A' 로 나타낸다. 즉, $A^c = U - A$ 이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에 속하거나 B에 속한 원소, 즉 A, B 중 적어도 어느 한 쪽에 속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합집합(合集)이라 하고, 기호로 $A \cup B$ 와 같이 나타낸다. 또,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한 원소, 즉 A, B에 동시에 속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교집합(交集)이라 하고, 기호로 $A \cap B$

와 같이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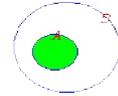
합집합과 교집합, 여집합과 차집합에 관해서 다음의 연산법칙이 성립한다.

- ① 교환법칙: $A \cup B = B \cup A$, $A \cap B = B \cap A$
- ② 결합법칙: $(A \cup B) \cup C = A \cup (B \cup C)$, $(A \cap B) \cap C = A \cap (B \cap C)$
- ③ 분배법칙: $A \cap (B \cup C) = (A \cap B) \cup (A \cap C)$, $A \cup (B \cap C) = (A \cup B) \cap (A \cup C)$
- ④ 드모르간의 법칙: $(A \cup B)^c = A^c \cap B^c$, $(A \cap B)^c = A^c \cup B^c$
- ⑤ $A - B = A \cap B^c$

두 무한집합의 원소 사이에 일대일대응이 이루어질 때, 두 무한집합의 농도(濃度)가 같다고 한다. 이때 농도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해당하며 카디널수(cardinal number)라고도 한다. 무한집합 중에서 자연수와 같은 농도의 집합을 가산집합(可算集合) 또는 가부번 집합(可附番集合)이라 한다. 실수 전체의 집합과 같은 농도는 연속의 농도라고 하며, 실수와 같은 농도의 집합은 불가산집합이라 한다. 농도에 따라 무한의 개수에 단계가 이루어지며, 모든 무한집합은 부분집합으로서 가산집합을 포함하므로 가산집합은 가장 낮은 무한의 단계이다. —naver 백과사전. (역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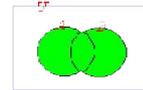
부분집합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A는 B의 부분집합이라 하고, 기호 $A \subset B$ 로 나타낸다. 이 때, $\emptyset \subset A$, $A \subset A$ 인 관계가 성립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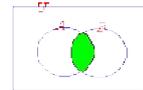
합집합

정의: $A \cup B = \{x \mid x \in A \text{ 또는 } x \in B\}$
 (보기) $A = \{1, 2\}$, $B = \{2, 3\}$ 일 때, $A \cup B =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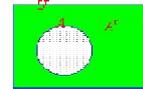
교집합

정의: $A \cap B = \{x \mid x \in A \text{ 이고 } x \in B\}$
 (보기) $A = \{1, 2\}$, $B = \{2, 3\}$ 일 때, $A \cap B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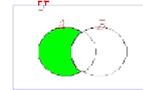
여집합

정의: $A^c = \{x \mid x \in U \text{ 이고 } x \notin A\}$
 (보기) $U = \{1, 2, 3\}$, $A = \{2, 3\}$ 일 때, $A^c = \{1\}$



차집합

정의: $A - B = \{x \mid x \in A \text{ 이고 } x \notin B\}$
 (보기) $A = \{1, 2\}$, $B = \{2, 3\}$ 일 때, $A - B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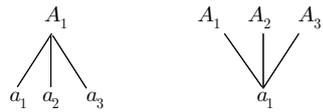


제6장 행위주, 연기자, 그리고 격상(figure)

화술구조

행위주와 연기자

우리는 언어학적인 재해석을 인물 극으로 제안했으며, 그것은 최초의 실례 안에서 그들이 표출됨으로써 특별한 담화로 인식될 수 있는 화술적인 통사론과 연기자를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위주들 간의 구별을 확립하려고 추구하는, 그 환상적인 러시아 민담의 프로포적인 기술상에 기초한다. 우리가 타당한 것으로 계속 고찰하고 있는 이러한 구별(그것이 그저 집중되지 않으면 안 되는 화술분석 상의 2개의 자율적인 레벨을 교묘하게 분리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는 물론 발단부터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것은 그 자체로 화술의 불확실한 문제의 복잡성을 논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연기자와 행위주 간의 관계가 소정의 발현의 단순한 포섭관계로부터 어떤 강류로 분류되는 것과는 달리, 그 대신에 이원성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만약 행위주(A_1)가 몇몇 연기자(a_1, a_2, a_3)에 의해 담화로 표출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반전은 몇몇 행위주(A_1, A_2, A_3)의 혼합주의를 구성할 수 있는 반드시 1개의 연기자(a_1)로 동등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차적 탐색은 담화적인 표출의 독립적인 화술문법의 가능성을 마음속에 그리는 것까지도 “설화의 성격”의 행위주적인 조직으로 우리가 보다 더 잘 이해하도록 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 연기자적인 조직은 그 탐색 안에 암시적으로 포함되지 못하는데,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의 약점은 서로 엉겨 붙는 담화이론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 사실로 쉽게 설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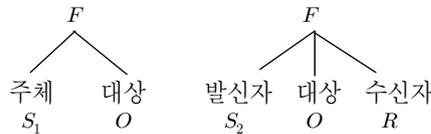
제자리걸음을 하며 꾸물거리는 것 같은 어떤 확장(외연)을 화술로 탐색하는 그 사실의 이점을 획득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것이 이러한 이원적 효과와

함께 어떤 용어법적이며 교훈적인(didactic) 정제를 시작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우리는 이러한 영역에서 우리가 긴급히 풀지 않으면 안 되는 다시 말해서 문제가 항상 증진하고 있는 그 수효에 조명을 비출는지도 모르는 것의 목록이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지기를 기대한다. 이것은 특히 관심이 구비문학에서 문자문학으로 이동했다고 하는 그 사실에 기인한다. 또한 그것은 앞으로 더 나아간 탐색방향이 선택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논증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행위주적인 구조

더욱 더 나아가 행위주적인 구조는 개인적인 우주 그대로의 수축 바로 그와 같은 투기로 존재하는 인간 상상력의 조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합체적인 선언: 만약 우리가 진행화술의 주체(주사[主辭])에 의해 생산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 전체발화로 존재하는 설화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 동일한 전체발화는 일련의 사슬같이 엮인 바로 그렇게 화술적인 발화(=프로프의 “함수”)로 분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함수의 지위를 형식적인 관계의 논리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함수와 함께 발화의 “빈사-언외지언(predicate-verb)”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구성하는 행위주 간의 관계 바로 그러한 발화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화술적인 발화의 두 종류를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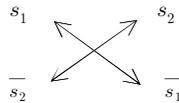


또는 논리학에서 차용된 표기체계로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F(S_1 \rightarrow O) \quad F(S_2 \rightarrow O \rightarrow R_2)$$

우리가 이러한 통사론적인 구조를, ① 사회적인 레벨에서, 대상가치를 생산하는, 따라서 교환구조의 프레임 안에서 그들을 유통시키고 있는 작용의 인간관계로 해석하든지, 또는 ② 개인적인 레벨에서 그의(또는 그녀의) 욕망의 대상과 함께 인간관계로 해석하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해석하며, 상호인간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구조 안 대상의 그 불가사의를, 선언은 상상력의 최초의 아티클레이션을 위한 기초와 함께 우리에게 제공되어 충분히 보편적인 것 같은 바로 이러한 기본도식으로 만들어낸다. 그들이 언어학적 실행을 선행하는 “실재적인” 구조의 내포화로 존재하든지, 또는 의미심장한 세계를 조직하는 것으로서의 인간정신의 투기로 존재하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 존재하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의미의 보편성과 아티클레이션을 허락하는 형식적인 장소로 존재한다.

계열체적인 선언: 구조의 개념, 즉 우리 연구의 모든 것에 함축된 공준(公準)은 그들이 화술적인 발화 안에 나타나는 것으로서의 행위주로 추리할 수 있는 계열체적인·관계적인 네트워크의 존재자를 전제한다. 마치 생산될 수 있는 주체(화법의 발신자 또는 수신자)처럼 존재하는 그것은 의미작용을 먼저 모델로 기여할 수 있는 기호사각형을 위해 설치된 동류체의 아티클레이션이 되는 기본구조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경우에, 그것은 부정적인 직시($s_2 + \bar{s}_1$)로부터 조정적인 직시($s_1 + \bar{s}_2$)를 구별한다. 어쨌든 각각의 행위주 안에서 행위주적인 구조의 이중성을 생산하는 이것은 두 직시 중의 1개로 언급될 수 있으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편차를 제기할 수 있다.

- 조정적인 주체 vs 부정적인 주체(또는 반-주체)
- 조정적인 대상 vs 부정적인 대상
- 조정적인 발신자 vs 부정적인 발신자(또는 반-발신자)

조정적인 수신자 vs 부정적인 수신자(또는 반-수신자)

비록 팀 조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가치판단을 함축하지 않은 순수지시로 이해되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 혼동은 여전히 충분하다. 예를 들어, “조정적인 vs 부정적인” 대당 속의 완고한 심증-윤리화에 의해 흔히 성격이 만들어진 에스노-문학의 경우에 존재하는 이것은 “선 vs 악”의 내용으로 투자되며, 따라서 “영웅 vs 반역자,” “보조자 vs 대립자” 등의 한 짝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심증-윤리적인 투자는 필연적이지도 않고 충분히 보편적이지도 않다. 그것은 심미적인 투자에 의해 쉽게 재 정위될 수 있거나, 2개의 대당직시에 따라 단순하게 주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신에 기호사각형의 다양한 팀에 따라 주연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그 “등장인물들”은 오로지 “선” 또는 “악”으로만 배타적으로 중단된다. 그것은 그들의 일치 또는 불일치의 팀으로서의 그들의 이원화를 당해 직시로 설명하는 것에 의해 행위주의 계열체적인 선언의 바로 그 소인(素因)으로 충분히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때 이것은 아종적인·가치안정정책적인 투자의 팀 안에서 설화의 특별한 장르를 정의하는 것의 가능성을 마음속에 그리도록 우리에게 요구한다.

노트: 이러한 투시도법에 따라, 행위주의 계열체적인 선언은 보편화될 수 있으며, 오로지 1개만의 행위와 함께 더욱 최소한의 설화로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은 실행 안에서의 이러한 1개의 행위주가 어떤 장애물 또는 다른 것과 조우하는, 그리고 그 장애물이 행위주의 표출된 능동성을 위해 적합하지 않은 직시와 결합된 반-행위주의 환유적인 표상으로 해석될 것이다.

행위주적인 역할

구조적인 선언(그것은 화법의 극화로 고찰된다) 그리고 통사론적인 선언(내포인간적인 실행의 투기로서의 그것은 그 실행이 재연될 가능성을 만들어낸다)과 함께, 다른 범주는 좀 더 다양한 행위주적인 구조를 연기하고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 선언을 우리는 방금 대당되어 있는 것으로 언급했으며, 그것은 아주 다양한 장소(투기되고 또는 포착될 때 그것은 각각의 다른 것들과 함께 어떤 균형으로 남아있게 된다)로서의 상상력의 공간을 분해하며, 그렇게 해서 야기된 새로운 범주는 그것이 결합체적인 순행운동과 조우할 때 그 행위주를 초월적으로 결정한다.

언어능력(competence)과 언어연기(performance): 우리는 언어연기의 개념을 영웅이 성취하는 것으로 가정된 시련(시험) 또는 어려운 과업으로서의 그렇게 막연한 팀의 장소 안 화술의 용어법으로 도입했으며, 또한 우리는 주체(또는 반-주체)의 단순한 정의를 실행(화술적인 발화의 정진적인 연속으로 생산된 실행) 주체로서의 그 지위의 팀으로 제공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도입했다. 그러나 언어연기는 언어능력으로 언급되기를 요구한다. 화술적인 레벨에서 우리는 언어연기적인 실행(doing)을 전제하는 주체의 “요망(wanting) 그리고 /또는 능력(being-able) 그리고 /또는 실행-노하우(knowing-how-to-do)”로서의 언어능력으로 정의하기를 제안한다. 어떤 기호학적인 체계를 위하여, 파를 행위의 생산이 언어의 존재자를 전제하고, 의미작용을 하고 있는 주체의 언어연기가 의미작용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의 언어능력을 전제한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이제 거의 진부한 말이 되고 말았다. 만약 모든 표출된 발화가 언외발언 주체의 부분 상에서 형식화되고 있는 발화의 능력(faculty)을 함축한다고 한다면, 보편적으로 그 언어능력은 함축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역으로, 사실 “실재적인” 상황의 상상적인 투기인 그 확장(외연)으로서의 화법은 주체의 언어능력과 언어연기 양쪽으로 연속해서 표출하고 있는 것에 의해 전제된 이것을 만드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것은 더욱 더 좋게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만약 언급하고 있는 주체의 언어능력이 “요망(wanting)+능력(being-able)+언급-노하우(knowing-how-to-say)”의 양태성의 혼합주의적인 것으로 고찰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기호학적인 실행능력으로서의 이렇게 다양한 언어능력을 표출하고 있는 동안의 그 화법은 그들을 실행-노하우(knowing-how-to-do)의 또는 각각의 행위주에게 실행-능력(being-able-to-do)의 양태성을 귀속시키는 것에 의해서든지, 또는 그것을 발생시키는 것에 의해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 분리할 수 있음과 동시에 이렇게 다양한 양태성이 반드시 1개의 화술프로그램의 행로 안에서 반드시 1개의 행위주에 의해 따로따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포착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유도했던 것이다. 만약 언어능력이 있는 주체가 언어연기를 하고 있는 주체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그들이 2개의 다른 주체를 구성하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반드시 동일한 행위주의 실례로 존재한다. 논리적인 동기에 따라(그러므로 이 때문에, post

hoc, ergo proper hoc), 그 주체는 언어연기자가 될 수 있기 전에 어떤 언어능력을 먼저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체의 논리에 따라 주체가 연기하고 있는 실행은 그 실행을 위해 존재하는 언어능력을 함축한다.

우리는 주체 행위주가 소정의 화술프로그램 안에서 수많은 행위주적인 역할을 떠맡을 수 있다고 반드시 언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역할은 화법의 논리적인 연결(그 통사론적인 정의) 속 행위주의 장소에 의해, 그리고 양태적인 투자(그 형태론적인 정의), 따라서 가능한 화술의 문법적인 규칙을 만들고 있는 것에 의해 정의된다.

그것은 그들이 설화의 전개 안에서 떠맡도록 요청받은 행위주 그 자체와 행위주적인 역할 사이를 명확하게 구별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할 것인 행위주적인 역할을 위한 용어법을 소유할 가능성이 반드시 있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요망의 주체(또는 설치된 주체)로부터 내포적인 주체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내포적인 주체-영웅으로부터, 힘의 가치(virtue of power: Ogre, Roland), 또는 지식의 가치(Tom Thumb, Renard the Fox), 즉 요망의 주체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¹⁶⁴⁾

노트: desire(욕망); 1. 욕망(desire)은 종종 의지(will)와 대당된 정신분석학적 용어이다. 정확히 말하면, 그러므로 그것은 기호학적 용어법에 속하지 않는다. 의미론적 투시도법에 서, 그것은 공포 속에서 비-요망(non-wanting)이 아니지만 요망(wanting)과 반대인 공포와 함께 반대의 짝(R. Blanché에 의해 호칭되었던 범주 “philia[~병적 애호]/phobia[공포증]”)을 구성할 수 있다. 격아강적인 측면에서 두 용어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식화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욕망은 앞으로 일어날 행위(forward movement, 대상가치를 위한 탐색)로 표현되며, 반면에 공포는 역행행위(backward movement, 달아나기)로 표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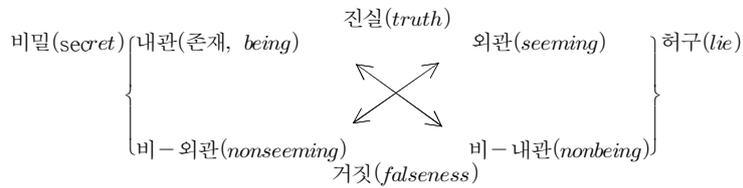
2. 욕망의 “실재성”을 부정하기는커녕, 기호학은 그것을 요망(wanting)의 양태의 어휘화 가운데 하나로 고찰한다. 따라서 기호학적 탐색은 요망(wanting)의 논리적 발전(의무논리학과 병렬)을 포함하며, 그 안에서 욕망과 의지(will)는 요망(wanting)의 변이(변수)를 지시할 는지도 모르고, 따라서 그것은 보다 더 복잡한 의미론적 구조와 서로 관련될는지도 모른다.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 76. (역주).

비-작위의 진정성(veridiction; 몽상이 아닌 true · false): 설화를 통해서 획득되고

164) Ogre: 사람을 잡아먹는 거인. Roland: 샤를마뉴 대제의 충신-12용사 중 최대의 용장. Tom Thumb: 엄지손가락 톱 섬(영국 동화에 나오는 엄지만한 주인공). Renard the fox: 프랑스 설화집 어우이야기(Roman de Renard)의 등장인물. 이는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에 걸쳐, 고대 프랑스어로 쓰였다. 주된 등장 동물은 여우(Renard) · 늑대(Isengrin) · 곰(Blanc) · 사자(Noble)이며, 그 모험 · 싸움 · 소송 등이 인간 사회 그대로 묘사되었다. 특히 모두를 조롱하고 항상 나쁜 계락을 준비하는 교활하고 유쾌한 주인공인 르나르는 그 후 ‘여우’라는 명사로 굳어졌다. (역주)

교환된 행위주적인 역할을 사용하고 있는 책략(strategy)은 언어능력과 언어연기의 상호작용에 제한되지 않는다. 우리는 실로 민담의 프레임 안에서조차도 주체의 언어능력(=차질)이 오로지 가장된 언어연기의 조력(조력)으로만 획득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언어연기가 가장된 것이라고 언급할 때, 그것이 비록 실재성으로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성취된 것으로, 따라서 진리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비-작위의 진정성의 문제는 행위주적인 구조의 프레임을 초월해서 잘 진행된다. 당장 내관과 외관의 범주를 우리가 스케치했던 프레임으로 도입함으로써, 반면에 화술작용이 복잡해지고 있는 그 범주가, 가능할 수 있는 행위주적인 역할의 수효를 어떻게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증가시키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여주려고 시도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사각형의 아티클레이션에 따르고 있는 “진실(truth) vs 거짓(falsehood)”의 범주의 기호학적인 해석을 제안함으로써,



우리는 비-기호학적인 지시대상과 함께 그 관계로부터 이러한 양태범주를 해방시키려고 추구할 뿐만 아니라, 특히 비-작위의 진정성이 그 자신의 레벨에 위치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레벨로부터 이탈을 유형화할 수 있는, 따라서 “설화의 본질적인 진실(truth)”을 설치하고 있는,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화술적인 동류체를 구성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내관과 외관의 범주에 따라 행위주의 초월결정은 숨겨질지도 모르는, 인식되지 못할지도 모르는, 또는 인식될지도 모르는 영웅, 그리고 가면이 벗겨지고 벌을 받게 된 반역자·가면을 썼던 그 반역자 사이의 조우를 포함하는 특별한 가면놀이(jeu de masques)로 고찰되며, 그것은 화술적인 상상력의 주축 중의 하나를 구성한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으로부터 강조해야 할 것은 화술프로그램의 새로운 다양성을 위한 가능성이다. 따라서 민담의

프레임 안에 다시 체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 설치된 주체(요망의 양태성을 타고난)는 주체와 반-주체를 즉각 발생시키고, 그것의 각각은 능력(being-able)과 지식에 따라(또는 양쪽이 연속적으로) 언어능력을 획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어쨌든 4개(또는 8개)의 행위주적인 역할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것은 언어능력이 있는 주체(영웅과 반역자)의 유형학을 정당화하며, 계속해서 그것은 다양한 화술케도를 동정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진실 vs 거짓”과 “비밀 vs 허구”의 양태성에 의해 이루어진 이렇게 다양한 그래서 언어능력이 있는 주체의 초월결정은 주체의 통사론적인 케도를 다양화하는 행위주적인 역할의 수효만큼 교묘하게 다루며, 또한(그리고 이것은 중요하다) 소정의 프로그램의 프레임 안에 생산된 화술적인 변형(첨가, 공제, 그리고 역할을 정의하고 있는 양태성의 초월결정)을 피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인·행위주적인 구조와 함께 시발함으로써, 행위주적인 역할개념의 도입은 화술적인 통사론의 구성을 보다 더 많은 확신을 갖고 마음속에 그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연기자적인 구조

만약 그것이 화술적인 담화 안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들 각각의 양태성과 결합체적인 장소로 오로지 정의된 행위주적인 역할의 유형학에 의해 존재되는 것이 필요한 그 행위주적인 구조는 담화의 총체성을 떠맡고 생명이 부여될 것이다. 그때 새로운 변화과정은 화술의 담화적인 표출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보증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은 행위주와 연기자 2개의 구조를 겹쳐놓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따라서 먼저 연기자의 구조적인 지위를 명확하게 정의하려고 하는 시도 없이, 반면에 여러 가지 점에서 소정의 화술적인 담화를 통해 상수로 남아있는 “등장인물”로서의 그 친진난만한 개념에 완벽하게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행위주적인 역할개념의 사용이 행위주와 연기자가 동일하지 않다고 하는(어떤 행위주는 몇몇 연기자에 의해 표출될 수 있으며, 그리고 역으로 어떤 연기자는 몇몇 행위주를 동시에 묘사할 수 있다) 단순한 발언(관찰)에 어떤 빛을 흩뿌릴 것이라고 기대할지도 모른다. 만약 어떤 것이 오로지 1개의 내용으로만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발언은 답변을 탐색하는 어떤 이론이 파괴되는 것을 승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몇 가지 예는 행위주와 연기자가 동정되지 않은 그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쉽게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1. 대상행위주의 검토는 대상의 두 종류를 동정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이러한 대상행위주는 “대상가치”와 함께 투자되고, “주체가치”를 소유한다. 우리의 용어법이 비록 완벽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편차는 구조적인 기준 상에서, 그들의 귀속모드의 기준 상에서 매우 확실하게 기초가 된다. 첫 번째 경우에 이것은 내재화 또는 외연화 되어 나타나기 이전의 가치의 소유(having)에 의해 성취되고, 두 번째 경우에 내관(being)에 의해 성취된다. 그러나 또 다른 기준은 이러한 것에, 즉 담화 안의 그들 연기자적인 표출의 그것에 첨가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면에 “대상가치”와 함께 투자된 이러한 대상은 개성화된 그리고 독립된 연기자(Tom Thumb에서의 음식과 아동)의 형식 안에서 담화로 나타나며, 주체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대상은 주체와 대상을 결합하고 동시에 존재하는 연기자에 의해 표출된다(연기자로서의 Tom Thumb은 영웅-주체임과 동시에 거인을 위한 소비대상, 결국 그의 가족을 위한 공급자로 존재한다). 따라서 행위주적인 역할은 결합된 방식으로 또는 분리된 방식으로 연기자들 사이에서 주연될 수 있다.

노트: 마찬가지로 대상가치는 동일한 설화(음식과 아동) 안에서 이중 삼중이 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통사론적인 상호의존관계로 남아있는 그래서 명확한 하위연기자로 제언될 수 있다(음식의 부재는 아동의 상실을 발생시킨다).

2. 주체의 언어능력을 정의하는 행위주적인 역할은 주체 그 자체로서의 동일한 연기자에 의해서든지, 또는 그것으로부터 분리된 연기자에 의해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 표출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개성이 부여된 연기자, 즉 그에게 부수지위가 부여된, 그리고 조정적인 직시로 분류되든지 또는 부정적인 직시로 분류되든지 하여간 어떤 직시로 분류되든지 간에 그것에 따르고 있는 그 연기자는 “보조자 vs 대립자”로 호칭될 것이다.

3. 수신자는 그 자신으로서의 발신자가 될 수 있다(예를 들어,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게 여기고 있는 코르넬리아의 주인공). 그때 그 주인공이 비록 틀림없이 단순연기자로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행위주의 양 역할을 포섭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주체와 반-주체는 1개의 실재물(entity) 안에서 결합될 수 있으며, 따라서 오로지 단 1개만의 그 연기자는 끝까지 “내재투쟁”을 실행한다.

이러한 예들은 모든 행위주, 모든 행위주적인 역할이 분리된 그리고 자율적인 연기자 안에 투자될 수 있고, 역으로 모든 선언이 행위주적인 구조 레벨의 더욱 더 복잡한 연기자 안에서 연대적으로 투자됨으로써 어떤 의미로 중화된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 같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고찰을 양극화하고 가능한 연기자적인 구조의 2개의 극단으로 만들어진 유형을 이론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면, ㉑ 연기자적인 표출은 모든 행위주 또는 행위주적인 역할(예를 들어, 가면은 그 행위주적인 역할로서 외관의 양태성을 소유하고 있는 연기자이다)을 위해 독립적인 연기자로 존재하는 것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 최대의 팽창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우리는 대상화된 연기자적인 구조라고 언급할지도 모른다. ㉒ 연기자적인 주연은 최소한의 팽창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며, 필연적인 행위주와 연기자적인 역할의 모든 것(내재극화를 확실하게 발생시키고 있는)을 책임질 수 있는 단지 1개만의 연기자로 환원될 것이다. 이 경우에, 연기자적인 구조는 주체화된다.

이러한 두 극단 사이에서 우리는 대상화와 주체화의 양쪽과 함께 연기자적인 주연을 발견하고, 대개의 경우 그들이 묘사하는 것을 의심하게 된다. 일단 화술프로그램의 목록이 확립되면(자질이 부여되고 있는 시련에 집중된 입문의 문제와 통과례, 영광이 부여되고 있는 시련과 인식의 문제), 그리고 일단 각각의 화술케도를 위해 가능한 몇 가지 행위주적인 역할이 부절(符節; tally)¹⁶⁵되면, 이러한 역할의 연기자적인 주연은 장르의 일반 이론의 계발을 위한 유형학적인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담화구조

연기자를 어떻게 동정하는가?

상상력의 기본 아티클레이션으로서의 발단과 그 조직의 최초의 구조(계열체적인 구조와 결합체적인 구조)에 대한 제안이 증명됨으로써, 우리는 이제 담화의 원소로 관찰될 수 있는 연기자에 의해 결합된 또는 분리된 방식으로 표출된 연기자적인 역할의 상대적으로 복잡한 네트워크로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서의 화술적인 담화를 묘사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점에 점진적으로 그리고 연

165) 부절(符節); 부신(符信), 대차(貸借); 관계자가 막대기에 눈금을 새겨 금액을 나타내고 세로로 쪼개서 뒷날의 증거로 삼은 것. (역주)

역적으로 도착했다. 그것은 이러한 행위주적인 모델의 망상(importance)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론적인 논거를 위한 최초의 실례로 존재한다. 그들은 담화를 보편화하고 있는 의미의 실례와 궤도로 고찰하는 어떤 기도를 구성한다. 그러나 그들의 망상은 또한 화용론적이다. 그들은 빈사성의 모델로, 그 논리적인 아티클레이션의 형식 안에 표현된 가정으로 고찰되었으며, 일단 텍스트 상에 투기되면, 그것은 그들의 가독성(可讀性)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것이 모두 그림에도 불구하고, 영성하거나 뒤편그렁한 텍스트와 직면했을 때, 연구자들은 그들이 필연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과 담화의 관련원소들을(현재의 경우, 연기자들) 화술체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허락하는지도 모르는 객관적인 절차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에 의해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들이 화술구조에 대해 안다고 믿고 있는 것들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독해의 전문성(기술·기교; technique)들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지나치게 폭이 넓다. 화술학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선재, 즉 아프리오리를 사용하지 않는 텍스트적인 분석의 상대적인 약점은 연역적인 구성이 직면하는 그 난국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의미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역절차를 잠정적으로(provisionally) 단념하면서, 우리는 언어학적인 표출과 관련되고 있는 보편적인 고찰과 함께 시발함으로써, 그 문제를 취급하도록 다시 한 번 시도하게 될 것이다.

격상과 형태(초미-화술)

그것이 담화의 연기자를 동정하는 것으로 절차를 확립하려고 피할 때,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발화의 무수한 통사론적인 행위주 안에서 그렇게 하려고 피할 때(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총체지속성적인 모드와 변전으로 이것을 동시에 정의하려고 피할 때), 야기되는 텍스트 분석결과의 약점은 그러한 분석이 기호(sign) 통사론의 바로 그 표층레벨에서 그 조사를 정위한다고 하는 그 사실에 기인된다. 이제 엘름슬레우 이후, 만약 우리가 그 표층레벨을 넘지 못한다면, 언어학에서 실행될 수 있는 유용성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그래서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두 레벨, 즉 각각 분리되어 획득된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가장 미세하고 가장 은밀한 레벨로 존재하는 이러한 단위를 분리한 후에 탐색을 시작한다. 이것을 엘름슬레우는 격상(figure)

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화술분석의 종류는 사실 전적으로 시니피에의 레벨에 존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화술형식은 고찰을 피하고 있는 화법 이론을 위한 내용의 기호학형식의 특별한 조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관점에서 긴급히 실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담화이론은 담화형식과 이러한 담화형식을 위한 아티클레이션의 다양한 모드를 탐색할 책임을 떠맡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엄밀한 의미에서 언어학적으로 계속 진전하기 전에 실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가장 어려운 난국에 처하게 된 것 같은 것은 화술형식과 프레이즈적인 차원을 소유하고 있는 언어학적 형식 사이의 이러한 이론적인 중재를 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쉬운 대로 먼저, 엄격히 의미론적인 문제로 되돌아오자. 요컨대 만약 행위주의 개념이 통사론적인 성질로 존재한다면, 어쨌든 첫눈에 연기자의 개념이 아닐 것이다. 대신에 연기자의 개념은 의미론적인 성질로 존재한다. 연기자는 화술적인 통사론에 의해서든지, 또는 언어학적인 통사론에 의해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연기 속으로 빠져들 때 그때만 오로지 행위주로서의 함수 작용을 연기한다. 그 통사론적인 사용이 관련되고 있는 한, 연기자는 통사론의 편에서 모든 종류의 교묘히 다루기를 받아들이는 명목상 어휘소의 통사론에 필적하는 상황으로 존재한다.

어휘소(예를 들어, 「구조의미론」에서 분석된 어휘소 "tête, head")의 의미론적인 고찰은 그것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핵심으로, 즉 어떤 내포성이 진전하는, 그래서 어떤 의미론적인 궤도가 화맥 안에 정위하는 것(예를 들어, 담화 안에서의 그 이차적인 관계)을 허락하는 것으로부터 핵격상(nuclear figure)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나 진기한 개념(그것이 단일어의소로 존재할 때)으로서의 내포적인·의미소적인 조직으로 존재하는 그 어휘소는 그 자체만의 자격으로 결코 실현되지 못한다. 일단 그것이 그 자신의 의미론적인 동류체로 조정(措定)이 되고 나면, 어떤 담화는 어휘의 보고(寶庫)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고 있는, 즉 무시할 수 없는 내포성의 바로 그 이차적인 개척 그 이상이 아닌 것으로 존재한다. 담화의 소정의 실례가 비록 활짝 전개된다고 할지라도,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포존재자로 계속 살아남게 된, 즉 항상 재 부활이 준비된, 그 세계가 거절했던 타이틀 그 진로 안에 남겨놓는다.

“어휘장(lexical field)”에서의 탐색은 어휘소적인 격상이 소유하고 있는 이러

한 잠재적인 것을 성공적으로 논증했다. 그들이 사전의 프레임(Patrick Charaudeau에 의해 분석된 어휘소 눈[oeil]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안에 기술되거나, 동차적인 텍스트(Clément Legaré에 의해 연구된, Jean Eudes의 저서에서의 심장[coeur]이라는 어휘소처럼)로부터 획득되거나,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 우리는 이러한 격상이 그들 자체 안에 폐포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관측할 수 있다. 대신에 그들은 그들이 다른 관련격상들을 만나고 전유함으로써 그들의 어의소적인 궤도를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조직을 소유하고 있는 격아강적인 성좌로 발생시킨다. 따라서 친근한 예를 하나 들면, 격상 “태양”은 그 자신의 주변을 광선, 빛, 열, 공기, 투명성, 불투명성, 구름 등을 포함하는 격아강적인 장(field)을 조직한다.

그러한 관찰은, 만약 어휘소적인 격상이 발화의 프레임 안에서 이론적으로 그 자신을 표출한다면, 그들은 이러한 프레임을 쉽게 초월하고 전체 시퀀스를 통해서 마약이 떨어져 괴로워하는 것과 같이 중독 될 수 있는, 따라서 이러한 시퀀스의 담화적인 형태(초미-화술)를 구성하고 있는, 관계적인·격아강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하도록 우리를 유도한다.

프래스틱적인 언어학의 부속물이 되기를 결코 원치 않는 그 확장으로서의 담화이론은 이러한 현상의 망상을 실제보다 낮게 어렵하지 않고 있음에 틀림없다. 당해 형태(초미-화술)는 담화의 격상(탐의 엘름슬레우적인 의미에서)보다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 그들은 화술형식과 다르고 프래스틱적인(phrastic)¹⁶⁶ 형식과도 다르며, 따라서 어쨌든 얼마간 의미조직의 형식으로서 담화의 이중적인 특이성의 기초를 구성할 수 있다.

담화형태에 이중적인·구조적인 지위의 그 인식 및 귀속은 첫눈에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은 많은 문제들을 동일 항목 아래 재조직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민담의 화술분석이 돌출 모티프의 문제를 남겨놓는다

166) phrastic은 상이한 기분을 공유하는 문장의 양상이다. “the door is shut(도어가 닫혀있다)”, “Shut the door(문을 닫아라)”, “Is the door shut?(문이 닫혀있니?)”, 그리고 “Would that the door were shut!(그 문은 닫혔을 것이다!)” 등과 같은 문장 사이에, 다양한 언표(言表; neustic)적 또는 기분적 지시자가 덧붙여진 그것에, 우리는 “the door being shut(닫힌 문)”의 공통 내용을 고립시킨다. 즉, phrastic은 명제의 내용, tropic은 화행을 나타내는 부분, neustic은 명제 내용의 사실성에 대한 화자의 commitment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paraphrastic: 알기 쉽게 바꾸어 말한/holophrastic: 일어문(一語文)적인/periphrastic: 우연적인. (역주)

는 것을 알고 있다. 모티프는 동일함수를 채우기 위하여 서로 치환될 수 있는 유동 시퀀스로 존재한다. 또한 그들은 다른 함수를 떠맡을 수 있고, 자율적인 변이로 또는 독자적인 설화로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호학적인 두 레벨(화술적인 레벨과 격아강적인 레벨) 사이의 편차는 구조적인 총체지속성의 설화와 모티프의 상호텍스트적인 이동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 의해 이러한 문제를 제거하도록 이론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한다.

또한 담화형태의 보다 향상된 지식은 뒤메질의 저서에 의해 묘사된 과학적인·진취적인 정신을 보다 더 정확하게 정위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이러한 비교문법학자들의 절묘한 기술(tour de force)은 새로운 비교신화학으로 존재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니피앙 레벨의 방법론적인 절차가 시니피에의 레벨로 이동하는 바로 그 진승으로 존재한다. 또한 그것은 연구된 단위의 차원을 확대하려고 탐색한다. 즉, 실현된 형태소의 발화자료체로부터 획득된 음소의 비교연구를, 뒤메질은 신화학적인 담화 안에서 발견된 담화형태의 비교연구로 대체한다. 따라서 이러한 탐색의 담화적인 레벨은 세미올로지(semiology)의 보편적인 조직의 프레임 안에 정위될 수 있다. 바슐라르로부터 리샤르(Jean-Pierre Richard)로 이어지는 많은 연구, 즉 주제적인 탐색의 또 다른 영역은 담화를 초월하는 격아강적인 궤도를 탐색하는 것과 함께 주연관계의 생산으로 존재한다. 기껏 해야 우리는 바슐라르가 기술하려고 탐색하는, 그래서 다소 암시적인 그 형태(초미-화술)의 보편성의 공준에 대해 그를 비난할 수 있을 뿐일지도 모른다. 반면에 화술구조는 대체로 인간의 상상력, 즉 담화형태(모티프와 주제)의 성격으로 고찰되고, 한편 폭 넓은 보편성과 초언어학적인 이동의 가능성은 소정의 기호-문화적인 공동사회를 위해 그들을 전유하고 분리하는 그래서 상대화하고 있는·여과하고 있는 메커니즘에 종속된다.

여기서 그때 격아강적인 사실로 존재하는 그것을 우리는 화해시키지 않으면 안 되며, 동차적인·기호학적인 형식을 그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 나아가 이것은 결코 중요치 않은 것이 아니며, 그 형식화는 화술문법의 필요조건을 확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제적인 역할

2개의 자율적인 그러나 연결된 레벨(화술적인 레벨과 담화적인 레벨)의 동차화는

화술적인 함수의 주체 안에서 애매한 방식을 아주 잘 떠맡는다. 그 주체는 그 위에 편승한 2개의 결합체적인 궤도를 동시에 연기하도록 요청받는다. 주연에 의해 결정된 화술프로그램과 간신히 조정되었을 뿐인 그 격상 안의 담화형태에 의해 확립된 그래서 특권이 주어진 경로는 격아강적인 시퀀스를 상대적으로 압축하도록 제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치적인 그리고 빈사적인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지 궤도의 이러한 두 종류는 다양한 성질로 존재한다. 전자는 화술문법의 프레임 안에서 신중히 선택된 프로그램이다. 후자는 담화적인 사건의 목록, 즉 페포된 바로 그 선택되거나 개인적인 우주로부터 구성된 형태(초미-화술)의 목록에 속한다. 실제로 프래스틱적인 사건이 어휘소적인 격상의 리스트로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의 각각은 상호텍스트적인·어의소적인 가능성, 그래서 우리가 “주제”와 “모티프”의 줄기를 제공하는 담화적인 사건으로 고찰할 수 있는 가능성의 매거를 포함한다. 이러한 줄기는 소정의 의미론적인 우주 안에서 참여자의 사용에 의해 구성될지도 모른다(그리고 그 독창성의 윤곽이 그려질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신 해석적인 궤도로 존재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형태(초미-화술)가 담화에 속하는 “내용형식”보다 다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러한 투시도법에 따르고 있는 화술의 담화적인 표출은 화술문법에 의해 생성된 화술적인 대상 안에서의 의미론적인 성분의 통합에 지나지 않는다. 진리인 이 의미론적인 성분은 결합체적인 형식으로, 그리고 실체(substance)가 아닌 내용의 형식으로 이미 진전되어 있는 형식으로 발생된다. 이러한 두 실례(화술적인 그리고 담화적인)의 연언은 화법의 정전적인·문법적인 형식 안에서 내용의 투자를 발생시키고, 의미심장한·화술적인 메시지를 허락한다.

담화가 결합체적인 형태(초미-화술)의 조력으로 그 자체를 표출하고 있는 내용의 정교한 형식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은 이러한 형태(초미-화술)의 구조적인 조직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첫눈에 전혀 공통점이 없는 몇 가지 예들은 아마도 발견되도록 우리에게 허락할지도 모르며, 만약 해법(또는 이산)이 없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 언외지시(direction)는 미래의 탐색에 의해 획득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단순한 요리의 동류체의 방식으로 고찰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담

화형태의 그 개념으로 존재하는 그것은 불의 기원에 관한 보로로(Bororo) 신화 안에 남아있으며, 우리는 그들의 결합체적인 조직을 어딘가에서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동류체는 각각의 시퀀스의 성격을 만들고 있는 동류체적인 변이로 남아있다. 단순 형태(초미-화술)는 신화적인 담화의 길을 점령하지만, 다양한 시간이, 음식의 소비로든지, 또는 소비되고 있는 대상 그 자체에 따르든지, 마침내 조리된 것과 가공되지 않은 날것(불과 물)의 생산자에 따르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존재하는 연기자에 따라, 아티클레이션이 된다(격아강적인 시퀀스를 동시에 조각으로 분할하면서). 여기서 우리는 정전적인 발화도식(발신자 → 대상 → 수신자)에 따라 그 자체를 조직하고 있는 담화형태를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식 안에서의 각각의 팀은 자율적인·격아강적인 궤도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형태(초미-화술)가 담화의 결합체적인 조직을 만들고 있는 이러한 기여는 때때로 거시문체론적인 것이라고 호칭되는 것의 사건 중의 하나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준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이러한 형태(초미-화술)의 또 다른 속성(property), 즉 그들을 구성하는 격상의 다의성일 뿐이며, 다른 텍스트에 돌려보냄으로써, 그 실현화의 결과로 드러나는 격아강적인 팀이 모순이 아닌 그 조건에서 할 수 있는, 몇몇 격아강적인 궤도를 내포적으로 제안하는 다수-어의소적인 격상의 선택이, 보다 높은 위치에서 담화의 다수-동류체적인 조직을 어떻게 발생시키는지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다른 경우에, 반대로 보다 낮은 위치에서 이리이러한 격상을 선택함으로써, 그리고 확실한 역할의 선택에 그 원인을 귀속시킴으로써, 약간의 말더듬은 명백한 그러나 병치적인·격아강적인 궤도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격아강적인 궤도의 실현화는 변이의 문제를 도입한다. 신성표현 의무의 실천능력이 부여된 격상이 사제, 성당지기로든지 또는 교구의 하급관리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그에 따라 전체 시퀀스의 격아강적인 전개는 그 선택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연기의 모드와 그 시퀀스를 위한 장소는 최초로 선택된 격상과 함께 항상 일치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그들은 그 격상을 위해 만들어진 다양한 선택에 따라, 다양하게 그리고 동시에 조리 있게 존재하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다수-동류체의 경우 그것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이러한 두 현상으로 분극 한다고 하면, 단순한 최초의 격상은 단순한 담화 안에 겹쳐진 의미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다. 다수-변이의

경우, 오로지 단하나의, 그림에도 불구하고 동정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비교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는, 역할의 함축적인 현존재, 즉 표출된 담화가 따로 따로 발생하는 것으로서의 의미작용에 의해 격아강적인 다양화는 해방된다.

특히 이러한 마지막 예의 망상은 단순한 주제적인 역할이 다양한 격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존재한다. 화술이론의 프레임 안에 제기된 문제, 특히 그 행위주적인 성분의 마주보며 타는 마차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상대(vis-à-vis)는, 이러한 분석이 일렬로 정렬될 수 있는 별개의 명목상의 원소와 동정될 수 있든지, 또는 행위주적인 역할과 함께 일대 일로 동정될 수 있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 어떻게든지 확립되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우리가 담화적인 역할을 형태(초미-화술)로 환원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사고의 이러한 도정(道程)의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예들(눈, 심장, 태양, 불, 성당지기) 속의 그것은 아무리 보아도 명목상의 격상(그들은 그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변화과정인 것이 아닌 것으로 고찰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보편적인” 의미소로 태어났기 때문에 명목적이다)이 그들의 프래스틱적인·어의소적인 실현화를 예견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할 뿐만 아니라, 격아강적인 빈사의, 가능한·격아강적인 대상의 그 가능한 덩어리를 그들이 주체의 또는 그들을 대상으로 교묘히 다루고 있는 그 가능주체의 장소 안에 정위될 때 그렇다고 한다면 소유하려고 회구하는 것 같다. 담화의 길이(또는 오로지 단 1개의 체절조차도)를 통해서 표출을 그들이 방산하도록 허락하고 있는 동안, 어느 소정의 담화적인 동류체 상에 던져진 그들의 내포성의 투기는 다른 것들을 축출하는 것과 필적하는 오로지 어떤 격아강적인 궤도만의 실현화를 허락함으로써 그들에게 어떤 규율을 강요하는데, 그것은 거부된 실현화로 존재한다. 담화의 프레임 안에서 동치가 되고 있는 모든 것, 즉 담화형태는 발화의 프레임 안에서 어의소와 상응하는 어휘소처럼 하여간 같은 방식으로 주제적인 역할과 상응한다.

이러한 관찰은 분명하게 빛나고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형태(초미-화술)는 모든 격상—명목적인 것 그리고 언외지연적인 것, 이를테면 시공(時空)과 마찬가지로 추정적인 것을 포함한다. 즉, 형태(초미-화술)는 그 자신과 결합할 수 있는 모든 격상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주제적인 역할은 명목상의 격상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어떤 확장(외연)으로서의 그리고 담화적인 동류체에 의해 그것을 떠맡게 된 한계 안에서의 주제적인 역할이 형태(초미-화술)의 비-명목

적인 격상의 모든 것을 포섭한다고 언급될 수 있다면, 이 이유는 그 구조적인 속성이 다른 것으로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주제에 부가해서, 또한 그것은 어떤 역할이며, 언어학적인 레벨에서, 우리는 명목(=실명의 격상)과 가동자(=병치통사론적인 역할, a parasyntactic role)로 존재하는 그 가동자(시험자)의 명목 안에서 그것의 구조적인 동치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휘소 “낚시꾼”은 아주 잘 응축된 표층구조로 존재한다. 그것은 팽창이 가능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명백하게 만들어졌을 때 다수의 담화적인 시퀀스를 떠맡을 수 있는 어떤 실행(doing)에 제한된 언어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을 지시한다. 동시에 그것은 의미론적인 특질로 남아있게 되며, 어쨌든 이러한 레벨에서, 언어학적인 그리고 화술적인 문법 양쪽에서 그것은 여러 가지 행위주적인 정향을 점령할 수 있다.

주제적인 역할은 이원적인 환원의 텀으로 정의된다. 전자는 담화 안에서 실현된 또는 실현될 수 있는 · 단순 격아강적인 궤도와 필적하는 담화형태의 환원으로 존재한다. 후자는 내포적으로 그것을 포섭하고 있는 언어능력 소유의 가동자(시험자)와 필적하는 그 궤도의 환원으로 존재한다.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인 그 조건 아래, 우리가 주제적인 역할로 투자된 담화 안에서 소정의 격상을 만났을 때, 우리의 논증을 위해 그것은 총합형태로든지 또는 담화적인 우주로 에워싸인 격아강적인 궤도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 기술되고 분석될 수 있다.

주제적인 역할(우리는 Guy de Maupassant의 소설 “두 친구”를 생각하고 있다)로서 담화 안에 표출되고 있는 격상 “낚시꾼(fisherman)”은 어찌면 첫눈에 창조과정(예를 들어, 소설 속의 등장인물)으로 존재하는 격상으로부터 사전적인 격상(관계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범전처럼 성문화되어 확립된)을 분리하는 그 한계를 능가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할 것인지도 모르는 바로 그 좋은 예로 존재한다. 그러한 추이의 “낚시꾼”은 그의 실행, 즉 활동의 방식으로 그에게 기대될 수 있는 모든 것의 가능성을 기술한다. 그가 담화적인 동류체로 정위되는 것은 설화로 사용될 수 있는 그의 주제적인 역할을 만들어낸다. 그것에 부여된 명목의 귀속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소설 속의 등장인물은 텍스트의 길이를 통해서 확장되고 있는 병행적인 · 격아강적인 주석에 의해 점진적으로 창조되며, 그것은 독자의 추적과지에 감사하고 있는 그 마지막 페이지까지 완벽한 격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심리학적인 현상인 이 파지(把持)를 통해서, 우

리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담화적인 형태(초미-화술)와 동정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텍스트의 분석기술(=기호학적인 실행의 의미 안에서의 그것의 독해)을 치환할 수 있고, 따라서 그것은 이것을 텍스트의 주제적인 역할로 환원한다. 텍스트의 생산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여전히 절차의 파기에 강요되고 있으며, 주제적인 역할의 논리적인 우선권을 인정한다. 이 우선권은 격상을 전유하고, 표출담화의 내포적인 형태(초미-화술)의 모든 것을 암암리에 포함하는 격아강적인 궤도로 그들을 진전시킨다.

이제 우선권은 최종단계를 반드시 쉽게 얻게 될 것이며, 형태(초미-화술) 너머의 그 논리적인 우선권이 틀림없이 주장했던 주제적인 역할의 선택이 궁극적으로 유도하는 화술구조, 즉 행위주적인 역할의 위치 안에서의 그 세팅이 양극 중 오로지 1개의 분극으로만 실행될 수 있다고 반드시 언급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화술구조로부터 담화구조로의 이동을 허락하고 있는 그 중재의 실례를 소유하고 있는 그들의 통제 하에 주제적인 역할을 발생시킬 때 존재한다.

노트: 주제적인 역할의 개념의 도입은 역할의 레퍼토리를 제한하는 모든 규율(심리학, 사회심리학, 사회학)처럼 새롭고 숙려해볼만한 다양성을 제기하는데 실패하지 않을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가 어딘가에서 “기호학적인 형식”과 “과학적인 형식”을 제안했던 그 편차는 여기서 “역할”의 두 유형을 구별하는 것으로 사용될지도 모른다. 이 영역에서의 브레몽의 저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노트: 담화구조에 대해서는 폴 J. 페통의 아래 도표 참조. (역주)

생성궤도(generative trajectory)			
	결합체적인 성분(syntagmatic component)		의미론적인 성분(semantic component)
의미론적 그리고 화술적인 구조 (semantic and narrative structures)	심층레벨 (deep level)	기본적인 통사론 (fundamental syntax)	기본적인 의미론 (fundamental semantics)
	표층레벨 (surface level)	표층화술 통사론 (surface narrative syntax)	화술적인 의미론 (narrative semantics)
담화적 구조 (discursive structures)	담화적인 통사론(discursive syntax)		담화적인 의미론 (discursive semantics)
	담화화(discursivization) 연기화(actorialization) 관자놀이-시간화(temporalization) 관자놀이-공간화(spatialization)		주제화(thematization) 격아강화(figurativization)

결론

이러한 연역적인 변화과정의 재 고찰은 담화의 화술개념을 잠정적으로 정의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화술문법은 그들의 표출의 관점에서 선택된 그래서 화술개도로 고찰된 화술적인 대상(=“설화들”)을 생성시킨다. 이러한 개도는 양태성으로 타고난 그리고 화술프로그램의 프레임 안에서 각각의 장소로 결정된 행위주적인 역할의 소정의 특별한 주연에 의해 정의된다. 문법구조의 속령 안에서의 화술적인 대상은 담화 안에서의 표출에 감사하는 이중적인 내용으로 투자된다. 이러한 의미론적인 투자는 행위주적인 역할, 주체적인 역할에 의해 실행된 선택에 의해 성취된다. 계속해서 그들의 내포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주체적인 역할은 언어의 어휘소적인 레벨로 활동케 하고 담화형태로 확장된 격상의 형식 안에 표출된다.

따라서 표층 레벨에서 고찰된 담화는 다양한 내포성을 소유하고 있는 다의적인 격상으로 흩뿌려진 결합체적인 전개로 나타나며, 그것은 흔히 해방되거나 담화형태로 방산되거나 하는 방식으로 결합된다. 행위주적인 역할을 점령할 수 있는 이러한 격상의 오로지 몇몇만이 주체적인 역할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은 연기자의 명목을 얻게 된다. 따라서 연기자는 만남의 시점과 화술구조와 담화구조를 위한, 문법적인 성분과 의미론적인 성분을 위한 장소로 존재한다. 이것은 그것의 언어능력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것의 실행(doing)과 존재(또는 내관, being)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분명하게 만들고 있는 그 양쪽을 애오라지 1개의 행위주적인 역할과 애오라지 1개의 주체적인 역할을 동시에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동시에 연기자는 이러한 역할의 투자와 변형을 위한 장소로 존재한다. 기호학적인 실행 때문에, 화술적인 대상의 프레임 안에서의 함수 작용 때문에 존재하는 이것은 본질적으로 획득과 상실, 가치의 치환과 교환, 양태적인 것이든지 또는 관념적인 것이든지 하여간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연극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연기자적인 구조는 위상적인 구조로 나타난다. 비록 화술구조와 담화구조로 뒤엎힌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의 표출장소 그 이상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단지 1개에 또는 다른 것에 배타적으로 결코 속하지 않는다.

제7장 양태성의 이론에 대하여

단순한 양태구조

행위(act)¹⁶⁷⁾

시발점에서 만약 우리가 양태화의 단서적인(provisory) 정의를 “주체(주사[主辭])에 의한 빈사의 변용(modification)”으로 얻게 된다면, 우리는 충분히 결정된, 양태성이 나타나고 있는, 양태진행 주체의 실례를 제공하고 있는 행위(특히, 언어행위)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행위는 언어학적인 표출이 결여된 실재성의 생산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언어행위는 단독으로 그리고 그 결과로, 즉 발화로 포착될 수 있으며, 반면에 그것을 생산하는 언외발언은 단지 논리적인 전체의 지위를 소유할 뿐이다. 대체로 행위는 단지 2개의 다른 방식, 즉 발화된 담화의 프레임 안에서 접합적인 방식과 가변적인 방식으로 기술될 때, 또는 기호학적인 메타 언어의 프레임 안에서 발화의 분석으로부터 획득된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논리적인·의미론적인 재구성의 대상이 될 때, 하여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

167)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 2~3. act(행위); 1. 철학적 전통에서 행위(act)는 스피라 철학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것은 “존재원인(causing to be)”과 동정(同定)되며 존재자(existence)의 가능성으로부터 존재자에 이르는 추이와 상응한다. 주목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이러한 종류의 정의의 직관적 성격은 매우 보편적이다. 행위(acts)로 해석된 화술적인 담화의 망을 구축하고 있는 모든 “사건”일 뿐만 아니라 담화 자체가 행위(act)이며, 인식적 행위(acts)의 조직된 시퀀스이다. 따라서 그것은 기호학적인(semiotic) 분석 안에 사용될 수 있는 행위의 표상(the representation of the act)을 위한 모델을 확립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며 결국 그것은 기호학적 연기(action)를 위한 시발점을 형성할 수 있다. 2. “존재원인(causing to be)”으로서의 행위하고 있는 것의 직관적 정의는 하위계열적 관계 안에 존재하는 두 개의 빈사(賓辭, predicate)를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통사론적 연출은 두 발화[실행(doing, =causing)에 속하는 발화와 상태(state, =being)에 속하는 발화]의 형식을 떠맡는다. 전자(doing)는 후자(being)의 지배를 받을 것이며, 후자는 전자(doing)의 대상이 될 것이다. 행위(act)의 표준적인 연출은 “ $F[s_1 \rightarrow o_1(s_2 \cup o_2)]$ ”의 형태 또는 “ $F[s_1 \rightarrow o_1(s_2 \cap o_2)]$ ”의 형태의 양태(modal)구조에 의해 정식화될는지 모르며, 표층 화술문법의 레벨로 인식될는지 모른다. 3. 이러한 공식화의 해석은 단순하다. 행위(to act)는 주체의 존재자(existence)를 전제하며 주체와 함께 대상의 접합으로 공식화된 상태(state, 또는 변이된 상태)를 생산(producing)하고 있는 “실행(doing)”의 양태성(modality)과 동정(同定)되는데, 그것은 실행(doing)의 주체와 함께 융합하거나 융합하지 않거나 할는지 모른다. 따라서 행위(act)는 부분적으로 언어연기(performance)와 상응하고 실행(doing)의 가능성으로 고찰된 양태적인 언어능력을 전제한다. 이것은 행위(act)가 실행(doing)의 양태성으로 통사론적 해석이 되고 있는 변이와 함께 왜 언어능력으로부터 연기로의 변이로 정의되는가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변형개념의 신인동형동성적인 통사론의 레벨로의 전환이다. (역주)

에 기술될 때, 그때의 방식 안에서 언어학적으로 형식화될 수 있을 뿐이다. 양 경우에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최상으로 엄격한 방식은 정전적인 표상의 증명사로 존재한다.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행위의 천진난만한 그리고 최상의 중립적인 정의는 “존재구성(making to be)”의 행위로 존재한다. 이러한 정의는 우리가 2개의 빈사를 소유하고 있는 하위계열적인(hypotactic) 구조를 쉽게 동정할 수 있도록 한다.

실행(doing) VS 존재(또는 내관, being)

기본발화

행위의 언어학적인 시뮬레이크럼은 우리가 빈사를 지레짐작으로 정의하도록 요구한다. 계속해서 빈사는 기본발화의 구조의 야종적인 개념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근본적인 선택인데, 그 이유는 그것이 전체로서의 언어학적인 이론이 획득하게 될 것인 그 형식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빈사가 핵을, 즉 발화의 구성관계를 기술하는 것을 공리로 간주할 것인데, 그 최종의 팀은 행위주이다. 만약 우리가 나중에 그것을 분리해서 다루기 위하여 행위주를 벗어나 빈사와 괄호 안에 투자된 의미성으로 곁에 남겨놓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빈사를 논리적인 함수와 동정할 수 있으며, 발화를 다음과 같이 정전적인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F(A_1, A_2, \dots)$

또한 우리는 그 함수가 최소의 의미론적인 성격으로 투자될 수 있다는 것을 공리로 간주할 것이다. 이것은 빈사-함수, 즉 두 실행(doing)과 존재(being) 사이의 편차를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기본발화, 즉 실행발화와 상태발화의 2개의 가능한 형식의 존재자를 조정할 수 있다.¹⁶⁸⁾

이러한 두 발화에 보다 더 추상적인 표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는 /변형(transformation)/으로 호칭된 함수에 의해 빈사 “실행(doing)”으로, 그리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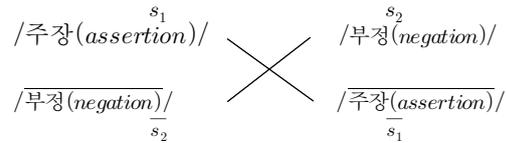
168) modality와 atributive는 서로 맞물려 연동한다. 아래 도표 참조. (역주)

제7장 양태성의 이론에 대하여

수 /접합(junction)/에 의해 빈사 “존재(being)”로 지시할 수 있다.

노트: 텀 실행(doing)과 존재(being)는 그들이 선부르게 다의적인 귀결을 결코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는 그 한도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

변형: 계열체적인 관점에서, 변형은 의미론적인 범주(비록 그 최소의 투자가 언어의 보편성으로 나타난다고 할지라도)로 고찰될 수 있고, 기호사각형 상에 투기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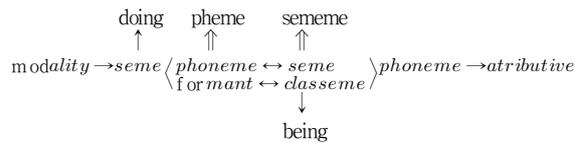
여기서 $\overline{/부정(negation)/} = /주장(asser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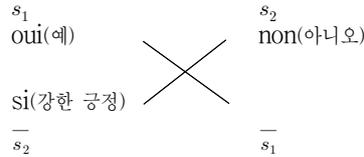
이것은 모순의 내재적인 정의를 발생시킨다. 만약 $\overline{s_2}=s_1$ 그리고 $\overline{s_1}=s_2$ 라고 한다면, s_1 과 s_2 는 모순이다. 따라서 모순은 대당의 특별한 경우로 나타난다.

통사론의 관점에서, 즉 시리즈를 형성하고 있는 사각형에서 실행된 작용의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다.

$\overline{/부정(negation)/} \neq /주장(assertion)/$

“yes”와 “no”에 해당하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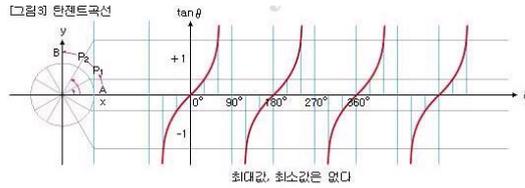


위의 도표는 “si(강한 긍정적인 대답)”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과지(memory)”를 괴롭히는 어휘소로서, 그것은 부정의 선행 발화를 전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¹⁶⁹⁾

우리는 몇 가지 추리력을 위해 이러한 무한확장 또는 역행의 탄젠트(tangent)¹⁷⁰⁾를 선택했다. 우리는 사각형 상에서 이원범주(모순)의 투기를 했다. 또한 우리는 논리적인(사실상 프레스틱적인 것, 그리고 오로지 치환의 증명사로만 함수역

169) Si는 부정적인 질문 또는 진술문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을 의미한다. —영역자. “Vous connaissez Paris? Si je connais Paris!(파리를 아시오? 알고말고!)” —(역주)

170) tangent: 접선이라고도 함. 주어진 곡선의 한 점에서 접하는 직선(또는 매끄러운 곡선).



탄젠트 관계: 점 P1에서 곡선에 대한 탄젠트는 선 ...

그 점에서 곡선의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접선은 곡선 위의 2점이 서로 접근할 때 2점을 지나는 곡선의 할선(割線)의 극한 직선이라고 할 수 있다. 접면(接面)과 다른 곡면들도 유사하게 정의한다.

탄젠트의 3각법칙은 평면 삼각형의 2변과 그 2변의 대각들의 합과 차의 탄젠트 사이의 관계이다. 평면 삼각형 ABC에서 a, b, c가 각각 각A, 각B, 각C의 대변이라 하면,

$$\frac{a-b}{a+b} = \frac{\tan \frac{1}{2}(A-B)}{\tan \frac{1}{2}(A+B)}$$

$$\frac{c-a}{c+a} = \frac{\tan \frac{1}{2}(C-A)}{\tan \frac{1}{2}(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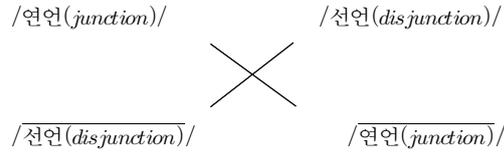
$$\frac{b-c}{b+c} = \frac{\tan \frac{1}{2}(B-C)}{\tan \frac{1}{2}(B+C)}$$

이다. 이 공식은 로그를 사용하는 계산에 특히 유용하다. 직각삼각형의 3각법칙에서 1각의 탄젠트는 대변과 인접변의 비율이다. 탄젠트 값(비율)은 그 값을 계산하는 데 쓰인 특정한 직각삼각형에는 관계없이 각의 크기에 의해 좌우된다. (역주)

제7장 양태성의 이론에 대하여

할을 하는 것) 그리고 담화적인 기호학(게다가 그 발화는 움직임이 적은 의미작용을 한다) 간의 추가삽입의 대본과 같은 논법(treatment) 안에서의 편차를 보여주려고 했다.

접합: 계속해서 의미론적인 축으로 선택된 접합은 범주로 진전될 수 있다.



노트: 여기서 또한 통사론적인 궤도상에서 가치대상의 정향은, 예를 들어, 우리가 결코 소유하지 못했던 대상의 성격을 만들고 있는 /선연/과 우리가 포기했던 대상의 상태인 /연연/과의 사이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언어연기와 언어능력

우리는 접합이 어떤 종류의 가치대상과 관계를 갖게 됨으로써 주체의 “상태”를 결정하는 그러한 관계라고 언급할 수 있다. 주체의 지각차원의 “본질(essence)”이 아닌 오로지 그 결정만이 주체에 대해 어떤 무엇을 인식하도록, 특히 그것을 “존재자(existence)”로 고찰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간단히 말해서, 만약 우리가 접합을 이원범주로 고찰한다면, 그때 우리는 주체가 2개의 다른 상태발화의 증명사로 기술될지도 모를 것이다. 즉,

$s_1 \cap o_1$ 이거나, 또는
 $s_1 \cup o_1$ 일는지도 모른다.

반면에 변형(주장 또는 부정)은 어떤 상태에서부터 다른 상태로 전승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고찰된다. 그 이유는 그것이 실행발화를 구성하기 때문이며, 변형은 어느 가치 또는 다른 가치를 소유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대신에 통사론적인 대상으로서의 상태발화를 소유한다. 따라서 모든 변형은 접합을 생산하고, 실행의 모든 발화는 상태발화를 통제한다. 다음의 도식은 전술한 것

의 정전적인 조직을 묘사한다.

$$s_2 \rightarrow o_2(s_1 \cap a_1)$$

여기서

→는 변형을 지시하고

∩은 집합을 지시한다.

우리는 2개의 기본발화의 이러한 하위계열적인 조직(자연언어 안에서의 그것은 표현 “존재원인[causing-to-be]”과 상응한다)을 언어연기라고 부른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언어연기는 행위의 천진난만한 정의를 아직 자세하게 구명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행위는 “존재원인”이 아니라, 단지 피 존재원인일 뿐이기 때문이다. 어떤 거동에서의 “...인 것”은 “실행의 존재(the being of the doing)”를 구성하며, 계층적으로 보다 상위에서 실행을 생산하고 있는 실례의 논리적으로 전제된 내포존재자로 고찰하고 있는 상태의 새로운 발화로 형식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나중에 되돌아올 것인 이러한 “실행의 존재(being of the doing)”는 언어능력으로 호칭될 수 있고, 행위 그 자체는 언어 능력과 언어연기, 즉 언어능력을 전제하고 있는 그러나 그 역이 아닌 언어연기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계열적인 구조로 정의될 수 있다.

또 다른 빈사에 의해 빈사의 모든 변용이 양태화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언어연기와 언어능력 양쪽은 양태구조로 고찰되지 않으면 안 된다.

노트: 따라서 또 다른 빈사를 통제하는 어떤 빈사는 그것의 통사론적인 정향으로 인하여 양태적인 빈사가 된다. 그리고 정전적인 발화(즉, 실행발화로든지 또는 상태발화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 형식화하고 있는 것의)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 통사론적인 정향은 게다가 자연언어 안에서 어휘화의 동정(identity)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의미론적인 여분결정을 획득하게 될 수 있다.

타동적인 양태성

우리는 2개의 양태적인 조직을 이용함으로써 언어연기와 언어능력의 정의를 얻게 되었다.

존재를 양태화하고 있는 실행(doing modalizing being); performance, art.
실행을 양태화하고 있는 존재(being modalizing doing); competence.

그러나 우리는 이제 거기에 또 다른 2개의 가능한 조합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존재를 양태화하고 있는 존재(being modalizing being); veridictory modalities.
실행을 양태화하고 있는 실행(doing modalizing doing); factitive modalities.

이제 우리가 검토를 제안하고 있는 양태구조는 2개로 명백하게 양태화하고 있는 실례의 현존재를 요구한다. 양태화하고 있는 그 주체는 그의 빈사가 양태화된 그 주체와는 필연적으로 다른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타동적인 양태화를 취급하고 있다고 언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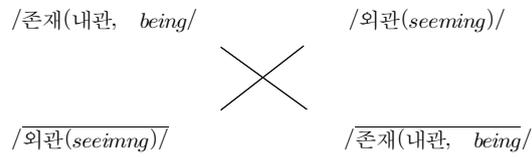
비-작위의 진정한 양태성: 주체로서의 s_1 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의 양태 발화는 생산된 그리고 s_2 에 의해 도입된 어떤 발화로 변용될 수 있다.

우리가 언어 “행위(act)”를 취급할 때, 그러한 도식은 언외화자(enunciator)와 언외청자(enunciatee)의 2개의 실례의 존재자를 전제할 수 있으며, 필경 후자의 양태화하고 있는 주체는 전자에 의해 생산된 발화를 생크션(sanction)하는 것일 것이다.¹⁷¹⁾ 양태성의 생성모드를 결정하도록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레벨에서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이러한 편차는 우리가 오로지 담화의 실제적인 함수로만 고찰할 때 소멸될 수 있다. “언급하고 있는 주체”로서의

171)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 105. enunciator/enunciatee(언외화자/언외청자); 그것이 발화의 존재자에 의해 논리적으로 전제된 프레임으로 고찰될 때, 언외발언(enunciation)의 구조는 두 개의 영역을 포함한다. 즉 언외화자와 언외청자가 그것이다. 우리는 언외발언(또는 “커뮤니케이션”)의 함축발신자를 언외화자라고 호칭할 것이며, 내레이터와 구별함으로써(예를 들어, “T”), 그것은 이탈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그리고 담화 안에 명백히 삽입된 행위주체로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언외청자는 언외발언의 함축수신자와 상응하며, 내레이터(narratee)와 달리, 그것은 발화(예를 들어, “독자는 …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이해할 것이다”) 안에서 그 자체만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함으로써, 언외청자는 커뮤니케이션의 수신자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담화-생산의 주체이다. “독해”는 언어행위(의미작용을 하고 있는 행위)이며, 같은 방식으로 담화의 행위적 생산은 파롤의 행위이다. 텀 “언외발언의 주체”는 언외청자와 동의어로 흔히 사용되며, 사실 언외화자와 언외청자의 행위주체적인 장소의 양쪽을 떠맡는다. (역주)

연기자는 즉각적으로 발화 그 자체의 “인외화자-행위주”와 “인외칭자-행위주”로 존재한다.

그 양태적인 빈사는 다음과 같은 범주로 간주되고 분석된다.



범주는 2개의 도식으로 아티클레이션이 된다.

도식 /s ↔ \bar{s} /는 표출(manifestation)로 호칭된다.

도식 /b ↔ \bar{b} /는 내재(immanence)로 호칭된다.

그것은 2개의 축을 소유하고 있다.

반대의 축은 “진실(truth)”이라고 호칭된다.

하부반대의 축은 “거짓(falsehood)”이라고 호칭된다.

거기에는 2개의 직시가 있다.

조정적인 직시 /b ↔ \bar{s} /는 비밀(secret)이라고 호칭된다.

부정적인 직시 / \bar{b} ↔ s/는 허구(lie)라고 호칭된다.

존재(내관)의 양태성에 관한 이러한 표현에 대해 몇 가지 소견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

1. 사용된 그 텀은 그들이 비교될 수 있는 존재론적인 개념과 어떤 무엇으로든지 관계가 없는 기호학적인 텀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텀 “표출(manifestation) vs 내재(immanence)”는 엘름슬레우로부터 차용한 것이지만, 그들은 언어학에서의 “표층(surface) vs 심층(deep),” 정신분석학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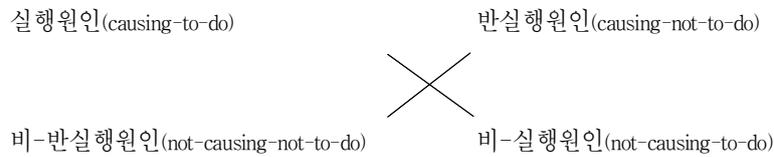
의 “표출(manifest) VS 잠재(latent),” 철학에서의 “현상(phenomenal) VS 실체(noumenal)” 등과 유익하게 비교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자연언어는 표출의 장소(locus)와 내재의 측면(plane, “그것은 필연적이다.”; “그것은 가능한 것 같다.” 등)을 따르므로 양태화한다.

3. 범주 /진실(truth)/ vs /거짓(false)/은 사실 담화 그 자체 안에 정위되며, 따라서 그 비-작위의 진정한 판단은 외부 지시대상(referent) 없이 실행될 수 있다.

4. 자연언어 안에서 사용된 어휘소 “존재(내관, being)”는 어쨌든 3개의 다른 의미를 소유한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전유단자로 치환함으로써, 애매성으로부터 그것을 해방하려고 시도했다. ㉠ 그것은 상태발화의 구성관계인 접합과 상응한다. ㉡ 그것은 비-작위의 진정한 양태범주로 지시하도록 사용된다. ㉢ 동시에 그것은 내재도식(보편적으로 상징기호 b로 지시된)의 조정적인 팀을 지시한다.

작위적인(factitive) 양태성: 빈사와 주체로서의 s_1 으로 실행(doing, causing)하고 있는 모든 양태발화는 주체가 s_2 인 실행의 어느 다른 발화로 수정될 수 있다.

실행(doing, causing)에 의해 실행의 이러한 양태화의 기호학 상의 투기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자연언어의 어휘소를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은 이점과 약점 모두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낯선 영역을 탐색할 때 예기되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양태적인 그리고 단순하게 이원범주로서의 기술적인 빈사로 고찰되며, 이것은 양태화의 담화적인 행로(이 장의 “변형”을 보라)의 기술을 방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양태화의 자율적인 영역의 존재자를 단지 조정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덧붙여 정의적인·정진적인 기술을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획득된 그 단계가 정당화된다고 고찰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양태적인 정향(예를 들어, 마치 반대의 축 “지시와 방해”와 같은)의 다소 동기가 부여된 지시가 이 단계에서 너무 서두르는 것이라고 믿는다.

첫눈에 전통적으로 작위적(factitive)¹⁷²⁾이라고 호칭된 이 양태성은, 비록 그들이 필연적이지 않을지라도, 능력 즉 /being-able/의 양태성과 함께 혼합주 의적인 관계의 최후의 예와 같은 일종의 지연된 명령인 것 같다.

그들은 실행발화의 주체와 대상 간에 확립된 타동적인 관계와 비교되고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되며, 또한 그것은 기술로서의 빈사를 정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작위적인 관계에 대해 말할 것 같으면, 그것은 기왕에 실행발화로 존재하는 주체와 대상 간에 확립되었고, 바로 이러한 사실로부터 그것은 계층적으로 명백한 2개의 주체, 즉 양태적인 주체 s_2 와 실행의 주체인 s_1 간의 관계로 반드시 나타난다. 따라서

피제조원인(causing a suit to-be-made) \approx 실행(doing)함으로써, s_1 이 옷 일습(a suit: 남자 옷의 셋갓춤, 즉 저고리·조끼·바지, 상하 한 벌의 여성복)을 만든다.

지식원인(causing-to-know) \approx 실행(doing)함으로써, s_1 이 어떤 것을 배우다.

믿음-원인(causing-to-believe) \approx 실행(doing)함으로써, s_1 이 어떤 것에 대해 확실하다고 판단하다.

우리는 작위적인 양태화의 영역이 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사실 현 재로선 경계 긋기가 어려운 그것은 커뮤니케이션의, 표상의, 직권위임 등의 개념을 부분적으로 또는 총체적으로 떠맡는다. 보다 심층적인 조사는 몇몇 의미작용을 하고 있는 인간적인 실천(practice)으로 고찰할지도 모르는 보편성의 하나로 나타나는 이 양태범주를 필경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다.

단순한 양태구조의 타이 묶기

또 다른 공통적인 특징은 작위적인 그리고 비-작위의 진정한 양태성의 성격을 만들고 있는 타동성이 부가될지도 모른다. 그들은 그것을 에워싸고

172) 프로프의 역자는 텡 명령(mandatory)을 사용한다. —영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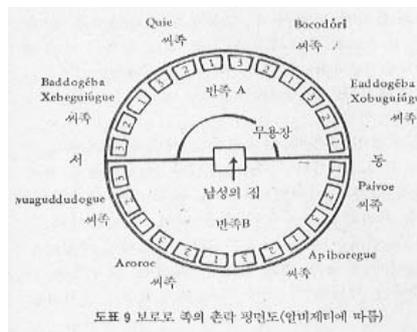
있는 화용론적인 측면 상에 정위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작위적인 양태성은 신체적인 실행의 원인으로 시도되고 있는 지각적인 실행으로 나타난다. 같은 방식으로 비-작위의 진정성은 대상(세계의) 지식으로서 위치를 획득한 지각적인 작용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공통배경으로부터 우리는 그들이 결합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지 명백하게 지각할 수 있다. 반면에 비-작위의 진정적인 양태성은 빈사를 사실 뒤에서(“downstream, 하류의”-귀납적·객관적) 지배하는 것으로 변용하며(양태화된 발화는 기왕에 발생된 것으로 추측된다), 작위적인 양태성은 사실 앞에서(“upstream, 상류의”-연역적·주관적) 행위하고,173) 일종의 자극적인 성질로 기여하며, 다른 주체의 언어능력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일련의 인간 활동의 표상으로 종사했던 결합체적인 정향의 관점에서 보면, 작위적인 양태발화는 주체 s_2 에 의해 지각적인 언어연기로 존재하는 “존재원인(causing-to-be)”으로 나타난다. 그 자체만으로 이 발화는 팽창하고 있는 지각프로그램으로 꾸밈없이 진전할 수 있다(따라서 믿음-원인[causing-to-believe]은 설득적인 실행의 프로그램으로 아티클레이션이 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 지각적인 언어연기에 의해 높이 치솟게 된 대상은 화용론적인 언어능력으로 단순하게 지각된 주체 s_1 의 내포화로 존재한다.

당연히 비-작위의 진정적인 양태성은 s_1 의 화용론적인 언어연기를 지배하고 있는 s_2 에 의해 지각적인 언어능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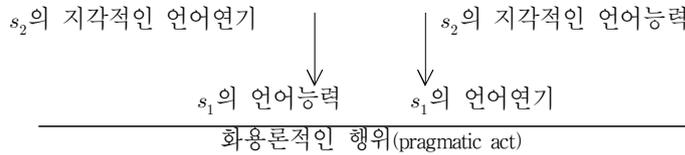
노트: 계속해서 실행-노하우(knowing-how-to-do)를 적법화하고 있는 지각적인 언어능력이 판단의 지각행위로 끝내고 있는 특별한 언어연기를 허락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것



173) “Claude Lévi-Strauss, 김진욱 역, 「구조인류학」(서울: 종로서적, 1983), pp. 137~138. “그렇지만 이 동심원적 구조는 다른 많은 직경적 형태의 것과 공존하고 있다. 보로로 족의 혼란은 첫째로 동서의 선에 의하여 두 반족(半族)으로 구분되고 이 선이 여덟 씨족을 뚜렷하게 넷씩의 두 그룹으로 재분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선은 또 하나의 남북으로 수직되게 달리는 선에 의하여 다시 찢어지는데 이것은 여덟 씨족을 넷씩의 다른 두 그룹으로 나누며, 각각이 “높은,” “낮은”이라 이름 붙여진다. 또 혼란이 강가에 있는 경우에는 “상류의,” “하류의”라고 이름 지어진다.” 참조. (역주)

은 반드시 따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최초의 조사는 4개의 양태구조의 결합체적인 표상의 가능성을 암시한다(동반 도표를 보라).



우리는 그것이 어떤 주체의 행위를 통해서, 또는 지각차원에 정위된 제2 주체의 양태진행의 실례로 에워싸인 다른 것을 통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관측할 수 있다. 결합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2개의 에워싸고 있는 양태구조는 전제되기도 하고, 전제되지 않기도 한다. 그렇게 발생함으로써, s_2 의 언어연기는 s_1 의 언어능력을 암시하고, 계속해서 s_2 의 언어능력은 s_1 의 언어연기의 존재자를 전제한다. 비록 그 자체로 충족하다고 할지라도, 어떤 조건 하의 s_1 의 행위는 타동적인 지각제도 안에 삽입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화술적인 담화의 그것, 더 정확히 말하면, 행위의 결합체적인 조직이 정전적인·화술적인 프로그램의 그것과 어느 정도 닮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2개의 성분, 즉 언어능력과 언어연기를 소유하고 있는 후자는 우선 주체를 강제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래서 나중에 생크션(sanction)을 얻기 위하여, 그 원인으로서의 책임을 떠맡고 있는 발신자의 그 극(極)으로 대개 되돌려 보내진다.

초월양태화

언어능력과 그것의 초월양태화

양태성을 위한 선행 결합체적인 프레임의 확립은 앞으로의 탐색영역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리고 개념을 번역-전격(轉格)하고 있는 인식론적인 영역과 가능한 양태성 이론의 구성을 개설하는 것으로, 우리를 돕고 있음에 틀림없

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작위적인 실행과 타동적인 실행 양쪽을 다 포함하고 있는 언어연기의 이론이 2개의 연외지시(direction)로, 즉 교묘히 다루기의 이론과 연기(action)¹⁷⁴⁾의 이론으로 진전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한 우리는 논리학자들과 기호학자들의 초점이 한곳에 모이고 있는 탐색이 가능한 만큼의 그 정도로 통합될지도 모르는 언어능력의 유사이론이 또한 마지막에 애써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염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실 우리는 “실행의 존재(being-of-the-doing, 행위에 대한 주체의 화용론적인 언어 능력)”로든지 또는 “존재의 존재(being-of-the-being, 세계의 대상-발화에 대해 판단력을 갖도록 그것에 권력을 부여하고 있는 지각적인 언어능력)”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취급하고 있으며, 그 “상태”의 “존재”를 우리는 존재와 실행의 전제조건 세트가 발견된 잠재적인 실례 바로 그 직관적으로 포착된 양 경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기욤(Gustave Guillaume)으로부터 차용한 틸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실례는 영점과 실행 또는 존재가 외연화된 그 지점 간에 서로 잡아당기는 “긴장(tension)”의 장소로 나타난다.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이 긴장상태는 줄곧 다수의 유표와 같이 양태적인 초월결정의 형식으로 보다 더 숙련된 아티클레이션을 획득한다.

잠정적인(provisional) 목록

이제 우리는 제한표현 없이 존재하는 언어능력의 이러한 초월양태화의 잠정적인 목록을 제안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화술적인 담화 분석의 제한된 경험상에, 그리고 몇몇 유럽언어(독일어, 영어, 프랑스어)의 기술상에만 오로지 기초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4개의 양태성을 목록으로 만든다.

174)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p. 6~7. action(연기); 1. 연기는, 능력 있는 주체에 의해 분류된 판에 박힌 시퀀스이든지 또는 프로그램화된 것이든지, 이러한 조직의 성격에 대해 아프리오리로서의 어느 결정된 사실 없이, 행위들(acts)의 결합체적 조직으로 정의될 수 있다. 2. 결합체적 기호학에서, 단순한 또는 복잡한 생성체도가 주어지는 순간에, 연기는 화술 프로그램의 전환의 결과로 고찰될 수 있다. 복합 프로그램의 경우에, 다양한 화용론적 화술 프로그램은 연기를 구성하고 있는 행위와 상응한다. 즉, 하나의 연기는 연기와 변화과정으로 전환된 실행(doing)에 의해 재현된 주체와 함께 화술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3. 화술적인 기호학은 단지 “문서상의” 연기, 즉, 행위의 기술과 같은 연기를 연구하지 않는다. 서술된 연기의 분석은 인간 활동의 고정관념을 인식할 수 있으며, 그들을 고려한 활자적이며 결합체적인 모델을 구성한다. 외삽(부연)의 그러한 절차와 그러한 모델은 기호학적인 연기(semiotics of action)를 위한 기초를 형성할 수 있다. (역주)

- /요망(wanting)/
- /의무(having-to)/
- /능력(being-able-to)/
- /지식(knowing)/

이러한 양태성은 언어능력으로 호칭된, 그리고 그들의 빈사를 어떤 방식으로 변용함으로써 실행발화와 상태발화를 통제하는 잠재적인 상태로 전조(轉調)할 수 있다.

제안된 그 목록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잠정적이다. 먼저 분류법으로 조직되지 않고, 다음에 폐포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기호학자들은 의무를 발신자의 요망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경향을 갖게 될 것이며, 반면에 논리학자들의 요망은 스스로 의도된(함축된) 의무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그려낼 수 있는 결론은 의미소적인 그리고 통사론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뒤에 상호 결정된 그리고 스스로 충족한·양태적인 체계 확립의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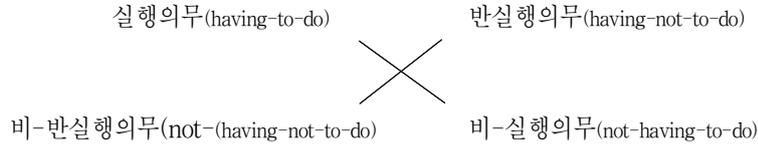
범주화와 단자(denomination)¹⁷⁵⁾

목록의 각각의 양태성을 “실행의 존재(being-of-the-doing)”의 변용형식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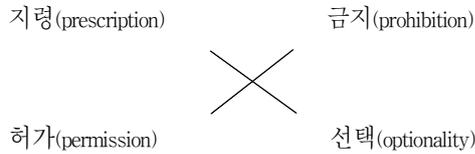
175) denomination: 직역하면 명명, 명목, 단위가 되겠지만, 수학·언어학보다는 철학적 관점의 monad(monade), 즉 단자(單子)로 번역하는 것이 낫겠다. 이는 그리스어 monas에서 유래된 말로서, 원래는 단위의 하나를 뜻한다. 우선 피타고라스파에 의해 사용되었고, 플라톤(Platon)도 이데아에 이 말을 사용했던 경우가 있다. 브뤼노(G. Bruno)는 자연의 최소 단위로서의 단자를 생명이 넘치는 개성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러한 단자의 유기적 결합에 의하여 우주를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 생각을 계승한 라이프니츠(G. W. Leibniz)에 있어서는 연장을 가지지 않는 힘의 주체로서의 실체, 참된 실체로서의 개체를 단자라고 한다. 세계는 무수한 단자의 조화적 체계라 생각되어지고 있는데, 낱날의 단자는 또한 이 무한한 전체를 비추는 거울이다. 단자 그 자신은 불생불멸이며 밖으로부터의 작용을 받지 않는다. 즉 창을 가지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안으로는 다양함을 지니고 있으며, 이 다양의 통일을 지각이라 일컫고,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추이를 욕망이라 일컫는다. 지각의 관명의 진행에 따라 단자는 세단계로 나뉘어진다. 첫째는 무생물이나 식물을 구성하는 단순한 단자, 둘째는 동물적 생명에 있어서 기억을 지닌 단자, 셋째는 인간에 있어서의 이성적 정신. 그리고 이것들 모두가 세계에 속하는 피조(被造) 단자인데 대하여, 최후에 이것들을 창조하여 세계의 조화를 부여한 신이 근원적 단자로서 세계를 초월하여 존재한다고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라이프니츠(G. W. Leibniz)의 체계는 후세에 단자론이라고 명명되어 1917년에 그가 체계의 요약으로서 기록하여 미발표인 채 남겼고, 표제가 없는 작품도 이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후설(E. Husser)도 이 용어를 차용하고 있지만, “근원적 단자 ≠ 신”이라는 점에서 변별된다. 그레마스(A. J. Greimas)는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는 또한 후설(E. Husser)의 영향을 받고 있다. (역주)

제7장 양태성의 이론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그것은 그들을 범주화할 수 있으며, 이원적인 관계(이 장의 “작위적인 양태성”을 보라) 안에 양태적인 빈사와 빈사적인 실행을 설치하는 것으로 기호사각형 상에 그들을 투기한다,



따라서 획득된 범주는 다음과 같은 팀으로 명목이 부여될 수 있다.



명목부여 절차에 감사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양태논리로 사용된 의무적인 양태성의 세트를 약간의 변용과 함께 발견한다.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비록 어휘화의 순간에 의미론적으로 다소간 동기가 부여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명목부여는 독단적이다.

기초를 세우는데 조력하는 메타언어학적인 측면에서 작용하기 위하여, 그것은 연접(連接)의 전체 안에서 동일한 레벨에 속하는 개념으로 통합하고 있는 구조적인 정의를 담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우리가 명목화라고 호칭할 수 있는 것으로, 즉 양태적인 빈사를 양태적인 가치로 변형하는 명목상의 형식으로 만들음으로써 명목부여의 절차는 언외지언의 형식화의 치환으로 존재한다. 게다가 치환되고 명목화된 것은 우리가 양태발화와 기술발화의 하위계열적인 조직과 상응하는, 그러면서도 양태적인 빈사와 단순하게 상응하지 않는, 양태구조라고 기왕에 호칭했던 것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지령(prescription)/ ≈ /실행의무(having-to-do)/

따라서 논리적으로 사용된 양태가치는, 기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응하는 양태구조로 발생된 그래서 통사론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는 명목으로 고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주체와 대상의 양태화

동일한 절차를 사용함으로써, 동시에 상응하고 있는 명목과 함께 획득된 바로 그렇게 지향반응운동적인 정향에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우리는 /존재의무(having-to-be)/의 양태구조를 범주화할 수 있다.

필연성(necessity)		불가능성(impossibility)
존재의무(having-to-be)	X	반존재의무(having-not-to-be)
비-반존재의무(not-having-not-to-be)		비-존재의무(not-having-to-be)
가능성(possible)		우발성(contingency)

우리는 그렇게 명목이 부여된 양태가치 안에서 비-망각의(alethic)¹⁷⁶⁾ 양태성

176) alethic(비-망각의, 또는 일어진위·연역귀납·이율배반·양의적; 一語真偽·演繹歸納·二律背反·兩儀的): 1. 어원적으로는 인간이 레테 강을 건너면서 망각한 이테아를 회복한 상태를 의미한다. 2. 거짓(falsehood), 그리고 진리(true)와 관계하고 있는 논리적인 의미로서의 용어. 3. 거짓(falsehood)의 진술은 엄밀히 말해서 진리가 아니다. 대개 2개의 가치로 만들어진 논리는 오로지 1개의 진리 또는 거짓으로만 진술하는 것을 허락하지만, 불확실의 논리(fuzzy logic)는 0과 1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연속체(continuum)”로서의 진리로 간주한다. 비록 “F”가 진리표에서 보다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을지도, 상징기호 “■”는 때때로 “거짓(false)”을 의미하는데 사용된다. 4. 진리(true)의 진술은 엄밀히 말해서 정확하게 알려지는 것이다. 어떤 진술이 엄밀히 말해서 소정의 가언과 정의의 세트 안에서 결정할 수 없는 논리로 입증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진리가 아닌 그 진술은 거짓으로 호칭된다. 대개 2개의 가치로 만들어진 논리는 오로지 1개의 진리 또는 거짓으로만 진술하는 것을 허락하지만, 불확실의 논리(fuzzy logic)는 0과 1의 어느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연속체(continuum)”로서의 진리로 간주한다. 비록 “T”가 진리표에서 보다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을지도, 상징기호 “■”는 때때로 “진리(true)”를 의미하는데 사용된다. 5. 즉, 상징기호 “■”는 진리가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 다시 예를 든다면, “12시”를 지시할 때 그것은 또한 “0시”도 함축하고 있는 것과 같다. 6. 형식논리학은 방법, 구조, 그리고 형식적으로 진술될 수 있는, 또한 잘 정의된 의미와 함께 약간의 상징기호를 사용하면서 입증된, 그러한 명제로서의 완벽한 비모순의 수학공식을 공리하여 찾아냈다. 형식논리학의 난문제는, 연역될 수 있는 진술 “1+1=2” 이전에 규정된 상징기호의 100 페이지에 달하는 바로 그것으로, 화이트헤드(Whitehead)와 러셀(Russell)의 불멸의 “Principia Mathematica”에서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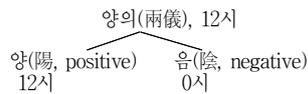
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의무적인 양태성과 비-망각의(alethic) 양태성의 비교는 암시적이다. 반면에 그들의 단자는 그들을 분리하는데 공헌하고, 그들을 독특한 양태화로, 즉 그들과 함께 발생하는 통사론적인 정의로 나타나게 만든다. 왜냐하면 양 경우의 양태적인 빈사는 동정되기 때문이며, 오로지 양태화된 발화(실행발화와 상태발화)의 성질이 다른 것과 그들을 구별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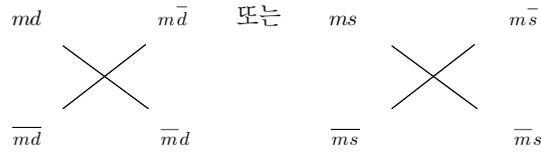
게다가 기호학이 분류법과 양태성의 유형학을 애써 성취하려고 시도하는 한,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명목을 사용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의미론적으로 동기가 부여되어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단자는 간과되기 어려운 문화적인 상대주의로 타락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계에서 우리는 매우 단순한 표기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범주화될 수 있는 양태적인 정의로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

- m = 양태발화(modal utterance)
- d = 실행발화(utterance of doing)
- s = 상태발화(utterance of state)

이러한 체계는 다음과 같이 전사(轉寫)될 수 있다.

명되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기초는 괴델(Gödel)이 오늘날 “괴델(Gödel)의 불완전성의 정리(incompleteness theorem)”로 알려진 그 결과로 예기치 않게 입증되었던 1930년대 중반에 사라졌다. 이 정리는 불가능해진 힐베르트(Hilbert)의 종착점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수학에서 최초의 일련의 심층, 그리고 엄밀함과 증명가능성에 관하여 반직관적인 진술로 되어있는 최상의 것을 증명했다. 7. 일종의 이율배반(二律背反), 즉 부분과 전체의 이율배반, 자유 유무의 이율배반, 신의 유무에 대한 이율배반, 시간의 시중의 이율배반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8. 양의(兩儀); 태극(太極)이란 무극(無極)과 유극(有極)의 종시점(終始點)으로서 이(理)를 바탕으로 한 기(氣)가 동하려고 하는 시공(時空)의 점이다. 여기서 이(理)는 불변자(不變者; invariant)로서의 주재자요, 기(氣)는 변자(變者; variant)로서의 유행자(流行者)를 말한다. 또한 이(理)는 체(體)가 되며, 기(氣)는 용(用)이 된다. 양의(兩儀)는 시간으로서의 상생(相生)과 공간으로서의 상극(相剋)으로 통변(通變)하는 것을 말한다. (역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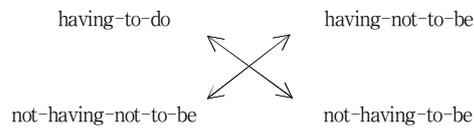




우리가 양태발화로 보유했던 4개의 빈사(요망, 의무, 능력, 지식)를 연속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언어능력의 실례를 아티쿨레이션으로 만들고 있는 8개의 양태범주를 획득할 수 있다. 게다가 우리는 몇 가지 가능한 논리를 예견할 수 있다. /실행의무(having-to-do)/로부터 유래되고 있는 양태적인 세트 상에 기초된 의무 논리(deontic logic)와 함께, 그것은 의지작용의 논리, 또는 /요망/ 등에 기초된 각성후몽유상태의(bulistics)¹⁷⁷ 예견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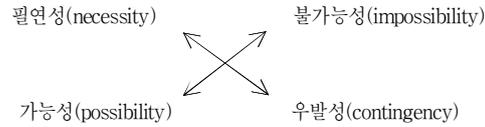
그러나 실행(doing)과 존재(내관, being)의 양태화의 편차는 지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자의 경우 양태화가 주체와 함께 그것의 관계로, 그리고 후자의 경우 대상과 함께 그것의 관계로 고찰된 빈사와 관계가 있다. 논리적인 것의 두 유형(주체의 양태화를 기술하고 통제하고 있는 주체적인 논리, 그리고 발화대상의 존재자의 모드를 취급하고 있는 대상적인 논리)은 구별될 수 있다.

노트: alethic modality(비-망각의 양태성); 기호학적(semiotic) 관점에서 보면, 비-망각(일어진위·연역귀납·이율배반·양의적; 一語眞僞·演繹歸納·二律背反·兩儀的; 어원적으로는 인간이 레테 강을 건너면서 망각한 이데아를 회복한 상태를 의미한다. -역주)으로 알려진 양태구조는 양태발화가 빈사(賓辭)로서 having-to-do와 함께 상태발화를 결정하고 지배한다. 그것은 빈사로서의 존재(being)를 가지고 있다. 기호사각형 상 이러한 구조의 사상(寫像)은 비-망각의 양태범주의 공식화를 허락한다.



각각의 사각형의 텀은 명사로 명시될는지 모른다.

177) a somnam-bulistic state: 수면과 각성은 매우 명백하게 구별되는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신경생리학(neuro-physiology)에 있어서의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정상적인 인간의 뇌는, 비록 뇌파도(EEG)가 충분히 각성되어 있음을 지시하고 있을지라도, 각성된 뒤 한 시간 정도 수면의 기호(signs)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한다. (역주)



그때 각각의 양태 텀은 통사론적 정의인 양태구조로 간주될 수 있는지 또는 분류법적 정의인 양태가치로 간주될 수 있는지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반면에 양태논리는 양태 가치(또는 명목)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며, 양태기호학은 통사론적 정의에 각각의 명목을 부여한다.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p. 10~11. (역주)

결합체적인 접근: 여기서 우리가 진척시켰던 범주화의 절차는 양태적인 분류법을 우리가 지각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그것은 양태범주의 모든 것을 떠맡고 있는, 그리고 그들의 의미소적인 핵을 아티큘레이션으로 만들고 있는, 상호정의의 세트를 점진적으로 확립할 수 있는 것으로만 그것의 설치가능할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몇 가지 관심이 단순히 직관에 기초된 이 상호정의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실행으로 이어가지 못했다. 따라서 비록 우리가 구성될 수 있는 아종적인·양태적인 논리로부터 양태적인 공간(modal space)의 주연을 상상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모두 연결되는지 상상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그것의 포착을 위해, 우리는 다양한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 즉, 순수한·기호학적인 투시도법으로서의 그것이 상상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목류로 분류되었으면서도 결합체적인 시리즈로 구성될 수 있는 그래서 마음속에 그려진 양태성 아래의 그 조건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또 이것이 빈사적인·통사론적인 궤도로 진척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다. 어쨌든 이것은 다음과 같이 천진난만한 질문, 즉 궤도가 생성되고 있는 시발점(ab quo)의 실례로부터, 영점으로부터 시발함으로써, 종착점(ad quem)의 실례를, 행위의 실현화를, 언어연기를 어떻게 획득하게 되는가? 더 나아가 단순한 상태발화로부터 시발함으로써, 즉 아종적인 주체에 귀속될만한 아종적인 결정과 함께 시작함으로써, 우리가 세계의 보증된 그리고 떠맡게 된 지식으로 어떻게 끝낼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는데 얼마간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한 질문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은 당분간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식에 대한 탐색은 대체로 항상 천진난만한 질문과 함께 시작한다. 한 블록으로서의, 분석될 수 없는 개념으로서의 포즈를 취하고 있는 “언어능력”이 첫 단계로서는 유용하지만, 바로 그대로의 귀결로 지속될 수는 없다. 양태적인 논리를 모델의 레퍼토리로 처리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기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층 더 좋게 될는지 모르는 진실(truth) 안에서 그것은 담화의 연속적인 무대를 만들고 있는 일련의 단계로 처리될 수 있다.

화용론적인 언어능력의 조직: 만약 우리가 오로지 화용론적인 언어능력으로만 고찰한다면, 그리고 오로지 행위에 의해 전제된 그래서 잠재적인 실례로만 고찰된다면, 그때 우리는 존재자 레벨의 아티큘레이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① 기호학적인 존재자의 아종적인 모드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 각각의 레벨. ② 언어연기(언어능력을 전제하는)와 함께 시작하고 있는 그래서 목록으로 분류된 전제의 관계를 소유하고 있는 레벨.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도표를 얻게 된다.

언어능력(competence)		언어연기(performance)
내포화의 양태성 (virtualizing modalities)	외연화의 양태성 (actualizing modalities; 선언)	실현화의 양태성 (realizing modalities; 연인)
의무(필연, having-to) 요망(결여, wanting)	능력(being-able-to) 지식(knowing)	존재원인(causing-to-be)

우리가 양태성의 결합체적인 조직을 제안하는 그 윤곽은 오로지 작용적인 지위만을 소유할 수 있다. 그것은 오랜 철학적 전통에 의해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제안되었지만, 특히 그것은 2개의 실례, 즉 내포화의 양태성으로서의 /의무/ 그리고 /요망/의 출현에 의해 표시된 그 주체의 자질은 아니지만 이것에 준하는 관례로서의 실례와, 표면에 나타나지 않은 연기의 모드를 결정하고 있는 /능력/ 그리고 /지식/의 양태성인 그 주체의 자질로서의 실례가 아주 분명하게 구별된 화법의 정전적인 도식의 인식으로 발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러한 결합체적인 조직이 비록 추상으로 정당화될지라도, 정전적인 것으로, 표출의 레벨에서 특히 언어능력

-언어연기가 활동하고 있는 그 획득을 기술하고 있는 담화 안에서, 발생하는 것과 상응하지 않는 행위와의 밀담의 시뮬레이크럼으로, 고찰하기를 좋아한다. 예를 들어 주체(주사)는 그것에 반드시 선행하는 요망을 필연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능력이 부여될 수 있다. 이것은 촉매현상이, 즉 전제와의 화해가 단독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존재한다. 그것은 마치 주체의 화용론적인 언어능력을 구성하고 있는 연속적인 양태화가 단하나의 고유의 실례로부터 유래하지 않는 것처럼, 즉 몇 가지로부터(우리가 화술문법의 텀으로 언급하는 몇몇 발신자로부터) 유래하는 것처럼 존재한다. 본래 갖추고 있는 내재의 양태성(의무와 능력)을 구별하도록 제안하는 해석은, 아무리 흥미로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선행 문제에 대해 결정적인 해법(또는 이산)을 현재로서는 가져오지 못하는 것 같다.¹⁷⁸⁾

따라서 우리는 우선 끊임없이 적당한 방법을 탐색하면서 그것이 대당(對當)을 이루고 있는 양태구조에 의해,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그들이 그들의 일치(compatibility)를 위한 기준의 한 쌍으로 끌어내어 공인하려고 하는 그 시도에 의해, 알맞게 속행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

노트: 괴델(Kurt Gödel); Goedel로도 씀. 1906~1978. 오스트리아 태생 미국의 수학자·논리학자. 아무리 엄밀한 논리적 수학체계라도 그 안에는 그 체계 내의 공리(公理)에 기초하여 증명할 수 없거나 반증할 수 없는 명제(문제)가 있으므로 산술의 기본공리들은 모순이 될 수도 있다는 '괴델의 정리'를 내놓았다. 이 정리는 20세기 수학의 한 특징이 되었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영향을 받고 그 영향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 1930년부터 빈대학교의 교수로 있으면서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의 연구원(1933, 1935, 1938~1952)으로 있었다. 1940년 미국으로 이민하여 1948년 시민권을 얻었으며, 1953년부터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의 교수로 있었다. 그는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와 버트런드 러셀의 「수학원리 Principia Mathematica」에 나타난 확정할 수 없는 명제들에 대해 「수학과 물리학 월보 Monatshefte für Mathematik und Physik」(1931)에 자신의 정리를 처음 발표했다. 이 정리는 가장 성공적으로 푼던(그러나 괴델이 밝힌 대로 결코 완전하지는 않은) 「수학원리」를 비롯하여 모든 수학에 대한 확고한 기초를 마련하는 공리들을 세우려던 거의 100년간의 노력에 결말을 지었다. 그의 유명한 「집합론 공리와 선택공리 및 보편화된 연속체 가언 사이의 무모순성 Consistency of the Axiom of Choice and of the Generalized Continuum Hypothesis with the Axioms of Set Theory」(1940, 개정판 1985)은 현대 수학의 고전이 되었다. (역주)

노트: 수학기초론(foundations of mathematics); 수학의 바탕을 이루는 개념·가정을 다

178) M. Rengstorf, "Pour une quatrième modalité narrative," Langages 43(1976); 71~77을 보라.

루는 연구 분야. 20세기로 바뀌는 시점에서 기초적인 연구는 수학적 이론의 본질과 수학적 방법의 관점에 대한 연구까지 확대되었다. 역사적으로 수학에 대한 주요 접근법은 2가지가 있는데, 이는 공리적 방법과 발생학적 방법이다. 공리적 방법은 BC 330년경에 저술된 에우클레이데스의 「기하학 원본 Stoiicheia」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학생들이 즉시 납득할 수 있도록 제한된 공준들의 집합으로 시작된다. 납득할 수 있도록 제한된 일련의 단순한 단계들에 의해 학생들은 다른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에우클레이데스는 연역법에 관한 자신의 접근법을 세웠으며, 이것은 이보다 2세기 앞서 피타고라스에 의해 시작된 것이다. 에우클레이데스는 점·선·면과 같은 기본 용어 또는 기본 개념의 도입으로 시작하여, 이들의 용어에 관한 어떤 원시명제 또는 공준을 주장했다. 그뒤 그는 공준으로부터 피타고라스 정리(定理)인 “직각3각형의 빗변이 아닌 다른 2변에 의해 작도된 정4각형 넓이의 합은 빗변으로 작도된 정4각형의 넓이와 같다”와 같은 ‘정리’라고 하는 더 발전된 명제들을 이끌어냈다.

공리적 방법은 공간이 굽어 있다는 이른바 비(非)유클리드 기하학의 기초가 된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에우클레이데스의 공준 가운데 하나는 평행선 공준인데, 이 공준은 “직선 L 위에 있지 않은 점 P를 지나고 직선 L에 평행한 직선은 단하나밖에 그릴 수 없다”라고 하는 정리의 기초가 된다. “평면 위의 한 점을 지나며, 그 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과 만나지 않는 서로 다른 직선을 최소한 2개 이상 그릴 수 있다”는 또 다른 평행선 공준들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기하학을 만들 수 있음이 판명되었다. 결론적으로 에우클레이데스는 자신의 기하학으로 물리적 공간에 대한 실제적인 묘사가 가능하다고 보았지만, 그것은 단지 공리적 방법을 통해 전개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또 다른 가능한 여러 가지 수학적 모형(模型)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공리적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기하학들은 그 방법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다른 기본 원시명제들을 바탕으로 하는 정리들의 전체집합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러한 모든 명제들의 증명 또는 반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정리들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접근법에 대한 효과는 그것이 만드는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역법에 대한 응용에 있다. 즉 정리들이 원시명제를 바탕으로 한다는 이 방법은 중요한 논리적·수학적 장점 중 하나이다.

공리적 방법을 보완하는 것으로 발생학적 방법이 있다. 이것은 독일의 수학자 다피트 힐베르트가 이름을 붙였으며, 수의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종종 사용된다. 예를 들면 0과 자연수 1, 2, ……은 첫번째 대상 0에서 시작하여 여기에서 2번째 대상을 만들기 위해 정수 1을 더하고, 이 2번째 대상에 1을 더하여 3번째 대상을 만드는 식으로 계속 생성되는 대상들로서 발생학적으로 기술될 수 있다. 보편적으로 발생학적 방법은 수학적 대상들을 질서정연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된다. 즉 대상들의 계가 갖는 성질을 표현하는 정리들은 연역법을 바탕으로 한다. 발생학적 방법은 무한한 대상들의 집합들을 비교할 때 매우 유용하며, 이것은 원소수(元素數)의 개념을 도입한 독일의 수학자 게오르크 칸토어에 의해 19세기말에 제안되었다. 만일 두 집합이 1 : 1 대응이라면, 이 두 집합은 원소수가 같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양의 정수 1, 2, 3, ……., 양의 정수의 제곱 1, 4, 9, …, 그리고 정수 ……., -2, -1, 0, 1, 2, ……은 원소수가 모두 같다. 무한대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칸토어의 연구는 수학의 범위를 넓혔으며, 이 분야의 보편적인 기초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칸토어의 방법에서 역설(逆說)이 계속 발견되자 수학기초론에 위기가 닥쳤다. 10년 동안의 연구에서 칸토어는 집합들의 자기 참조적 묘사로부터 역설들이 생겨남을 알게 되었다. 그것들은 언어학적 역설인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거짓말이다’와 비슷한 역설이다.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단순히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허구를 지적함으로써 역설을 해결할 수는 없었다. 1905년경 프랑스의 수학자 앙리 푸앵카레와 영

제7장 양태성의 이론에 대하여

국의 수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역설에 대한 설명을 정의의 순환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떤 집합 안에 있는 대상은 단지 그 집합을 참조함으로써 정의된다는 비가설적(非可述的) 정의를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있으며, 독일 태생 미국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헤르만 바일은 자신의 저서인 「연속체 Das Kontinuum(1918)」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종종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세기 초 수학기초론에 대한 위기를 설명하고 해결하기 위해 3가지 사상이 생겨났다. 첫째, 논리주의는 모든 수학 개념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바꿀 수 있고 수학이 기본 논리원리에서 유도될 수 있음을 증명하려고 했다. 둘째, 형식주의는 수학이 단순히 규정된 규칙에 따르는 유한 개의 기호배열을 다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셋째, 직관주의는 수학을 자명한 법칙에 따르는 구성개념을 다루는 자립적인 지적 활동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3가지 사상은 각각 러셀, 힐베르트, 그리고 네덜란드의 수학자 L. E. J. 브로우워에 의해 주도되었다. 각자는 수학에 대한 다소 전통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으며, 아무도 역설을 해결하기 위한 완전한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1930년대에는 오스트리아의 논리학자 쿠르트 괴델과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의 독창적인 연구로 이 3가지 사상에서 벗어나 논쟁이 확대되었다. 괴델의 정리란 ‘형식적 공리계는 그 공리 자체와 그것의 부정 어느 것도 증명될 수 없다는 하나의 명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 계에 대한 어떤 무모순성 증명은 그 계 자체보다 뛰어난 개념들과 방법들을 사용해야 한다. 튜링은 괴델의 연구를 컴퓨터 영역으로 확장시켰다. 그는 튜링 기계라고 하는 이론적인 자동기계를 발명했는데, 이 장치는 사용할 때 정해진 최대 자료저장량에 의해 제한을 받거나 기능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다.

튜링 기계의 작동은 다음과 같다. 각각의 순간에 이 기계는 내부상태들의 유한집합 중 하나를 가정한다. ‘수동(受動)’을 나타내는 것을 제외한 이러한 상태들 중 어느 하나에서 이 기계는 정4각형으로 나누어진 무한히 긴 테이프를 조사하는데, 이들 정4각형 각각은 비어 있거나 또는 유한 개의 기호 중 하나가 적혀 있다. 그뒤 이 기계는 조사된 정4각형에 적혀 있는 기호를 바꿀 수 있고, 테이프를 하나의 정4각형을 좌우로 움직여 주어진 순간과 그 다음 순간 사이에 또 다른 상태로 바꿀 수 있다. 이러한 모든 동작은 기계의 내부상태와 주어진 순간에 조사된 정4각형에 적힌 기호에 따라 결정된다. 이 기계의 출력은 기계가 수동 상태에 도달하여 멈춘 뒤 그 테이프에 있는 기호들로부터 번역될 수 있다. 튜링 기계는 만능 컴퓨터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의 작동원리가 계산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1937년 발표된 튜링의 유명한 논문은 괴델의 정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튜링 기계의 고정된 유한과정으로는 풀 수 없는 몇몇의 수학 문제가 있음을 보였다.

수학적 체계가 근본적으로 불완전하고 몇몇 계산과정들이 결정 불가능하다는 것은 수학기초론에 대한 연구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으며 논쟁을 부채질하고 새로운 사상을 도입하게 했다. 1960년 이후 이 주제에 관한 연구는 주로 4개의 분야, 즉 재귀론(再歸論)·증명론·모형론·집합론으로 나뉘었다. 재귀론은 계산가능과 결정가능에 대한 이론과 관련이 있으며, 그 이름은 재귀함수를 바탕으로 한 논문으로부터 붙여졌다. 증명론은 초수학(超數學)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것의 더 새로운 발전 중 하나는 집합들의 성질이 고려되는 단계에서 결정적인 선택을 취하는 기법들을 세운 것이다. 모형론은 주어진 형식적 체계의 공리들을 만족시키는 설명 또는 모형과 관련이 있으며, 집합론은 칸토어의 연구에 있는 몇몇의 역설과 모순들을 수정하고자 한다. (역주)

양태적인 조우(遭遇, confrontations)

비-망각의(alethic) 양태화

우리가 2개의 양태적인·대상적인 범주로 병치할 수 있는 것과는 반대로 (그리고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선택했던 커플링이 흥미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의 양태구조(기호사각형의 s_2 와 상응하고 있는)는 /존재의무(having-to-be)/와 /존재능력(being-able-to-be)/으로 이미 동정되어 있었다.

그 작용은 4개의 동차화의 시리즈로 마음속에 그려질 수 있다.

동차화 1(상보, complementarity); 기호사각형으로 아티큘레이션이 된 2개의 양태범주의 단순한 이중노출(또는 겹치기, superposition)

동차화 2(순응, conformity); 제2의 양태성의 축의 전도로 만들어진 2개의 범주의 이중노출

동차화 3(반대, contrarities); 제2의 양태성의 도식의 전도로 만들어진 이중노출

동차화 4(모순, contradictions); 직시의 전도로 만들어진 이중노출¹⁷⁹⁾

다음 도표는 동차화의 결과를 표현한다. 그것은 몇 가지 설명적인 그리고 해석적인 주석에 의해 추구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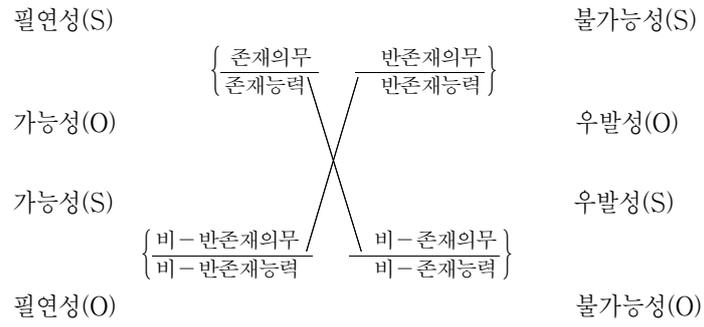
/존재의무(HAVING-TO-BE)/와 /존재능력(BEING-ABLE-TO-BE)/의 조우

I. 일치(compati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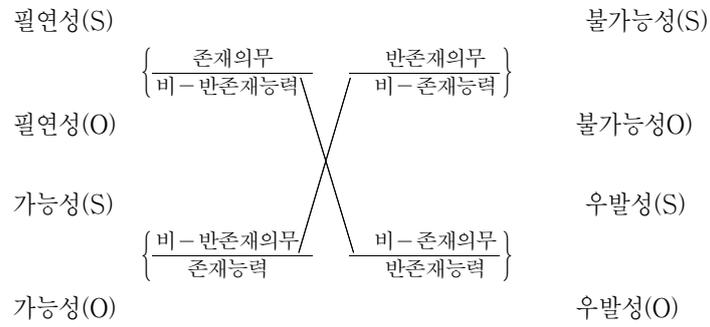
1. 상보(동차화 1)

179) “1. 2개의 축(axes) S 와 \bar{S} 그들의 관계는 모순 중의 하나이다. S 는 복합 축으로 호칭될는지 모른다. 그것은 s_1 과 s_2 를 포섭한다. \bar{S} 는 모순 \bar{s}_1 과 \bar{s}_2 (s_2 와 s_1 의)의 축이다. 따라서 그것은 s_1 과 s_2 와의 관계에서 중립축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 s_1 으로도 또는 s_2 로도 정의될 수 없기” 때문이다. 2. 2개의 도식(schemata); $s_1+\bar{s}_1$ 는 도식1로 정의되고, $s_2+\bar{s}_2$ 는 도식2로 정의된다. 각각의 도식은 모순관계에 의해 구성된다. 3. 2개의 직시(deixes); 첫 번째는 s_1 과 “ s_1 과 \bar{s}_2 ” 사이의 함축관계에 의해 정의되고, 두 번째는 “ s_2 와 \bar{s}_1 ” 사이의 함축관계에 의해 정의된다.”를 참조하라. (역주)

제7장 양태성의 이론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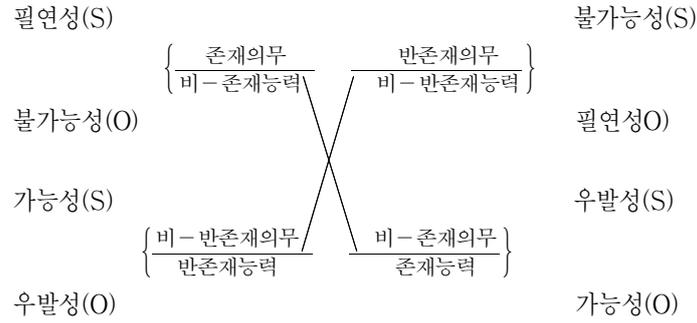


2. 순응(동차화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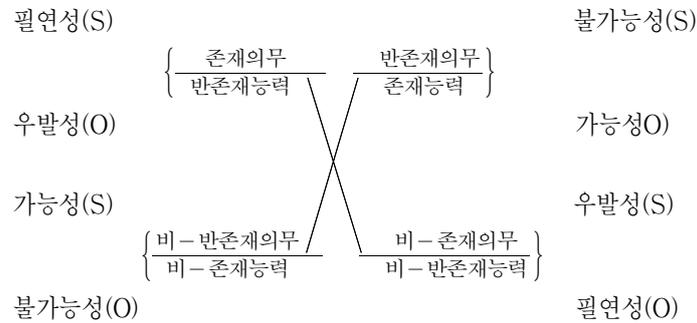


II. 상반(相反, incompatibility)

1. 반대(동차화 3)



2. 모순(동차화 4)



노트: 존재의무; having-to-be, 반존재의무; having-not-to-be,
 존재능력; being-able-to-be, 반존재능력; being-able-not-to-be
 비-반존재의무; not-having-not-to-be, 비-존재의무; not-having-to-be,
 비-반존재능력; not-being-able-not-to-be 비-존재능력; not-being-able-to-be.
 필연성; necessity, 우발성; contingency.
 가능성; possibility, 불가능성; impossibility, (역주)

양태구조의 통사론적인 정의(우리가 자연언어로 표현했던 것인, 그러나 우리가 이 장의 “주체와 대상의 양태”로 형식화된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인)를 내린 다음에, 우리는 그것에 그들의 명목을 덧붙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고찰했다. 독단적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2개의 양태범주를 위해 동일한 명목을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약속

하고 있는 것 같았다(우리의 직관을 추종하고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s_1(htb) = s_2(batb)$
 htb = having-to-be(존재의무)
 batb = being-able-to-be(존재능력)

비록 우리가 이렇게 예측불허의 것을 조사하고 있을지라도 다음과 같은 결과를 찾아낼 수 있다.

4개의 동차화는 우리가 비교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데, 커플로 만들어진 책략적인(tactic) 그 팀 중에서 8개는 일치하고, 다른 8개는 상반한다. 다시 말해서 동일 직시에 속하는 팀으로서의 그 커플링은 일치하고, 다른 직시에 속하는 팀으로서의 그 커플링은 상반한다.

게다가 우리는 일치의 두 유형, 즉 상보(complementarity)와 순응(conformity)을 구별할 수 있다. 상보는 동일한 책략정향(tactic position)을 점령하고 있는 2개의 팀으로 성격이 만들어지고, 동일한 양태프로그램(양태화의 변화과정에서 진전으로든지 또는 역행으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명시하고 있는) 안에 그들을 명기하는 것의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¹⁸⁰⁾ 순응은 동일한 직시에 속하는 2개의 다른 팀에서 유래된 그 결과로 존재하며, 양태프로그램의 동일한 결합체적인 정향 안에서 그들의 병존을 명시한다.

거기에는 양태구조의 두 종류의 상반이 존재한다. 팀 반대(contrarities)는 모순(contradictions)의 책략정향 안에서 두 팀의 조우를 지시하도록 사용될 것이며, 반면에 모순은 반대의 책략정향 안에서 두 대당의 팀을 지시할 것이다. 양 경우에, 상반은 동일한 양태프로그램 안에 삽입된 그들의 존재(내관, being)의 불가능성과 상응하며, 대당(opposition)을 조우(confrontation)로 변형시킨다.

노트: 하위반대가 반대와 상대적으로 항상 정의될 수 있는지 어떤지 다시 한번 지식의

180) 아래 도표 참조. (역주)

양태(Modality)	내포화(virtualizing)	외연화(actualizing; 선언)	실현화(realizing; 연언)
외인책략(exotactic)	의무(필연, HAVING-TO)	능력(BEING-ABLE)	실행(연기, DOING)
내인책략(endotactic)	요망(결여, WANTING)	지식(KNOWING)	존재(내관, BEING)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동차화 3” 안 하위반대 축의 레벨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동차화 2” 안의 두 양태범주의 비교는 순응의 특별한 경우를 생산하며, 만약 우리가 직관적인 단자(denomination)의 레벨에 체류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것을 융합할 것이다. 여기서 2개의 해석이 가능하다. 계열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필연성으로 명목이 부여된 /존재의무(having-to-be)/는 비-반존재능력(not-being-able-not-to-be)으로 존재하는, /존재능력(being-able-to-be)/의 반대의 모순과 동치로 나타나며, 또한 우리는 그것에 필연성이라고 명목을 부여했다. 이 경우, 두 양태구조, 즉 /존재의무(having-to-be)/와 /존재능력(being-able-to-be)/은 모순으로 고찰되지 않으면 안 되며, 이러한 관찰은 양태성의 순간적인(temporary) 목록의 분류법적인 조직을 위한 시발점으로 고찰될 수 있다. 그러나 결합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조급한 명목부여가 사실 다른 레벨에 정위된 편차를 숨기고 있는지 숨기지 못하고 있는지, 즉 예를 들어 2개의 “필연성”이 같은 방식으로 “마음속의 결정론(determinism in minds)”과 “사태 속의 결정론(determinism in things)”으로 구별될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구성구조(constructed structures)”와 “내재구조(immanent structures)”가 대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스스로 자문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체로부터 발생하는 필연성(모델과 메타언어의 계약·응축)과 대상으로부터 발생하는 필연성(지시대상의 저항)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인식론적인 언어능력의 양태프로그램 안에서의 이러한 두 양태범주의 조우는 겨우 필요조건을 충족시키지만 그런대로 적당한 것(진실의 가능한 정의로)의 불확실성으로 정위시킬 수 있는 영역처럼 동정될 수 있을 것이다.

연속적인 동차화의 증명사에 의해 얻게 된 이 조우의 모델은 주체와 대상 양쪽의 양태화의 동일한 프로그램 안에 참여할 수 있는 양태구조의 일치와 상반을 다른 방법으로 검토하는데 유용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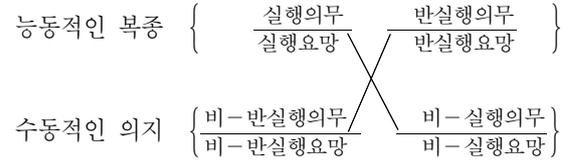
의무적인 양태화와 각성후몽유상태적인(bulistic) 양태화

동차화의 이러한 절차의 도움으로, 이제 우리는 화용론적인 언어능력으로 되돌아갈 수 있으며, 내포화의 양태성 /실행의무(having-to-do)/와 /실행요망(wanting-to-do)/ 사이의 새로운 비교를 다음 도표 안에서 피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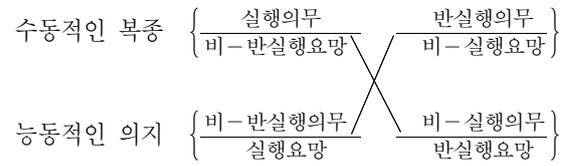
/실행의무(HAVING-TO-DO)/와 /실행요망(WANTING-TO-DO)/의 조우

I. 일치

1. 상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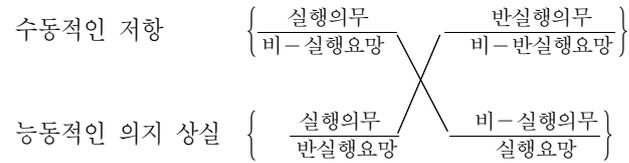


2. 순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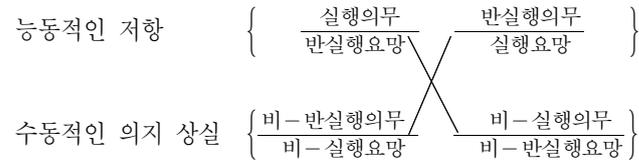


II. 상반

1. 반대



2. 모순



노트: 실행의무; having-to-do, 비-실행의무; not-having-to-do,
반실행의무; having-not-to-do,
실행요망; wanting-to-do, 반실행요망; wanting-not-to-do
비-반실행의무; not-having-not-to-do, 비-반실행요망; not-wanting-not-to-do

이러한 도식의 해석은 몇 가지의 재유표로서의 인지(認知, remark)를 암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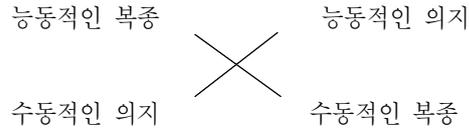
실행된 커플링은 그것이 계약·응축의 체결로 응축된 그 필요조건으로 채워지는 바로 그 순간에, 즉 발신자가 작위적인 양태화의 조력을 받아 메시지의 의무적인 내용을 지금 곧 발송하는 바로 그 순간에, 화용론적인 주체의 양태적인 정향의 세트로 묘사된다. 2개의 명백한 양태성을 부여받고 태어난 주체는 수락(양태적인 일치의 경우)으로든지, 또는 계약·응축의 거절(주장과 부정)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정향 안에 존재한다. 수락과 거절(주장과 부정)은 결단으로 호칭된 인식론적인 언어연기 하에 편입된다.

우리가 획득한 이 단순조합은 수락의 8개의 정향과 거절의 8개의 타자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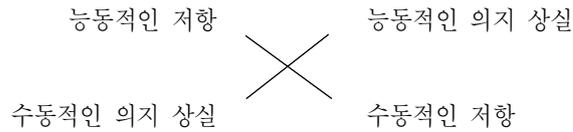
노트: 거절은 또한 계약·응축의 형식으로 고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주체의 양태화의 프로그램의 전개를 결코 중단하는 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또 다른 방향으로 변화시킨다.

그 명목이 매우 개략적인 성질임에도 불구하고(여기서 오로지 커플로 만들어진 양태성의 축으로만 명목이 부여되기 때문에), 우리는 동의하고 있는 주체의 행위주적인 역할에 관한 주연(distribution)의 어떤 개념을 획득할 수 있다.

제7장 양태성의 이론에 대하여



그리고 거절하고 있는 주체의 행위주적인 역할에 관한 주연(distribution)의 어떤 개념을 획득할 수 있다.



노트: 능동적인 복종; active obedience, 능동적인 의지; active will
 수동적인 의지; passive will, 수동적인 복종; passive obedience
 능동적인 저항; active resistance, 능동적인 의지 상실; active abulia
 수동적인 의지 상실; passive abulia, 수동적인 저항; passive resistance. (역주)

우리는 의무논리적인 기호학과 각성후몽유상태적인(bulistic) 기호학 양쪽에 편입되는 그들의 의무 그리고 의지와 조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주체의 그러한 유형학을 관측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러한 유형학은 문화유형의 어떤 양상, 그리고 보다 더 아종적인 것으로 사회와의 관계 안에서 개인적인 것의 “에티튜드(attitudes)”의 어떤 양상에 조명을 비출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유럽문화의 접촉이 “조물주”처럼 행위주의 역할 “능동적인 의지”와 “능동적인 저항”으로 가치를 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태적인 조우는 양태화의 결합체적인 전개로도 그들의 조직을 시리즈로도 조급하게 예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태구조의 두서너 개로 제공된 결합체적인 우선권에 따라 계약·응축의 두 유형이 예견될 수 있다.

명령적인 계약·응축=/실행의무(having-to-do)/ → /실행요망(wanting-to-do)/
 허가적인 계약·응축=/실행요망(wanting-to-do)/ → /실행의무(having-to-do)/.

노트: 그러나 허가적인 계약·응축은 선택적이라는 것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의지적인 양태화의 확립에 의해 전제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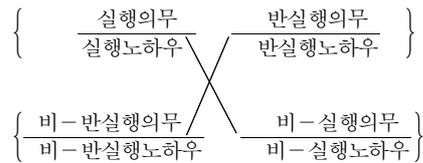
규칙들의 체계와 주체들의 통합(aptitudes)

우리는 사회적인 부호, 즉 이것이 작동하는 것에 주체의 언어능력의 여러 가지 아티클레이션과 상응하는 그래서 필적하는 세트와 조우하게 된, 함축적인 또는 명시적인, 따라서 다소 제한적인 규칙들의 함수를 표현하고 있는 최종 모델을 제안하고 싶다. 아래 도표에서 우리는 /실행의무(having-to-do)/와 /실행노하우(knowing-how-to-do)/의 양태성과 조우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능력(being-able-to-do)/과 함께 전자의 병렬은 필경 열매가 많이 열리는 것과 같이 존재하게 될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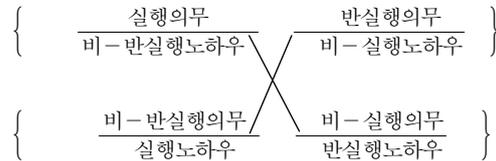
/실행의무(HAVING-TO-DO)/와 /실행노하우(KNOWING-HOW-TO-DO)/의 조우

I. 일치

1. 상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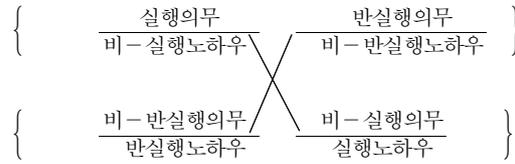
2. 순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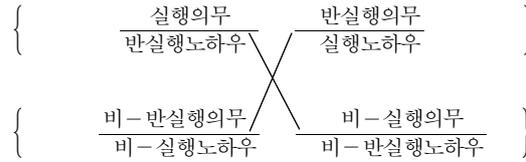
II. 상반

제7장 양태성의 이론에 대하여

1. 반대



2. 모순



노트 1: 실행의무; having-to-do, 반실행의무; having-not-to-do, 비-반실행의무; not-having-not-to-do, 실행요망; wanting-to-do, 반실행의무; wanting-not-to-do, 비-반실행의무; not-wanting-not-to-do. (역주)

노트 2. 양태성의 이러한 두 유형의 조우는 /실행노하우(knowing-how-to-do)/로 태어난, 즉 통합과 비통합의 세트처럼 유형화될 수 있는 일종의 “결합체적인 정보”인, 주체를 위해 마치 문법의 원칙처럼, 법률의 원칙처럼, 그리고 관습의 원칙(예절, 교양)처럼 규범적인 성질의 사회적 부호로 적용된 표상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적용에서의 의미론적인 동류체의 다양성이 각각의 커플링을 위해 적합한 명목(예를 들어, 예절 부호의 “과잉반작용[overreaction]”은 문법에서의 “과잉교정[hypercorrection]”과 상응할지도 모른다)을 찾는데 빈틈이 없지는지도 모르는 이러한 단계에서 실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우는 2개의 다른 방식으로 고찰될 수 있다. 언어능력의 레벨에서 그것은 연기의 가능한 모드를 결정하고, 사회적인 역할에 관한 유형학의 확립을 발생시킬 수 있다. 위치를 획득한 언어연기의 종착점에서 보면, 그것은 위치를 획득한 그것의 생크션으로 격자(格子, 시험과 통과례, 주체의 자질과 인식 등)를, 즉 주체의 언어능력과 관계하고 있는 비-작위의 진실의 형식을 구성한다.

결론

우리가 오랫동안 절감했던 필요성, 즉 앞으로 담화문법의 양태적인 성분을 도입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할 그 필요성은 이러한 텍스트와 여기에 표현된 반성의 기초를 형식화한다. 조사영역의 존재자와 개발된 이론영역을 나타

내려고 하는 욕망으로만 오로지 시작하고 있는 이것은 어쨌든 양태적인 중재의 광대한 영역을 탐색하는 일 없이 어떤 순간적인(temporary) 형식화를 발생시키며, 여기서 우리는 인식론적인 양태화를 본질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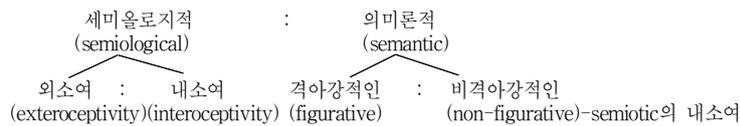
제8장 존재(내관, being)의 양태화에 대하여

분류법(taxonomies)과 가치론(axiologies)

어느 의미론적인 것들(변덕, 장, 개념, 분야 등)은 그것이 관계로 포착될 때, 그리고 의미론적인 축으로, 의미론적인 범주로, 게다가 기호사각형의 증명사에 의해 기술될 수 있는 것으로 조정(措定)될 때, 아티클레이션이 될 수 있다.

의미론적인 범주는 그것을 아티클레이션으로 만들고 있는 사각형 상의 / 행복감/ vs /불쾌감/으로 호칭된 반대의 팀과 함께 방향적 범주(芳香的, 백리향적, thymic category)로 투기하는 것에 의해 가치화될 수 있다. 이것은 소정의 환경(milieu) 안에 살아있는 존재(내관, being)가 어떻게 그들 자신의 육체를 “지각하며,” 그리고 그들의 환경에 반작용하는가를, 우리가 감쪽같이 완전한·기초적인 방법으로 형식화하려고 탐색하고 있는 바로 그것에 의해 만들어진 “최초의” 자기소여적(自己所與的; proprioceptive)¹⁸¹⁾ 범주로 존재한다. 여기서 살아있는 존재(내관, being)는 “인력과 척력의 체계”로 존재하는 것으로 고찰된다. 따라서 그 방향적인 범주는 언어학에서 보편적으로 수락된 범주 /생물(animated)/ vs /무생물(inanimated)/로부터 획득된, 즉 환원된 팀 /생물/과 함께

181)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 248. proprioceptivity(자기소여); 강류의미소적인 범주 “외소여(extroceptivity)/내소여(interoceptivity)”의 복합적인(또는 중립적인) 팀, 자기소여(proprioceptivity)는 인간이 그들 자신의 신체를 가지고 있는 지각작용(perception)으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의미론의 특성을 연역하는 의미소범주의 세트를 분류하는데 조력한다. 심리학에서 유래된 이 팀은 정신생리학적(psychophysiological) 연외지의(내포)를 함유하고 있는 방향(芳香; thymia)에 의해 반제된다. Ibid p. 158. “interoceptivity(내소여); 1. 주어진 문화 또는 개인이 동연(同延)이 되는 의미세계를 아티클레이션으로 만드는 의미소범주의 한 무리는 자연계의 기호체계 안의 원소와 상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분류범주 외소여와 내소여(exteroceptivity/interoceptivity)의 팀으로 분류될는지 모른다. 지나치게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때때로 이러한 범주의 명목은 “세미올로지적/의미론적”(semiological/semantic)으로 대체되는데, 그것은 그 스스로 어떤 애매성을 창조한다.



위와 같이 승인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범주들이 비표상적(또는 추상)으로서의 내소여라고 한다는 것을 추리하도록 제안한다. 2. 따라서 내소여의 팀에 의해 에워싸인 의미론적 분야는 언어 세계의 이론적 쟁점이 자리를 잡고 있는 장소이다. (역주)

확실한 방식으로 동차화될 수 있다.

그때 분류법적인 것으로 기술된 사각형과 범주는 가치화되었다고 언급될 수 있다.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그래서 동정된 그리고 내재 정의된 팀은, “가치(value)”의 소쉬르의 의미 안에서 단순하게 기술적인 또는 언어학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즉 가치론적인 가치로 호칭될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은 이렇게 추상적인 레벨에서 내포가치의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술적인(descriptive)” 레벨의 “방향적인” 범주의 적용이 지각차원의 분류법적인 것을 보다 상위의 가치론적인 것으로 변형시킨다고 언급할 수 있다.

노트: 유감스럽게도 동음이의어(homonymies)가 기호학적인 존재자의 다양한 모드 /내포성(virtuality)/-/외연성(actuality; 선언)/-/실현성(reality; 연언)/을 정의하고 있는 그 팀의 지시로 무심코 도입되었다. 한편, 보편적으로 기호학적인 구조의 다양한 심층레벨을 구별하기 위하여, 우리는 심층구조를 내포적인(virtual) 것이라 하고, 기호현상-화술적인 구조는 외연화된 것(actualized; 선언)이라 하며, 담화적인 구조를 /실현화(realizing; 연언)라고 한다. 다른 한편, 양태적인 언어능력의 획득으로 만들어진 실행(doing) 주체의 양태화의 다양한 진전·변화의 상(相, phases)을 지시하기 위하여, 양태성은 내포화(virtualizing) 즉 실행요망(wanting-to-do)과 실행의무(having-to-do)로, 외연화(actualizing; 선언) 즉 실행의무(having-to-do)와 실행-노하우(knowing-how-to-do)로, 실현화(realizing; 연언) 즉 존재원인(causing-to-be)으로 분할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동의 상황은 전자 사이에서 비교적 드물다. 182)

전환의 문제

우리는 팀 전환(conversion)이 표층구조에 속하는 단위의 레벨에 정위된 기호학적인 단위의 추이로 고찰하는 변화과정의 전체 세트를 지시한다고 독자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것이다. 이 새로운 단위는 이전의 것과 상대적으로 동차대체론(同次大體論, homotopic)과 동질이형(同質異形, heteromorphic)으로 존재한다

182) 양태성에서 인용된 다음 도표와 다시 비교해 보면, 외연화(actualizing; 선언)는 능력(being-able)과 지식(knowing)이다. 그러므로 외연화(actualizing; 선언) 즉 “실행의무(having-to-do)와 실행-노하우(knowing-how-to-do)”가 아니라, “외연화 즉 실행능력(being-able-to-do)과 실행-노하우(knowing-how-to-do)”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역주)

언어능력(competence)		언어연기(performance)
내포화의 양태성 (virtualizing modalities)	외연화의 양태성 (actualizing modalities; 선언)	실현화의 양태성 (realizing modalities; 연언)
의무(필연, having-to) 요망(결여, wanting)	능력(being-able-to) 지식(knowing)	존재원인(causing-to-be)

고 고찰된다. 즉 그것은 동차대체론적인 내용을 에워싸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다른 것보다 더 많은 의미작용을 하고 있는, 통사적인, 또한 철저하게 미론적인 아티큘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고찰된다.

우리가 가치론에 편입된 가치의 지위를 지속시키는 것으로 존재하는 그 순간에 초점을 맞출 것인 그 가치론에 편입된 가치의 전환, 그리고 그들의 외연화는 가치를 떠맡고 있는 주체에 의해 발생되거나, 가치와 주체 사이의 관계의 어떤 유형의 확립에 의해, 결국 동일한 것이 되는 것으로 발생된다.

가치론적인 가치는 심층레벨(방향적인 틱에 의해 과잉 결정된 의미소적인 틱)에서 2개의 원소를 소유하는 것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전환의 이러한 절차의 2개의 양상은 따로따로 마음속에 그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

1. 의미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호사각형 안에서 선택될지도 모르는 의미소적인 틱으로 고찰된 가치는, 그들이 주체와 함께 속행하는 접합관계에 의해 정의된, 대상으로 호칭된 통사론적인 실재물 안에 투자될 때, 전환된다고 언급할 수 있다.

2. 그들의 방향적인 양상으로부터 고찰된 가치의 전환은 매우 보편적인 성질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방향적인 공간(thymic space)과 양태적인 공간(modal space)

전환의 이러한 유형은 우리가 다음처럼 형식화될 수 있는 일반 가언을 공리로 간주하는 것을 요구한다. 즉 심층구조의 레벨에서 방향적인 범주의 증명사에 의해 아티큘레이션이 된 그래서 의미작용을 하고 있는 공간은, 표층의 기호학적인 구조의 레벨에서 주체와 대상 간의 관계를 통제하고 있는 양태적인 아티큘레이션의 총체성에 관한 한 동차대체론과 동질이형으로 고찰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왜냐하면, 그것은 이러한 인식론적인 공준으로 해명하는 것이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그 방향적인 공간(thymic space)은 추상적인 구조의 레벨에서 그것의 환경(/생물/)에 관한 한 살아있는 존재(내관, being)의 기본적인 표출로 추측되며, 생성궤도의 표층레벨에서의 신인동형동성적인 것은 양태적인 공간과 상응하고, 반면에 그렇게 양태적인 공간이면서도 원칙적인 공간을 떠맡고 있는 그것은 종의 진화로, 전자의 초월 아티큘레이션으로(그리고 틱 /인간/과 연결될 수 있는)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는 가치의 전환이(기호사각형 안에서 선택된, 그리고 가치로서의 대상으로 명기된, 의미소적인 팀의 도전에 부가해서) 또한 주체와 대상을 연결하고 있는 관계로 투자된 그 방향적인 팀의 선택을 포함한다고 언급할 수 있다. 또한 기호학적인 것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주체를 정의하고 있는 주체와 대상 간의 관계는 “의미의 과잉”으로 에워싸이고, 주체의 존재(내관, being)는 이중적인 방식으로 양태화 된다.

따라서 양태화는 무정형의 방향덩어리의 일련의 의미작용을 하고 있는 하위 아티클레이션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러한 덩어리는 우선 무엇보다도 심층 레벨에서 방향적인 범주로 구성되며, 다시 한 번 그것은 신인동형동성적인 레벨에서 양태범주로 특수화된다. 이렇게 연속적인 범주화에 의해 획득된 양태적인 형태(초미-화술)는 보편적인 그리고 구성된 존재(내관, being)로서 동시에 고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직관적인 형적(항상 의심스러운 것으로 존재하는)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결코 확신할 수 없는 자연언어에 의해 그들의 어휘화가 귀납적으로 분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기호현상-화술문법의 통사론적인 기준만이 그들을 겉으로 판별하는 것과 그들을 안으로 정의하는 것 양쪽으로 설립될 수 있기 때문에 구성된다.

따라서 그것은 보다 높은 표층레벨에서 4개의 양태범주가 방향적인 범주와 상응하는, 그리고 예를 들어 마치 /행복감(euphoria)/과 같은 방향적인 팀이 그것 안에서 통사론적인 구조의 결합체적인 정향을 4개의 명확한 양태적인 팀 /요망(wanting)/, /의무(having-to)/, /능력(being-able-to)/, 그리고 /지식(knowing)/으로 고찰하는 것에 의해 전환될 수 있다고 언급할 수 있는, 오로지 그 가언적-연역적 투시도법으로만 존재한다.

노트: 우리는 신인동형동성적인 구조(의미작용-화술적인 표층구조)의 레벨에서 그것이 통사론적인 구성을 위한 시발점으로서의 분류법적인 조직으로 발견되는 것에 대해 놀라지 않아도 된다. 거기에는 주체와 대상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의되지 않으면 안 되는 주체와 대상을 확립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는 양태범주는 물론 행위주적인 구조(양가성의 갈등 등을 회피하는 방어기체로서의 행위주와 부정-행위주로 분열하는 최초의 파편)가 존재한다.

양태적인 언어능력과 양태적인 존재자

제8장 존재(내관, being)의 양태화에 대하여

1.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면, 관계는 단순하게 그들의 종착점으로 존재하는 텀으로 비교된 제1의 원리로 고찰되며, 그 종착점은 다른 관계와 함께 교차점으로 인식될 수 있다.

2. 통사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관계는 기본발화(실행발화와 상태발화)의 구성으로 존재한다.

3. 끝으로, 이러한 발화의 양태화는 발화의 구성관계(접합으로 호칭된)와 관련된다.

따라서 그들이 변용하는 관계의 성질에 따라 우리는 두 종류의 양태화와 동시에 2개의 양태성의 강류, 즉 고의적인 관계를 통제하고 있는 실행의 양태성과 존재자의 관계를 통제하고 있는 상태의 양태성을 최초로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트: 우리는 양태화가 통사론적인 작용, 즉 기술하도록 전제된 발화를 선행한다는 것을 관측할 수 있다. 실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선 무엇보다도 “실행능력(be-able-to-do)”을 가지고 있다. 주장의 작용과 부정의 작용은 주장 또는 부정하는 요망과 능력을 전제한다. 같은 방식으로 가치의 대상은 연언과 선언의 작용으로 멋대로 “요망되고,” 또한 그들을 선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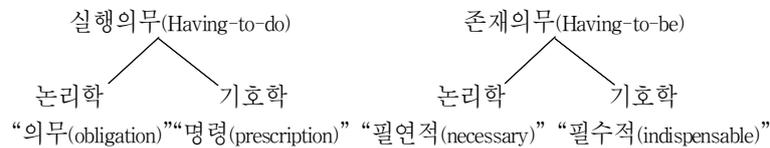
다른 한편, 정전적인 발화(예를 들어, “여자재봉사가 일하고 있다”; “젊은 부인이 바느질을 하고 있다”; “그녀가 바느질을 하고 있다”) 안에 투자되고 주연된 그래서 의미론적인 충전방식의 관찰은 기호학자들이 발화의 구성원소의 어떤 것인가에 의존함으로써 이렇게 보충적인 따라서 “의미론적인 충전”으로 형식화하고 있는 그들 자신의 메타언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양태화는 때로는 그 자신의 관계-함수로, 때로는 주체 또는 대상으로 처신한다고 언급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실행의 양태성이 실행주체의 지위의 양태화로, 그것의 양태적인 언어능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양태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할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존재(내관, being)의 양태화는 가치대상의 지위의 변용으로 고찰될 것이다. 대상(또는 오히려 그 속에 투자된 가치)에 영향을 주고 있는 양태성은 상태의 양태적인 존재자의 주체로 구성된다고 언급될 것이다.

노트: 이러한 편차가 양태성의 메타언어적인 형식화를 촉진시키기는 하지만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러면서도 그들은 양태적인 현상의 직관적인 포착과, 그리고 텍스트

적인 분석으로부터 얻게 된 경험과 동등하게 잘 상응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실행주체는 가동자(시험자)로, 실행의 잠재적인 것의 모든 것을 축적하고 있는 그 외연적인(행위적인) 원소로, 나타나고, 반면에 상태주체는 수동자(수난자, patient)로 나타나며, 그것을 에워싸고 있는 대상 안에 명기된 세계의 모든 자극을 피동적으로 수용한다.

그러므로 양태논리학으로부터 양태기호학을 분리하고 있는 그 편차를 폭로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호학이 주체(실행의)의 양태적인 언어능력과 가치대상(상태주체를 정의하고 있는)의 양태적인 존재자를 결정하고 형식화하는 데 집중하는 반면에, 논리학은 양태화가 배타적으로 명제(즉,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관계)와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명제적인 관계로 변용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만 오로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 다음의 예는 이렇게 이원적인 변화과정으로부터 뽑아낼 수 있는 결과를 고찰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다.



반면에 비-망각의(alethic) 논리학에서의 주체와 대상(오히려 빈사) 간의 관계는 “필연적(necessary)”으로 정의되고, 기호학에서의 /존재의무(Having-to-be)/는 가치대상과 관계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상태주체를 위하여 “필수적인(indispensable)” 것으로 그래서 이중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마찬가지로 의무논리학에서의 “의무(obligation)”는 두 주체(또는 2개의 행위주적인 실체) 간의 관계로 해석될 수 있다. 기호학에서의 “필수적(indispensable)”은 주체에 의해 “통절히 느껴지는(felt)” 실행의무(Having-to-do)로 존재하며, 또한 그것은 주체의 양태적인 언어능력의 일부로 존재하고, 반면에 그 발신자(이러한 “명령[prescription]”의 기원은 작위적인 /실행(doing)/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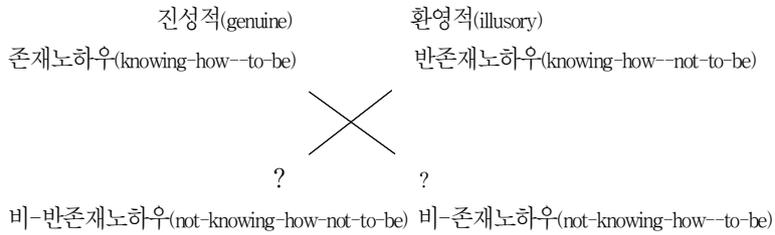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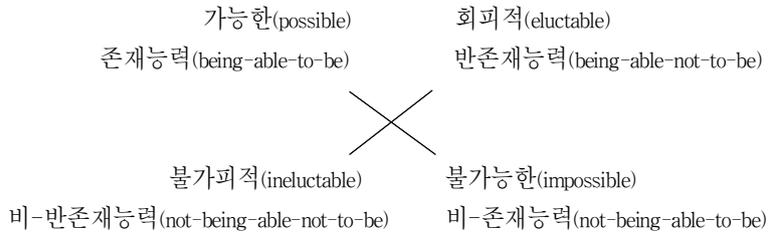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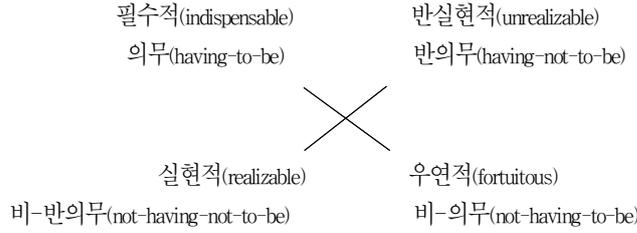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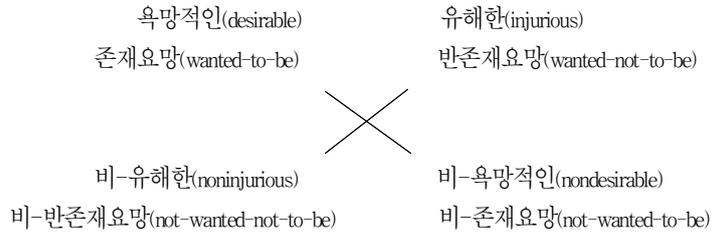
우리는 그들이 각각 다르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2가지의 접근방식이 그들 자체 안에서 모두 합리적이라는 것을 고찰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가 상태발화로 취급하고 있는 한 매우 명확하게 체류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행발화의 양태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동안 서로 다른 것과 혼동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첫눈에 그 기호학적인 변화과정은 보다 더 “복잡 미묘하게 만들어진(sophisticated)” 것 같이 보일지도 모른다.

양태구조와 그들의 지시 (designation)

실행의 양태성은 먼저 면밀히 검토되었지만(제7장을 보라), 실행상태의 양태화는 어떤 무엇을 간과했다. 그들의 취급은 오로지 이탈된(disengaged), “객관화 된” 발화에만 초점을 맞춘 논리학에서의 위치를 획득한 것과 부분적으로 혼동되었다. 이탈(담화레벨의 아종적인)의 발화로부터 양태성(화술레벨에 정위된)과 관련된 문제를 분리할 필요는, 정념의 새로운 불확실성의 출현과 마찬가지로 매우 강직했던, 그리고 인접 분야 간의 경계를 보다 더 좋게 정의했던 어떤 형식화를 탐구하도록 우리에게 강요했다. “정념(passion)”을 기술하는 것의 바로 그 가능성에 관한 우리의 조사는 일종의 심리기호학의 방향에서 기호학의 연구를 실제적으로 강력히 추구하게 되는 것 같으며, 반면에 논리학자들이 이러한 영역으로 자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추구하여 들어가는 것을 상상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상태발화를 변용할 수 있는, 그리고 양태적인 통사론을 위한 분류법적인 네트워크로 기여할 수 있는 4개의 양태범주를 구성하고 있는 그 기호사각형상에 그들을 투기할 수 있는 4개의 양태성을 획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우리가 비록 이것이 독단적이라고 하는 그 정의에 의해 인식하게 되는 것이라도, 그 팀의 실제명목은 문제를 제기한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하여간 어떻든지 간에 명목은 어떤 해석을 포함한다. 잘 “동기가 부여된” 명목은 해석의 사용을 자연언어로 촉진시키며, 메타언어가 없는, 다시 말해서 동기가 부여되지 않은 해석의 사용은 자연언어를 벗어날 수 있다. 어떤 연구에 의해 실천된 단하나의 용어법적인 생산은 양태성의 결과를 좀처럼 제공하지 않는다. 우리가 비록 다음의 예처럼 어떤 명목을 제안하고 싶을 지라도, 텍스트 분석의 실천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용어위원회”에 이 과제를 양도해야만 한다는 것을 보편적으로 수용할 것인가 그 여부를 선택해야할지도 모른다.



명목에 관한 노트:

제8장 존재(내관, being)의 양태화에 대하여

1. 가치대상에 관한 양태화에 대해서 언급한다면, 우리는 대상의 “피존재요망(wished-for-being)”으로서의 /존재요망(wanting-to-be)/으로 당연하게 해석하고 싶다고 언급할지도 모른다. 불행하게도 프랑스어는 이러한 “수동적인 변형”에 그 자신을 빌려주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의무(having-to-be)는 “피존재의무(having-to-be-had)”가 아니다.
2. 그들이 주체에 관하여 “양태화된” 대상으로 한정하는 바로 그 사실에 의해 접미사 “-able”과 “-ible”을 소유하고 있는 형용사는 역으로 용어법적인 작용과 잘 일치하는 것 같다.
3. 선택된 그 명목은 논리학에서 사용된 명목과 반드시 다르게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양태구조의 해석은 비록 부적당하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행의 양태화를 검토하고 있을 때 조우했던 상호작용의 동일 거동을 이끌어내는 주요핵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래서 명목을 부여하고 있는 어휘화 때문에 위치를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요망(wanting)/과 /의무(having-to-be)/의 내포화의 양태성은 대상가치의 지위를 보다 더 높게 결정하는 즉 상위의 인식론의 차원에서 결정하는 /능력(being-able)/과 /존재노하우(knowing-how-to-be)/의 보다 더 “대상적인” 외연화의 양태성보다, 주체에 보다 근접한 그래서 보다 더 “주체적인 것” 같이 보인다.

같은 방식으로 실행의 양태성을 위해 렌스토프(Michael Rengstorf)¹⁸³에 의해 제안되었던 내인성의(endogenous) 양태성(/요망/과 /능력/)과 외인성의(exogenous) 양태성(/의무/와 /노하우/) 간의 편차는 여기서 작용적인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욕망(desire)과 요구(needs), 그들의 실현가능성과 대상 고유의 저항을 구별하기 때문이다.

양태화된 가치

이렇게 재검토한 뒤에, 우리는 가치대상과 함께 시작하고 있는 그래서 가치라고 호칭하는 것의 그 방향이 사실 양태구조라는 것을 관측할 수 있다.

$$V = me(s)$$

183) Michael Rengstorf, "Pour une quatrième modalité narrative," *Langages* 43(1976); 71~77.

"s"는 전환할 때 선택된 의미소적인(semic) 실재물(entity)을 지시하고, 양태 구조 "me"에서의 "m"은 선택된 양태성 중의 1개를 지시하며, "e"는 양태화에 의해 변용된 실존관계(existential relation)를 지시한다.

노트: 우리가 글씨를 쓸 때 아마도 가치론적인 가치를 위한 상징기호로 사용된 하위-진술(lower-case)의 소문자 "v"와 기왕에 양태화된 가치를 지시하고 있는 상위-진술(upper-case)의 대문자 "V"를 구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게 양태화된 가치는 상태발화의 행위주 그 자체인 대상 안에 명기되어 있으며, 그때 그것은 실행주체(동일한 연기자 안에서 혼합적으로 정위된, 또는 자율적인 그리고 명백한 연기자에 의해 표현된)에 의해 실행된 집합(연언과 선언)의 작용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예를 들어 가치의 /욕망적인(desirable)/ 대상은 상태주체와 결합되든지 또는 분리되든지 하여간 어떻게 되든지 간에 될 수 있다. 이러한 투시도법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상태주체가 어느 순간에 섭동(攝動¹⁸⁴)될 수 있고, 실행주체인 연기자로서의 그 자체에 의해서든지 또는 동일한 시나리오의 실행주체인 또 다른 연기자에 의해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 발생된 변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양태존재자를 소유한다고 언급할 수 있다.

잠정적인 결론

연구의 이러한 단계에서, 우리가 실행의 양태화와 존재의 양태화 간의, 양태적인 언어능력과 양태적인 존재자 간의, 일종의 균형을 확립하기 위하여 방금 실행했던 해명의 모든 결과를 동정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너무 서두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참가하고 싶은 약간의 소견은 살아있는 것의 철회하는 그 거드름 부림에 조명을 비추고자 기도할 뿐이라는 것이다.

존재(being)의 양태화가 의미소적인 실재물과 관련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은 하여간 어떤 "s"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2개의 사태, 다시 말해서 투자된

184) 섭동(攝動): ① 태양계의 천체가 다른 행성의 인력으로 타원궤도에 변화를 일으키는 일
② 역학계에서 힘의 작용에 의한 운동이 부차적인 힘의 영향으로 교란되어 일어나는 운동. (역주)

가치가 상수로 획득된 양태구조의 변이로 존재하거나, 이러한 양태구조가 모든 의미론적인 투자의 독자적인 그리고 단기지속적인 소인(素因)으로 고찰되거나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 그 2개의 사태를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어휘소 “사랑”은 그와 같은 양태구조의 의미효과를 지시하는지도 모르며, 반면에 “허욕(avarice)”은 그 위에 추가해서 의미론적인 투자로서의 돈(그것을 아종으로 분류하는, 다시 말해서 “A=B”라고 하는 또 다른 제한의 진술 없이)을 소유할지도 모른다.

투자된 의미소의 실재물이 “있는 그대로 꾸밈없이” 또는 “사회적으로” 아종적인·방향적인 언외지의(connotation)로 사전에 태어난 것 같은 그 사실은 다시 말해서 그 양태화는 조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결코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의미소적인 텀 /삶(life)/은 /욕망적(desirable)/ 또는 /비-욕망적(nondesirable)/으로 양태화되지만, 그 /삶(life)/이 동일하게 /삶(life)/ 그 자체로 표현되었지만, 반대의 /죽음(death)/이라고 하는 언외지로 언급될 수도 있다. 동일한 현상이 범주 /자연(nature)/ vs /문화(culture)/의 추가삽입의 대분과 같은 논법(treatment)으로, 또는 원소적인·격아강적인 가치론 /불-물-공기-땅/의 외연화의 가치안정책으로 관찰될 수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모과상에 관한 우리의 분석을 보라).¹⁸⁵⁾ 우리는 상태주체의 양태구조가 떠맡은 가치체계를 재범주화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

가변성의 실재물로 투자된 가치에 대해 언급하자면, 그것은 기술적인 가치(엄밀히 말해서, 의미론적인 가치)와 양태가치를 위해 동일한 라벨을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존재(being)의 양태화는 가치의 2개의 강류를, 예를 들어 마치 /지식(knowing)/과 /능력(being-able)/과 같은 양태가치는 그 위에 부가해서 /욕망적(desirable)/, /불가피한(indispensable)/, /가능한(possible)/, 또는 /진리(true)/로 겹쳐진 초월양태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와 같이 그 2개의 강류를 떠맡을 수 있다.

게다가 우리는 대상 안에 투자된 소정의 가치가 몇 가지 양태성에 의해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즉각 양태적으로 초월결정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실행의 양태화에 대한 관심과 함께 양태적인 조우에 관하여 언급했던 것은 여기서 진리를 계속 유지한다. 첫 번째 경우에(병존), 우리는 양태적인 일치(가

185) A. J. Greimas, Maupassant. La Sémiotique du texte: Exercice pratiues(Paris: Le Seuil, 1976).

치대상은 주체에 의해 /욕망적(desirable)/과 /불가능한(impossible)/으로 동시에 고찰될 수 있다)의 값을 구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두 번째 경우에(연속, 양태적인 주체의 설화(어쨌든 그 속에 결합체적인·양태적인 스테레오타입이 있는)는 기술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설화가 담화측면에서 기왕에 발견된 것이라는 것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견해는, 주체가 단순한 대상가치뿐만 아니라 몇 가지 가치를 양태관계로 동시에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그리고 전자의 양태존재자가 충돌가치를, 부동산가치의 가치에 필적할만한 가치상의 인식적인 그리고 피신탁의 교차점적인(fiduciary) 의문부호를 발생시킨다고 하는, 다소간 일상적인 관찰과 관계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주체는 부동산의 전채하는 거드름 부림의 긴장 안으로 편입되며, 따라서 그것은 평범한 상태의, 언어능력이 없는 상태의 중립주체로 언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정의에 의해 상대주체는 괴롭힘을 당하는 주체가 되고, 실행주체는 너울거리며 진동하는 주체가 된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이렇게 양태적인 혼란 속에서 의미를 언급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주체를 위한 연기와 정념의 의미심장한 시퀀스를 확립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그래서 양태적인 동류체와 그들에 관한 담화화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제9장 분노에 대하여: 어휘의 의미론적 연구

서론

방법론적인 선택

분노(anger)에 관한 문제의 고찰을 마음속으로 보충하여 해석할 때 어휘소적인 차원을 선택하는 것은 편의적인 선택을 의미한다. 어휘소는, 그들을 분석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복잡한·담화적인 그리고 화술적인 구조를 숨기고 있는 계약·응축으로 흔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판이 나있다. 확장의 담화-진술 안의 존재자는 우리에게 결코 교란되어서는 안 되는 그러면서도 다소 영성하고 방산적인 방식으로 동일 구조를 재생산한다. 아니 정반대이다. 그것은 오로지 차원 안에서의 편차의 문제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어휘소적인 기술은 이차적인 담화분석을 예기할 수 있는 모델을 경제적-유기적인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관측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러한 기술은 프랑스 문화의 화맥 안에 정위된다. 그렇게 획득된 모델을 생성함으로써 이러한 화맥을 초월하는 방법과 증명사는 이탈의 문제를 만들어낸다.

역으로 정념의 이론을 성립함으로써 대개 고대철학자에 의해 획득된 분류법적인(taxonomic) 그리고 분급상의(classificatory) 접근은 명백히 결합체적인 그리고 확실히 통사론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정념 문제의 고찰(예를 들어, “대상정념” 중의 하나로 인식된 탐욕[greed])은 분노와 같이 “복잡한” 정념과 함께 우리가 상태(state)와 실행(doing)의 상호쟁취에 의해 구성된 담화시퀀스로 취급하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떠맡고 있는 프래스틱적인 모델을 공준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는 반면에, 우리는 자율적인·결합체적인 원소를 동정하기 위하여 그것을 분리하지 않으면 안 되며, 우리가 그것을 정의함으로써 얻게 될 정념적인 형태(초미-화술, configuration)로 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이 연구를 좌우하는 분노(프랑스적인 분노!)를 위해 그러한 형태의 확립으로 존재한다.

일자일어법적(lexigraphic)¹⁸⁶ 접근

만약 우리가 분노를 위해 사전적인 정의를 취하게 된다면(편의상 변함없이

Petit Robert의 사전을 적용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의미가 될 것이다.

“호전성이 동반된 격렬한 불평”

우리는 추정된 시퀀스 분노의 중심관점으로 어휘소 “불평(discontent)”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그것이 “애처로운 감정”으로 정의된 정념상태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때 이러한 중심어휘소는 사전에 발견되어 선행하는 것(즉, 좌절감)과 뒤에 정위되어 분노(즉, 호전성)를 동반하는 것을 낱낱이 고찰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왜냐하면 불평(그리고 다시 한 번 우리는 사전에 의지한다)은 “인간의 희망과 인간의 권리 안에서 좌절된 존재의 애처로운 감정”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초의 접근으로서, 우리는 분노가 다음과 같은 연속으로 존재하는 시퀀스가 되어 나타난다고 언급할 수 있다.

좌절감(frustration) → 불평(discontent) → 호전성(aggressiveness)

앞으로 더 나아가 보자. 만약 주체(화를 내게 될 것인 것)가 그의 “희망(hopes)과 권리(rights)” 안에서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면, 이러한 좌절감의 상태는 보다 좋게, 논리적으로 전제하는, 주체 안의 비-좌절감의 선행상태가 선행했던 것일 것이며, 역으로 희망과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좌절감에 선행하는 “본래의 상태(original state),” 즉 우리가 고찰하는 정념의 시발점(ab quo)의 상태를 발견한다. 우리가 관측하게 됨으로써 최종상태의 그 문제는 전혀 다른 팀으로 포즈를 잡게 될 것이다.

예기(expectation)

전개된 것 같은 분노의 정념적인 설화로부터 야기된 본래의 상태는 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강력하게 양태화된 주체의 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좌절시키다(to frustrate)”라고 하는 동사의 정의를 찾는

186) “일자일어법(一字一語法, lexicographic) vs 비-망각(alethic)”을 비교하여 볼 것. (역주)

다고 한다면, 다음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좌절시키다(to frustrate)”는 “어떤 사람의 재화를 박탈하는 것, 특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떤 대상가치로부터 병존설의 삼위일체와 같은 위격(位格, person)의 선언(選言)으로 분리하거나 그 상태를 지속시키는 것이다.
2. 그러나 정의는 계속된다. “어떤 사람의 재화를 박탈하는 것 또는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것에 대하여 “그가 권리를 소유하는 것”이며, 그가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다.

이것은 가치대상과 함께 주체를 관계로 더 이상 지시하지 않는 것이지만, 다른 주체와 함께 유사-구성적인 관계(파괴된 바로 이러한 사실로 존재하는 것)로 지시된다.

이때 좌절된 주체의 “권리”와 “희망”을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피하고, 사전이 좌절시키다(to frustrate), 즉 실망시키다(to disappoint)를 위한 유의어(parasynonym)로 제공하는 것을 고찰하고 있는 일자일어적인 절차로 되돌아가자. 이제 “실망시키다(to disappoint)”는 “예기의 결핍”으로 정의되며, 그것은 “권리”와 “희망”과 좌절된-실망된 주체의 “예기(expectations)”를 포함하기에 광대하고 충분한 정의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또한 그것은 어떤 무엇으로 우쭐거리며 과장된 텀 “예기”를 순조롭게 반제(反濟, replace)하는 공통 텀 “예기”로 우리에게 제공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토된 정의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는 좀 더 주의 깊은 탐구, 즉 두 종류의 예기로 추구하고 있는 것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1. 주체를 대상가치와 상대적으로 배치시키고 있는 단순예기(simple expectation)
2. 다른 주체와 함께 양태관계를 그 위에 떠맡고 있는 피신탁의 교차점적인 예기(fiduciary expectation)

단순예기(simple expectation)

상호주관적인 피신탁의 교차점의 관계를 잠시 제쳐놓고, 우리는 우선 무

엇보다도 최초의 단순예기가 주체의 모든 양태화와 관련된다고 언급할 수 있으며, 그것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성격으로 만들 수 있다.

/피결합-요망(wanting-to-conjoined)/

예를 들어, /피결합-요망(wanting-to-conjoin)/의 텀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탐욕적인(greedy)” 주체와 또 다른 주체가 구별되며, 그 양태적인 언어능력은 이를테면 실행(doing)의 화술프로그램(NP) 같은 것 안에 명기된다. 따라서 허욕(avarice)에 의해 묘사된 연기의 정념과 함께, 우리는 여기서 지시의미에 따라 행동하는 정념, 즉 단어의 전통적인, 어원론적인 의미의 정념과 조우한다. “행동하다(연기, to act)” vs “지시의미에 따라 행동되다(to acted upon)”가 실행주체(subject of doing)와 상태주체(subject of state) 간의 장기간 확립된 편차와 함께 동차관계로 정위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한다. 그들이 함수 작용을 하고 있는 그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쉬기로 하자. 우리가 양태화된 실행주체에 관해, 즉 연기에 속박되는 것과 같은 주체에 관해 언급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주체가 외연화되었다고 언급한다. 언어연기를 추구하고 있는, 그 실행(doing)은 연속적인 것이 되며, 우리는 그것을 실현된 주체라고 언급한다. 그러나 이렇게 실현된 주체는 그것의 대상과 함께 결합된 상태주체이며, 실행주체가 아니다. 그때 우리는 상태주체의 “상태”가 실행주체의 외연화의 순간에, 즉 그것이 가치대상과 함께 아직 연언(連言)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러나 이러한 연언을 욕망하는, 실행주체로서가 아닌, 그러나 연언이 실행주체에 의해 만들어지기를 열망하는 상태주체로서의 그 순간에,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우리에게 적절히 질문할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상태주체는 그들이 실현되기 위하여 /피결합-요망(wanting-to-conjoined)/과 함께 양태적으로 외연화된-부여된, 즉 가치대상과 결합된 모든 것으로 존재하며, 그 연언은 그것의 기호학적 존재자를 보증한다.

노트: /피결합-요망(wanting-to-be-conjoined)/과 함께, 우리는 /피결합-의무(having-to-be-conjoined)/를 위한 병치적인 정향(定向, position)과 쉽게 어울리게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숙명적으로 어휘화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위된 대당에 의해 꽤히 성격이 만들어진, 상태주체가 최

초의 2개의 정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이미 관측했다.

1. 기호현상-화술적인 레벨에서:
/선언(disjunction)/ VS /연언(conjunction)/
/외연화된(actualized: 선언)/ VS /실현된(realized: 연언)/
2. 담화적인 레벨에서:
/긴장(tension)/ VS /이완(relaxation)/
“예기(expectation)” VS “만족(satisfaction)” (?)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핵심은 무시될 수 없다. 실행주체의 궤도와 의 병치는 언어능력의 획득과 언어연기의 성취를 연결하여 구축했으며, 우리는 그것을 상하로 연결하여 구축된 “감정상태(feeling state)”의 연속으로 묘사된 상태주체와 비교되는 궤도로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분적으로 예기의 정념은 다음처럼 형식화될지도 모른다.

$$s_1 \text{ 요망(wanting) } s_2 \rightarrow (s_1 \cap o_p)$$

그것에 의해 s_1 은 상태주체와 실행주체, 즉 대상가치 s_2 와의 연언으로 존재한다.

노트: 그것이 비록 자명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실행주체가 상태주체로서의 동일한 연기자 안에 명기되든지 또는 각각 분리된 연기자로 구성되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만들어진다는 것을 명백히 알아차리자.

피신탁의 교차점적인 예기(fiduciary expectation)

이제는 지시를 전환하고 좌절감에 선행하는 상태주체를 재검토하는 것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실 그 주체는, 한편으로 대상가치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 실행주체와 함께 상태주체로 지속된 이원관계에 의해, 요약된 양식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사전적인 정의에 따라 성격이 만들어졌다. 우리는 이러한 최종관계가 상호주관적이고 양태적인 성격이었다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언급했다.

실제로 그 주체의 예기는 단순한 기원이 아니다. 그것은 언외지언의 확신

(confidence)¹⁸⁷의 배경 막과 대비하여 명기된다. 상태주체는 “예기”와 “권리”를 실현하는 실행주체 상에 그것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 만약 “권리”를 발생시키고 있는 관계의 계약·응축적인 성질이 명백하다고 한다면, 예기사실의 의무적인 성질은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고찰될 것이며(육망된 것),” 또한 우리가 어휘소의 표층 아래를 긁어모으자마자 곧 나타날 것이다. 어떤 경우의 그것을 다른 경우로 솔직하게 언급하도록, 우리는 의무적인 양태성 즉 실행주체에 귀속된 /실행-의무(having-to-do)/의 현존재로 기록하도록 유도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계약·응축이라고 언급할 수 없고(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은 “계약·응축하고 있는” 양쪽의 일부를 보증한다), 오히려 비밀계약·응축 또는 가짜계약·응축이라고 언급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어쩌면 상상적인 계약·응축을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왜냐하면 그것의 귀결(오히려 그것의 인식)에서 실행주체는 결코 보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무적인 주체의 양태화는 상태주체의 “상상력”의 산물이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분석가의 주의를 거의 끌어내지 못했던 기호학적 능동성의 새로운 차원을 취급하고 있다. 그것은 시물레이크러(simulacra, 환영)의 구성과 관련되는데, 주체가 그 자신을 이렇게 상상적인 대상으로 투기하는 것이며, 사실상 그들이 상호주관적인 기초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상호주관적인 행위를 결정한다. 그러나 그것이 타자와의 언외지언의 확신의 문제이든지 또는 자신과의 언외지언의 확신의 문제이든지 하여간 어떤 것이든지 간에(상태주체와 실행주체가 출현될 때), 우리는 주체와 구성된 시물레이크러 간에 확립된 피신탕의 교차점적인 관계를 취급하고 있는 것이지, 상호주관적인 관계를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노트: 언외지언의 확신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으로 존재할지 모른다. 그것은 “순간의 자발적인” 것으로 존재하든지 또는 반복된 경험에 의해 기초가 만들어진 것으로 존재하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 존재할지 모른다. 이것은 시물레이크러 구성에 관해 따로따로 확인된 문제이지, 그것의 상호주관적인 사용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주체와 그 자신을 위해 만들었던 시물레이크러 간의 피신탕의 교차점적인

187) confidence: 확신, 비밀, 속내말(언외지언), 이 세 가지 의미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역주)

관계에 명목 “믿음(belief)”을 부여함으로써,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합된 요망 /뿐만 아니라,

$$s_1 \text{ 요망(wanting)} s_2 \rightarrow (s_1 \cap o_v)$$

동시에 실행주체의 연언의무 안에서 교리(敎理, faith)로서의 형식 만들기를 시도할 수도 있다.¹⁸⁸⁾

$$s_1 \text{ 신앙(believing)} s_2 \text{ 의무(having to)} \rightarrow (s_2 \cap o_v)$$

실현화(realization; 연언)

만족(satisfaction); s_1 의 정념적인 상태(예기로 호칭된)는 s_2 의 개입으로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별개의 불확실한 문제(아량과 해로움, 속임과 진실 등의 문제)로부터 유래되는 실행주체의 정념적인 지위는 화술프로그램(NP)의 프레임 안에서 귀

188) "belief vs believing": 전자는 지각차원 즉 지식의 믿음, 후자는 연외지언의 확신(confidence)으로서의 신앙이다. 이들은 상호주관적이다.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SEMIOTICS and LANGUAGE」(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9), p. 24~25. believing (croire); 신앙; 1. 상태발화에서의 주체의 수용(acceptance)으로서, 신앙(believing)은 확실성의 양태범주에 의해 과잉 결정된 인식행위로 보인다. 이러한 범주는 논리학적 그리고 기호학 상 당대의 글쓰기 안에서 이원적인 해석(twofold interpretation)을 소유할 수 있다. 그때는 비-망각의(alethic) 범주로 획득된다. 그때 “가능성”의 동의어로서 신앙은 용어 “비-반존재의무(not-having-not-to-be)와 동정(同定)된다. 평소에 객관적인 확실성(certainty)은 자율적 인식범주로서 용어 주관적인 확실성(certitude)과 함께, “존재신앙(believing-to-be)”으로 획득된다. 도식 “가능한/불가능한”(어는 세 번째 텀을 포함하고 있는 범주적 대당을 구성하는) 그리고 도식 “개연적인/비개연적인” 사이의 기초요소의 편차 상에서 그것은 단계적 변화를 허락하며, 우리는 인식론적 범주를 위하여 자연언어의 명목으로 신앙을 바라보도록 제안한다. 2. 커뮤니케이션의 축(실체적 또는 내적 담화의 경우의 “이미지적” 커뮤니케이션) 상에서, “신앙”은 “믿음-원인(causing-to-believe),” 또는 설득(persuasion)과 대당이 된다. 그 자체로, “신앙”은 해석적인 실행(doing)을 성취하는 언외청자(enunciatee)의 영역과 상응하며, 반면에 “믿음-원인(causing-to-believe)”은 설득적인 실행(doing)의 책임 하에 언외화자에 의해 성취된다. 비록 만족할만하게 인정하는 정의가 아직 불가능할지라도, 해석적인 실행의 프레임의 관점은 해석적인 실행의 결과와 최종 생크션으로서, 그것과 관련된 좀 더 좋은 유출의 집합을 정의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사실 신앙은 단지 종교적인 신앙의 기초만은 아니다. 또한 그것은 또 다른 담화와 동시에 과학적 담화(최근에 고찰했던 분석처럼)의 엄격한 영역을 구성한다. 더 나아가 보편적으로 신앙으로부터 독립해서 표현될 수 없는 설득적인 실행으로서의 “믿음-원인(causing-to-believe)”은 교묘히 다루기(또는 조작, manipulation)의 주요한 형식의 하나를 구성한다. 따라서 신앙은 기호학적 탐구가 앞으로 다가 올 미래에 정위되어야만 하는 주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서 나타난다. (역주)

속(attribution)의 능동성으로 인하여 빈민하며, 계속해서 그 능동성은 상태주체의 실현화 또는 비-실현화의 효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프랑스어 안에서의 이러한 실현과 상태의 어휘화는 외관상으로만 혼동을 유도할 뿐 애매성으로부터 쉽게 해방될 수 있다.

만족(satisfaction);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으로서의 행위”

충족(contenting);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으로서의 행위”

사실 이와 같은 어휘소의 정의는 s_2 에 의한 어떤 양태화도 없이 순수상태 안에서 의무적인 실행으로 잘 돌아간다. 그러나 다른 하나의 어의소가 이 동일 어휘소적인 피복(被覆) 아래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s_1 과 관련된 그 결과로서의 s_2 의 연기를 지시하는 것일 뿐이다.

만족(satisfaction); “어떤 예기와 욕망, 또는 단지 갖고 싶은 것의 성취로부터 얻게 된 결과로서의 기쁨”

따라서 실행의 결과(가치대상과 함께 하게 된 주체의 연인)는 만족으로 호칭된 “기쁨(pleasure)”을 합산한다. /존재요망(wanted-to-be)/으로 성격이 만들어진 예기(/긴장(tension)/으로 지시된)의 연속은 이러한 “존재(being)”의 실현화로 존재하며, 우리는 /이완(relaxation)/을 /만족(satisfaction)/이라고 호칭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만족이 오로지 예기의 가능한 결과 중의 하나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인내(patience); 지금 당장 우리와 관련된 “정념”이 상태주체의 정념이라는 것을, 즉 수동자(수난자, patient)¹⁸⁹라는 것을 상기함으로써, 그것의 실현화 또는 비-실현화는 실행주체 또는 가동자(시험자)에 의지하게 되고, 순간적으로 우리는 인내(patience)의 변덕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정념과 동일한 어원적인 그리고 개념적인 친족에 속하기 때문이다.

189) “가동자(시험자, 즉 시험을 하는 자, agent) vs 수동자(수난자, 즉 시련을 받는 자, patient) vs 수령인(beneficiary)”을 참고할 것. (역주)

인내, 그것은 “평정을 잃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라고 한다. 인내는 예기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¹⁹⁰ 그것은 발단으로부터 귀결까지의 예기의 성격을 만든다. 우리는 외연화된 상태의 대상과 실현된(또는 비-실현된) 주체 사이의 공간 안에 충전된 것에 의해 그 인내가 예기와 동연(同延, coextensive)으로 존재한다고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내의 반의어 조급함(impatience)에 주목함으로써, 인내는 즉각 예기와 다른 어떤 것, 즉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과 대비되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기다릴 줄 아는 것”은 표층의 어휘소적인 표출이 아니다. 즉 심층의 그 인내와 상응하고 있는 그 표출의 양태성은 /지식-실행노하우(knowing-how-to-do)/(예를 들어, 팔이 저릴 때까지 양을 세는 방법)가 아니라, 그저 어휘소의 /존재능력(being-able-to-be)/일 뿐이다.

그 안의 인내와 조급함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양태성 /존재능력(being-able-to-be)/의 현존재가 자율적인 성향(性向, disposition)의 예기와 함께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반면에 예기는 즉 우발적인 정념은 보편성으로 존재하는 단기지속성(permanence)에 다시 말해서 상수의 신화에 초점을 맞춘, 그 예기 자체에 달라붙어 적용되는 어떤 것을 발견하는, 그것이 마치 만족의 지속적인 상태를 소유함으로써 다른 명목으로 살아남는 법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인내가 연좌된 주체 안에서의 화술프로그램(NP)에 의지한다.

그러나 수동자(수난자)의 인내에 관한 모든 문제는 궁지에 몰리게 된다. 즉 어떤 순간에 우리는 수동자(수난자)가 “조급하게 되고,” “인내가 바닥이 나고,” 결국 그 인내의 끝이 드러나고 마는가? 라고 언급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긴장과 이완이, 불안과 안락순간이 변증법적으로 교번(交番)하면서도 평형상태로 나타나는 말하자면 정념적인 삶이라고 하는 박편으로서의 아티클레이션에 관한 총체지속성(duration)의 중심에 투입하는 단속성의 도입의 문제이다. 두 관점의 경우(한편으로는 평형, 다른 한편으로는 예외)는 이러한 투입이 마음속에 떠오른다고 고찰할 수 있다. 즉 ① 그 경우의 수동자(수난자)로서의 주체는 실행상태의 화술프로그램(NP)의, 이러한 프로그램의 일어날

190) “기다리다(to wait)”는 프랑스어로 “attendre(기다리다)”이다. 프랑스어 “attente”는 “기다리다(to wait)”와 “예기(expectation)” 양쪽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 둘은 프랑스어 동사 “s’attendre à,” 즉 “예기하다(to expect)”와 결합된다.

수 있는 시간표¹⁹¹)의 전개로 충만 된 인식주체와 함께 융합된다. ② 긴장의 경우는 수동자(수난자)의 예기로 인하여 성격이 만들어지며, 무절제한 그래서 애가 타기까지 하는 긴장의 범주에 의해 과도 결정되고, 실행주체의 화술프로그램(NP)의 비-실현화에 관한 지식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두 경우에 그것은 정념의 범람으로 갈라진 틈을 만들고 있는 지식(첫 번째 경우가 선행이고, 두 번째의 경우가 이차적인 것이다)으로 존재한다.

불만족과 실망: 이렇게 갈라진 틈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생산된 그 막연한 불안은, 다시 말해서 그 위에 겹쳐진 그래서 항상 존재하는 /피결합-요망(wanting-to-be-conjoined)/과 /비-결합-지식(knowing-of-not-being-conjoined)/ 사이에 충격이 가해진 모델을, 우리는 /불만족(dissatisfaction)/이라고 호칭할 것이다. 우리는 “성가심(annoyance)” 또는 “불쾌(displeasure)”와 같은 여러 가지 유의어 사이에서, 그리고 예상된 /만족(satisfaction)/과 함께 좌우대칭으로 이러한 틈을 선택했다. 불만족이 이렇게 양태적인 상반(incompatibility)에 의해 창조된 의미효과로 존재하든지, 또는 보다 미묘한 “정념적인 사건”으로 발생하든지, 하여간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그들이 확장된 형식의 담화적인 시퀀스에 초점을 맞춘 보다 철저한 분석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순간은 정념적인 사건의 보편적인 상태 안에서 우리가 그것의 위치를 지시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긴장의 역할과 관련된, 그래서 주목되는 관점이 하나 남아있다. 우리는 언외지시(direct)¹⁹²적인 관계가 예기(“원하다,” “요망하다,” “희망하다,” “열망하다,” “욕망하다,” “갈망하다” 등)의 긴장 사이에 흔히 존재하는 그 인상을 갖게 되며, 불만족과 상응하는 등급은 그것의 비-실현화에 기인한다.

가치대상의 비-귀속을 추구하는 그 명백한 불만족은 불안의 또 다른 종류가 임시로 첨가됨과 동시에, 실행주체의 행동에 의해 발생되며, 예기에 순응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피신탁의 교차점적인 예기(fiduciary-expecting) 주체의 관점에서 본 바로는, /실행의무(having-to-do)/에 의해 양태화된 이러한 행동은 위치를 잡지 못하며, 상태주체의 일부로서의 신앙 또한 즉각 정당화

191) 장기지속성(기본적인), 중기지속성(역사적인), 단기지속성(문제론적인)으로 이루어진 총체지속성(duration)을 일컫는다. (역주)

192) “지시(referencing) vs 언외지시(direction)”를 비교해 볼 것. (역주)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로 야기된 실망(disappointment)은 이원적인 관점에서 유래된 언외지언의 확신(confidence)의 위기로 존재한다. 그 이유는 주체 s_2 가 그 안에 정위된 신뢰(trust)를 악용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특히 주체 s_1 이 정위되지 못한 그 신뢰를 스스로 뒤집어썼기 때문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제 결합된 불쾌감(dysphoria)의 이러한 두 형식은 “좌절감(frustration)”으로 인하여 유발되며, 사전의 편찬방식으로 분노의 폭로를 유도하는 그래서 “생생한 불평(active discontent)”을 구성한다.

불평(discont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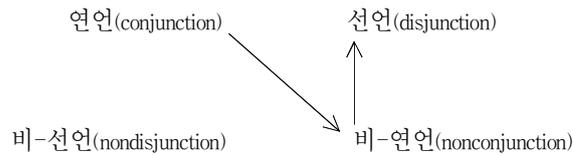
정념적인 추축(樞軸, pivot)

사전에 의해 제공된 정의의 조력을 받아 분노에 관해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최초의 어림값 안에서 3가지의 아티클레이션을 인식했다.

좌절감(frustration) → 불평(discontent) → 호진성(aggressiveness)

그것의 연상은 정념적인 결합체 “분노”를 구성함으로써 획득된다. 따라서 정념적인 추축(樞軸)이 되어 나타나는 그 불평(방금 우리가 도착한 그곳의 정향)은 선행 구조를 포섭함으로써 그리고 떠맡음으로써 계속 추구하는 구조의 진진을 허락한다.

쉽게 설명하기로 하자.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불만족(dissatisfaction)은 담화 안에 삽입된 화술프로그램(NP)의 정념적인 특징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것은 가치대상과 함께 주체의 비-연언의 결과로 존재한다. 그러나 이 종착상태는 화술적인 레벨의 선언상태를 담화적인 텀과 대응시킨 기동상태와 매우 밀접하게 정위된다(그러므로 그것과 혼동될 위험이 아주 많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경우 정념적인 레벨에서의 기동성과 불만족으로 독해된 그 담화적인 레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마치 종착점인 것처럼 선언과 밀접한 그 비-연언은 결핍의 감정(feeling of lack)으로 변형될 수 있다.

노트: 이러한 2개의 “감정”이 서로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점점 포기로 감소하고 있으면서도 귀결이 없는 불만족을 상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결핍의 감정은 어떤 조건 하에서 우리가 방금 아티큘레이션 “불평”에 귀속시켰던 추측적인 역할을 충분히 정당화하는 것에 의해 결핍이 제거된 화술프로그램(NP)의 합성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의 명백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다 더 정밀함이 요구된다. 2개의 예기(단순한 그리고 피신탕의 교차점적인)와 2개의 불평(불만족과 실망) 사이의 편차는 최후까지 남아있게 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렇게 해서 대상적인 결핍(대상가치의 결핍)과 피신탕의 교차점적인 결핍(또는 “언외지언의 확신의 위기”)을 우리가 따로따로 다루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전개된 결핍은 프로프적인 화술의 최초의 상태가 메아리처럼 반복되는 현상이다. 최초의 결핍(그 자체로 분류된 것과 대상가치를 도독절한 그 결과)은 피신탕의 교차점적인 종류(금지를 위반한 아동의 “배신”이다)의 두 번째에 첨가된다.

확장된 의미장

어렵잖이지만 보다 광대한 의미장 안의 어휘소 “분노”의 상태를 통해서 보다 더 분명히 고찰하기 위하여, 그것은 총체지속적인 양상(장기지속성 vs 중기지속성 vs 단기지속성)에 의해 “불평”의 과도결정을 지연시키는 것(즉 여러 가지 정의가 비교되고 있을 때, 옆으로 제껴놓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유의어(parasynonym)”를 얻게 된다.

비통(bitterness); 굴욕, 실망, 운명의 불공평과 연결된, 그래서 원한과 뒤섞인 비애의 영속적인 감정.

원한(rancor); 미몽에서 깨어난 뒤에, 불공평함에서 깨어난 뒤에, 끌어안게 된 비통.

게다가 “지연된” 분노의, 불만족의, 그리고 진전이 없는, 그러나 프로그램적인 귀결과 함께 결핍의 감정으로 존재하는, 그래서 그야말로 영속적인 실망의 예가 여기 존재한다.

노트: 내친결음에 우리는 이러한 명목의 의미소적인 핵의 생리적인·미각적인 성격(쓴맛과 고약한 뒷맛)에 대해 주목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 결핍과 화술프로그램의 실로 대략적인 밑그림이 다음과 같은 또 다른 “유의어”로 발견된다.

분개(resentment); 어떤 사람이 받게 된 고통, 손해를 증오(animosity)와 함께 상기하고 있는 것.

양심(grudge); 어떤 사람이 적개심(hostility)과 복수심(desire of vengeance)을 끌어안고 있는 공격(offense)의, 손상시키려고 하는 것의 완강한 파지(把持).

우리가 분노의 정의를 제거하는 일은 결코 없으며, 역으로 의미장의 확장이 정의에 보다 더 밀접하게 접근하도록 이끌어준다는 것을 관측할 수 있다. 증오와 적개심은 이 영속적인 불안(당면한 문제의 “파지”로 정의된)이 분노의 정의 안에 박힌 “호전성(aggressiveness)”과 함께 친족의 유사점을 공유한다는 것을 동반한다. 더 나아가 “롤랑의 노래(The Song of Roland)”¹⁹³ 안의 그것은 양심이

193) 롤랑의 노래(La Chanson de Roland); 최초(1100경)의 프랑스 옛 서사시이며 무훈시(武勳詩)의 걸작. 저자는 작품의 마지막 행에 이름이 나오는 노르망디의 시인 튀롤로 추정된다. 778년 역사상 실재했던 룽스발(룽스보) 전쟁을 다루고 있다. 실제의 싸움은 바스크인과의 사소한 분규였지만 이 시는 그것을 사라센에 대항한 전쟁으로 바꾸어 테르모필라이 전투에 버금갈 만한 것으로 만든다. 이야기는 사라고사를 제외한 스페인 전역을 정복한 샤를마뉴 대제가 사라센 왕의 제의에 따라 평화협상을 하도록 롤랑의 의붓아버지 가를롱 기사를 보내는 데서 시작된다. 의붓아들 롤랑이 위험한 일에 자신을 추천한 데에 화가 난 가를롱은 롤랑을 파멸시키려고 사라센과 음모를 꾸민다. 그리하여 사라센에서 돌아온 그는 스페인에서 군대를 철수시킬 때 롤랑이 군의 후위경비를 지휘하게끔 만든다. 군대가 피레네 산맥을 넘을 때 후위경비대는 룽스발 계곡에서 압도적으로 수가 많은 사라센 군대에 포위된다. 궁지에 몰려서도 용감히 싸운 롤랑은 패배 가운데 승리하는 불굴의 전사의 귀감이 된다. 시의 구성은 견고하고 일관되며, 문체는 직선적이고 침착하며 때로는 딱딱하다. 첫 부분에는 무모하리만치 용감한 롤랑과 보다 신중한 친구 올리비에 간의 대조적인 성격이 그려져 있으며, 그것은 또한 봉건적인 충성심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간의 갈등이기도 하다. 자신의 명성에 집착한 나머지 판단이 흐려진 롤랑은 나팔을 불어 샤를마뉴에게 원조를 청하자는 올리비에의 권고를 뿌리친다. 그리하여 승산 없는 전쟁은 벌어졌고

단순하게 “내포된 분노”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친족의 답음을 우리는 적의(malevolence)로 지시될 수 있는 불평에 의해 이러한 부산물, 즉 사전이 증오로 정의하는 것으로서의 “완고한 감정(persistent feeling)”으로 인식했었다. 사실, 그것은 마치 성취되지 못한 예기의 귀결처럼, 신앙으로 성격이 만들어진 박애(benevolence)처럼 존재하며, 그래서 그 상호주관적인 관계는 적의를 폭로하고 그 정체를 드러낼 것이며, 새로운 관계를 규정할 것이다. 그것은 마치 계약·응축적인 관계가 논쟁적인 관계에 의해 재정위된 것처럼 존재한다. 왜냐하면 사전이 증오를 구성하는 것은 상처 입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무엇을 유발시키는 완고한 감정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우리는 상호주관성의 정념적인 조직과 조우하고, 게다가 아량과 해로움도 조우하게 된다. 대당 “박애(benevolence) vs 적의(malevolence)”의 체간(體幹, stake)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것의 상호주관적인 관계 안에서 주체의 /실행요망(wanting-to-do)/의 아티클레이션(조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상호주관적이라고 해서 그 안의 의지논리의 작용으로 존재하기는커녕 그것은 스스로 기호(sign)의 단순한 진도로 나타날 것이며, 해석된 적의는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실례 안에서 정념적인 상태에서부터(실행으로부터가 아닌) 발생하는 고유의 독창적인 /실행요망(wanting-to-do)/으로 존재하고, 따라서 그 목록을 완성함으로써 우리는 실행주체의 돌발출현에 의해 요구된 조건의 구축을 이미 시작했던 것이다. 우리는 실망이 어떻게 피신탕의 교차점적인 결핍의 감정을 생성할 수 있는가를 분명히 관측했다. 이러한 결핍감정의 기초 위에서, 이제 우리는 /실행요망(wanting-to-do)/이 어떻게 진전되는가를, 그 양태성이 어떻게 실행주체의 언어능력의 구성 안으로 진입하는가를 관측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기술이 어떤 종류의 우연성(casuality) 또는 타자의 근거를 제공하는 체 가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단지 “불가사의한 기적(miracle),” 즉 실행주체의 위급을 준비하는 예비행위로 고찰된 기호현상-화술적인 원소의 목록을 제공할 뿐이다.

한창 나이의 많은 프랑크족 기사들이 죽어갔다. 결국 나팔을 불었을 때는 너무 늦어서 올리비에도, 튀르펜도, 롤랑도 살아남지 못했다. 롤랑은 실명한 올리비에가 잘못 휘두른 칼에 맞아 죽는다. 나팔소리를 듣고 온 샤를마뉴 대제는 그의 영웅적인 부하들에게 복수를 한다. 프랑스에 돌아온 황제가 롤랑의 약혼자이자 올리비에의 여동생인 오드에게 소식을 알려주자 그녀는 황제 앞에 엎어져 죽고 만다. 작품은 가늌룡의 재판과 처형으로 끝난다. (역주)

타자(The Other)

더 나아가 우리가 방금 인식했던 /실행요망(wanting-to-do)/은 주체의 양태적인 언어능력에 속하지 않는다. 능력(being-able)과 노하우(knowing-how)의 외연화된 양태성에 의해 동반됨이 없이, 채용될지도 모르는 실행 안에서의 화술프로그램(NP)도 없이, 이 요망(wanting)은 당장 내포성(virtuality)과 개방성(opening)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기껏해야 우리는 의미를 소유하고 있다고, 즉 그 행위주적인 언외지시(direction)가 그것을 발생시키고 있는 전체 기호현상-화술적인 조정(調停)을 상호주관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고 언급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은 또 다른 주체, 즉 실망과 결핍의 원인이 되고 있는 주체와 관계가 있는 그래서 부정적인 실행요망(wanting-to-do)으로 존재한다. 심지어 우리는 이렇게 언외지시적인 성격이 충분히 발달된 위치로 제공될 것이라고까지 언급할 수도 있다. 보다 더 나아가, 이렇게 지시된 또 다른 주체는 기왕에 전제된 것이다. 그 타자(the other)는 실행주체의 출현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보편적인·화술적인 도식의 화맥 안에 나타나는 것으로서의 행위주적인 조정(調停)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의미론적인 행위주가 이러한 “타자주체(other subject)”의 정향을 점령할 수 있는 아종으로의 분할을 시도할 수 있다. 그 2개의 투쟁·대립의 가능성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1. “적의의 감정”으로 유발된 주체는 행위주 발신자가 될지도 모른다. 그때 주체의 “실행요망(wanting-to-do)”은 발신자의 거부와 새로운 가치론의 주객치환응집(the quest)¹⁹⁴을 담고 있는 반항(revolt)의 화술프로그램(NP) 안에 통합될 것이다.

194)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p. 253~254. quest(주객치환응집); 주객치환응집은 추구된 가치의 주체와 대상, 그리고 전자를 후자 쪽으로 치환하는 것을 지시한다. 그것은 “순간”의 형식 하에, 그리고 지속적인 모드 하에, 외연화(actualization, 주체와 대상 사이의 선언관계와 상응하는 것)의 공간적인 표상으로 존재한다. 보다 더 엄밀하게 말해서, 그것은 요망(wanting)의 양태성의 표상으로 존재한다. 주객치환응집의 결정적인 양상은 실현화(realization, 또는 주체와 대상 사이의 연언)와 상응한다. (역주)

양태(Modality)	내포화(virtualizing)	외연화(actualizing; 선언)	실현화(realizing; 연언)
외인궤략(exotactic)	의무(필연, HAVING-TO)	능력(BEING-ABLE)	실행(연기, DOING)
내인궤략(endotactic)	요망(결여, WANTING)	지식(KNOWING)	존재(내관, BEING)

2. 적의를 발분시켰던 주체는 반-주체 행위주가 될지도 모른다. 그때 “실행요망(wanting-to-do)”은 복수(vengeance)를 위해 이탈(departure)의 관점으로 기여할 것이다.

모욕(The Offense)

우리는 적개심(hostility)에 의해 그리고 복수심(desire of vengeance)에 의해 동 반하게 된 실망으로서의 앙심(남은 의미 안에 “담긴 분노”)을 정확히 관측했다. 우리는 그것을 “적의(malevolence)”로 해석함으로써 분노의 구성적인 원소의 목록 의 구축 안에 적개심을 통합할 수 있었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복수 심(desire of vengeance)”을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남아있다.

사전을 찾아보면, 우리는 복수가 “모욕에 반응하는 것”으로 정의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쨌든 부분 동정으로 기초가 만들어진 “실망과 모 욕”은 서로 보다 밀접하게 유발된다.

동사 “모욕하다(to offend),” 즉 “어떤 사람의 존엄(명예,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 다”는 우선 2개의 행위주를, 다시 말해서 실행주체·모욕행위당사자(the of-fending party)에 의해 “상처를 입게 된” 상태주체·피-모욕행위당사자(the of-fended party)를 조합하고 있는 구조로 분석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동일한·행위주적인 조정(調停)은 우리에게 실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두 경우, 상태주체는 “피해자(victim)”의 정향 안에 존재한다. 그것의 성격을 만들 고 있는 정념적인 상태는 불만족의 상태로 존재하며, 다소간 삶을 에는 듯한 아픔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최초의 위치 안에서 그들을 구별하는 것은 모욕의 경우 실행주체 의 연기로부터 유래된 고통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반면에 실망의 경우 역으 로 실행주체의 무위(無爲, inaction)의 원인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현존재에 불과한 것에 의해 다시 한번 생생한 것이 되든지 또는 무위적인 것이 되든지 하여간 어떻게 되든지 간에, 실행주체는 적의의 감정의 그리고 나중에 복수의 감정의 최초의 형식을 획득하는 반응을 유발시키게 된다. 연 기를 유도하는 꺾속말의 선동으로의 조장까지도 할는지 모르는 이 반응은 적당한 화술프로그램(NP)으로 구성됨과 동시에 반응주체의 새로운 지위의 문 제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분석가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프랑스어 동사 “offenser(to offend, 모욕하다)”는 “to offend(모욕하다)”→ “to

injure(상처를 입히다)→ “to upset(당황케 하다)→ “to anger(노하게 하다)→ “to annoy(괴롭히다)→ “to goad(몰아붙이다)” 등 많은 유의어를 담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타동적인 시리즈는 텀의 수동적인 시리즈 “to be offended(모욕당하다)→ “to be injured(상처를 입다)→ “to be upseted(당황케 되다)→ “to be angered(노하게 되다)→ “to be goaded(몰아붙여지다)” 등과 상응한다.¹⁹⁵⁾ 그들은 모욕으로 고통받은 것에 다소간 날카롭게 반응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제 그 수동적인 구조는 혼합주의, 즉 실행주체와 상대주체의 동일한 연기자 안에서 상호현존재(co-presence, cf. 치환: s_2 는 s_1 과 치환된다)로 해석된다.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그 반응은 “상처를 입게 된,” “몰아붙여진,” “노하게 된” 등을, 게다가 상처 입은 자존심, 상처 입은 명예의 감정을 유발시키는 수동태의 연기자를 위한 “내재의 사건”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모욕(offence) vs 복수(vengeance)”의 메커니즘은 나타날지 모르는 그것만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하여튼 그것은 “연기(action) vs 반응(reaction),” 또는 “질문(question) vs 대답(response)”을 감축(환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욕이 “상처(injury)”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는 다시 말해서 종잡을 수 없는 사건을 실행하기 때문이다. 즉 상처를 입힌 그 무례한은 사실상 또 다른 레벨에서 이러한 “상처”의 재생산에 의해 그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피-모욕행위당사자(the offended party) 바로 그것에 한해서만,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 한해서만 “상처를 입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모욕의 의미론적인 표출을 명백하게 한다. 그러나 그것의 원인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상처”가 아니다. 이러한 영역에서의 최고의 그 정밀성은 장갑으로 슬쩍 얼굴을 때리는 시늉만으로 거의 뺨을 때리는 그 모욕(slap)을 주지 못하고(결코 끝까지 해내지 못한다), 따라서 기본 메시지를 뒤에 남겨놓고 전송된 것으로 가정된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그 배후의 매우 상이한 어떤 것, 즉 “심증-윤리적인 상처,” “어떤 사람의 명예에 대한 상처”이다.

상처 입은 명예

“상처 입은 명예”는 신체와 이미지를 연결하는 그래서 기묘하고 수사적인

195) 이러한 동사들은 프랑스어에서 “스스로 노하다,” “스스로를 모욕당한 상태로 놓다” 등과 같이 “대명사적”으로 존재한다. —영역자.

격상으로, 기본적인 것과 복잡 미묘한 것으로 존재하는 것인지, —또는 이것이 2개의 보편적인 유형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이 경우 우리는 상처가 인간 육체의 제유로서의 축소된 부분인지, 명예가 단순히 살아있는 육체를 위한 은유로서의 시뮬레이크럼인지 결코 알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명예의 문제를 떠맡으며 더 이상 부연 상술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도전(challenge)¹⁹⁶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미 손을 댔기 때문이다. 우리는 심증-윤리적인 삶의 핵심개념 중의 하나가 여기에 있고, 그것의 사용(선량한 것 또는 사악한 것)이 데카르트 철학의 상식적인 개념만큼 거의 널리 보급되어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시뮬레이크리(왜냐하면 명예는 표상,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그들의 함수로서 그들 자신을 위한 인격양식 그 자체의, “이미지” 바로 그것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는 즉각 보호되면서도 노출된 그래서 미묘한 핵심으로 존재한다. 사실 이러한 “고찰할만한 것으로서의, 그리고 인간 고유의 가치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서의 감정(사전에 의해 제공된 정의 중의 하나)”은 인간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조정적인 가치평가에, 요컨대 “오로지 스스로 갖게 된 언외지언의 확신(self-confidence)”에만 의거하고 있다.

모욕에 대해 반성함으로써 우리는 실망과 함께 만났던 불확실성의 문제를 발견한다. 실망의 경우 그것은 타자 속의 언외지언의 사건이었으며, 그것의 파산은 그것을 쉽사리 믿는 것에 대해 비난하면서 그 자신 안에 다시 한번 언외지언의 확신의 문제를 밀어 넣는 것이다. 모욕의 경우 그것은 “상처”로 표현된 타자의 피신탕의 교차점적인 부정으로 언급된 그래서 오로지 스스로 갖게 된 언외지언의 확신이다. 두 실례 안에서 우리는 2개의 시뮬레이크리로 지시된 그 간극에 의해 구성된 피신탕의 교차점적인 결핍을 취급한다.

그 비교변화는 우리가 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결핍 안에서 주체의 반동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을 때 동시에 타당하다. 그 유의어(예를 들어, “to be angry[화를 내다]”는 “모욕을 당하다[to be offended]”와 “화나게 하다[to get angry]”를 동시에 의미하고 있다)가 그것을 확증한다.¹⁹⁷ “공공연한 반항(defy)”의 두 경우 반동의 격렬함은 이원적인 상처에 의해 유발된 고통과 균형을 이룬다. 명예를 옹호해서 말한다면, 이것은 /실행능력(being-able-to-do)/의 위급으로서의 주체에 관한 양태성의 레벨로 형식화될지도 모른다.

196) A. J. Greimas, “Le défi(도전),” *Du Sens II*(Paris: Le Seuil, 1983), pp. 213~213.

197) *Se fâcher*(분개하다), *s’offenser*(화를 내다), *se mettre en colère*(분노하다). —영역자.

복수(vengeance)

정념적인 결합체

따라서 실행주체의 설치를 위한 제1의 조건은 결합된다. 피신탕의 교차점적인 결핍의 귀결로서의, 그리고 실행요망과 실행능력의 형식으로서의 주체의 언어능력에 관한 본질적 구성요소의 출현은 우리에게 연기의 추이를 마음속에 그리도록 할 수 있다. 그 진취성은 공격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 “복수심(desire of vengeance)”은 복수로 변형될 수 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첨가되어 충당된 이러한 조건 아래에서, 언어능력의 언외지시적인 성격으로 호칭될 수 있는 것은, 즉 잠재적인 화술프로그램(NP) 상의 궤도를 지금 당장 추적하고 있는 주체의 목적은 구축될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연기에 관한 주체의 프로그램이 아직 부재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인간(human),” 즉 상호주관적인 화술프로그램(NP)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가치대상과 함께 관련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주체와 관련된 것이다. 우리는 사전(또는 어떤 심리학자들이 자신의 긍정 또는 타자의 파멸로 정의하는 /실행능력(being-able-to-do)/과 함께 빗대어 언급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그 확고한 원소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것(primitive)” 또는 “보편적인 것(universal)” 안에 이미 담겨있지 않은, 공격자 실행주체의 우화(羽化, emergence)의 한계마저 의심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구성된 그 정념적인 결합체가 우연의 연속으로 구성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확실히 그것을 만들고 있는 그 원소는 필연적으로 서로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역은 전혀 다르다. 시퀀스의 결합체적인 전개는 매순간마다 정지될지도 모르고, 각각의 정지가 확장된 정념적인 상태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발생시키고 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실망은 “포기(resignation)”로 쇠퇴하여 간다. 적의는 “적개심(hostility)”으로 존속될 수 있다. 그리고 복수심은 정념적인 조정(調停)이 실행을 필연적으로 유도하는 일 없이 “양심(grudge)”의 상태 안에 남아있게 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정념상태가 반복 성격인 한에 있어서만 인식된다는

것을 부언할 것이며, 다양한 담화의 전개로 인하여 수정되는 그 방식에 의해 자율적인 원소로 삽입될 수 있는 그들은 병리학적인 또는 심리학적인 역할로 응고되기 쉽고, 그때 각각의 문화적인 공간이 엘름슬레우에 의해 제안된 언외지의(내포)의 유형으로 구성된다.

정념의 규칙

우리와 관련된 정념적인 결합체는 우리가 응축된 언어능력의 실현화를 허락하고 있는 마지막 행방불명의 박편(화술프로그램)을 빠뜨렸던 그것의 궁극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확장(외연)으로 진전될 수 없을 것이다. 실망과 모욕에 관한 결합체적인 진전을 상호 비교하게 됨으로써, 특히 결핍의 이차적인 출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는 복수의 광대한 도정(道程)이 주체를 생성시키는 것 같은 그 정의를 사용할 수 있다.

복수는 “필요성, 즉 스스로 복수하고 싶은 욕망(기왕에 검토되었던)”으로든지, 또는 2가지 방법으로 주목될 수 있는 “연기”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정의된다.

1. “모욕행위당사자(the offending party)의 학대에 의해 피-모욕행위당사자(the offended party)에게 부여되는 대가”로
2. “피-모욕행위당사자에게 심증-윤리적으로 대가를 부여하는 모욕행위당사자의 학대”로

이것은 당해 연기가 2개의 주체와 관련된 언급의 서투른 어떤 무엇이며, 모욕의 결과로 분쇄된(그리고 실망이 첨가된) 그 둘 사이의 균형상태의 확립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결핍의 단순한 일소(liquidation)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이 대상가치의 순환레벨의 화술프로그램(NP)으로 정위된다는 것을, 그것도 “심증-윤리적으로 대가가 부여된(morally compensated)” 그리고 “학대를 당한(punished)” 타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안의 주체들 사이의 사건과 함께 정위된다는 것을 우리는 즉각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화술프로그램(NP)은 대가의 프로그램으로 잘 돌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대가는 “정념”의 레벨에서 성취된다. 상호주관적인

균형상태의 추구는 일종의 정념적인 동치(equivalence)이다. 만약 주체 s_1 이 수난을 당한다면, 그때 그것이 수난을 당한 만큼 주체 s_2 에게 “고통(pain),” 즉 학대와 비통함을 가하는 것이 지당하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복수는 무엇보다도 우선 적대적인 주체 간 수난(suffering)의 재 평정이다.

그러한 수난의 균형상태는 상호주관적인 현상이며, 정념의 사회적인 규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되지 못한 복수의 화술프로그램(NP)은 이러한 사실에 기인한다. 사실 s_2 의 수난은 s_1 의 기쁨을 유발한다. —만족은 어느 성공한 화술프로그램(NP)을 정상적으로 동반한다. 그것을 통명스럽게 표현함으로써, s_1 은 그의 적이 수난을 당한 원인이 되어 매우 기뻐하게 된다. 귀결로서의 복수는 사회적인 측면이면서도 불쾌와 기쁨의 재 균형상태로서의 개인적인 측면에 지나지 않는다.

확장(외연)에 대해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첫 번째의 결론으로, 복수는 화용론적인 차원(그리고 보편적인·화술적인 도식과 비교될 때, 화용론적인 생크션과 상응한다)에 정위된다는 것이며, 육체와 몸짓적인 능동성을 인정하는 이러한 사실의 가치에 의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동성의 정념적인 효과에 의해 그것이 정의되고, 그때 대상 “정념”의 순환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노트: 우리는 그러한 복수의 해석이 사디스트적인 결합체와 비교하는 것에 그 자신을 빌려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의 구성적인 원소는 다음과 같은 시퀀스 안에서 발견된다.

수난(suffering)→ 수난의 원인(causing to suffer)→ 기쁨의 경험(experiencing pleasure)

또한 언의되지 된 그래서 복수를 향한 수난과 기쁨 간의 평형은 상각(償却, redemption)으로서의 치환 가능성을 설명한다. 그때 재화의 박탈은 불쾌를 유발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심중-윤리적인 보상”으로서의 재화의 획득은 동치로 간주된 만족을 조달한다.

인식적인 생크션(sanction)¹⁹⁸⁾

198) 1. sanction: 그레마스는 이 용어를 비난·조소·모욕·배척 등 제재의 의미뿐만 아니라, 제가(裁可)의 의미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2. 제재는 조소(嘲笑) 정도의 것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것까지 다양하다. 특정 성원의 행동이 명확하게 타 집단 성원이 공유하는 가치나 규칙을 자극했을 때에는, 그 행위자에 대하여 비난·조소·모욕·배척 등이 가해진다. 비난은 행위자에게 심리적 타격을 주는 동시에, 그 이후의 집단 성원의 감정적 강화를 도모하게 된다. 조소와 모욕은 일종의 형벌임에 틀림없다. 문화인류학자 B. K. 말리노프스키(Bronisław Kasper Malinowski, 1884~1942)가 본 멜라네시아 트로브리안드섬 사회에서는 하찮은 모욕이 때로는 전체질서의 호

이미 여러 번 독자에게 충격을 가했음에 틀림이 없는 그것은 여기서 연구된 정념적인 시퀀스의 진전과 보편적인·화술적인 도식의 함수적인 아티클레이션 간의 병치법(parallelism)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결핍과 그것의 일소의 경우로, 모든 화술의 주요한 메커니즘 중의 하나로 존재한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복수의 화술을 위해 체간(體幹)을 구성하는 그 대상가치는 대상으로서의 정념으로 존재하며, 그 결핍의 일소는 가해진 고통으로 그리고 승리한 영웅의 기쁨으로 조립된 그래서 결정적인 시련(시협)의 귀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화술적인 아티클레이션은 복수의 화용론의 일부일 뿐이다. 프로프의 저서를 정독한 독자들은 존재이유(raison d'être)와 존재자에 대해 자신에게 자주 질문했으며, 화술영역을 주요한 시련(시협)의 단순한 중복인 것 같은 영광부여의 시련(시협)의 의미로 제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시협)은 인식적인 생크션의 조력을 얻어 영웅의 인식과 반영자의 혼동을 발생시킴으로써, 즉 범주적인 양식 안에서 진실(truth)의 언어를 재 설치함으로써, 사회집단 안에 설치되었던 “언외지언의 확신의 위기”를 해결하는 그 안의 또 다른 주요 함수를 소유한다.

를을 규정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배척의 반작용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를테면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규탄하는 것도 이에 속하는데, 이는 공격적인 집단에 의한 정신적 린치이다. 극한적 상태의 예로서는 취락생활(聚落生活)에서의 따돌림 등이 있다. 사회집단에서의 극한적인 반응에는 뚜렷한 형벌이 있다. 즉, 벌금·노역(勞役)·체벌 등이 가해진다. 대상이 되는 행위는, 정면(正面)에서 집단의 가치·규칙 등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이처럼, 집단의 사회적 제재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 제재의 규제 작용은 행동을 격려하는 적극적인 면과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법인류학자 L. 포스피실은 「법인류학 Anthropology of Law(1971)」에서 “법은 우선 사법적 권위인 재판(裁斷)의 형식을 띠고 나타난다. 재판에 의해 추상되는 원리가 범규범인 것이다. 또, 이 법은 ① 권위 ② 보편적 적용의 의도 ③ 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 ④ 생크션 등 4개의 속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였다. 즉, ① 권위는, 인간집단이 집단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간에 반드시 리더가 있으며, 리더의 재판모양에 따라 법이 마련된다. 그 리더 또는 권위자에 의한 재판의 유무가, 법과 단순한 관습과의 차이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② 보편적 적용의 의도는, 권위자의 재판이 정치적 재판이 아닌 법적 재판이 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이다. ③ 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의무 관계는 어떤 분쟁사건에서 권위자가 내린 재판 중 한쪽 당사자의 권리와 다른 쪽 당사자의 의무를 정한 부분을 의미하며, 이러한 규정이 없는 재판은 법적이라 할 수 없다. ④ 생크션은 종래의 법이론에서 가장 중시되어 온 법의 속성이다. 더욱이 법적 생크션은 물리적 생크션(절대적 강제력)의 성격을 갖추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포스피실은 생크션의 형태보다는 생크션의 효과, 즉 효과적인 사회통제의 가능 여부가 중요한 요건이라고 한다. 어떤 종류의 심리적 생크션(이를테면 조소 등)은 때로는 물리적 생크션 이상의 강력한 규제가 될 수 있다. (역주)

화술적인 도식의 용어법적인 정향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화술 상에 투기된 공통계열체적인 조직의 표출을 최초의 정향과 결합한다(명백하게 만들어). 따라서 인식적인 생크션(제인식으로 알려진)은 타자에 의해 인식되지 못한 그리고 교리(敎理, faith) 안에서 평정을 잃은 존재로서의 주체를 전제하며,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화술적인 메커니즘으로서의 피신탁의 교차점적인 결핍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다른 한편 복수의 이러한 차원의 자율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어떤 필요성은 그 관대함이 인식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게다가 화용론적인 차원이 경감된 복수를 구성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피신탁의 교차점적인 결핍을 일소하고 있을 뿐인 이탈의 어떤 것을 힐끗 바라 볼 뿐이다. 또한 “증거가 없지만 틀림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즉 심중-윤리적인 보상(moral reparation)”의 유형적인 형식으로서의 투쟁의 평가는 매우 계발적(instructive)이다. 고갈의 관점에 도착함으로써, 투쟁의 레옹 블룸(Léon Blum)의 유형(“유포”에 의해 반제된 상처 안의)은 오로지 “명예”만이 면제되는 것으로부터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특히 탈의미화된 제의식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투쟁이 피신탁의 교차점적인 체간(體幹)과 함께 모욕을 체류시키고 있는 한 살아남으며, 그와 같이 인식된 영웅과 악한이 투쟁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 한 그저 단순한 “타이(tie)”로만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웅과 악한, 주체와 반-주체의 이러한 짝은 지각차원의 범주적인·2진법적인 아티클레이션의 결과가 아니라, 그들을 불가분하게 만들고 있는 그래서 인식차원의 상호적인 명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자는 타자의 병존설적인 현존재 없이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 적대자와 일단 결합된 이러한 짝 간의 대당은, 흔히 의미론적인·보편적인 “삶 vs 죽음”의 개척 상에 기초된(아동설화와 신화적인 화술 안에 많은 죽음이 존재한다) 그것의 격아강적인 표출은, 어떤 위험도 없이 “자신의 긍정과 타자의 파괴” 양자로 동시에 고찰될지도 모른다.

노트: sanction(생크션, 제재 또는 재가[裁可]); 1. 생크션은 교묘히 다루기와 상호관계적인 담화의 격상이며, 화술도식 안에 삽입될 때 그것은 화용론적인 그리고 인식적인 차원 양쪽의 위치를 점령한다. 생크션이 최후의 발신자에 의해 이행되는 까닭에, 그것은 이러한 발신자가 절대적인 언어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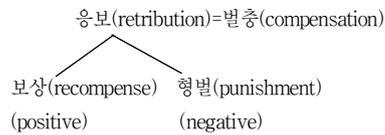
2. 화용론적인 생크션은 행동(behavior)의, 더 엄밀히 말해서 연기하고 있는 주체의 안락과 관련되고 있는, 심판자-발신자에 의해 인정된 인식론적인 판단이다. 그것은 가치론적인 체계(정당성, “좋은 방식,” 심미적인)와 관계되어 만들어지며, 어쨌든 마치 최초의 계약·응

축으로 외연화된(actualized; 선언) 것처럼 암시되거나 명백하다. 주체-수신자의 관점에서 보면, 화용론적인 생크션은 응보(retribution)와 상응한다. 이를테면 그것은 교환구조 안에서 다른 함수의 결과로 존재한다. 그것은 계약·응축적인 의무(obligation)와 순응하고 있는 주체에 의해 실행된 언어연기에 의해 호출된 대응물이다. 이러한 벌충(compensation)은 조정적인 것(보상, recompense)이거나 부정적인 것(형벌, punishment)이 된다. 후자의 경우, 개인적인 또는 사회적인 발신자에 의해 제공된 형벌이든지, 복수 또는 정당성으로 호칭된 바로 그 부정적인 응보이든지 하여간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의지한다. 이러한 응보의 다양한 유형은 화술적인 균형상태의 재확립을 허락한다.

3. 실행과 관련되고 있는 판단으로서, 화용론적인 생크션은 인식적인(cognitive) 생크션과 대당이 되는데, 그 초월결정이 주체의, 더 보편적으로 말해서 진정적인(veridictory) 그리고 인식론적인 양태성에 사의를 표하고 있는 그 상태발화라고 하는 존재(being)의 인식론적인 판단이다. (여기서 보편적인 문법으로 사용되고 그리고 인식적인 생크션에 필적하는 인식론적인 판단으로 표현된다)

주체-수신자의 관점에서 보면, 인식적인 생크션은 영웅의 재인식(recognition)과 동치이고, 부정적으로는 악한의 자취냄새와 동치이다. 발신자 측에서의 인식은 주체-수신자에 의해 선택된, 영광을 부여하는 시험(시련)으로부터 유래되는 벌충이다.

4. 화술케도로 고찰된, 사회적인 기호학의 실천 레벨의, 전치생크션에 의해, 우리는 생크션의 기호학(semiotics)의 교묘히 다루기(합성)를 예견할 수 있다.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 267. (역주)

2개의 이탈적인 형식: 정당성(justice)과 사디즘

복수가 실행주체의 화술프로그램(NP)이라는 사실과 구성된다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오로지 /실행능력(being-able-to-do)/의 우화(羽化, emergence)인 그 귀결로서의 연기로 호칭되는 주체의 언어능력의 성분에 관한 실마리(또는 교묘한 수법; handling), 즉 기본원리적인 역할의 매우 훌륭한 근거를 제공한다. 사실 그 /실행능력(being-able-to-do)/의 위임(delegation)¹⁹⁹은 발신자-심판자를 설치하고 복수를 정당성으로 변형한다.

복수를 그의 것으로 찬양하는 신이든지, “고결한 정당성(high justice)”을 분배하는 그 권리(권세)가 널리 행해지도록 애쓰는 군주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

199) 한 나라의 수반이 각국으로 대사를 파견할 때 그 대사에게 그의 권력을 위임하는 이치와 같다. 그렇다고 해서 수반의 권력이 모두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역주)

으로든지 간에, 여기서 우리는 위임으로 계속 호칭될 권력의 치환을 다루고 있으며, 비록 그것이 초월적인 경향이 있을지라도, 즉 낮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으로 정위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론적인 경향이 아닌 그 경우는 아주 흔한 일이다. 이 경우에, 정위(orientation)는 또한 관점의 문제일 뿐인 것 같다.

위임은 주체의 영역과 발신자-심판자의 영역 간의, 실행요망과 실행능력 간의 거리를 확립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오로지 지식의 양태화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그 지식이란 발신자가 반-주체에게 가하는 수난에 대한 지식이며, 주체의 경험으로서의 그 기쁨은 오로지 타자의 학대에 대한 지식에만 사의를 표할 뿐이다.

고통과 기쁨에 관한 이러한 사유는 그것의 사회화의 성격을 만들고 있는 복수의 비-정념을 대개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상호주관적인 관계의 화맥 안에서 실행된 육체적인 실행이 점진적으로 복수구조의 탈의미화로, 그리고 그것의 괴멸로 유도하는 그래서 정념에 부여된 무매개성(immediacy)이 소멸되는 현상에 대해 놀라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매개성의 정념을 규정하는 또 다른 구조에 관해 말한다면(예를 들어, 계급투쟁), 그것은 효과적으로 치환될 수 있고, 따라서 이것은 사회학자들과 관련된 문제로 존재한다.

대당 속에서, 어쨌든 출현 속에서, 이렇게 정념이 선형적으로 가지고 있던 무매개성이 상실되고 매개성이 되는 현상은, 우리가 사디스트적인 행동과 동정되고 있는 감정의 흠집으로 존재한다. 우리는 이미 매개성의 결합체적인 조정(調停)에 의해 충격을 받은 바 있다.

수난(suffering) → 수난의 원인(causing to suffer) → 기쁨의 경험(experiencing pleasure)

그것은 복수와 사디즘 양쪽에 공통으로 나타난다. 행위주적인 구조의 텅 안에서 보다 더 엄격한 형식과 화술프로그램은 오로지 이러한 최초의 인상을 확증할 뿐이다. 그러나 필적할 만한 통사론적인 구조의 인식은 프레스티지적인 그리고 사디스트적인 통사론의 비답화적인 성격이 되어 나타나는 주동자(principal one)의 편차를 강조할 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만약 결합체적인 단위가 시퀀스를 구성하는 “정념”의 대칭 양쪽에 공통

으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사디스트적인 담화 안에서 결핍이 되고 있는 것(기
계변역·轉格에서처럼)은 그들을 굴곡하고 회전시켜 “어지럽게 된(disorderd)” 담화
에 의해 지시조용어화(anaphorization)의 힘으로 존재할 것이다. 사디스트적인
담화의 각각의 단위어구들은 정확하지만, 다양한 단위들의 통사론적인 행위
주들(마치 좌절하고 있는 주체 s_2 와 반-주체 s_2 처럼)은 단하나의 사전적인·범주적인
의미로 통합되지 않고, 그것을 초월해서 혼합주의적인 성격으로 통합된다.
사실 사디스트적인 s_1 은 s_2 에 의해 좌절감을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난의 원인일 것인 s_1 으로서의 주체와 s_1 의 기쁨의 원인일 것인 수난의 경우
는, 오로지 좌절만 하고 있는 주체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목적이 없는 것으
로서의 단일 결과인, 보편적인·화술적인 도식 안의 이러한 통사론의 통합일
뿐인 것을 투기하는, 삶의 부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화되며 오히려 풍성
해질 수 있을 것이다.

분노

논리적인 순차방식을 최초로 떠맡은 분노의 연구는, 우리가 그것과 관련
된 존재의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출현한 정념의 여러 가지 결합체적인 형
식에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또 다른 언외지시로 진전했다. 이것은 2가지
의 동기에 도움이 되었다. 즉 필적할 만한 형식의 계열체 안에 명기되었고,
그것의 최후의 귀결에 성마른 담화로 진전되었다. 이 두 번째의 투시도법 안
에서, 복수에 관한 검토는 특히 우리에게 흥미로운 것으로 나타난다. “내포
된 분노”의 관점(이것은 분화의 관점이다)에서, 획득된 실행능력(being-able-to-do)에
사의를 표하는 정념적인 행동은 “복수”의 화술프로그램으로, 즉 복합적이고
완벽한 화술프로그램(NP)으로 진전한다. 그때 이렇게 정념적인 담화의 규칙
적인 진전은 분노의 분쟁현상의 보다 더 좋은 이해를 위한 배경으로 기여할
수 있다.

첫눈에 그것이 격렬한 성격, 즉 불평의 긴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정
념” 계다가 그것의 진전은 복수의 희생으로 분노의 궤도를 차용한다고 하는
사실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이원적인 긴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진실이다. 분노가 격렬한 실망을 전제할 뿐만 아니라 실망한 주체
가 반동하는 그 무매개성을 전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을 가지고는 전적

으로 만족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 동일한 특성이 복수의 진전을 통괄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는 통명스럽게 언급할 뿐만 아니라 피-모욕당사자의 반사(reflex)가 민첩하다고 언급한다. 때문에 사실 우리는 본유적이로든지 또는 문화적인 배타주의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 분노와 복수의 독특한 성격이 귀속됨으로써, 유형학적인 해석에 반드시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총체성(totality) 안의 정념의 이론과 관련된 선택권이다.

비록 모든 우연적인 설명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2개의 궤도는 쾌적이다. 우리는 십자형의 결정적인 순간이 여기서 실행능력(being-able-to-do)의 텀 안의 주체의 우화(羽化, emergence)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복수의 경우, 이러한 양태성은 적당한 화술프로그램(NP)을 신속하게 생산하는 양태적인 언어능력의 총체성 안에 통합된다. 분노의 경우, 역으로 격분된 실행능력(being-able-to-do)은 주체를 전적으로 지배하고, 오로지 이러한 프로그램에 입각할 수 있는 산재원소, 즉 정위된 진취성(자신의 긍정과 타자의 파괴)의 주서(朱書)로 써서 강조된 규정(rubric) 아래 종합된 원소로만 사용될 수 있는, 그래서 확실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연기의 프로그램 앞에서 실행으로 계속 진전한다. 따라서 분노의 그 화술프로그램(NP)은 문법적인 의미 안에 텀 싱커페이션(어중음생략법·당김음법·가사상태, syncope)²⁰⁰을 채용하고 있는, 즉 싱커페이션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되어 나타난다. 그 사용이 어떻든지 간에, 복수와 분노 간의 편차는 우리로 하여금 “정념”에 의해 진전된 그저 단순한 정념의 담화와 복잡하게 정념적인 것으로 만들어진 담화 간의 편차를 각성케

200) syncope, syncopation: 1. 어중음생략법(語中音省略法): 어중음은 단어나 문절 등 완결된 최소의 음운 연속체에서, 어두음과 어말음을 제외한 음, 곧 ‘민족’에서 ㅁ과 ㄱ을 제외한 “ㅣ ㄴ ㅈ ㅊ” 음을 말하며, 발화 중에 “고함지르다”를 “깜지르다”로, 또는 “가르쳐주다”를 “갈쳐주다”와 같이 그 어중음이 소실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어중음생략이라고 한다. 환원과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가사상태: 생리적 기능이 극도로 약해져서, 인사불성이 되어 호흡이 정지되고 맥박이 미약해져서 얼핏 보기에 죽은 것 같이 된 상태. 여기서는 충격을 받은 사전적 의미가 어지럽게 된 상태를 말한다. 3. 당김음법은 음악에서, 같은 높이의 쉼박과 여린박이 연결되어 여린박이 쉼박, 쉼박이 여린박 되어, 쉼여림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말한다. 같은 마디 안이나 두 마디에 걸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15세기경부터 유럽의 예술음악에서 사용하였으나, 각종 민족음악의 특징으로도 볼 수 있으며, 또 재즈음악에서는 리듬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상호주관적인 의미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의미는 이들 중의 어느 하나가 아니라, 3가지 모두를 의미하는 복합발화(complex utterance)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레마스는 이 용어를 절묘하게 사용하고 있다. (역주)

한다.

제10장 지식(knowing)과 신앙(believing); 진기한 인식의 우주

서론

기호학자들의 제1의 관심사로서 담화의 양태화를 위해 충분히 고찰하려고 하는 그 시도는 최근의 현상이 아니다. 기호학자들은 양태성의 망상에 대해 오랫동안 깊이 각성하고 있었다. 사실 오랫동안 기호현상-화술문법의 구성은 양태적인 문법의 진전으로 관측되었다. 그러나 양태적인 존재자의 그것에 의해 추구된, 양태적인 언어능력의 개념 안에서의 그 방식은 여기서 우리와 관련된 어떤 무엇으로 존재하는 /실행노하우(knowing-how-to-do)/와 /존재노하우(knowing-how-to-be)/의 양태성을 사용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실 개방되어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화의 인식차원과 관련된 문제의 심층 분석은 필경 적당하지 않게 /신앙(believing)/의 양태성으로 호칭된 것의 출현을 추론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사실 그것은 기호학자들을 위해 커뮤니케이션이 /지식(knowing)/의 단순한 전송(transfer)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관점을 지원하기가 어려웠다. 텍스트 안에서 조우된 “가공(paper)” 주체의 친족성은 커뮤니케이션 상태의 그 주체가 중립이 아니라 오히려 가변성의 양태적인 언어능력을 타고 난 것이라는 것을 각성하도록 유도했다. 이렇게 주어진 커뮤니케이션을 지배하는 /지식원인(causing-to-know)/은 상응하는 그리고 대당이 된 연속의 또 다른 끝의 상호주관적인 실행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설득력이 있는 실행이 되었다. 이렇게 발생된 상호주관적인 이것의 변화는 만약 그것이 지식원인의 일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설득력이 우선 먼저 믿음-원인(causing-to-believe)이라고 언급하는 것에 의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모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즉 지식의 조건만이 오로지 믿음의 영역을 넓힐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의 생각을 진척시킨다.

예를 들어,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I think that)”이 마치 수술을 위해 내장을 복부에서 끄집어내는 것처럼 객관화되기를 바라고 있을 때, 그것이 주체의 내재담화를 위한 조연자로 기여하며, 그때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것(I know)”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믿고 있는 그것(I believe)”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으로 만들어진 지식의 제1의 기원인 바로

“그들이 언급하고 있는 그것(they say that)”이 확실성과 언외발언의 확신의 부재를 의미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우리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그들이 언급하고 있는 그것(무머, 풍설)”에 관한 최초의 실례에 기초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그들을 아티클레이션으로 만들고 있는 담화의 인식차원과 양태성에 관해 언급할 때든지, 삽입구 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실로 이제까지 결정된 상황 아래 태어난 의미의 결과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닐지도 모르는, 그러면서도 과학적으로 표현된 그들의 지식을 본질적으로 믿음의 차원과 양태성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을 때든지, 하여간 어떤 때든지 간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들 간의 보통의 범주적인 편차를 잘못된 2분법으로 고찰함으로써, 지식(knowing)과 신앙(believing)을 하나의 실재물(entity)로 결합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은, 오히려 좌절감을 이탈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자연언어 안에서 2개의 텀이 서로 혼동됨 없이 오버랩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서로 용납되지 않는 대당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죽을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또는 우나무노(Miguel de Unamuno)²⁰¹가 유언으로 남긴 말처럼 증세풍의

201) Miguel de Unamuno(1864~1936); 스페인의 교육자·철학자·작가. 그가 쓴 수필은 20세기 초 스페인에 큰 영향을 끼쳤다. 부모는 바스크인이었으며 빌바오에 있는 인스티투토 비스카이노를 다닌 뒤 1880년 마드리드대학교에 들어가 4년 만에 철학 및 문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6년 뒤 살라망카대학교의 그리스어 및 문학과 교수가 되었다. 1901년 살라망카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했으나 제1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에 대한 공식적 지지를 표명하여 1914년 해직되었다. 1924년 스페인을 지배하는 군사정권에 반대, 프랑스로 강제 추방당했다. 미겔 프리모 데 리베라 장군의 독재정권이 무너지자 살라망카대학교로 돌아와 1931년 총장으로 재선되었으나 1936년 10월 프랑코가 이끄는 팔랑헤 당원을 비난해 또다시 총장자리에서 쫓겨나 가택연금 당했다. 그 뒤 2개월 만에 심장병으로 죽었다. 우나무노는 지성과 감정, 신앙과 이성 사이의 긴장에 대해 대단한 관심을 가졌던 초기의 실존주의자였다. 그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인간이 지닌 “영생에 대한 갈망”은 오직 이성에 의해서만 거부당하며 믿음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고 그 사이에서 빚어지는 갈등은 끊임없는 고통을 낳는다. 시인·극작가로서도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지만 우나무노는 수필가나 소설가로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개인과 민족의 비극적 인생관 Del sentimiento trágico de la vida en los hombres y en los pueblos(1913)」에는 그의 원숙한 철학이 가장 잘 반영되었는데, 이 작품에서 그는 인간이 가장 완전한 삶을 살도록 유도하는 데 정신적 고통이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와 그밖의 주제들이 「그리스도교의 고민 La agonía del cristianismo(1925)」에서 탐구되고 있다. 가장 유명한 소설 「아벨 산체스: 욕망의 역사 Abel Sánchez: una historia de pasión(1917)」는 성서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카인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고통스러운 만큼 심한 갈등을 일으키는 층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화가를 탐구한 시 “벨라스케스의 예수 El Cristo de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Credo quia absurdum)”를 반복한다면, 우리는 설치된 지식이 믿음을 구축(驅逐)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믿음이 안주하고, 지식의 부정에 의해 결합까지도 한다는 것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지식과 신앙이 극도로 긴장하면서도 탄력성 있는 구조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아니면 그 긴장이 이완되게 하는 것처럼, 비록 분극(分極)을, 즉 주사와 빈사의 범주적인 대당을 생산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텅 중의 하나를 타자로 혼동하고 있는 한 안주와 결합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칙들(anomalies)”은 교란되어 괴로워하고 있으며, 사태가 보다 더 분명해질 때 우리가 아주 굉장한 미래를 열망하도록 만든다. 뒤메질은 원래 라틴어 “credere(신앙)”가 오늘날 “믿음(belief)과 언외발언의 확신(confidence)”의 의미작용으로 분리된 그 두 영역을 동시에 떠맡게 된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것은 삼위일체의 위격 사이에 확립되고 보존된 신뢰(trust)가 사물에 관한 그들의 파를 안의 신뢰로, 결국 사물 그 자체 안에, 설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꼴사납게 고대기원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이것은 어쨌든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준다. 만약 우리가 확실성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그때 단어와 사물 간의 양의연동상태로서의 적합성(adequation)²⁰²⁾을 찾기 전에 우리는 인간존재 사이에 개방된 커뮤니케이션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Velázquez(1920)”는 현대 스페인 시의 뛰어난 본보기로 꼽힌다. (역주)

202)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p. 9~10. adequation(양의연동상태로서의 적합성); 1. 용어 양의연동상태로서의 적합성은 두 기호학적 실체물(entity) 사이에서 관측될 수 있는 조화로 해석된다. 양의연동상태로서의 적합성의 개념은 직시된 이 실체들 사이의 관계 안에서 그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변한다. 2. 용어 수직적 양의연동상태로서의 적합성은 언어의 두 개의 다른 레벨 사이의 조화가 가정되고 요구될 때 사용된다. 즉, 대상 기호체계와 그 기술적 메타언어 사이, 개념화된 이론과 그것을 공리화 하는 형식 언어 사이, 심층구조와 표층구조(비록 용어 동치[同値, equivalence]가 이러한 표층구조 안에서 보다 더 충당되고 있을지라도) 사이를 말한다. 3. 용어 수평적 양의연동상태로서의 적합성은 투기(project)와 그 실현화 사이에, 즉 이론과 그 적용 사이에 확립될 필요가 있는 조화를 위해 유보된다. 사실, 모든 이론은 독단적(arbitrary)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의 데이터에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론적 레벨의 양의연동상태로서의 적합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적용의 순간에만 나타난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론이 할 수 있는 구축은 그의 목표로서 적용을 갖는 것뿐이며, 따라서 양의연동상태로서의 적합성의 조건이 진전하는 것을 보증하는 예견(Louis Hjelmslev의 경험론)을 확신하는 것에 종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역주)

인식적인 변화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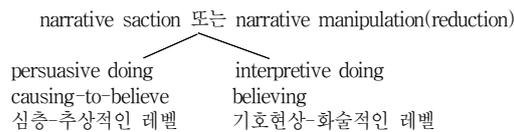
지식은 신앙을 선행한다(Knowing Precedes Believing).

만약 우리가 지금 고전적인(classical) 절차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상호주관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프레임 안에서 신앙 현상의 이중적인 특이성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일찍이 언급했던 것처럼, 이러한 경우 안에서 실행되는 최초의 사태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중립적인” 실례를 위해 설득적인 실행(persuasive doing)과 해석적인 실행(interpretative doing)의 운동(exercise)의 장소로 치환된다. 설득적인 그리고 해석적인 실행은 전자의 경우 결국 “믿음-원인(causing-to-believe)”이 되고, 후자의 경우 신앙(believing)의 행위, 즉 인식론적인 행위가 된다. 언어의 심층-추상적인 레벨에서, 선행하는·설명적인 모델은 소수의 단순작용으로 환원될 수 있다. 그러나 기호현상-화술적인 레벨에서, 그것은 해석적인 실행과 화술적인 생크션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설득적인 실행과 화술적인 교묘히 다루기의 동차성(同次性, homogeneity)을 확립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 결합체적인 확장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만약 그들이 잘 형식화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식적인 알고리즘으로서의 이러한 궤도를 마음속에 그릴 수 있을 것이다.²⁰³⁾

더 나아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러한 실례를 자연언어로부터, 즉 프랑스어로부터 얻는 것이 편리하다. 설득(persuasion)의 유의어 중에서 동사 “convaincre(to convince, 납득시키다)”를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현행 사전에 주어진 그것의 정의에 대한 사용을 즉각 시도할 수 있다.

- ① “어떤 사람이 유도하다(To lead someone) //
- ② // 진실을 재인식하도록(to recognize the truth)
- ③ // 명제의(of proposition) 또는 사실의(of a fact).”

203) 인식론 차원의 증명사·동차성은 다음 도표를 참고할 것. (역주)



만약 우리가 교묘히 다루기의 주체로 s_1 을 지시하고, 생크션의 주체로 s_2 를 지시한다면, 우리는 ㉠ 아티클레이션 s_1 의 설득적인 실행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서의 ㉢ 인식론적인 행위(act), 그리고 아티클레이션을 유도하고 있는 s_2 의 해석적인 실행으로서의 ㉡ s_1 에 의해 s_2 에 일임된 발화-대상(“명제”)으로서의 아티클레이션을 관찰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해석절차의 축소 버전이 되는 것으로 고찰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사건을 찾아보면,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 것(진실, truth)의 2개의 새로운 정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허락하고 있는 것이 진리가 되다(Admitting to be true) //
// 거부된 후에(after having denied). 또는
// 의심된 후에(after having doubted).”
“수용하고 있는 것 // 은폐 대신에(despite reservation).”

오히려 이렇게 하찮은 정의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발언을 하도록 유도하며, 또한 그것은 카탈로그를 만들려고 시도할 것이다.

인식론적인 행위는 변형이다. 정의의 두 번째 시리즈는 담화의 인식적인 차원 안에 정위된 인식론적인 행위가 사실 변형, 즉 어떤 “믿음의 상태(state of belief)”로부터 또 다른 것으로의 범주적인 이동이다.

부정된 것으로부터 수용된 것으로까지의 이동,
어떤 사람이 의심하는 것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수용하는 것까지의 이동,
등.

이것은 변형, 즉 s_2 의 판단에 종속된 발화의 인식론적인 지위가 그 s_2 와 동일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바로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식론적인 행위(epistemic act)는 해석적인 실행으로 그리고 담화적인 변화과정으로 전환될 수 있다.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변형은 심층 통사론에 정위

된다. 따라서 예를 들면 부정된 것으로부터 수용된 것으로의 이동은 인식론적인 사각형(비록 4개의 관점으로 한정된다고 할지라도) 상에서 대당으로 그래서 이중적인 것으로 정위될 수 있다. 이것은 이러한 변형의 “화술화”를 우리가 마음속에 그릴 수 있기에 충분한 것으로 존재한다. 어떤 레벨에서 다른 레벨로 이동시킴으로써 우리는 그들에게 구조전환의 보편적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표층의 통사론의 레벨에서 논리의미론적인 유형의 인식적인 작용은 계층적으로 조직된 일련의 화술프로그램을 보여준다. 우리는 우리가 납득시키고자 하는 주체의 해석적인 실행을 발견하는 신인동형동성적인 레벨에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

결국 담화적인 레벨의 해석프로그램은 양상적인 변화과정의 형식을 얻게 될 것이다. 인식론적인 행위, 즉 기호현상-화술적인 레벨에서의 범주적인 것은 담화적인 레벨 상에서 어김없는 것으로 지각될 것이다. 관찰자는 총체지속적인 상태(=믿음의 상태, 그리고 행위에 불과한) 안에서 연장된 기동적인 것으로든지, 또는 결정적인 것(범위를 넘어선 그리고 초월한 믿음의 또는 의심의)으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 그것을 읽게 될 것이다.

노트: persuasive doing(설득적인 실행); 1. 인식적인 실행 중의 하나인 설득적인 실행(persuasive doing)은 언의발언(enunciation)의 영역과 연결되고, 언의화자에 의해 제안된 언의발언적인 계약·응축을 수용하는 언의청자를 만들려고 애쓰는 모든 종류의 양태성의 대화 안에 존재한다.

2. 이러한 투시도법의 관점에서 보면, 설득적인 실행은 작위적이라고 호칭된 양태성의 확장으로 고찰될 수 있다. 이러한 확장은 더욱 더 복잡한·양태적인 화술프로그램을 생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작위적인 것은 때때로 양태화 된 주체의 존재(being)로, 또 어떤 때는 그것의 잠재적인 실행으로 언의 지시될 수 있기 때문이며, 그것은 설득적인 실행이 고찰될 것인 이러한 2개의 양상 하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3. 주체 존재(being)의 양태화의 경우, 설득적인 실행은 언의청자가 내재성의 지위를 기호화적인 변화과정(또는 그것의 아티클레이션 중의 어느 하나로)으로 보증하려고 애를 쓰는 인식적인 실행으로 해석되며, 그 변화과정은 언의청자가 표출을 기피하는 것으로 수용될 수 없다. 설득적인 실행은 현상적인 것으로부터 실체적인 것(noumenal)을 추론하는 언의청자를 만들려고 애를 쓴다. 첫 번째 시도로, 표출의 도식(외관/비-외관)으로부터 우리는 내재성의 도식(내관[being]/비-내관)을 유도할 수 있는 4개의 궤도를 예견할 수 있다. 외관으로부터 시작하면, 우리는 내관(존재, being)이든지 또는 비-내관이든지 하여간 어떤 것이든지 실재물로 증명할 수 있으며, 비-외관으로부터 시작하면, 어떤 때는 내관으로 어떤 때는 비-내관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것은 기호학을 “존재론(ontologies)”으로 변형하려고 겨냥한 존재론화의 궤도임이 매우 분명하다. 이러한 궤도 안에서 다소간 설득력이 있는 것의, 다양한 복합성이 있는 것의, 복합적인·양태적인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4. 두 번째의 경우, 설득력이 있는 것의 그 프로그램은 타자의 실행을 일으키며, 그 설

특적인 실행은 교묘히 다루기 구조의 프레임 안에서 그것의 양태적인 프로그램을 명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적인 실행의 두 유형은 공동으로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있다. 교묘히 다루고 있는 설득력은 내관 안의 언외청자에 영향을 끼쳤던 그것의 절차와 그것의 시물레이크리를 오로지 표출구조로만 확립할 수 있다. 그것의 내재에서, ㉠ 우선 무엇보다도 그 담화(신념의 담화 그리고 교묘히 다루기의 담화)가 설득력이 있음이 명백하다. ㉡ 또 다른 분극(예를 들어, 탐색 또는 지식의 커뮤니케이션)이 불법이라고 금지를 선언하는 형식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다소간 명확하게 명기된 이러한 담화는 신앙(believing)의 그리고 연기(acting)의 모델(과학적인 또는 교훈적인 담화)과 함께 설득력의 화술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 결국 발화된 언외발언의 형식 아래 다소간 자율적인 설득력이 있는 시퀀스를 포함하고 있는 바로 그 설득적인 담화의 형식으로 존재한다.

5. 담화적인 분석은 별 어려움 없이 설득적인 담화의 다양한 형식을 식별하는데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p. 230~231. (역주)

노트: interpretive doing(해석적인 실행); 1. 인식적인 실행이 선택한 형식 중의 하나가 해석적인 실행이다. 그것은 언외발언(enunciation)의 실례와 연결되고, 그것이 수용하는 계약·응축적인 명제에 필연적으로 순응하는 이러한 양태성에 관한 언외청자의 호출로 존재한다. 대체로 수용된 모든 발화는 표출로 나타나며, 해석적인 실행의 그 역할은 발화상의 내재의(내관의[of being] 또는 비-내관의) 지위가 부여된다.

2. 따라서 그것은 진정성의 양태적인 범주가 다양한 비-망각의(alethic) 양태성의 호소에 의해 그리고 점진적으로 또는 일시에 일어나는 인식론적인 주체의 중재권유에 의해 실행되는 해석적인 능동성 안의 보편적인 프레임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때 해석적인 실행은 인식론적인 언어능력의 함수에 의해 주요한 모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인식적인 실행의 한 유형으로서, 해석은 확장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흔히 복잡한 인식프로그램의 형식을 획득하며, 전체 담화를 에워싸기조차 할 수 있다(마치 주석서, 비평, 과학적인 담화의 어떤 형식처럼). —Ibid. p. 160. (역주)

해석(interpretation)은 재인식(recognition)과 동정이다. 만약 해석적인 실행이 변화과정(논쟁, 확증 등)을 납득의 다양성으로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광대한 영역을 떠맡는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그것을 인식(진실의)의 작용으로 환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인식(cognition, 지각)과 대당으로서의 재인식(recognition, 승인, 프랑스어로는 reconnaissance와 connaissance)은 비교(comparison)의 작용으로 존재한다. 제안된 것(=논리적인 명제, 암시 또는 야기된 제언을 의미하고 있는 명제와 함께)은 기왕에 알려진(known) 또는 믿어진(believed) 것과 비교된다. 비교로서의 인식은 야기된 제언의 발화 안에서 총체성의 또는 기왕에 소유하고 있는 “진실(truth)”의 단편들로 이루어진 총체성의 동정을 필연적으로 포함한다.

인식론적인 행위는 판단하고 있는 주체의 “지식/신앙”의 우주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정이다. 지시적인 “실재성(reality)”과 어울리는 텀으로 정의된,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에 필적하는 “진실”의 인식은 이제 우리자신의 인식적인 우주와 필적하여 양의연동상태로서의 텀으로 정의된다.

노트: recognition(재인식; 1. 가장 일반적인 의미로, 인식은 2개의 원소 간에 동정(同定, identity) 관계를 확립하고 있는 주체에 의한 인식적인 작용인데, 그 중의 하나는 나타나고 다른 하나는 부재(어느 곳이든지 또는 과거이든지)하며, 그 작용은 동정(同定, identification), 즉 동정성(identity)과 이타성(alterity)을 분별하는 주체에 능력을 부여하고 있는 절차를 포함한다. 이러한 것의 예는 동정이 파지(把持)에 의해 성취될 때 존재한다.

2. 리옹(J. Lyons)은 재인식문법(또는 기술문법)으로부터 종합적인 유형(문법으로부터 어휘목록까지 선행하는)의 생산문법(마치 생성문법과 같은)을 구별한다. 발화의 언어자료체의 분석으로 기초가 만들어진 그것은 발화가 표현하는 형식적인 목록의 기술을 시도한다. 표층에서 심층까지 작용하고, 또는 역으로 이러한 접근의 두 유형은 상보적인 그것에 의해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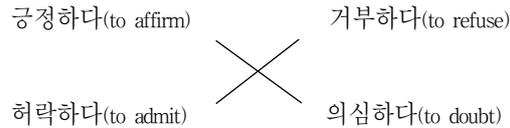
3. 화술적인 담화의 인식차원에 정위된 재인식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가, 비-지식의 지식으로의 변형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정보 확장적인 발화로 흔히 정의된 그래서 담화적인 격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보다 더 엄밀히 검토된다면, 그것은 사건과 대상에 대한 지식의 부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소정의 화술 안의 무지로 지시되었던 것으로, 그러나 “정확한” 것이 아닌 지식(이해되지 않고 있는 것)이며, 존재하고 있는 그 지식이 예를 들어 오로지 존재하고 있는 것(존재[being]의 종속 안에)으로만, 또는 역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만 출현하는 대상(마치 신기루처럼)으로 고찰되어 존재한다는 것으로 관측될 수 있을 것이다. 화술적인 추측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재인식으로 호칭된 인식적인 그것은 무지로부터 지식에 이르는 추이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잘못 된) 지식으로부터 또 다른(진리, true) 지식에 이르는 추이이다. 일반적인 화술도식에서, 재인식(그것은 사전에 영웅에게 귀속된 표지에 사의를 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은 발신자의 인식적인 생크션(sanction)과 상응한다. 그것은 영웅-주체에 의해 실행된 화술프로그램과 발신자의 가치론적인 체계(주체-수신자의 연기의 일치로 판단한다) 사이의 동정(同定)으로 존재한다. 영웅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재인식은 영광이 부여되는 시련(시험)과 상응한다.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p. 256~257. (역주)

노트: alterity(이타성, 異他性); 이타성은 비정의적 개념이며, 그것은 다른 동종의 개념, 즉 동정(同定, identity)과의 대당(對當, opposition)이다. 적어도 이러한 비정의와 동정과 같은 짝은 상호전체의 관계에 의해 내적으로 정의 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그 동정화(identification)는 일종의 동정 또는 몇몇 대상과 관련하고 있는 결정을 허락한다. 그러므로 편차는 인식된 그들의 이타성(異他性)에 의해 이루어지는 변화과정이다. —Ibid. p. 12. (역주)

인식론적인 행위는 양의연동상태로서의 적합성을 위한 통제자로 존재한다. 우리는 “인식”이 낡고 기왕에 알려진 것과 비교하여 새롭고 알려지지 않은 것을 양의연동상태로서의 적합성으로 만드는 최초의 통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는 판단력으로 요약된 명제의 진실 또는 허위성(falsity)이 제2의 효과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제의 결과는 조정적(positive)이거나 부정적인(negative) 것이 될 수 있다. 양의연동상태로서의 적합성은 인식되거나 무시될 수 있다.

이제 인식론적인 행위는 그것의 두 측면의 텀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것은 긍정적이거나 거부적이며, 게다가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사각형 상에 설치하도록 허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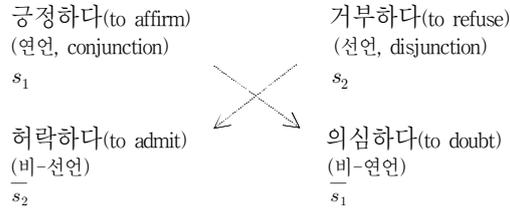
노트: 비록 우리가 질베르크(Claude Zilberberg)²⁰⁴의 텀 “신앙(believing),” “허락하다(to admit)” 중의 하나로 반제될지라도 그에 의해 제안된 사각형을 사용한다.

인식론적인 행위는 정당한 작용이다. 인식론적인 행위가 어떤 작용으로, 즉 “순수한(pure)” 인식적인 실행으로 고찰된 뒤에, 우리는 고찰된 두 대상의 연언으로든지(성공한 경우에) 또는 선언으로든지(실패한 경우에)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그 결과로 판단하고 있는 주체의 인식적인 우주의 이리저리한 단편과 함께 인식론적인 판단에 종속된 발화로 동정하려고 시도하는 그 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론적인 양태화는 단계적인 것이지 범주적인 것이 아니다(예를 들어, 비-망각의 양태화로 존재하는 것처럼). 즉 /긍정하다(to affirm)/와 /거부하다(to refuse)/는 오로지 함수적인 작용의 삼단논법의 양끝 다시 말해서 주사와 빈사의 분극으로만 고찰될 수 있다. 그렇게 성공한 것들이 연언이며, 성공하지 못한 것들이 선언이다. 투기될 수 있는 이것들의 사각형은 도식 s_1

204) Claude Zilberberg; 국가박사 질베르크(Claude Zilberberg)는 1938년 프랑스에서 출생했다. 그는 파리 내제기화학 세미나의 공동이사이다. 20년 전에 그는 그레마스의 기호학이론의 기본 위에 오버레이(overlay)로서의 긴장적인 입체감표현법(modeling; Jacques Fontanille과 함께 도입했던)의 적용에 관한 효과를 분석하고 있었다. (역주)

vs $\overline{s_1}$ 과 s_2 vs $\overline{s_2}$ 를 모순으로서가 아닌 단지 등급매기기로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서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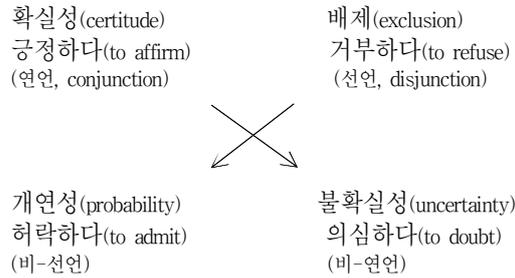
따라서 우리는 다소 /의심/하거나 다소 /허락/할 수 있고, 그러면서 다소 /긍정/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노트: 일단 이원화된 축 /긍정(affirm)/ vs /거부(refuse)/는 논리의 기본적인 범주, 즉 등식 " $\overline{s_2}=\overline{s_1}$, 그리고 $\overline{s_1}=s_2$ "에 따르고 있는 제한과 함께 /주장(assertion)/ vs /부정(negation)/이 된다. 그 기본적인·통사론적인 궤도(허가를 매개로 하여 거부로부터 긍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의심을 매개로 하여 긍정으로부터 거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필연적인 중재추이와 함께)는 담화의 기호화적인 함수로 고찰된다.

인식론적인 행위는 인식론적인 양태성으로 환원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로지 인식론적인 양태화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우리는 그들을 인식론적인 행위로 동정하고, 함수 작용으로 동정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존재(being)”가 아니라 “실행(doing)”의 목류에 속한 약동적인 형식으로 관찰한다. 그들을 양태화(modalization)에 불과한 그러나 오히려 양태진행 행위 뒤에 고찰된 발화의 양태적인 지위를 지시하고 있는 양태성(modalities)으로 표현함으로써 더욱 쉽게 “실체화 될 수 있으며(substantivized),” 논리학은 이것을 쉽게 만들어 주었다. 이것은 인식론적인 행위가 공정하게 요약된 발화를 양태적으로 “착색하는” “양태적인 충전(modal charge)”을 생산한다고 언급하게까지 한다.

따라서 우리는 기왕에 확립된 사각형의 4개의 관점을 위해 일련의 새로운 지시를 첨가할 수 있다. 그들의 정의를 양태성(modalities)으로, 양태화(modalization)로, 또는 함수적인 작용(junctive operation)으로 호칭하는 세 종류의 지시는 동차화 될 수 있다.

제10장 지식(knowing)과 신앙(believing); 진기한 인식의 영역



주체 작용인자(operator)는 유능한(competent) 주체이다. 실행의 목류로, 그리고 연기로의 이동을 위해 필연적인 전제조건으로, 존재하는 담화의 인식적인 차원 안에 정위된 작용은 주체의 일부분 상에서 어떤 양태적인 언어능력을 전제한다. 그 언어능력의 보다 더 엄밀한 검토는 현 연구의 한계를 초월한다. 우리는 이 언어능력이 아마 2개의 양태성으로, 다시 말해서 내포화(virtualizing)와 또 다른 외연화(actualizing; 선언로, 즉 /실행요망(wanting-to-do)/과 /실행노하우(knowing-how-to-do)/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간단히 언급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소정의 문화적인 화맥 안에서 약간의 인식론적인 양태성의 특권이 주어진 반복상(iteration)에 의해 연결된 그러한 주체 작용인자가 담화적인 레벨에서 판에 박힌 역할로 변형될 수 있음을 상상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확실성의 판단에 관한 순환운동과 상응할지도 모르며, 어느 상보적인 자질을 부여하는 결정, 즉 “속아 넘어가기 쉬운 사람(credulous person)” 또는 “광신자(fanatic)”를 마음속에 계속 가두고 있는지도 모르며, 불신의 습관은 “회의론자(skeptic)” 등의 역할을 발생시킬지도 모른다.

신앙은 지식을 선행한다(Believing Precedes Knowing).²⁰⁵⁾

명제(proposition); 인식론적인 행위에 대해 언급하기 위하여, 우리는 해석적인 궤도의 극단적인 한계에서 인식론적인 주체의 능동성의 장소가 정위되게 하기 위하여 신중히 선택했었다. 동시에 우리는 총체적인 화술도식에 관해 판단하고 있는 수신자와 함께 주체를 동정했다. 그러한 선택은 오로지 담화

²⁰⁵⁾ 앞에서 이와는 역으로 언급한 “지식은 신앙을 선행한다(Knowing Precedes Believing)”와 비교해 보라. (역주)

의 책략으로만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득된 극화에 사의를 표하고, 우리가 고찰하고 있는 현상의 “보다 순수한” 포착을 허락하며, 바로 그 사실은 우리가 결국 인식론적인 판단을 위한 모델로 기여할 수 있는 그 함수의 시뮬레이크러를 구성하도록 허락한다. 게다가 이 모델은 기호현상-화술적인 통사론 안에 통합될 것이다. 그것은 관념적인 도식과는 독립적일 것이며, 주체의 궤도상에서 그들의 정향이 무엇이든지 간에 인식적인 작용으로 고찰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모든 거래가 비록 그들이 언의지언이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상호관계가 있는 신뢰를 요구한다는 것을, 그리고 피신탕의 교차점적인 계약·응축으로 호칭되었던 것 안의 주인공과 맞물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자신으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데 유용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계약·응축이 커뮤니케이션의 어느 행위를 선행하든지 또는 그보다도 최초로 접촉하기 시작한다든지 하여간 어떻든지 간에 약간 중요한 것으로 존재한다. 이것은 닭이 먼저냐-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이다. 실제로, 모든 분석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당되어 특이한 사태와 커뮤니케이션이 맞물리는 인식론적인 행위이다.

우리가 그 자체로 확신하는 그 단언적인 “나는 생각한다”를 가지고 있든지, 또는 말을 더듬는 “나는 안다”를 가지고 있든지, 그들이 큰소리로 발화되든지, 또는 암시적이든지 하여간 어떻든지 간에 그들이 맞물림의 양의연동(兩儀連動, engagement, embrayage)을 발생시키는 것은 계약·응축(contract)으로 호칭될 수 있다. 단어 명제의 2개의 의미(발신자를 포함하는 발화와 암시, 약간 이동하는 매력)는 화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특히 첫 번째는 발신자를 포함하고, 두 번째는 수신자에게 말을 건다. 그리고 두 정의는 주사와 빈사 양극의 커뮤니케이션을 “신인동형동성화 하는” 피신탕의 교차점적인 관계를 명백하게 만든다.

노트: engagement(양의연동, 兩儀連動); “1. “engagement”를 한국에서는 주로 “사회참여(양가주망이라고 프랑스 원음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오독의 여지가 있으므로 분명히 밝혀두는 것이 좋겠다. 2. 똑 같은 아티클레이션을 갖고 있는 프랑스어 “engagement”는 영어에서와 같이 “① 약속, 맹세; 계약; 예약, 면회의 약속, 사교상의 예약[예정]; 일의 예정, 용무. ② 싸움, 교전”이라고 하는 의미 이외에 “③ 정치·사회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태도를 취하기, 사회참여. ④ 분만 시의 아두진입(兒頭進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3. 영역자는 “embrayage(연동장치)”를 굳이 “engagement”로 번역하고 있다.

영어에는 여기에 적합한 단어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용어의 본래의 의미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embrayeur(연동장치, 연동소)”와도 같은 범주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embrayage”나 “embrayeur,” 이 한 가지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syncopation”과 같이 이들 모든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역자는 “embrayage(engagement)”를 “양의연동(兩儀連動)”으로 번역하고자 한다. 태극(太極)은 만물의 최고원리이며 근원이다. 그리고 무극(無極)과 유극(有極)의 시종점(始終點, 12시와 0시가 동시에 있는 것과 같은)으로서 이(理)를 바탕으로 한 기(氣)가 동(動)하려고 하는 시공(時空)의 점이다. 여기서 이기(理氣)의 이(理)는 주재자(主宰者, 즉 주체)요, 기(氣)는 유행자(流行者)를 말한다. 또한 이(理)는 체(體)가 되며, 기(氣)는 용(用)이 되는데, 전자는 불변자(不變者, invariant)로서 용지체(用之體)이며, 후자는 변자(變者, variant)로서 체지용(體之用)이다. 양의(兩儀)란 태극의 일차 변화로서 음(陰, negative)과 양(陽, positive)으로 표현한다. 음양(陰陽)의 법칙에는 순서의 음(陰)과 양(陽)이 있고(시간), 입체적인(공간) 대칭, 대대작용(對待作用)의 음양이 있다. 순서는 상생(相生) 작용으로 정오행(正五行)이 되고, 대대(對待)는 상극(相剋) 작용으로서 화기오행(化氣五行, 用五行)에 응용된다. 그리고 음양은 하나이면서 둘이므로 대대작용(對待作用)을 하면서 상반된 기운이 서로 맞물고 돌아간다.” (역주)

1. 양의연동(兩儀連動)은 이탈(disengagement)의 반대이다. 이탈은 발화를 위한 지원으로 기여하는 텀 범주의 언의발언(enunciation)의 영역으로부터 배제의 결과로 존재하며, 반면에 양의연동은 언의발언으로 되돌아간 결과를 지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연기자의 범주에 속하는 어떤 텀 사이의 대당의 서스펜션에 의해 생산되며, 마찬가지로 발화영역의 부정에 의해 생산된다. 따라서 모든 양의연동은 그것을 논리적으로 선행하는 이탈을 전제한다.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아름다운 나라입니다.”라고 발언할 때, 그는 담화 안에 명백한 주체를, 언의발언의 영역과 관련된 거리를 설치하고 있는 발화적인 이탈을 작동시킨다. 다른 한편, 만약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은 그것을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아직 형식적으로 발화적인 이탈이지만, 비록 그들이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다른 대상들 사이에서, 발화의 주체와 언의발언의 주체 사이에서 동정(同定)의 결과의 생산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양의연동이라고 호칭하는 절차의 세트에 의해 보충될 것이다.

2. 이탈과 마찬가지로 양의연동은 연기자적인, 관자놀이-시간적인, 그리고 관자놀이-공간적인 양의연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 절차의 각각은 따로따로 고찰될 수 있지만, 그들은 흔히 일치되고, 병존설적인 것으로, 혼합주의적인 것으로 그 장소 안에 삽입된다. 따라서 예를 들면, 모파상(Guy de Maupassant)의 “두 친구”에서, 두 친구가 포위된 파리에서 서로를 인식할 때, 환기된 낚시여행의 즐거움에 관한 추억은 혼합적인·관자놀이-시공간적인 양의연동의 연기 안에 삽입된다. 총체적인 양의연동은 말로 진술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담화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버리기 때문이다. 그것은 “말로 나타낼 수 없는(ineffable)” 것으로 되돌아갈지도 모른다. 어떤 것이 그것의 존재자 또는 그것의 우발적인 정체의 드러남을 암시적으로 어렵듯이 느낄 수 있는 한 비밀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의연동은 선행 이탈의 어떤 담화적인 유표를 어떻게 해서든지 남겨놓지 않으면 안 된다.

3. 발단부터 그것은 발화의 논리적인 전제로 진척시키고 있는 이탈의 절차가 상상될 수 있다고 하는 “이탈된” 담화로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그 유형의 발화: “야야, 넌 일을 잘 하고 있어.”라고 하는 말은 이중의 독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 첫 번째의 경우, 거기에는 단순한 언의발언적인 이탈이 존재한다(화자가 근로소년을 칭찬한다). 두 번째의 경우, 이탈은 양의연동에 의해 추구된다(화자는 “내부담화” 안에서 그 자신에게 말을 건다). 그것은 일을 잘 하고 있는 “너(you)”이며, 그리고 “너(you)”가 그 자신을 칭찬한다. 이러한 두

번째의 독해는 그저 단순한 설명이 아니다. 그 이중의 독해는 2개의 명확한 발화의 “심층 구조(deep structure)” 안의 오로지 그 존재자로서만 발생될 수 있다고 언급될 것이며, 예견될 수 있는 그 “나(I)”의 그 장소 안의 주체 “너(you)”를 설치하고 있는 그 두 번째의 것은 “나(I)”를 투기하고 있는 암시적인 이탈로 기술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범주적인 대당 “나(I)”/“너(you)”의 서스펜션에 의해 추구될지도 모르며, 그것은 “너(you)”의 생산을 허락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비록 정확하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해석은 완벽하게 충분한 것이 아닌 것 같다. 그것은 본질적인 것으로 고찰되지 않고, 발화된 “너(you)”가 언외발언의 영역에 속하는 그것에 따라 생산된 혼동하기 쉬운 가공의 인상으로 고찰되는 것 같다. 다른 한편, 범주적인 대당 “나(I)”/“너(you)”의 서스펜션(또는 중립상태)은 독단적인 양식으로 공포되어 운명이 정해질 수 없다(즉, “A=B”와 같은 표층의 은유로 표현될 수 없다. -역주). 공통기반의 존재자로서, 범주의 2개의 팀을 포섭할 수 있는 관계의 존재로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오로지 그것만이 허락된다. 이제 이러한 공통기반은 우리가 이탈을 시작했던 기본원리의 작용을 고찰하기 위하여 호소했던 그것의 팀 “비-나(not-I)”에 의해 구성된다. 이러한 후자의 절차 안에서, 부정된 언외발언의 영역은 발화의 행위주적인 영역으로 정의될 수 있는 “비-나(not-I)”를 생산한다. 이러한 존재(being)의 경우, 우리가 양의연동을 언외발언의 주체에 의해 실행된 “not-I(최초의 부정, 즉 발화의 공간을 창조하고 있는 이러한 부정의 순간에 나타났던 팀)”의 부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것은 언외발언의 기원으로서의 가능한 반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 동안 내내 언외발언적인 환영을 창조하면서, 양의연동은 이미 시작되었던 이탈 작용을 결코 중지하지 않았다. 그때 추방되었던 “비-나(not-I)”는 그것이 포섭하는 2개의 팀 중 한 개의 형식 안에 표현될 수 있으며, 반면에 기호학적인 속박 안에서의 연기를 위한 어떤 여백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 단계의 폭은 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정(La Modification)」에서 뷔토르(M. Butor)가 “너(you)”의 복수형식을 만들고 있는 그 관행은, 언외발언을 투기했던 위격 범주의 프레임 안의 연장된 서스펜션적인 궤도로 고찰된다. 그 궤도 안에 최초로 설치되었던 그 “나(I)”가 발화 주체의 생성을 목표로 삼은 것은 처음에 총괄적인 “we(“I”와 나와 비교될만한 “타자”를 포섭하고 있는)”로 변형된 것으로 추측되며, 오로지 배타적인 복수형식 “you(not-I)의 환유어로서의 “타자”를 변형한 후에만 추측된다. 오로지 이러한 관점에서만 맞물려 연동하고 있는 부정을 실행하며, 동시에 이러한 복수 “너(you)”를 표현하고 있는 그것은 추구된 경로를 뒤집어놓고, 기왕에 지시된 “나(I),” 즉 언외발언적인 환영의 창조자를 후퇴시켜 바껴놓는다.

4. 우리는 양의연동에 의해 암시된 복합절차로 고찰될 수 있는 모델의 구성을 낮게 평가하지 못한다. 타자들은 “we”보다 확실히 더 좋게 실행될 것이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간주되는 것에 집착할 것이다. 양의연동은 언외발언의 영역의 목표와 일종의 실패, 즉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한 것의 그 불가능성의 양쪽으로 존재한다. 탐색된 페포언어세계이외의 방식의 목표와 함께 2개의 “지시(reference)”는 총체적으로 명백한 외관(exteriority) —주체(언외발언의 영역)를 지시하는, 그리고 대상(지시대상으로서 인간존재를 에워싸고 있는 세계)을 지시하는, 그 외관상에서 이러한 우주를 편으로 끌어 고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오로지 최종분석 안에서만, 생산되고 있는 환영 안에서만 성취되는 것을 지시한다.

5. 이것은 아마도 이러한 전유의 한계 안에서 양의연동의 유형학을 진전시키려고 시도하는 타당한 장소가 아닐 것이다. 이것은 그것이 충분하고 명확한 분석으로 기초가 만들어질 수 있을 때, 타당한 시간 안에서 실행될 것이다. 이탈에 관해 말한다면, 편차는 발화적인 양의연동(cf. 앞에서의 미국 대통령의 예)과 언외발언적인 양의연동(근로소년) 사이에서 만들어진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언외발언의 영역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양의연동, 다른 한편으로는 두 번째-단계(또는 내재적인)의 양의연동 간의 편차로 존재하

며, 그것은 담화 안에서 실행되고, 목표를 겨냥했던 그 주체는 기왕에 설치된 장소이다(cf. 모파상의 “두 친구”에서의 “내면성”은 그들 파지의 양의연동작용에 의해 구성된다). 또한 그것은 다음과 같은 동차-범주적인 양의연동 간의 편차로 존재한다. 즉 이탈과 양의연동이 연기자의, 시간과 공간의 동일한 범주, 그리고 다른 범주적인 양의연동과 관련된 것을 추구할 때, 이탈작용과 양의연동작용이 예를 들어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의 경우처럼 명확할 때, 그는 말한다. “나는 여성의 내실에 있다...” 이탈의 순간에 발생하는 것과 반대로, 그것의 결과는 그것의 작용이 시작되는 그 영역을 지시하는 것으로 존재하며, 양의연동은 그것이 관련된 발화의 비-지시를 생산한다. 이 후자 안에서 그것은 기술의 성질이 “분위기(mood)”로 변형된 양식으로 존재한다. 프로스트(Robert Lee Frost)의 내레이터의 파지된 어린 시절(즉, 관자놀이-시간적인 양의연동으로 경험되고 있는)은, 일련의 “사건”으로 끝나고, “파지(memories)” 등의 격아강적인 조직이 된다. 우리는 양의연동의 절차가 상징주의를 철저하게 다룰 수 있다고 결코 믿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방식을 얼마간 담화 안에 삽입된 “내재적인 삶”의 복합양상으로 고찰할 수 있다.

6. 복합양상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이탈절차의 유형학으로 결합된, 우리가 예기하고 있는 양의연동의 유형학(그리고 우리가 약간의 축으로 윤곽을 그렸던 그것을 위한)은, 오로지 담화단위와 글쓰기의 개념상에 새로운 빛을 투사하는 것의 정의(그리고 그 유형학)에 기초를 둘 수 있을 뿐이다.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p. 100~102. (역주)

지식에 따르고 있는 교묘히 다루기(manipulation); 선행검토는 긍정으로부터 의심으로, 그리고 거부로부터 허락으로 이동하는(요구하다, 추정하다, 가정하다, 어렵듯이 느끼다, 허가하다, 억측하다와 같은 동사의 무리가 이것을 입증한다) 인식론적인 기초로 설립된 발신자에 의해 형식화된 어느 명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의 허두(虛頭)로 기여하고 있는 이 인식론적인 행위는 그 자신의 단순한 긍정이 결코 아니다. 귀결과 계약·응축에 접촉하고 있는, 탐구하고 있는, 수신자는 그것을 수용하거나 거부할 것이다. 이러한 두 실례와 두 정향이 차지하고 있는 그곳은 기호현상-화술적인 구조의 레벨에서 교묘히 다루기와 생크션의 광대한 구조와 상응하는 설득과 해석의 인식적인 공간이다.

최근에 우리는 교묘히 다루기의 문제를 연구했다. 특권이 주어진 양태성의 텀 안에서 각각 정의를 내릴 수 있는 2개의 주요한 형식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만했다. 예를 들어, 유혹에 의해 또는 사주(使喚)에 의해 표현된, 요망에 따르고 있는, 그리고 능력(being able)에 따르고 있는 교묘히 다루기는 협박과 자극으로 인식된다. 양 경우에 우리는 교묘히 다루어진 주체의 일부에서 호응 또는 유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영향을 받은,” 해석적인 실행에 사의를 표하는, 시물레이크리(simulacra)의 몽타주를 창조하는, 작위적인 작용을 소유하고 있다.²⁰⁶⁾ 따라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믿음-원인

(causing-to-believe)과 신앙(believing)을 가져와 실행하는 그래서 의미로 고찰하는 절차이다.

이제 우리는 동정된 그 인식공간이 또 다른 종류의 교묘히 다루기의 운동을 위한 장소로 고찰될 수 있다면, 작위성 안에서 지식에 따르고 있는 교묘히 다루기는 논리적인 독립변수(argumentation)의, 게다가 과학적인 표현의 다양한 형식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인식론적인 주제, 즉 추론명

206) montage: 심리적으로 관련 있는 몇 개의 화면을 급속히 연속시키는 기법. 다른 요소가 모여서 통일적으로 느껴지는 것, 통일적 이미지. ① 이 몽타주 기법의 창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옛 소련의 영화감독 세르게이 아이젠슈타인(Sergei M. Eisenstein, 1898~1948)은 라트비아 공화국에서 교양 있는 부르주아 가문 출신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볼셰비키 혁명 가담 후 모스크바의 전위-혁명연극집단에서 다양한 형식적 실험과 대중과의 사상적 결합을 경험하게 된다. 그는 예술의 역할은 관습적인 부르주아 예술의 전통을 공격하는 이상파의 힘을 발휘하는 데 있다고 보았으며, 부르주아 예술의 구태의연한 형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혁명적 미학을 만들어내는 것이 예술가의 임무라고 확신하였다. 첫 작품 “파업(1925)”에서 이미 대조적인 이미지의 결합에 의한 몽타주의 실재를 선보인 그는 혁명 20주년 기념작의 공식감독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완성된 작품이 그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전함 포템킨(1925)”이다. “어머니(1926),” “10월(1927)”을 발표한 후 1929년에 다큐멘터리 “옛 것과 새 것” 등을 제작하였으나 스탈린의 집권 이후 1934년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당의 공식적인 예술 노선으로 공표되자 1935년 작가 동맹에서 형식주의자로 공식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후 유럽과 미국을 여행하고 돌아와 “알렉산더 네프스키(1938),” “이반 대제”1, 2부를 제작하였다. “이반 대제”는 러시아 제국의 최초 황제인 이반 4세가 러시아 통일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이야기를 다룬 3부작 영화로 기획되었는데, 2부가 완성된 후 역사해석에 대하여 비판을 받아 상영이 금지되었다가 스탈린이 죽은 뒤인 58년에 공개되었다. 아이젠슈타인은 1948년 2월 11일 모스크바의 아파트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② 전함 포템킨(Bronenosets Potyomkin 1925); 철저한 마르크시스트였던 아이젠슈타인의 “충돌 몽타주”는 유물론적 변증법의 정반합 이론을 영화적으로 변형시킨 것이다. 기계공학을 전공한 그는 영화를 과학적인 것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영화의 선동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신의 이론적 실험을 꾸준히 해냈다. “전함 포템킨”은 그의 초기 몽타주 이론을 실험한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이 영화가 상영되자, 아이젠슈타인은 물론 새로운 소비에트 영화는 세계적 명성을 획득했고, 영화언어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1905년 혁명 전야의 제정러시아가 이 영화의 배경. 흑해 선단의 일원인 전함 포템킨에서 장교들의 학대와 열악한 근무조건에 불만을 품은 수병들의 선상반란을 발단으로 시민들이 일어나 혁명의 대열에 함께 한다는 내용. 이 영화에서 특히 유명한 장면은 “오랫사 계단에서의 학살” 장면이다. 계단 밑으로 굴러가는 유모차와 아무 것도 모르는 아기의 표정, 군인들의 학살, 도망가는 군중, 군인들의 학살을 고통스럽게 지켜보는 사람 등의 다양한 모습은 쇼트간의 충돌로 인해 관객에게 긴장감을 환기시킨다. 이 장면은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 “언터처블스”에서 직접적으로 패러디되기도 했고, 또 전함 포템킨에서의 영화기법은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③ 충돌 몽타주: 그는 평생의 경쟁자였던 동시대 러시아의 영화감독 프도프킨이 연속적인 화면들을 연속적인 액션으로 보이게 만드는 “연결 몽타주”기법을 사용한 것과는 달리, 서로 다른 이미지들이 충돌하여 새로운 이미지들을 창조하는 것에 주력하였다. 아이젠슈타인의 몽타주이론은 충돌 몽타주라고 정의된다. 충돌 몽타주는 독립된 두개의 쇼트의 이미지가 충돌하여 전혀 다른 이미지를 만든다. 아이젠슈타인은 자신의 이론적 근거로 한자의 예를 들었다. 한자의 견(犬)과 구(口)라는 두 개념이 모여 짓다(口犬)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는데, 여기서 두개의 이질적 요소인 ‘개’와 ‘입’의 합성으로 읽는 사람은 ‘짓다’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연상한다. 이것이 아이젠슈타인의 충돌 몽타주의 원리다. (역주)

제로 표현된 이 교묘히 다루기는 “비-망각적(alethic)”이고 진정성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의 판단력을 사용하여 타자를 납득시킬 수 있지만, 오로지 그들을 사용함으로써만 그들을 설득할 수 있다(Joseph Joubert, 프랑스어로부터 번역된).” 따라서 발신자가 수신자를 납득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그 절차는 수신자의 “판단력”에 직접적으로(또는 오히려 보다 더 좋게 연외지시적으로) 호소할는지 모르는 설득의 또 다른 형식으로부터 그것을 구별함으로써 지식에 따르고 있는 교묘히 다루기의 모드를 아종으로 분류할지도 모른다. 마치 “납득시킴(convincing, 프랑스어로 convaincre)”의 작용처럼, 우리가 인식레벨에서 일련의 단계로 존재하는 단어를 약간 개주(改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단계가 정복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복된(conquered, 프랑스어로 vaincu) 개체에 의해 수용되고 공유된, 그래서 완벽한 정복이 되며, 따라서 그것은 설득된 개체로 변형된다. 따라서 우리는 시련(시험)의 생산을 탐색하고 있는 일련의 프로그램으로 조직될 수 있는 인식적인 시련(시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을 판단하고 있는 인식론적인 실례에 종속시킨다.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학습에 의해 터득된 담화(learned discourse)”는 2개의 인식론적인 실례 사이에서 논리의 목표로 존재하는 결합체적인 “실행노하우(knowing-how-to-do)”로 진전하는 바로 그 특별한 설득적인 실행보다 더 좋은 것이 아닐지도 모를 것이다.

노트: cognitive(인식적인); 1. 형용사 “인식적인(cognitive)”은, 기호학에서, 지식(knowing), 즉 생산(production), 감수(reception), 교묘히 다루기(manipulation), 경상도야(assumption)의 아티클레이션의 다양한 형식을 지시하는 것에 의해 아종으로 분류하고 있는 텀으로 사용된다.

2. 계층적으로, 내재 지시대상으로 행동하는 화용론적 차원의 상위에 있는, 담화의 인식적인 차원은 담화 안에 설치된 주체에 귀속된 지식(인식적인 활동으로)의 증가와 함께 병치양식으로 발전된다. 만약 화용론적 차원(그것에 프로그램화된 고유의 연기와 함께)이 인식적인 차원을 필연적으로 함축하지 못한다면, 그에 상당한 것(reciprocal)은 진리가 아니다. 지식에 의해 화용론적 연기의 책임을 떠맡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는 인식적인 차원은 그들을 전제한다. 더 나아가 극단의 예로, 주어진 담화 안 화용론적 차원은 인식활동을 위한 구실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지만, 현대문학(modern literature)의 어떤 경향으로 아주 흔하게 발생한다. 마치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나는 무엇에 성공했는가?” 등과 같은 의문의 증식(증재[beng]와 실행[doing]의 두 축 상에서)은 화용론적 구성요소의 “발생하고 있는 것”의 위축(萎縮, atrophy)과 조화된다. 그때 화술적인 담화 안 인식적인 차원의 확장은 간극이 전혀 없이 격아강적인 것으로부터 추상적인 것으로의 전이를 돕는다. 따라서 우리는 첫눈에 격아강적인 것이 없거나 여러 가지 종류의 격아강화, 즉 인식적인 담화(cf. 아래 6)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 담화에 도착한다.

3. 인식적인 차원의 자율성은 인식적인 활동의 레벨 그 자체를 발전시키는 그 사실에 의해 보다 더 분명하게 만들어진다. ㉔ 인식적인 실행(doing)은 선언 또는 연언(連言)의 확립에 의해 기왕에 알려진 대상과 함께 주체의 관계를 수정한다. 따라서 존재(내관, being)와 외관(seeming)의 상호작용에 사의를 표하는 그 획득된 인식적인 상태(또는 인식적인 경향)는 진정적인(veridictory) 양태성의 기호사각형에 순응하여 “진리(true)/거짓(false)/비밀(secret)/허구(lie)”로 아티클레이션이 된다. 지식대상의 전승 그 자체를 위함으로써, 그것은 적어도 최초로 단순한 것으로 한정된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의 도식을 고려하고 있는, 방사하는(emissive) 실행(doing)이든지 또는 수용하는 실행으로든지 하여간 관측된, 정보적 실행을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항상은 아니더라도 매우 자주 지식의 이동은 진정의 관점에서 양태화 된다. “발신자/수신자”의 축을 고찰하면, 우리는 상호주관적인 피신탁의 교차점적인(fiduciary) 관계가 연기를 불러들인 각각의 설득적인 실행(persuasive doing)과 해석적인 실행(interpretive doing)을 가지게 된다. 화술적인 담화의 그 구조는 곧 계약·응축적이면서 논쟁적이라는 것이 부여됨으로써, 설득적인 실행의 도입은 상응하는 해석적인 실행을 환기시킨다. 서술이 실행의 두 형식음, 즉 설득과 해석을 번갈아 존재하는 두 주체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확장됨으로써, 그것은 예를 들어 속게 된 사기꾼의 두 행위주적 경향이 교체될 수 있거나 그 화술이 끝이 없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기꾼 이야기의 구조로 연결될 수 있다. 물론 실행의 두 형식(설득과 해석)은 그해 혼합주의에 의해 어떤 하나에 그리고 언외화자(enunciator)와 언외청자(enunciatee)의 행위주적 역할을 획득하는 동일 연기자(예를 들어, 언외발언[enunciation]의 주체)에게 귀속될 수 있다. ㉕ 인식적인 주체는 지식(부분적 또는 총체적)과 함께 언외화자에 의해 부여된 것이며, 담화 안에서 그것에 의해 설치된 것이다. 그러한 행위주는 아는 것으로든지, 또는 아주 눈치 채지 못하는 아니면 거의 눈치 채지 못하는 것으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 가정된 그 행위주에 의지하고 있는 매우 다양한 형식 안에서 언외화자와 언외청자 사이에 중재되고 있는 지식의 커뮤니케이션을 허락한다. 연기자적 레벨에서, 인식적인 주체의 역할은 화용론적 주체의 역할과 함께 혼합주의로 명백히 드러날 수 있다. 역으로, 인식적인 주체는 화용론적 주체와 다를 수 있으며, 마치 통지자와 같은 자율적인 연기자의 출현을 발생시킨다. 결국,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관찰자의 형식 안에서 적어도 함축적인 경향처럼 단순하게 인식할 수 있다. ㉖ 화술적인 도식의 기초구조 안에서, 그것은 화용론적 차원의 모든 것 위에 위치를 잡고 있는 주체-수신자의 그것과 인식론적 차원 안에서 전개되고 있는 발신자의 궤도와 대당이 되고 있는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 사실 발신자는 실현된 프로그램, 즉 계약·응축의 형식 안 화술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발단에서 그것으로 그 자체를 표출한다. 끝내, 발신자는 주인공의 인식과 약한의 가면 벗기(원상복귀)에 의해 인식적인 생크션을 발휘하고 있는 과업을 갖게 될 것이다. 주체-발신자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이 비록 화용론적 실행에 의해 주로 성격이 만들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또한 인식적인 차원 안에서 발신자와의 그 관계의 사실에 의해 명기된다. 설득적인 “실행능력(being-able-to-do, 유포에 의해 표현된)”에 감사하는 성취 안의 영광을 부여하는 시련(시험)은 물론 상응하는 인식적인 언어능력을 환기하고 있는 인식적인 언어연기(performance)로 고찰될 수 있다.

4. 인식적인 공간의 그 개념은 세계의 종합적으로 민감한 자질이 표출되고 있는 장소로서의 공간이라고 하는 정의가 획득되는 것으로 고찰될 수 있다. 사실 주체들 간의 인식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주체와 대상 간의 관계)는 공간 안에 정위된 관계이다(cf. 보고, 접촉하고, 듣는 관계). 같은 방식으로 담화의 생성적인 궤도를 고찰하는 것에 의해 지각된 이 인식적인 관계는 소정의 순간에 관자놀이-공간화 된다. 그들은 다양한 주체들, 근접공간을 형성하며, 인식공간의 관자놀이-공간적인 표상으로 단순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담화적인 기호학의 프레임 안에서, 그것은 언외화자와 언외청자 간에 암시적인 계약·응축된 형식 안

에 확립된 종합적으로 인식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언급이 가능할 수 있고, 기술된 연기의 그 생성지식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다. 게다가 이러한 공간은, 담화의 두 주인공이 관련된 연기와 연관되고 있는 동일 전지전능의 신을 공유할 때 절대적인 것으로든지, 또는 언외청자가 오로지 점진적으로만 지식을 요구할 때 상대적으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 존재할지도 모른다. 또한 그것은, 언외화자가 언외발언의 구조를 이탈하고 있을 때 그리고 담화 안에 그것이 설치될 때, 또는 그것이 인식주체에 그것의 지식을 위임할 때, 부분적인 인식공간에 관해 주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5. 인식적인 이탈(disengagement)은 두 가지 방식으로 연기된다. ㉔ 발화적이며 인식적인 이탈은 그 자신의 지식과 담화 안에 설치된 주체에 귀속되는 것과의 간극을 확립하고 있는 언외화자에 의한 작용이다. 그때 지식의 위임은 인식주체의 이득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함수 작용을 한다. ㉕ 언외발언적이며 인식적인 이탈은 예를 들어 담화 안에 설치된 내레이터가 그것을 위임하는 언외화자로서 동일한 지식을 공유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양 경우에 진정성의 양태성 진리, 거짓, 비밀, 그리고 허구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 언외화자의 인식적인 정향은 화법의 행위주의 그것, 또는 내레이터의 그것과 다르다.

6. 언외화자의 인식적인 능동성(설득적인 실행에 의해 또 다른 대상으로 하위분류된)을, 그리고 청자의 능동성(그것의 해석적인 실행과 함께)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는 분별에 의해 인식적인 담화의 유형학의 윤곽에 대한 기술을 다음과 같이 시도할 수 있다. ㉖ 문학 비평, 사건의 연속에 관한 해석으로서의 역사, 성서의 주석, 멋진 예술비평—즉 회화, 음악, 건축 등과 같은, 해석적인 담화. ㉗ 교육학, 정치학, 광고의 비평과 같은, 설득적인 담화. ㉘ 목표가 달성된 가치의 투기와 대상으로서의 진리존재-지식(knowing-to-be-true)과 함께 설득적인 것(표현의 전체적인 범위와 함께)과 해석적인 것(그 순간에 지시적인 담화로 고찰된 선행담화를 이용하는) 양쪽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과학적인 담화.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p. 32~34. (역주)

인식적인 체계

지식(knowing)과 신앙(believing)의 우주

모파상의 소설을 분석하면서, 우리의 격아강적인 담화의 해석이 고찰할만한 어려움과 조우한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그것이 표현된 그 자체의 담화 안에 담긴 의미론적인 데이터 바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필요할 때, 우리는 수신자의 지식의 지시적인 우주와 함께 수신된 메시지와 대항하고 있는 것으로 존재했던 완벽한 독해절차를 제안했다. 우리는 이러한 절차를 독해로든지, 해독으로든지, 귀결로 존재하지 않는 암호판독으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호칭한다. 우리는 지식 안에 통합된 미지에 의해, 그리고 그 미지를 믿을만한 것으로 입증하는 지식에 의해 아직도 그렇게 동일현상으로 소유하고 있다.

지식의 이러한 우주는 때때로 막연히 백과사전처럼 지시된다. 요컨대, 정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되기까지 하는 그러한 지시는 그 우주 조직의 모

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물론 어느 본래부터 갖추어진 종류의 부재로 성격이 만들어진 백과사전이다. 우리는 그 백과사전이 독자의 조력으로 발생한 “경험적인 데이터”라고 언급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파기(또는 지워버리기)의 또 다른 용인과 조우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오로지 무지만이 우리에게 보다 좋은 능력으로 고찰되도록 허락하는 한 쌍의 버릇들이기에 그것을 위탁함으로써 소정의 골치 아픈 문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의미론적인 해석의 단계에서 필요불가결한 보다 일찍이 기술되었던 그 대당은 담화의 분자로 된 또는 질량으로 된 단위 간의 계열체적인 또는 결합체적인 관계의 타당성을 인식하는 것의 레벨에 이를 때마저도 여전히 대당으로 존재한다. 그 주체의 인식론적인 능동성은 그 자체를 이러한 관계의 정당성으로 정의한다. 이것은 특히 그 능동성이 “친밀한 그리고 총체적인 유착”으로 고찰될 때 그렇게 존재한다. 이것은 인식적인 우주에 커뮤니케이션의 변화과정 안에 통합된 인식론적인 실례를 양의연동적인 것으로 속박하는 조직을 형성하는 “타당성(valid)”의 저장소로 존재한다는 것을 언급하게 된다.

그러나 우주의 이러한 개념이 우리에게 사용되는 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상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신구조(mentalities),” “사고체계(system of thought),” 또는 “믿음(beliefs)”의 다양한 유형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 그 집합적인 우주(논의대상세계)는 인식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개인적인 우주 안에서 그것은 개인적인 것에 의해 추측되었지만, 이를테면 다소 응집성이 있는 “변형(deformation)”을 경험했던 그것은 인식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심층 분리(schism)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편차는 유럽문명의 성격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중세에 독신(瀆神)과 신성 간의 최초의 대당이 설치된 이래 그렇게 존재해왔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분리는 지식과 신앙의 돌이킬 수 없는 우주로 갈라놓았으며, 그 존재자는 문화적인 화백과 교리(敎理, faith)에 대한 반대이유 안에 정위하고 있는 2분법에 의해 확인된다.

우리는 이러한 제2의 문화적인 진전(사피어워프의 범주의 표층레벨에 정위된)²⁰⁷⁾이

207) 사피어워프의 가설(Sapir-Whorf hypotheses); 언어구조 또는 실제의 사용형식이 그 사용자의 사고양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가설. 미국의 언어학자 사피어(Edward Sapir, 1884~1939)와 워프(Benjamin Lee Whorf, 1897~1941)가 주장함. (역주)

나타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주관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변화과정(직접적으로 인식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피신타의 교차점적인 관계가 주도권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곳)이 신중히 고찰된다고 하는 그 확장(외연)을 관찰했다. 그러나 내부결합적인 문화현상으로서의 이러한 분리가 정말 존재한다. 19세기에 과학만능주의와 상징적인 시의 출현과 병행하여 그보다 더 좋게 암시적일 수 있는 집단현상으로서의 그것이, 정말 신성한 담화의 특별한 형식인가? 개인적인 레벨에서, 누군가 스탈린주의자의 “분할된 개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의 증언을 어떻게 끝이끝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는지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순간 거기에는 알고 있는 나와 믿고 있는 또 다른 내가 있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의 범위가 깨져있었다. 그들의 파지는 의사소통조차 할 수 없는 것인가(J. Cathala 역, “Sans fleur ni fusil,” p. 347)?” 마찬가지로 가능할 수 있는 단어들의 이론은 조정적인 “사실세계”의 아프리오리로서의 기초조건에 의지하지 않았던 또 다른 형식을 획득하지 못했는가?

이렇게 분명한 대당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의미론적인 영역에 특권이 부여되어 존재하는 것은 믿음의 피신타의 교차점적인 네트워크와 과학으로 전환된 다른 것들에 의해 떠맡게 된 것인가(배타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첫눈에 어쨌든 서구에서의 신앙은 종교, 철학, 시와 상응하는, 그리고 “우리의 최초의 그리고 최후의 결말”과 관련된 그로소 모도(grosso modo, 대략적인 것, 즉 증명사와 같은 것) 그 영역 안에 정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상징주의를 선택하면서, 과학이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했을 때, 즉 지식과 신앙의 두 영역이 교차되고 오버랩될 때, 바로 그때에 진전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았다. 그러므로 그것은 마르크스주의자-스탈린주의자의 사회학과 함께, 즉 적용의 그 영역 안에 그리고 제공된 그 답 안에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주체가 그것과 함께 갖게 될 인식적인 관계를 결정하는 그 내용의 실체(substance)가 아니라, 역으로 내용의 형식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오로지 이 모든 것 안의 지식과 신앙의 역할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인식적인 우주의 조직형식에 대한 고찰일 뿐이다.

따라서 그들이 발생하는 변화과정 또는 생크션과 마찬가지로 믿음(belief)과 지식(knowledge)의 체계라고 지시함으로써, 우리는 교리를 배척하는 이유보다 더 좋은 관계의 명확한 유형으로 언급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실행함으로써,

우리는 베르낭(Jean-Pierre Vernant, *Divinisation et Rationalité*)의 주장과 일치한다.

계열체적인 무제약·이율배반의 이성(rationality)²⁰⁸⁾

우리의 가언은 그것과 형식적으로 상응하는 인식적인 우주의 일부분에 제안된 발화의 유착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생크션(또는 발화를 생산하고 있는 그 경우의 인식론적인 전제)의 주장으로 존재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생크션은 이러한 장소 안에서 그 구조의 “피신탕의 교차점적인” 또는 “논리적인” 변이를 선택할 것이다. 그러한 긍정은 숨김없이 보다 더 명백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며, 앞으로 더 나아가 설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기초와 함께, 즉 의미작용의 기본구조와 함께 시작할 것이다.

이항대립론(binarism)과 복합적인 텀: 존재론적인 토론(즉, 이원적인 구조가 “보다 진실한 것”과 삼원구조보다 더 좋은 “기본적인 것”으로든지, 또는 그 역으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으로 묘사된 존재(being)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의 적절성이 또는 그들 사용에 관한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논리적인 이항대립론과 선행 소크라테스적인 철학의 “혼합구조”의 존재자를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구조는 “반대의 상호존재자”로 표현된, 신화학적인 연구 안에 존재하는 것 같다. 이러한 최후의 예는 명확한 아티클레이션을 가질 수 있는 진기의 형식적인 장소이다.

이제 이러한 동일 아티클레이션에 통시적인 차원을 제공하면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의 진척으로 여전히 믿었던 시대에, 즉 다방면에 걸친 탐구에 의지했던 그리고 진척의 선두에서 사회집단의 자연언어가 문법적인 범주로서의 이원적인 것이 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을 긍정했던 시대에 속했던 언어학자, 브뤼달의 저서를 참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관련되고 있는 한, 우리는 “기호학적인 사각형”의 사용을 통하여 이러한 이원성의 필요조건에 대한 응답을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미작용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항대립론의 원리로 남아있는 기본구조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중립의 그리고 복합적인 텀의 생성을 허락한다. 따라서 우리가 제안했던 그 기본구조는 종교적인 그리고 시적인 담화와 마찬가지로

208) rationality: 이것은 오성(悟性), 즉 제약의 관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칸트(Immanuel Kant)의 무제약·이율배반의 이성의 관점이다. (역주)

과학적인 것의 발화를 수용할 수 있다.

범주적인 것(categorical)과 단계적인 것(gradual); 비-망각의(alethic) 양태성(예를 들어 필연성, 가능성)과 인식론적인 양태성(확실성, 개연성)의 구조적인 지위 간의 편차는 오로지 기호학자들을 동요케 할 수 있을 뿐이다. 전자의 양태성은 교묘한 그리고 범주적인 대당에 따라 아티큘레이션이 되는 것 같으며, 그들의 다양한 언어학적인 표현은 범주화될 수 있다. 역으로 후자의 양태성은 단계적이고 등급적인 것 같다.

이러한 편차(지식과 신앙 간의 이원성을 강조하는)는 오로지 양태성으로만 제한되지 않고, 반드시 발화와 행위주의 성질(qualities)로도 존재한다. 그것은 “막연히 분량적인 것(a few, a little, a lot, 등)”의 형식 안의 자연언어로, 양기호로 발견되며, 소반대의 레벨(some, certain)에서 논리적인 사각형의 일부로 존재한다. 그 목록은 우리가 관자놀이-시간적인 표현으로든지(early, late) 관자놀이-공간적인 표현으로든지(near, far) 하여간 무엇으로든지 덧붙일 수 있다면 폭이 넓혀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담화적인 생산의 주요한 축으로 화해한다. 후자에 관해 말한다면, 그리고 그 주체의 역할에 대해 강조한다면, 우리는 감상(appreciation)과 평가(evaluation)라고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평가된 대상의 성질을 마음속에 그릴 수 있다면, 우리는 생산된 발화의 긴장이라고까지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대상화하고 있는 이탈과 주체화하고 있는 양의연동의 이원적인 절차의 증명사로 고찰하려고 노력했다. 동시에 우리는 그것을 최후의 분석으로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이러한 문제는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의 연속적인 것 또는 불연속적인 것과 관련되고 있는 기본선택권과 함께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약수적인 것(measurable)과 대략적인 것(approximative); 그것은 우리가 레비스트로스의 신화적인 무제약·이율배반의 이성의 특성으로 고찰했던 바로 그 의미작용의 생산의 특별한 유형으로의 해석을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긴장의 증명사(그리고 단계적인 것에 불과한)로 존재한다. 여기에 우리는 범주화를 보여주고 있는, 즉 월권(과잉, excess, too much)과 불충분(insufficiency, almost)과 마찬가지로 의미작용적인 대당에 따라 조직하고 있는, 우선권이 있는 신화적인 담화를 적용시킨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오로지 이원논리의 단단하고 고정된

범주화로만 대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월권(과잉)과 불충분은 명백하게 만들어진 존재(being)의 한계 또는 기준으로 고찰되지 않고, 이원적인 범주화의 두 서너 개의 텀으로 나타난다. 만약 이렇게 전제된 범주가 어느 모든 것의 약수(約數, measure)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량적인 것으로부터 정성적인 것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관념론(그리고 심증-윤리성)을 위한 합수로 기여할 것이며, 또한 예를 들어 인도-유럽의 모든 신화학 안에서 발견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놀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데카르트 철학의 “공통의미”에 따르고 있는 평가와 무제약·이율배반의 이성적인 것(rational)을 “약수적인 것”으로 변형시키는 그 병치는 우리의 당대문화적인 화맥 안에서 발견된 이것으로 설명한다. 그들은 무제약·이율배반의 이성의 이러한 두 형식이 어떻게 연속적으로 혼동되고, 그때 어떻게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되는가를 보여준다,

결합체적인 무제약·이율배반의 이성

기본구조 안에서 우리가 방금 보여주었던 그 이해관계는, 그들이 포착된 의미작용의 그 개괄적인 장소를 구성하는 그 사실로부터 발생한다. 이러한 장소 안에서 동정으로서의 인식론적인 행위는 어떤 특이한 아티클레이션으로 발견될 것이며, 또한 그것은 등록된 새로운 발화에 더하여 “보충된 교리”로 그것을 허락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실행되고 포착된 통사론적인 관계의 유형학을 위한 기초로 기여할 수 있는 기본 작용 바로 이러한 구조 안에 존재하는 그 사실의 광경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제기된 그 문제가 우리의 현 연구의 프레임에 초월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그것에 대해 주목하고 지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며, 검토가 아니더라도 그들이 어떻게 인식되고 해석되는가를 보기 위하여 담화적인 통사론의 아티클레이션의 경우 세목에 걸쳐 약간 가격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과율적인 사고(causal thinking); 이러한 경우의 첫 번째는 “결합체적인 지성”으로 알려진, 그리고 텀 인과율적인 추론(causal reasoning)에 의해 보다 더 잘 알려진, 여러 개의 형식을 떠맡는다. 그것은 그러한 추론이 인식하는 것으로 그리고 담화적인 진실-진술을 평가하는 것으로 연기하는 그 역할에 대해 의문을 갖고 조사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논리

학이 특히 상호명제적인 관계에 관심을 기울였던 반면에, 프로프의 예에 따르고 있는 대부분의 기호학자들은 인과율적인 것에 화술의 조직 원리의 역할을 부여했다. 그들은 인과율적인 연속으로, 그 유명한 “그러므로 이 때문에(post hoc, ergo propter hoc)”²⁰⁹에 따르고 있는 함수들 간의 연속적인 관계(=연기 또는 기술된 사건)에 관심을 기울였다. 인과율(causality)이 비록 그것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것에 따르고 있는, 실로 역사의 선형적인 기술의 기초가 되고 있는 소정의 논리적인 추론으로 고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존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피신타의 교차점적인 지위가 반드시 그 관계 안에서 인식되어야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은 특히 공통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인과율적인 관계에 보다 더 좋은 진리를 제공하며, 그들은 실제적인 사고(“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올 것이다”)와 마찬가지로 신화적인 사고(“신이 노하면, 벌을 받게 될 것이다”)의 성격을 만들고, 독신(瀆神)과 마찬가지로 신성한 의식을 체계화한다.

비록 우리가 담화적인 타이의 구성적인 관계에 대해 의문을 갖고 조사한다고 할지라도, 계열체의 “상류”로부터 “하류”로 이동하는 대신에 자연적인·인과율적인 연결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존재하며, 우리는 어떤 담화적인 시퀀스가 오로지 이원성의 상호프래스틱적인 관계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예기치 못한 그 사실을 최초로 알아차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비록 계열체의 좌측으로부터 우측으로 이동한다고 할지라도 “인과율(causality)”로 독해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우측으로부터 좌측으로 이동할지라도 “논리적인 전제”로 독해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이런 방식이 외의 대부분의 결합체적인 타이는 논리적인 성질의 이렇게 암시적인 기초를 소유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표층 레벨에서 동정적인 그래서 결합체적인 무제약·이율배반의 이성의 주요한 두 유형, 다시 말해서 알고리즘적인 성질의 전문적인(기술적인·기교적인) 사고와 객관적인·양태적인 필연성(=/비-반존재능력(not-being-able-not-to-be)/)에서 발견된 그것의 아티클레이션, 그리고 고정관념적인 성질의 실제적인 사고로 동정할 수 있다. 후자는 관자놀이-시간적인 인접(contiguity)의 행위(또는 그들을 기술하는 발화)의 상호출현에 의지하며, 그것의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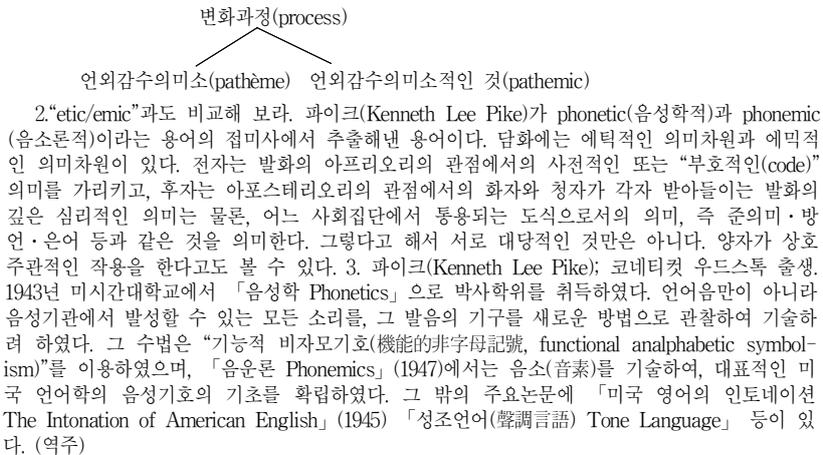
209) “post hoc, ergo propter hoc”: 이다음에, 그러므로 이 때문에(시간의 전후 관계를 인과 관계와 혼동한 허위의 논법). (역주)

속은 빈사적인, 따라서 그럴 듯하게 말을 잘 하는 또는 필연적이기까지 하는 (/의부(having-to-be)/의 모드에 따라, “주격적으로; subjectively”) 것으로 고찰될 수 있다.

범주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지식과 신앙 사이의 이렇게 새로운 정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망가지기 쉽다. 전문적인(기술적인·기교적인) 합리성의 알고리즘적인 프로그램은 일상의 실제적인 사고의 현존재총체에 의해 어느 순간에 압도될 위험이 있으며, 그것은 우리를 모든 “표준인간”의 기질(habit)로 사용하여 지배하고, 일상생활을 도식적인 언외감수의미소적인 것의(pathemic)²¹⁰ 또는 인식적인 고정관념의 사회적인 역할의 특유한 말로 해석하도록 우리에게 강요한다. 우리가 좋든지 싫든지 하여간 어떻든지 간에, 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러한 정상상태(우리가 거의 모든 개인적인 또는 집합적인 판단으로 발견하는 것)는 기초가 형성된 신화적인 사고의 일탈(deviation) 상의 약수(約數, measure)와 연결된다.

병치적인 사고(parallel thinking); 라틴어의 어원으로 되돌아간 어느 대의(여기서 우리는 “credere[신앙]”의 이원적인 의미, 즉 “믿음[belief]과 언외발언의 확신[confidencel]을 생각하고 있다)는 타자 안의 신뢰(trust)와 그들이 언급한 것 안의 신뢰의 유사-자연의미론적인 짝을 우리가 포착하도록 허락한다. 그 이유는 진리이기도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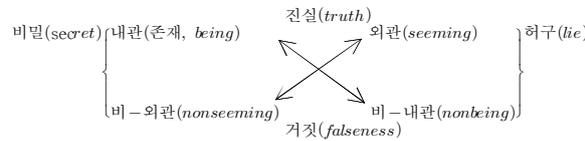
210) 1. 언외감수의미소(pathème): 굶주려 움직임 없이 앉아있는 아이들의 이미지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동정할 만하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고 확실하기도 한 어떤 무엇이 신뢰, 다시 말해서 또 다른 어휘소적인 짝 “신뢰(trust)/언외발언의 확신(confidence)”의 문제가 동등하게 암시적인 것 그 이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보증인 중의 한 사람인 것 같은, 그리고 적지 않게 중요한 것 같은,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담화의 보증인 같은 그것은 언외발언적인 성격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 담화의 진정성 같은 그것은 함축된 그리고 숨겨진 내용의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확증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루머나 허구(거짓말, lie)를 퍼뜨리는 것의 단순한 전문성(기술·기교)보다 훨씬 더 광대하다. 그 피신탁의 교차점적인 관계에서의 그것은 특권이 주어진 영역으로 표현되며, 마치 종교, 시, 그리고 철학과 같은 그 담화는 비밀(secret)²¹¹⁾을 강조하기 위해 쓴 주서(朱書)로 정위된다. 더 나아가 마

211) 아래 도표 참조. (역주)



① being(존재 또는 내관); 보편적인 사용 이외에, 어휘소 존재(being)는 기호학에서 적어도 세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a) 발화의 지위에서 한 쌍으로 이바지한다. 따라서 빈사화(賓辭化, predication)에 의해, “본질적(essential)”으로 고찰된 객관적 특성과 결합된다. 의미론적 표상의 레벨에서, 그러한 특성은 집합 속에서 주체적 지위와 함께 주체적 가치로 해석된다. (b) 그것은 진정성(veridiction-초자연적인 현상 등이-) “존재(내관, being)/외관(seeming)”의 양태범주의 명목과 마찬가지로 사용된다. (c) 끝으로, 그때 그것은 외관과 함께 대당관계에 있다. ② seeming(외관); 외관은 진정성의 양태범주 위에 투기(投企)된 기호 사각형에서 표출 도식의 조정적(措定的) 틸을 의미한다. 용어 외관은 존재(being-이러한 의미에서, 함축 도식의 조정적인 틸으로 이해된)라고 하는 용어와 함께 범주의 관계 안에 존재한다. 외관과 존재(내관)의 틸을 역설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이중작용은 진실(truth-“~처럼 보인다[seems]”)와 동시에 “존재한다[is]”라고 언급하는 어떤 상태를 특수하게 만들고 있는-로 호칭되고 있는 복합 진실의 목록을 제공한다. ③ secret(비밀); 진정성 양태의 기호 사각형 안에서, 우리는 조정적(措定的) 직시(deixis) 상에 위치가 잡혀있으면서 존재(내관, being)와 비외관(not-seeming)을 포함하고 있는 상보적 틸을 지시하는 것으로 비밀(secret)을 사용한다. ④ lie(허구); 틸 허구(lie)는 진정성 양태의 기호 사각형 안에서, 부정적 직시 상에 위치가 잡혀있으면서 틸 비존재(비내관, non-being)와 외관(seeming)을 포함하고 있는 상보적 틸을 지시한다. ⑤ falseness(거짓); 거짓(falseness)이라고 하는 명목은 진정성 양태의 기호 사각형 안에서 소반대(subcontrary)의 축 상에 위치가 잡혀있으면서 비존재(비내관, non-being)과 비외관(non-seeming)을 포함하고 있는 복합 틸을 지시한다. 그것은 담화 안에 위치가 잡혀있는 진리(true)처럼 거짓의 “진실 가치(truth values)”로 주목될 것이며, 그리고 그들은 진정성 작용, 따라서 배제된 비담화 세계와의 어떤 관계(또는 어떤 동차물과 함께)로부터 결과하고 있는 틸으로 고찰된다. ⑥ truth(진실); 진실은 진정한 양태성의 기호 사각형 안에서 반대의 축 상에 위치가 잡혀있으면서 틸 존재(내관, being)와 외관(seeming)을 포함하고 있는 복합 틸을 지시한다. 그것은 담화 안에 위치가 잡혀있는 “진리(true)”를 지적하는데 조력이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성 작용의 수확물이기 때문

치 교리의 새로운 담화를 찾고 있는 시골사제의 불확실한 설교와 같이 신성한 복음을 위한 그 현대적인(modern) 치환은 우리가 “또 다른 사태(things; 강박 관념으로서의)로 숨겨진 바로 이러한 사태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화의 복합동류체적인 성질이 인식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해서 외관(seeming)이 숨겨지고 동시에 최후에 일어날 수도 있는 존재(내관, being)를 암시하면서도, 왜 생성되지 않는가를 질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함축(the implicit), 피함축(the implied), 피전제(the presupposed)와 관련된 오늘 현재가, 비록 다양하게 아티클레이션이 되고 있을 지라도, 현상의 동일 유형으로 고찰될 수 있는가? 우리는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도 있으며, 이러한 투시도법으로부터 과학은 그것을 꿰뚫는 효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것의 존재-진리(being-true)에 도달하기 위하여 공통의미의 외관(seeming)을 통하여 관측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은 표출을 초월하는 내재의 승리로서의 과학을 제공한다.

이제 담화의 외관(seeming)과 꼭 같은 자연세계의 외관은 대부분 격아강적인 성질로 존재한다. 세계의 그 격상은 이원적인 함수를 가지고 있다. “실재성(reality)”의 외관으로서의 그들은 내재 또는 여분 담화적인 지시대상으로 사용된다. 언어의 격상으로서의 그들은 그들 자신보다 다른 어떤 무엇을 언급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이러한 제2의 격아강적인 차원으로 존재한다. 일단 은근하게 만들어진 그래서 격아강적인 담화는 유효하게 되고, 다른 의미작용, 영적해석의 의미작용을 탐색하기 위하여 발전할 수 있다. 이것은 창조에 성공하고 있는 격아강적인 레벨을, 이미 결정된 조건으로 존재하는 새로운 “지시대상(referent)” 하의 주제적인 레벨을 활동시킨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는 격아강적인 담화의 결합체적인 아티클레이션마저도 없는 것으로 존재하는데, 왜냐하면 그 아티클레이션은 이중적인 경우에 따라 “인과율적인,” 논리적인, 또는 피신탕의 교차점적인 것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중지시를 투기하는 그것의 능력으로 존재하며, 그 중의 하나는 심층으로 이동하고, 보다

이다. 따라서 이것은 외부 대상체와의 어떤 관계(또는 동차물)를 배제한다. (역주)

추상적이며 주제적인 동류체를 창조하고, 그 중의 다른 하나는 측생적(側生的)으로 이동하며, 새롭고 병치적인·격아강적인 동류체로 진전한다. 우리는 프랑스 문학에서의 최초의 “신화적인” 시 비니(Alfred de Vigny)²¹²⁾의 “성 모세(Moïse)”를 생각할 수 있다. 그 텍스트에서 “성 모세”의 불행과 위대함은 시인 비니의 동일한 불행과 위대함의 병치적인 독해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것은 그가 주인공의 “힘”과 “고독”을 강조할 때 시인이 동정하는 그 공유레벨을 만들었던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으로서의 비교로 만들어진 중재자에 기인한다.

외삽(外挿)하는 이러한 능력은 독창적인·결합체적인 아티클레이션과 함께 암시적인 병치담화를 우리에게 제공하도록 허락한다. 후자는 어쨌든 초월프래스티적인 타이틀을 엮는 “결합체적인 지성”만큼 중요한 담화적인 합리성의 형식으로 고찰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병치담화의 인식론적인 생크션은 한 가지 문제를 남겨놓고 있다.

알레고리와 비유(parable)의 담화적인 메커니즘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어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방탕한 아들의 잘 알려진 비유를 선택해보자. 화술과 결핍의 주제적인 배경과 결핍 일소의 대비는 은조각의 어린 양의 아들 등의 상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일련의 격아강적인 동류체를 겹쳐놓는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보다 더 면밀히 탐색한다면, 동류체의 이러한 이중노출(또는 겹치기, superposition)이 오로지 명백한 것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그들이 오버랩 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이러저러한 전체 설화의 시퀀스를 아티클레이션으로 만들고 특권을 부여할 것이다. 더 나아가 비유의 각각은 근원적인 주제를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미세하게 변화시키며, 그래서 돈의 상실과 연결된 결과를 의미하고 있는 불쾌감 또는 행복감과 함께 시작함으로써, 우리는 회개와 구원의 기독교 신학으로 끝을 맺는다. 이것은 담화적인 진진의 경우 흠잡을 데 없이 우수한 것으로 존재하며, 광범위하게 확장(외연)을 더 넓히고 있는 격아강적인 추론의 모드는 행위주와 다양한 동류체의 함수의 텀과 텀이 일대일 표면상의 동차성

212) 김봉구 외, 「새로운 프랑스 문학사」(서울: 일조각, 1983), pp. 226~230. Alfred de Vigny(1797~1863), “...자기의 심정을 거침없이 토로하고, 사상마저 감정으로 변형하는 다른 낭만파 시인과는 달리, 비니는 사상가라고 불릴 수 있는 유일한 낭만주의 시인으로, 보편적인 형식을 통해 지극히 개성적인 감수성을 살리면서 상징적 시를 창조했다...” 이하 참조. (역주)

으로 존재하지 않는 바로 그 사실에 의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 비유적인 담화는 알레고리적인 담화와 차이가 있으며, 그것은 병치동류체의 분리된 원소 간의 상응(유사성 또는 동정)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비유적인 담화가 추론의 격아강적인 모델의 총체불확실성의 배아(胚芽)를 담고 있으며, 그 모델은 사실상 본질적으로 암시적이고 느슨한 빈정대는 것으로 존재하며, 발신자에 의한 그것의 투기는 담화의 전개를 조직하고 부분적으로 결정한다. 그러한 모델은 명백하게 피신탁의 교차점으로 존재하며, 주체적인 /의무(having-to-be)/의 목표론 존재한다. 우리는 언어이론의 진전으로 얻게 된 모델, 즉 소쉬르, 후설(Edmund Husserl),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 그리고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에 의해 사용된 모델, “체스(chess)”의 망상을 이미 강조할 기회가 있었다.²¹³⁾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그 격아강적인 모델은 4개의 다른 이론적인 담화를 발생시켰다.

격아강적인 추론, 즉 피신탁의 교차점적인 관계가 살아있는 그 특권이 부여된 영역을 초월하는 관용과 타당성은 혁신적인 담화 속 신앙의 역할을 돌발적으로 폭로한다. 처음부터 논리적인 성질로 고찰된 격아강적인 추론, 유비적인 추론과 상대적으로, 이제 완전히 그 관점이 약해진 관용은 알레고리와 같은 유사성을 통하여 추론뿐만 아니라, 그럴 듯하게 말을 잘 하는 것으로 발견된 실제적인 사고를 지시한다. 낯은 유비(analogy) 대신에 사용된 그 동차성의 개념은 수학적 균형을 병치적인 것으로 추정된 동류체들 간 관계의 평가로 받아들인다. 투시도법과 가언적인·격아강적인 모델과 대당이 됨으로써, 동차적인 형식화는 담화의 상호주관적인 독해와 그들의 입증과 함께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피신탁의 교차점적인·비유적인 것과 매우 교묘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 즉 동차적인 사고는 최초의 경우 안에 존재하며, 분리된 원소의 그리고 교묘한 범주의

213) A. J. Greimas 저, Daniele·McDowell·Ronald Schleifer·Alan Velie 역, 「Structural Semantics-An Attempt at a Method」(Lincoln and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83), p. 211. “이러한 종류의 첫 번째의 유형학적 기준은 종종 행위주의 혼합주의가 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등록된다. 따라서 우리는 모델들을 스스로 혼합시키고 있는 그 행위주의 성격에 따르고 있는 장르로 세분할 수 있다. 민담에서 우리는 주체와 수신자가 원형-행위주(arche-actant)를 구성하는 것을 관찰했다. 이어 경제적-유기적 투자에서 원형-행위주는 대상과 수신자 등의 혼합주의로 실현화된다. 비가치론적 영역을 얻게 됨으로써, 실례는 보다 명백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체스 놀이에서, 퀸은 비숍(주교 모자 모양의 장기 말)과 루크(성장[城將], 장기의 차에 해당)의 혼합주의적 원형-행위주이다.” 참조. (역주)

그 현존재(또는 그 구성)는 동차성에 의해 전제되지만, 그것의 분리는 우리가 계열체적인 메커니즘을 검토할 때 보았던 것 같은 유비의 사고에 의해서도 고찰되지 않고, 오로지 신화적인 사고로만 고찰된다.

결론

인식론적으로 유도된 절차를 이해하고 재구성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우리는 어느 새로운 발화와 지금 이 장소 안의 기호학적인 형식 간 양의연동상 태로서의 적합성을 단독으로 평가하고 주장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는 지시의 인식적인 우주라고 하는 그 존재자를 공리로 간주했다. 이러한 우주는 세계에 관한 이미지로 채워진 백과사전의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정성의 담화를 수용하는데 필요했던 동치를 선택하는 인식론적인 주체 간의 이러한 형식적인·기호학적인 관계의 네트워크이다. 우리는 이렇게 형식적인 장소가 피신탕의 교차점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 각각의 망상을 인식할 수 있는 그것으로 명백한 아티클레이션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관측하려고 시도했다. 따라서 신앙과 지식은 그 인식적인 동일우주 안의 부분으로 존재한다.

제11장 기호학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

명목(name)²¹⁴을 찾아서

일찍이 1950년대 이래 무한히 성장한 이 분야는 실제적으로 어느 한 언어로부터 다른 언어로 전승하는데 서먹서먹하고 까다로운 명목을 떠맡았다. 사실 이 생소한 지시는 오늘날 사회과학의 용어법의 적소(適所)를 발견하는데 실패했다. 그러나 탐구된 대상의 형태(초미-화술, configuration)가 그것을 명목으로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응집성이 있는 담화로 다루고 있는 이러한 객관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조사의 본체로 분명하게 윤곽이 그려지는 한, 우리가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 즉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언급하든지, 또는 심지어 매스 미디어로 언급하든지, 하여간 어떻게 언급하든지 간에 사실상

214)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p. 202~203. name/naming(명목/명명); 1. 언어의 기원에 관한 신화에서, 명명(naming)은 거의 언제나 언어의 창조물과 구별된다. 사실 경험적인 관점에서 보면, 명명은 먼저 세계의 모든 대상과 또는 인간경험의 모든 대상과 관련된다. 그것은 여분-언어학적인 지시대상과 관련된다. 왜냐하면 명목(name)은 아프리오리로서의 어느 한 자연언어로부터 다른 자연언어로 다양하게 존재하며, 명명은 소정의 사회집단의 아종으로 존재하는 아포스테리오리로서의 분급(分級, classification)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2. 또한 명명은 응축(condensation)의 한 형식과 상응한다. 그런 경우에 명목은 정의(확장으로)와 상관된다. 3. “자연적인” 명목은 “인위적인(또는 구성된) 명목과 구별된다. 담화 안에 명기된 자연적인 명목은 자연언어의 평범한 함수에 속한다. 따라서 마치 “토론”과 같은 명목은 매우 복잡한 화술적인 그리고 담화적인 형식을 에워싼다. 자연언어에 의해 표현된 의미론적인 우주가 의미론적인 영역 또는 지역으로 세분되는 것으로 고찰될 때, 명목은 어쨌든 두 형식을 선택할 수 있는 내재적인·의미론적인 일종의 차용으로 나타난다. ④ 그 격상 안의 격아강적인 명목은 개방된 파생어(derivation, 예를 들어, “bin-head[빈대가리],” “nail head[못대가리],” “masthead[돛대머리]”)로서의 핵의미소 “head[머리]”)의 강류를 에워싼다. ⑤ 어느 한 의미론적인 영역으로부터 다른 영역으로의 담화적인 낭중분절(囊中分節, segment, 어휘소 또는 결합체)의 전승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 번역-전격(轉格)적인 명목은, 일종의 타이로서의 “Turk’s head(티키인의 머리, 모루의 일종),” 무지한 사람으로서의 “knucklehead(바보)”로, 비교적 멀리 이동한다. 4. 인위적인(또는 과학적인) 명목은 메타언어의 그리고 좀 더 아종적인 것으로 의미론적인 메타언어의 구성에 속한다. 이러한 레벨에서 선택된 명목은 독단적이고, 그들의 선행 정의에 의해 그들에게 부여된 것보다 다른 가치를 소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언어가 사용될 때, 그 명목은 연동상태로서의 적합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그들은 조사 보고된 것에 대한 가능성만큼 많은 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그것은 실제적으로 상징기호(문자, 숫자, 등)를 어휘소적인 명목을 위해 보다 더 좋게 치환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호학적인 탐색이 진전함으로써, 이러한 상징기호는 쉽게 이해되는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것이 될지도 모른다. 하여간 그 경우에 과학적인(인위적인) 명목은 준-동기유발된 것으로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분석하는 동안 그것은 메타언어에 속하는 그래서 구성된 탐과 비과학적인 부연설명(실천에 속하는 자연언어의 어휘소 사이의 분명한 편차(만약 가능하다고 한다면, 인쇄상의 편차)를 만드는 것이 필연적이다. (역주)

그것은 망상이 없는 것으로 주장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간단히 말해서, 신호표시(signaling)의 혼동 또는 불일치와 거리가 먼 명목의 탐색은, 역으로 독창성의 기호(sign)가 될 수 있다.

불명확한 내용

어떤 무엇이 공공연히 분명한 것 같이 명백하든지, 또는 제멋대로 잔뜩 흐리든지 하여간 어떻든지 간에, 텀은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지시로 행방 불명이 되는 것 같다. 그 행방불명의 텀은 내용에 대해 변죽을 울리는 것으로든지, 또는 오로지 그 의미의 관점에서만 정상적으로 고찰된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으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발생한다. 사실 당해 그 텀은 단어 “문화(culture),” 즉 사회공동체의 아종적인 그래서 가치가 안정된 내용의 전체 스펙트럼을 환기시키는데 보편적으로 사용된 어느 막연한 텀으로 훌륭하게 지시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더 나아가 어떤 것이 그것과 같든지 같지 않든지 하여간 그 용법은 단어 “매스(일반대중, mass)”가 나타날 때 텀 “엘리트(elite)”의 현존재를 함축한다. 따라서 대당 “일반대중 문화(mass culture)/엘리트 문화(elite culture)”는 마치 최초의 접근인 것처럼, 조사 연구된 분야를 정밀하게 다루는 그 연구의 영역을 부정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2분법(dichotomy)이 되어 나타난다. 유행에 뒤떨어지고 관념론적으로 위험스러운 그 반향은 실행될 수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하여간 그와 같은 질문으로부터 우리가 회피할 길이 없는, 사실상 기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위의 구조적인 성질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존재하는, 이러한 2분법에 의해 유발된다. 만약 이것이 그렇게 유발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 새로운, 중립적인, 또는 독단적인 지시는 연관된 양 부분을 위해 이러한 용어법 안에서 사회적으로 불쾌한 것을 쉽게 일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이것은 어느 솔직한 조사 연구가 그들을 미지의 이유로 숨기려고 시도하는 신중한 태도의 보다 더 나은 것이 될지도 모르는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형식화하고 있는 내용의 아종적인 특이성으로 존재한다.

커뮤니케이션

유럽의 언어에서 텀 커뮤니케이션은 반제된 미디어를 가지고 있으며, 이 용법은 보다 더 좋게 응집성이 있는 방법론의 필요를 위해 탐색을 준비하는

모델의 선택을 암시한다. 모랭(Edgar Morin)은 이러한 모델이 커뮤니케이션의 정전적인 구조에 따르고 있는 3개의 성분으로 할당된 탐색의 그 영역으로 분류되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가능한 커뮤니케이션을 만들고 있는 전송 채널과 부호는 2개의 지주, 즉 발신자와 수신자 간에 정위된다.

실제적인 그리고 명백한 방법으로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과제를 부여하는 이러한 모델의 제1의 이점을 과소평가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자율적인(자치적인·독립적인, autonomous) 분야(discipline)의 창조물을 보증할지도 모르는 방법론적인 동차성의 타당한 보증을 결코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만약 정보이론의 옹호 아래 보증된 전송 채널과 부호의 기술이 1950년대 이래 줄곧 보증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한다면, 자질적인 방법이 실망하고 있는 그 결과는 너무 서두른 활용, 즉 모든 환영이 일소된 실재성에 기인하는 것일 것이다. 다른 한편 당시 언어학 또는 기호학적인 절차를 차용했던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전문가들은 그들이 비록 방법론을 습득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실재성에 대한 보답으로 그들의 해결방법의 아종적인 특이성을 단념했는지도 모른다.

발신자와 수신자 두 자율적인 실례의 설치가 비록 사실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학적인 또는 심리학적인 성질의 차생(次生)의 분석을 발생시킨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실례의 정의는 은유적인 따라서 조금도 작용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남아있게 되었을 것이다. 사회적인 레벨에서의 전제조건, 전제로서의 개인과 개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의 외삽과 활용, 커뮤니케이션 고리의 양 끝의 방사성과 감수성을 타고난 두 집합주체(발신자와 수신자)의 인식론적인 합성은 계속해서 기술될 수 있을지도 모르며, 그것의 언어연기는 지배를 받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문제로서의 기호학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헛껏 훑쳐보는 것으로 정확하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몰르(Abraham Moles)의 저서에서의 인공두뇌학에 의한 이러한 도식을 발생시킨 그 복잡화는 그것에 어느 결정적인·방법론적인 차원을 첨가하지 못한 것 같다. 오히려 이러한 방법론의 명백한 아종으로서의 특이성은 도식화와 구조화의 절차 사이에 빈번히 조우되는 혼동으로부터 발생한다. 그것이 정확히 그려져 세련된 도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실례를 증가시켜, 침낭으로 또는 사각의 링으로 세심하게 그들을 에워싸며, 그때 동일한 수의 암시된 궤도와 범위를 지시하고 있는 다

수의 화살표를 지워버린다. 그렇게 얻게 된 도형은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의 생생하게 마음속에 그려진 비망록(aide-mémoire)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최소의 것은 동차적인 아티클레이션과 논리적인 작용에 종속된 원소에 관한 레벨의 확립이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과 문화 사이의 연결을 확립하려고 시도했던, 그리고 정보이론 상에 문화의 기호학을 설립하려고 시도했던, 로트만(Yuri Lotman)과 같은 기호학자들이 이러한 루트를 즉각 단념했다는 것에 대해 그렇게 놀라지 않아도 된다. 비록 그것이 사회집단에 의해 수용된, 게다가 무한한 텍스트로 마음속에 그려진, 모든 메시지의 총체로서의 문화로 고찰하도록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가망성 있는 발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유도될 수 있는 장소로 보이기는 지극히 어려운데,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는 그러한 텍스트를 오렌지와 같이 낭중분절(囊中分節, segment)하는 본질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확립된 최초의 정의상에 거주하지 않는 문화에 관한 로트만의 유형학을 위한 경우인 것이 확실하다. 그것과는 역으로 낭중분절의 그 유형학은 기호작용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시발하고 있는 것으로 성취되며, 실제적으로 각각의 문화를 또는 각각의 문화적인 상태를 아종으로 분류하는 기호(sign)의 메타기호학적인 언외지의(내포)로서의 문화적인 변이(변수)를 정의하려고 탐색한다. 따라서 문화는 푸코(Michel Foucault)의 인식과 같은, 즉 그들이 그들 자신의 기호를 위해 채용한, 그리고 그들의 문화적인 텍스트를 위한 것이 아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용된 커뮤니케이션 부호를 위해 예기되었을지도 모르는 것으로 채용된 “에티튜드(attitudes)”에 의해, 어떤 무엇으로 정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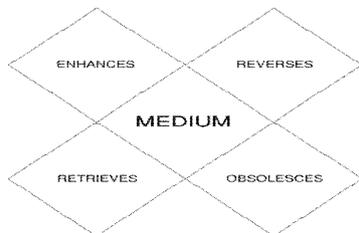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변화과정 안에서 사용된 중재의미와 관련된 이러한 분야에 귀속되고 있는 지명자의 이질적인 성분과 관계를 맺는다. 보편적으로 약센트는 중재의미 위에 부여되고, 반면에 연구의 이러한 유형에 크게 고취된 행동주의자들의 접근이 지시하는 것은, 오로지 커뮤니케이션 변화과정의 표면적인 특징만의 고찰로 존재하는, 그리고 전송된 의미작용의 배제를 상징과 같이 오로지 시니피양 상에서만 응축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이러한 절차의 보편적인 의도를 분명하게 지시한다. 미디어 전문가들은 동물기호학자들과

매우 흡사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예를 들어, 돼지의 언어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돼지가 그들 간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타개해 나가는가를 발견하려고 시도한다.

사실 그러한 애티튜드는 전송채널에 유착하고 있는 망상(妄想, 또는 귀신들림, importance)과 상응하며, 그들을 언어와 문화의 분급(分級, classification)을 위해 충분한 기준으로 고찰하고 있는 최종분석과 상응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클루언(Marshall McLuhan)²¹⁵에 의하면, 이러저러한 채널은 이러저러한 실재물의 성격을 만들고 아종적인 특이성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다. 줄잡아 말하더라도, 그것은 이러한 현상의 정확한 결정에 귀속되는 기본적인 불가능성의 반복 승인으로 단순하게 존재하는 망상의 변덕(인간과학 안에서 매우 보편적

215) Herbert Marshall McLuhan(1911~1980); 1. 캐나다의 교육자, 철학자, 영문학 교수, 문학 비평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1928년 캐나다 마니토바대학교에 입학해 기계공학을 공부하다가 영문학으로 전공을 바꾸어 졸업했다. 그 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토머스 내시(Thomas Nashe)의 수사법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39년 미국 여배우 코린 루이스와 결혼하고, 1977년 우디 앨런(Woody Allen)이 감독한 영화 「애니 홀(Annie Hall)」에 단역배우로 출연하기도 했다. 1971년 조카와 함께 속옷에서 오줌 냄새를 제거하는 물질을 발명하기도 했다. 매클루언의 저서는 매개생태학연구의 대각선모양의 하나로 고찰된다. 매클루언은 어구 “미디어는 메시지다(the medium is the message),” “총체성의 마을(global village: 구체적으로는 ‘Greenwich Village: 미국 New York 시의 예술가·작가·학생 중심의 거주 지구’를 비유한 것 같다)”을 만들어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1960년대 후반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개담화(media discourse) 안에 정착한 사람이었으며, 그는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논쟁을 즐기는 인물로 머물러 있었다. 저서에 「커뮤니케이션의 탐구(1960, 에드먼드 카펜터 공저)», 「구텐베르크 은하계(1962)», 「미디어의 이해(1964)», 「미디어는 메시지다(1967, 켈턴 피오리 공저)», 「교실로서의 도시: 언어와 미디어의 이해(1977)」 등이 있으며, 그가 죽은 뒤 「매클루언 서신(1987)», 「미디어의 법칙: 신과학(1988)», 「매클루언 요론(1995)」 등 그의 사상을 소개하는 책이 출판되었다. 2. media: “① medium의 복수; 매스컴, 매스미디어; 매체. ② 해부학의 혈관·림프관의 중막(中膜); 곤충의 중맥(中脈); 음성학의 중음(中音, 유성 파열 자음)”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하위개념의 매스미디어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철학적·논리학적·언어학적 측면의, 즉 상위의 매개념(중명사)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medium: media의 단수. 매체. enhances: 양양(향상). reverses: 전환. retrieves: 보상(벌충). obsolesces: 퇴화. 이 medium의 대표적인 것이 “mass media”이다. (역주)

으로 그리고 매우 흔하게 사용된 팀)이 때때로 전체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는 원리로 확립된다는 것을 지시하는 것이 기묘하게 보이기도 한다.

물론 매클루언이 증명한 뒤에, 감히 누가 서구문명에서의 인쇄문자의 망상을 부정할 것인가? 그러나 그것은 여기서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그 망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공동작인(共同作因, coefficient)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 존재는 무엇인가, 반면에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무엇인가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그것이 수용된 정보 안에서의 진척으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때 그것은 후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심한 망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유 있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증명함으로써, 우리는 성과학자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없어졌다. 우리 모두는 악마에게 홀려서 발견된 말하자면 골수에 박힌 생각, 즉 후각적인 채널을 통하여 위치를 잡게 된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효과적인 것 그리고 가장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세르토(Michel de Certeau)의 훌륭한 저서 「귀신들린 루딩(Les Possédés de Loudun)」을 통하여 열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 관찰은 사용된 미디어의 앵글로부터 접근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주의하도록 환기시킨다. 그 단순한 사실은 소정의 문화적인 우주로 고찰될 수 있는 전체로 획득된, 그렇게 다양한 기호학적인 문법에 의해 생산된 존재(being) 위에 부가해서, 한편으로는 차원과 복잡성으로의 변화를 다른 한편으로는 활용된 표현측면에 지극히 이질적인 그렇게 의미작용을 하고 있는 대상으로 존재하는 이러한 기호(sign)로 남아있게 된다. 영화 또는 거리의 정경이 비록 몇 가지 부호에 의지하고 동시에 몇 가지 커뮤니케이션의 채널을 포함한다고 할지라도, 진기의 총체적인 의미작용을 소유하고 있는 어금니와 같이 중추적인·문화적인 대상으로 존재한다. 만약 부호의 복잡성을 풀어내려고 탐색하는 그리고 그들을 따로따로 하나씩 기술하는 분석유형에 종속되지 않으면 안 되는 표출의 이렇게 복잡한 언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회집단의 문화적인 차원과 관련되고 있는 탐색 상에서 동차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렇게 사용된 부호의 모든 것을 통하여 표출된 의미작용의 독자성을 조정(措定)하는 것으로만 오로지 존재할 것이다.

사회집단의 기호학적인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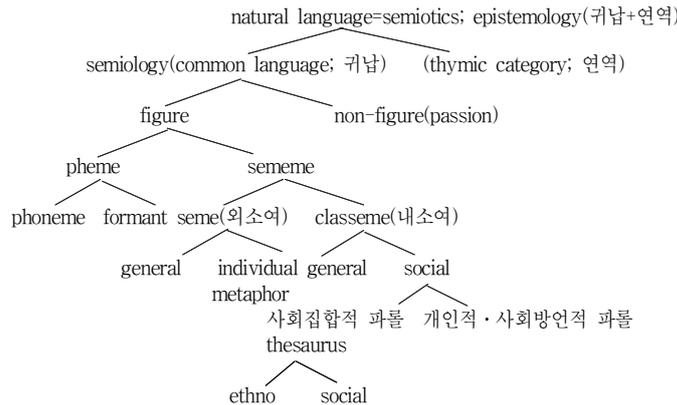
과약하기 어려운 지시의 분석에 의해 발생된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연구로 사용된 접근법의 이미지로 과장된 어떤 무언은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것, 즉 이러한 탐색을 위해 총체적인 판단력, 관심, 그리고 제기된 문제가 선행비평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의 광경을 결코 상실해서는 안 된다. 사실 이러한 문제의 불확실성은 복잡한 산업사회의 핵심에 손을 대는 것이며, 우리가 이러한 사회집단의 자율적인 차원, 즉 그것을 만들고 있는 개인과 그룹을, 또한 그것을 다양하게 고찰하고 인식하는 또 다른 사회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사회집단에 의해 의미작용의 차원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중심에 남아있는 것이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만약 “사회성(sociability)”의 새로운 형식이 성취되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얼마만큼 새롭고 불명확한 사회적인 집착과 응집이 진척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회공동체 생활의 고대조직의 유풍 위에 기초가 만들어진, 그래서 고찰하도록 권할만한 것이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새로운 화맥 안에서, 그 자신을 초월하고 타자를 만남으로써 변창하게 된 개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기술하는가를, 어떻게 그들이 사회적인 어군(語群)으로 통합되는가를, 그리고 이러한 어군 안에서 이러한 통합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도울 수 있는 어떤 접근법을 발견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결국 이러한 접근은 제한적이고 떠맡겨진 이 새롭고 “집합적인 표상”이 어떻게 그들의 사회집단적인 존재(being)를 만들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우리는 개인과 개인 간의 언외지언의 교환모델을 기호학적인 현상의 사회적인 차원으로 순응시키는 것에 의해, 커뮤니케이션의 텀 안의 두드러지게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 언급될 수 있는 그 시발점의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회적인 탐색차원에 대해 지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말을 더듬는 것으로 이것이 증명된다).

사회집단과 개인

사회학적으로 그리고 언어학적으로 존재하는 서구의 주요 전통이 2분법 “사회집단 vs 개인”의 암시적인 수락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전통은 사회집단으로의 개인의 착생과 사회집단 그 자체

라고 하는 존재자의 모드로 고찰됨으로써 가치가 안정된 텀으로 화해될 수 있게 되기를 요구한다. 사실 개인을 초월하기 때문에 “언어(language, langue)”는 사회집단이라고 하는 존재자의 형식 가운데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인 사실”로 고찰될 수 있는 이렇게 자율적인 조직으로 존재하고, 반면에 파롤(speech)은 언어학적인 체계와 개방적인 담화의 프로그램이 채택되어 장소가 된 그래서 생생한 담화주체에 의해 떠맡겨지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으로 존재한다. 2개의 자율적인·기호학적인 실례를 설치하고 있는 그리고 화용론적인 레벨에서 효과적으로 의미를 생산하고 있는 공통조우의 장소를 확립하고 있는 이렇게 특별한 도식은, 마치 즉석에서 보편적으로 표현된 것처럼, 사실 제한된 고풍 공동체의 프레임 안에서 언어학적인 “기계조직(machine)”의 기능으로 아주 잘 고찰된다. 그러나 산업사회에 적용될 때, 이러한 도식은 기호학적인 존재자의 개인적인 실례로부터 집합적인 것을 분리하고 있는 그 고찰할만한 간극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사회적인 파롤로든지 또는 개인적인·사회방언적인 부호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 규정되어 저장되었기 때문이다.

노트: “natural language”와 “common language”의 관계는 아래 도표 참조할 것. (역주)



공통언어(common language)

기호학적인 현상의 표층에, 즉 기호(sign)와 그 조직의 레벨에 남아있는 반

면, 언어는 그와 파롤(speech) 간의 대당이 좀 더 아슬아슬하게 묘기를 부리도록 부추기는 것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있다. 언뜻 보아도 언어의 개념이 문법의 개념으로 쉽게 동정될 수 있는 파롤로 지시됨으로써, 진리체계가 되는 것 같으며, 이런 이유 때문에 파롤과 동연(同延)이 되어 나타난다. 다른 한편 파롤은 이중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을 창조하는 어휘소적인 시소러스(thesaurus, 동의어·반의어 등의 사전)의 자유로운 사용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사용됨으로써 파롤은 프레이즈의 세트(set phrases)로 고착되는, 그리고 과잉과 연계되는 연합을 통해서 담화적인 형태와 언어의 “사회화”의 수많은 형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휘소적인 고정관념으로 고착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투시도법의 문법적인 형식은 오로지 정의에 의해서만 사회적인 것으로 존재할 것이고, 반면에 문화적인 내용과 관련된 어휘(vocabularies)는 빈번성과 개연성의 팀으로만 평가될 수 있는 통합단계 즉 두 번째 단계의 사회화로부터 발생될 것이다.

그것이 비록 명백한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해석은 “공통언어”의 부정할 수 없는 존재자와 대립적으로 직면한다. 만약 그 한계결정의 문제가 새로운 어려움을 제기한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자연언어의 화자가 서로 보충하여 해석한다고 하는(어쨌든 그들이 실행하는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공통 의미론적인 목록을 전제한다. 우리가 전문적인(기술적인·기교적인) 언어 그리고 특수화된 어휘에 속한 것을 제거함으로써 부정적으로 속행하든지, 또는 텍스트의 표상적인 발화자료체(corpus)를 충분히 사용하는 단어의 빈번성의 기록을 조정적으로 속행하든지,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결국 수많은 단어들보다 적은 어휘소의 목록으로 끝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이 “기본 어휘(basic vocabulary)”는 문법적인 단어, 즉 백 개 정도의 형용사, 수백 개의 동사, 그리고 수백 다스의 부사로 만들어질 것이며, 그때 감소하고 있는 목록으로 확립된 빈번성의 그 리스트는 흩어져, 실체의(substantive) 수많은 분산을 지시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대개 자연언어 안에서 가장 광대한 그리고 가장 중대한 커뮤니케이션의 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론적인 도구로 존재한다. 가공되지 않은 낱말 그대로의 이러한 데이터는 사회언어학에 대해, 그리고 보편적으로 위치를 선택하는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방향에 대해 언급할 때, 마음속에 그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 보기에 따

라서는 놀랍게도 이것은 “미디어”의 우유부단을 지시하며, “일반대중(masses)” 또는 어느 다른 사회계급을, 즉 진척된 사회집단의 모든 계급 그리고 사회공동체의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이 모든 계급을 절대로 구별하지 못한다. 더 나아가 어휘소의 이러한 어족(語族, stock)은 첫눈에 보았던 것만큼 빈약하지 않다. 그것을 만들고 있는 단어는 지극히 다의적이다. 그들은 다양한 방식을 구사하면서 결합체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어의소(sememe)라고 호칭된 특별의미의 의미작용이 약수(約數, measure)의 단위로 선택된다고 한다면, 그때 이러한 어족은 전문적인(기술적인·기교적인), 과학적인, 또는 심미적인 언어를 만들고 있는 팀의 리스트와 정량적으로 비교될 것이며, 그것은 대개 수많은 단어의 상위의 한계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이러한 목록이 근본적으로 동사와 형용사, 간단히 말해서 자질과 평가를 위한 빈사의 도구(결정의 언어학적인 의미)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따라서 이것이 사실상 대상의 침범으로, 그리고 매순간마다 가능한 주체를 그들의 빈사로 예상하고 마력으로 불러내는 “파지(把持, memory)” 안에 명기된 보다 더 광대한 어휘의 일부인 상황의 리스트로, 파악하는 사용자에게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저장소로 존재한다는 것을 쉽게 알았다.

이렇게 간략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광범위한 언어학적인-문화적인 사회공동체의 모든 일원에게 공통적인 시소러스의 존재자를 존속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시소러스는 다음의 내용에 의해, 즉 ① 관계적인·정량적인 엄밀함 ② 은유를 만들려고 하는 초강력의 경향 ③ 특히 가치판단의 생산을 적합하게 만들고 있는 그리고 일련의 이러한 팀을 가치체계로 변형하는 것을 적합하게 만들고 있는 그것의 빈사적인 양상 ④ 사용자의 방사적인 언어연기와 감수성이 예민한 언어연기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질 것이다.

사회방언과 기호학적인 어군(語群)

언어학적인 사회공동체 안에서 사회적으로 한정된 문법, 공통 어휘소적인 도구와 함께 존재하는, 말하자면 언어학적인 미디어와 함께 융합될 수 있는 그 발언(observation)은 보편화된 그래서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정위될 수 있는 그 의미론적인 장소를, 즉 그것이 떠맡고 있는 형식과 모드 양쪽의 가공되지 않은 관념을 우리에게 이미 제공하고 있다. 그 경우, 개인의 사회적인 기호학적인 지위가 기본적으로 제거됨으로써, 그때 우리는 그들을 사실상

사회적인 어군이 아니라 한정된 “언어공동체”로 감싸는 몇몇 특수화된 “언어”의 다소 성공한 도제(徒弟)의 신분과 같은 적종곡(適從谷, subsequent)²¹⁶의 아티클레이션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 사회공동체는 방사하기 위하여 그리고 담화의 어떤 유형을 수용하기 위하여 공유하는 어군의 일부인 모든 개인의 언어능력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 기호학의 어군으로 만들어진다. 그 동일한 개인은 몇몇 기호학적인 어군의 일원으로 관여할 수 있고, 그(또는 그녀)가 통합됨으로써 어군으로 존재함과 동시에 많은 사회기호학적인 역할을 떠맡게 된다.

기호학적인 어군의 개념은 모든 제이의적인(secondary), 즉 전문적인(기술적인·기교적인)·과학적인·심미적인·윤리적인 사회방언을 합계하고 있는 동등자(equal)를 설치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 그러나 다른 성격은 이렇게 특수화된 “언어”의 일치(comparability)에 조명을 비취 강조한다. 우선 무엇보다도 그들의 규모는 대체적으로 그들을 함유하고 있는 어휘소의 단의성(單義性)을 통계적으로 강조하고 확증한 삼천 개의 어휘소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러한 사회방언이 오로지 이러 저렇게 선택된 의미론적인 우주의 초월아티클레이션 상에 의지하는 의미의 진전으로만 나타난다. 왜냐하면 이러한 초월아티클레이션은 이렇게 분석적으로·진취적으로 반제하고 있는 다의성을 추구하고 있는, 정보의 동일한 정량을 공유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어휘소적인 라벨(label) 안의 자질적인 증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비록 개인이 방향적인 범주처럼 보편화된·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변화과정 안에 통합되고 동시에 커뮤니케이션의 제한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상당량의 어군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제2극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2극화의 피오르드적으로 칭취될 수 있는 그 방향적인 묵음(默音)과 회화의 삶으로부터, 또 다른 기호학의 무수히 많은 어군으로부터 배척된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전기공학의 어휘와 같은 일상생활의 관심사와 결속된 전문적인(기술적인·기교적인) 어휘를 검토한다면, 20개 정도의 단어만이 특별여분의 사회방언적인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어휘소적인 조각들, 즉 기호학적인 어군의 레트(테니스 등에서, 네트를 스치고 들어간 서브 공)는 공공의 영역으로 빠져드는데, 그렇지만 그

216) “subsequent valley(적종곡),” 즉 연한 지층 부분을 따라서 선택 침식이 작용한 결과 생기는 하천·골짜기와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역주)

단어는 은유 또는 상징처럼 양 의미를 소유하고 있는 그저 단순하게 평범한 상투어로 존재한다. 즉 그들은 단자(denomination)로 구성된 풍부한 성분의 모든 “기본어휘”의 보조어족을 만든다.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공통언어의 사용자를 허락하는 그래서 유용한 파지로 존재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상투어, 즉 각각의 진부한 말과 지식의 모든 초미우주로 표현된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단순한 발언은 어휘화된, 그리고 전문경영자, 과학클럽, 배타적인 서클에 의해 처리된, 모든 의미론적 형태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제한된 커뮤니케이션을 실천하는 서클 밖의 어휘소적인 조각의 유포에 의해 발생된 어느 자율적인·인식적인 우주의 합성은 우리가 방금 연구했던 현상을 전형적인 양식으로 설명하며, 그것의 대중화는 미묘한 편차의 상실에 의해(twofold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역주), 의미를 창조하는 차별의 볼품없이 보이게 하는 것에 의해 발생되어 나타난다. 간단히 말해서, 그 존재자의 지식 영역의 진보적인 탈의미화가 비록 일반 공공의 영역을 피하고 있을 지라도(세미올로지의 귀납적인 차원이다. -역주), 연역적인 언외지의(내포)의 대상 같은, 안심시키는 또는 두렵게 하는 확실성 같은, 파지로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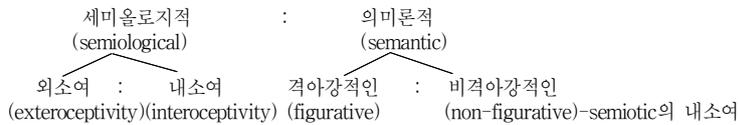
숨겨진 그리고 일시적으로 흘끗 감지된 의미론적인 실재성의 많은 잠자리의 홀눈, 즉 어휘소의 자투리로 넉지시 빈정거리는 것으로 증명된 현존재는 언어의 표층에서 이제 방금 몇 개의 잠재적인 그래서 쓸모없는 공허(void)로 만들어지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허는 생존으로, 소생으로, 새로이 신화적인 그리고 마술적인 표상으로 채워질 것이다. 따라서 전기공학적인 표상으로서의 탐색은 변화가 많은 격상의 형식을 쉽게 선택하는 마술적인 힘의, 초자연적인 힘의 전위적인 관념을 급히 일깨워 유발케 할지도 모른다. 같은 방식으로 텀 복합에 의해 덮인 의미론적인 공허는 불가피하게 게가 다리를 잘라버리는 것처럼, 또는 팔각목(八脚目)의 동물이 우리의 영혼을 먹어치우는 것처럼, 낡은 이미지를 잘라버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서 병 들고 낡은 격아강적인 표상은 마법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이렇게 의미론적인 공허와 그들의 신화적인 함수로 귀속된 망상(importance)을 회의적인 것으로 남아있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는 집합적인·어휘소적인 기관(器官)으로서의 언어학적인 공동체가 그것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그 구체물의 다의성이, 그리고 그 빈사의 가치를 안정시키는 성질이 사용할 수 있는 무한수의 담화 안 격아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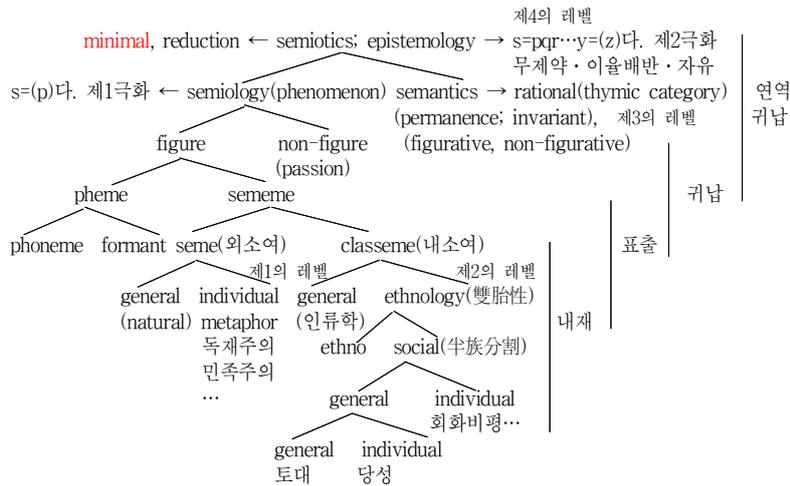
적인 차원의 특혜가 주어진 관습을 그 스스로 훌륭하게 유도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어떤 무엇을 문제가 많은 불확실성으로 확장한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표현하는 그렇게 “문화”를 정의하고 있는, 가치체계를 만들고 있는, 개인의 보편적인 연루에 의해, 소정의 사회집단의 의미론적인 차원에 관한 주요한 성격 중의 하나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의 격아강적인 형식으로 고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노트: 1. “rational → classeme → seme → pheme → figure → semiology”의 순서로 구성해나가고(division), 역으로 분할하면서(partition) 상호작용을 한다. 아래 도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2. 자기소여(proprioceptivity)는 “외소여(extroceptivity)/내소여(interoceptivity)”의 복합적인(또는 중립적인) 텀으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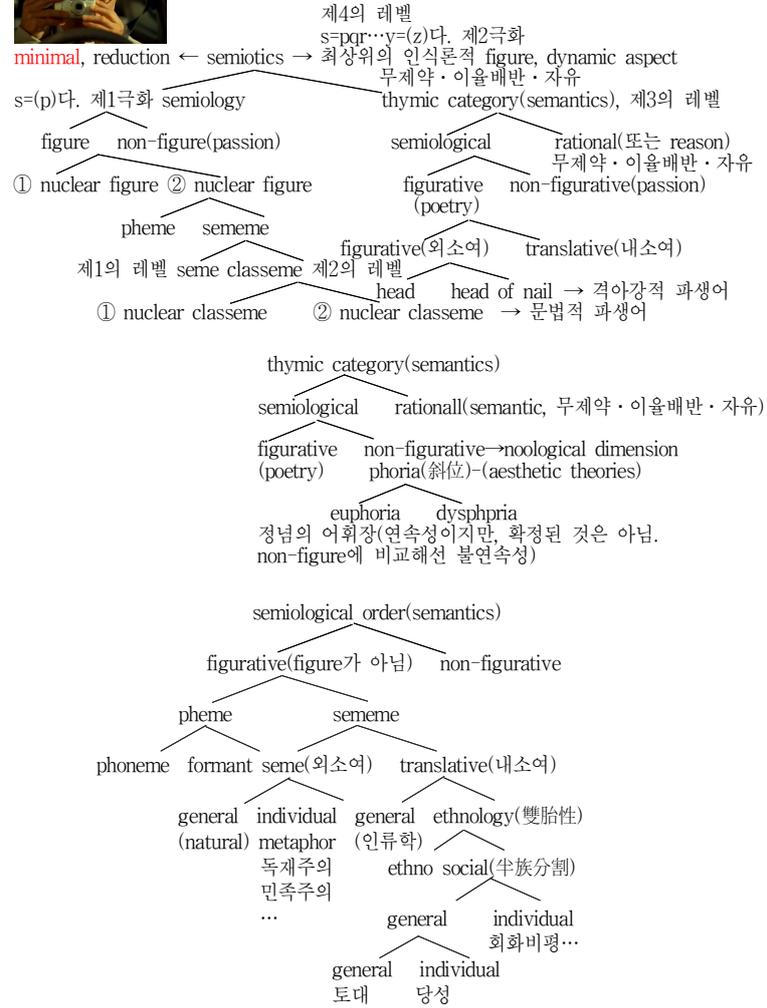
아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figurative, non-figurative”는 보다 상위의 인식론 차원의 무제약의 세계이다. (역주)



노트: 여기서의 rational은 reason(理性)이면서도 rational(悟性)이다. 그리고 “표출/내재”=semiology에서는 “표출(figure)/내재(sememe),” semiotics에서는 “표출(figure)/내재(sememe+thymic category)”이다.

제11장 기호학과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노트: 방향적 범주(thymic category)를 아래 사진과도 비교해 보라. 사진을 찍는 남자의 오른 쪽 눈(figurative)은 카메라(figure)에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역주)



담화적인 사회기호기학에 대하여

선행 반성은 언어학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프레임 안에 그리고 이렇게 단순한 레벨에 그저 막연하게 결정된 기호로 신중히 정위되었다. 비록 그 어휘소적인 주연(周延)과 어군화(語群化)가 오로지 근사값의 확률로만 존재하는 결과를 초래케 하는 통계의 증명사에 의해서만 확립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어휘화가 어떤 의미작용적인 성격을 제공하는 기본의미론의 존재자를 우리가 조정하도록 허락한다. 한편 이러한 의미론은 전체 언어학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동연(同延)으로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자율적인 사회기호학적인 차원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한다. 다른 한편 그것은 일종의 허수아비와 같이 보잘 것 없는 성격을 만드는데, 그 이유는 최상의 격아강적인 그리고 그것 대신 거두어들일 수 있는 신화적인 담화의 증명사에 의해 조화되고 통합될 수 있는 그것과 함께 모든 사회방언을 향한 그 문화세계 대상의 다양화된 단자의 한 덩어리의 모습으로, 그것의 분지(分枝)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전제조건

사실 우리가 보편화된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주체로 존재하는 형식과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자 할 때, 만나게 되는 주요난국은 첫눈에 무제한으로 나타나는 중복성과 표출의 다양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신화학은 상대적으로 광대한 목록을 열망했지만, 사실 이 논문은 실제적으로 사회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그리고 기호학적인 우주의 내재적인 응집성을 발견하는, 따라서 복잡성과 단순성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사회적인 담화로 고찰하고 있는, 공통 의미론적인 장소를 결정하는 것으로 고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에스노-문학에 대해 언급했을 때 다소간 인정했다. 비록 그것이 낯거나 의고적인사회집단의 프레임 안에 정위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개념은 전치될 수 없고, 사회민중문학(socioliterature)의 존재자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산업사회에 기계적으로 적용될 수도 없다(그저 사회민중문학의 차원과 복잡성이 산업사회의 차원과 복잡성보다 더 광대하다고 하는 바로 그 단순한 이유만 가지고도). 그런 사회집단과 동연인 기호학적인 사회성의 존재자를 인식할 경우에만(어쨌든 이것은 명백하지 않다) 그것은 사실상 집합적인 시니피에를 공리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니피에는

그것이 실로 수많은 표출언어의 형식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위에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채널과 부호를 채용하고, 이질성분으로 존재하는 미디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조건에서만 민속학(folklore, 즉 대규모사회집단으로 지시된 민중문화[통속문화가 아닌]에 관한 지식)이 가능해질 수 있다.²¹⁷⁾

이제 우리는 비록 경험적인 관점만일지라도 그런 기본의미론을 배경으로 깔려고 시도하면서, 또한 이러한 어휘목록의 지배적인 특성, 즉 그것의 은유적인 그리고 가치론적인 성질을 결정하면서, 그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대화적인 그리고 담화적인 언어학의 커뮤니케이션의 2개의 주요 형식 간의 편차를 수용한다면,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러한 두 형식(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의 해석은 사회적인 행동의 기호학적인 언의지의로 이해된 사회기호학적인 문법의 암시적인 존재자를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도록 만들어진다)의 최초에 대해 사전에 언급한 것을 마음속으로 지킨다고 한다면, 그때 담화적인 사회기호학은 넓게 확대되어있는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이러한 제2의 담화형식의 보편적인 표출로 고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만약 “2분법적인 체계 vs 변화과정”이 어느 기호학적인 체계(자연언어만이 아닌)의 존재자의 2개의 주요한 모드로 고찰되는 것을 우리가 허락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회기호학이 채널, 미디어(텔레비전, 영화, 집단 스포츠, 오락, 그림책 등)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실체의 모든 사회적인 담화를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될 것이다. 단지 그들 모두가 바로 그 동일한 의미작용의 우주에 다시 귀속되기 때문이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들 담화조직의 형식이 비교될만하기 때문이기만 한다면.

게다가, 우리는 은유적인 그리고 가치론적인 성질을 믿음(believe, 그리고 이것은 강력한 가언의 방식으로 존재한다)으로 우리에게 유도하는, 그래서 보편적으로 공유된 자연언어의 어휘목록으로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처럼 발견했는데, 그 사회적인 담화 안에 명기된 그것은 화술적인 그리고 격아강적인 담화로 나타난다. 모든 사람들은 그 역할과 격아강적인 화술성의 충격을 알아차리게 되는데, 예를 들어, 그것은 아동의 책 속에 나타나고(사회구조의 도제제도), 전개

217) folklore(민간전승, 민속학); 그레마스는 이것을 단순히 “민간전승, 민속학”의 의미로만 사용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문화변용(acculturation)에 의한, 즉 동화·수용·접변(接變)에 의해 형성되는 복합문화를 지시하고 있다. “Only on this condition can a folklore(that is, knowledge about the culture of people-and not popular culture-directed toward the culture of macro-societies) become possible.” (역주)

된 포스터와 전시상태 이러한 옥외 박물관 안에 나타나며(감성과 집합적인 취미의 검사), 심리분석가의 침상으로 세워지기도 하는데, 그곳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확립을 위한 주요 의미 중의 하나를 구성한다. 따라서 그것은, 말하자면, 이렇게 격아강적인 은폐의 덮개 아래 사회성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떠맡게 된 가치체계의 기본적인 아티클레이션을 정상적으로만 발견하도록 기대한다.

아종적인 특이성(specificity)의 기준

담화적인 사회기호학의 교묘히 다루기(합성), 즉 그 특별한 동차성의, 그 형태의 자각탐색 영역의 합성, 그리고 그것의 과업은 순환관념론의 바로 그 존재자에 의해, 제2의 하위범주로서의 사회적인 수신자를 소유하고 있는 생산으로 고찰하는 일종의 암시적인 정예주의에 의해 어렵게 표현된다. 동시에 이러한 관념론이 마지못해 허락되고, 때때로 보존력 있는·숨어있는 동기를 소유함으로써 사회적인 성층의 기초가 되고 있는 진기한 기호학적인 차원의 공준을 고발한다. 마치 풋볼 게임이나 서부영화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또는 탐정소설과 1회 4컷의 연재만화(comic strip)를 읽는 사람들이, 사회집단의 모든 레벨의 근거가 확실한 샘플링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이상하게도 비록 그들이 관계적으로 어떻게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도 없이 분화된 기호학적인 어군의 문학으로부터 에스노-문학을 구별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파생된 그 기준은 또한 사회적인 담화에 의해 생산된 화술적인 대상에 적용되는 것 같다.

이러한 기준의 첫 번째는 내레이터의 관계적인 방임을, 관입(貫入)하는 현존재를 밖으로 드러내고 있는 문학 텍스트의 언외발언의 주체에 의해, 그 자체를 위해 그리고 함축독자(나와 닮은, 내 형제)를 위해 보여준 관심(interest)과 다른 사회적인 사명감(vocation)을 소유하고 있는 생산으로 유발된다. 그것이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에스노-문학으로부터 사회민중문학으로 귀속될 때, 사실상의(de facto) 상태는 성공 또는 실패에 의해 생크션이 이루어진 권리의(de jure) 상태로 변형된다. 전자의 경우, 언외발언의 주체는 알려지지 않거나 집합적인 주체로 단순하게 지시되며, 반면에 후자의 경우, 우리 앞에서 함수역할을 하고 있는 생산의 메커니즘은 폭로되거나 분석될 수 있으며, 언외발언의 실례는 반드시 숨겨지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것의 표출은 텍스트로부터

배척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생산의 사회적인 소실을 회방하기 때문이다.

전자와 마찬가지로 동일 맥락에 따르고 있는 후자의 경우는 사회적인 텍스트 안의 기호학적인 부호의 부재로 존재하며, 그것은 그들이 숨김없이 명백한 것과는 정반대로 존재하고, 더 나아가 필적할만한 문학 텍스트 안의 명각(銘刻)으로 흔히 표현된다. 전자의 경우 기호학적인 투자의 부재가 실제적인 것보다 더 많이 더 좋게 나타난다고 언급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사실상, 사회적인 텍스트는 그 독해의 정확한 방식을 쉽게 설명하고 있는 텍스트 안에서 매우 많은 “관용의 연외지시(direction of use)”로 존재하는 지시적인(referential) 표시로 인하여 으악 하고 경악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투시도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에스노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문학 간의 비교는 매우 분명하고 계몽적이다. 고품의 또는 시골풍의 사회집단(수적으로 한정된)과 마찬가지로, 구술담화의 실제적인 언어연기가 위치를 잡기 전에, 부호의 필연적으로 독해해야 할 바로 그 전체 세트를 소유하고 있는, 현대사회는 새로운 정보의 해독, 또는 보충지식 획득의 욕구충족을 발견하여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쉽게 관독될 수 있기 전에 귀속되고 있는 텍스트 안에서 끄집어 내지 않은 그 상태의 그 자신 그 스스로 인식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것은 수수께끼의 문제로든지, 이미 알려진 것의 그리고 또 다른 것을 그러모으려고 하룻저녁에 계속해서 요구했던 것의 대답으로든지, 잠들기 전에 지난밤의 이야기로서 새로운 이야기가 아닌 것을 들으려고 요구하는 아동의 문제로든지, 또는 동일한 선수의 동일한 게임을 지켜보고자 하는 팬들의 군집의 문제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 존재하며, 이미 알려진 그리고 경험한 것과 우연히 마주치고 있는 것의 기쁨은 동일 장소 어디에서든지 남아있게 된다.

감지된 내용의 이러한 과잉은 그들이 우리들 자신의 가치가 안정된 이미지를 반영하기 때문이며 또한 형식의 재현에 의해 보충되기 때문이다. 작가의 한정된 기호학적인 어군을 지배하는 창조적인 독창성의 신화와는 달리, 에스노 그리고 사회민중문학(socioliteratures)은 형식과 장르의 정착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다. 그것이 비록 에스노-문학과 관련되는 한에 있어서만 정당화될는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구술담화의 지장을 위해 필연적인 형식의 정착에 따르고 있는 그 설명은 그들의 뜻대로 쓰고 있는 현대사회의 사회적인

담화를 고찰할 때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나 집단 스포츠 또는 소위 상업영화의 프로듀서에게 떠맡겨진 요구를 지배하고 있는 역할보다 무엇을 더 속박할 수 있는가, 또는 그것을 그들이 그 자신에게 과연 떠맡길 수 있겠는가? 보편화된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이 정보의 옹호 아래가 아니라 의미작용 아래 정위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것으로부터 명백하게 된다.

결론

최근 몇 년 동안 “매스 커뮤니케이션” 안에 만들어진 진보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진기한 인상을 얻게 된다. 마치 내재적인 판단력인 것처럼, 그것은 사회과학의 발전을 지시하고 있는 책략으로 통제된 일종의 알고리즘적인 논리로 존재한다. 분명치 않은 대상을 소유하고 있는 언어도단의 분야와 미발달의 방법론은 순환하고, 가지가 벌어나가고, 모든 언외지시로 불규칙하게 산개하며, 거의 언제나 그 자체에게 응답지령신호를 보낸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것이 그 자체에게 질문할 때, 그것의 공준과 병치적으로 나란히 옆에 있는 진행방식과 흔히 다른 탐색영역의 역 발전을 문제시하려고 할 때, 그것은 이러한 분야가 탐색되지 않은 · 과학적인 진기함을 떠맡는 것으로, 그리고 사실 그것은 실제적인 필요성과 반드시 상응하는 것으로, 그리고 기호학적인 탐색을 의미작용적인 차원과 현대 거시사회의 아티클레이션을 떠맡는 그것으로, 갑자기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분야의 전체적인 투기는 기호학적인 투시도법으로부터 그 외양을 부여받고 있다. 사실 그 문제의 불확실성은 다음의 주요 주제들로 제한될 수 있는 것 같다.

1. 우리가 개인 간의 레벨로부터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취급하는 한, 사회기호학적인 문법은 그것의 조직과 그것의 함수로 고찰할 수 있는, 충분히 보편적인 모델로 제공될 수 있어야만 한다.

2. 사회방언을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내재적인 사용을 위해 사회적인 담화를 생산하고 있는, 기호학적인 어군의 존재자의 인식은 소정의 사회집단의 기호학적인 어군의 안과 그것들 간에 위치를 잡고 있는, 제한된 ·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탐색의 영역을 확립한다.

3. 전체로서의 사회집단을 감싸고 있는 보편화된 ·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담화적인 사회기호학의 가능성을 암시하도록, 그리고 그것의 합성

제11장 기호학과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을 위해 이중적인 조건을 마음속에 그리도록 유도한다.

제12장 사회언어학에서의 이론적인 모델에 대하여

서론

둘이상의 분야에 걸치는 탐색의 문제가 많은 불확실성의 일부분인, 사회언어학이라고 호칭된 영역에서의 탐구는 더욱 완전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절대적으로 태양 아래의 그 위치가 계속 요구되고 있는 이러한 분야가 수많은 연구자들의 옹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분명히 매력적이고 때때로 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필연적이기까지 하지만, 실제로는 보다 많은 어려움과 직면한다. 타자를 지배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것 없이는, 타자 상에서 그 자체를 떠맡는 것의 방법론적인 접근 없이는, 2개의 과학적인 분야를 함께 불러들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요구될 수 있기조차 할 수 있다. 따라서 경험은 사회언어학에 의해 감시받는 탐색 영역이 사실 동일 논평과 동일 간행물을 공유하는 유사-독립 탐색의 동일 유형에 의해 예외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사회논리적인 방법의 사용은 자연언어의 사회학의 합성을 유도할 수 있을 뿐이며, 반면에 언어학적인 방법의 확립은 사회논리적인 언어학(사회언어학)의 진전을 선도한다.

사회언어학(sociolinguistics)과 에스노-언어학(ethnolinguistics) 간의 편차와 관련이 있는 두 번째의 관점은 강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두 분야를 구별하는 것으로 사용된 표면적인 기준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타당하지 못한 것 같으며, 실제적으로 그들은 미심쩍은 것 같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진전된 사회집단과 진전되지 않은 사회집단 간의 대당을 이용하고 싶다면, 그리고 우리가 전자와 관련된 사회언어학과 후자와 관련된 에스노-언어학을 실행하고자 한다면, 그때 진전의 개념은 정의된 것으로 전제될 것이다. 사실 이것은 진리와 거리가 멀고, 경제학자들이 이것에 대해 의심을 품는 최초의 것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필경 우리는 문제가 많은 불확실성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두 분야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의 관점은 언어와 사회집단 간의 관계와 관련된다. 만약 세계의 표면에서 우리가 자연언어의 많은 다양성을 동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또한 우리가 그 사회언어학적인 선입관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인간언어가 무한수의 특별한 언어로 해체되는 것은 언어의 기원상에서 신화의 말하자면

성격이 만들어진 주제 중의 하나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존재할 것이다. 바벨탑적인 문제로 호칭된 것은 거의 모두 신화로 묘사된다. 여기서 실행되고 있는 모든 사회언어학은 현대화하려고 시도하는 그 팀을 사용하고 있는 말하자면 만만치 않은 문제로 취급된다. 두 분야의 경우에 어떤 시도는 인간 사회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것과 동시에 언어의 다양성으로 고찰된다. 그 설명적인 분야는 동일한 것으로 남아있게 된다. 사회적인 의미작용은 자연언어로 추구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자연언어는 우리가 동정할 수 있는 시니피앙이 되고, 그들이 언어학적인 공동체에 속하는 그들의 의미와 관계하고 있는 사회적인 어군과 비교하여 뚜렷이 드러나게 된다. 이 경우에 사회언어적인 의미작용은 자연언어와 그들의 아티클레이션으로 만들어진 시니피앙의 시니피에로 존재한다. 따라서 추구하고 있는 임시적인 정의는 사회적인 언외지의(내포)를 소유하고 있는 언어의 연구일는지도 모르는 사회언어학에 따라 제안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최후의 관점은 자연언어가 인간사회를 아티클레이션으로 만들고 있는 그리고 구별하고 있는 의미작용의 오로지 그 체계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로부터 유래한다. 또한 다른 기호학, 즉 비언어학적인 것이 동일한 결승점에 모아진다. 예를 들어, 언어의 기원상에서 신화의 부재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 어느 아프리카의 사회집단 안 복장문화의 기원상의 신화는 말하자면 삼위일체처럼 위격(位格)화된다고 고찰된다. 따라서 마치 자연언어의 위격과 같은 복장의 언외지의(내포)는 언어학적인 공동체와 결속의 즉 결합하고 있는 사회적인 어군의 동정의 감정 간의 편차를 창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투시도법적인 사회언어학으로부터 매우 광대한 분야에 속하게 되는 그것은 몸짓의, 음식의, 복장의 기호학 등의 연구를 포함하는, 사회기호학(sociosemiotics)으로 호칭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이탈리아에서 파생언어적인 편차가 이탈리아 국민을 지역공동체로 분리하는 것의 다양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로 아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언어의 파생언어적인 아티클레이션이 이탈리아 국민을 형성하고 있는 “성격”의 유형학으로 고찰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 구비오(Gubbio)라고 하는 사람이 우울하다고 언급될 때, 이렇게 파생언어적인 우울은 언어학적인 특성에 의해 단독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수많은 기호학이 전체적인 의미효과를 생산하는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학적인(anthropological) 접근

자연언어에 대해 정의하는 것은 사회언어학에 의해 강조된 중요한 문제이다. 한편으로 언어학자들은 언어학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대개 언어의 내재적인 메커니즘의 기술로부터 유래되어 기초가 만들어진 지식) 하는 인상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자연언어의 개념은 대부분 사회언어학적인 개념으로 존재한다. 사실 우리가 만약 소위 국어(national language), 파생언어(dialect, 같은 어족에서 갈린), 방언(patois)이 무엇인가 질문을 받는다고 한다면, 언어학은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을 것이다.

자연언어의 개념은 매우 다양한 이론적인 접근의 가능성을 예증하는 것으로 선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연언어의 유형은 어쨌든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고찰될 수 있다.

무엇보다 먼저 단적으로 말해서 과학적인 분류법의 문제는 사회언어학적인 접근과 구별되어 따로따로 취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영역 안에서 19세기에 정교하게 만들어진 무한수의 과학적인 투기로 퇴행하는 일 없이, 그것은 엘름슬레우 또는 촘스키(Noam Chomsky)의 최근 이론에 의해 기초가 만들어진 자연언어의 다소간 완벽한 유형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있다. 언어가 계층적인 체계로든지 또는 작용적인 조직으로든지 또는 변형적인 규칙으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기술될 수 있다고 조정(措定)됨으로써, 우리는 다양한 언어 사이의 구조적인 상호관계를 확립하는 필연적인·객관적인 기준(즉, 계층적인 또는 논리적인 규칙의 시퀀스)을 소유한다. 그렇게 과학적인·구조적인 유형은 언어의 사회학과 같이 또는 사회언어학 그 자체와 같이 분명히 별도로 소유한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그 이유는 언어가 그들의 사회적 화맥 안에 어떻게 도입되는지 고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러한 유형은 에스노-식물 분류법(ethnobotanical taxonomies)을 소위 식물분류법과 같이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소 그렇게 동일한 상황으로 존재한다.

에스노놀로지 학자들(ethnologists)이 동식물분류법, 또는 다른 분류법의 기술을 차용하여 확립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아종적인 사회집단 안에서, 즉 레비스트로스가 식물군 또는 동물군을 에워싸고 있는 의미론적인 초미우주의 조

적을 결정하는 소정의 문화 안에 응고된 논리의 범주라고 부르는 것 안에서, 의미의 아티클레이션으로 존재한다. 특별한 사회집단의 특별한 식물분류법과 같은 기술은 인류학자들에게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단어를 어떤 무엇의 가면으로 사용하는, 즉 언어공동체의 다양성을 통해 표현됨으로써 인간 마음의 함수 작용을 하는, 바로 그것으로 고찰할 수 있는 이러한 분류법의 유형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에스놀로지적인(ethnological) 분류법 안에서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분류법, 즉 그때 채용된 범주 간의 계층적인 관계를 확립하는데 사용된 범주이다. 그 응고된 논리의 대비는 소정의 문화유형학을 구성하는, 변화가 많은 언어학적인 공동체의 아종적인 특이성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동일한 투시도법 안에서, 그것은 필경 19세기의 주요 유산인 발생 유형학을 에스노-유형학으로 해석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연언어의 유형학을 고찰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유형학의 프레임 안에서, 우리는 그 기준이 파생언어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선택되거나, 언어학적인 파생언어가 지극히 다양하게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언어학자들은 라틴어 풍을 만들고 있는 로망스어(라틴 말 계통의 근대어; 프랑스 말·이탈리아 말·스페인 말·루마니아 말 따위. -역주)를 한 묶음의 단위로 승낙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내 생각으로는 그 편차가 5~56가지의 다양한 변화로 고찰되기 때문인 것 같다. 더 나아가 행정적인 권위가 또한 어느 것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스위스 정부는 국토 1/4의 공용어로 레토로망어(Rheto-roman)를 사용하도록 공표했다. 사실상 여기서 단일 언어로 고찰되는 것은 어쨌든 단순화될 수 없는 2개의 파생언어(dialects)로 만들어지며,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법에 맞지 않는 코이니(koine, 기원전 5세기부터 기원전 3세기의 표준 그리스어; 신약 성서는 이것으로 기록되었음. -역주)를 확립할 수 있다.

하여간 동일한 그것은 언어들 간의 편차를 구별하는데 사용된 보다 상위 패러다임으로의 함축(또는 內包, comprehension)의 기준을 위해 진리를 소유한다. 스칸디나비아어는 3개의 다른 언어로 고찰되지만, 화자들은 서로 이해할 수 있으며, 반면에 이탈리아 또는 프랑스의 방언(patois)의 경우, 다양한 방언의 화자들은 서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 자신을 이탈리아인 또는 프랑스인으로 생각한다. 언어학적인 정감을 흔히 환기시키는 기준은 잠정적인 것도 아

니며 그렇다고 해서 그 밖의 무엇도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단어 “gudas(cf. 어원: goth; 고트어, 고트족, 무법자·야만인·난폭한 사람)”²¹⁸⁾가 리투아니아의 인접국가 백리시아인(벨로루시공화국, 독립국가 연합의 한 공화국; 수도는 Minsk. -역주), 그리고 아직 말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웅알거리기만 하는 아동과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과 관련된 리투아니아의 파생언어로 말하고 있는 어느 다른 사람들을 동시에 지시하는 리투아니아의 예와 같은 그 지역으로 주의를 환기시켜 참고하는 것이다. 이 최후의 예는 내포개념의 상대성을 매우 분명하게 예증한다. 이렇게 상대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최후의 분석에서, 우리가 내포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동정의 인식과 언급주체의 이타성(異他性, alterity)으로 취급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모든 언어는 그 자신의 내재적인 기준과 실제 또는 상상된 커뮤니케이션으로 분해되는 쪽의 동정과 배제의 애티튜드를 생성할 수 있는 명백한 원소를 가지고 있다.

문화의 유형학으로 되돌아가, 우리는 라틴어 사용이 보편적으로 서루마니아와 동루마니아로 분할 사용된 주요 과학적인 기준 중의 하나가 선택하는 복수의 형성물, 즉 2개의 명백한 모드 위에서 기초가 만들어진 형태론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알았다. 갈로-로망 지역, 갈리아(Gaul)²¹⁹⁾에서 사용되던 언어가 오크어(langue d'oc, 중세에 Loire 강 이남에서 사용되던 말. -역주)와 오일어(langue d'oïl, 중세에 Loire 강 이북에서 사용되던 말. -역주)로 분할된 것은 음성상의 기준에서, 즉 악센트가 붙여진 음절(canta vs chanter) “a”와 “e”의 대당에서, 발견된다. 우리는 이러한 기준이 원자의 개념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언

218) Goth: 고트족(族). 튜턴계의 한 민족. 고트어(Goth語); 1. 인도·유럽 어족의 동게르만어파에 속한 언어.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고트족(Goth族)은 동게르만계의 한 부족. 기원전 1세기 무렵에 게르만의 원주지인 스칸디나비아에서 나와 비슬라 강 유역에 정착하였고, 3세기 무렵에는 흑해 북서부 지역으로 이주하였다가, 훈족의 압력으로 375년 무렵에 동고트와 서고트로 분열되었다. 동고트족(東Goth族): 고대 게르만 민족의 한 갈래. 2~3세기에 흑해 북쪽 연안 서부에 정착하였으나 훈족에게 패하여 훈 제국에 병합되었으며, 493년에 이탈리아에 동고트 왕국을 세웠으나 555년에 동로마 제국에게 멸망하였다. 서고트족(西Goth族): 고대 게르만 민족의 한 부족. 처음에는 북해 북쪽에 살다가 4세기 말 무렵에 훈족에 밀리어 남쪽으로 옮겨 왔으며, 5세기 초에 로마를 멸망시키고 갈리아 남쪽에서 에스파냐에 걸치는 서고트 왕국을 세웠다. 2. 요즘 한창 유행인 “고트族,” 즉 남자의 경우 “goth guys,” 여자의 경우 “goth girls”라고 하는 말도 여기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 드레스에 길게 늘어뜨린 검은 머리카락, 창백한 피부. 음산한 분위기가 물씬 풍겨 오고 공포감을 주기도 하는 패션을 말한다. 3. 기타·베이스·드럼으로 연주하는 강렬한 록 음악의 하나, 또는 그 연주자를 지칭하기도 한다. 신비하고 계시적인 서정시의 특징을 이룬. (역주)

219) Gaul: 갈리아, 골(이탈리아 북부·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스위스·독일을 포함한 옛 로마의 속령; 갈리아[골] 사람; 프랑스사람(우스개)). (역주)

언어학적인 구조의 동일한 레벨에 정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경우에, 우리는 필경 라틴어성을 분류법으로 고찰하여야만 할 것이며, 언어의 친족형식으로 떠맡을 수 있는 기준과 변별적인 범주로 연구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때 구성범주의 그리고 계층조직의 관점에서 고찰된 로망스어의 그러한 분류법적인 모델은 게르만어의 유형을 표상하고 있는 동일 유형의 또 다른 모델과 비교된다. 이러한 실례에서 우리는 언어학이지만 오히려 에스노-언어학 또는 사회언어학에 불과한 탐색의 유형으로 취급할지도 모른다.

가능한 유형학의 세 번째 유형은 문화적인 영역으로 존재한다. 인간과학은 살아서 전개되는 공간을 사용한다. 공간사용의 기준 또는 근접학적인 기준은 언어학적인 또는 파생언어적인 편차를 고찰하기 위하여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등어선(等語線, isogloss: 어느 언어 특징을 달리하는 두 지역을 구분하는 언어지도상의 선)을 탐색하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확립되는가 하는, 지도제작법적인 방법의 증명사에 의해 표상될 수 있는 그것은 사실 문화적인 영역의 유형학을 위한 시발점이다. 그 동일한 지도는 정치적인, 역사적인, 언어학적인 목록에 속하는 데이터의 공간에서 주연(周延)과 상응하는 형태(초미-화술, configuration)의 몇 가지 경로의 초과부과(superimposition, 또는 속임·사기)로 존재한다. 그때 약간의 이러한 병존적인 경로는 우리가 문화적인 영역으로 호칭될 수 있는 것의 둘레에 선을 긋도록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프랑스어에서 선택된 어떤 예는 그 방법을 보다 훌륭하게 설명할 것이다. 사실상 우리는 프랑스어 지도상의 등어선이 3세기 로마제국의 옛 프로빈키아(속주)의 경계와 상응하는 프랑스 파생언어로 묘사된다는 것을 알았다. 거기에는 옛 프로빈키아만큼 많은 파생언어가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사회논리적인 또는 역사적인 요인이 파생언어 또는 언어의 이 공시적인 주연을 통시적으로(diachronically) 결정할 수 있다고 언급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러한 접근이 사회언어학 아래에서 유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어의 사회학(또는 역사)으로 호칭될 수 있는 것 아래에서 유래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것은 사실상 매우 다양한 복합인과율의 확립에 의해 속행되며(역사적인, 지리적인, 경제적-유기적인, 등), 이러한 언어영역 밖의 원인의 효과로 고찰된 언어학적인 사실의 결정에 의해 끝이 맺어진다.

사회언어학적인 분류법(taxonomies)

사회언어학이 아종적인 특이성으로 존재하는 어떤 탐색방법은 이렇게 사회논리적인 접근과 에스놀로지적인 접근으로 대비될 수 있다. 우리는 언어영역 밖의 방법의 관련성을 거부하거나 그들을 예증하는 지극히 중요한 연구의 전체범위에 관해 의심을 갖고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보다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조사의 단일한 영역 안에서 방법론적인 경계를, 즉 낭중분절(囊中分節)을 확립하고 싶다. 그 사회언어학적인 접근은 의미작용적인 편차와 인간과학의 아티클레이션의 기술, 즉 자연언어의 레벨에서 의미작용적인 간극의 변덕으로 기초가 만들어진 기술의 텀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이 작은 또는 큰 간극으로만 존재하는 한, 그들은 사회적인 언외지의(내포)의 총체성으로 만들어진 소정의 사회적인 시니피어로 존재할 수 있는 그래서 사회적인 시니피앙으로 고찰된 자연언어의 레벨에 등록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전개와 기술의 사회언어학적인 절차는 단일하면서도 동차적인 레벨에 정위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들은 한편으로 언어학적인 범주 간의 비유(comparison), 다른 한편으로 사회논리적인 범주, 그중 어느 한쪽만의 확립으로 결코 존재하지 못한다. 이것은 현행 사회언어학의 창시자 가운데 한 사람인 퍼거슨(Adam Ferguson)²²⁰에 의해 집필된 저서로 만들어질 수 있는 비평으로 존재하는데, 그는 앵글로-아메리카인의 사회적인 언외지의(내포)와 비교하기 위하여 미국인 사회집단의 사회계급의 비언어학적인 주연(周延, 때로는 선험적이기까지 한)을 사용한다. 여기서 사회구조의 가능성 또는 전유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그것은 그들의 프락시스와 표출의 레벨에서 이러한 사회구조가 언어학적인 의미작용의 레벨에 나타

220) 퍼거슨(Adam Ferguson, 1723~1816); 스코틀랜드의 상식학과 철학자·역사가.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여 현대 사회학의 선구자로 유명한 애국자이다. 세인트앤드루스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후 1745년 스코틀랜드의 흑시계 연대(Black Watch Regiment)의 부(副)목사로 임명되었으며, 플랑드르 전투에 참가하기도 했다. 1757년 목사직을 포기하고 친구이자 스코틀랜드 회의론자 데이비드 흄의 뒤를 이어 에든버러에서 변호사 사서(司書)로 일했다. 1759년 에든버러에서 자연철학교수가 되었으며, 1764년에는 정신철학 및 도덕철학 교수가 되었다. 1785년 교수직을 그만두기까지 여러 저서를 집필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무대연극의 도덕성 고찰(The Morality of Stage Plays Seriously Considered, 1757)」·「시민사회의 역사에 대한 에세이(Essay on the History of Civil Society, 1767)」·「도덕철학 강의(Institutes of Moral Philosophy, 1769)」, 리처드 프라이스의 「시민적 자유의 성격에 대한 탐구(Observation on the nature of Civil Liberty)」에 대한 연구서 「비평(Remarks, 1776)」이 있다. 특히 「비평」에서 퍼거슨은 미국혁명투쟁을 벌이던 북아메리카인들에게 평화기간 설정을 제안했다. (역주)

나는 이것보다 다른 사회언어학의지를 폭로할 수 있는 것을 마음속에 그리기 까지 하는 현명함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영역 안에 부여된 탐색의 외연행위적인 상태가 필연적이기도 하지만 또한 유도피아적인 통합을 떠맡으려고 시도하기 전에,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탐색과 기술의 동차적인 레벨을 위한 필요성을 본질적으로 주장하는 것 같다.

내가 역설하고 싶은 두 번째 관점은 보편적인 성질의 과학적인 투기로 고찰된 사회언어학이다. 아종적인 특이성의 언어학적인 공동체의 기술로 충족되는 것과는 달리, 그것은 그 스스로를 모든 종류의 인간사회집단 안에서 표출의 보편이론과 사회적 의미작용의 생산을 확립하려고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종적인 언어자료체로서의 자연언어의 연구가 유용하고 필연적이기도 한 것이 명백하지만, 또한 이러한 귀납적인 접근이 보편화 그리고 형식화하려고, 즉 가언적이지만 작용적인 그리고 사회언어학 안에서 탐색을 위해 실행하고 있는 가언으로 기여할 수 있는 보편적인 모델을 구성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동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최근에 카밀로 페치(Camillo Pezzi)가 언급한 바에 의하면, 연역적인 그리고 귀납적인 접근은 동일한 결승점에 초점을 맞추고 동시에 실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연역적인 접근을 채택함으로써, 나는 언외지의(내포)적인 범주와 사회언어학의 영역을 에워쌀 수 있는 분류법적인 모델의 3가지 유형을 제안하고 싶다.

근접학적인 범주와 모델

우리는 사전에 언급된 유형학이 언어, 파생언어, 방언과 같은 개념의 뒤엎힘을 만족스럽게 고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우리는 시니피에로,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인 시니피앙으로 고찰된 자연언어의 속성(properties) 사이에 상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이유는 “사회적인 기호(social sign)”를 구성하고 있는 관계가 독단적이기 때문이다. 파롤의 두 공간형식(local form) 간 최소의 간극(예를 들어, 어떤 어휘 또는 억양의 차이)은 2개의 다른 파생언어를 취급하고 있는 만장일치의 견해를 의미하고 있는 결과로 만들어 생산하는데 충분하다. 다른 한편, 최대 간극의 존재자(예를 들어, 브리타뉴어, 피카르디어, 알자스어), 즉 이러한 파롤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언어의 부분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관련되었지만 최초가 아닌 사용자가 감정을 생성하는 한에 있어서는, 같은 방식으로 프랑스 국어와 관련

하여 단순하게 정위된 모든 파생언어로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적인 시니피에의 시니피앙으로서의 자연언어가 비-기술적인 간극으로만 생산되며, 이러한 간극은 범주 “타자(other) vs 대자(對自, self)”에 따라 의미의 변별적인 편차를 순수하게 부정적(negative)으로만 창조한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암암리에 인식된 언어학적인 간극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는 그러한 주체가 개인의 계층을 타자로, 대자로부터 다른 것으로 배제되며, 동시에 동일한 즉 인식된 개인의 다른 계층을 이러한 관계 안에서 주체로 동정하는, 대자 안에 포함시킨다. 여기에 배제와 포함의 이원적인 원리에 따라 함수 작용을 하고 있는, 그리고 사회집단의 복잡성과의 관계 안에서 몇 가지 계층적인 레벨을 선택할 수 있는 매우 단순한 언어학의 모델의 문제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형식적인 모델의 보편적인 의미작용은 완벽하게 분명한데, 그 이유는 그것의 함수가 인간사회집단 안에서 그 방식으로 고찰되기 때문이며, 반면에 관자놀이-공간적인 인접을 이용하는 것은 이 모델을 성취하기 위하여 대자가 부정(negation)과 긍정(affirmation)의 상호작용을 사용하고 있는 의미작용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노트: 1. 브르타뉴어(Breton language): 브르타뉴어로는 Breiz. 켈트어파(語派)에 속하는 브리튼어군의 하나. 프랑스 북서부의 브르타뉴 지방에서 쓰인다. 브르타뉴어는 5~6세기에 앵글로색슨족이 들어오면서 잉글랜드 남부지방에서 쫓겨난 브리튼 말을 쓰는 켈트족 피난민들에 의해 프랑스 북서부 지방에 도입되었다. 이 언어는 콘월어나 웨일스어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프랑스어나 프랑스 북서부 지역에서 예전부터 사용했던 대륙 켈트어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 17세기부터 브르타뉴어는 주로 4개의 방언(레옹 방언, 트레기에 방언, 코르누아유 방언, 반 방언) 형태로 쓰이고 있다. 20세기 중엽에는 브르타뉴어의 문어 발달을 촉진시키려는 노력으로 2가지 표준형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가 브르타뉴어보다는 프랑스어를 쓰도록 장려하는 바람에 브르타뉴어를 쓰는 사람의 수는 차츰 줄어들고 있다.

2. 피카르디(Picardie, Picardy): 프랑스 북부의 우아즈·쑤·엔 주를 포함하는 계획 지방. 대체로 역사상의 지방인 피카르디와 일치한다. 중심지는 아미앵이며, 북쪽으로 파드칼레·노르 주, 동쪽으로 아르덴·마른 주, 남쪽으로 센에마른·센생드니 주, 서쪽으로 워르·센마리팀 주에 둘러싸여 있다. 쑤 주는 서쪽으로 영국 해협과 경계를 이룬다.

피카르디는 중세 봉건시대에 통합되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언어학적으로 보면 지리적인 경계를 훨씬 넘어서 아르투아, 캉브레시스, 투르네시스, 그리고 플랑드르 및 에노의 일부까지 뻗어 있었다. 교회법상으로는 중세의 아미앵·누아용·랑 교구만이 아니라 보베·수아송 교구의 북쪽 일부까지도 포함했다. 16세기부터 앙시앵 레짐 말기까지 피카르디 지방은 생강탱에서 영국 해협에 이르는 쑤 강 유역, 세르강 유역 및 우아즈 강 상류 유역, 오테에 너머 강슈 강가에 있는 몽트뢰유 등을 모두 포함

했다. 5세기에 프랑크계 살리 지족(支族)이 점령했으며, 봉건시대에 6개의 백작령인 블로뉴·몽트뢰유·퐁티외·아미에누아·베르망두아·랑누아르로 나누어졌다. 필리프 2세가 아미에누아와 베르망두아를 1185년부터 자신의 영지에 합쳤으나 퐁티외는 1279~1360년 잉글랜드의 봉토로 있었고, 그뒤 1369년까지 잉글랜드의 명백한 소유지로 남았다. 1435년 아라스 조약에 따라 부르고뉴 공국의 군주들이 퐁티외·솜의 마을들, 몽디디에 등을 합병했다. 1477년 루이 11세에 의해 다시 프랑스에 정복된 피카르디 지방은 그후 1659년 프랑스가 아르투아 및 에노 남부를 합병하기까지 네덜란드의 합스부르크 왕가로부터 자주 침략을 받은 국경지방이었다.

피카르디는 파리 분지에 속해 지형이 원래 평평하며 고도는 300m 이하이다. 동쪽으로 석회질의 랑·수아송·발루아 고원 등이 솟아 있으며, 대체로 해양성기후의 영향을 받는다. 1861~1946년에 프랑스 농촌 지방에서 대부분 그러했듯이 인구가 19% 감소했으나 그 후로는 평균치를 웃도는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인구증가 회복세는 오페 솜보다 우아즈에서 뚜렷한데, 우아즈는 지리적으로 파리와 가깝다는 이점이 있어 인구가 대거 유입되기 때문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인구 1만 5,000명을 넘지 않는 읍에서 살고 있으며 시골은 인구밀도가 높다. 농업은 고도로 기계화되어 있으며, 농장의 평균면적이 40ha 이상으로 프랑스에서는 큰 편에 속한다. 농작물로는 사탕수수·밀·보리·감자 등이 재배된다. 축산업은 유럽 경제공동체(EEC)의 정책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중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금속공업이 주요산업이며, 자동차 부품이 몽타테르·보베·아미앵 등지에서 제조된다. 자전거·비행기·농기계·섬유류도 생산된다. 피카르디 지방은 노르 주에서 석탄을 수입하며, 1950년 이후 파리 산업의 분산화로 이득을 보아왔다. 면적 19,399km², 인구 1,822,507(1991).

3. 알자스(Alsace); 프랑스 북동부의 오랭 주와 바랭 주를 포함하는 지방. 역사적인 알자스 지방과 거의 일치하며 주도는 스트라스부르이다. 서쪽으로는 모젤·외르트에모젤·보주 주와 경계를 이루며 남서쪽에는 뽀포르 지구, 남쪽에는 스위스, 동쪽과 동북쪽에는 독일이 있다.

1세기에 로마인들에게 점령당했으며, 5세기에 프랑크 공작령이 되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영토로 있었던 10~17세기에 수많은 군주령·교회령·자치체로 갈라졌는데, 이러한 상황이 프랑스 혁명 때까지 유지되었다. 중세시대에는 스트라스부르·콜마르·아그노와 같은 도시들이 황제들의 지원을 받아 점차 봉건군주들로부터 독립하면서 중요한 곳으로 떠올랐다. 종교개혁 중 알자스에서는 신교가 크게 득세했으며, 개혁가 마르틴 부처가 특히 두각을 나타낸 스트라스부르는 인본주의 학문의 중심지가 되었다. 합스부르크 가문이 지배한 지역에서 강세를 보였던 가톨릭교는 나중에 프랑스로부터도 후원을 받았다. 프랑스의 영향력은 16세기에 처음으로 중요성을 띠기 시작해 17세기에는 전체적인 흐름이 되었다. 프랑스는 베스트팔렌 평화조약(1648)을 계기로 비공식적이거나 이곳을 보호령으로 삼았으며, 루이 14세의 통치기간 동안에 완전한 통치권을 확립했다. 18세기에는 프랑스 왕의 지배를 받으면서 상당한 자치권을 누렸다. 프랑스 혁명 중에 알자스는 별도의 보호령이라는 위치를 마감하고 행정적으로 완전히 프랑스에 편입되었다.

지형 상 서쪽에 있는 보주 산맥의 단층지괴(산악지대)가 동쪽으로 서서히 낮아져 알자스의 평야지대까지 이른다. 오랭 남부에 있는 준트가우 지역은 쥐라 산맥에 속해 있다. 연강우량은 500~700mm로 비교적 적다. 알자스는 인구밀도가 높다. 경제적으로는 농업과 경공업(직물)이 발달해 있으나 1921~1946년에 인구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고작 2% 증가했을 뿐이며, 그 이후 프랑스 전국 평균인구증가율을 웃도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 지역에 매력을 느낀 이주자가 늘고 출생률이 비교적 높은 것이 인구증가의 원인이며, 인구의 약 절반이 스트라스부르·콜마르·뮐루즈 3곳의 대도시에 밀집해 있다. 보주 단층지괴 외곽에 있는 시골지역에는 인구가 많아서 농토와 기타 토지 소유량이 적어지거나 분할되는 경향을

초래하고 있다. 작은 규모의 여러 농장에서 포도가 대량 재배되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슬링과 게뷔르츠트라미너 백포도주는 수출된다. 콜마르는 중요한 포도재배 중심지로, 보주 산맥 주위에 있는 구릉지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산업용 작물인 사탕수수·흙·담배 등도 널리 재배되고 있다. 중공업은 오래전 집중되어 있다. 라인 강으로 흐르면서 수력발전과 운송에 이용되는 알자스 대운하로 인해 알자스 평야의 산업발전이 촉진되었다. 제조업으로는 직물·전기용품·화학제품을 생산한다. 오랭의 페센하임에는 핵발전소가 있다. 면적 8,280km², 인구 1,624,372(1990). —한국브리태니커, 1999. (역주)

형태론적인 범주와 모델

선형 모델과는 달리 이러한 사회집단의 내재적인 아티클레이션으로 고찰되는 형태론의 모델은 의미의 레벨에서 말하자면 인간사회의 동정과 결속을 생크선하는 비교적 단순한 근접학적인 모델과 대당이 될 수 있다.

지식의 현 상태에서, 그것은 보편적이면서 총망라된 형태론적인 모델의 확립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회집단을 내재적으로 아티클레이션의 분절로 활용된 몇몇 범주를 지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 같다. 그것의 잠정적인 목록은 다음처럼 나타난다.

형태사회적인(morphosocial) 범주

I. 구심적인(centripetal) 범주

1. 성의 기준: 여성 vs 남성
2. 연령계층의 기준: 아동 vs 성인
3. 계급의 기준: 하급 vs (상급 vs) 중립

II. 원심적인(centrifugal) 범주

1. 초월사회적인(transsocial) 범주: 신성한(sacred) vs 독신적인(profane)
2. 대항사회적인(antisocial) 범주: 비밀(secret) vs 공공(public)
3. 별정사회적인(extrasocial) 범주: 외재적인(external) vs 내재적인(internal)

만약 우리가 이러한 리스트를 좀 더 면밀히 고찰한다면, 몇몇 원소가만 들어져야만 할 것이다.

1. 매겨진 범주의 세트는 조합 조정된 원소의 목록으로 고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그것은 연구된 사회집단이 정의될 수 있는 그러한 범주(범주에 속해있는 그러한 팀의) 부재 또는 현존재를 통해서 존재한다. 그러나 보다 더 엄밀한 분석이 항상 보증될 수 있고, 그 범주적인 팀은 나중에 아중적인 것

이 될 수 있다.

2. 범주에 속해있는 두 팀 간의 간극은 최소적인 것(minimal, 문체론적인) 또는 최대적인 것(maximal, 2개의 다른 언어)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라틴어는 신성한 언어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형태사회적인 범주의 존재자가 어쨌든 마음속에 그려지고 있는 사회집단과 이질적인 언어에 의해 명백하게 동정된 실례로 묘사될 수 있는 그 경우에 한해서만 분명하다.

3. 만약 그 팀이 유표(marked)로 고찰된 언어학적인 간극을 만들고 있는 왼쪽(여성, 아동, 등)에 정위된다면, 그때 무표(nonmarked)의 팀의 세트는 사회집단의 공통언어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는 오른쪽(남성, 성인, 등)에 정위될 것이다.

4. 추론된 범주를 통해 유표의 팀으로 고찰된 사회적인 어군의 언어는 적어도, 하여간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동일 사회집단에 속해있는 개인전체로 이해된 공통언어의 개념과 대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모든 언어 공동체는 다수결합언어(plurilinguistic)가 된다(또는 여러 가지 단계가 될 수 있다).

5. 우리는 사회언어학의 과제가 사회적인 언외지의뿐만 아니라 언외지의의 현존재로 고찰된 언어학적인 시니피앙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여기서 연구된 사회언어학적인 범주와 상응하고 있는 시니피앙의 유형학과 또 다른 유형학이 동시에 가능하다.

6. 더 나아가 사회언어학적인 범주는 가치문화가 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조정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팀으로 분극된 가치안정책의 언외지의(내포)를 떠맡을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신성한 언어는 흔히 가치를 안정시키고 독신적인 언어를 초월하는 것으로 고찰된다.

7. 결국, 그것은 문화적인, 의미작용적인, 그리고 이렇게 사회언어학적인 범주의 비-자연적인 양상, 즉 영화·연극의 배경음악과 같은 양상으로 강조되는 것이 필연적이다. 여러 가지 연령계층과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 간의 대당은 근본적으로 문화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호모섹스적인 것은 여성언어를 사용한다고 언급될지도 모른다. 같은 방식으로, 사회적인 목표의 취임신화는 노동의 문류(門類, division)를 남성의 일과 여성의 일로 흔히 나누어 정당화하려고 한다.

함수적인 모델과 범주

근접학적인 그리고 형태론적인 두 제안된 모델은 공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두 모델의 존재자와 프락시스에 의해 정의될 수 있는 사회집단 안에서, 그들을 만들고 있는 개인은 딱 잘라서 예를 들면 사르디니아 섬사람의 말(Sardinian)과 이탈리아인의 말, 여자 또는 성직자로 고착된 강류로 범주화된다. 세 번째의 사회언어학적인 모델, 즉 함수적인 모델은 최초의 두 모델의 대당으로 제안될 수 있다. 그것은 사회언어학적인 강류와의 관계 안에서 개인의 유동성(mobility)에 의해, 그리고 함수적인 범주와 상응하고 있는 그들의 조화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이 형태론적인 강류의 변형에 관한 문제를 통사론적인 강류로, 그리고 그 사회언어학적인 레벨에서 이러한 변형이 담화의 강류에 의해 그 강류언어의 반제와 상응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명백히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세에 라틴어는 성직자에 의해 커뮤니케이션의 언어로 사용된 어느 한 강류언어였다. 19세기에 라틴어는 오로지 신성한 담화였다.

이때에 비록 우리가 엄격하게 사회언어학적인 담화의 분류를 시도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명료하게 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방식으로, 즉 진전되지 않은 상태에서부터 진전된 상태로 이동하는 사회집단의 변천은 사실 형태론적인 범주의 함수화와 상응한다고 언급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언어학적인 기준은 사회집단 유형의 사건기록에 첨가될 수 있을 것이다.

형태론적인 범주를 “신성한(sacred) vs 독신적인(profane),” “비밀(secret) vs 공공(public),” “외재적인(external) vs 내재적인(internal)”과 같은 것으로 고찰함으로써, 그래서 소위 비통시적인 사회집단을 소위 현대적인(modern) 사회집단의 변천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는 언어 전체영역의 함수화와 그들이 아종적인 것으로 낭중분절하면서 보다 더 광대하게 만들어진 그 특이성의 함수화를 입증한다. 신성한 언어는 담화의 새로운 유형과 생산으로 고찰될 수 있는 모델 구성의 가능성을 만들고 있는 종교적인, 철학적인, 시적인 담화로 변형되고 진전된다. 같은 방식으로 예를 들어, 어떤 아프리카 사회집단 안에서 대장장이의 사적인 언어의 외양(guise)으로 묘사된 비밀의 언어는 진전되고, 계속해서 과학적인 담화로, 과학적인 담화의 무한수로 변형된다. 게다가 외재적인 언어는 흔히 정치-행정적인 담화의 형식을 획득하게 된다. 간단히 말해

서 이것은 뮈터슈프라히(muttersprache)와 대당인 파터슈프라히(vatersprache)의 언어, 즉 어머니의 언어(maternal language)와 대당으로서 행정의, 정치의, 아버지의 언어(father's language)이다.

우리가 사회언어학을 도입하려고 제안했던 언어치환의 기준은 함수모델과 동등하게 타당한 것 같다. 함수적인 담화는 사회집단의 동차성(同次性) 없이 외국어 안에서 위치를 획득할 수 있다. 이것은 신비한 언어로 사용된 라틴어와 관련되고 있는 경우이다. 또한 우리는 16세기까지 영국에서 사용된 프랑스의 법률언어의 예를 열거할 수 있다. 과학적인 담화는 프랑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그랬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아프리카의 사회집단에서도 흔히 그렇게 위치를 획득한다.

이러한 관점으로 시발함으로써, 우리는 필경 문화언어의 개념을 정의하기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경우 문화언어는 그 함수적인 담화 전체가 단하나의 언어(언어학적인 기준 그리고 사회언어학적인 기준이 아닌 증명사에 의해 언어로 정의된) 안에서 위치를 획득한다고 하는 그 사실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 다수결합언어가 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의된 문화언어의 개념에 부착된 가치판단이 아무것도 없음이 명백하다. 이것은 단순하게 주사(主辭) 또는 빈사(賓辭), 즉 삼단논법의 판단의 양끝의, 다시 말해서 분극상태의 유형학적인 정의의 문제로 존재한다.

함수적인 담화의 개성적인 특성은 영화·연극의 배경음악과 같은 양상으로 강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담화는 형태사회적인 언외지의의 경우보다 더 흔하게 존재하는 상보적인·가치론적인 언외지의(내포)를 소유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우리는 종교언어의 “신성한 두려움(sacred terror)”의 언외지의의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담화에도 적용할 수 있다. 테러리즘의 이러한 암시적인 발화는 언어학이 수학자들에 의해 주장된 담화에 의해 위협받게 된 인간과학 안에서 흔히 위치를 획득하지만, 예를 들어 그들은 사회언어학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실행한다. 담화의 확실한 과학성은 사회적인 “위협하고 있는” 언외지의에 불과한 이러한 언어의 이해하기 어려운 일종의 복소어(複素語, complex; 구성 요소의 일부로서 구성 형식을 포함하는 합성어)를 유발시킨다. 그 복소어는 “진실(truth)” 또는 “아름다움(beauty)”의 언외지의의를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담화 또는 시적인 담화라고 언급될 수 있다. 따라서 가치론적인 언외지의의 분석 상에 기초가 만들어진 담화의 병치적인 유형학은 마음속에 그려진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회집단의 여러 가지 유형 간의 편차를 확립할 수 있는 그 사회언어학적인 기준의 제안을 시도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보편적으로 고찰하는 소위 고풍적인(archaic) 사회집단의 성격을 만드는 것에 의해 근접학적인 모델 또는 형태론적인 모델이 만들어지고, 반면에 형태 사회적인 그리고 함수적인 모델의 현존재는 소위 현대(modern) 사회 또는 산업사회의 성격을 만든다고 언급할 수 있다. 어쨌든 최후의 분석에서 그러한 편차는 오로지 이론적인 가치만을 소유한다.

사회언어학적인 통사론

만약 우리가 지금 관점을 바꾼다면, 그리고 사회언어학적인 언외지의(내포)를 의미작용적인 아티클레이션과 분화의 세트를 통해 사회집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고찰하는 대신에, 우리가 그 용도를 이러한 언외지를 만들 수 있는(그리고 실제적으로 만들고 있는) 그러한 사회집단에 속해있는 개인으로 자격을 부여한다고 하면, 우리는 분류법적인(taxonomic) 성질의 사회언어학적인 형태론으로부터 사회언어학적인 통사론으로 이동할 것이다. 사실 만약 개인과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의 프레임 안에서 사회적인 언외지가 교체된 메시지로 밀에 깔린다고 하면, 그들은 또한 화자의 인식과 분급(分級, classification)의 암시적인 기준으로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각각의 화자가 타자에 의해 동시에 해석되고, 사회언어학적인 특성의 조합으로 그래서 총체적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언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낯선 사람들 간에 정상적으로 짧은 대화가 있는 뒤에, 그 화자들은 그들 각각의 이익을, 상호작용을, 암시적인·사회언어학적인 답사를 위하여 지금 곧 실행했고, 그들 각각은 마주앉아 타는 마차의 상대방 같은 타자로부터 예기되었던 것을 다소간 알아낸다.

그러나 사태는 보다 더 까다롭고 복잡한데, 그 이유는 커뮤니케이션 안에 투입된 그 화자들이 독자, 또는 타자의 담화의 해석자일 뿐만 아니라, 소정의 순간에 그것을 사회언어학적인 범주의 조합으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의미소적인 특성의 아종적인 형태(초미-화술, configuration)로 해독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화자들은 담화의 생산자이다. 타자 안에서 아종적인·사회언어학적인 형태의 인식은 자기-보정의 현상을, 자기 자신의 담화의 판단을 자동적으로 생산한다. 따라서 만약 화자 L_1 이 그녀의 담화를 어느 다른 여자의 담화로서

의 언외지의로 갖게 된다고 하면, 그때 화자 L_2 는 그녀의 담화를 어느 다른 여자에게 말을 건 담화로 이동시키려고 시도할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화자 L_1 의 말 안에서 암시적으로 인식됨으로써, 보다 상위 계층의 담화인 화자 L_2 는 그것을 보다 상위에 말을 건 담화, 즉 동등자에게 말을 건 담화로든지, 또는 보다 하위에 말을 건, 즉 이 최후의 실례 안에서 타자의 우월을 과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담화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 변형시킴으로써 그의 담화를 적용시킬 것이다. 마지막 예는 아동-화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후자 안에서 우월과 겸손의 감정으로 매우 흔하게 생산될지라도, 일종의 부정확한 아동 언어의, 갓난아이의 그 파롤의 성인언어로 출현할지도 모른다. 어느 경우에, 이러한 예는 복소어적인 그리고 굴절적인 그러한 사회언어학적인 통사론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정확히 증명한다.

따라서 우리는 3가지로 제안된 분류법(근접학적인, 형태사회적인, 그리고 함수적인 모델)을 기초로 선택함으로써, 약간의 가치론적인 범주를 포함함으로써, 그리고 이러한 범주의 세트를 사회언어학적인 문법의 형태론으로 고찰함으로써, 이러한 형태론으로부터 우리가 사회언어학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통사론을 성립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언급할 수 있다. 그러한 통사론은 커뮤니케이션의 책략의 형식을 필연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며, 언뜻 마음속에 정박하는 그 모델은 예를 들어 게임이론으로부터 외삽 될 수 있는 것으로 존재한다.

여기서 그것은 언외지의를 가지고 있는 자연언어와의 관계 안에서 사회언어학적인 문법의 자율성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유용할 것 같다. 사회적인 언외지의의 통사론은 교체된 메시지와 담화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메시지와 담화 안에 투자된 의미론적인 내용으로부터 유사-독립적인 방법으로 함수 작용을 한다. 암시적인 성질 대신에 그러한 문법의 존재자는 명석판명하게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단지 그것만으로도 그것은 무한수로 분산된, 그리고 서투르게 설명된 현상으로 고찰되기 때문이다.

암시적인·사회언어학적인 문법의 존재자는 예를 들어 성인성 안에서의 외국어의 학습 가능성을 설명한다. 우리는 우리가 영어와 이탈리아어를 동시에 잘 구사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찬사를 보내지만, 이러한 찬사를 동반하고 있는 정신적인 제한을 무시

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즉 사회언어학적으로 중립적이기 때문에 매우 정확하게 이탈리아어를 구사한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언어학적인 범주의 상호작용과 관련짓지 못한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때때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이탈리아어로 오로지 낱씨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는 그 진술에 대해 영어로 놀러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제로에 가까운 교체정보의 분량이 최선의 증거로 존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이러한 유형을,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회언어학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충분한 함수와 관련하여 미미한 즉 실체가 없는 것으로 존재하는 의미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바와 같이 상류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는 종종 비언어적인 즉 말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 말에 의한 대량학살이 될 수 있다. 파예트(La Payette, 1634~1693) 부인의 소설 “클레브 공작 부인(La Princesse de Clèves)”으로부터 스탕달(Stendhal, 1783~1842)의 소설에 이르는 프랑스 고전문학의 세련됨은 이렇게 암시적인 통사론 규칙의 순간의 관찰에 의해 대부분 설명될 수 있다. 다른 한편 폐쇄적인 서클과 클럽의 확립은 사회언어학적인 문법을 없애버린 그들 성원의 욕망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며, 사회적인 언외지의의 끝없는 해독이 피해져서는 결코 안 된다. 만약 프랑스 작가들이 중간 계층(보다 더 하위 계층까지)과 혼합되는 것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다양한 사회언어학적인 부호를 연기로 삼입하고 있는, 그만큼 같은 방식으로 영국인의 클럽 성원과 함께 함으로써 그가 항상 의식하고 있지 않은 막연히 불안한 느낌을 유발시키고 있는, 그러한 사회언어학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근래의 이민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긍정은, 미국의 사회집단이 동차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회적인 계층의 편차가 오히려 감동시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새로운 나라와의 결합(attachment)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사회언어학적인 부호와 규칙들은 미국인들의 이러한 계층이 감수성이 예민하여 최면술에 잘 걸리는 사람 같지 않아 말하자면 영매와 같지 않아 지각적이고 논리적(insensitivity)이라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망상의(important) 탐색을 이러한 영역 안에서 계속 떠맡게 된, 우리는 아종적인 특이성의 언어학적인 하위부호의 사회언어학적인 사용과 관계가 있는 이러한 연구에 대해, 비록 복소어가 어느 한 언어학적인 공동체로부터 다른 공동체로의 망상의 변형을 극단적으로 선택할지라도, 개인적인 대명사의 그

것에 대해,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영역, 관계된 어떤 무엇이 주소 체계로 호칭될 수 있는 어떤 무엇의 미연방 안에서의 어떤 망상을 떠맡았던 탐색과 관련된다. 이러한 영역은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조사의 영역으로 특권이 부여되는데, 그 이유는 사회적인 시니피에 의해 언어학적인 시니피앙이 자연언어의 레벨에서 분석될 수 있기 때문이며, 유사-자율적인 부호를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의 발화자료체의 동차성은 명백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엄밀한 관계를 보증한다. 그러나 그렇게 자율적인 부호의 총체는 자연언어 안에서 그리고 사회언어학 안에서 매우 제한적이며, 그들의 연구에 그 자체를 한정함으로써, 방법론적인 세련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의, 그리고 그것의 과학적인 투기의 외연적인 범위를 망각하고 있는 것의, 친족관계 용어법의 연구 안에서 이미 발생했던 것으로서의 그 위험과 부딪치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최초로 주목했던 것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필연적이다. 사회적인 언외지의는 언어학적인 시니피앙의 특별한 아티큘레이션과 연결되지 않는다. 시니피앙과 그들이 발생시킨 사회적인 시니피에의 시니피앙, 이 두 간극 사이의 관계는 독단적이다. 언어의 모든 레벨에 정위된 모든 종류의 언어학적인 현상, 모든 차원의 언어학적인 단위는 사회적으로 언외지의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시니피앙으로부터, 즉 자연언어의 기술로부터, 시발하고 있는 그들의 연구를 떠맡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방해하는 사회언어학적인 언외지의의 동기부여 바로 이러한 부재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합성하도록 강제하는 “사회언어학적인 기호(sign)”의 독단으로 존재하며, 반면에 진전하고 있는 기술은, 우리가 살아서 풍성하게 하려고 시도했던 사회언어학적인 모델의 형식을 획득하고 있는, 그래서 보편적인 성질의 가언을 작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존재한다. 오로지 과학적인 프락시스만이 그들의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언어능력의 창조자의 영역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활동의 한계는 주제의 선택과 오늘날 사회언어학 안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른 문제의 배제로 결정되었다. 반면에 이론화를 위한 필연성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그것은 사회언어학적인 이론이 선택할 수 있는 그 가능한 양식 중의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의 망상이 되는 것 같다. 사실 그것은 분류법적인 성질의 형태론과 사회언어학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통사론을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사회언어학적인 문법의 형식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한 문법은 보편적인 성질이 되지 않으면 안 되며, 따라서 아종적인 언어연기의 형식 안에서, 즉 각각의 소정의 언어학적인 공동체 안 사회적인 언외지의의 표현 형식 안에서, 우리에게 강렬하게 조명을 비출 수 있는 그 기술을 위한 모델과 절차로 제공된다.

제13장 사건기록의(eventual) 역사에 대하여

서론적인 소견

역사와 문학

역사와 문학은 단기의 인식론적인 파동(fluctuations) 때문에 소정의 역사적인 순간에 “대체론적인(topical)” 것이 된 어느 다른 분야로서의 기호학으로 언급될 수 있다. 그 분야는 휴머니스트적인 지식과 관련된 모든 문제 상의 협소한 견해와 충고를 허락하고 있는 가장 초월적인 것으로 투자된다. 그들이 그러한 정향의 망상(seriousness)²²¹⁾의 부자연성과 결핍을 의식하고 있다고 할 지라도, 기호학자들은 그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하는(그리고 반드시 피해서는 안 되는) 그저 그 문제만으로도, 낯선 대상으로 반성하도록 요청받고 있을 때, 그들의 진취적인 정신의 입체성과 특히 매우 어렵게 구성된 모델의 보편적인 적응성을 실험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에 대해 말하자면, 역사학자들의 끝없이 많은 말의 생성에 의해 구성된 인간지식의 이러한 기록보관은, 기호학자들이 격아강적인 담화를 지배하고 있는 규칙을 연구하기 위하여 단련했던 문학의 연구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 그러나 역사와 문학 이 두 분야는 매우 공통적인 절제력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들은 교육의 레벨에서 문화적인 경험전파의 그리고 아마 미래학자들의 책임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이렇게 딸림음 같은 지배(dominant)²²²⁾의 정향 대신에 그 분야가 그들의 환원된 단자(denomination)와

221) importance와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역주)

222) 딸림음(dominant): 1. 으뜸음에 이어 중요한 음으로 속음 또는 도미넌트라고도 한다. 본래는 지배적인 음이라는 뜻이며 유럽의 장·단조에서는 으뜸음의 5도 위의 음을 가리키나, 보편적으로도 5도 위의 음이 딸림음이 되는 경우가 많다. 으뜸음에서 아래 5도가 되는 음을 버금딸림음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해 이것을 위 딸림음이라고 부를 때도 있다. 조성음악의 확립과 함께 이 위아래 5도의 움직임은 멜로디적인 관계로서만이 아니고, 카덴차를 형성하는 것으로 화성진행의 기본이 되고 있다. 2. cadenza: 악곡·악구(樂句) 등의 마침이나 단락에서 그 과정을 형성하는 음 진행의 정형(定型). 보편적으로 이탈리아어인 카덴차(cadenza)로 불리며, 종지형(終止形)이라고도 한다. 처음 이 말은 종지형을 뜻하는 단순한 음악용어였으나 16세기경부터 악곡이나 악장의 마침 직전에 삽입하는 즉흥적인 기교적 솔로 패시지(solo passage: 독주 부분)의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이 같은 기교는 18세기의 오페라에서 더욱 발전하였으며, 특히 A. 스카를라티를 비롯한 나폴리아파(樂派)의 오페라에서는 거의 양식화(樣式化)의 기미마저 보였다. 한편 바로크시대는 악기의 융성을 배경으로 G. 토렐리, A. 비발디 등의 독주협주곡에도 카덴차가 엿보이기 시작하였다. 이 시대의 카덴차는 고도의 기예를 과시하려는 경향이 짙었으나 고전주의·

그들 연구의 대상 간의 용어법적인 편차를 확립할 필요성을 결코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더욱 더 주의 깊게 지시한다. 그것은 마치 역사적인 구조의 그리고 입증의 중속이었던 문학적 구조의 내재존재자처럼, 보편타당성에 의해 생크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적이었던 그래서 교묘히 다루어졌던 내용처럼 존재한다.

우리는 비록 직접적으로 기호학적인 관점에서부터 역사 또는 문학이 내용만을 결코 다룰 수 없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그들의 과업이 사실 내용의 반영 그리고 효과적 전승의 확신이 되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보편타당성의 생크션을 반드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식의 어느 아종적인 영역으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며, 이러한 분야들이 “전체주의(totalitarian)”로 존재하기 때문이며, 그들의 투기된 내용은 인간 의미작용의 총체성(totality)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식적인 분야로서의 그들의 성질은 부정적인 텀 전체주의보다 훨씬 더 좋게 조정적인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언어학과 비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논리학과 수학과도 비교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분야의 모든 것은 정보의, 형식과 내용 조직의 아종적인 특이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유사성 즉 수사학적인 비유는 거기서 중단된다. 왜냐하면 문학의 과학은

낭만주의에 이르러서는 특히 협주곡에서 악곡 구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큰 의미를 가지게 되어 주제의 동기형(動機型)을 발전시키는 경우가 많아졌다. (역주)

1) 팔림음조 — 으뜸음에서 완전 5도 위의 조

팔림음 조

다장조 ⇒ 사장조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완전 5도 위

다장조

사장조

2) 비금팔림음조 — 으뜸음에서 완전 5도 아래(완전 4도 위)의 조

비금팔림음 조

다장조 ⇒ 바장조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완전 5도 아래

다장조

바장조

그것의 과업이 문학적인 담화로 암시하는, 기왕에 알려진 규칙과 함께 시발하고 있는, 그러한 텍스트의 생산으로 고찰될 수 있는 모델을 합성하는, 형식적인 조직을 폭로하는 것으로 존재한다고 고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의 과학은 이러한 설명의 유형과 함께 내용이 될 수 없으며, 아무리 잘 보아주어도 그것은 역사편찬적인 유형, 즉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그리고 역사의 생산이 아닌 “설화(stories)”에 따르고 있는 모델을 확립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끝날지는도 모른다. 그러한 유형의 기술은, 마치 언어철학의 유형과 같은 또는 언어학자들의 탐색대상이 될 수 있는 언어학의 역사의 유형 같은, 역사학자의 과학적인 실행의 양상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언급되고 실행될 때, 언어의 역사는 언어학이 아니다.

노트: dominance(딸림음으로서의 지배); 1. 전체 범주의 표출로 유지된 중립작용의 이 팀은 딸림음 같은 지배(dominant)로 호칭된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에서 남성과 여성의 대당이 지시조용어적(anaphoric) “ils(il의 복수, 그들은)”의 출현에 의해 중립화될 때, 거기에는 남성의 딸림음 같은 지배와 함께 중립화된다. (“They(ils)”; 둘 이상의 전체성에 귀속됨으로써, 적어도 그 중의 하나는 남성의 성으로 존재한다).

2. 브린달(Vigo Brøndal)에 의하면, 그 편차는 복합적인 팀의 다양성 사이에서 만들어진다(그것은 기호사각형의 두 반대의 팀을 함께 포착한다). 즉 지배하고 있는 팀이 조정적인 직시에 속할 때, 그리고 대당의 경우에 부정적인 지배와 함께 복합적인 팀에 속할 때, 그때의 조정적인 딸림음으로서의 지배를 말한다. 왜냐하면 그 복합적인 팀이 원소적인 팀의 세 번째 생성의 결과로 존재함으로써, 그들 아티클레이션의 이러한 특성은 그들의 궤도에 따라 조우된 결합응축의 결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외 역, op. cit., p. 94~95. (역주)

역사적인 차원

역사학자들이 애매성을 자각하지 못한다고 믿는 것은 주제넘고 건방진 일인지도 모른다. 사실 그들이 어쨌든 역사적인 지식을 공준하는 것의, 그리고 특히 역사적인 실행노하우(knowing-how-to-do)의, 함정 속에 빠지고 있는 그 난국을 진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상 과학적일지도 모르는 것을 탐구한다. 이러한 것의 최선의 증거는 프랑스의 역사기록학과(Annales school)라고 판에 박힌 듯이 호칭된 것 안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그들의 주요한 과업은 역사의 추측적인 파동이 독립적으로 정위될 수 있는 심층역사구조에서 역사의 기본적인 차원을 확립하고 보증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분류법적인 조직과 사회적인 현상의 구조적인 변형이 위치를 획득하는 이 기본적인 차원은 그때 역사성이 표출된 표층차원의 역사적인 출현과 대당이

된다. 표층차원은 매순간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동시에 몇 번이고 함께 발생하고 있는 무한대의 초미사건들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지며, 그리고 이렇게 되는 그 이유는 그것이 남김없이 또는 체계적으로 기술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선택할 때 초미사실의 이러한 교묘히 다루기로부터 시발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의미작용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며, 역사적인 사건의 위계를 포착하기 때문이며, 역사적인 담화로 통합될 수 있는 일련의 사건을 연결하고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매개차원을 또는 심층역사와 표층의 역사성의 레벨 간에 정위된 역사사건의 차원을 조정하는 것이 필연적인 것 같다.

선택의 개념은 이제 방금 역사적인 사건의 불가사의한 현상(apparition)으로 고찰되었다. 최초의 유형, 즉 명백한 기호학적인 존재자의 두 모드로서의 대당구조는 발생사건의 타이로서의 그것보다 더 깊은 구조로서의 기본적인 차원(그것은 구조적으로 조직되기 때문이다)을 확립한다. 표층차원의 발생사건과 모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두 번째의 담화는 이 기본적인 차원을 참작하고 켜로 된 구조를 제공한다. 그때 이러한 구조는 초과편승, 즉 심층 또는 타자와 관련하여 각각의 레벨의 기본성에 따르고 있는 자율적인 레벨로 전개된다. 예를 들어 경제적-유기적인 구조는 사회적인 구조보다 더 깊고, 게다가 그것은 문화적인 구조 등등보다 더 깊다.

첫눈에 이러한 분석은 완벽하게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사회집단의 기본적인 차원을 하위범주로 분해하는 것에 의해 그것이 그들을 보다 더 명백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려움은 우리가 역사의 다양한 심층구조와 사건의 그 차원 간 관계의 유형을 표현하려고 시도할 때 발생한다.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으로 생성되는 기본적인 구조를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한계 안에서 허락하든지, 또는 역으로 그 사건이 그 구조를 생산하든지, 하여간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들 상호관계의 문제는 불가피하게 발생된다. 3개의 명백한 가능성이 마음속에 그려질 수 있다.

먼저, 서로를 전제하고 있는 그래서 초과레벨로 만들어진 기본적인 레벨은, 말하자면, 가장 표면적인 레벨을 통해서 사건의 차원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이것은 논리를 충족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초월구조만이 오로지 사건과 함께 언외지시적인 관계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경제적-유기적이든지, 사회적이든지, 어쨌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심층구조는 사건의 레벨과 함께 따로따로 언외지시적인 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선택된 레벨을 충실히 살아남게 하기 위하여, 그때 우리는 거기에 명백한 경제적-유기적인 사건, 사회적인 사건 등이 존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사건의 역사적인 차원이 그 자신을 심층구조적인 레벨로 존재하는 장소만큼 많은 레벨과 많은 프로그램으로 분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가 그 팀의 교체를 대개 레비스트로스에 의해 제안된 총체적인·사회적인 구조의 변덕과 우연히 마주친 사건으로 치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고찰할 수 있다.

세 번째, 역사적인 사건(또는 일련의 사건)이 위치를 획득할 때, 그것은 몇 가지 구조적인 레벨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남과 동시에, 그들의 폭주(輻輳, convergence)²²³⁾에 의해 생산되든지, 또는 몇 가지 레벨에 반영되든지, 하여간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이것은 자크 베르크(Jacques Berque)²²⁴⁾에 의해 주어진 설명이 되는 것 같다.

223) convergence: 이 의미는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된다. 1. 폭주(輻輳; convergence); 두 눈의 주시선(注視線)이 눈앞의 한 점으로 집중하는 일. 2. 수렴(收斂; convergence)과 발산(發散; divergence); 유체의 확산 및 확산비율. 기상학적인 관점으로 공기의 수평유입과 유출을 의미한다. 수렴지역에서는 수평 바람의 수렴으로 공기가 상승하고, 상승 공기의 속도는 증가한다. 반면 수평 바람의 발산은 공기의 하강운동(침강)을 일으킨다. 지면의 대기압은 수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데, 이는 그 상층에서 발산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북반구 해양 위와 같은 아열대 고기압 중심지역에서는 바람이 시계방향으로 불기 때문에 해수면에서 수렴이 일어난다. 이는 해류가 풍향의 오른쪽 방향으로 휘기 때문이다. 해수가 수렴됨에 따라 와동(渦動)의 중심에 물이 모이게 되어 그곳이 가라앉게 된다. 이러한 침강은 빠른 증발로 인한 밀도(염분) 증가에 의해 더 가속된다. 반대로 알류산 열도나 아이슬란드 저기압지역에서의 해수면 발산은 거대한 저기압의 시계 반대방향 흐름에 의해 형성된다. 3. 수렴(收斂; convergence); 함수의 변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거나 급수의 항수가 증가함에 따라 극한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성질(특정 함수나 급수에 나타남). 함수 $y=1/x$ 은 x 가 증가함에 따라 y 값이 0에 수렴한다. 실제로 y 값은 0이 되게 하는 x 의 유한값은 없지만, x 를 충분히 크게 함으로써 y 를 원하는 만큼 매우 작게 할 수 있기 때문에 y 의 극한값은 0이다. 한편 직선 $y=0(x$ 축)을 이 함수의 점근선이라 한다. $-1 < x < 1$ 를 만족하는 임의의 x 값에 대해 급수 $1+x+x^2+\dots+xn-1$ 은 항수 n 이 증가함에 따라 극한 $1/(1-x)$ 로 수렴한다. 구간 $-1 < x < 1$ 를 급수의 수렴 구간이라 하며, 이 범위 밖의 x 값에 대해 이 급수는 “발산한다”라고 한다. → 무한급수. (역주)

224) Jacques Augustin Berque(1910~1995); 프랑스의 이슬람 학자. 사회학자. 알제리와 모로코에 대한 반식민지화를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인 부모로 알제리에서 태어난 삐에-노와르(pied-noir, 알제리에서 태어난 프랑스인)였다. 그는 머그레브(Maghreb, 북아프리카 북서부 곧 모로코·알제리·튀니지, 때론 리비아를 포함하는 지방)의 이슬람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사람 중의 한 사람인 저명한 학자이며 아랍전문가였다. 1929년 알제 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프랑스육군에 입대해, 1934~1944까지 모로코에서 문관(civil servant)으로 근무했다. 그 자체로,

비록 무엇을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심층레벨을 꺼내고 있는 그리고 상상하기가 어려워 단조로운 표층에서의 상호관계를 지시하고 있는 그러한 모델의 그래픽적인(사실적인, graphic) 표상으로 나타난다(그리고 최후의 두 레벨은 비양립의 명제이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두 종류의 그 레벨은 마치 보편적으로 수용된 계층이 “심층”의 이원적인 개념에 의거하는 것처럼 보인다.

조직의 시뮬레이크럼(simulacrum)

그는 모로코의 농업과 농부의 삶을 개선하려고 시도함으로써 농경학자처럼 근무했다. 나중에 그는 아틀라스 산 Imi n'Tanout의 Seksawa 부족의 행정관이 되었다. 그들과의 주거 5년 동안 그가 학문적으로 호평을 인정한 책 「Les Structures Sociales du Haut Atlas(1955)」를 이끌었다. 그것은 베르베르 사람(북아프리카 원주민의 한 종족)의 가장 면밀한 에스노그래픽(ethnographic: 민족지학, 기술적 인종학으로 번역하는 것은 무리일 듯하다. -역주) 중의 하나로 남는다. 그는 1947년에 유네스코의 중동 전문가가 되었다. 1953년까지 이집트로 파견되었으며, 2년 후 파리로 돌아왔다. 1년 후 그는 “고등교육실습학교(Ecole Pratique Hautes Etudes)”에서 무슬림 사회연구의 지도자가 되었고, 1956년, 프랑스 단과대학에서 현대이슬람사회의 교수로 임명되었으며, 1981년 은퇴할 때까지 그 지위에 있었다. 나중에 그는 연구 각료(1981~1982)와 교육 각료(1984~1985)의 행정업무를 관장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저서는 「Les Arabes d'hier a demain(1960)와 L'Egypte: imperialism et revolution(1967)」로서 스튜어트(Jean Stewart)에 의해, 영어로 번역되었다(「The Arabs: their history and future(1964)」와 「Egypt: imperialism and revolution(1972)」). 후자는 18세기로부터 군주정치가 와해될 때까지 이집트의 역사와 사회 구조를 다룬 5개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초기의 저서 「Le Maghreb entre deux guerres (The Maghreb between two world wars”, 1962)」에서, 그는 식민지체제를 비판한다. 그의 행정적 그리고 에스노그래픽적 경험은 그를 드디어 몇몇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난 프랑스인 또는 식민지적인 행정관에 의해 채용된 관리자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독립을 지지하는 것으로 본성이 드러났다. 그는 피의 전쟁이 있는 뒤 새로운 알제리와 연결되어 존속된 몇몇 유럽인 중의 한 사람이었다. 제3세계 로맨티시즘의 이론가로서, 머그레브에 관한 또 다른 저서 「L'Interieur du Maghreb, XVe-XIXe siecle(1978)」는 그 역사에 관한 그 자신의 해석을 제공한다. 프랑스의 단과대학에서 가르쳤던 15개의 텍스트에 기초한 그 저서는 500 페이지 이상에 달하며, 머그레브 역사에 관한 망상(important)의 기록이다. 게다가 「Languages arabes du present(“Present-day languages of the Arabs”, 1974)」의 망상(Important)은 아랍인, 언어 그리고 문화의 문학사를 정밀하게 탐색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그의 언어학은 여기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아랍의 시의 번역으로 변통이 다채롭고 번덕스럽고 명백하게, 그리고 언급되고 쓰인 아랍어의 다양한 변화로 만들어진다. 그는 머그레브와 중동의 몇몇 아랍의 파생언어(dialects)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는 그래서 숙달된 아랍 통이었다. 그는 서로 다르지만, 그의 저서의 두 제목 「De l'Euphrate a l'Atlas (“From the Euphrates to the Atlas”, 1978)」과 「Memoires des deux rives(“Recollections from Both Shores of the Mediterranean”, 198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랍어를 구사하는 세계에서든지 또는 지중해연안에서든지 하여간 어디서든지 간에, 지역과 관련된 것 것끼리 화해하고 있는 것의 망상(importance)을 믿었다. 유년시절이래 그는 지중해 연안의 남쪽과 북쪽의 문화를 종합하려고 열렬하게 시도했었다고 일찍이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의 최근의 논문은 이슬람에 관한 연구였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그는 이슬람에서 “세계의 진실에 관한 새로운 비전”을 발견했다. 그 자신의 나라에서, 레지옹 도뇌르 훈장(Legion d'Honneur, 나폴레옹 1세가 제정)을 받은 그는 모로코, 시리아, 튀니지에서도 훈장을 받았다. 이집트에서 그는 카이로의 아랍어학술원의 회원이 되었다. (역주)

우리의 목적은 사회적인 구조의 총체적인 변덕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역사과학의 모델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명예스러운 기성세대가 마르크시스트의 사회성층이론에 의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진기하게 그리고 유감스럽게 지시되고,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만큼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기록되는 역사는, 사회집단의 다양한·구조적인 레벨의 동차적인 그리고 필적할만한 기술로 성취된 과거로서의 진지한 노력의 결과라는 것이 없다.

그러나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의 유산은 보기에 따라서는 칭찬할 만한 자본주의로 호칭된 경제구조의 기술, 즉 본질적인 내재가치와 독립적인 이러한 기술이 구성된 모델의 장점을 그리고 게다가 비통시적인 모델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두 가지 통시적인 것과 비통시적인 것의 성격은 작용적인 것이 요구될 수 있는 모든 모델을 아종적인 특이성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당수의 상수와 변이(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그 모델은 그것이 명기된 그 안에서 관자놀이-시공간 상의 동격자(同格者, coordinate)와 독립적으로 언급된 종류의 어느 사회집단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성된 따라서 총체적인 사회구조 모델의 비통시적인 성질은 우리로 하여금 망상적인 현상으로, 즉 기술된 구조와 특별한·역사적인 관계 사이에 흔히 지시된 양의연동상태의 비적합성(inadequacy)으로 고찰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호학자의 실행이 발휘된 변화가 많은 영역으로 고찰될 수 있다. 거기에는 순수상태의 자본주의가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딕의 개념을 정확하게 재생산하고 있는 고딕 양식의 대성당으로도 존재하지 않으며, 아무리 보아도 소설의 정확한 정의에 적합한 어떤 소설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설명이 이러한 현상을 위해 제공될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의 두 가지만을 보유할 것이다. 만약 경제구조가 어떤 순수상태 안에서 발견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이전의 구조 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모델과 상응하고 있는 생존구조의 표출을 동시에 혼합시키고 그 순간에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며, 그 구조가 지금 곧 미래를 슬쩍 비취춤과 동시에 그 모델은 그저 꾸밈없이 함성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사건 또는 그러한 사건의 타이가 단하나의 모델의 프레임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그것이 생산

되었을 때 나타난 많은 심층구조의 레벨과 상응하고 있는 몇몇 모델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시간의 존재(being) 때문에 구조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반동의 망상문제를 챙겨둔다고 하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다양한 상태, 특히 역사적인 대상 또는 사건을 생산하며 폭주하는 심층역사의 다양한 레벨에 속해있는 몇몇 모델에 따르면에도 단순하게 이론적인 도식을 수용한다고 하면, 우리는 일정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즉 그들은 서로를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원소는 다른 원소를 배제할 수 있으며, 그러면서도 또한 그들은 일치(compatibility)의 광대한 영역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휴머니티의 역사적인 자유가 정위된 구조적인 일치의 이러한 윤상대(輪狀帶, zone) 안에 존재한다. 그것은 구축된 역사의 독창적인 선택이 존재하는 장소이다. 사실이 상반(相反, incompatibility)과 일치의, 배제와 포함의 광대한 네트워크 안에 명기되기 때문이며, 그 역사적인 사건은 의미작용이 되고, 무제한의 일상의 초미사건으로부터 구별된다고 언급될 수 있다.

만약 그러한 표상이 어느 가치의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때 우리는 심층구조가 역사의 일종의 문법의 일부로 존재할 것이고 그 동안 내내 분류법적인 구성요소를 구성하고 있는 그것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법은 표출의 가능성을 점진적으로 제한하는 어느 일정한 제한규칙뿐만 아니라, 필경 역사적인 담화 안에 명기될 수 있는 통사론적인 타이의 조직을 지배하고 있는 규칙으로 조립될 것이다.

노트: Karl (Heinrich) Marx(1818~1883); 독일의 사회학자·경제학자·정치이론가.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의 창시자로서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함께 「공산당선언(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 1848)」·「자본론(Das Kapital, 1867, 1885, 1894)」을 집필했다.

카를 하인리히 마르크스는 1818년 5월 5일 프로이센의 라인 주 트리어 시에서 7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다. 명망 있는 변호사였던 아버지는 칸트와 볼테르의 계몽주의 사상에 심취해 있었고 아명이 헨리에타 프레스부르크였던 어머니는 네덜란드 출신이었다. 양친 모두 유대 혈통이었으나 아버지는 카를이 태어나기 1년 전쯤(아마도 현실적인 필요에서) 복음주의 국교회의 세례를 받았고, 카를 역시 6세가 되던 해에 세례를 받았다. 유대인이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어린 마르크스에게 종교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과 사회개혁의 열망을 불러일으켰다.

1830년 카를 마르크스는 트리어 김나지움에 입학했다. 학교는 자유주의 교사와 학생들의 은신처가 되었고, 경찰의 감시가 끊이지 않았다. 청년 마르크스의 글 속에는 그리스도교

적 봉사과 자기희생의 의지가 역력히 드러나 있었다. 1835년 10월 카를은 본대학교로부터 입학통지를 받았다. 그가 수강한 과목들은 그리스어와 로마 신화, 미술사와 같은 오로지 인문주의적인 것들이었다. 마르크스는 통상적인 학생활동에 참가했고 결투를 벌였으며 술에 취해 소란을 일으켜 감방에서 하루를 보낸 적도 있었다. 그의 생애를 통틀어 단 한 번의 감금이었다. 마르크스는 술집모임을 주관했고 직접행동주의자들이 포함된 시인 클럽에 출입하기도 했다. 실로 반동적인 대학문화가 본 생활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국민의회(프랑크푸르트)를 거부했던 학생들이 검거되고 그 가운데 일부는 마르크스의 전생애 동안 추방당해 있었다. 1년 후 카를은 법률과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 베를린으로 떠났다.

카를 마르크스가 베를린대학교를 휩쓸고 있던 헤겔철학과 만나 청년 헤겔학파를 추종하게 된 사실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처음에 카를은 G. W. F. 헤겔에 대해 적대감을 느꼈으며, 그 무렵 몸져눕게 된 얼마간의 이유는 아버지에게 썼듯이 “혐오해온 견해를 숭배해야 하는 데서 오는 혼란스러움” 때문이었다. 그러나 베를린 혁명문화에서 헤겔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인 것이었고 카를은 새로운 문예·철학 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박사 클럽”에 가입했다. 클럽의 중심인물은 젊은 신학강사 브뤼노 바우어였는데, 복음서는 실제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감성적 필요에 기인하는 환상의 기록이며 예수 또한 역사상의 실존인물이 아니라는 획기적인 가설을 전개시키고 있었다. 카를 마르크스는 예언자 이사에 대해 바우어의 강좌에 등록했다. 브뤼노 바우어는 새로운 사회적 파국, 즉 예수의 재림시에 탁월 시련보다 더욱 무시무시한 파국이 다가오고 있다고 설교했다. 청년 헤겔학파는 급속도로 무신론에 가까워지고 어렴풋이 정치적 행동들도 거론되기 시작했다.

청년 헤겔학파에 잠재되어 있는 정부전복 분위기에 공포를 느낀 프로이센 정부는 이들에 대한 색출작업에 착수했고 1839년 브뤼노 바우어는 강사직을 박탈당했다. 이 시절 가장 절친한 친구로서 투옥생활을 하기도 했던 저널리스트 아돌프 루텐베르크는 마르크스에게 보다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권유했다. 그 사이 그의 연구는 지체되고 있었고, 마르크스는 친구들의 제촉에 못 이겨 예나대학교에 박사논문을 제출했다. 마르크스의 논문은 학문적인 면에서 별로 우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1841년 4월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데 성공했다. 논문은 헤겔주의자의 관점에서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자연철학의 차이점을 분석한 것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프로메테우스적인 도전의 소리를 내고 있었다는 점이다.

“철학은 비밀을 지니지 않는다. 프로메테우스의 ‘진실로 나는 모든 신들을 싫어한다’는 고백은 바로 철학 자신의 고백이며 모든 신들에 대항하는 철학의 신조이다... 프로메테우스는 철학의 축일표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성자이자 순교자이다.”

1841년 출간된 루트비히 포이어바흐의 「그리스도교의 본질(Das Wesen des Christentums)」은 마르크스와 청년 헤겔학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마르크스가 생각하기에 포이어바흐는, 자연에 발을 붙이고 사는 현실 인간으로부터 절대정신을 추출해낸 헤겔의 논리체계를 해부함으로써 그의 관념론적 이상주의를 효과적으로 비판할 수 있었다. 이후 마르크스의 철학적 노력은 모든 사물은 모순적인 상(相, phase)의 충돌에 따라 지속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는 헤겔의 변증법과 물리적인 조건들을 관념의 상위에 두는 포이어바흐의 유물론을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1842년 1월 마르크스는 쾰른에서 창간된 「라인 신문(Rheinische Zeitung)」의 기고가가 되었다. 쾰른은 프로이센의 산업 중심지였고 신문사는 상인·은행가·산업가 등이 모여 만든 민주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기관이었다. 이즈음 언론의 자유에 관한 소논문 하나가 발표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절대적인 도덕기준과 보편적인 윤리원칙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마르크스는 언론에 대한 당국의 검열을 민중을 염탐하고 비천하고 악의에 찬 속인들에게 신과 같은 권능을 부여하는 죄악으로 단정하고 있다. 1842년 10월 15일 카를 마르크스는 「라인 신문」의 주필이 되었고, 베를린 민민의 주택문제로부터 농민들의 산림법

채와 새로운 공산주의 현상에 이르기까지 경제·사회 문제에 관한 수없이 많은 논설을 집필해야만 했다. 프리드리히 헤겔의 관념론은 이러한 현실과제의 해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고, 카를은 부르주아 계급에 충격을 가하는 것만으로 사회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믿는 헤겔과 동료들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범규범의 한계 내에서 점진적인 변혁을 추진하는 실천적 자유주의자들을 가까이했던 마르크스는 「라인 신문」의 발행부수를 3배로 늘리고 프로이센의 주요일간지로 부각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솔직하고 자유분방한 논조를 문제삼은 정부당국은 신문을 정간시켰고, 마르크스는 「독일-프랑스 연보(Deutsch-französische Jahrbücher)」를 발간하자는 자유 헤겔과 아르놀트 루게의 제의를 받아들인 뒤 파리로 향했다.

카를 마르크스는 약혼한 지 7년이 지난 1843년 6월 4세 연상인 예니 폰 베스트팔렌과 결혼했다. 지성과 매력을 겸비한 예니는 뛰어난 군인과 행정관들을 배출해낸 명문가의 딸로서 그녀의 이복형제는 훗날 프로이센의 내무장관에 오르게 된다. 생 시몽의 추종자였던 예니의 아버지는 카를을 좋아하여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성사시켰으나, 정작 카를의 아버지 하인리히는 그녀가 악령에 사로잡힌 아들의 제물이 되거나 않을까 걱정스러워했다.

마르크스가 파리로 이주한 것은 결혼 후 4년이 되던 해였다. 당시의 파리는 사회주의 세력과 보다 급진적인 공산주의 혁명운동이 꽃을 피우고 있었다. 혁명가가 된 마르크스는 프랑스·독일 노동자들의 공산주의 조직들과 실제적인 관련을 맺기 시작했다. 그들의 사상은 너무나도 조잡하고 무지한 것이었지만 그들의 인성은 그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1844년의 경제학-철학 초고(Ökonomisch-philosophische Manuskripte aus dem Jahre 1844)」에서 카를 마르크스는 “형제에는 그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구호만이 아니고 삶의 진실이다. 노동으로 단련된 그들의 육체는 우리에게 인간의 고귀함을 일깨워준다”라고 쓰고 있다. 「1844년의 경제학-철학 초고」는 이후 100년 동안 빛을 발하지 못했지만 마르크스 역사·경제 이론의 바탕을 이루는 휴머니즘이 설명되고 있는 점에서 가치를 잃지 않고 있다. (역주)

표층의 통사론

매개변수(parameter)

마르크시스트의 전통과 활동이 보편적인 개요의 이념과 기본적인 역사의 심층구조의 내재적인 조직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역사기록학과로부터 방사되고 있지만, 그것은 사건의 역사를 위해 진리를 포착하지 못한다. 오랫동안 인식론적으로 가치가 절하되었던 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먼드 아롱(Raymond Aron)의 연구 덕택에, 예를 들어, 그가 구조적인 성질을 거부하는 그리고 그들 자신의 실천(practice)을 역사적인 기술에 적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신실증적 논리학자들에 의해 실행된 연구를, 정치적인 역사의 지위로 받아들인 덕택에, 은혜를 누렸고 갱생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사건기록이라고 하는 역사의 이론적인 토대(foundation)와 현재의 선입관이 오히려 납득할 수

없는 의심 또는 설득력이 없는 예를 통해서만 표현된다고 언급할 수 있다.

언뜻 보기에 그것은 정위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의 연속 상의 역사적인 기술의 자율적인 차원의 확립이 역사의 기본적인 차원을 단념 또는 거부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 역으로, 오늘날의 언어학은, 비록 그들의 상호관계와 관련된 문제가 더욱 더 복잡하고 까다롭게 될지라도, 자율적인 레벨과 영역 사이에 속행되고 있는 편차의 작용적인 효과를 보여준다. 역사 안 사건차원의 존재자를 조정하는 것은 외관상 대당적인 과업을 제안하기 위한 구실을 제공하기조차 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일상사실의 무수한 표출의 레벨에서 역사적인 사건을 인식하기 위한 절차를 확립할 수 있는지 그 가능 여부를 알려고 시도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분야의 발달으로 되돌아가 기록하고 있는 역사편찬의 전통은 역사와 역사적 사실성(historicity)을 혼란시키는, 그들을 역사적인 사건의 지위로, 그들의 명각(銘刻, inscription) 절차를 역사학자들의 과학적인 실행의 기준으로, 인정함으로써 관자놀이-시공적인 동격자 안 사건의 명각으로 고찰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격자가 사건을 명기하는데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여부조차 분명히 알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이러한 무제약의 자유·이율배반의 이성을 동일한 사건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고찰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완벽하기 때문이다. 언어학적인 텀을 사용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은 이러한 사건의 매개변수로 단순하게 존재하는데, 그리고 이러한 사실 때문에, 총체적으로 부재 또는 종종 불확실성으로 존재한다. 어떤 경우에 비록 그것이 구성된 크로노미터(chronometric)²²⁵⁾의 시간의 조력을 받아 양적으로 사건을 측정할 수 있을지라도, 이것은 아무리 보아도 공간(위도 또는 경도 안에서)의 측정의 경우가 아닌데, 왜냐하면 거리, 도시, 또는 나라와 관계가 있는 위상적인 지시는 사회학적인 실재물에 귀속되는 것이지 추상적인·관자놀이-공간적인 동격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사건과 역사적 사실성 안 그들의 뿌리내리기 사이의 편차로 유지시키는 것이 필연적인 것 같다.

역사적인 지시대상(referent)

225) chronometer: 온도·기압·습도 등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휴대용의 정밀 태엽시계. 천문관측이나 경도 측정에 쓰임. 1/2초를 새겨놓은 크고 튼튼한 시계. 배 위에 정확한 시간을 알기 위하여 설계됨. (역주)

또 다른 실증적인 전통은 역사적인 사실이 실재성의 외연(denotation, figure+sememe의 semiology 차원)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사실로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자놀이-시공간의 사태(things)는 단순한 존재(being)와 거리가 멀다.

예를 들어, 언어학에서 최소의 인식론적인 필연성으로 환원된 실재성의 문제는 어떤 사물의 확실한 “거기에 있음(being there)”²²⁶의 현존재와 연결되며, 그것을 우리는 시니피앙의 실체(substance)라고 호칭하고, 그때 그것은 즉각 괄호로 묶인다. 만약 우리가 무제약의 자유·이율배반의 이성(reasoning)의 동일한 경향을 역사에 적용하려고 시도한다면, 그때 우리는 역사적인 표출이 역사학자들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표출로부터 시발하고 있는 기술의 구성 대신에 역사학자들이 과거 위에 그들의 가언적인 구성을 단순하게 투기하고, 그것을 실재성으로 건방지게 과장하여 심판자처럼 판정을 내리는 것일 것이다.

사실상 역사는 “실재적인” 사건의 타이틀 위해 역사적인 텍스트(그들의 진리의 지시대상의 치환에 의해 언어학적인 중재를 통해서만 기록될 수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지시적인 투기로 재구성된다. 최선의 경우, 역사학자들은 실재적인 주체에 의해 실행된 신체적(somatic) 프로그램의 자연언어로 기왕에 자유롭게 번역-전격(轉格)된 그 자신 안에서 목상된 바로 그 피리어드(period: 악보의 “articulation→phrase→period”의 상위의 그룹핑을 상상하라. -역주)에서 선택된 다크멘트와 연대기를 사용한다. 여기서 역사적인 그리고 고고학적인 순간은 담화의 초과언어학적인 화맥의 역할로 오로지 비교할만한 역할을 연기한다.

그러한 상황은 사회과학 안에서 예외적인 것이 아니며, 자연언어의 중재를 자각하고 있는 역사학자들은 그것의 귀결을 쉽게 떠맡는다. 여기서 두 가지 에티튜드가 가능하다. 첫째, 우리는 역사기록의 모든 방법을 역사적인 담화로 호칭된 담화의 부분과 꾸러미로서의 결합체적인 형식(어느 역사학자로부터 다른 역사학자로, 어느 사회집단으로부터 다른 사회집단으로 변화하는)으로 고찰할 수 있다. 둘째, 우리는 문학적인 기호학과 비교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호학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그 과업은 역사편찬의 화술구조의 유형학을 확립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투기는 역사과학의, 즉 역사학자들의 실행과 관련된

226) Jerzy N. Kosinski(1939~1991)의 소설 “being there” 참조. 주인공 쉘스는 이 세상에 실재하지만 서류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 (역주)

것에 불과하지만 역사의 “실행(doing)”과 관련될지도 모르는 과학적인 담화의 조건을 조사하고 싶은 누군가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닌 그 위협과 부딪친다. 그러한 담화는 계속적으로 담화를 진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며, 반면에 그 대상에 관한 탐험은 그것의 중재가 연구된 대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연언어로부터 별개의 또 다른 작용적인 언어를 성취하려고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역사적인 발화(utterance)

사건의 역사와 관련하여, 그것은 성취된 규칙에 따라 연결된 “사실(facts)”을 기술하고 있는 발화를 만들음으로써 역사적인 담화로 고찰하려고 전유하게 될지도 모른다(그리고 역사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논리학자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기술된 사건과 상응하는 구성된·역사적인 발화는 그들의 제한된 수의 정전적인 형식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질지도 모르며, 따라서 유순한, 작용적인, 방법론적인 한 별의 장치(apparatus)를 구성할지도 모른다.

내 생각으로는, 선행의 어느 방식은 역사적인 사실의 순수 의미론적인 그리고 “비실재적인” 정의로부터 시발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정의로부터, 그것은 동사 “doing(실행, 프랑스어로, faire[만들다]와 fait[행위])”의 과거분사로 존재하며, 우리는, 그것이 포용하는 과거에 대한 지시를 최초로 괄호로 묶음으로써, 논리적인 성질의 정전적인 발화를 역사적인 사실의 언어학적인 시물레이크럼으로 획득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doing(실행)”을 이러한 발화의 함수로 고찰할지도 모르고 주체로 조정할지도 모르며, 이러한 “doing(실행)”의 대상을 함수 관계에 의해 연결된 “고유명목(proper names)”으로 조정할지도 모른다. 그 형식적인 발화는 다음과 같다.

$F \text{ doing}(S \rightarrow O)$

그럼에도 불구하고(그것은 어떤 누가 어떤 것을 실행하는 것을 단순하게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가 하여금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한 뜻밖에 없는 일의어로 형식화하도록 허락하며, 반면에 아종적인 것으로 분류된 의미론적인 내용의 투자를 통해서, 역사적인 발화의 유형학의 진전을 마음속에 그리는 것의 가능성으로 남는다.

이러한 의미론적인 제한은 고찰할만한 역할을 형식적인 언어의 합성으로 연기할 뿐만 아니라, 특히 역사적인 조사의 바로 그 대상의 정의로 연기한다. 제한적인 내용 “doing(실행)”과 함수 F를 단순하게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함수 존재(being)를 가지고 있는 발화(그리고 그들이 포용하기 위하여 추측된 내용)를 역사학자의 고찰로부터 자율적으로 배제한다. “하늘이 푸르다(the sky is blue)” 또는 “일반원칙은 강력하다(the general is energetic)”는 역사적인 발화가 아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역사적인 발화의 의미론적인 발화를 제한하려고 결심할 때 진리이다. 만약 우리가 오로지 인간의 주체를 역사적인 주체의 발화로 고찰하려고 결심한다고 하면, 자연적인 역사로부터 인간의 역사를 구별하기 위하여, 그때 예를 들어, 지진은 역사적인 사실로 고찰될 수 없을 것이다. 도입된 그 제한은 분명히 실재적인 진술이 아니며, 그들은 오로지 메타언어학적인 구성의 예로만 제안될 것이다.

집합적인 주체

그러나 역사적인 주체의 문제는 발화의 한계를 즉각 초월하도록 강제하며, 발화 타이의 프레임 안에서 그것의 역할을 검토하도록 강제한다. 예를 들어, 르노(Renault) 공장에서는 자동차의 생산을, 즉 실행의 주체를 차례차례로 기술하는 반면에, 인간은 원칙적으로 상호 교체될 수 있다. 어떤 제조하위프로그램에서, 어느 노동자는 다른 노동자와 대체될 수 있다. 프로그램의 또 다른 분단에서, 기계는 인간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것은 단지 하위계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주체의 결합체적인 치환의 문제일 뿐이다. 발화의 타이를 통해서, 유일하면서도 진기한 주체의 총체지속성(또는 신화, permanence)은 프로그램화된 실행의 단위에 의해 보증된다. 즉 그런 방식으로 이중적인 대상을 획득함으로써 정위된다. 그들 지시의 격아강적인 피복(covering) 아래, 프랑스 자연언어의 “르노 공장”은 집합적인 주체 또는 단순발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발화의 프로그램화된 타이의 주체로 존재하는 주체의 결합체적인 유형을 표상하는 것으로 고찰될 수 있다. 일련의 그러한 발화주체는 “공장”이 아니라, 그들이 공통적인 실행에 참여하는 한에 있어서 위격(位格, person)의 그룹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그 결합체적인 주체는 응고된 위격의 그룹이 아니라, 육체의 형태로 살아서 오로지 프로그램화된 실행의 가동자(agent)로만 고찰된 위격의 그룹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능동성과 상응하는 구조적

인 레벨에 따르고 있는 역사적인 실행의 주체와 프로그램을 이중적인 것으로 분류하는 그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다.

그 문제는 그것이 다양한 종류의 집합적인 주체에 관한 물음으로 존재할 때, 예를 들어 우리가 거리에서 시위 군중에 대해 언급할 때, 오히려 다양하다. 군중에 따르고 있는 협의의 개념이 개성의 단순히 숫자로 나타난 집합으로만 존재하는 것을 초월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화술적인 기호학에 의해 기왕에 시험되었던 보다 복잡한 메커니즘을 위치로 굳히는 것이 필요하며, 집합적인 주체가 실행능력(being-able-to-do)의 구성을 이룩고 공유하게 된 실행요망(wanting-to-do)의 통합에 의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것은 군중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을, 연속적인 개별실행으로 분석될 수 없는 그 집합적인 실행을 떠맡을 수 있는 집합적인 주체로 변형시키는(그들이 이러한 공통 요망과 능력으로 그리고 기타가 아닌 것으로 참가하는 한에 있어서), 주체의 언어능력 그 구성적인 양태성의 공통 경상도야(鏡像陶冶, assumption)로 존재한다. 그때 우리는 주체의 불확실성의 확장이 발화의 프레임을 어떻게 다시 한 번 초월하도록 유도하는지, 그리고 그 논리적인 전제의 레벨에서 집합적인(collective) 주체의 관례를 지배하고 있는 발화의 프로그램 안에 그것의 명각을 어떻게 투기하는지, 관측할 수 있다.

게다가, 비록 그것이 발화프로그램의 증명사에 의해 정전적으로 기술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군중의 집합적인 실행이 반드시 역사적인 실행으로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항상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바스티유 감옥의 함락(Fall of the Bastille)을 이끌어낸 역사적인 사건은, 형식화될 수 있는 집합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이지 이러한 실행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오직 “군중” 때문에 선택된 의미작용의 성질이 그 자체로 집합적인 행위주가 아니지만, 집합적인 행위주를 표상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하위개념적인(hyponymic) 주체이다(예를 들어, 발생될 수 있는 표상으로서의 사회적인 계급). 그것은 그렇게 집합적인 주체의 정의(우리는 기왕에 검토된 결합체적인 주체와 대당관계의 계열체적인 주체로 지시하고 싶을지도 모른다)가 사실상 분류법적인 것이며, 결국 사회적인 구조의 프로빈키아와 같은 것이 된다. 더 나아가 전자의 유형학은 사건의 역사보다 더 깊은 심층레벨에 정위된다.

역사적인 통사론에 대하여

정전적인·기술적인 발화의 증명사에 의해 표층역사의 사건이 형식화되는 그 가능성에서의 이 간략한 고찰은 담화적인 기호학의 연기자적인 선입관에 의해 동기가 유발되지만, 총체상의 그들의 진의는 역사적인 기술에 과학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싶은지도 모르는 어떤 논리학자에 의해 이루어진 노력의 결과와 상응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다음과 같은 한에 있어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임이 명백하다. ① 그들은 천진난만한, 다시 말해서 특정한 실험을 받은 적이 없지만 실증적인 진제에 의해 오염되며, 기왕에 만들어진 그래서 사전에 조직된 실재성(사실 그것은 사회문화적인 관계에 종속된 세계의 어휘소적인 범주화로 존재한다)으로 기술되기를 요구한다. 그리고 ② 연속적인 그리고 명백한 지시는 역사적인 진전의 기본적인 것(fundamental)과 사건기록적인 것(evenemential) 두 레벨 사이에서 속행된다.²²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유표로서의 인지(認知, remark)는 오로지 역사적인 발화의 구성과만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이러한 발화의 구성적인 원소를, 즉 그들 조직의 문제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시퀀스와 프로그램으로 보다 더 상세하게 분석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을 알았다. 사실 역사적인 담화가 된 사건의 역사 그 실재적인 대상은 과학적인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 어느 담화적인 통사론의 증명사에 의해 정전적인·역사적인 발화로 교묘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

기호학자들은 또 다른 응집성의 담화 안에서 고립된 사실의 외연을 표시하고 있는 발화의 유착이 실재성의 환영(illusion)으로 존재하는 것을 생산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언외지의로 고립된 발화의 연속은, 그들 사이에 동정될 수 있는 것 없이, 그렇게 부조리하고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러운 의미의 효과를 생산한다. 따라서 두 연속적인 발화는 “인과율적인(causal)” 관계에 의해 “이 다음에, 그러므로 이 때문에(시간의 전후 관계를 인과율과 혼동한 허위의 논법, post hoc, ergo propter hoc)”의 고대 원칙에 따라 연결된 존재(being)로, 그래서 보

227) "historical" vs "fundamental"로 구별하면서, 역사를 사실기록적인 것(evenemential)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stylistic"과 또 구별된다. 선행 각주 참조. (역주)

구조(structure)	총체지속성(duration)			
문체론적(stylistic)	단기(short)	단기(short)	단기(short)	단기(short)
역사적(historical)	중기(average)		중기(average)	
기본적(fundamental)	장기(long)			

편적으로 해석된다. 보다 엄밀히 말해서, 역사적인 진전으로 고찰된 그래서 필수불가결의 결합체적인 타이의 이러한 유형은 모든 종류의 서투르게 정의된 관계(우발성, 개연성, 있을 법함, 믿음)를, 즉 아직 확립조차 되지 않은 유형을 떠맡는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그것은 그들을 발화와 인과율적인 유형을 조직하고 있는 통사론으로 변형하기 전에, 역사학자들에 의해 보편적으로 실행되었던 사건의 연대학적 타이와 함께 시발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발화의 주체와 그들 실행의 원인이 되는 역사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결단적인 논리의 언외지시 안 그러한 통사론의 정위(orientation)는 역사적인 투기를 의도적인 관념론으로 제공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포스테리오투적인 궁극성(窮極性, a posteriori finality)”의 모드 안에 표현된, 생태학에 기초한 해석의 신중하게 활용된 모델은 오늘날 최선의 중립적인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투시도법의 관점에서 보면, 역사의 의미는 사실 뒤에서만 독해될 수 있는 것 같으며, 역사적인 담화의 구성은, 사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 자신의 언외발언의 실례로부터 항상 시작했던 그리고 역사의 심층으로 역행하여 관통했던, 역사학자들의 진리 절차를 인증함으로써, 역사가 재구성될지도 모른다. 말단에서 시작하고 있는 그리고 역사적인 프로그램의 발단이 아닌, 발화의 타이를 확립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역사적인 통사론은 역사적인 발화의 타이의 구성적인 관계에 기초를 둘 수 있는 전체의 논리 그것의 뜻대로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자들은 여전히 교훈적인(didactic) 담화를 위한 개진(開陳)의 연대학적인 목표로 속행할지도 모른다.

제14장 에스노-기호학(ethnosemiotic)의 대상에 관한 반성

유럽의 에스놀로지적(ethnological) 투기의 애매성

우리가 비록 시적인, 음악적인, 그리고 몸짓적인 언어를 유럽의 에스놀로지(ethnology)의 투기에 의해 제공된 프레임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체계로만 고찰되도록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어쨌든 동시에 언급하는 것은 경솔하게 보일는지도 모른다. 그들을 이리저리한 문화공동체 또는 이리저리한 사회계급에 속해있는 것으로 상대화하고 아종적인 것으로 분류하는 구별이 분명한 색인과 함께 언제나 언외지의(내포)로 만들음으로써, 인간의 모든 행동을 조직하고 프로그램화하고 있는, 그래서 동시에 편재하는(omnipresent)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gestuality)은 적절한 예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인간 육체의 무의미·단순 몸짓언명성(gesticulation) 안에서, 우리는 실행의 그것으로부터 커뮤니케이션의 역할뿐만 아니라 에스놀로지적인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을 정의하고 있는 범주를 구별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기준을 빠르게 잃어버리도록 한다. 우리의 모든 몸짓은 사회적 언외지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만약 그것이 정말이라면, 코크랭이 언급했던 것처럼,²²⁸⁾ 프랑스에서 그것은 스웨터 벗기의 바로 그 두 가지 명백한 방식(남성의 그리고 여성의)으로 존재하며, 그때 그것은 유럽인의 척도 위에서, 잠자리 깔기만큼 무의미한 것으로서의 몸짓적인 프로그램이 지극히 풍부하고 암시적인 문화의 유형학을 산출할는지도 모른다고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잠자리 깔기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어떤 작용의 실행인 것이 틀림없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작용의 순수한 실행일지라도, 민중은 그들의 문화적인 지위를 저버리고, 바로 이러한 사실에 의해 적어도 그들이 어떤 사회집단에 속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오늘날 사회언어학이 선호하는 주제 중의 하나인 문화의 결합은 분명히 개인과 개인 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특별한 형식이다.

가언으로서, 만약 유럽의 에스놀로지가 이중문화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탐

228) "Techniques corporelles et leur notation symbolique," in *Pratiques et langages gestuels*, special issue of *Languages* 10(1968): 36~48.

색하는 이러한 투기를 승인한다면, 그것은 그들을 분명히 문화적인 총체성으로 정의할 수 있는 의미작용을 유발하기 위하여, 결합을 기대했던 사회문화적인 연속으로 응집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로 그 문화를 최초로 그림에도 불구하고 더한층 아종적인 것으로 분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 문제는 평범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유럽 에스놀로지의 바로 그 대상의 문제가 천진난만하게 발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럽 에스놀로지의 목적이란, 또는 북미에서 호칭되었던 것처럼, “민속학 연구(folklore studies)”란 무엇인가? 그 목적이 그들의 독창성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점차 딸림음(dominant) 같은 산업사회로 통합되는 것에 의해 사라져가고 있는 어떤 사회계급을 기술하고 있는가? 이 경우에 에스놀로지는 실존하는 거시사회의 내재적인 아티클레이션을 연구하고 있는 유럽의 사회학의 일부가 될지도 모른다. 에스놀로지는 오히려 15세기와 19세기 사이의 농경사회, 도시문명의 고립지구에 의해 특색이 만들어진 사회집단의 문화적인 특수성을 재구성하려고(소장문화제와 에스노그래픽 박물관 안에 보관된 구전기록이 변용 없이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유도하는 것만큼) 탐색하는 것이 아닌데, 그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것은 일종의 문화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자급자족으로만 살았던 것인가? 이것은 분명히 역사적인 에스놀로지의 과업일지도 모른다.

또한 에스놀로지는 제3의 대상적인 것이 제공될 수도 있다. 농경사회의 문화적인 자급자족의 이념으로부터 시발함으로써,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격이 만들어진 역사의 서스펜션의 일종으로 고찰함으로써(아나톨리아[Anatolia, 옛날의 소아시아, 지금은 터키를 말함]에서의 최근의 발굴은 터키 농부의 오늘날의 가정과 비교할만한 B. C. 6~7세기의 주거문화를 밝혀주었다. -역주), 고고학자와 같이 우리는 쉽게 복원할 수 있는 단층에 의해 덮여 가려진, 즉 잃어버린 문화의 재구성을 허락하고 있는, 역사적으로 결정된 문화의 데이터 안에서 문화적인 지표를 시도하고 동정하도록 유혹받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때 이것은 정확히 유럽의 에스놀로지의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위의 예는 유럽 지역의 에스놀로지적인 접근을 설명하는데 충분할 것이다. 세 가지의 가능한 동류체의 그것은 동유럽의 농경사회에서 연말에 일어나는 축제의 구조적인 분석을 실행하기 위하여 에스놀로지 연구자가 선택한 것일지도 모른다. 즉 집단농장에서 조직된 신년축제, 크리스마스의 크리스천의 풍습, 또는 이러한 두 표출의 기초가 되고 있는 “이교도(pagan)”의 의례와 종

교의식의 재구성?

노트: ethno-semiotics(에스노-기호학); 1. 에스노-기호학은 진실로 자율적인(자치적인·독립적인, autonomous) 기호학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에스놀로지(ethnology) 또는 고찰할만한 기호학 자체의 출현에 기여한 인류학의 명목 하에 기왕에 확립된 지식의 영역과 함께 경쟁관계로 존재하는 것일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진기함과 방법론적인 실천의 특권이 부여된 영역이다. 이것은 우선 무엇보다도 인류학이 사회과학 간의 가장 엄격한 규율로 나타난다는 사실에 기인하는데, 그 이유는 탐색의 바로 그 대상이 끊임없이 주의를 불러일으키는 그 문화적인 상대주의의 자각의 결과로서의 문화적인 대상과 기호학적인 힘의 보편성을 연구하는 방식을 진전시킴으로써, 그 특권이 부여된 영역이 그 자신을 기화로 삼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며, 그리고 다른 한편, 그것이 유럽중심주의를 공격했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것을 초월했기 때문이다.

2. 이러한 규율 안에서, 외래 자연언어의 단순한 기술을 초월하고 있는 에스노-언어학의 명목 하에 구성된 인류학자와 기호학자의 만남의 장소는 그들의 의미론적인 특성(그 자신을 대조적인 것에 그리고 비교적인 것이 빌려준 것) 안에서 관심을 획득한 발단부터 가지고 있었다. 분류법적인 탐색의 진전은 아마도 인류학 자체의 사명감(그것은 총체성을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이며, 의미작용을 하고 있는 세트도 포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에 기인하는 것 같으며, 특히 그것이 전제하는 방법론적인 정교화—즉 에스노-분류법의 정교화는 보편적인·기호학적인 이론에 중요한 공헌으로 구성된다. 먼저 이러한 분류법은 문법적으로(예를 들어, 언외지언적인·긴장된 체계의 기술로부터 시발하고 있는 시간개념의 연구) 존재하며, 그 다음에 어휘소적인 분류법으로(엄격한 성분분석의 정교화를 허락하고 있는 친족용어법의 기술) 존재하며, 마지막으로 언외지의(내포)적인 분류법으로(성, 연령, 계층의, “신성한/독신적인” 등의 기준에 따라 구별된 “사회집단언어”의 유형) 존재한다.

3. 에스노-기호학은 마치 민속적인 화술(V. Propp)과 신화적인 화술(G. Dumézil, C. Lévi-Strauss)과 같은 여러 가지 장르와 관련이 있는 결합체적인 분석으로 고찰되고 있는, 개시되고 있는, 그리고 기초되고 있는(계열체적인 기술로 존재하는 에스노-분류법과 나란히) 것의 장점을 소유하고 있다. 그것은 문학적인 담화가 새로운 방식으로 끌어올렸던 그러한 결합체적인 분석에 감사한다. 그 이유는 그러한 연구가 빠르게 진전하는 보편적인 기호학을 허락했기 때문이며, 그것은 이제 후자가 보답하기를 원하고 있음이. 어쨌든 부분적으로 그것은 에스노-문학적인 담화에 새롭게 접근하는 그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에 의해 그 빛을 갖기 원하고 있음이 틀림없다는 것이 정상적이기 때문이다.

4. 따라서 에스노-문학적인 기호학은, 비록 그들을 분리하는 그 경계가 직접적으로 확립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문학적인 기호학(단어 “문학”을 의미하고 있는 “고상한(noble)” 안에서)으로부터 구별된다. 그들을 구별하도록 사용된 주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이 지시될 것이다. ㉠ 에스노-문학적인 담화 안 의미론적인 부호(code)의 부계(또는 함축적인 현존재), 그것은 명확성과 대당이 되며, 문학적인 담화 안에서의 통합과 대당이 된다. ㉡ 다른 기호학체계와 같은 담화의 생산과 그 실행 사이의 간격의 이중적인 유형의 언외발언. ㉢ 문학적인 담화(그것은 화술의 “과괴”까지 갈 수 있다)에 적당히 발화된 언외발언의 구조의 잘난 체함은 에스노-문학적인 담화 안 언외화자(enunciator, 그리고 그 유표의)의 대당으로 존재한다. 모든 이러한 편차는 오로지 보편적으로만 존재하며, 화술의 존재자와 에스노-문학적인 담화, 그리고 문학적인 담화 양쪽에 공통적인 담화조직을 결코 의문 속으로 밀어 넣지 않는다.

5. 다른 한편, 표면적인 특징은 에스노-문학 간에 만들어진, 고대사회집단(또는 상대적으로 폐쇄된 농경사회)에 그리고 사회-문학에, 일종의 “하위문학”에 적당한, 편차를 허락한다.

6. 소정의 보편적인 기호학은 담화로서의 또는 텍스트로서의, 비언어학적인(몸짓적인, 신체적인)·결합체적인 연쇄의 논법을, 즉 확장될 수 있는 에스노-언어학의 영역이 에스노-기호학이 되는 것을 인정한다. 여전히 진기한 제식과 의례의 분석은 에스놀로지가 다시 한

번 의미작용을 하고 있는 행동의 보편적인 모델의 구성을 위한 바로 그렇게 특권이 부여된 장소가 될 수 있다. —A. J. Greimas · J. Courtés, Larry Crist 의 역, op. cit., pp. 108~109. (역주)

기호학적인 접근

유럽의 에스놀로지(ethnology)의 바로 그 투기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와 그 접근의 애매성은 유럽의 민속학(folklore, 즉 대규모사회집단으로 지시된 민중문화[통속 문화가 아닌]에 관한 지식. -역주) 상의 에스놀로지와 마찬가지로 보편적으로 이론적인 저서와 조우된 탐색투시도법의 이질성분에 의해 창조된 혼란의 관점에서 충분히 정당화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여기서 취급하고 싶었던 문제가 많은 불확실성 안에서만 발생한다.

사실 다른 접근은 시적인, 음악적인, 그리고 그들의 일치의 원소를 발견하기 위하여 몸짓적인 사실과 결합하기를 바라는 전체상에서의 그때 가능하다.

보편적인 · 방법론적인 반성의 프레임 안에서, 우리는 동일 목류의 유사한 사실로 고찰된 각각의 언어 안 비망록(noting)에 의해 민속적인 사실을 결합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결국 시학의 최근의 지식에 의해, 또는 이제 방금 에스노-음악학에서 성취된 방법의 사용에 의해 획득된, 이렇게 하여 대체로 시각적인 기호학의 불확실성 안에서 민중의 의미 · 복합 몸짓언명성(gestuality)을 통합하고 있는, 대중가요를 실험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더 직접적인 기호학의 투시도법에서, 우리는 그들의 시니피앙의 관점에서만 그들을 고찰함으로써, 보다 더 협의의 동류체 상에 이러한 사실이 정위되도록 시도할 수 있다. 그때 그것은 이것이 반복상의 조화가 이루어져 있음(regularity)을 가지고 있는 담화적인 현상의 세 가지의 경우로 존재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현상의 각각은 따라서 문법으로 따로따로 분석될 수 있고, 기술될 수 있으며, 비교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중재단계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고, 각각의 언어를 따로 따로 고찰하는 대신에, 혼합주의의 현상에 특히 더 초점을 맞춘다. 우리는 또 다른 관점에서 자율적인 존재자를 소유할 수 있는 언어가 또한 총체적인 의미작용을 생산하는 표현의 몇 가지 부호가 되고 있는 표출의 언어로서의 함수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유롭게 관찰할 수 있다. 우리는 주로 이러한 복합 기호학적인 대상에 주의를 기울여 초점을 맞출 것이다.

에스노-기호학과 사회기호학(sociosemiotics)

두 종류의 예는 복합 기호학에 관한 우리의 변덕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고대 사회의 프레임(원정을 준비하고 있는 전사의 가무)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사회의 구조적인 화맥(회가극의 작품)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 신성과 독신의 결합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며, 역사가 이것을 설명하는 바로 그곳에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예를 들어, 오페라가 창작되고, 16세기에 서구세계가 분명히 신성하지 않았을 때 명확하게 발전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미적인 것으로부터 신화적인 대상을 구별하는 것은 양 현상의 기초가 되고 있는 문화적인 언외지의(내포)의 아종적인 형식이다. 문학 텍스트의 유형학을 확립하려고 시도할 때, 사실 로트만은 마침내 어느 텍스트의 신성한, 교훈적인(didactic), 또는 문학적인 성질을 결정하는 것은 당해 그 텍스트의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속성을 필연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정의 문화적인 화맥 안에 명기된 독자의 언외지의적인 애틀튜드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앞에서, 자연언어를 기초로 하고 있는 사회언어학적인 범주의 성질을 탐색할 때,²²⁹⁾ 우리는 우리가 함수로 만들어진,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의미작용으로, 아티큘레이션으로, 분절하도록 조력했던 사회집단(낯은 사회와 산업사회)의 두 유형과 상응하고 있는, 사회적 언외지의(내포) 안에서 2개의 명백한 모드를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낯은 유형의 사회집단 안에서, 문화공동체를 정의하고 있는 자연언어는 형태론적으로 다르지만 안정된 “랑가주(language)”로서의 아티큘레이션으로 분절된다. 신성한 언어는 독신의 언어와 대당이 되고, 남자의 언어와 여자의 언어, 사회집단 안에서 사용된 언어와 밖에서 사용된 언어 등과 대당이 된다. 낯은 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으로 변하고 있는 문화유형은 이렇게 “사회적인 언어”의 해체와 교묘히 다루기에 의해 복합담화(철학적, 종교적, 시적 담화는 신성한 언어와 상응할 것이다)로 발생될 뿐만 아니라, 일종의 융통성이 있는 사회언어학적인 통사론의 출현을 통해서, 마치 카

229) “「사회언어학에서의 이론적 모델에 대하여(On Theoretical Model in Sociolinguistics)」, 이 책의 제12장을 보라.

멜레온처럼 행동하는, 다양한 담화와 파롤의 모드를 계속해서 인치(引致)하는 것에 의해 집합체의 각각의 일원을 허락한다. 그렇게 허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사회언어학적 형태론은 다의적인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통사론의 기세를 꺾어버린다.

자연언어의 관점에서 시발함으로써, 그것은 이렇게 구성된 도식을 외삽하기가 쉽고, 소정의 문화의 모든 표출언어에 적응하며, 반면에 사회기호학의 광대한 프레임 안에 사회언어학적인 사실을 명기한다. 변형의 동일한 원리에 적응함으로써, 우리는 에스노-기호학의 레벨에서 인식할 만한 복합 기호학적 대상이 어떻게 쪼개지고 사회기호학의 레벨에서 복합 변이(variation)의 문체를 발생시키는가를 고찰할 수 있다.

에스노-기호학으로부터 사회기호학으로의 이러한 변천은 몇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인식될 수 있다.

1. 전체적·신화적 현상(즉, 언제나 시적인, 음악적인, 그리고 몸짓적인 부호로 표현된 의미작용의 기호학적인 대상)은 분해되고, 분리되어 자율적인 담화처럼 진진된 사회집단으로 호칭된 그 안에 나타나는 단계로 존재한다. 즉 시, 음악, 무용과 같은 현상을 말한다.

2. 신성의 표출처럼 언외의 뜻을 품기는커녕, 이렇게 변화가 많고 자율적인 언어는 거시사회 안에서 익살스럽고 바보 같은 또는 심미적인 함수를 선택한다.

3. 그들의 생산과 용도에 관해 말하자면, 집합적인(collective) 표출이기는커녕, 어쨌든 시적인, 음악적인, 또는 몸짓적인 그 표현은 개인적인 특유문체의 영역과 만난다.

4. 겉으로 보이는 의미의 집합적인 생산이기는커녕 오히려 이러한 언어에 의해 생성된 기호학적인 대상은 사실상 아무런 변화 없이 보편타당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인적인 소진(消盡, consumption)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유럽의 에스놀로지 연구자들은 연구된 현상의 2개의 가능한 구조적인 설명 사이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에스노-기호학적 접근은 사회기호학적 접근과 대당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생산과 소진의 모드를 통해서 차이가 나타나는 사실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조를 통

해서도 생성하기 때문이다. 에스놀로지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최대량인 한에 있어서는, 전이적인 “일족(folk)” 상태의 유형, 다시 말해서 에스노-사회학적인 혼합주의의 유형이며, 그들은 직접적으로 기술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것에 또는 구조적으로 정의된 모델의 또 다른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기술된다.

일족적인 사실의 시추에이션(situation)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예외적인 것과 거리가 먼 전이(transition) 피리오드(period; 악보의 “articulation→phrase→period”의 상위의 그룹핑을 상상하라. -역주)의 존재자는 정상적인 상태로 나타난다. 그것을 표현하는데 사용된 데이터의 끝없는 분량 사이의 그것이 역사적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에 의해, 각각의 문화는 어느 소정의 순간에, 그것이 무엇이었던지 그리고 무엇이 될 것인지 하여간 어떻게든 간에 양쪽의 구조적인 원소를 소유하게 된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데이터의 해석에 관한 우리의 모드는 비역사적인 것으로 존재하는데, 왜냐하면 그저 그것만으로 그들의 구조는 동차적인 데이터의 단순한 현존재가 그들에게 제공할 수 없는 내재적인 응집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족적인 사실의 분석은 에스노-기호학적 모델로든지 또는 조직을 위한 사회기호학적 도식과 이러한 데이터의 해석으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재 지시된다.

유비의 중명사에 의해 그리고 보다 더 좋게 응고된 방식으로, 최근 몇 년에 걸쳐 화술성을 탐색하는 것으로 선택된 예는 이러한 방법론적인 문제를 우리가 정위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에스노-기호학적인 목류의 신화적인 화술이, 일족적인 레벨에서 화술 안의 명백한 의미론적인 부호의 부재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의미의 일종의 결핍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 마술적인 이야기와 상응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우리는 사회기호학의 레벨에 다시 나타나는 문학적인 화술이 의미의 재 활동에 의해, 그것의 형식적인 구조 안 의미상태의 재통합에 의해, 특징이 만들어지지만, 문학적인 화술은 개성화된 가치체계를 표현하는 편차로 명백하게 만들어지며, 반면에 신화는 집합적인·가치론적인 표현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신성하게 만들어진 시로부터 시발하는 그래서 유형학적인 궤도의, 에스노-기호

학적인 성질의 동일 유형이, 일족적인 시를 통해서 탈의미화된 어떤 방식으로 변화되는지 아니 되는지 그 여부를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며, 개성화된 그리고 흔히 연금술적인, 현대시(modern poetry)로 호칭된 것의 재출현으로 끝을 맺는다. 현대어(modern language)는 춤을 추며 부르는 노래(songs danced) 또는 노래 부르며 추는 춤(dances sung)과 같이 복합신화적인 대상을 지시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것은 낡은 사회집단으로 호칭된 것을 위한 진리를 포착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격화된 일족의 의미·복합 몸짓언명성(노동요, 춤추며 노래 부르는 경기, 어떤 민중의 춤)의 형식 그리고 전자의 몸짓적인 의식의 탈의미화된 형식으로 보이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시적인 것의, 음악적인 것의 혼합주의 그리고 의미의 몸짓적인 표현 안에서 일족의 현상을 성격화하는 것으로 그래서 탈의미화의 가언으로 채택하는 것은 이원적인(twofold) 이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신화적인 화술 안에 담겨진 신학의 비교할만한 전례론적(liturgical) 형식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족의 레벨에서 조우하게 된 문화적인 스테레오타입으로부터 시발함으로써, 우리는 또한 의미작용의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그 절차를 합성하려고 시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신화적인 것의 구체성(materiality)

시적인 대상의 두 종류의 동정화(identification, 신성한 언어의 영역 안에 발생하고 있는 어떤 것, 위격화된 신성의 현대적인 형식, 구조적인 조직 때문에 비교될 수 있는 그리고 의미론적인 투자의 집합적인 또는 개인적인 성질에 의해서만 분화된 대상)는 신성하게 만들어진 시의 어떤 양상을 분명하게 하는 현대시에 관한 우리의 지식을 사용하도록 허락한다. 우리는 이러한 언어의 아종적인 처리법 안에 존재하는 최초의 그 위치 안 시적인 언어의 아종적인 특이성이 시니피앙의 측면을 제공한다²³⁰⁾는 것을 알고 있다. 방산된 시의 형식 안에서, 라임, 리듬, 모운(assonance)²³⁰⁾은 현대시의 어떤 형식 안에서 그리고 신성하게 만들어진 시의 고전형식

230) 1. 모운(母韻, Assonance, 또는 Middle Rhyme)은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단어에서 강음절의 모음만이 일치하고 그 전후에 있는 자음을 달리 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pen-net, baby-lady, speech-green"과 같은 것이다. 2. 두운(頭韻, Alliteration 또는 Head Rhyme)은 강음절이 모음 또는 동일한 자음으로 시작되는 현상을 말한다. 가령 "mother-months-meadow, lisp-leaves, ripple-rain"과 같은 것이다. 3. 자운(子韻, Consonance)은 "mile-till, fate-write"와

안에서 극도의 밀집상태로 나타남으로써 표현조직의 분산된 원소로 단순하게 존재한다. 이렇게 경계가 분명한 경우, 시니피앙의 시적인 아티클레이션은 시니피에의 그것과 함께 상호관계로 존재하는 그리고 후자와 동차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구조의 세트에 의해 정의된다. 따라서 시적인 언어는 언어 기호(signs)의 독단적인 성질로부터 그 자신을 자유롭게 시도하는, 그리고 의성어의 기호 또는 인간이 극도에 달해 외치는 것의 기호의 그것처럼 본래의 독창적인 동기를 되찾는, 파퓰의 아중적인 조직처럼 보인다. 시니피앙을 인치하고 있는 따라서 그것의 시니피에를 끌어들이고 있는 이것은, 언어 그 자체로서의 기호(signs)와 신호등과 같은 상징기호(symbol)를 초월하여, 언어의 구체성을 되찾는, 그리고 그 수용이 진실의 인상 또는 발화된 것의 실재성을 창조하고 있는 것의 의미효과를 선택하는 것과 관련되고 있는 한, 시적인 담

같이 어미의 자음만이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4. 각운(脚韻, Rhyme 또는 End Rhyme)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행말(verse end)에 있는 강음절의 모음 또는 “모음+자음”의 음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각운의 조건으로는 ① 모음끼리 혹은 “모음+자음”끼리 동일한 음을 가지며 ② 그 모음에 스트레스가 있으며 ③ 모음 앞의 자음은 서로 달라야 한다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각운을 완전각운(full or perfect rhyme), 그렇지 못한 것을 불완전각운(imperfect rhyme)이라고 한다. 5. Foot의 종류—① Iambus(약강조) ② Trochee(강약조) ③ Anapaest(약약강조) ④ Dactyl(강약약조). 6. Metre의 종류—① Monometre(1보격) ② Dimetre(2보격) ③ Trimetre(3보격) ④ Tetrametre(4보격) ⑤ Pentametre(5보격) ⑥ Hexametre(6보격) ⑦ Heptametre(7보격) ⑧ Octametre(8보격). 7. Stanza(連)의 종류—① Couplet(2행연) ② Tercet(3행연) ③ Quatrain(4행연)—a Elegiac Stanza b Ballard Stanza c Short Metre d Long Metre e In Memoriam Stanza f Omar Khayyam Stanza ④ Quintet(5행연) ⑤ Sestet(6행연) ⑥ Seven-line Stanza(7행연) ⑦ Octave(8행연) ⑧ Spenserian Stanza(9행연) ⑨ Ten-line Stanza(10행연) ⑩ Eleven-line Stanza(11행연) ⑪ Twelve-line Stanza(12행연) ⑫ Sonnet(14행시). —이것은 Stanza의 형식이 아니라 14행으로 완결된 하나의 시형식(poem-form)이다. 약강조 5보격으로 쓰이며, 리듬 도식과 시행의 분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a Italian Sonnet: 이것은 전반의 8행(octave)이 두 개의 4행연으로 분리되고 리듬 도식은 abba, abba와 같이 포옹운을 반복한다. 후반의 6행(sestet)도 두 개의 3행(tercet)으로 나뉘어지며, 리듬 도식은 cde cde 혹은 cdc cdc 기타 여러 가지 변조가 있을 수 있다. Thoms Wyatt가 처음으로 이태리에서 수입했다. b English Sonnet: 이것은 세 개의 4행연과 한 개의 2행연으로 구성되며 리듬 도식은 abab cdcd efef gg이다. 일명 Shakespearian sonnet이라고도 한다. c Spenserian Sonnet: 이것은 Shakespearian sonnet의 변형이며 E. Spenser가 사용하였기 때문에 생긴 명칭이다. 리듬 도식은 abab bcbc cdcd ee이다. 이밖에 Ode, Rondeau, Villanell, Triolet, Free verse 등이 있다. 8. Free verse: 음절수가 똑같지 않은 시구를 자유로 섞은 시를 “자유시구”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는 변화에 넘치는 움직이는 시라고 불리어진다. 병치된 여러 형태의 시구가 도저히 다른 시의 추종을 허용치 않는 움직임, 때로는 가속되고, 때로는 감속되는 움직임을 이 시에 부여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운율단위를 이처럼 섞는 것은 우연이나 변덕이 하는 일일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총체는 표현된 관념의 뉘앙스에 의하여 엄밀히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위험한 자유는 시인의 작업을 쉽게 하기는커녕 곤란을 차례차례 쌓아간다. 시인이 그 곤란을 극복하는데 성공했을 때, 즉 내용에 맞는 형식을 정확하게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을 때, 그럼으로써 그의 작업이 나타낼 수 있는 완벽성에 도달하는 것이다. (역주)

화의 주체에 의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상보적인·음악적인 또는 몸짓적인 표현의 첨가로 생산될 때, 언어의 의미작용 측면의 중복(duplication) 또는 3겹 한 벌(triplication)이 과률의 신빙성의, 즉 가장 가능성이 있는 유효성으로 검토되고 있는 신화적인·총체적인 대상을 부여하고 있는 그래서 진리 바로 그것인 커뮤니케이션의 이 확실성의, 이러한 환영을 반드시 그 위에 합체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일족적인 레벨일지라도 노래가 시의 거의 자연적인 성취로 나타나는지 아니 나타나는지, 그리고 무용과 함께 실제적으로 융합되는지 아니 되는지, 그 여부가 분명한 반면에,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의 형식 중의 하나로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의 형식인 것만은 아니다. 보편적으로 말해서 신화적인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은 인간존재의 의미생산 안에서 양의연동(兩儀連動, engagement)의 강력한 형식 중의 하나로 존재한다. 그것은 전체적인 인간 신체로 연기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주변 공간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확립할 수 있는 신체의 유동성에 사의를 표한다. 바로 이 사실에서 상보적인 차원 또는 근접학적인 차원이 유래된다. 봄이 오는 것에 대한 리투아니아의 노래 가운데 시적인 매력은 가급적 높게 흔들리며 햇대에 앉은 가수의 반복된 진동에 의해 보강되는 것으로 존재하든지, 또는 프로방스의 파랑돌(provençal farandole, 프로방스 지방의 시골 춤) 가운데, 울동적인 동작이 중단됨으로써, 인간의 고리가 단체상호 간의 공간의 총체성을 탐색하든지 그리고 신화적으로 그것을 전유하든지 하여간 어떻든지 간에, 의식적인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은 세계에 대한 인간존재의 관계로 나타난다.

데포르마시옹(deformation)²³¹의 응집성

시적인 언어의 또 다른 아종적인 특성(넓은 사회집단의 신성한 언어와 완전히 공유된 특성)은 자신을 표현하는데 사용된 자연언어로부터 언외화자(enunciator)를 분리하는 것이며, 자진해서 조정된 것이며, 그래서 저 멀리 존재하는 것이다. 만약 어느 정도 신성한 언어가 일상 언어(예를 들어, 라틴어)보다 다른 언어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간격은 자연언어 그 자체의 응집적인 데포르마

231) deformation: ① 모양을 망침; 개악. ② 기형, 불구; 변형; 데포르마시옹. (역주)

시용으로 매우 흔하게 목격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신성한 언어가 이동방목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데 사용된다고 하면, 그때 그것은 일상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관계로 왜곡되어 표현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이것은 16세기에 왜 엑소시스트에 관한 보고서가 악마의 담화로 고찰될 수 있는 완벽한 음성학으로 끝났는가를 설명하는 것 같다. 오늘날 우리에게 더 가까운 것은, 악마가 세르토에 의해 연구된 루덩의 귀신들린 부인을 통해서 언급할 때,²³²⁾ 그 부인이 상스런 라틴어로 그들 자신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게다가 그들의 담화는 동물적인(즉, 인간이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에 의해 함체된다. 그것은 곡예사가 인간이상, 즉 초인의 의미를 시도하고 있는, 반면에 어릿광대가 인간이하를 생산함으로써 카운터포인트(counterpoint)²³³⁾로 기여하고 있는, 서커스의 유의미·복합 몸짓언명성(옛날의 유희)을 위한 진리를 포착한다.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스포츠 우승자의 명예가, 반신반인(半神半人)의 특권계급의 기초가 발생되어 제공되었던 절대가치의 지위를 승인했던 인간신체의 한계를 초월하고 있는, 바로 그것으로 발생된 새로운 몸짓적인 의식과 관련된다고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발언결정의 원칙, 더 엄밀히 말해서 발언 어조(tone)의 변이가 대중가요의 분급(分級, classification) 안에서 또 다른 기준(멜로디의, 함수의) 간에 타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단계가 무엇인지 질문할 수 있는 바로 이러한 투시도법으로부터 유래한다.

우리는 가장 최근에 나타난 당해 데포르마시옹 중의 하나로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리듬에 의해 도입된 시니피앙의 데포르마시옹에 대해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루마니아의 발라드와 마찬가지로 도곤어 찬송가(Dogon hymns)²³⁴⁾의 찬양대가 강약(accentuation)의 규칙과 자연언어의 억양(intonation)과 반대

232) Les Posédés de Loudon, July 1970.

233) counterpoint: ① 대위법; 다성(多聲) 음악(polyphony); 대위 선율. ② 대조적인 요소; 대위적 수법(문학 등의); 싱크페이션(syncopation). (역주)

234) Dogon hymns: 도곤어 찬송가. 도곤에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있어, 프랑스어 찬송가를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여 부르는데(예를 들어, "Mine eyes have seen the glory"), 프랑스어와는 강약과 억양이 다르기 때문에 의미의 왜곡이 생긴다. dogon: 서아프리카 말리에 거주하는 종족. 인구 약 22만. 언어적·문화적으로 볼타 제족(諸族)에 속하며, 복잡한 우주발생론이나 추상적 개념을 지닌 독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다. 생업은 조·벼·수수 중심으로 하는 곡물류 재배이고, 금속·가죽을 취급하는 기술자가 특수계급을 이루고 있다. 사회제도는 부계(父系)의 씨족외혼제(氏族外婚制)로 수개의 대가족이 모여 촌을 구성하며, 수개의 촌이 집합하여 지방을 형성하고 있어 '방'이 가장 큰 규모의 정치조직이다. 각 지방에는 '호곤'이라 부르는 종교적 지도자가

의 음악적인 리듬을 부과함으로써, 동일한 왜곡절차가 사용되는 것에 대해 한 마디 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는 시니피앙의 데포르마시옹이 본래 멸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고찰되지만, 오로지 어조가 강한 긍정이 될지도 모르는 무용에 의해 배경음악처럼 강조된 그래서 리드미컬한 부수지물의 제2 단계의 의미작용을 하고 있는 조직을 새로운 응집성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그 시도로 제안함으로써 그 이상의 이러한 단계를 획득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시의 멜로디의 총체적인 양상으로 고찰할 때, 그리고 그것의 리드미컬한 표면상의 양상 바로 그것으로만 고찰하지 않을 때, 진리로 포착된다. 시행(verse) 조직의 레벨에서, 그리고 리드미컬한 도식이 그것을 성격화하고 있는 것과 함께하고 있는 연연(conjunction)에서, 스페인의 대중적인 시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음률의 고저에 따라 모음변이가 만들어진 반복된 모음변화의 도식의 존재자를 발휘한 것 같다. 이러한 도식은 변화가 많은 구조적인 목록에 따라 우리가 그들 각 목록의 개별적인 주연(周延)²³⁵과 동정하도록 할 수 있다. 게다가 만약 이러한 유형의 연구가 멜로디의 도식(시의 그리고 음악의)과 리드미컬한 도식(시의 그리고 음악의) 사이의 보다 더 확실한 상호관계를 확립함으로써, 최초의 결과로 입증된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 전체적인·시적인 현상을 어느 날 보다 더 좋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시적인 언어의 새로운 지배원리의 데포르메(deforming)와 규정(regulating) 양쪽을 선택함으로써, 이러한 방식으로 후렴(반복구, refrain)의 문제는 다양하고 특이한 영광(靈光, light)을 선택한다. 포크송의 탈의미화(desemantization)와 단어의 치환성(substitutability) 때문에, 바로 그 판독의 난해성(illegibility) 때문에, 그 후렴은 망각된·신성한 노래의 멜로디적인 그리고 리드미컬한 도식의 가능한 후견인으로 나타난다.

집합적인 효험(efficacy)

있고, 그 위에 전체로서의 최고 '호곤'이 한 사람 있다. 이들은 창세신화와 전설을 비롯하여 60년에 1번씩 행해지는 '시기'라고 하는 대조상제사(大祖上祭祀)·의례(儀禮) 등을 거행함으로써 종교적 역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까지 하고 있다. 또한 선·악을 인격화하여 자연계의 대상을 유별화(類別化)하고, 전통적인 가면(假面)·조각·회화도 많이 전승하고 있다. (역주)

²³⁵ geographic distribution: 직역하면, "지리학적 분포"가 되겠지만, 여기서는 "각 목록의 개별적인 주연(周延)"을 의미한다. (역주)

비록 우리가 표현의 몇몇 언어를 통합하고 있는, 그리고 제2의 구조적인 조직(다소간 시니피앙의 재현과 초과부과지물에 의해 합체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중적인 특이성 안에서 정의된, 신화적인 대상을 복합적인 대상의 발생으로 시도하고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는 예를 들어 빈 사람들의(Viennese) 오페레타로부터 결혼식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여전히 고찰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유능한 머니플레이터(manipulator)²³⁶가 코믹 오페라 제작과 라이벌인 포크 쇼를 훌륭하게 잘 상연하여 성공했기 때문에 한 걸 더 다루기 힘든 괴짜(case)로 존재하는 것과 같다.

사실 이것은 이러한 종류의 집합적인 민중기호의 “민중화(folklorization)”가 에스노-기호학적인 대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존재한다. 관객의 현존재는 그 본래의 함수로부터 기호학적인 실행(doing)으로 전환하며, 그리고 예기의 대상을 만들음으로써, 이러한 실행의 진정한 주체를 훌륭한 연기자(a bad actor)로 변형한다.

기호학적인 능동성이 커뮤니케이션의 목류로 존재하고, “발신자 vs 수신자” 사이에 정위되는 한, 신화적인 지령 또는 금지의 명령(charge)은 필연적으로 발신자 쪽에 존재한다. 신성한 노래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 “진리”는 인간 일반의 청자에게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 신화적인 수신자에게 거는 것이며, 종종 그것과 함께 계약적인·응축적인 연결을 확립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그것은 특히 발생된 다시 말해서 명백한 궁극성(finality)을 가지고 있는 신화적인 실행의 형식 안에 존재한다. 그것이 실제적인 실행(예를 들어, 소백이 잘 자라도록 기원하는 의식의 노래)의 신화적인 부수지물의 문제로 존재하든지 아니 하든지 하여간 어떻든지 간에 기호학적인 능동성은 단지 단순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만드는 것(making-to-see)”이 아니라 “실행하기 위하여 만드는 것(making-to-do)”으로 존재한다. 커뮤니케이션 또는 실행은 진리(true)의 메시지 또는 궁극성이 된 프로그램으로서의 신화적인 행위는 항상 효과적인 작용으로 정의된다.

시가 암송되고, 음악이 들리고 발레가 보이는, 그 사회기호학적인 화맥 안에 개성적인 것으로 정위된 것의 수동적인, 감수성이 예민한 애티튜드와는 역으로, 민중과 에스노-기호학적인 대상 사이의 관계는 참여(participation)의 일

236) manipulator: 1. 손으로 교묘히 다루는 사람; 조종자. 2. 개관자(改竄者), 속이는 사람. 3. 시세를 조작하는 사람. 4. 머니플레이터(방사성 물질 등 위험물을 다루는 기계 장치). (역주)

중으로 존재한다. 능동성의 이러한 유형의 최초의 효과는 어군 안에서 개인적인 것을 통합하며, 사회적인 어군을 집합적인 주체로 확립한다. 우리는 에스노-기호학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정의된 사회집단이 강력하게 응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예를 들어 프랑스 사회집단과 같은 거시사회가 오로지 2개의 아종적인 실례 안에서만 존속된 집단의 노래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그리 놀라지 않아도 된다. 유치원에서의 사회생활은 최초로 경험되는 것이며, 군대에서의 얼마간 개인적인 것은 사회적인 궁극성을 가지고 있는 기준에 종속된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의 지극히 효과적인 사회체계는 유럽의 에스놀로지에 관심이 있는 그래서 변화가 많은 민중표출의 기초가 되고 있는 유럽문화의 독자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 같다.

역자 후기

—한국문학의 판단중지(Epoche)를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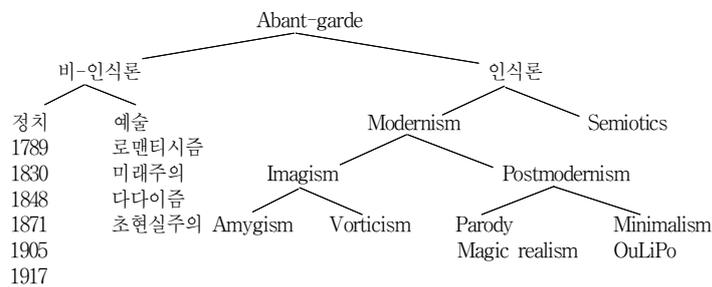
1898년, 이승만의 신체시 “고목가”로부터 출발한 한국의 현대문학(Contemporary Korean Literature)이 110년을 넘어서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학은 아직도 “자유시(Free verse)”를 현대시(modern poem)의 절대조건으로 믿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자유시는 Elegiac Stanza, Ballad Stanza, Short Metre, Long Metre, Ode, Rondeau, Villanell, Triolet, Sonnet, Blank verse 등과 같은 시형식 중의 일종에 불과할 뿐이며, 또한 이것은 현대에 불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엘리자베스 조(The Age of Elizabeth, 1558~1603; 셰익스피어 활동시기)의 서정시와 트루바두르(troubadour)²³⁷의 서정소곡과 그리스의 합창곡, 그리고 시편(The Book of Psalms)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고정관념부터 깨지 않으면 안 된다. 모더니티(modernity)는 시형식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방가르드(Avant-garde)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비-인식론적인 선전(propagander)과 선동(agitation), 은유와 같은 수사의 방식으로 모더니티에 대해 외쳐대고 있지만, 그들의 외침은 2가지 관점에서 비판을 면치 못한다. 첫째, 정치적으로는 민족주의의 자폐성이 그것이다. 자폐성은 주변의 관점을 살피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관철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민족문학의 우월성을 주장하지만, 이것은 칼날의 양면성과 같은 것이어서, 요리를 하거나 방어의 수단으로 사용될 때는 유용하지만, 타인이나 타민족을 공격하는데 사용되면 살인 무기가 된다. 나치즘, 파시즘, 군국주의, 시오니즘, 테러리즘 등이 그것의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극단적 민족주의가 아니더라도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 차알스 부르봉의 복고왕조를 쓰러뜨린 1830년의 7월 혁명, 선거권 확대의 요구를 관철시키며 루이 필리프(Louis Philippe)의 정권을 무너뜨린 1848년의 2월 혁명, 1871년의 파리 코뮌, 1905년의 실패한 러시아 혁명, 1917년의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쿠데타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등을 통해 생산된, 이데올로기가 직접적으로 표출된, 양단논법의 문학작품이 모더니티를 보

237) troubadour: 서정(은유) 시인. 11~14세기 무렵에 주로 프랑스 남부에서 활약함.

유하지 못했던 것을, 선전·선동·은유가 아니더라도 주사(主辭)와 빈사(賓辭) 모두가 드러난 진리명제의 리얼리즘이었다는 것을, 한국문학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Maksim Gorky의 작품 “밀바닥” 등은 볼셰비키·레닌·스탈린주의가 아니라 제1극화의 마르크스주의 리얼리즘의 작품. 정치적으로는 Lenin 그리고 원래 멘셰비키였으나 레닌의 쿠데타에 동조했던 Trotsky와도 다르게 분파한 Stalin·Zhdanov와 동조하고 있다). 물론 몽타주 기법을 채용한 세르게이 아이젠슈타인(Sergei M. Eisenstein, 1898~1948)의 영화 “전함 포템킨”이 있긴 하지만, 이는 몽타주의 인위성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의 발설을 억제하고 객관성을 실현하면서도 그 제1극화의 마르크스주의 리얼리즘을 능가하는 제2극화의 맥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예외가 될 것이다.



둘째, 예술에서의 로맨티시즘, 미래주의, 다다이즘, 초현실주의의 환상과 파괴성을 아방가르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로맨티시즘의 경우 흄(T. E. Hulme)에 의해 이미 부정되었고, 1910년대~1920년대 초까지 성행했던 후자의 경우, 다시 1950년대에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성행한 바 있지만, 이는 전자의 반복 또는 퇴행에 지나지 않은 것이며, 특히 그레마스(Algirdas Julien Greimas)에 의해 정신분열 증세라고 하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칸트(I. Kant), 헤겔(G. W. F. Hegel), 후설(E. Husserl)로 이어지는 인식론은 불확실성²³⁸⁾을 추구하는 현대과학, 초월논리학, 르네 톰(René Thom)의 파국이

238) 일리아 프리고진(Ilya Prigogine; 1917~2003)의 「확실성의 종말(LA FIN DES CERTITUDES)」을 참조하라. 그는 모스크바 태생으로 벨기에 브뤼셀의 브뤼셀 자유대학

론(catastrophe theory)과 조지 불(George Boole)의 수리논리학의 기호체계인 Boolean algebra(불 대수) 이론 등의 현대수학을 포섭하면서 트라이앵글과 같은 최고 정점의 상위어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것의 하위어로는 모더니즘과 기호학(semiotics; semiology는 전자의 하위개념이다)으로 분할된다.

먼저 모더니즘의 경우, 이미지즘과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분할되고, 이미지즘은 "Amygism(Amy Lowell)"과 "Vorticism(Ezra Pound)"으로 분할된다.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 둘 다 중요시했던 에즈러 파운드(Ezra Pound)는 이미지즘이 에이미 로우얼(Amy Lowell)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차츰 정적인 로맨티시즘의 복귀로 흐르게 되자, 이러한 현상을 "에이미지즘(Amygism)"이라고 비난하며 이미지즘운동과 결별해 버렸다.

에즈러 파운드의 경우, "시는 산문처럼 문법에 맞게 정확하게 쓰여야만 한다. 그 언어는 고조된 긴장(단순성)에 의해 절약된 파울로부터 조금이라도 일탈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정제된 언어여만 한다. 거기에는 독서로 배워 발음이 잘 안 되는 말이 있어서는 안 되며, 완곡법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전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모파상의 훌륭한 산문처럼 단순하여야 하며, 스타달처럼 견고하여야만 한다. 거기에는 감탄사적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벗어나 달아나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 부여된 말은 어리짐작의 빗땀으로 완성할 수 없으며, 이것은 말의 1차 개념(intention)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산문처럼 단순해야 한다고 해서 운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키타가와 후유히코(北川冬彦, 1900~1990)의 경우 이 언급을 오해하여 실제로 산문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한국의 경우도 이에 동조하는 문인·학자들이 있다. 에즈러 파운드는 계속해서 "거기에는 상투적인 문구, 관용어구, 스테레오타입의 신문기사 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두 다리 걸친 형용사("ddled mosses dank; 축축한 혼탁한 이끼"와 같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미지즘은 "객관적인 것(미끄러짐이 없는 것, 직접적이고 명백한 것), 형용사의 고도한 사용이 없는 것, 실험을 허락하지 않는 은유가 없는 것, 솔직히 말하는 것"이라고 하고, "리듬에 있어서는 박절기(拍節器)의 시퀀스가 아닌, 음악적인 프레이즈(phrase, 화성에서 두 아티클레이션을 이음줄로 이은 것)의 시퀀스를 조직하는 것"이라고 하며, "상징주의자

(Université Libre de Bruxelles)에서 화학을 공부했다. 산일구조, 복잡계, 비가역성에 대한 연구로 유명하다. 1977년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들의 상징은 1, 2, 그리고 7과 같은 산술상의 숫자처럼, 고정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미지스트의 이미지는 대수학의 a, b, 그리고 x의 기호와 같은 변화무쌍한 의미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다.

그 후 이미지즘이 현실을 외면하고 예술을 위한 예술운동에 그치고 말았다고 비판하며 등장한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이다. 이는 다시 패러디와 매직리얼리즘, 그리고 미니멀리즘으로 분할된다. 패러디(parody)의 경우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Jorge Luis Borges)와 같은 작가가 있기는 하지만, 필자는 그 작가와 작품의 창의성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는 편에 속한다. 매직리얼리즘(magicrealism)의 경우, 권택영에 의하면,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고급화된 예술양식, 개인 감흥의 절제와 달련, 그리고 아직도 소설이 무언가 진지한 도덕(moral, 증거는 없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것, 즉 방향범주가 아닐까? —필자 주)을 전달하려 한다는 것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하며, 따라서 “긴즈버그와 친구였던 윌리엄 버로우의 「발가벗은 점심(The Naked Lunch), 1959」에서 섹스와 마약 등 환상적이고 에로틱한 세계를 저속한 어휘로 적나라하게 표출했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이 또한 초현실주의와 다른 것이 있는가? 문예사조는 유행과 같은 반복이나 퇴행이 아닐 것이다.

이제 미니멀리즘(Minimalism)과 올리포(OuLiPo)만 남게 되었다. 전자는 현대시의 시발점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포우(Edgar Allen Poe), 그리고 체호프(Anton Chekhov), 조이스(James Joyce), 사뮈엘 베케트(Samuel Beckett), 헤밍웨이(Ernest Hemingway), 해롤드 핀터(Harold pinter)와 같은 다양한 작가들로부터 추적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체호프가 포우의 효과의 원리와 공통된 이야기의 결말 또는 의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던 말, “연극의 무대와 같은 단편소설은 무대의 약속과 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다. 나의 직관은, 소설 또는 이야기의 결말에, 독자를 위하여 전체 작품의 인상을 교묘히 농축하여야만 한다.”고 한 그 말에 이어서, 1932년, 헤밍웨이는 이러한 소견이 성공적인 소설의 방법과 구성과 관련되고 있음을 피력했다.²³⁹⁾

239) Cynthia Whitney Hallett, 「Minimalism and Short Story-Raymond Carver, Amy Hempel, and Mary Robison」(New York: The Edwin Press, 1999) 참조.

만약 산문의 작가가 그 자신이 쓰고 있는 것에 대해,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생략할는지 모르는 것에 대해, 그리고 독자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면, 만약 작가가 진실로 충분히 알고 있다면, 작가가 충분히 진술했던 것만큼 강하게 이러한 것의 감정을 갖게 될 것이다. 빙산 운동의 장엄함은 물 위에 존재하는 것의 1/8이 아니라 물 아래의 8에 기인한다.

헤밍웨이가 여기서 토로하고 있는 “빙산의 일각(tip of iceberg)”의 효과, 그 갈등적 정서 상태와 의사소통하는 방식보다 더 많이 느끼는 그 기법에 대해, 에이미 험펠(Amy Hempel)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당신의 작품 안에 보고되지 않은 많은 경험이 실제적으로 페이지 위에 나타난 것보다 더 중요하다. 흔히 이야기의 정서적 초점은 기술되지 않은, 또는 이야기 안에 귀착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그 밑에 깔려있는 어떤 사건이다.” 그리고 신디아 휘트니 할렛(Cynthia Whitney Hallett) 또한 여기에 덧붙여 언급한다. “요컨대, 작가는 독자가 적어도 생략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주어져있는 것으로부터 추측하고 있는 어렵פות한 하나의 가능성을 갖도록 조심스러우면서도 충분히 그 빈공간의 틀을 어떻게 해서든지 짜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 언급된 모든 것 안에는 적어도 반영 또는 함축(비유적 어떤 형식)으로도 언급되지 못한 모든 것을 담아야 한다. 흔히 독자에게는 하찮은 일 또는 사건 같은 것으로서의 사실적인 보고로 여겨지는 것 같은 것으로 주어진다. 비록 최후의 변형이 외부의 실재성을 닮았을지라도, 그 표상적 방법은 단지 외면적으로 언급된 세부묘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일반적으로 미니멀리즘 또는 단편소설의 장인들은, 때로는 부연하고, 때로는 사라지게 하고, 때로는 변형시킬 줄 아는 창조적 재능을 공유한다. 그들은 외견상으로는 긴장 없이 의식적으로 확실한 직조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헤밍웨이의 “흰 코끼리 같은 언덕(Hills Like White Elephants),” 레이몬드 카버(Raymond Carver)의 “부탁이니 제발 조용히 해줘(Will You Please Be Quiet, Please?),” 그리고 “사랑에 대해 말할 때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What We Talk About When We Talk About Love)”와, 에이미 험펠(Amy Hempel)의 “알 졸슨(Al Jolson)이 묻힌 묘지에서(in the Cemetery Where Al Jolson is Buried)”와 “욕조 속에서(In a Tub),” 메어리 로비슨(Mary Robison)의 “연과 그림물감(Kite and Paint)”과 같은 단편소설에서, 그리고 사뫼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En attendant Godot),”

“숨소리(Breath)”와 해럴드 핀터의 “일터에서의 고충(The trouble in the Works)” 등의 희곡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의 미니멀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올리포(OuLiPo)의 경우, 1960년 11월 24일, 초형이상학(Pataphysique)의 조합(組合, the Collège)과 실험문학연구소(Séminaire de littérature expérimentale)의 타이틀을 단 분과위원회로 발족되었다. 그러나 두 번째 모임에서, 이 최초의 명칭은 슈미트(Albert-Marie Schmidt)의 제안에 의해 오늘날의 모습, “잠세적인(가능성의) 문학의 공동 작업실(Ouvroir de Littérature Potentielle),” 또는 “OuLiPo”로 바뀌었다. 그러나 그 아이디어는 소그룹이 9월에 국제문화센터 스리지-라-살(Cerisy-la-Salle)에서 레이몽 크노(Raymond Queneau) 작품의 토론을 위한 세미나에서 만났던 그때, 첫 번째 모임의 대략 두 달 전의 그때 나왔던 것이었다. 이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는 동안, 레이몽 크노와 프랑스와 르 리요네(François Le Lionnais)는 그 단체를 구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10년 동안, 올리포는 그룹으로서의 활동이 아주 미약했다. 분과위원회로서의 그들은 1961년에 그들의 작품을 초형이상학의 조합에 보고했다. 게다가 탕 멜레(Temps Mêlés, 프랑스인)는 1964년 올리포에 수익금을 기부했고, 벨기에 라디오는 올리포의 모임을 보도했다. 그러나 그 멤버들은 이 몇 해 동안 개인적으로 활동했었던 것이며, 전체로서의 그 그룹은 표현 일부의 선집인 잠세적인(가능성의) 문학(La Littérature Potentielle)의 출간과 함께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들에게서 주목되는 것은 그들 회원이 문인은 물론 수학자, 과학자, 엔지니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문학과 수학의 접목을 실험하는 사람들이라는 명칭이 붙기도 하였다. 따라서 창립 멤버 중의 한 사람인 장 레스퀴르(Jean Lescure)가 고안한 올리포의 기법 “N+7(프랑스어로는 “S+7”)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오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두 번째 방법은 이른바 <자동 전환 방법>으로서, “S+7”라고 명명한다. 이 방법은 어느 텍스트를 선정하여 그 텍스트의 명사들을 사전에 나오는 일곱 번째의 명사로 대체하여 전혀 다른 시 텍스트를 만드는 것이다(허정아, 불어불문학연구 제55집, 프랑스 현대시와 매체의 활용, P. 707).” 이 언급은 다음과 같은 자크 쥐웨(Jacques Jouet)의 언급과도 상당히 다르다.

“나는 시, 즉 기술적인 시를 쓰기 위하여, 침부된 질문(만약 그것을 이행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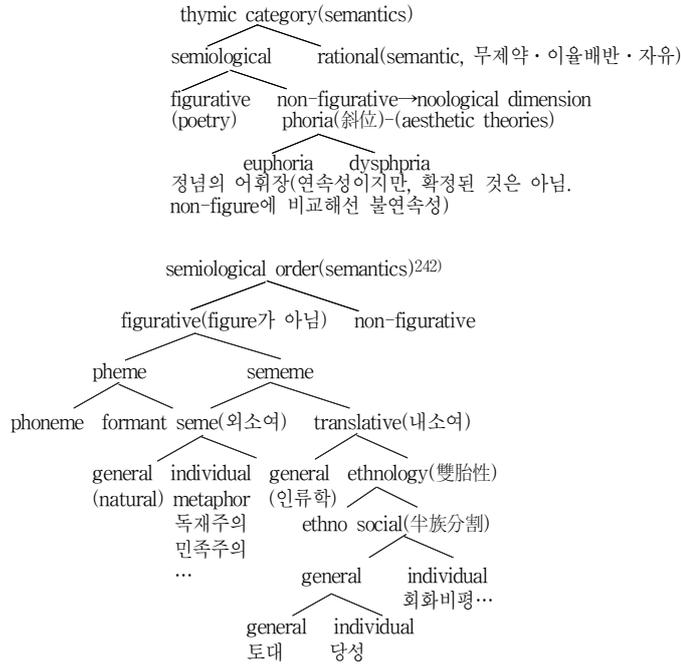
동의한다면)을 사용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정적인(객관적인) 것이 될 것이다. 즉 내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오직 객관적으로만 기술할 것이라고 한다. 즉, “빙산의 일각(tip of iceberg)”과 같은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관점은 에즈러 파운드가 언급한 객관성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며, 수학과와 접목이 아니라 르네 톰(René Thom, 1958년에 수학에 있어서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즈상을 수상했다)의 파괴이론(catastrophe theory), 조지 불(George Boole)의 불 대수(Boolean algebra), 쿠르트 괴델(Kurt Gödel)의 “형식적 공리계는 그 공리 자체와 그것의 부정어는 것도 증명될 수 없다는 하나의 명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그 정리와 같은 현대 수학과 논리, 과학에서의 바로 그 초수학·초월논리·불확실성과 같은 변수와 역설을 문학에서의 기법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에즈러 파운드는 vorticism에서 시에 대하여, “나는 내가 의미하는 것을 수학으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²⁴⁰)

이러한 맥락을 착각하고, 쿠르트 괴델(Kurt Gödel)의 정리를 앨런 매디슨 튜링(Alan Mathison Turing)은 컴퓨터 영역으로 확장시켜, 튜링 기계(Turing machine)라고 하는 이론적인 자동기계(이것은 초현실주의의 자동기술과도 다르다)를 발명했는데, 그 방법이 “N+7 machine”인 것이다.

컴퓨터는 칸트의 “무제약의 자유의지·이율배반·가상세계”가 지향적으로 구성해가는 관점, 즉 물자체가 수동적으로 표상(경험론적; variation)되지만 다시 연역적(합리론; invariant)으로 구성해가는 구성설(構成說)의 관점, 해결의 변증법적 운동의 관점, 그리고 후설의 판단중지와 동시에 구성해

240) 소용돌이파(Vorticism), 에즈러 파운드(Ezra Pound), 전 홍실 역, “우리는 데카르트, 또는 ‘해석 기하학’에 다가왔다. 공간은(사람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평면들로 구성된 형태를 다루고 있는지에 따라서) 둘 또는 세 개의 축에 의해 분리된 것으로 생각된다. 사람은 일련의 좌표에 의하여 점들을 이러한 축에 귀결시킨다. 언어가 주어질 때, 사람은 「실제로 창조할 수 있다」. 이리하여 우리는 $(x-a)^2+(y-b)^2=r^2$ 의 방정식이 원을 지배한다는 것을 배운다. 그것은 원이다. 그것은 어느 특수한 원이 아니다. 그것은 어떠한 원이며 모든 원이다. 그것은 원이 아닌 그 어느 것도 아니다. 그것은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벗어난 원이다. 그것은 공간과 시간으로부터의 해방 속에 완전 속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것이다. 수학은 해석학에 이르기 전까지는 시시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해석학에서 우리들은 형태를 다루는 새로운 방법을 접하게 된다. 이 방법으로 예술은 인생을 다룬다. 예술과 해석기하학 사이의 차이점은 소재의 차이에 불과하다. 예술은 인생과 인간 의식이 형태들과 숫자보다 더 복잡하고 재미있는 것에 비례해서 보다 재미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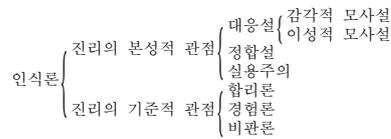
242) thymic category(방향적 범주): 덧차원의 반물질(反物質, antimatter)과 비교해 보라. 상대성이론에 의하면 어떤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 그 에너지는 $E=mc^2$ 이다. 그리고 물체가 움직이면 이 정지에너지에 운동에너지가 더해져야 하므로 에너지는 항상 mc^2 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따라서 디랙(Paul Adrian Maurice Dirac, 1902~1984) 방정식 $(i\gamma^\mu \partial_\mu - m)\psi = 0$ 을 풀 결과와 비교해 보면($E \geq mc^2$ 또는 $E \leq -mc^2$), 첫 번째 관계식은 상대성이론과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관계식인 $E \leq -mc^2$ 이다. 이에 의하면 전자의 에너지가 음수인 것도 가능해야 한다. 에너지가 음수라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리고 그냥 음수도 아니고 정지에너지에 음의 부호를 붙인 것보다 작아야만 한다니 무언가 잘못되었음이 분명하다.

$E = mc^2$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에	상대성이론과 일치
$E = 0$			
$E \leq -mc^2$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에	예상하지 못했던 음의 에너지
	디랙 방정식을 풀었을 때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보통사람이라면 여기서 포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디랙은 자신의 방정식이 수학적으로 너무 아름다워서 결코 틀릴 수가 없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음의 에너지에는 우리 우주의 깊은 비밀이 숨어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렇다면 디랙은 과연 이 음의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노트: 위의 도표는 아래의 도표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감성은 구조에서 이동하거나 초월한 것이 아니라 총체구조 안 현상계의 하위개념이며, 초월은 이성계가 현상계를 초월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총체구조를 초월하는 것은 아니다.²⁴³⁾

2. 우리의 일상생활은 인식을 전제로 한다. 길을 걷는데도 이것이 차도가 아니라 인도임을 알고 신호등을 식별하고 사람이나 차를 피하고 또 지금 걷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가를 알고 있다. 이런 여러 인식이 전제되지 않고는 단 한 가지 행동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는 아는 자와 알려지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다시 말해서 인식에는 인식의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식한다는 것은 주관이 객관 즉 대상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우리의 관심은 대상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관점을 대상으로부터 인식 자체로 옮길 수도 있다. 이러한 인식론은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이 대별한다(金麗壽·車仁錫·韓釜淑, 『哲學概論』(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85), pp. 5~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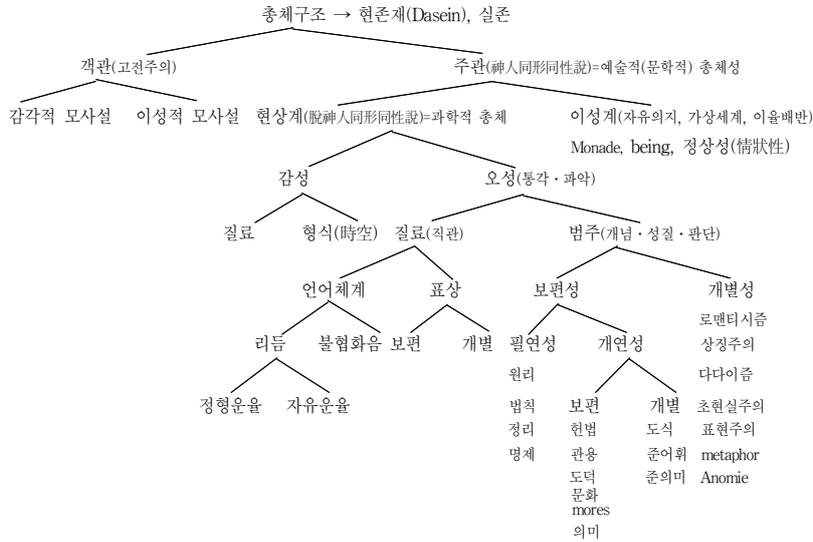
그러므로 근대성, 현대성, 또는 계몽이라는 용어로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모더니티의 문제를 이러한 맥락에서 천착해 본다면, 쉽게 그 매듭이 풀리

거기에서 발견한 우주의 비밀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비밀은 반물질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우선 준비 작업으로 파울리의 배타원리(Pauli's principle; 1924년 W. 파울리에 의해 발견된 법칙으로 다수의 전자를 포함하는 계에서 2개 이상의 전자가 같은 양자상태를 취하지 않는다는 법칙으로 배타율이라고도 한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원자의 전자껍질 구조 개념이 확립되었다. 남녀와 같은 초대칭을 상상하라)를 떠올려보자. 이에 의하면 전자는 한 상태에 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없다. 쉽게 말을 바꾸면 같은 위치에 여러 개의 전자가 모여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다. 사람 여러 명이 몸을 겹쳐 같은 장소에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만약 이게 가능하면 사람으로 딱딱 들어찬 만원 버스나 지하철에서 시달릴 이유도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전자에서부터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디랙이 알아낸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전 지식이 더 필요하다. 요점만 말한다면 전자가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낮은 에너지 상태가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면 거의 순식간에 그 낮은 에너지 상태로 떨어져버린다는 것이다. (무슨 얘긴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아주 대강 설명하면 공중 높은 곳에 떠 있는 공은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과 비슷하다) 그리고 처음과 나중의 에너지의 차이에 해당하는 빛을 내보낸다. 이것이 바로 불이 났을 때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보이는 원리이기도 하다. (가능하다면 재앙일 수도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상태의 역현상, 즉 방출이 아니라 반물질이 에너지를 획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물질의 진동처럼 물질과 반물질 간의 진동도 가능할까? 적어도 언어의 세계에서만은 그것이 가능한 것 같다. -김찬주, “반물질이 존재한다고?” 참조. (역주)

²⁴³⁾ 주 근옥, “시의 모더니티에 관한 일고,” 『호서문학』 통권 제33호(2004)와 “Ⅲ. 시의 모더니티에 대한 에포케와 탐색,” 『한국시 변동과정의 모더니티에 관한 연구』(서울: 시문학사, 2001), pp. 137~234. 참조.

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S+7”의 “7(seventh)”이라고 하는 것은 화성학(harmonics)의 제7음·이끄름(leading note)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의 음으로 이끌어가는 작용을 하는 음을 말하며 도움(導音)이라고도 한다. 으뜸음의 반음아래에 있어서 으뜸음을 이끌어내는 음이기도 하다. 특히 음계 중에서 중심이 되는 음을 향하여 위로 끌어가는 음을 상행이끄름(aufwärtsführendwe leitton)이라 한다. 그 음정은 일반적으로 반음이고, 서양의 장음계에서는 제7음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서, 7은 사전의 일곱 번째의 의미가 아니며, 컴퓨터가 결정하는 것도(See. [The N+7 Machine](#)) 아니고, 으뜸음을 이끄는 운음계의 일곱 번째 음조의 단계인 것이다(그레마스는 제5음·딸림음 [dominant]을 제7음과 같은 방식으로 인용하고 있다). 즉, 자연언어의 변형(variation)·길항작용(拮抗作用, antagonism)·2치화(二值化, binarization)·사위(斜位, phoria)의 의미를 말한다. 따라서 날자 변경선 상에서 양팔을 벌리고 서면 어제와 오늘이 하나의 몸체인 것과 같은 증명사(中名辭, mean)이면서도 대척점(對蹠點) 또는 N과 S 양극단의 한 극으로만 표출되는, 그러면서도 교류발전처럼 교류하는, 연동하는, 양끝이 접속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단혀 있는 데도 사실은 열려

있는 클라인의 항아리(Klein's bottle)와 같은, 뫼비우스의 띠(Möbius strip)처럼 꺾
짜 놀라게 하는, 귀납법과 연역법의 종합인 그레마스의 기호학·위의 도표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확실하면서도 불확실한 명제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 “실례; You haven't see it! No, I have. 즉, No=(Yes)”²⁴⁴

— $y=f(x) \rightarrow$ Ferdinand de Saussure(Semiology의 차원)

— $y=f(x^n) \rightarrow$ Algirdas Julien Greimas(Semiotics의 차원)

244) A. J. Greimas, Trans. by Daniel McDowell, Ronald Schleifer, and Alan Velie
『Structural Semantics』 (Lincoln and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83), pp. 242~
243. “다른 한편, 만약 금지(\overline{a})가 수락(a)의 부정형식이라고 한다면, 금지(\overline{a})를 부정하는 위반
($\overline{\overline{a}}$)과 상응하는 수락(a) 또한 전적으로 부정적인 것이 아닐 것이지만(왜냐하면, \overline{a} 도 $\overline{\overline{a}}$ 를 부정
하고, a도 $\overline{\overline{a}}$ 를 부정하고 있으니까, 즉 $\overline{\overline{a}}=a$ 이니까-역주), 그러나 그것은 금지(\overline{a})와는 역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의지(will)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금지(prohibition)의 연기일 것이다. 그러므
로 금지(\overline{a})이면서도 지령(비a)인 위반($\overline{\overline{a}}$)은 애매한 틈이다(비a \neq $\overline{\overline{a}}$ 임에도 불구하고, $\overline{\overline{a}}$ 도 \overline{a}
를 부정하고, a도 $\overline{\overline{a}}$ 를 부정하고 있어, 비a= $\overline{\overline{a}}$ 가 되므로-역주).

a. 수락(a)과의 관계에서, 금지(\overline{a})는 수락의 부정이다.

비a(지령; 수락의 부정) vs $\overline{\overline{a}}$ (금지)

b. 금지(interdiction)와의 관계에서, 위반($\overline{\overline{a}}$)은 지령(비a; 행동하도록 하는 명령)의 부정임과
동시에, 부정의 부정이다(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 즉 금지 즉 \overline{a} 의 부정, $\overline{\overline{a}}$ 의 부정). 즉 다
음과 같다.

$\overline{\overline{a}}$ vs $-(\overline{a})$

다시 말해서, 부정의 부정은 긍정의 유형이다(긍정적 no와 비교하라: “You haven't see it!”
“No, I have. 즉, 표기는 No지만 내재적으로는 yes”).

$-(\overline{\overline{a}}) = a$

이것은 위반($\overline{\overline{a}}$)이 지령(비a)의 유형이라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비록 첫눈에 역설적인 것으
로 보일지라도, 그 환원이 행위주를 고려함 없이 오로지 함수의 변형에 그 자신을 제한하는 한
에 있어서는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행위주에 대한 고찰은 역설을 명료하게 밝힌다. 사실 위반
($\overline{\overline{a}}$)은 지령(비a)이며, 그것은 발신자의 부정을 포함하고 그를 위하여 수신자를 대신한다. 사실
지령의 함수 안에서 발신자와 수신자의 동일화는 의지의, 자유의지적인 연기의 바로 그 정의를
구성하는 것 같다.”를 참조하고, a에 대해서는 $A(\frac{a(\text{수락})}{\text{비a}(\text{지령})})$ vs $\overline{A}(\frac{\overline{\overline{a}}(\text{위반})}{\text{비a}(\text{금지})})$ 를 참조하라.

함수(function)와 비교해 보라.²⁴⁵⁾

괄호가 쳐지지 않은 명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는 진리이고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리얼리티가 있는 것이며, 리얼리즘의 문학은 바로 이러한 명제를 충실히 추종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괄호가 쳐진 명제 “소크라테스는(죽는다).”는 불확실하면서도 확실하다. 왜냐하면 비록 주사(主辭) “소크라테스는”만 발화되고 ”賓사(賓辭) “(죽는다)”는 괄호가 치어져 발화가 안 되어 있을지라도, 대전제와 소전제에 의해 그것의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Semiology” 차원의 이러한 외소어와 내소어의 2중 결합(dual syntagme; 이것은 사회적·제약의 제1극화이다)과 그 위에 방향범주(thymic category)를 더한 3중 결합(triple syntagme; 이것은 개인적·무제약의 제2극화이다)을 인식론 차원의 “Semiotics”라고 한다. 이러한 결합의 논리가 작품으로 표출될 때, 그리고 Vorticism이 놓쳤던 부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포착할 때, 포스트모더니즘이 되는 것이며, 이것을 대표하는 것이 미니멀리즘과 올리포인 것이다.

따라서 미니멀리즘과 올리포는 동정(同定) 되는 것으로서, 결국 그레마스의 기호학(Semiotics)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로널드 Schlaifer(Ronald Schleifer)가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의 「언어의 감옥(Prison-House of Language)」은 사실상 그레마스로서 시작해서 그로 끝을 맺고, 조나단 컬러(Jonathan Culler)의 「구조주의 시학(Structuralist Poetics)」은 주요한 장을 모두 의미론으로 충당한다.”고 한 언급과, “그레마스는 뜻대로 주목력거릴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구조주의 이론가 중의 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다.”고 한 언급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하여 그의 「구조의미론(Structural Semantics: An Attempt at a Method)」과 「의미론선집(On Meaning-Selected Writings in Semiotic Theory)」 등의 기호학이, 한국 문학과 언어학은 물론 모든 예술과 학문의 장르에 걸쳐 판단중지(Epoché)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245) $y=f(x)$; 변수 x 와 y 사이에 x 의 값이 정해지면 따라서 y 의 값이 정해진다는 관계가 있을 때, y 는 x 의 함수라고 한다. 또 x 를 독립변수, y 를 종속변수라고 하는데, 이것은 P. G. L. 디리클레에 의한 정의이다. 함수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G. W. F. 라이프니츠였다. 함수라는 개념은 수학의 역사와 더불어 존재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역주)



발표지면

서문/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
한비문학 통권 27호(2008. 03. 03)

영역자 서문/폴 J. 페롱(Paul J. Perron)
한비문학 통권 28호(2008. 04. 05)

제1장 비교신화학
한비문학 통권 29호(2008. 05. 05)
한비문학 통권 30호(2008. 06. 05)
한비문학 통권 31호(2008. 07. 05)
한비문학 통권 32호(2008. 08. 05)

제2장 자연세계의 기호학에 대하여
한비문학 통권 217호(2008. 09. 25)
한비문학 통권 218호(2008. 10. 25)
한비문학 통권 219호(2008. 11. 25)

제3장 기호학적 강제의 상호작용
모던포엠 통권 70호(2009. 07. 01)

제4장 화술문법의 원소
모던포엠 통권 69호(2009. 06. 01)

제5장 화술적인 기호학의 문제: 가치의 대상
모던포엠 통권 71호(2009. 08. 01)
모던포엠 통권 72호(2009. 09. 01)

제6장 행위주, 연기자, 그리고 격상(figure)
모던포엠 통권 68호(2009. 05. 01)

제7장 양태성의 이론에 대하여
흔脈문학 통권 239호(2010. 07. 25)

제8장 존재(내관, being)의 양태화에 대하여
흔脈문학 통권 231호(2009. 11. 25)

제9장 분노에 대하여: 어휘의 의미론적 연구
문학마을 통권 41호(2009. 겨울호)

제10장 지식(knowing)과 신앙(believing): 진기한 인식의 우주
다시올문학 통권 9호(2010. 봄호)

제11장 기호학과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흔脈문학 통권 235호(2010. 03. 25)

제12장 사회언어학에서의 이론적 모델에 대하여
흔脈문학 통권 232호(2009. 12. 25)

제13장 사건기록(eventemential)의 역사에 대하여
문학마을 통권 42호(2010. 봄호)

제14장 에스노-기호학의 대상에 대한 반성
다시올문학 통권 8호(2009. 겨울호)

역자 후기
—한국문학의 판단중지를 위하여
흔脈文學 통권 231호(2009. 11. 25)

